

創刊號

海州崔氏宗誌

特輯：文憲公崔冲誕生1千年紀念심포지엄



寫眞은 文憲書院이며 海州西쪽 約6km地點의 神光寺川 石岸에 있음.
(文憲公과 文和公을 奉享하고 있음)

海州崔氏大宗會



文憲公肖像

刊行辭	宗誌編纂委員長	台鎬	18
致辭	大宗會長	在衡	22
祝辭	文憲公紀念事業會長	李崇寧	27
激勵辭	大宗會顧問	秉權	30

崔冲研究論叢을 꾸미고 나서	朴性鳳	32
海州崔氏家藏		37

特輯 崔冲誕生1千周年紀念심포지엄

崔冲의 私學과 高麗儒學	金忠烈	62
韓國私學의 傳統과 崔冲의 位置	孫仁銖	65
崔冲의 人間像과 私學12徒	朴性鳳	67
朱子學以前의 性理學導入問題	尹絲淳	71
崔冲의 詩文과 性格	高敬植	73
高麗時代의 海州崔氏家門分析	朴龍雲	76
韓國儒學史上 崔冲의 位置	李乙浩	78
崔冲의 思想과 儒教政治倫理	李熙德	81
綜合討論	整理 雲植	84

民族의 스승 文憲公 - 崔冲研究論叢을 보고	承君	139
-------------------------	----	-----

論 海東孔子 崔冲의 文學을 살핌	康賢	107
壇 萬理公의 「언문반대상소」의 실상	起鎬	122
艮齋公과 御書閣	在焜	214
文憲影堂의 祭考	在夏	207
略 忠毅公 慶會將軍의 爲國忠節	洙東	143
傳 慶會將軍 後室인 義岩 論介의 忠節		163

- 各系派 및 地方宗親會 ① -

校理公派	愚	173	承旨公派	鍾雙	176
進士公派	道植	179	副司果公派	晷寓	181
全南支會	鍾雙	183	嶺南支會	用根	187
禮山支會	翼列	189			

《集姓村》①

先祖의 安息處 佛智..... 在 夏 196	佐郎公一部後孫들의 集姓村... 泰 峯 197
佐郎公派 後孫의 龜溪洞...晚 秀 201	承旨公의 後孫과 이천동...泰 峯 206
懸監公派 承旨公의 後孫들...德 潛 202	

列聖朝受教..... 在 夏 221

錦 繡 文 苑

나는 누구인가..... 吉 堧 262	省 墓..... 滿 澤 268
請佛往世..... 鶴 璇 269	나와 너..... 雲 植 271
墓碑除幕..... 德 潛 273	風水地理說과 科學..... 泰 峯 275

漢 詩 - 文憲公 追慕詩 -

海東影堂.....278	文憲公誕辰 千周年頌..... 熙 燮 284
賀文憲公 誕辰千周年..... 光 鍾 283	追慕 和順影堂..... 仁 燮 285

書院, 影堂 및 先祖의 遺蹟探訪 ①

天安奉先弘慶寺 碑碣..... 愚 225	原州居頓寺址.....康 賢 231
東溪祠記..... 台 鎬 242	佛智의 文憲影堂..... 在 焜 245
大東影堂..... 泰 峯 247	三賢影堂奉審記..... 炳 弼 250
海東影堂..... 禮山支會 252	茶山影堂..... 和順宗會 253
魯東書院..... 令 宇 254	明谷書院..... 在 新 256
仰巢亭..... 道 植 257	朝鮮烈婦海州崔氏表蹟碑... 南 亨 259

《附 錄》

大宗會 會則..... 287
名 行 圖..... 292
大宗會 任員名單..... 295
運 營 委 員..... 305
地域別 宗親家口 分布狀況..... 310

派系圖..... 卷末

宗親住所錄..... 313



文和公肖像



文憲公 崔沖紀念事業會 創立總會 光景



文憲公誕生 1 千年紀念 심포지엄 主題發表 教授들



寫真說明：(上)은 佛智文憲影堂 全景, (下)는 本堂 前面
(懸板은 申夏均氏의 揮毫임)



文憲公과 文和公의 影幀을 奉安한 魯東書院(洪川)



魯東書院의 懸板(500年前이라는 札이 보임)



文憲公, 文和公, 文淸公, 副提學(萬理), 湖隱(遇)公의 影幀을 奉安한 明谷書院과 懸板(下) (全南 康津)





文憲公 影幀을 奉安한 海東影堂 全景 (忠南 唐津) (右, 孝子, 烈女碑)



海東影堂 正門

茶山影堂



文憲公、文和公、文清公의 影幀을 奉安한 茶山影堂 및 懸板
(上)과 境内의 文憲公碑(下)



文憲公, 文和公, 石幹(天範)公의 影幀을 奉安한 三賢影堂本堂(上) 과 正門(下)
(全南 潭陽)





文憲公, 文和公, 文景公의 影幀을 奉安한 大東影堂 全景(慶北 迎日)



晩湖亭舍(本堂 建築前 影幀을 모시던 舍屋)



佛智의 御書閣(本文 214面 参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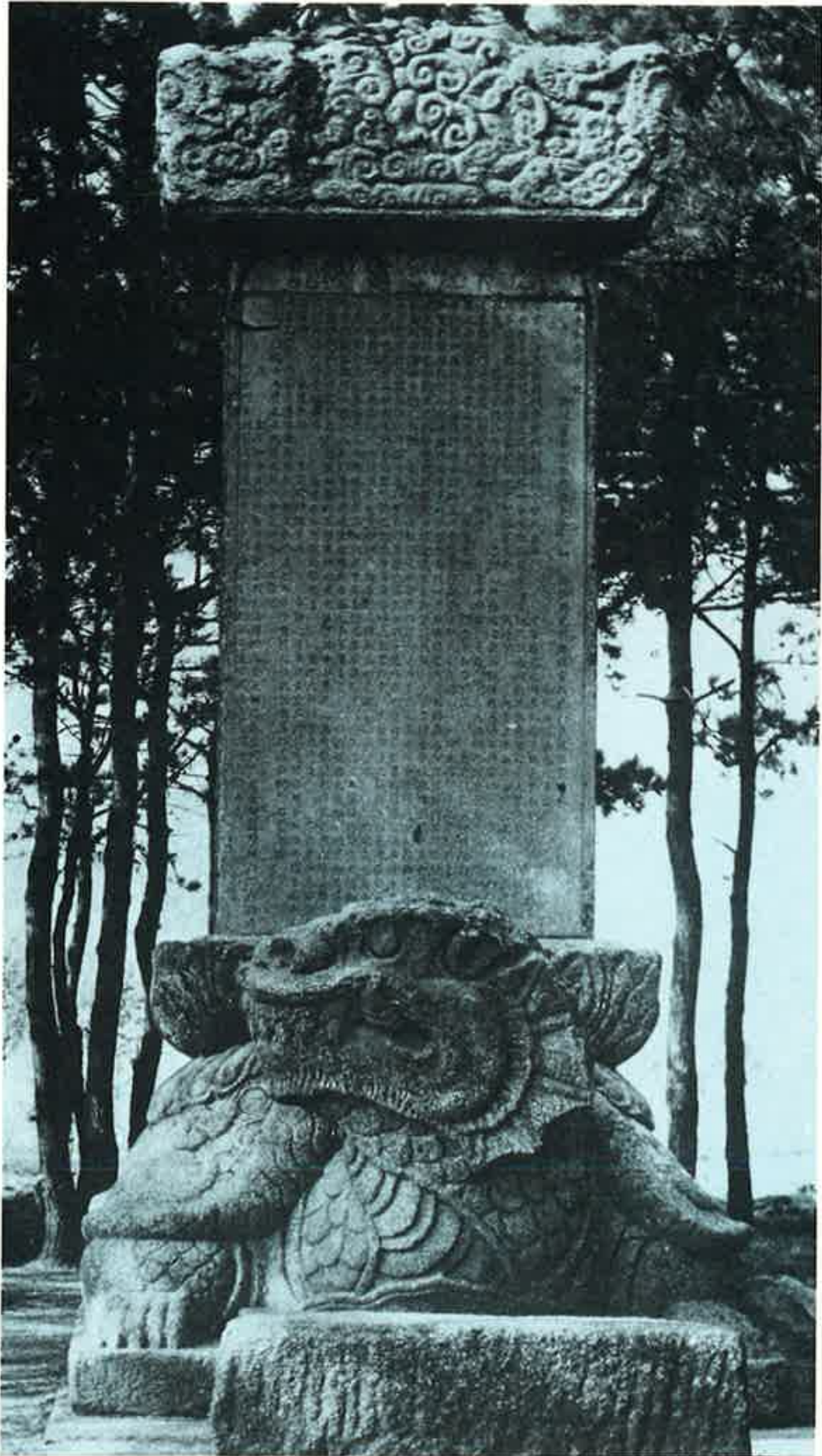
全南 靈岩의 東溪祠(本文 257面 參照)



慶北 聞慶의 仰巢亭(本文 257面 參照)

壬亂의 勇將 慶會將軍의 位牌를 모신 褒忠祠와 將軍의 生
家앞에 있는 高士亭(全南和順) (本文一四三面參照)





奉先 弘慶寺 碑碣(本文 225面 参照)

創刊號 (1986, 丙寅年)

海州崔氏宗誌

家

海州崔氏大宗會

따뜻한 모임의
母體가 되길

各地에
離散된
宗親들의



台 鎬

(宗誌編纂委員長)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꺾이지 않고 줄기와 가지가 무성하여 꽃피고 열매맺음이 오래오래 건실할 것이요,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마침내 냇물을 이루어 넓은 바다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이 평범한 진리가 오늘날에 와서 흐트러져서 눈 앞에 보이는 꽃과 열매에만 눈이 어두워 뿌리를 간직하고 복돋우는 노력을 하지 않고, 변화무쌍한 현실에만 얽매어 살거나, 넓은 강과 바다의 시원함만 즐기고, 그 근원이 되는 샘물을 고이 간직하는 자연보호의 정신을 잃고 있다는 것이 요즈음 어지러운 세태를 근심하는 뜻있는 사람들의 큰 관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해방 후 모처럼 강토를 찾고 주권을 되찾아 우리 민족 고유의 어질고 착한 백성들의 낙원을 이룩하겠다는 부푼 소망에도 불구하고, 메말라가는 인정 속에서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가, 나라와 민족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심지어 따뜻한 가정의 성스러운 생활의 뜻을 잊고 눈 앞의 이해관계에만 아귀다툼하는 세상이 되어간다고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강토는 알곳은 운명으로 남북이 서로 갈려, 가족은 이산되고 민족은 반쪽으로 분열되어, 같은 핏줄이 서로 다투고 미워하는 갈등 속에서 오직 통일만을 애타게 염원하는 소리만 높습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어떠한 통일이 한 핏줄 같은 동족의 영원한 통일인가에 대한 뿌리와 썬물을 찾기에선 아직도 아득한 길과 장벽에 가로막혀 있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 마음을 바르게 닦고 집안을 옳게 다스린 후에야 나라가 잘 다스려지고 천하를 평온케 한다는 진리를 믿어 왔고, 또 그것을 실천해 왔습니다. 모든 뿌리와 썬물이 자기에게 있고, 그 뿌리와 썬이 가까운 핏줄의 가족과 가정에 있다는 것을 굳게 믿어 왔습니다. 나를 올바르게 다스리기 이전에 조상을 섬겨 그 가르침을 이어받고 나아가서 자손에게 바른 길을 터주는 것이 조상에게 보답하고 천지신명 앞에 떳떳한 삶이라는 것을 경천숭조(敬天崇祖)로 믿어 왔습니다. 이 전통과 역사가 오늘날 선진국이라는 서구문명사회에서도 한국민족이야말로 미래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찬양하며 부러워하는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깨달은 바 있어 우리 나라에는 점점 소리 높여 부르짖는 진정한 뿌리 찾기가 국민정신문화운동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정한 뿌리는 가정의 핏줄로 맺어지는 사랑과 믿음에서 다시 되살아나야 이웃사촌으로 번지고 나라사랑으로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문중이 해주최씨대종회가 뜻있는 여러분의 열과 성으로 굳게 다시 뭉치게 된 것은, 비단 종친사이뿐 아니라 한국의 발전은 물론 통일국가 건설의 큰 힘이요 햇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선 남북분단으로 고향을 떠나 월남한 종친들이 다시 결합하는 모체가 되고, 그 이전 일제강점 아래 흩어져 서로 연락이 두절되었던 문중이 한데 모여 거룩한 선조들의 거룩한 전통을 이어받는 뿌리와 썬의 구실을 하게 된 것을 나는 무엇보다도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생각해 보면 갖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 빛나는 문화를 창조하고 계승한

우리 민족사에서 해주최씨처럼 빛나고 자랑스러운 가문은 찾기 힘듭니다. 고대의 고구려 백제 신라의 국가처럼 무(武)로서 개국(開國)하고 그의 공신과 왕손들이 나라를 지배하게 된 고려(高麗)시대에, 해주지방의 거족(巨族)으로서만 백성의 신망을 받아오시던 우리 온(溫) 할아버님을 시조(始祖)로 모시고, 문(文)으로 입신하여 출장입상(出將入相)의 본을 보여 주신 그 아드님 해동공자 충(冲) 할아버님을 조상으로 모신 우리 해주최씨는 1천여년의 오랜 역사를 두고 한치 부끄럼없이 깨끗한 핏줄을 이어 온 것 입니다.

충(冲) 할아버님의 두 아드님에게 내리신 계이자시(戒二子詩)를 그대로 고려시대의 후손이 물려받아, 9대에 걸쳐 열세분의 재상을 비롯하여 가장 뛰어난 문벌로서 문치(文治)로 당시 원(元)나라의 강력한 압력과 무신(武臣)들의 횡포를 막아내셨기에, 후세 역사가 고려의 역사는 곧 해최(海崔)의 역사라고까지 문화적 공로를 칭송했던 것입니다. 불교를 국교(國教)로 한 당시에 정치의 바탕을 유교철학에 두게 하시고, 특히 구재학당(九齊學堂)을 설치하여 사학(私學)을 처음 일으키신 충(冲) 할아버님 덕택에 십이공도(十二公徒)의 찬란한 사학정신이후에 이조시대의 빛나는 성리학(性理學)에까지 뿌리박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흔히들 이씨조선의 정치적 타락을 사색당쟁(四色黨爭)으로 말하지만, 오직 우리 해최(海崔)에는 그 옥된 역사에 한 점 부끄럼없이 오로지 선비의 지조를 지켜 충국애민(忠國愛民)으로 일관한 것을 어찌 우리 우연한 사실(史實)로 볼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긍지로 다시 뭉친 대종회는 다시 문헌공 영당제(影堂祭)를 함께 모시며, 탄신 1천년을 기념하여 국내의 석학들의 정성 어린 최충연구논총(崔冲研究論叢)을 마련하여 기념사업회 이름으로 연구발표회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종지(宗誌)를 계속 발간하기로 하고, 이를 기틀로 하여 되도록 많은 선조들의 빛나는 공적과 역사를 현창(顯彰)함과 동시에 현대에 살고 있는 이산된 종친들의 소식과 친목을 두터이 하는 기관지(機關誌)로 삼기로 하였습니다.

본 종지편찬위원회는 대종회의 뜻을 받들어 우선 창간호 발간에 착수하

였읍니다만, 첫 시도(試圖)인지라 짧은 시일에 조사 연구에 미흡한 점도 있고 원고 수집에 어려움도 곁들여 모처럼 기울인 정성에 비기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보여 드리지 못한 것을 못내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천릿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도 있고 첫술에 배 부르라는 속담과 같이, 창간호는 간행취지에 찬동하시고 부디 애독하시와 자라는 자녀분들에게도 가정교육자료로 이용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큼니다.

근자에 각지에 이산되어 있는 종친들 사이에 대동보를 만들어 일목요연하게 종친들 계보를 원하는 분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뜻에서도 이 종지(宗誌)를 중심하여 종친찾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서로 회담하며 해주최씨의 공지를 새로이하며 한핏줄의 따뜻함을 나누는 것이, 거창한 대동보의 자료수집의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는 바입니다.

창간호는 편찬 취지를 강조하는 뜻에서 옛 조상님들을 우선하여 특집하였고, 유적과 집성촌 및 조사된 종친들의 세대(世帶)의 주소록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일찍부터 편찬취지에 강조한 바 종친 여러분의 문장을 금수문원(錦繡文苑)을 충실이 하여 친밀감을 강조하려 하였지만, 처음이라 투고(投稿)가 의외로 적었음을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본 종지(宗誌) 발간을 위해 기획하시고 밀어 주신 종친회 재형(在衡)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 운영위원, 집행부 여러분의 열렬하신 격려에 감사드리며, 편집 발간에 협력하신 편찬위원 특히 실무에 노고를 바치신 우(愚) 기호(起鎬) 외 여러 종친에게 치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창간호에 이어서 제 2호에는 1천년에 이르는 해주최씨의 간략한 통사(通史)와 역대 조상님들의 빛나는 일화와 문장 소개에 중점을 두고, 종친 여러분의 생생한 집필 투고를 실고 싶습니다. 사적(史蹟)에 대한 조사 연구와 정보자료로 더욱 많고 깊은 지원과 격려가 있기를 바라며, 이 종지(宗誌) 발간이 각지에 이산된 종친들의 따뜻한 모임의 모체가 되어지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宗誌發刊을眞心으로慶賀

宗親위한最上の教科書로



在 衡
(大宗會長)

우리의 海州崔氏大宗會가 再結成을 이룬지 於焉三年餘의 歲月이 흘렀다.

全國各地에 居住하는 핏줄을 같이하는 宗親들이 서로의 近況을 알고 相互紐帶를 가지고자 하는 熱望과 同一한 祖上의 業을 찾아서 기리고자 하는 한결같은 마음에서였다.

過去 8·15解放 後의 大宗會가 宗親을 糾合하고 大同譜를 作成하고 影堂을 建立하는 等 旺盛한 活動을 展開한 바가 있지만 不知中에 衰盡한 前歷이 있는지라 宗親들 사이에는 大宗會가 다시 復活하여야 한다는 慾望을 품고 있었으면서도 發動을 開始하지 못하고 操心스럽게 長久한 歲月을 보내면서 기다리고만 있었던 때인 故로 宗親相互間의 友愛는 急激히 敦篤하여졌다. 이에 大宗會發足後의 발자취를 살펴본다.

待望의 大宗會가 發足한 後 緊急을 要하는 事業은 바로 再結成의 促進劑가 되었던 1984年의 文憲公誕生 1千周年紀念事業이었다. 海州崔氏의 祖上이신 文憲公은 高麗朝時代의 大政治家요 우리나라 儒敎의

礎石을 이룬 大學者이면서 私學의 創始者인 教育者로서 海東孔子의 稱號로 推仰을 받는 民族의 祖上이시므로 우리 後裔들로서는 이분의 當代와 後世에 미친 巧을 讚揚하고 기리며 記念하여야 할 責務가 있는 것이다. 事業으로서는 먼저 文憲公崇拜者이기도 한 碩學李崇寧博士를 會長으로 하는 文憲公誕生 1千周年紀念事業會를 結成하여 紀念事業展開事實을 널리 世間에 弘報하고 그 事業進行을 管掌하도록 했다. 紀念事業會에서는 먼저 慶熙大學校附設의 傳統文化研究所所長이고 平素부터 文憲公研究家인 朴性鳳教授에게 委囑하여 8名의 史學界의 著名教授들의 研究에 依한 文憲公研究論文을 蒐集하여 1984年 11月 25日에 文憲公研究論叢의 發刊을 보았다. 이는 學者들에 依한 文憲公에 對한 純粹한 客觀性을 띤 批判의 研究論文으로 成立된 것으로서 學界에 貢獻된 바도 크지만 우리에게서 教科書的인 重要價値가 있고 後世에 물려주어서 貴重한 價値있는 良書라고 믿어진다. 다음은 1984年 12月 1日에 서울엠버서더호텔에서 舉行한 文憲公研究를 主題로한 大學術講演會였다. 李崇寧博士主管으로 碩學李丙燾博士의 特別講演과 文憲公研究論叢執筆教授全員과 傳統文化研究界學者들의 講演으로 열었다. 來賓도 많았지만 特히 5百餘名의 宗親이 參席하여 7時間餘에 亘하는 長時間인데도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離席하는 분도 없이 眞摯한 態度로 傾聽하였다. 이때에 宗親들의 모습을 觀察한 出演教授들이 입을 모아 果然 그 祖上に 그 後裔들이다 라고 稱頌하는 바에 큰 感銘을 받았다.

大學術講演會의 狀況은 始終 비디오錄畫하여 所要되는 宗親에게 充當해 드리도록 準備하고 出版記念會를 舉行하고 紀念事業은 一段落을 맺었는데 大宗會에서는 準備하고 뒷받침하고 推進하여 이의 完遂를 하게 한 것이다.

한편 大宗會에서는 文憲公과 文和公 및 文淸公을 모시는 佛智所在影堂의 頽落을 補修하고 祭器를 具備하여 體貌를 가춘 祭事를 모시도록 하는 한편 祭日을 宗親이 參禮하기에 가장 便利한 날자를 擇하도록 檢討한 끝에 每年 4月 第3日曜日로 定하게 하여 그 結果 每年 4~5 百名의 宗親이 祭祀參禮를 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事業은 大宗會執行部 또는 運營委員會의 提案에 의하여 討論後의 議決된 結果를 執行部の 具體化 作業에 依하여 成就된다. 執行部の 모

임은 隨時로 있는 것이지만 運營委員會는 이때까지 8次에 亘하여 開催되었는데 宗親들은 遠近을 가리지 않고 經費와 時間을 割愛하여 至極한 精誠으로 參與하고 있다. 또 이러한 大宗會의 움직임과 宗親間의 近況은 會報에 依하여 可及的 早速히 宗親에게 알리고자 하는데 아직 3回發行에 머무르고 있으나 앞으로 活發한 會報發行이 있을 것으로 期待된다.

全國各處의 比較的 高齡하신 宗親들의 大宗會에 對하여 가지는 所望을 들어보면 一致하여 大會譜의 編纂과 壯嚴한 文憲公影堂을 모시고자 하는데 있고 文憲公研究論叢과 會報는 大端히 價値있고 後世教育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신다. 이 모두가 早速히 成就되어야만 할 것은 當然하나 時間的 餘裕나 資金事情이 있으므로 一朝에 達成될 수 없음이 恨스럽기는 하지만 宗親모두가 合心團結하면 意外로 빠른 時日內에 成就될 수도 있을 것으로 念願하고 試圖해보려고 作心한다.

宗親들의 이러한 所望을 가지는 根源은 偉大한 祖上이신 文憲公을 嚴肅히 받들면서 그분의 人品을 본받고 自己陶冶를 꾀하고 그 血統을 이어받고 있음을 矜持로 하고 있는 까닭이다. 이러한 心情으로 1千年동안 綿綿히 이어 當世代 35~6代에까지 내려왔을 것으로 믿어진다.

始祖溫字할아버지 以來 위로부터 教訓을 이어받고 後代에 이어내리면서 어느 祖上은 立身揚名하여 그 燦爛한 名聲이 現世에까지 이르기도 하고 또 어느 祖上은 조용히 節介를 지키면서 平生을 지내신 祖上도 계시겠지만 모두가 文憲公以來의 祖上의 教訓을 바탕으로하여 三綱과 五倫을 遵守하면서 不義에 妥協함이 없이 體統을 尊重히 지켜왔음이 分明하다 立身揚名하여 以顯父母면 孝의 終이라고 하지만 各 生活與件과 當世의 環境이 모두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고 父母로부터 이어받은 身體髮腑와 體統을 毀損하지 아니함도 또한 孝의 始라하는 것이다. 教訓中에서 文憲公의 2篇의 戒二子詩는 우리가 金科玉條로 삼는 名家訓이며 吟味하면 할수록 深奧한 뜻이 숨궫되어있음을 깨닫게 된다. 哲學的으로는 사람의 一生에는 다섯번의 誕生이 있다고 하는데 그 中에 母體로부터의 出生에 의한 誕生과 自然的으로 生의 終末을 告하는 死亡은 宿命的인 것이고 自我意識에 依한 誕生은 血肉이나 異性等에 對한 사랑 등의 사랑의 誕生, 宗教的인 歸

依에 依한 誕生, 生에 對한 使命感에 따른 價値觀의 誕生이 있다. 戒二子 詩는 子孫에 對한 至極한 사랑의 表示이고 儒敎思想을 바탕으로 한 心的 安定을 取하여 學問을 研磨하여 德으로서 社會에 奉仕하여야 하며 虛荒된 方向에 눈을 돌리지 말라 하는 이 敎訓은 永世不滅의 生活信條로서 不動의 指標를 마련해주신 바에 틀림이 없다. 人間은 全能한 것이 아니므로 指標를 設定하고 그 目標達成을 爲하여 勞心焦思하고 刻苦勉勵하여 所期目的을 達成하였을 때에 歡喜를 느끼게 되는 것이므로 文憲公할아버지께서는 生에 있어서의 歡喜를 얻을 수 있는 方便을 敎示해 주신 것이고 이리하여 얻은 歡喜는 우리 生活信條에 潛在하여 綿綿히 흘러 우리體内に 간직되어 있는 것이다.

비록 우리 社會가 物質文明의 急速한 發展으로 生活與件이 好轉되고 日常生活이 豐饒하여지고 있는 것은 事實이지만 産業公害의 威脅과 戰爭의 恐怖속에서 살아야만 하고 産業의 發達에 反比例나 하듯이 道義는 날로 低下되어 그 無秩序狀況은 거리에 나서는 일조차 躊躇하게 하며 이대로 나간다면 不遠間에 相互衝突로 終熄되고 말지나 않을까 하는 危懼心마저 들게 한다.

그러나 現世에 生을 이어받은 以上 適應하여야만 하고 醇化해 나가면서 落伍됨이 없이 邁進하여 이겨야하고 敎訓에 따라 學問을 研磨하여 社會에 이바지하여야 할 使命이 있다. 우리의 祖上은 麗朝時代에 貴族社會를 形成한 事實이 있는 力量을 지닌 氏族의 後裔들로서 優越한 血統을 이어받은 資質을 가지고 있음이 明白하고 오직 奮鬪努力하여 所期目的을 達成하는 일만이 남아있음을 自覺하여야 한다.

國土가 南北으로 分斷되어 北에 居住하는 宗親의 近況을 알길이 없음이 안타깝지만 우리 海州崔氏의 氏族들은 全國坊坊曲曲에서 或은 集姓村을 이루고 或은 散在하여 있으며 그 數는 概略 20萬乃至 30萬名에 達할 것으로 推算하나 今般實施되고 있는 人口動態調查結果에 따라 詳細하게 알게 될 것이지만 現在 大宗親會에 登錄되어 있는 數爰는 4千世帶에 達하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고 今般機會에 急激한 增加가 있을 것으로 豫見된다. 우리 海州崔氏의 後裔들은 過去의 祖上들의 遺跡을 慎重히 吟味하고 이에 하나를

添加하여 後世에 이어주어야 한다. 然이나 現在 매스컴이 發達되어 있기는 하나 우리氏族의 歷史는 우리의 힘으로 發掘하여야만 알 수 있는 일이므로 各處에 뿌리내려 定着하던 祖上들의 生活史蹟을 探索하여 이를 알아야 하고 반드시 알아서 海州崔氏의 後裔답게 살어야 하며 後世發展에도 寄與하도록 힘써야 한다. 또 現在의 宗親들이 무엇을 生覺하고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도 알아야 한다. 여기에 宗誌發行의 意義가 있다. 宗親中에는 戰亂속에서 生長하여 祖上으로부터의 系列을 明白히는 把握하지 못하는 분도 계신듯하나 宗親間의 紐帶와 團結에 흠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協力함으로써 自身の 位置를 分明히 할 수 있는 手段이 될 것으로 믿어진다.

今般發刊하는 宗誌第1號는 叙上한 뜻으로 貴重한 것이며 宗誌發刊에 뜻을 가진 全國宗親이 資料를 提供하여 成就를 보게된 것이니만큼 海州崔氏의 後裔로서 最上의 教科書가 될 것이고 自己陶冶에 尊貴함은 勿論이고 後世啓發에도 큰 役割을 할 것으로 期待되는 바 크므로 晚時之嘆이 있기는 하나 慶賀하여마지 않는 바이다.

그러나 實際로 宗誌發刊은 그다지 容易한 일이 아니었다. 이는 全宗親의 和合과 協力이 礎石이 되었고 大宗會의 執行部 各任員宗親과 運營委員 여러宗親들의 獻身的인 物心兩面의 奉仕에 依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特히 台鎬宗親을 委員長으로 하는 大宗會誌編纂委員會 各委員宗親의 勞苦에 感謝드리며 高齡이시면서 奔忙하신 台鎬委員長의 意慾넘치는 指揮와 管掌에 敬意를 表하고 또 大宗會에서 刊行物이 있을 때마다 單獨으로 自己事業마저 뒤로 하고 編輯校正에서부터 印刷와 製冊에 이르기까지 犧牲적으로 奉仕하여주신 副幹事長 愚宗親에 對하여 深甚한 謝意를 表하며 如斯한 熱意에 찬 宗親들이 渾然一體를 이룸으로써 成就되었음에 感謝 드린다.

앞으로 繼續하여 宗親들의 宗誌發刊을 爲한 資料提供이 있으시기를 바라며 今般의 創刊號 發刊以後에도 連이은 宗誌의 發刊으로 우리 海州崔氏 後裔들의 밑거름이 되어지기를 懇切히 바라며 아울러 全宗親의 堂內幸福과 無窮한 發展있으시기를 祈願하는 바이다.

自己反省의 등불 되게

傳統精神을 알리고



李 崇 寧

(崔冲 紀念事業會長)

이번에 海州崔氏 大宗會에서 「海州崔氏 大宗誌」의 創刊號를 公刊한 다니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消息이 아닐 수 없다. 그 間 京鄉各地에서 여러 氏族들이 宗親會를 꾸미고 族譜의 편찬이니 獎學會의 設置니 하고 여러 事業을 企圖하고 있으나, 이번 「海州崔氏 大宗誌」의 刊行의 斷行과 같은 快舉는 처음 있는 일로서 크나큰 刺戟을 던진 것이며, 여러 氏族들의 警歎과 羨望의 注視를 모을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여기 關係자이신 諸位의 놀라운 着想과 勞苦에 대하여 衷心으로 致賀하는 바이다.

이런 때에 筆者 또한 平時에 품어온 表懷의 一端을 펴서 讀者 여러분의 同調를 얻고자 한다. 그것은 오늘날 時代는 急激히 變해 가고 있고 思想도 西歐의 것이 물밀듯이 侵入하고 있으니 우리가 寸刻인들 어찌 放心하고 있으랴. 옛글에 聖人도 「能與世推移」라고 했는데, 이 時代的 變遷을 막을 者 아무도 없거니와 차라리 우리는 이에 賢明하게 對處해 나가야 한다. 그 中에서 크게 느껴지는 것이 人物評

이다. 옛날에는 官僚主義가 人物評의 基準을 마련한 느낌이 커서, 한 人物의 評은 그가 어떠한 벼슬을 지냈는가에서 左右된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人物論은 그이가 「어떠한 일을 했고」, 「어떠한 일로 이 民族發展에 이바지 했는가」로 評價가 決定되는 것이다.

一例로 李 舜臣將軍을 보자. 옛날에는 그이가 虎班이라고 해서 功을 認定했지만 높이 待遇하지 않았다. 筆者가 大學生 때 牙山의 忠武公宗家를 찾으니, 초라한 집이어서 그 長劍과 親筆의 冊子도 보고 感慨無量했다. 倭賊을 물리치고 나라를 지킨 唯一한 忠臣을 이렇게 薄待할 수 있을까 하고 慨歎한 것이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 朝鮮朝의 唯一한 代表的 人物로 評價되고 顯忠詞의 雄大한 殿堂에 모셨고 數千數萬의 國民이 參拜의 줄을 이으니 이것은 곧 時代相의 變貌를 말함이다. 이러한 眼目으로 評價한다면 今後 여러 氏族들이 내세우는 그 祖上의 人物論은 官僚主義의 履歷이라면 魅力的인 事實이 못되고 말 것이니, 그 옛날 評價는 褪色해 갈 것이 뚜렷하다. 이러한 時代觀에서

볼 때에 海州崔氏는 그 많은 氏族中에서 가장 보람찬 氏族이며 時代의 變遷을 超越해서 微動도 하지 않는 祖上을 모시고 있다는 점을 자랑삼아도 좋은 것이다. 그것은 곧 海州崔氏가 文憲公 崔冲先生을 위로 모시고 있다는 事實에서다. 私學의 元祖요, 海東孔子로 그 業績과 功勳이 象徴된 것이니 李氏王朝가 高麗人物評에 苛酷했던 時代이었지만 崔冲先生만은 그대로 尊仰해 왔고, 이제 解放後 새 時代에 들어서도 崔冲先生은 私學의 開拓者요, 佛敎의 障壁을 뚫고나선 思想的인 開拓者로서 儒敎를 깔고 性理學을 研究한 분이다. 이번 「大宗誌」는 崔冲先生의 精神이 풍겨질 冊子로 알고 있다.

大宗誌의 趣旨는 內的으로 崔氏들 後孫들을 激勵하고 刺戟을 주어 崔冲先生을 본받게 하려는, 또는 그와 비슷하게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人物을 만들려는 뜻과 同族間의 相扶相助로 崔氏들의 隆盛을 期하는 意圖도 있으려니 짐작한다. 그러나 大宗誌의 또 하나의 趣旨는 崔氏以外的 讀者들에게도 感動을 부풀게 하고 좋은 傳統的인 反省을 자

아내게 하려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번 「大宗誌」의 公刊은 생각할수록 좋은 意圖의 舉事이며 이것이 우리 傳統的인 精神界에 自己反省의 등불이 될 것이다. 바라건대 大宗誌의 앞날에 無窮한 隆運있기를 빌 뿐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問題가 뒤따라 나섬을 느낀다. 오늘의 젊은 世代는 漢字의 知識이 問題가 아니라 어느 大學의 入學生을 조사하니 祖父의 諱를 漢字로 쓸 수 있는 學生이 20%를 조금 上廻하더라고. 우리는 子孫에게 漢字를 가르쳐야 하며 이와 아울러 祖上의 知識은 가르쳐 주어야 한다. 여기에 西歐의 思潮가 밀려드니 이 사이에서 자라난 젊은 世代는 뚜렷한 知識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도 過言은 아닐 것이다. 여기서 傳統도 모르고 西歐思潮도 雜誌를 통해 얻어들은 토막 知識이기가 쉽다. 그들은 걸핏하면 保守主義니 時代錯誤니 하지만 그런 用語를 使用하기 前에 漢文으로 글을 읽고 西歐의 思想도 原書로 읽어 생각하고 느끼고 判斷하고 나서 曰可曰否해야 한다. 大

宗誌는 이러한 時代의 밑바닥을 直視하고서 保守固陋의 筆致는 삼갈 것이지만, 젊은 世代의 올바른 知導와 啓蒙을 잊지 말기 바란다. 大宗誌는 讀者들에게 비위를 마칠 必要도 없지만 精神만은 보다 새로운 思想을 풍기되 姓氏를 알고 親戚和睦을 위한 傳統精神을 알게 하기 바란다.

끝으로 儒敎에 대해서도 一言코자 한다. 오늘의 儒敎는 家族單位의 사랑房敎理로 萎縮되어 가고 있다. 儒敎도 새 時代의 바람을 타고 國民의 敎化運動에 나서야 하지 사랑房에의 子孫敎育에 使用되는 호주머니 敎理로 萎縮된다면 그것은 衰退의 一路를 더듬을 따름이니 儒敎도 社會로, 거리로 나서야 하며 그것이 싫다면 儒敎는 사랑房 푸념으로 날로 衰退할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時代精神의 處理問題도 大宗誌에 맡기고 싶으니 우리의 期待가 너무도 크기로 이런 注文이 연거퍼 나오는 셈이다. 大宗誌의 隆道를 빌 뿐이다.

宗誌創刊을 同慶同賀함
 敦宗之誼의 向上 圖謀를



秉 權
 (大宗會 顧問)

먼저 大宗會 會長團을 비롯한 任
 員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충심
 으로 感謝를 드립니다.

특히 大宗會任員여러분은 崇祖寬
 源의 경건한 성의와 倫理道德의 심
 원한 根源을 바탕으로 하여 同姓同
 本은 百代之親이라는 人性之綱의
 기치를 높이 들고 全國(南韓)의 約
 6萬가구 25萬餘一族의 結紐는 물론
 睦親敦宗을 위하여 至大한 공헌을
 하였음을 크게 致賀하는 바입니다.

돌이켜보건대 지난 82年 10月 23
 日, 비로소 우리 大宗會가 呱呱의
 소리로 탄생하였으나 그 成長의 과
 정에는 여러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
 았음에도 不拘하고 任員여러분들의
 自發的이고 獻身的인 努力에 의하
 여 大氏族의 求心體인 大宗會를 名
 實相符하게 공고한 조직체로 發展
 시켰습니다. 더우기 佛智에 모신 文
 憲公影堂 大尊奉祭를 해마다 春季
 에 舉行하고 있고 文憲公誕生 1千
 周年紀念 事業으로 “文憲公研究論
 叢”의 發刊, “崔冲誕生 1千周年紀
 念學術大심포지엄”의 開催등은 歷
 史에 남을 快舉였다고 確信하는 바
 입니다.

우리는 이 兩大事業을 통해서 高麗私學三百六十史의 道學之祖로서 또 文教紀元을 始創하고 儒宗大廈를 이룬 海東孔子로서의 文憲公崔冲할 아버지를 再照明하였으며, 이로써 우리는 勿論 우리의 後孫들에게 始祖의 높은 聖德에 대한 再認識과 아울러 겸허한 긍지를 지니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부연하고 싶은 것은, 이 兩大事業이 우리나라를 代表할만한 近世 碩學들이 中心이 되어 行하였다는 事實과 또 이 碩學들의 가차없는 依據論究로서 文憲公의 훌륭한 人物됨과 歷史的 偉業이 재천명되었다는 事實입니다. 뒤라서 後孫된 者 자기 祖上을 敬慕하고 極讚하지 않겠습니까만은, 文憲公冲할 아버지의 出衆한 人物됨과 燦然한 偉業이 直系後孫들이 아닌 史學界들에 의해 강조되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意義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意義깊은 一連의 快舉를 통해 더욱 굳건한 奉祖精神을 지나게 되었으며, 文憲公의 蓋世之德과 昌門之訓을 後代에게도 綿綿히 繼承시켜야 하겠다는 투철한 使命感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結局 우리 海州崔氏 家門의 根深葉茂의 繁榮을 期約하는 좋은 契機가 되었음을 믿어 疑心치 않는 바입니다.

이렇듯 훌륭한 大事業을 치르고 다시 連續해서 大宗誌까지 發刊한다는 소식에 接하고보니 우리 宗中을 위해서는 참으로 錦上添花 같은 기쁜일이여서 雙手를 들어 환영하고 激勵의 말씀과 함께 同慶同賀해 마지 않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大宗誌가 全國에 散在해 있는 氏族間에 紐帶強化, 睦親之情의 交流, 敦宗之誼의 向上圖謀에 크게 이바지 해주기를 冀望해 마지 않으며 大宗會와 大宗誌의 無窮한 發展을 기원합니다.

끝으로 이 慶賀스러운 일을 당하며, 始祖文憲公이 태어나시고 또 모셔져 있는 海州땅을 咫尺에 두고 參拜못하는 안타까운 心情이 이 더욱 북바쳐 오르며 또한 이 慶賀스러운 일들을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北韓의 宗親들을 생각할 때 실로 가슴이 메어지는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하루 速히 南北이 統一되어 흩어진 우리 氏族이 한자리에 모여서 文憲書院祭祀를 奉할 수 있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宗誌發刊을 위해 애쓰시는 任員諸位의 勞苦를 致賀하면서 激勵辭에 가름합니다.

「崔冲研究論叢」을

꾸미고 나서



朴 性 鳳
(慶熙大傳統文化研究所長)

1984년은 文憲公 崔冲先生の 탄신 1千年이 되는 뜻깊은 해였다. 여기에 맞추어 그분의 위대한 생애와 업적에 걸맞는 紀念事業이 발상되고 전개되었던 것은 역사적인 성사로 기억될 만한 일이었다. 崔冲 紀念事業會가 史上 처음으로 조직되고 資料 및 論文集이 목직하게 발간되며 대규모 學術會議가 성황리에 개최된 것이 그것이다. 여기에는 후손들의 성의가 밀거름 되고 몇몇 有志 同學의 열성이 바탕이 되어 그분의 씨알은 마침내 소담한 꽃으로 다시 피어나며 상당한 알찬 열매를 거두기에 이르렀으니 누구라서 慶賀해 마지 않을손가.

회고하면 이러한 一大盛事는 당연하고도 필연적인 역사적 소산이라 할 수 있다. 文憲公이 굴지의

지방세력가문에서 태어나 若冠으로 科擧에 급제하고 前後 5朝에 걸친 出仕 끝에 벼슬이 人臣을 극했는데 이와같은 富貴 속에 生을 마친 것이 아니라 致仕와 동시에 이제는 그 金力·權力的 큰 힘을 後生교육의 大文化事業에 집결시켰으니 참으로 길이 모범이 될 人生살이었다.

당시 귀족사회에서는 핏줄에 기대어 출세하는 것이 예사였는데 그런 풍조에 쏠리지 않고 자신이 經史에 널리 통하여 文行으로 벼슬살이를 했을 뿐 아니라 子孫과 後生에게도 그 길을 누누히 명시하여 그 실현방법으로서 私學교육을 일으키고 專念하였던 것이니 이는 당시에 곧 성과를 내어 유명한 十二徒의 成立을 보게되고 子孫은 누대

의 儒宗이 되며 실력으로 통하는 학벌귀족이 됨으로써 고려후반을 누비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朱子學的 學風이나 地方出身등의 차별로 조선왕조일때에 특별한 은전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지만 教育的 공헌과 독자적 儒風이 후세에 길이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므로 자손의 큰 번창과 함께 海東孔子의 명성을 오래오래 드리우게 되어 昨今の 영화스러운 추앙이 따르게 되었던 것이라 하겠다.

이 때문에 위와 같이 우리민족사상 일찌기 예가 없었던 1千년 기념의 여러 행사가 벌어지게 된 것은 하나의 역사적 필연이라 할 것이어니와, 그러나 한편 거기에는 그 만큼의 많은 애로와 그 극복이 있는 연후에 가능했던 것도 한번 잡고 넘어서 앞으로 풀어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후손들이 번성하다 보니 支派가 많아지고 이에 따라 大同宗會가 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가 바로 文憲公紀念事業을 앞두고 海州崔氏 大宗會가 조직되기에 이르렀다고 들으니 그 사이의 노력을 헤아려 앞으로 문중 사업을 가

속화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다음 우리 學界는 그 동안 日帝亡國과 同族分斷期에 처하여 전반적으로 제나라 역사연구가 부진했을 뿐 아니라 근자 産業化의 진전에 따라 상당한 번영을 보게 되면서는 너와 나의 社會 關係 연구에 관심이 쏠려 제나라 제민족의 영광된 文化발전의 역사는 미처 손이 가지 않았던 것 같다.

우리민족이 중국과 이웃하면서 유일하게 독자적 터전과 민족문화를 꽃피운 것은 참으로 자랑스러운 전통인데 그 동안의 文化 우월적 역사전통이 근대 열강의 침략아래 처음으로 열세에 빠져, 이 때문에 작금처럼 주체의식이 흔들리고 정신적으로도 허약해 빠진 저조한 민족사를 끌고 나가게 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또 1984年 7月 文憲公研究事業이 여물어간 때에 史學·哲學·文學의 關係 有志가 모여 韓國思想史學會를 發起하고 가을에 創立하게 된 것도 우연한 일치만은 아닌 것이다. 그분이 이루었던 것처럼 그의 기념연구사업은 文學·史學·哲學 각 분야 학자와의 연계가 필요불가결하였고 前年 7月이래

公式的으로 事業이 진전됨에 따라 하나의 必然性和 自信感을 불러 일으켜 學會의 조직으로 치닫게 됐던 것이다.

필자는 일찌기 1950년대 대학원 재학시절에 文憲公연구의 계기를 갖게되어 55年 史叢 제 1집에 公의 생애에 대한 小考를 발표한 바 있었고 다시 57년에 私學十二徒를 중심으로 상당히 파고 든 論考를 발표하여 지금에도 國內外 學界에서 引用되는 영광을 입고 있거니와 이후 30여년 기회있을 때마다 전담필자가 되어 『韓國의 人間像』(신구문화사), 『人物韓國史』(박우사) 등에 글을 실게 되었다. 마침 畏友 崔俊基博士가 校理公派의 宗會長이 되면서는 崔氏네들과도 직접 만날 기회가 많아져 查頓삼자는 이야기도 십삼치 않게 등장하였거니와 1千年 기념사업도 실은 이러한 인연으로 宗誌特輯 자문에 응하면서 배태되었던 것이다.

돌이켜 보면 우리 學界에는 모모 門中の 지나친 작용이 逆機能을 하여 이른바 門中史學이라는 아름답지 못한 폐단이 매스컴에서조차 운위되던 터라 이를 宗中の 宗誌사업

에서 客觀化시켜 崔沖紀念事業會와 우리 慶熙大 傳統文化研究所의 主管으로 論文集을 편찬 간행하고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게 된 것은 백 번 잘한 일이었다. 不肖하나마 오랜 연고가 이와 같은 大事業을 그런대로 大過없이 치르게 했던 것이라고 여겨, 멀리는 文憲公과 가까이 있는 學界諸彥 및 門中有志 제위에게 깊은 謝意를 표하는 바이다.

그런데 이제 一千年事業의 한 마무리를 지으면서 몇가지 反省과 希望의 피력이 없을 수 없다.

우선 紀念事業會의 조직이 좀 늦은 感이 있었다. 거기에는 大同宗會의 결성이 미리미리 안되어 있었던것도 관계하여 후손의 정성이 제도적·조직적으로 모여지지 못한 유감이 있었던 것 같다.

따라서 有司들의 고초도 그러하거니와 만족할 만한 사업전개가 되기 어려웠다. 더많은 人員과 정성이 동원됐어야 했던 것이 걸맞는 예산의 부족과 쫓기는 시간 때문에 여러 제약과 애로를 감수할 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다.

다음 研究所의 特別推進計劃에도 많은 문제점이 반성된다. 처음 너무

급하게 적은 豫算과 인원으로 일을 시작한 까닭에 상당한 차질을 면키 어려웠던 것 같다. 그중에도 研究教授의 동원을 극도로 제약하여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 資料편을 크게 잡은 결과 교수동원은 그 후 몇을 추가하여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게 되었지만 자료정리는 이미 진행된 것을 빼버리기도 아깝고, 무엇보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너무 量에 매달려 듦직한 책부피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까닭에 그대로 추진한 것이 그만 質의 면에서 學的 검토를 치밀하게 가하지 못하고 만 愚를 범하게 된 듯하다. 量의 팽배는 현실에 만족을 주고 일시적으로 그럴듯한 보탬도 없는 바 아니지만 質의 평가는 시간과 공간을 꿰뚫고 오래도록 먼 지역에까지 걸쳐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조심할 일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비전문가는 양에 더 치중하는 편이고 전공자일수록 질에 집착하여 따질 것이니 어쩌면 후손과 학도의 처지는 상반된 면도 없지 않는 듯 싶다. 그러나 질을 결한 양의 형성이 얼마나 소망스러운 일이겠는가.

또 그러한 質的 提高는 단시일에

이룩될 수 없는 일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의 축적이 필요불가결한 것이니 첫번에는 후손이 좋아했다면 이제 다음에는 학계가 만족할 만큼 제검토가 가해져야 끝내는 다같이 바람직한 결실로 찬양될 것이며 그런 다음에야 제대로의 기념사업이 되었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文憲公 기념사업은 아직 初動단계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작년(84년)에 조직된 단체는 최종 탄신 1千年 기념행사위원회가 아니고 문헌공기념사업회라는 것을 다같이 명심하고 긴 안목의 목표 설정과 달성을 위한 장기계획이 소망스럽다는 것을 거듭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아니 오히려 작년이 계기가 되어 대종회가 더욱 활성화되고 전국 방방곡곡의 종친이 차제에 愛親敦睦의 族誼를 가일층 심화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당장 崔灌公의 家系所屬문제만 해도 學界에서 큰 집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한 研究結果가 발표된 후 學徒들사이에 일부 준용되기 시작하였었는데도 정작 그 直孫들은 시

끝에 산 관계로 전혀 모르고 있다
 가 學術會議 발표장에서야 알게 되
 어 크게 당황한 나머지 직석에서
 是正을 要求하는 등의 일은 우리의
 기념사업이 안팎으로 얼마나 폭있
 고 끈기있게 사실을 추적하고 확인
 해 나가야 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한 예가 되는 것이라 하겠다.
 또 原州 居頓寺 圓空國師勝妙之塔碑
 文을 두고 볼 때에도 종래 崔門의
 文集에는 빠져 있어, 우선 다른 결
 과가 되었지만 學的으로는 당연히
 補完되어야 함은 더 말할 것도 없
 다.

다시 연구논문집의 경우도 단 한
 번으로는 그것도 자료정리·번역까
 지 온전히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

른데의 예처럼 미비점과 보완처를
 기필 다듬어 속집으로 내야 하며,
 더 적극적으로는 많은 씨족에서 이
 미 일반화시키고 있는 족내의 장학
 금 같은 것도 문헌공 기념장학사업
 으로 하면 훨씬 사명감을 불러 일
 으킬 것이라 여겨진다. 나아가 國
 內外에 기념연구비 같은 것까지 지
 급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이상 바랄
 것이 없는 錦上添花가 될 것으로
 믿어진다. 여기에 최씨의 분발이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당연한
 순서가 아니겠는가. 그것은 문중에
 도 有助한 일이지만 국가 민족에게
 도 큰 기여를 하는 뜻 있는 사업으
 로 믿어지기에 감히 첨언하는 것이
 다.



文憲公傳出麗史而歷官年
譜事蹟間有增補

公姓崔諱冲字浩然海州大寧郡人父溫纍世文子文孫殖財甚饒豪於鄉井牧使金興祖抑而定吏尋免之公風姿魁偉性操堅貞少好學善屬文宋眞宗景德二年高麗穆宗八年乙巳四月擢甲科第一顯宗二年辛亥五月除右拾遺四年九月遷修撰官七年正月陞補闕十一年正月起居舍人十五年十二月中樞直學士十六年十二月翰林學士十八年正月給事中十一月太子中允二十年十一月右諫議大夫二十一年五月太子右諭德德宗二年癸酉正月轉右散騎常侍同知中樞院事奏曰成宗時內外諸司廳壁皆書說苑六正邪之文漢刺史六條之令今世代已遠宜更書揭之使在位者知所筋勵王從之三年七月授刑部尙書王初用宋太平年號柳詔王可道李端等請攻契丹王下宰執議徐訥皇甫兪義黃周亮崔齊顏及公皆曰不可命有司卜太廟不果出兵語在王可道傳靖宗元年乙亥正月除中樞使刑部尙書三年七月左僕射叅知政事修國史七年判西北路兵馬事王賜服遣之命行邊境恢拓墉洫公置寧遠平盧等鎮及諸堡十四是歲十月還陞內史侍郎平章事九年二月守司徒修國史上柱國門下侍郎文宗元年丁亥四月拜門下侍中命考定律令書算加開府儀同三司三年二月守太保賜推忠贊道功臣號四年正月守太傅公以侍中爲都兵馬使奏曰去歲西北州鎮禾穀不登百姓貧乏男困徭役女困徵糶人不得聊生請於修繕城池外凡功役悉令禁斷又奏曰東女眞酋長鹽漢等八十六人累犯邊境令勒留京館夷狄人面獸心不可規以仁義首邱之情深怨毒方興請皆放還并從之五年爲式目都監使與內史王寵之等奏曰及第李申錫不錄氏族不宜登朝御使金廷俊奏氏族不錄乃其祖之失非申錫之罪况積功翰墨捷第簾前身無咎痕令烈簪紳上曰冲奏雖是彙憲立賢無方不宜執泥其依廷俊等奏九年以年滿七十年是年滿七十則丙戌生無疑乞退制曰待中崔冲累代儒宗三韓耆德今雖請老未忍允從宜令攸司稽古典賜几杖視事復加推忠贊道協謀同德允理功臣開儀府同三司守太師兼門下侍中上柱國七月加內史令仍令致仕公聞王將遣使就第賜告身禮物上章辭曰臣立朝以來未有補佐力耗齒衰敢乞骸骨坐尸優俸已荷殊私今又蒙荐加隆禮將沛澤於雲霄俾播榮於閭里循涯揆分情所未安招損害盈臣之所懼乞回成命追寢

新恩不允遣內史侍郎平章事金元鼎同知中樞院事王懋崇等就第賜詔曰卿儒宮圭臬神化丹青事纍聖以濡毫文章華國位三階以調鼎功績紀常雖在退閑未忘舊德更進黃扉之秩暨榮綠野之堂今授卿內史令致仕告身一道並賜依帶銀器綵段布貸鞍馬等物宣誥曰良臣惟聖姚皇舉以八元得士者昌姬室延其四子或授之以相位或委之以宰衡採忠懿之謀丹青帝化賴挾維之智黼黻宸謀臻於變之期開無疆之祚誰肩往哲朕得伊人惟卿翰墨存誠該明稟性唐雄首於聖穀禰鸚立於天庭萬丈金山梁代誰踰於朱昇一枝丹桂晉臣僉仰於邳詵語多能則叔向扶輪論博物則張華避席而自顯應芝詔擢入槐司軒夢開祥允協吹塵之契周詩濟美載揚瞻石之謠臺閣規模衆推如晦人倫領袖時許魏舒藹馳咸有之稱總王惟幾之務邇者年非耄矣齒未鬮然早辭當軸之權歸遂懸輿之願賀知章之湖畔雖恣佳遊陶弘景之山中常諮大事昔動爲民槩今坐作世師不陞極摯之資奚表難名之德遂中書而冠秩俾上列以翹英於戲量能授職者君親之常寵章朕茲無忝論道經邦者宰相之務彌綸汝所克勤茂宣翼亮之猷用致肱康之運俾無休於姚皇姬室不專美於四子八元後改內史門下省爲省中書省以冲爲中書令致仕公資兼文武出入將相雖乞退居家軍國大事悉就咨焉累加推忠贊道佐理同德弘文懿儒保定康濟功臣號顯宗以後干戈纔息未遑文教公收召後進教誨不倦學徒坌集填街溢巷遂構九齋於國都之紫霞洞曰樂聖大中誠明敬業造道率性進德太和待聘以處之俾習聖人之道凡應舉者必先隸徒中學焉謂之侍中崔公徒每夏借歸法寺禪房意夏課擇徒中及第學優未官者爲教導授以九經三史間或先進來過刻燭賦詩榜其次第呼名而入設未小酌童冠列左右奉樽俎進退有儀長幼有序竟日酬唱及日暮皆作洛生詠以罷觀者莫不嘉歎時儒臣立徒者十一而公之徒最盛東方學校之興蓋由公始時謂海東孔子宋神宗熙寧元年本朝文宗二十二年戊申九月甲申以守太師中書令致仕卒王遣大醫監李塩下詔吊其子中書令惟善等曰卿父人中威鳳朝右元龜抱變齊至魯之文章夙登大輔振咀華吞馨之謀畫歷贊昌辰懿厥績庸光于編冊迨其蟬璫遺慶附諸冠子冕孫鳩杖退閑樂乃琴塤笙典臥扶宸極蔚爲干木之偃藩坐奠夢楹忍感宣尼之摧棟顧百身而難贖傾萬乘而荐悲卿等橫構家艱尤深宅恤宜勉孝追之禮莫興過毀之哀公立朝六十四年諡文憲公宣宗三年二月以龍頭配享靖宗廟庭有子二人長惟善次惟吉常戒之曰士以勢力進鮮克有終以文行達乃爾有慶吾幸以文行顯誓以清慎終于世乃作訓子孫文傳之且作戒二子詩二首見家藏公子孫以文行登宰輔者數十人公之孫思諤作訓儉文遺子平章事湊有吾祖

令公常用木器之語出補闕集公之清儉如此後世子孫大抵多廉介獨直之人少賦汚奸邪之類遺化迨今不泯 麗史贊曰高麗開發國庶事草創未遑文教光宗好文雖委任雙冀然其文辭病於浮藻不足爲後學模範冲歷仕顯德靖文四朝以文學名世興起斯文爲已任收召後進教誨不倦樞衣者日衆爲當時十二徒之首東方學校之盛由冲始自是文章豪傑之士彬輩出鋪張國家之制作東國爲詩書之國以至于今者何莫非冲之賜也公號惺齋一云月圃申象村集曰崔文憲公收召後進教誨不倦學徒坌集填溢街巷設九齋以教之謂之侍中崔先生徒又有儒臣立徒者十一弘文公徒侍中鄭倍傑一稱態川徒匡憲公徒叅政盧坦南山徒祭酒金尙賓西園徒僕射金無滯文忠公徒侍郎殷鼎良愼公徒平章金義珍一云郎中 朴明保貞敬公徒平章黃瑩忠平公徒柳監貞憲公徒侍中文正 徐侍郎徒徐碩學士吳學麟龜山徒世稱十二徒而文憲公徒最盛

文憲公傳 高麗史에 의거하였으나 官歷年譜, 事蹟등은 간혹 보충하였음

公은 姓은 崔, 이름은 冲, 字는 浩然. 海川 大寧郡 출신이며 아버지는 溫이다.

선조 때부터 대대로 문학을 잘하였고 또한 부유하여 대대로 지방에서 세력을 부렸다. 牧使 金興祖는 이를 억누르기 위하여 아전(吏)으로 배정하였으나 바로 풀어주었다. 公은 외모가 석대하며 성격이 굳고 곧았다.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하며 글짓기에 능했다. 宋眞宗 景德 2年 高麗穆宗 8年 乙巳(1005) 4月에 甲科 第1人으로 합격하였고 顯宗 2年 辛亥 5月에 右拾遺가 되고 4年 9月에 修撰官, 7年 1月에 補闕에 승진 11年 1月에 起居舍人, 15年 12月에 中樞直學士, 16年 12月에 翰林學士, 18年 1月에 給事中, 11月에 太子中允 20年 11

月에 右諫議大夫, 21年 5月에 太子右諭德이 되었고 德宗 2年 癸酉 1月에 右散騎常侍 同知中樞院事에 轉任되었다. 이때 건의하기를

「成宗 때에 內外 여러 官署의 벽에다 書苑에 있는 『올바른 일 6개 항목과 옳지 못한 일 6개 항목』을 기록한 글과 漢代에서 재정한 『刺史가 지켜야 할 條項』을 써붙이게 했었는데 지금 연대가 벌써 오래 되었으니 이를 써붙이어 官寮들이 보고 경계심을 갖게 하옵소서」

하니 왕은 이를 받아 들였다. 3年 7月에 刑部尙書에 임명되었다.

王은 처음으로 宋나라의 年號인 「太平」을 사용하였다. 이 때에 柳韶王可道, 李端등이 契丹을 공격할 것을 주장

하니 왕은 제신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徐訥, 皇甫兪義, 黃周亮, 崔齊顏과 公은 모두 이에 반대하였다. 왕은 담당관에게 명하여 太廟에서 점을 쳐보고 마침내 군대를 출동시키지 않을 것을 결정하였다 (이 사실은 高麗史 王可道の 列傳에 있음).

靖宗 1年 乙亥 1월에 中樞使, 刑部尙書 3年 7월에 左僕射 叅知政事 修國史가 되고 7년에 判西北路兵馬事가 되었는데 왕은 의복을 내어주고 보내면서

「국경지대에 가서 방위선을 증강하라」 하였다. 공은 현지에서 寧遠平盧 등의 鎭과 堡 14箇所를 설치하였다. 同年 10월에 중앙으로 돌아와 內史侍郎 平章事에 승진, 9年 2월에 守司徒 修國史 上柱國 門下侍郎이 되고, 文宗 1年 丁亥 4월에 門下侍中이 되었다. 왕명으로 律令과 書算을 考定하고 開府儀 同 3司의 爵位가 追加되었다. 3年 2월에 守太保에 오르고 推忠贊道功臣의 칭호를 받고 4年 1월에 守太傅에 올랐다.

公이 侍中으로 都兵馬使가 되었는데 나라에 아뢰기를

「지난해 西北지방에 흉년이 들어서 백성이 가난으로 고생하는 위에 남자는 노력동원에 지치고 여자는 식량공출에 시달리어 제대로 살 수가 없사오니 城과 木을 보수하는 이외의 공사는 모두 중지하게 하옵소서」

또 아뢰기를

「東女眞의 추장 鹽漢 등 86명이 여러 번 국경지역을 침범하였기 때문에 지금 서울에 억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랑캐란 얼굴만 인간이지 마음은 짐승이나 다름 없사오니 도의로 규제할 수가 없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심정에서 모두 양심을 품고 있사오니 다 돌려보내게 하옵소서」

왕은 이 건의를 다 받아들였다.

5년에 式目都監使로 있으며 內史 王寵之 등과 함께

「科擧에 급제한 李申錫은 그의 系譜를 적어올리지 아니하였으니 관직에 임명해서는 안된다」

고 임금께 전언하였다. 御使 金廷俊은 이에 대하여

「系譜가 기록되지 않은 것은 그 선조의 탓이요 申錫의 죄는 아니다. 더구나 오랜동안 학문을 닦아서 임금 앞에서 과거에 합격하였고 그 자신에게는 아무런 결함이 없는 즉 벼슬자리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

고 맞섰다.

왕은

「冲의 주장이 원칙이기는 하나 인재를 널리 등용시키는 의미에서 너무 엄매일 필요는 없으니 廷俊의 의견을 따르게 하라」 하였다.

9년에 공은 나이가 滿 70세가 되었으므로(이 해가 滿 70세인 것으로 보아 丙成年出生임이 틀림 없음) 은퇴할 것을

요청하였다.

왕은

「侍中 崔冲은 여러 王朝 동안 儒學者의 스승이었고 온 나라의 덕망 높은 元老다. 이제 은퇴할 것을 희망하나 차마 승락하지 못하겠으니 해당 관청에서는 옛 제도를 참고하여 几杖을 주고 계속하여 일을 보게 하라」

하고 다시 推忠贊道協謀同德允理功臣의 칭호와 開府儀 同 3 司 守太師 兼門下侍中 上柱國의 爵位를 더하였다. 7월에 內史令의 爵位를 追加하고 마침내 은퇴를 허락하였다.

公은 왕이 使節을 집으로 보내어 告身(辭令狀)과 禮物을 준다는 소문을 듣고 글월을 올려 사양하였다.

「臣이 조정에 나와서 벼슬한 이래 아무 것도 보좌한 것이 없이 벌써 힘이 쇠하고 나이가 늙었기에 감히 은퇴할 것을 청하였습니다. 한일없이 높은 봉급을 받은 것 만으로도 특별한 은총을 입은 것인데, 이제 또 융숭한 예를 거듭 배부시와 임금께서 큰 은혜를 내리시며 동리에 이 영광이 전파 된다면 臣의 본분을 생각할 때에 마음에 불안하울 뿐 아니라 『지나친 복은 화가 된다』하오니 臣은 두려움을 금할 길 없사옵나이다. 바라옵건대 내리신 명령을 거두시고 새로운 은전은 중지하여 주옵소서」

왕은 허락하지 않고 內史侍郎 平章事,

金元鼎, 同知中樞院事 王懋崇을 私宅에 보내어 詔書를 내렸다.

「그대는 學界의 표준이며 행정부의 빛나는 존재다. 문필로 여러 임금을 섬겼으니 나라를 빛낸 文章이며 재상 자리에 올라 정책을 결정하였으니 공적은 역사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은퇴하여 한가히 지낼지라도 옛날의 공덕을 잊을 수 없다. 다시 작위를 올리어 은거하는 집에 영광이 미치게 하노라. 이제 그대에게 『內史令에 승급하여 벼슬을 그만두게 한다』는 告身(사령장) 한 장과 함께 의복, 띠, 銀製그릇, 채색 비단, 피륙, 안장 갖춘 말 등의 물품을 보낸다」

사령장(官誥)은 다음과 같다.

「훌륭한 신하를 얻은 임금이라야 聖君이 된다. 그러므로 舜은 八元을 등용하였고 인재가 있는 나라는 왕성한다. 그러므로 周나라는 네 사람을 맞이 하였다. 대신의 자리를 주기도 하며 스승으로 삼기도 하였다. 충성하며 현명한 진언을 받아들여 성인의 정치로 장식하였고, 나라를 바로 잡는 지혜를 힘입어 임금의 식견을 보좌하였다.

좋은 정치를 실현하고 영원한 영광의 길을 열어놓으려 할 때에 이를 담당할 훌륭한 인물은 누구인가? 나는 바로 그 사람을 얻었노라. 唐太宗이 科擧에서 인재를 얻고서 기뻐하던 바

와 같았고 그대는 禰衡이 모든 사람 위에 솟아나듯이 우리 조정에 들어오게 되었다. 만길이나 되는 金山과 같은 梁의 朱杼보다 낮고 天下第一의 성적으로 科擧에 오른 晉의 郗詵을 숲속에 솟아난 한 가지의 桂枝라 하였다. 재능이 많은 것으로는 叔向도 수레를 붙잡고 만류할 것이요 아는 것이 많은 것으로는 張華도 자리를 물려설 것이다.

임금의 명령을 받고 翰林院에 뽑혀 들어왔을 때 黃帝가 꿈을 꾸고 좋은 신하를 얻은 듯 하였고 周代의 詩에 「훌륭한 대신을 바위처럼 우러러 본다」

고 읊은 것과 같았다. 정부에서 정책을 세우는 것은 모두 杜如晦와 같다는 칭찬을 보냈고 모든 사람의 우두머리가 된 것은 魏舒와 다름이 없다. 항상 나에게 덕을 닦으라는 충고를 주었고 정치를 바르게 인도하도록 노력하였다.

근래에 와서 나이가 아직 그다지 노쇠하지 않았고 치아도 다 빠지지 않았으면서도 일찍 책임있는 자리에서 물러나려하므로 마침내 은퇴할 희망을 이루기에 이르렀다.

「賀知章처럼 湖水 가에서 자연을 즐긴다 할지라도 국가에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언제나 山中으로 陶弘景을 찾아가서 자문을 받던 故事를 따

르리라.

과거에는 그대의 움직임이 백성의 표준이 됐었는데 이제부터는 들어 앉아서 세상 사람들의 스승이 되겠구나.

내가 최고의 계급을 올려주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존대하는 성의를 나타내리오. 그리하여 中書省 최고의 爵位를 주어 모든 관료의 위에 이름을 없애 놓았다.

아아 역량을 보고 관직을 주는 것은 임금의 정상적인 은총이니 내가 어찌 이를 아끼겠는가. 학술을 가지고 정치를 돕는 것은 재상의 직분인데 그대는 이를 잘 수행하였다. 나를 보좌하는 방법을 더욱 베풀어 대신의 의무를 완수하는 길에 이르게 하라. 舜과 周나라에 못하지 않게 되며 八元和 네 신하만이 美名을 독차지하지 않게 하라.」

뒤에 內史門下省을 中書省으로 명칭을 고치고 冲을 中書丞으로 致仕하게 하였다.

공은 천품이 文과 武를 겸하여 들어와서는 재상이요 밖에 나가면 장군이 되었다. 벼슬을 그만두고 집에 들어왔은 뒤에도 국방문제나 정책문제에 있어 중요한 것은 모두 공에게 가서 자문을 받았다.

여러 번 추가하여 推忠贊道佐理同德 弘文懿儒保定康濟功臣의 칭호를 받았다.

顯宗 이후에 전란이 가까스로 종식된 다음이라 教育을 미쳐 실시하지 못했다. 공이 후진들을 불러들여 열심으로 가르쳤더니 많은 學徒들이 모여들어 골목을 메우기에 이르렀다. 공은 마침내 서울 紫霞洞에다 樂聖, 大中, 誠明, 敬業, 造道, 率性, 進德, 太和, 待聘의 9개소의 學堂을 짓고 그들을 수용하여 聖人の 가르침을 익히게 하였다.

모든 科擧에 應試하는 사람은 먼저 이 「徒」가운데에 소속되어 공부하였다. 그러므로 이를 侍中崔公徒라 하였다. 여름철마다 歸法寺의 禪房을 빌어서 여름공부를 하고 學徒 중에서 及第를 하고 학문이 우수하면서도 아직 벼슬을 하지 못한 사람을 뽑아서 敎導를 삼고 九經과 三史를 가르쳤다. 간혹 선배가 들렸을 때에는 짧은 시간내에 짓는 방법(刻燭)에 따라 詩를 지어가지고 이를 평가하여 등급을 매기고 순서대로 이름을 불러서 들어오게하고 간소한 술자리를 차리고 아이와 어른이 양쪽으로 줄을 지어 서서 예절에 따라서 술잔을 주고 받는 의식을 행하는데 나아가고 물러가는 것이나 어른과 아이들의 순서가 정연하였다. 이렇게 종일 詩를 교환하다가 날이 저물면 모두 소리를 내어 詩를 읊고 헤어졌다. 이것을 보는 사람은 칭찬과 감탄을 그치지 않았다. 이때 儒臣으로 「徒」를 세운 사람은 11명인데 공의 徒가 가장 왕성하였다. 우리 나라

에서 학교가 창설된 것이 공에게서 시작되었고 당시에 공을 「海東孔子」라고 불렀다.

宋神宗 熙寧 1年 高麗文宗 22年 戊申 (1068) 9月 甲申日에 守太師 中書令致仕로 세상을 떠났다. 王은 大醫監 李鹽을 보내어 그의 아들인 惟善등에게 詔書를 내려 위문하였다.

「그대의 아버지는 사람중에도 봉황처럼 뛰어난 인물이었고 나라에서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주는 점철 때에 사용하는 거북과 같이 존재였다. 이상적인 정치를 실현할만한 높은 학문을 지니고 일찍부터 대신의 지위에 올랐으며 가장 우수한 제책을 세워서 정책을 보좌하였으니, 그의 훌륭한 업적은 역사에 빛날 것이다. 벼슬을 지낸 남은 경사는 아들과 손자에게 물려주고 나라에서 내린 지팡이를 짚고 한가롭게 지낼 때에 거문고와 서적에 재미를 붙였다. 집에 누워서도 나라를 돕는지라 은거하는 段干木처럼 경의를 포했었는데 두 기둥 사이에 앉았던 꿈이 孔子의 죽음이 될 줄이야 차마 알았으랴 백 사람을 내놓아도 못 바꿀 분이었는데 온 나라가 모두 슬픔에 잠겨 있도다.

그대들은 벼란간 아버지의 상사를 당하였으니 집안의 슬픔이 더욱 크리라 생각된다. 부디 효성으로 받드는 예절을 따르고 지나친 애痛으로 몸을

해치지 말라.」

公은 조정에서 벼슬한 것이 64년 동안이었다. 諡號는 文憲公이다.

宣宗 3年 2월에 「科擧에 第1人으로 합격」한 이유로 靖宗의 廟庭에 配亨되었다.

아들이 들인데 長男은 惟善이요 다음은 惟吉이다. 公은 항상 그들을 경계하기를

「벼슬을 하는데 세력을 등지고 나아가면 결과가 좋은 수가 적고 문학과 조행으로 출세하여야만 끝내 경사가 있는 것이다. 나는 다행히 문학과 조행으로 출세하였으므로 청백과 조심하는 것으로 일생을 마치기로 맹세하였다.」

고 하였다. 마침내 「자손에게 가르치는 글」을 지어서 전하며 또 「두 아들을 경계하는 詩」 두편(家藏에 있음)을 지었다. 公의 子孫이 文學과 조행으로 대신의 지위에 오른 사람이 수십명에 달한다.

公의 손자 思諷은 「검소한 것을 가르치는 글」을 지어서 아들에게 주었고 平章事 湊는 「나의 할아버지는 늘 木器를 사용하였다」는 말을 하였다(補閑集에 의거함).

公이 청렴하고 검소함이 이러하였으므로 후손들은 대체로 청렴하고 강직한 사람이 많았고 욕심을 부리고 부정한 짓을 한 사람이 적었다. 그의 남기신

감화력은 지금까지도 없어지지 않았다.

高麗史贊에 다음과 같이 썼다.

高麗가 건국한 뒤에 모든 것이 초창기가 되어 교육을 미처 일으키지 못하였고 光宗이 문학을 좋아하여 雙冀에게 그 일을 맡겼으나 그의 문학은 겉으로 화려한데만 치우쳐서 후학의 모범이 되기 부족하였다.

沖은 顯宗, 德宗, 靖宗, 文宗의 四代 王朝에 벼슬하여 문학으로 세상에 이름이 드러났다. 儒學을 일으킬 것을 자기의 책임으로 생각하고 후진을 불러들여 열심이 가르쳐서 공부하러 오는 사람이 날로 늘어나서 당시 12公徒의 으뜸이 되었으며 우리 나라에서 학교교육이 왕성하게 일어난 것은 沖에게서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문학으로 우수한 인사들이 많이 나와서 국가의 문화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고 이로 인하여 우리 나라가 詩書의 나라로 이름이 알려져 지금까지 내려오게 된 것은 모든 것이 다 沖의 혜택이었다. 공은 號를 惺齋 또는 月圃라 하였다.

申象村集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다.

崔文憲公이 후진들을 불러들여 열심히 가르친 결과 학도들이 많이 몰려들어 골목을 메우게 되었다. 마침내 九齋를 지어서 그들을 가르쳤으니 이를 侍中 崔先生徒라 하였다. 이 밖에 儒臣으로서 徒를 설치한 사람이 11명이 있으

니 弘文公徒는 侍中 鄭倍傑이 설립한 것인데 熊川徒라고도 한다. 匡憲公徒는 參政 盧坦이, 南山徒는 祭酒 金尙賓이 西園徒는 僕射 金無滯가, 文忠公徒는 侍郎 殷鼎이, 良愼公徒는 平章 金義珍, 혹은 郎中 朴明保가 貞敬公徒는 平章

黃瑩이, 忠平公徒는 柳監이 貞憲公徒는 侍中 文正이, 徐侍郎徒는 徐碩이 龜山徒는 學士 吳學麟이 각각 세워져 세상에서 12公徒라고 하는데 文憲公徒가 가장 왕성하였다.

畫像贊

陽村權近 撰

箕化已邈法敦綱淪文祥燦奎勃興斯辰金玉志操水月精神學究典謀識徹天人德行爲寶清儉銘身仁篤孝悌義倡經綸誠明立教正禮牖民父父君君變夷定倫功冠道東百世猶新

畫像贊

陽村權近 지음

箕子의 教化도 벌써 멀어졌고 聖人의 法이 무너졌다. 文明의 징조가 나타나 奎星에 다섯 별이 모여들었다. 이러한 시기에 공이 탄생하였으니 金玉 같은 그의 志操며 물과 달 같은 그의 정신이었다. 학문은 經에 근본을 두었고 지식은 하늘과 사람의 이치를 통달하였다.

덕행을 보물로 여겼으며 청렴과 검소를 몸에 새겼다. 仁은 호성과 우애를 철저히 하였고 義는 학문을 바로잡아 일으켰다. 誠明으로 교육의 바탕을 세웠고 禮를 바로잡아 백성을 깨우쳤다. 아버지는 아버지노릇, 임금은 임금노릇, 미개한 문화를 변혁시켜 윤리를 정해놓았다. 道學을 우리 나라에 수립함에 있어서 세우신 首勲은 百世가 지났어도 오히려 새롭도다.

重修畫像贊

身爲柱石邦家之績家爲學官名教之功文憲之德搢紳之則後學寔宗永仰高風

永樂三年乙酉春正月十一代孫藝文館直提學知刑曹事關重修

嘉靖己酉八月黃海道觀察使周世鵬祭文曰昔麗之興兮五紀有強人欲滔滔兮天理茫茫上帝是傷兮降公東方斧藻道德兮斥霸談王澄清濁世兮國賴以昌誨及螟蛉兮濟濟門墻澤流子孫兮萬福無疆一厭烟食兮缺飛霞裳載乘黃鶴兮還于帝傍九齋兮

草荒化家兮爲庠西海兮洋洋峨峨兮首陽公之亡兮四百十霜我來白髮兮公之鄉公
 像兮在堂我淚兮盈眶蘭芝兮正芳菱芡兮是香駕龍兮慘鳳公庶幾兮歆我觴
 嘉靖庚戌五月黃海道觀察使周世鵬都事趙應恭海州牧使鄭希弘祭文曰於逖我東
 教自殷箕下逮三國世乏其師茫茫厯俗如夜無曦唯薛篤晦曰頭其辭衰彼狐雲號稱
 先知自陷異端餘又何悲趙宋受命麗運方熙丁卯聚奎厥祥丕丕天於內外曷有其私
 猗歟我公正應斯期雖無錦繡其文陸離所粹德行圭璋可輝景德乙巳公始鳳儀熙寧
 戊申公乃騎箕六十四年爲世元龜生先濂洛實同其時文明相符妙不可欺肇開我庠
 獨尊仲尼傳家清儉其寶允奇九齋有徒觚佛有兒徵公之功被髮何疑首山峩峨西海
 之湄聖廟有儼是公舊基公祠蕪沒觀者涕垂移而闢之永安孔宜明月爲燭碧雲爲旗
 鸞輪羽蓋驂以赤螭庶眷我裏降歆勿遲

畫像을 重修한 다음에 지은 贊

나라에서는 주춧돌과 같은 공적을 세웠고 개인으로서 학교를 설립한 것은 儒學界의 큰 공헌이다. 文憲公의 덕은 학자들의 모범이 되었다. 후학들이 존중하는 마음으로 높은 풍모를 영원히 우러러 본다.

永樂 3年(朝鮮太完 5年—1405)春正月 11代孫 藝文館直提學知刑曹事關이 重修함.

祭 文

嘉靖己酉(朝鮮明宗 4年—1549) 8月 黃海道觀察使 周世鵬의 祭文

옛적 高麗가 나라를 세운지 150년이 지난 시기에 사람들은 사육이 충만하였고 하늘 이치는 아득하기만 하였다. 하늘님은 이를 슬퍼하여 공을 우리나라에

내려보냈다. 道德으로 몸을 장식하였고 霸術을 배척하며 王道를 주장하였다. 혼탁한 세상을 깨끗하게 변혁시키니 이로 인하여 나라가 번창해갔다. 학도를 육성하여 문학에 선비가 가득하였고 혜택이 자손에 미쳐서 끝없이 많은 복을 누렸다.

마침내 속세에 싫증을 내어 후련히 옷자락을 하늘로 날려서 누른학을 타고 다시 하느님 곁으로 돌아갔다. 집을 가지고 학교를 세웠더니 九齋에는 잡초가 우거졌다. 西海는 넓고 넓고 首陽山은 높고 높다. 공이 가신지 480년 나는 백발을 흘날리며 공의 고장을 찾아왔다. 마루 위에 모신 공의 화상을 뵈옵고 나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하였다.

향기로운 제물로 정성을 올리오니 龍과 鳳을 타고 내려오셔서 공이어 나의 술잔을 받아주소서.

嘉靖庚戌(1550) 5年 黃海道觀察使 周

世鵬, 都事 趙應恭, 海州牧使 鄭希弘의
祭文

오랜 옛날 우리 나라에는 殷의 箕子
가 와서 教化를 폈다. 아래로 三國時代
에 와서는 세상에 스승될 사람이 없었
다. 미개한 문화는 태양이 없는 밤과
같았다. 오직 薛聰이 있다하나 그의 학
문은 전한 것이 없고 末期의 崔孤雲은
先覺者라고 하나 자신이 異端에 빠졌
다. 그 나머지 사람이야 문제될 수 있
으랴. 宋나라의 王朝가 일어날 때에 高
麗에도 文明의 기운이 농후하였다. 丁
卯年에 奎星에 모여들었던 다섯 별은
그 징조를 예시하였다. 中國이나 外國
이나 간에 하늘이야 무슨 경계를 두었
으랴.

위대하다 우리 공은 이런 시기에 태
어났다. 비단옷 아니라도 그의 문장이
찬란하였고 순수한 그의 덕행 옥처럼
빛났다. 景德 乙巳年에 처음으로 조정
에 나와서 熙寧 戊申에 세상을 떠났으니
64년 동안 세상에서 스승이 되었다. 宋

文和公傳

公諱惟善文憲公冲之長子也天聖八年顯宗二十一年庚午四月赴簾前親試上謂侍
臣曰華國文章花月亦與其試朕欲並試要其捷疾先放賦題君猶舟及賦畢就方寫乃
署詩題御苑種仙桃公即應題直書名紙詩見家藏詩與賦俱稱旨御手批爲榜元遂擢乙科
獨步第一名授七品入翰林苑翌年拜禮部員外郎掌制誥出補閣集文宗元年丁亥七月以
御史雜端遷樞密院知奏事六年正月翰林學士七月拜刑部尙書九月拜知中樞院事
如契丹吊喪會葬十年丙申王創興王寺于德水縣移其縣於陽川公諫曰昔唐太宗神

나라의 性理學者들보다 먼저 출생했지
만 시대로 보면 거의 비슷하다. 文明의
運이 서로 들어맞음을 보면 정말 미묘
한 이치를 속일 수가 없다. 처음으로
私學을 설치하여 홀로 孔子를 존송하였
다. 집안에 물려준 청렴과 검소, 그것
을 보물이라고한 말씀 정말 기발한 표
현이다. 九齋에 門徒가 있는 이상, 불
교를 배척할 후계자가 있을 것이다. 공
의 공로가 아니었다면 미개인을 어찌
면할 수 있었으랴.

首陽山 높이 솟은 東海 가에 孔子의
사당이 엄숙히 서있다. 이곳은 공의 옛
터전인데 지금 공의 사당에는 잡초가
우거져서 보는 사람의 눈물을 자아낸
다. 이제 자리를 옮겨서 터를 닦아 놓으
니 공을 영원토록 모시기에 적합한 곳
이다. 밝은 달은 촛불이요 푸른 구름은
깃발이라 바람으로 수레를 삼고 붉은
龍으로 물고 와서 나의 정성을 받아 들
여 빨리 이 술잔을 드시옵소서.

聖英武數百年以來未有倫比不許度人爲僧創立寺觀遵述高祖之志益固王業史傳美之我太祖訓要曰國師道誥察國內山川順逆凡可以創造伽藍之地無所不爲後世嗣王及公侯貴戚后妃臣僚無得爭修願宇以虧損至德今殿下承祖宗績累之功區內向成固宜節用而愛人能持盈守成以傳後嗣奈何罄民財竭民力以供不急之費欲危邦本耶臣竊惑焉王優答曰卿言誠忠朕夙願已成不可回革異日侍御清燕上從容慰獎曰諫爭是忠從好佞公對曰創垂猶易守成難^{出麗史}公之啓沃類此雖虞夏之賡歌何以加此^{並出補閑集}十五年八月判尙書禮部事十一月叅知政事權判翰林院事十二月中書侍郎同中書門下平章事十九年王御文德殿覆試進士侍御史盧旦奏事忤旨王怒謂左右曰此非忠謇之臣命曳出脫欄將縛之公奏曰人臣有罪必付憲司乃彝憲也王怒稍止王以重陽節宴松嶽亭命羣臣賦詩覽公製稱獎不已賜尙乘馬二十一年公爲中書令弟惟吉守司空攝尙書令是時文憲公年高尙無恙日王賜國老宴公與弟尙書令扶以入侍時稱盛事翰林學士金行瓊作詩智曰紫綬命章子及孫共陪鳩杖醉皇恩尙書令侍中書令乙壯元扶甲壯元曠代唯聞四人到一門今見兩公存家傳豕宰猶爲罕世襲魁科最可尊幾日搢紳相藉藉今朝街路更喧喧聯翩功業流青史雖禿千毫不足言^{出補閑集}二十二年正月判尙書吏部事賜推忠贊化康靖綏濟功臣號加開府儀同三司是年九月甲申丁文憲公憂二十五年正月守司徒太師上柱國二十七年拜門下侍中時西北面兵馬使奏內附藩人都令多於皆等以三山村賊殺掠人物與定州郎將文選出擊有功請加恩賞公曰三山村賊元非犯境之寇今藩軍不因朝旨以酬私仇若加褒賞反增仇怨請勿從願王允之二十九年乙卯正月壬寅卒立朝四十六年諡文和公宣宗三年二月以龍頭配享文宗廟庭公繼世儒宗傳家相業匡輔兩朝人皆重之鄭中丞子厚叙雜書載公閨情詩云黃鳥曉啼愁裡雨綠楊晴弄望中春又梳詩云入用宜加首何曾在匣中非但才華瞻給足以知位極人臣也^{出補閑集}

文和公傳

公은 이름은 惟善. 文憲公 冲의 長子
다. 天聖 8年(高麗顯宗 21年) 庚午 4月
에 簾前親試에 참가하였는데 王은 侍臣
에게

「나라를 빛내는 文章에게는 꽃과 달

도 이 시험에 참가하였구나. 나는 빨
리 짓는 재주까지 시험해 보겠다.
하고 먼저 賦의 題目으로 「임금은 배와
같다—君猶舟」를 내었다. 賦가 거의 끝
날 무렵 다시 詩의 題目으로 「임금의

정원에 仙桃를 심는다—御苑種仙桃」를 내었다. 公은 題目이 나오자마자 곧장 名紙에 썼다. (詩는 집안에 간직되어 내려온다) 詩와 賦가 모두 王의 마음에 만족하여 곧 御筆로 1等 合格을 매기고 乙科 獨步 第1名으로 뽑아 7品官級을 주어 翰林苑에 들어갔다. 다음해에 禮部員外郎이 되어 制誥를 맡았다(補閑集에 依함). 文宗 元年丁亥 7월에 御史雜端에서 樞密院 知奏事에 옮겼다. 6年 正月에 翰林學士, 7월에 刑部尙書, 9월에 知中樞院事에 임명되어 契丹에 가서 吊喪하고 葬禮式에 참여하였다. 10年 丙申에 王이 興王寺를 德水縣에 세우기 위하여 그 縣을 陽川으로 옮기려 하였다. 公이 간하였다.

「옛적 唐太宗은 덕과 재능이 뛰어난 임금으로 수백년 이래로 그를 따를 임금이 없었습니다. 그는 백성이 승려로 들어가는 것과 절을 새로 세우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高祖의 뜻을 따라서 王業을 더욱 튼튼히 하였으므로 역사에서 그를 칭찬하였습니다. 우리 太祖가 내리신 訓要에 『道誥國師가 國內 山川의 順逆을 조사해서 절을 세울 만한 곳에는 모두 지어놓았으니 후세의 임금이나 公侯, 貴戚, 后妃, 臣僚는 다투어 願刹을 세워서 땅의 기운을 손상하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하였습니다. 「지금 殿下께서는 선대의 왕께서 쌓으신 공을 이어

받들어서 나라가 안정되어가는 이때에 경비를 절약하고 백성을 사랑하며 현실에 만족하고 이루어 놓은 전통을 지켜서 후속에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어찌하여 백성의 재물과 백성의 힘을 다하여 급하지 않은 경비에 충당해 가지고 나라의 근본을 위태롭게 하려 하십니까? 신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왕은 좋은 말로 답하였다.

「경의 말은 정말 충성스럽다고 생각한다. 다만 내가 평소부터 원하던 것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다시 고칠 도리가 없다.」

뒤에 淸燕閣에서 임금을 모시게 되었는데 왕은 조용히 좋은 말로 위로하였다.

「임금의 잘못을 간하는 것이 충성이요 임금이 좋아하는 대로 추종하는 것은 아첨하는 것이야.」

공은

「나라를 창건하며 전통을 세우는 일은 오히려 쉽지만 그 전통을 지켜 나가는 일이 더 어렵습니다.」

공이 임금에게 충고를 드리는 것이 대개 이러한 것이었으니 舜과 禹시대의 君臣 사이에 주고 받은 말들도 이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 하겠다. (이 항목은 모두 補閑集에 의거함) 15年 8월에 判尙書禮部事, 11월에 忝知政事로 權判翰林院事, 12월에 中書侍郎에 同中書門下

平章事에 승진되었다.

19년에 왕이 文德殿에 나 앉아서 進士에게 覆試을 실시하는데 侍御史 盧근이 進言한 것이 왕의 비위에 거슬렸다. 왕은 화를 내며 측근에게

「이 사람은 충직한 신하가 아니다.」 하며 끌어내어 관복을 빼끼고 묶으려 하였다. 공이 아뢰기를

「신하가 죄가 있으면 憲司에 회부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하여 왕의 노여움이 차츰 풀어졌다.

왕은 重陽節에 松嶽亭에서 연회를 베풀고 여러 신하들에게 詩를 짓게 했는데 공이 지은 것을 보고 칭찬을 그치지 아니하며 尙乘馬를 상으로 내렸다.

22년에 공은 中書丞이고 아우 惟吉은 守司空으로 尙書丞을 대행하였다. 이때 文憲公은 나이가 많은데도 아직 건강하였다. 하루는 왕이 나라의 元老에게 연회를 베풀는데 공과 아우인 尙書丞이 부축하며 대궐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라 칭찬하였다. 翰林學士 金行瓊이 詩를 지어 축하하였는데

「자수빛 印綬와 貴金빛 冠服을 갖춘 아들과 손자. 함께 비둘기를 장식한 지팡이를 모시고 임금의 은혜 속에 술이 취했다. 尙書丞이 中書丞을 모셨고 乙壯元이 甲壯元을 부축하였다.

역사에는 넷 노인이 왔다는 기록만이 전하는데 지금에 두 분이 계신 것

을 직접 보았다.

한 집안에서 정승이 대를 잇는 것도 드문 일이거니와 대대로 壯元을 독차지하는 것은 더욱 높은 영광이다.

며칠동안 朝臣들 사이에 칭송이 자자했는데 오늘 아침에는 길거리에서도 소문이 굉장하구나.

대를 이은 功業이 역사에 전할 것이니 천 자루의 붓이 다 달아 없어져도 이루다 축하를 드리지 못하리라」 하였다. (補閑集에 의거함)

22年 正月에 判尙書吏部事에 승진되고 推忠贊化康靖綏濟功臣의 칭호를 주고 開府儀同三司의 爵位를 추가하였다.

이해 9月 甲申日에 文憲公의 喪事를 당하였다.

25年 正月에 守司徒 太師 上柱國에 오르고 27年에 門下侍中에 임명되었다.

이때에 西北面兵馬使가 보고하기를

「우리에게 歸屬한 女眞土人인 都令 多於皆等이 三山村의 賊들이 사람과 家畜들을 살해하였다는 이유로 定州 郎將 文選과 합세하여 賊을 공격하여 공을 세웠으니 그들에게 恩賞을 내려 주옵소서.」

하였다. 이에 대하여 공은

「三山村의 賊이란 것이 본시 國境을 넘어온 賊이 아닌데 지금 土人의 군대가 나라의 명령도 없이 私的인 원수를 갚은 것이니 만일 그들에게 賞을 준다면 도리어 감정과 원한을 증

대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니 그 요청을 들어주지 마옵소서.」
왕은 그대로 따랐다.

29年 乙卯 正月 壬寅日에 세상을 떠났다. 조정에 있는 것이 46年間이었다. 諡號를 文和公이라 하였다.

宣宗 3年 2月에 壯元及第이였음으로 文宗의 廟庭에 配享되었다. 公은 대대로 儒學의 스승이며 대를 이어 정승이 되어서 兩代의 王朝를 보좌하여 사람들이 모두 존중히 여겼다.

鄭叙(벼슬은 中丞, 字는 子厚)의 「雜書에 公이 지은 『閨情』詩가 실렸다.」

「비 소리에 마음이 어수선한데 [피플이는 새벽에 울고,

임 그리는 봄철에 푸른 버들은 개인 날씨를 희롱한다」

또 「빗(梳)」을 읊은 詩에

「필요할 때에는 머리에 쓰는 것이, 본시는 경대서랍 속에 간직해 두었던 것이 아닌가?」

이는 公의 재주가 넘치는 작품일 뿐 아니라 이것으로도 신하로서 최고의 지위에 오를 것을 짐치기에 충분한 것이다. (補閑集에 의거함)

畫像贊

雙梅堂李詹撰

彩鳳儀世瑞雲呈色德惟和粹風範灑落才煥天葩業闡淵學內濬孝源外砥忠節攘觚
竺虺洪流碣石贊襄守成棟樑王國長夜初晰太白配月積善有徵世趾廉潔清標尚肅
敬仰貽則

畫像贊

雙梅堂 李詹 지음

찬란한 鳳이 세상에 나온 듯. 오색 구름이 빛을 나타낸 듯. 평화로우며 순수한 인격이었고 높고 맑으신 품채였다. 재분은 선천적으로 높았고 공적은 깊은 학문에서 기인하였다. 안에서는 효성이 지극하였고 나아가서는 충절이

철저하였다. 불교의 학설을 배척함에 거센 물결을 막아내는 바위와 같았고 나라의 정치를 보좌함에는 보좌 기동처럼 든든하였다. 긴긴 밤이 밝아오는데 셋별과 달빛이 함께 비치는 듯 하였다. 선한 공덕을 쌓은 증거는 대대로 청백함을 계승하였다. 맑으신 품모 아직도 엄숙하여 우러러 볼 적마다 교훈을 준다.

重修畫像贊

於惟先生惟德之行胄子文憲世緒其昌敢盡忠言敬修臣職玉蘊山立東方是則丹青

雖舊風彩惟新誰與修之孫有令人

永樂三年乙酉春正月日十代孫藝文館直提學知刑曹事關重修

嘉靖庚戌五月黃海道觀察使周世鵬都事趙應恭海州牧使鄭希弘祭文曰公惟善繼允矣直方聖學是崇虜教是攘揭鑑蕭梁鳳鳴朝陽若築大堤滔天是防責難守成啓沃有章克配親廟吾道之光

다시 모사한 화상의 찬(重修畫像贊)

아아 선생께서는 덕에 의거한 일만을 행하였다. 文憲公의 맏아들로 그 훌륭한 업적은 대를 이었다. 충직한 말씀을 극진히 울리어 신하로서의 직분을 공경히 닦았다. 옥처럼 맑으셨고 산처럼 우뚝하셨다. 우리 나라에서는 공을 표준

으로 본받았다. 화상을 그린지는 오래 되었으나 풍모는 아직도 새로와 보인다. 누가 다시 모사하였는가? 훌륭한 후손에서 이루어졌다.

永樂 3年(朝鮮太宗 5年—1405) 乙酉春正月日 10代孫 藝文館 直提學 知刑曹事 關이 다시 모사함.

嘉靖庚戌(朝鮮明宗 5年—1550) 5월에 黃海道觀察使 周世鵬,

文憲書院廟庭碑文

五星聚奎宋朝羣賢輩作惟我東方先得文明之運高麗太師文憲崔先生出焉先生稟純粹之氣應亨泰之會闢異扶正使六籍丕闡稱爲海東孔子先生諱冲字浩然號惺齋又曰月圃海州大寧郡人父曰溫先生生於成宗丙戌宋雍熙三年也擢乙巳甲科歷事顯德靖文四朝陳王道斥霸術在樞府也請書揭說苑六正六邪之文漢六條之令在侍中也考定律令書算入太傅以節用蠲役奏其典試所貢士皆拜尚書世號尚書榜文宗丁未先生年高尚無恙令二子扶入國老宴策推忠贊道佐理同德弘文懿儒保定康濟功臣太師中書令致仕以累代儒宗三韓耆德賜几杖遣平章事金元鼎中樞王懋崇等又侈衣帶鞍馬之錫先生資兼文武出入將相雖休居鄉園軍國大事悉就咨焉顯宗以後干戈纔息學徒仝集遂構九齋於國都紫霞洞時吾道大行始尊九經三史排浮華務實踐見弟子之服儒行儒人謂之崔侍中門徒嘗戒子孫曰吾幸以文行顯誓以清慎終卒於宋熙寧元年戊申壽八十三王遣太醫李鹽吊議諡文憲配享靖宗廟二子曰惟善中書令諡文和曰惟吉尚書令本支蕃衍一門登宰輔者數十人皆以儒學進文

和公字樂夫號松灘天挺和粹風儀灑落受業父師學冠九齋顯宗庚午擢親試官至太師上桂國門下侍中以王佐才久居冢宰崇聖道攘釋教爲任配食文宗庭附享文憲祠嗚呼文憲文和兩先生繼世師表傳家秉軸德行勲業焜耀簡策非後學所敢操觚闡揚也我朝龍興屢舉其裔而錄之陽村權公贊兩先生像廟初在聖廟西嘉靖庚戌周慎齋公爲海西伯移建于西墅做設九齋又依白鹿故事請宣額明廟特許之驛途九經性理程朱之書又領土田隆慶辛未道臣朴公承任牧使韓公性源又移建于席洞白雲峯下栗谷李文成公退休石潭以長院作學規而揭之顯宗癸丑道臣尹公容請封山之材修之肅廟乙丑明谷崔公改模兩先生像妥奉之後道臣相繼捐助爲修輯費今上哲宗壬戌先生後孫琮炯載奎憂棟宇之頽圯謀貞珉之紀實請貲徵銘裕元曰先生廟重新於數百載之下是賴諸君也今裕元已記之何又銘爲裕元之按是道謂慕德之愈深而義不敢辭歟粵在宣廟詔使許國魏時亮來問東方有知孔孟心學者退溪李文純公以先生及圃隱晦軒諸公書對先生之學有以知嫡派正傳矣東國禮樂文物不讓于宋朝而儒家淵源始於先生傳曰動而世爲天下道行而世爲天下法易曰君子以懿文德此先生之德之功也銘曰惟殷父師明夷筮東歷羅至麗文憲是崇平道賢星圓曜周穹宗統屬一以開群蒙曰東大闢有中華風環林壁水染藍特功蠡文藕毛擯斥西戎正色立朝治係汙隆趾美文和克始克終文章花月王褒由中讜言正直勝史鑄忠世世句躔鍾鼎紀豐異龕同宇遺像魁雄憲古師今恩饒兩公人之所仰神之所通維壬之春堂貌重工肖裔斯百薦誠攸同瞻望雲峯新建廟官麗牲有石巖巖于嵩敬撰銘詞永示無窮

崇禎紀元後四癸亥十月日正憲大夫禮曹判書兼知經筵義禁府春秋館事弘文館提學同知成均館事五衛都摠府都摠管奎章閣直提學月城李裕元撰

嘉善大夫行弘文館副提學兼同知經筵義禁府春秋館成均館事五衛都摠府副摠管奎章閣檢校直閣知製教東萊鄭健朝書并篆

文憲書院廟庭碑文

五星이奎星에 모여들어서 宋나라에 여러 학자가 한꺼번에 일어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보다 먼저 文明의 運이 들어와서 高麗의 太師文憲公 崔先生이

탄생하였다.

선생은 순수한 기품을 타고 났으며 道가 밝혀지는 좋은 시기에 맞추어 나와서 異端을 배척하며 바른 道를 옹호하여 크게 六經의 학문을 밝히어서 「海東孔子」라는 칭호를 받았다.

선생의 이름은 冲, 字는 浩然, 號는 惺齋, 또는 月圃라고도 한다. 海州 大寧郡 출신이다. 아버지는 溫. 선생은 成宗 丙戌年에 출생하였으니 곧 宋熙宗 雍熙 3年이다. 乙巳年에 甲科에 합격하여 顯宗, 德宗, 靖宗, 文宗의 4대의 왕조를 차례로 섬기면서 王道를 진술하고 霸術을 배척하였다. 樞府에 있을 적에 說苑에 나타난 「六正六邪」의 내용과 漢나라에서 제정한 「六條」의 명령을 써붙이게 하였고, 侍中으로 있을 적에는 律令과 書算을 考定하였고 太傅로 들어가서는 「경비를 절약하며 백성들의 부과를 경감할 것」을 건의하였고 그가 考試를 맡았을 때 뽑은 인재들은 모두 뒤에 尙書에 임명되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이 考試를 「尙書榜」이라고 불렀다.

文宗 丁未年에 선생은 나이가 많았지만 아직도 건강하였으므로 두 아들에게 부축을 받고 國老宴에 참가하였다. 推忠贊道佐理同德弘文懿儒保定康濟功臣에 봉하고, 太師 中書令의 爵位를 주어 벼슬을 마치게 하였다. 여러대 동안 儒學者의 스승이었고 우리 나라의 덕망 높은 원로였으므로 几杖을 주고 平章事 金元鼎, 中樞 王懋崇등을 보내고 또 衣帶와 鞍馬를 화려하게 갖추어 주었다.

선생은 인품이 文과 武를 겸비하여 들어와서는 재상, 나가서는 장군의 임무를 담당하였으며 시골에 은퇴한 뒤에도 국방이나 정책에 대한 중요한 문제

가 있을 때면 모두 선생에게 가서 자문을 받았다.

顯宗 이후에는 전쟁이 종식되고 학도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마침내 國都 紫霞洞에 九齋를 지어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때부터 우리 道가 크게 행하여 비로소 9經과 3史를 존송하였으며 허영과 사치를 배격하고 실천에 힘쓰게 되었다. 젊은 사람들이 儒者의 의복을 입고 儒者의 예의를 행하는 사람을 보면 사람들은 그가 崔侍中公徒라 하였다.

평소에 자손에게 경계하기를

「내가 다행히 문학과 조행으로 출세하였으니 앞으로는 청백하며 근신하는 자세로 여생을 마치기로 맹세한다.」

하였다. 宋熙寧 1年 戊申(高麗 文宗 9年—1068)에 세상을 떠났다. 나이는 83歲였다. 왕은 太醫 李鹽을 보내어 吊問하며 諡號를 논의하여 文憲으로 정하고 靖宗의 廟庭에 配享하였다.

아들이 둘인데 惟善은 中書令, 諡號가 文和公이요 惟吉은 尙書令이다. 자손이 번창하여 한 집안에서 재상의 지위에 오른 사람이 수십인에 달하였는데 모두 문학으로 출세하였다.

文和公은 字는 樂夫, 號는 松灘이다. 천품이 화평하고 순수하며 풍모가 맑고 깨끗하였다. 아버지에게서 공부하여 학문이 九齋에서 으뜸이었다. 顯宗 庚午

年에 親試에 뽑혀서 벼슬이 太師 上柱國 門下侍中에 이르렀다. 임금을 王道로 보좌할 역량을 가지고 오래 재상의 자리에 있으면서 儒道를 존중하고 불교를 배격하는 것으로 자기의 임무를 삼았다. 文宗의 廟庭에 配享되고 文憲公의 書院에 함께 제사를 받들었다.

아아 文憲公과 文和公 두 선생은 세대를 계승하여 나라의 師表가 되었고 집안에서 전승하여 國政을 맡아서 德行과 勲業이 역사에 빛나고 있으니 後學으로서 감히 붓을 잡고 闡揚할 필요가 아니다. 우리 나라(李朝)가 일어난 뒤에 여러번 그 후손을 등용하여 채용하였고 權陽村近 이 두 선생의 畫像에 贊을 지었다.

선생의 사당이 처음에는 孔子廟의 서쪽에 있었는데 嘉靖 庚戌年(朝鮮明宗 5年—1550)에 周愼齋(世鵬)가 黃海道觀察使로 있으면서 西쪽 郊外로 옮겨 세우고 九齋를 모방하여 설치하고 또 白鹿洞規의 故事에 의거하여 나라에 額號를 내려주기를 청하였다. 宣祖는 이를 특별히 허락하고 九經과 性理學에 관한 書籍과 程子, 朱子의 著書를 驛便으로 보내어 주고 또 소속 토지도 마련하였다. 隆慶辛未年(宣祖 5年—1571)에 黃海道觀察使 朴公 承任과 海州牧使 韓公 性源이 또 席洞 白雲峰 아래로 옮겨 세우고 栗谷 李文成公이 石潭에 은퇴할 때에 院長이 되어 學規를 제정하여 벽

에 걸어 놓았다. 顯宗 癸丑年(14年—1673)에 黃海觀察使 尹公 容이 나라에 청하여 산에서 재목을 내어 수리 하였고 肅宗 乙丑年(24年—1685)에 明谷 崔公(錫鼎)이 두 선생의 畫像을 다시 모사하여 모셔놓았다. 뒤에도 觀察使들이 서로 계속하여 경비를 보조하여 수리해 내려왔다. 지금 임금(哲宗) 壬戌年(13年—1862)에 선생의 후손인 琮炯과 載奎가 건물이 퇴락한 것을 걱정하며 碑石을 세워서 사실을 기술해 둘 것을 모의하고 경비를 요청하며 碑銘 지어줄 것을 부탁하였다. 나는 이런 말을 하였다.

「선생의 사당이 수백년 후에 다시 신축된 것은 여러분들의 힘이다. 내가 이미 이 사실을 기술한 이상 새삼스럽게 銘은 지을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나 내가 이 道의 觀察使로서 선생의 덕을 더욱 사모하고 있으니 의리상 어찌 사양하리오? 과거 宣祖 때에 明나라 使節인 許國과 魏時亮이 왔을 때에 『貴國에 孔子의 心學을 아는 학자가 있었느냐』고 물을 때에 退溪李文純公은 선생과 圃隱, 晦軒 등 여러분을 지적하여 대답한 일이 있다. 이것으로도 선생의 학문이 정통 학파로서 올바른 전통임을 알 수 있다. 우리 나라의 禮樂과 文化가 宋朝에 못하지 않지만 儒學의 淵源은 선생에게서 시작되었다. 옛글에 『움직

이면 대대로 천하의 道가 되며 행하면 대대로 천하의 법이 된다』하였고 周易에는 『君子는 그것을 따라서 文化와 德을 높인다』 하였으니 이것이 곧 선생의 덕이며 공적이다」

銘을 다음과 같이 짓는다.

옛적 殷의 箕子는 아버지와 스승의 자격을 가지고 明夷(周易의 卦名)의 점괘를 얻어서 우리 나라에 왔다. 新羅를 거쳐 高麗에 이르러 文憲先生이 이 道를 높였다. 평탄한 도학은 宋나라의 학자와 맞서며 오묘한 이치를 탐구함은 周代의 깊은 원리를 찾아내었다. 정통적인 도를 높이 받들며 순수한 길을 밟아서 모든 사람을 교육하였다. 우리 나라의 학술이 크게 천명되어 중국과 같은 수준에 달했다. 학교의 교육을 통하여 훌륭한 제자를 양성한 것은 특별한 공적이었으며 이단을 배격하여 불교를 물리쳤다. 일굴빛을 엄숙히 하여 조정에서 있을 때에는 정치가 잘되고 못되는 것이 선생에게 달려 있었다. 훌륭한 전통을 이어받은 文和公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잘 하였다. 꽃과 달을 문장으로 시험할 때에 임금의 칭찬이

궁중에서 나왔다. 바른 말로 임금을 간한 정직한 충성은 高麗의 역사에 기록되었다. 대대로 높이 받들었고 공적을 金石에 새겼다. 같은 건물에서 다른 神室에 모셨는데 남아있는 초상이 기록하도다. 옛 사람과 지금 사람에게 법이 되며 스승이 되시니 두 선생께 제사를 올립니다. 사람들은 우러러 보며 神과도 통합니다. 壬戌年 봄에 書院이 새로 건축되었으니 많은 후손들의 정성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白雲峯을 바라보니 사당이 새로 당청되었다. 碑石을 새로 세우니 우뚝한 그 모습. 삼가 銘을 지어 영원한 세대에 보이노라.

崇禎紀元後四癸亥(哲宗 2年—1863) 10月 日에 正憲大夫 禮曹判書 兼知經筵, 義禁府, 春秋館事 弘文館提學 同知成均館事 五衛都摠府都摠管 奎章閣直提學 月成 李裕元 지음.

嘉善大夫 行弘文館副提學 兼同知 經筵, 義禁府, 春秋館, 成均館事 五衛都摠府 副摠管 奎章閣檢校, 直閣 知製教 東萊 鄭健朝 글씨를 쓰고 篆額까지 썼음.

畫像改模記

文憲崔先生學貫天人道合濂閩寔我東方理學之祖也胤子文和公克纘父緒闢異扶正俱載麗乘焜耀耳目至 本朝周愼齋世鵬建院而並侑之又有兩公畫像不記何年所寫而重修於

永樂乙酉陽村權公贊之模寫於 明陵乙丑自京第移奉於本院明谷崔公爲文而告之其後百三十五年己卯後孫永儀鎮東等懼夫久而渝昧謀所以壽之又改模兩本重新廟宇而虔奉焉宛若夫子在座伯魚趨庭嗚呼盛矣程子曰一髮不似便是別人今夫八百餘年之間重修者一移模者再安知無一毫爽其眞耶昔孔子沒門人以有若似聖人欲以所事孔子事之噫麒麟走獸鳳凰飛鳥有子已言之豈特別人而已然欲樞衣師事於言行氣象彷彿之地者盖出哀慕惻怛之情愛其似而欲加之敬也大抵傳神家謂之七分吾未知二公之像始寫而似焉者何如屢模而爽焉者何如而全似雖不可必全爽亦無是理意必有似之存焉者且幾分耳夫以雲仍之追慕名祖後學之尊仰先賢得此幾分之似於千載之下者已幸矣其尊親親之誠又豈孔門諸子之比乎小子亦嘗瞻謁於未改模之前符采昭朗春風滿座殆若親受薰炙者然矧乎居其鄉而遊息於是齋者出入如奉杖屨朝夕如承警咳則其矯揉氣質薰陶德性之美必有不可勝言者嗟乎像之所存即道之所寓也後之人苟能以永儀鎮東之心爲心則 公之道庶乎其不墜諸生勉之崇禎紀元後四壬辰月日資憲大夫原任吏曹判書 兼知經筵義禁府事弘文館提學藝文館提學知春秋館事 世孫左副賓客五衛都摠府都摠管李勉昇謹記

畫像改模記

文憲公 崔先生은 학문이 하늘과 사람의 이치를 관통하였고 道는 濂과 閩의 학설(宋代 性理學)과 일치하였으니 곧 우리나라 性理學의 시조다. 아들 文和公은 아버지의 전통을 잘 이어받아서 異端을 배격하며 正道를 옹호하였다. 모두 高麗의 歷史에 실려서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다. 우리 나라(李朝)의 愼齋 周世鵬이 書院을 創建하고 두분을 함께 제사를 드렸으며 또 두분의 畫像은 어느 年代에 그린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永樂 乙酉年에 새로 수리하여 陽村 權公이 贊을 지었고 다시 明宗 乙丑年에 모사하여 서울 집에서 本院에 옮겨 모

실 때에 明谷 崔公이 祭文을 지어서 告하였다. 그 뒤 135年이 지난 己卯年에 後孫 永儀, 鎮東 등이 오래 갈수록 더욱 낡아질 것을 염려하여 보존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다시 두벌을 모사하고 사당을 수리하고 공경히 받들어 모셨다. 꼭 孔子께서 자리에 계시는데 伯魚가 마당에 쫓아가는 것을 보는 듯 하였다. 아아 훌륭하도다. 程子는

「머리털 하나라도 닳지 않으면 곧 단 사람이라.」

했는네 지금 800여년 동안에 수리한 것이 한번이요 옮겨서 모사하기를 두 차례나 하였으니 어찌 조금도 본 모습과 틀림이 없다할 수 있으랴. 그러나 옛적 孔子가 죽은 뒤에 제자들은 有若

이 孔子와 비슷하다 해서 孔子를 섬기던대로 섬기려한 적이 있었다. 「孔子와 有子와는 麒麟과 일반 짐승, 鳳凰과 일반 飛鳥와 같은 差라」고 有子가 말한 것 처럼 어찌 「만 사람」 정도의 差일 뿐이겠는가 마는 言行과 氣象이 비슷하다는 것만으로 그를 스승으로 섬기려한 것은 슬픔과 지정의 감정에서 그 비슷함만으로서 公경을 표하려한 것이었다. 대체로 화상을 그리는 화가의 말에는 「7푼 정도」라고 한다. 나는 두분의 화상이 처음 그린 것은 얼마나 닮았으며 여러번 모사하는 동안에 달라진 것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완전히 닮았다는 것은 보증할 수 없는 동시에 전연 틀렸을 리도 없을 것이니 반드시 「몇푼 정도」의 비슷 함은 남아 있을 것이다. 후손으로 선조를 사모하는 의미에서나 후학으로서 先賢을 존앙하는 처지에서 볼 때에 1000년 후에 앉아서 「몇푼 정도」의 비슷함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벌써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 존송하며 친근한 정성이 孔子의 여러

문도들의 사정에 비할 정도가 아니다. 나는 일찍 모사하기 이전에 뵈은 적이 있는데 풍겨오는 빛이 환하게 밝고 봄 바람이 자리에 가득하여 저의 직접 교훈을 받는 듯한 느낌을 가졌다. 더구나 그분이 사시던 고장에 살면서 이 書齋에 머물르는 사람이면 출입할 적마다 선생의 지팡이와 신의 시중을 드는 듯 할 것이며 아침 저녁으로 음성을 듣는 듯 할 것이니 성격을 바로잡으며 덕을 도야하는 좋은 점이 반드시 이루다 말할 수 없을만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아아 畫像이 제시는 곳이 곧 道가 있는 곳이다. 후세 사람들도 永儀鎮東과 같이 마음을 가진다면 선생의 道는 영구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의 노력을 바란다.

崇禎紀元後四 壬辰年(朝鮮純祖 32年—1832) 月 日에 資憲大夫 原任吏曹判書 兼知經筵, 義禁府事弘文館提學 藝文館提學 知春秋館事 世孫左副賓客 五衛都摠府 都摠管 李勉昇 삼가 씀.

文莊公惟吉傳

海州崔氏家藏公諱惟吉號月溪又云清谷以文行清儉疾異端如仇讎德宗二年癸酉擢乙科第一官至忠推贊化康靜綏濟功臣開府儀同三司三重大匡太師守司空攝尚書令門下侍中判吏部事監修國史上柱國致仕宣宗十一年甲戌卒歷事三朝立朝五十九年諡文莊公配享宣宗廟庭

高麗史云公以文行著世誓以清儉終有家庭之訓以忠義輔國論事清白任用賢能朝

野望重

是時親老尙無恙王賜國老宴公與其兄文和公共陪扶文憲入侍而時稱盛事翰林學士金行瓊作詩獻賀曰紫綏金章子及孫共陪鳩杖醉皇恩尙書令侍中書令乙壯元扶甲壯元曠代唯聞四人到一門今見兩公存家傳冢宰猶爲罕世襲魁科最可尊幾日縉紳相藉藉今朝街路更喧喧聯翩功業流青史雖禿千毫不足言 滿朝廷稱讚不已以親教文行清慎終于世而傳于家終始銘佩

공은 문헌공 최충의 둘째아들로 휘는 유길(惟吉) 호는 월계(月溪) 또는 청곡(淸谷)이다 고려의 문신(文臣)으로 덕종 2년계유(德宗 2年癸酉—西紀 1033)에 을과 제일급제(乙科 第一及第)하여 벼슬이 호부상서(戶部尙書) 태자빈객(太子賓客) 상서우부야(尙書右僕射)를 거쳐 문종 31년정사(文宗 31년丁巳—1077)에 수사공판삼사사(守司空判三司事)가 되고 뒤에 수사공섭상서령(守司空攝尙書令)에 올랐다 재상에 있으며 성품이 곧고 청검하며 충의보국하고 도(道)의 실현에 힘을 다하며 이단(異端)의 증오배격(憎惡背擊)하는 일에 여력을 경주했다. 선종 11년갑술(宣宗11年甲戌—1094)에 세상을 떠나니 정종 문종 선종 3대왕조(靖宗 文宗 宣宗 三代王朝)를 섬기며 입조 59년간 조정에서 벼슬하였다. 문장

공(文莊公)이라 시호(諡號)하고 선종묘정(宣宗廟庭)에 배향(配享)되다.

고려사에 공은 문행(文行)으로 세상에 명성이 높았으며 청렴결백(淸廉潔白)을 맹서하고 마침내는 가훈(家訓)으로 정하였고 충성(忠誠)과 절의(節義)로써 왕을 보필하고 정사(政事)를 논함에 청백하고 사람을 임용함에 현명(賢明)하고 능력(能力)이 있어 조정백관(朝廷百官)과 온 백성으로부터 명망이 더욱 컸다.

이때에 문헌공은 고려이나 오히려 무양(無恙)하지었다 왕이 국로연(國老宴)을 베푸니 공이 그 형 유선(惟善)과 같이 문헌공을 모시고 입시하니 조정백관이나 온 세상에 칭송이 자자하였다.

한림학사 김행경(翰林學士 金行瓊)이 즉석에서 즉흥시를 지어 축하하니 시왈(詩曰)

紫綏金章子及孫
共陪鳩杖醉皇恩
尙書令侍中書令
乙壯元扶甲壯元

자주빛끈에 금빛수 놓은 관복은 아들과 손자에 이르고 구장과 같이 모신 문헌공은 황은(왕의 은전)에 도취하였네 상서령(둘째아들 문장공 유길)이 중서령(문헌공)을 모시고 을장원(큰아들 문화공 유선)이 갑장원(문헌공)을 부축하였

도다

曠代唯聞四人到

넓고 끝없는 세상에 오직 네사람이 오고(문헌공, 문화공,

特 輯

文憲公誕生1千年紀念심포지엄

整理 雲 植
(國際大教授)

1984년은 문헌공 최충(文憲公崔冲)선생의 탄신 100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이다.

문헌공 최충 기념사업회(文憲公崔冲紀念事業會)에서는 문헌공의 탄신 1000주년을 맞이하여 여러 가지 기념사업을 전개하기로 하고, 맨 첫 사업으로 문헌공에 대한 연구를 심화하여 《최충연구논총(崔冲研究論叢)》을 간행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이 일을 경희대학교 전통문화연구소(소장 박성봉 박사)에 의뢰하고, 연구소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사계의 권위자에게 연구를 의뢰하고, 그 연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가지로 뒷바라지를 하였다.

지난 1984년 12월 1일에는 각고의 노력끝에 연구를 마친 8분의 교수가 한 자리에 모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대하여 8분의 약정 토론자가 토론을 하는 학술회의가 앰버서더호텔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학술회의는 오후 1시 30분부터 7시 25분까지 약 6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이 자리에는 교육학, 한국철학, 유학, 역사학, 문학 등을 전공하는 많은 학자들과 전국 각지에서 모인 해주 최씨 종친들이 다수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여기에 연구에 참가한 8분의 발표 요지와 토론 내용을 옮겨 적는다.

이 자리에서 발표한 8분의 본 논문은 경희대학교 전통문화 연구소에서 엮고, 문헌공 최충선생 기념사업회에서 펴낸 《최충연구논총(崔冲研究論叢)》에 수록되어 있다.

崔冲의 私學과 高麗儒學

김 충 렬

(고려대학교 교수)

한 나라가 새로 창건되고 나면, 한동안은 인습(因襲)과 창조라는 학술문화상의 변혁이 있게 마련이다. 고려는 건국하면서 현실정치를 위시한 학술문물을 신라로부터 인습하였다. 고려 초기에 경주계 유자(慶州系 儒者)인 최언위(崔彦撫, 868—944)나 최승로(崔承老, 927—989) 등이 활약하면서 고려의 문운(文運)을 이끌어 가던 시기는 고려가 신라의 학술문화를 인습하던 단계라 하겠다. 그러다가 최충(崔冲)을 기점으로 해서 고려 유학은 비로소 그 나름의 창조를 이루어가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고려 유학사(儒學史)에 있어서 최충의 위치는 신라 학술문화의 인습을 바탕으로 새로이 고려 유학의 창신(創新)을 전개해 간 사람으로, 순전한 고려 출신에 의해서 고려의 문운이 영위되는 첫번째의 인물이란 점이다.

최충이 학교를 세우고 학문을 숭상케

하여 인재를 기르는 일을 할 수 있었던 여건으로는 다음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최충은 학문과 진덕(進德)을 기본 인격으로 갖추었었기 때문이다. 둘째로 그는 북방과의 전쟁이 끝난 후, 유학을 진흥시키려는 시대적 운세 속에서 정치적이고 규격적인 관학(官學)을 벗어난 본의유교(文意儒教)를 구현해 보려는 성스러운 사명을 스스로 맡았기 때문이다. 셋째, 최충은 그의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유업이 많았고, 또 그 자신이 국가적 원훈(元勳)이기에 받는 봉록(俸祿)도 적지 않았을 것이므로 재정적으로 부유하였기 때문에 사학을 진흥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최충은 덕(德)·공(功)·언(言)을 모두 갖춘 인간 대성자(人間大成者)로서 그를 ‘해동공자(海東孔子)’라 부르는 것은 그의 위대한 학덕(學德)과 공덕(公德) 위에 사학교육(私學教育)의 성덕

(聖德)이 더해졌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한국 역사상 인간으로서 가장 성공한 사람을 든다면 아마도 최충보다 앞설 사람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공자가 인류의 스승으로 추앙을 받는 것은 학술 문화를 관에서만 보전하여 한 국가의 종말과 함께 단절되기 쉬운 위험을 극복한 데 있다 하겠다. 최충이 고려 유학사상 처음으로 사학을 흥기(興起)시킨 보다 깊은 의의는 바로 이 점에 있는 것으로, 그는 너무 관학 일변도(官學一邊倒)에 흘러간 당시의 유학이 결코 이상적인 발전과 기대하는 만큼의 이익을 국가민족 일반의 학술문화에 주기 어려울 것이라는 역사적 교훈을 누구보다도 먼저, 그리고 절실하게 느끼고 이를 시정하려고 노력한 사람이라는 데에 있다 하겠다.

고려 초기의 유학은 정치적인 면에서만 추구되었을 뿐, 진정한 학술 문화 교육 윤리 풍속 면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은 그다지 심각하게 고려되지 못하였다. 최승로가 성종에게 바쳤다고 하는 시무 28조(時務二十八條)에서는 유교의 기능을 나라를 다스리는 것으로만 한정하였다. 그후에 윤리적인 효순(孝順) 문제가 관심을 끌었다고는 하나, 이것 또한 사람됨의 근본을 내세우기보다는 정치해 나가는 근본으로 제시된 것이

었다. 이처럼 당시는 유교를 정치 도구화하는 경향을 띠었었다. 이 무렵 북송(北宋)에서는 범중엄(范仲淹)의 주장으로 과거제도를 개혁하여 유교를 관학 일변도에서 벗어나게 하고, 유교 교육이 본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이러한 송나라의 상황은 아마도 최충이 사학을 세우고 교육을 펴 나가는 데에 적지않은 자극과 참고가 되었을 것이다.

최충 사학의 규모와 내용은 구재설립(九齋設立), 구경삼사(九經三史)의 교수(教授) 등으로 요약되기도 한다. 그런데, 구재의 명명의의(命名意義)와 그 차서(次序) 설정은 아마도 《예기(禮記)》 학기편(學記篇)에 나오는 교학연한(教學年限)과 교수단계(教授段階), 수업내용과 연관되지 않나 생각된다. 따라서 그 차서도 꼭 공부 진행과 일치만은 않을 것이란 점이다. 남송(南宋)의 태학(太學)에서 썼던 재명(齋名)과 고려 국학의 칠재(七齋)는 거의 일치하지만, 최충의 사학은 송과 일치하지 않은 것이 많고, 대빙(待聘)·경업(敬業)의 두 재명을 제외하면 모두 독특하다. 이 재명들은 바로 《주역(周易)》과 《중용(中庸)》에서 나온, 주로 인간의 내재심성을 바르게 닦고 유자(儒者)의 도덕적 실천을 표방한 것들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최충의 교학宗旨(教學宗旨)가 뒷

날 북송의 성리학자들이 개창한 이른바 신유학의 진수(眞髓)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를 성리학의 한 선구자로 내세우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하겠다.

다음에 구재의 기록 차서(記錄次序)는 《순자(荀子)》나 《원사(元史)》에서 말한 기록 차서와 같지 않은 점으로 보아 구재의 기록 차서는 연급(年級)이나 교학 진행과정과 무관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최충을 성리학의 개창면에서 이해하여 보면, 《해동야승(海東野乘)》이나 《중경지(中京誌)》의 “실은 우리 동방이학의 조상이다. 선생은 맨 먼저 성리지설을 주창하셨다(實我東方理學之祖 先生首倡性理之說)”라는 말과 같이 최충은 고려 유학자로서 나름대로 유학을 성리학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키려는 획기적인 시도를 기도했던 학자로 평가된다. 그러나 구재명을 통한 교학중지와 차서(次序)의 분석, 성리학적인 의리면에서의 구재연구 등은 한계가 있다. 더구나 그의 사학(私學)이 위인지학(爲人之學)이 아니라 위기지학(爲己之學)이었다는 시사만은 틀림없는 추측이라 하더라도 역시 학문적으로 자료의 결핍 등 한계를 느낄 수 밖에 없다. 이는 정중부(鄭仲夫)의 문헌 훼손(文獻毀滅) 행위가

심각했음을 일깨워 주는 것이다. 아무튼 최충이 북송보다 앞서거나, 또는 비슷한 시기에 성리학을 주체적으로 제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성취하지 못하고 마침내 중국 성리학을 수입해야만 했던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원인과 역사적 상황을 규명할 필요성을 느낀다.

최충의 위업(偉業)이 1천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기려지는 것은 그의 벼슬이 인신(人臣)을 극한 고려 사직지신(社稷之臣)이어서가 아니라 그의 충후한 인격과 원대한 경륜, 정밀하고 깊은 학문을 갖춘 대학자로서 사학을 열어 진정한 유학의 진수를 탐구하고, 많은 인재를 배출한 교육가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창설한 사학교육과 그가 지향한 순수학문의 꿈이 실현되어 나가지 못하였음은 다 아는 사실이다. 거기에는 고려사회의 학문과 교육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이용, 그리고 무인들의 학자구시(學者仇視)·학문증오(學問憎惡) 때문이었다. 즉 최충의 사학과 교육이념은 본래의 성정도야(性情陶冶)와 천리궁구(天理窮究) 쪽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그저 현실에 만족하는 관학(官學)으로 전락했으며, 사장지풍(詞章之風)에 오염되고 말았다. 더구나 최충의 문집은 정중부에 의해 분탕(焚蕩) 당했으며 그 학설이나 업적마저 후세에 전하

지 못했으니, 사실상 그의 학문과 교육의 명맥은 역사의 진적(陳迹)으로 남아 있을 뿐이다. 이것은 송나라를 세운 조광윤(趙匡胤)이 “선비들을 모욕하지 말고 학자가 아무리 죄를 지었더라도 절대로 죽여서는 안된다.”는 유언을 남겨 위대한 학술이 창조되게 하였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현실 정치권력이 학문과 교육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데 따른 차이는 바로 송과 고려의 역사가 사실로 증명해 주는 것과 같다.

관학은 개방된 보편성과 창신적 지속성을 갖기 어려운 일면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학은 관에 상대되는 민(民)의

학이다. 최종 사학이 끝내 사학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관학화된 사실에 비추어 학술 문화의 기초 및 지속성과 연계성, 즉 자기 나름의 궤도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학문의 자유, 학술문화의 창출, 교육의 독립이 필요함은 말할 것도 없다.

최종 탄생 1천년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고려 유학이 북송보다도 앞서 개척되었으면서도 왜 북송을 배워야 했고, 최종과 같은 성리학의 선창자를 가졌으면서도 성리학의 수입국이 되었나?” 하는 역사적 상황을 반성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韓國私學의 傳統과 崔冲의 位置

孫 仁 銖

(韓國敎員大學敎 敎수)

우리나라 사학의 전통 가운데서 최종의 위치는 어떠한가. 한국교육사의 통사적 측면에서 그것을 고찰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사학의 기원을 보면 삼국시대에 들어서서 비로소 사학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바로 고구려의 경당(肩堂)과 신라의 화랑교육이 그것이다. 그러

나 역시 고려시대에 최종 스스로가 사설교육기관을 열고 후진 지도에 임한 것이 사학발전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불교의 전통적 교육형식은 진리의 감화와 체험을 통한 비형식적 교육(informal education)으로 이어져 왔

다. 이에 반하여 유교는 그 본질이 교육적이며 세속의 정치와 교육은 곧바로 백성에 대한 교화(敎化)에 덕치(德治)를 행할 수 있는 군자의 상(像)이 항상 배려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었다.

고려시대는 불교의 위세가 압도적인 시기였고, 더구나 국난 등을 겪으면서 유교는 침체되어가는 형편이었다. 이러한 때에 최충은 구재학당(九齋學堂)을 설립하여 교육적인 큰 성과를 올렸으니 이는 한국 교육사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다.

구재학당과 최충의 교육적인 노력은 다음과 같은 큰 성과를 거두었다.

첫째, 부진한 유학의 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하였다. 불교의 위세와 거란 등의 침입으로 인한 국난 때문에 국학의 설치와 과거제도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문종 때까지의 유학의 발전은 보잘 것 없는 것이었다. 그런데, 최충이 구재학당을 개설하자 많은 유생들이 거리를 메울만큼 성황을 이루었다. 그것은 후에 예·인종대와 같이 사학의 발전에 자극을 받은 국가에서 국학의 진흥에 힘을 기울임으로써 결과적으로 유학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결과가 되었으며, 국가적인 많은 재난을 거치면서도 오히려 이들 사숙만이 공부하려는 선비들이 모여들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서 주자학이

전래되는 고려말의 학문적 기반을 다져 주고, 후기 유학 발전에 큰 공을 세웠다.

둘째로, 최초의 본격적인 사립학교 설립자라는 사실이다. 관학이 부진하던 때에 학교를 설립하여 후진 교회(敎誨)에 힘씀으로써 우리나라 최초의 본격적인 사립학교가 된 것이다. 특히 최초의 사립 고등교육기관으로써 단지 과거 준비학교만의 성격이 아니라 유학의 발전과 수기적(修己的)인 인간교육을 통하여 우리나라 사학의 전통을 이어옴으로써 고려유학의 정착과 우리 문화의 발전에 기여한 것이다.

세째로 구재학당의 설립으로 사학의 발전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관학의 진흥을 촉진시켜 고려 교육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사실이다. 특히 예종·인종년간의 국학진흥책은 사학십이도(私學十二徒)에 자극받은 것으로써 고려 전 시기를 통하여 문운의 극성기(極盛期)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관변측(官邊側)에서는 항상 이들 사학을 염두에 두고 교육정책을 폈던 것이다. 또 고려말에도 많은 면학(勉學) 장려책이 있었는데, 이는 관 사립을 막론한 전반적인 고려 교육의 발전을 촉진했던 것이다.

네째로 교육사적인 측면에서 보아 두

드러진 것은 유학교육의 진흥과 형식교육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점이다. 즉 유학의 발전을 체계화시키고, 제도사적인 측면에서 교육기관의 발전을 촉진시켰다는 것이다. 특히 사립 고등교육기관의 발전은 우리 교육사에서 매우 특이한 사실로써 이것이 비록 중세말의 유럽대학(university)들과는 그 성격이 다르나 민간인에 의한 대학의 설립이라는 교육제도사적 의의를 살펴볼 수 있고, 또한 불교가 융성하던 시기에 유학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유학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육내용 변천사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와같이 최충은 교육제도사적으로, 또 교육이념과 내용사적으로 두드러진

위치에서 한시대를 획하고 있는 사학의 원조(元祖)인 것이다.

해동공자 최충은 오히려 화려한 관직보다도 구재학당의 설립자로서 역사상 더욱 부각되고 있다. 그 자신이 학문과 도덕적 경륜을 강조한 것처럼 바로 인생의 말년을 그의 포부대로 교육에 전념하였던 것이다. 그의 교육적 공헌은 동시대 뿐만이 아니라 고려말 이후 조선시대까지 주자학적 발전의 밑거름을 조성해 왔던 것이다. 또한 우리 민족의 사학적 전통으로 내려오는 도덕적 인간교육과 학문발전의 추진세력이 되어 우리 민족의 사학사적(私學史的) 생명력을 일깨워 주었던 것이다.

崔冲의 人間像과 私學十二徒

朴 性 鳳

(경희대학교 교수)

이글은 사학의 원조(元祖)가 되며 해동공자(海東孔子)로 추앙되는 최충의 생애와 사상, 그리고 그의 선편(先鞭)으로 이루어진 십이도사학(十二徒私學)의 성립과 경과를 살펴보는 가운데 그와

십이도가 가지는 의의 및 영향을 상고해보려는 것이다.

최충(AD 984~1068)의 자는 호연(浩然)이고 호는 성재(惺齋)·월포(月圃), 또는 방회재(放晦齋)라 하였다. 황해도

해주 대령군(大寧郡) 출신으로 그의 선세(先世)는 자세하지 않으나 ‘侍中 崔冲은 累代儒宗’이라는 것으로 미루어 대대로 유학을 일삼은 문한가(文翰家)들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해주목(海州牧)조나 《해주최씨족보(海州崔氏族譜)》에 의하면 부는 주리(州吏) 온(溫)이며, 문종조 유신으로 저명한 재상 유선(惟善)과 유길(惟吉)은 아들이고, 고종 때 《보한집(補閑集)》을 지은 최자(崔滋)는 6대손이다.

그는 약관으로 최항(崔沆) 문하에서 급제한 이래 목·현·덕·정·문종 5조를 역사(歷仕)하여 벼슬이 문하시중(門下侍中)에 이르고, 문종 9년(1055)에 내사령(內史令)으로 치사(致仕)하였다.

최충은 그 후에도 군국대사(軍國大事)를 자문받는 원로로서, 또 교육의 대가로서 활동하다가 문종 22년(1068) 9월 15일, 85세의 천수(天壽)를 다하고 졸(卒)하니 문헌(文憲)이라는 시호(諡號)가 내리고, 이어 정종묘정(靖宗廟庭)에 배향(配享)되었다.

최충의 사상이나 인간상은 그가 말년에 종사한 교육활동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원래 그가 구재학당(九齋學堂)을 설립한 자체는 거란과의 전란 등에 의해 침체된 교육을 일으키는 것이었으

며, 그것은 문화민족의 자부심과도 관련이 되는 일일 수 있었다.

더구나 사장(詞章)과 시문(詩文)만이 발달했던 당시의 현실에 비추어 그가 세운 구재학당에서 이를 적절히 조화시켜 덕행의 전거가 되는 유교경전과 정사(正史)를 존중하고 실천을 도모한 사실은 크게 주목할 만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즉 구재학당의 학생들이 공부할 때 진퇴(進退)의 의(儀)와 장유(長幼)의 서(序)가 뚜렷했다는 것을 보면 단지 학문 추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언행이 일치된 교육을 시켰다는 점이 증명되기 때문이다. 이는 그가 예교질서(禮敎秩序)의 외형적 강조에 머무르지 않고 후진들로 하여금 이를 실천시켜 확립을 보게 한 유종(儒宗)다운 면모의 일단(一端)이라고 할 것이다.

또, 그의 구재학당이 지니는 의미는 무엇보다도 유학의 침체를 극복하여 흥기(興起)케 한 결정적 구실을 했다는 사실이며, 또 제도적으로 관학과 나란히 사학을 처음으로 설립한 것이 되었으므로 동방에서 학교의 발흥을 선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해동공자라고 호칭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거니와 고려말의 이제현(李齊賢)이 최충의 교육업적에 관하여 「문물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성했다」라 한 것이

나, 조선조 서거정(徐居正)이 「이로부터 뛰어난 문사가 많이 나오고, 중국에서도 시서(詩書)의 나라로 일컬어져 지금에 이른 것은 충(冲)의 덕택이다」라고 극찬하고 있는 것도 바로 여기에 연유한 것이다.

다음 문종 연간에 사학십이도가 성립되고 발전한 조건은 무엇인가? 그것은 대체로 관학, 즉 국학의 부진(不振)과 과거의 치중 및 향학(鄉學)의 불비(不備)가 크게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문종 연간에 국자감(國子監)의 학관(學官)은 열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무실력·무자격자들이 담당하게 된 결과 이른바 ‘국자감의 여러 선비가 근래에 폐업하는 자가 많다(國子監諸生近多廢業)’고 하는 상태에 이르러 결국 이를 보완코자 사학이 성립되고 발전된 것이었다.

또한 최충 등 사학의 설립자가 대부분 지공거(知貢舉) 출신들이었기 때문에 당대의 풍조가 과거에 치중되는 한 사학은 대성황을 이루게 마련이었으며, 성종 6년(986)의 경학·의학박사의 파견이 12목(牧)에 국한되었던 것인 만큼, 이로 인한 향학의 불비로 주현거자(州縣學者)들은 사학에 진학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속에서 십이도는 그 이후에도 계속 융성

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최충에서 비롯된 도는 공양왕 3년(1391) 정폐(停廢)될 때까지 고려사회에 다대한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의종 연간의 이승장(李勝章)이나 무인정권 당시의 이규보(李奎報)·김창(金敞) 등의 실례로 보아 대부분 사학십이도에 들어가 자기충실을 도모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그 이후 고려말까지 많은 유사(儒士)들이 사학을 통하여 배출되었음을 감안하면 국학과 더불어 고려 유학발달에 크게 작용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최충의 천년에 드리운 역사적 의의는 70평생의 정계활동에 머물지 않고 말년을 교육사업에 몸바쳐 온 정성을 다 쏟은 결과 때문이라 할 것이다. 경제가 생명활동의 기본이고 정치가 현실요리의 대중(大宗)이 됨은 물론이지만, 문화적 결실이야말로 최종 최고의 판정거리가 되는 것이다. 이 경지의 성과여부가 생산적인 의의와 영향을 결정 지우는 것임은 더 말할 것도 없는 일이다. 최충은 이 점에서 가장 이상적인 성공을 거둔 예가 되겠다. 고려가 안정 번영기에 접어든 시기를 맞아 황해도에 토착한 주리(州吏)집안의 배경과 5조에 달하는 정계활동을 토대로 하여 이를 뜻깊은 교육사업으로 마무리 지었으니 말이다.

더욱 그가 이룬 최초의 본격적인 사학 구재학당과 그에 따른 십이도 사학의 번영은 당대 귀족사회의 발전방향과 잘 부합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고려 초기 호족(豪族)의 시대를 넘어서 중기 귀족사회가 무르익어갈 때 핏줄만이 아닌 실력을 갖춘 관료귀족의 배양을 도모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처사였던 것이다. 실제로 그의 이러한 노력은 현실적으로 사학의 크나큰 흥륭(興隆)과 일종의 특출한 번영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때 특히 주목할 것은 최충과 십이도가 결코 당대사회에 편승한 안일한 방법으로 효과를 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라는 사실이다. 즉, 귀족사회의 당연한 속성인 혈연적 부귀를 지양하여 자신이 문행(文行)으로 출세할 뿐 아니라 후손이나 주변 영재(英才)에게 실력으로 대처케 하는 방법과 조직을 잘 일깨워 준 결과였던 것이다.

그러기에 최충의 구재를 비롯한 십이도 사학은 오래오래 고려 귀족사회의 문운을 주름잡으면서 관학을 압도하고 사학교육의 전통을 확립하기에 이르렀다. 그의 일문(一門)이 유례드문 번영을 한 것은 그 상승적인 효과의 일단이라 할

것으로, 최충의 순리적인 문화적 처세관의 소치임에 틀림없다.

이리하여 사학은 세종·인종 연간의 관학진흥에 직접 작용함은 물론 친원(親元) 이후에도 신유학을 받아들여 크게 문운의 진전을 가져오는 소지를 마련하여 주었고 그 뒤 국학의 재흥(再興)과 더불어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고려말기의 유학발달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

더욱 후기의 좌주문하생제(座主門下生制)에 의한 집단적 엄힘은 사학십이도와 연관을 가지고 그것이 학벌귀족으로 이어지면서 성황을 이룬 것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십이도는 후세의 사숙(私塾) 발달을 촉진하여 조선시대 서원(書院) 성립의 연원을 만들어 주었으며, 또한 하과(夏課)나 시부회(詩賦會) 같은 교육방식은 오래도록 본받은 바 되었다. 특히 조선 태조와 태종이 최충의 후손을 우대케 한 사실은 바로 사학에 끼친 그의 공적을 단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다. 다만 사학의 육성이 관리양성과 직결되고 동시에 당시 귀족계급을 배경으로 한 산물이었다는 점은 한계성으로 지적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朱子學 以前の 性理學 導入問題

— 崔冲의 九齋와도 관련하여 —

尹 絲 淳

(고려대학교 교수)

성리학이 한국사상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따라서 성리학의 영향 내지 기능에 대해서도 상당한 연구가 행해졌으며 한국 성리학에 대한 연구 성과도 괄목할 만한 진척을 보였다. 그러나 그 동안의 한국성리학 연구는 주로 퇴계·율곡을 중심으로 하는 조선 중기의 성리학에 집중된 것이어서, 조선 초기나 말기 성리학은 물론 고려시대 성리학에 대한 연구도 매우 드문 편이다.

학계의 이같은 상황을 고려하면서, 본자는 ‘한국 성리학의 초기’에 해당되는 고려시대의 그 도입에 관심을 갖고 성리학이 언제 누구에 의해 어떻게 도입되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성리학의 도입에 대한 지금까지 학계의 정설화된 견해는 13세기 고려 충렬왕 때 안향(安珦) 백이정(白頤正) 등이 원나라에 갔다가 그곳에서 주자학(朱子

學)을 배워 전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시 해야 할 것이 있다. 이들에 의해 도입된 이 때의 주자학이 물론 성리학임에 틀림없지만, 이 주자학이 결코 성리학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이다. 주자학은 단지 성리학의 하나의 정화(精華)내지 대표적인 고봉(高峰)에 해당한다.

성리학은 매우 광범위한 학문으로 송학(宋學)·명학(明學)·송명철학(宋明哲學)으로 말해지고 있다. 그리고 대표적인 학자에 입각하여서는 주자학(朱子學) (또는 程朱學)·양명학(陽明學) (또는 陸王學)으로, 문제의식에 입각해서는 이학(理學)·의리지학(義理之學)·성리학(性理學)·심학(心學), 그 경향에 입각해서는 도학(道學)·신유학(新儒學)으로 불려지는 광범위한 의미의 학문이다. 주자학은 단지 북송의 이학(理學)을 집대성한 이른바 남송기 성리학의 결정에

해당할 뿐이다. 그것은 당나라 말에 비롯되어 북송기의 주돈이(周敦頤), 장재(張載), 소옹(邵雍), 정호(程顥), 정이(程頤) 등의 성리학의 축적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성리학의 형성과 관련된 전파를 살펴면서 주자학 이전의 북송 이학의 도입문제를 경홀시해서는 안된다.

또한 한중간의 학술의 상호 교류도 주자학 성립 이전부터 계속되었음을 고려할 때, 한국성리학의 초두를 장식하는 성리학의 도입 문제는 ‘주자학 이전의 성리학의 지입(知入)’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고려시대에 있어서 성리학적(性理學的) 학문 경향이 찾아지기 시작하는 것은 최충 무렵인 것 같다. 그 이유는 그가 세운 학당인 ‘구재’의 명칭이 성리학의 학문 경향을 짙게 풍기기 때문이다. 즉 구재의 명칭인 악성(樂聖), 대중(大中), 성명(誠明), 경업(敬業), 조도(造道), 솔성(率性), 진덕(進德), 태화(太和), 대빙(待聘) 등은 《중용(中庸)》 《대학(大學)》 및 《역경(易經)》에 나오거나, 아니면 거기에 나오는 용어와 비슷한 것들이다.

원래 유학사에서 《중용》 《대학》 《역경》을 각별히 중요시 한 것은 성리학의 발흥과 짝하는 것이다. 특히 성리학자

들이 중요시한 《중용》의 용어가 구재의 이름에 대거 이용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것은 결코 우연한 것으로 보아 넘겨질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다만 이때는 주희(朱熹) 출생 훨씬 이전인데다, 정(程)씨 형제마저 겨우 30대에 해당할 때이므로 오히려 정주(程朱)이전의 성리학, 말하자면 주(周)·장(張)·소(邵)씨 등의 성리학의 영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구재의 명칭은 최충을 중심으로 한 고려 학자들이 당시 북송에서 행해지던 성리학의 학문경향에 어느 정도 눈뜨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구재의 이름이 시사하는 함의(含意)는 곧 당시 ‘전주자학(前朱子學)으로서의 북송 성리학의 전지(傳知)’라 할 수 있다.

북송 성리학 도입문제는 고려와 송과의 학자 교류상황을 살펴봄으로써 알 수 있을 것이다. 고려 예종 10년(1115)에는 송에 유학생이 파견되는데, 이때는 정(程)씨 형제에 의해 성리학이 성숙 단계에 이른 때였다. 아마 이들은 성리학에 접근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학자사신들의 왕래를 통해서도 성리학이 도입되었을 가능성은 있다. 문종 27~28년(1073~74) 간에 송에 사신으로 다녀온 김양감(金良鑑)은 정씨 형제 및 소식(蘇軾)과의 접촉을 통해

성리학과 접지(接知)했던 것으로 보이며, 인종 6년(1128)에 사신으로 간 윤언이(尹彦頤)가 이정(二程) 문인과 역(易)을 강론했다는 기록으로 보아, 그가 이정문인과의 접촉을 통해 당시 중국 성리학의 경향과 길이를 가늠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11세기 후반~12세기 전반에 있었던 학자사신들의 왕래는 곧 당시 중국 성리학의 지입(知入)을 이룬 풍토였음이 틀림없다.

한편 고려유학의 최고 수준이었던 전각(殿閣)의 경전(經典) 강론의 내용을 살펴보아도 《중용》 강론이 자주 열렸고, 또 그 내용이 ‘삼강·오상의 가르침(三綱五常之教)과 성명·도덕의 이치(性命道德之理)’였다는 사실만 보아도 12세기 초 전각 특히 청연각(淸讌閣)의 강론이 곧 성리학이었음이 분명하다.

이상과 같이 살펴보면, 주자학 이전의 성리학에 대한 지입(知入)은 우선 구재의 명칭에 내포된 함의(含意)에서부터 발견된다. 말하자면 이미 11세기 후반 송에서 성리학이 본격적으로 발흥한 직후부터 고려에서도 그 성리학의 새로운 경향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2세기 초 유학생의 파견이나, 김양감, 윤언이 등 학자사신의 왕래는 주자학 이전의 성리학의 지입을 명백히 해주는 사실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성리학적 사색은 중국의 그것과 별로 큰 시차(時差)없이 거의 함께 발맞추어 진행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한국성리학의 초두는 주자학 이전의 북송성리학으로 출발하는 것이 결코 주자학으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야한다.

崔冲의 詩文과 성격

고 경 식

(경희대학교 교수)

문헌공 최충(文獻公崔冲)은 고려의 유명한 정치인이자 교육자이지만, 그가 왕

으로부터 “문장으로 나라를 빛냈다(文章華國).”는 칭찬을 받을 만큼 문장가

였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편이다.

최충이 지은 시로 지금까지 전하는 것은 《계이자시(戒二子詩)》(보한집, 《시좌객(示座客)》(동문선), 《절구(絕句)》(동문선) 등이 있다.

家世無長物 우리 집에 대대로 내려오는 대단한 것은 없으나,
唯傳至寶藏 오직 값진 보배를 전하여 간직하니,
文章爲錦繡 문장은 바로 비단이 되고,
德行是珪璋 덕행은 곧 옥으로 만든 귀한 그릇이 되네.

今日相分付 오늘 너희에게 나누어 주나니,

他年莫敢忘 부디 뒷날 이것을 잊지 말라.

好支廊廟用 잘 간직해서 조정에서 쓰면,

世世益興昌 대대로 더욱 번창하게 되리라.

이것은 글 잘하는 것과 덕행이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비단과 규장(珪璋)으로 비유하고, 문장과 덕행에 힘쓰면 대대로 영화를 누릴 수 있음을 가르친 《계이자시(戒二子詩)》이다. 최충의 두 아들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문장과 덕행과 청검(淸儉)으로 둘 다 경상(卿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손들

도 문행(文行)으로 재상에 이른 자가 수십인이나 되었다고 한다. 이 시는 가훈(家訓)을 읊시로 쓴 실용문에 가까운 것으로, 전형적인 문학 장르로 본다면 교회문학(敎誨文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초기의 시는 오언(五言)의 풍(風)이며, 몇몇 사람에게 의해서 쓰여질 뿐이었다. 고려 중기 이전에 한 시를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는 몇몇 지식인에 의해 쓰여진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충이 시로써 아들들을 훈계한 것은 특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시좌객(示座客)》은 칠언율시(七言律詩)인데, 모든 명리를 떠나 인생을 관조하고픈 그의 절실하고도 진실된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다. 특히 마지막 행의 “때마침 꽃 피었을 적에 취한 신선이 되어 보세나(急趁花開作醉仙)”에 이르러서는 꽃의 이미지를 통한 서정적인 분위기가 극치를 이루고 있다.

동문선(東文選)에 실려 있는 칠언절구인 《절구(絕句)》는 동양화의 화폭처럼 아름답게 그려져 한정(閑情)이 넘쳐 흐른다고 하겠다. 달밝은 밤에 뜰에 앉아 닷아오는 산그림자를 손(客)으로 삼아 거문고를 타는 모습을 그린 것은 바로 동양적인 시정(詩情)일 것이다. 특히 기구(起句)에서 달, 승구(承句)에서 산빛

등의 자연 대·상술이 독자적인 심미안에 의하여 촛불과 손님으로 정제되어 표현된 것은 시가 지니는 미적 구조나 예술성으로 보아 매우 뛰어난 것이라 하겠다

당시의 시풍(詩風)은 만당시풍(晚唐詩風)이 만연되어 있었으므로, 최종 역시 만당의 시풍을 따르고 있다. 최종은 그가 설립한 구재에서 구경(九經)과 삼사(三史)를 가르치는 한편 시를 짓게 하고, 때로는 초에 금을 그어 놓고 그 금까지 타는 시간을 한도로 하여 시를 짓게(刻燭賦詩)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면, 최종은 당대에 뛰어난 시인이었으며, 그의 교육도 사장적(詞章的) 성격을 띠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가 남긴 산문으로는 《봉선홍경사기(奉先弘慶寺記)》, 《현종사찬(玄宗史贊)》 등이 있다.

《봉선홍경사기》는 최종이 왕명을 받들어 그 절의 창건 내력을 기술한 것인데, 본래 기(記)가 논리정연함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 만큼 그 수사적인 면이나 논리의 전개에 있어 탁월한 필치를 보이고 있다.

《현종사찬(玄宗史贊)》은 ‘전(傳)’ 중에서도 행장(行狀)의 기술 방법과는 달리 서두의 인정기술(人定記述)과 행적부(行績部)가 없고, 마지막에 현종을 평가한 형식을 취한 찬(贊)으로 현종을

주(周)의 성·강왕(康王)과 한(漢)의 문·경제(文景帝)에 비기는 등 비유법을 사용한 문장으로 가히 극찬할 만하다.

그리고, 자신의 청검(淸儉)과 안분지족(安分之足)을 설파한 《사고신예물게사(賜告身禮物啓辭)》가 그의 고려사 열전에 전하는데, 왕에 대한 충성심이 진솔하게 표현되어 있다. 이것 말고도 다수의 산문이 있었을 것이나 대부분 전하지 못하여 문장가로서의 진면목을 대할 수 없어 안타깝다.

결론적으로, 최종은 사학을 통하여 유학의 진흥에 힘쓰는 한편, 과시(科試)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시를 가르쳤으며, 그가 글 잘하는 사람들이 맡았던 수찬관(修撰官)이나 지공거(知貢舉) 같은 벼슬을 역임한 것으로 보아 그가 시문에 능했을 것이란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동문선에 수록된 문인 중 최종 이전의 고려조 인사는 몇 사람이 되지 않는데, 그 중에서도 그의 작품은 매우 돋보인다. 이렇게 볼 때, 성현(成俔)이 “우리 나라 문장은 최치원(崔致遠)에서 발휘되었다.”(慵齋叢話 卷上)고 하여 최치원을 한문학의 비조로 꼽고, 이공익이 “최종은 고려의 태사이다.”(燃藜室記述 別集 卷四)라 하여 최종을 한문학의 중조(中祖)로 든 것은 타당하다고 하겠다.

비록 그의 시문이 대부분 전해지지 않으나 그가 고려 시문에 끼친 공헌은 지대한 것이며, 그의 영향은 그의 두

아들과 해좌칠현(海左七賢)으로 이어져 고려 문학을 풍성하게 하였다.

高麗時代의 海州崔氏 家門 分析

朴 龍 雲

(고려대학교 교수)

고려국가는 대부분 귀족제 사회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이는 대체적으로 출생에 의하여 특권적 신분을 세습하는 신분제 사회로서 이들 소수의 특권적 신분층이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제부면의 특권적 지위까지도 향유하면서 국가를 귀족제적인 테두리 안에서 운영하여 갔다는 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고려시대 전 기간에 걸쳐 번성했던 해주 최씨라는 가문을 분석대상으로 삼아 고려귀족사회의 실체를 파악해 보면서 부차적으로 무신란을 전후로 이 두 시기가 지니는 동질성과 이질성도 재검토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그 분석방법에 문제되는 자료는 사서(史書)·금석문(金石文)·문집류(文集類) 이외에 적절하게 족보를 이용하는 방향을 취하였다.

고려 전기의 해주 최씨 가문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확인한 사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주 최씨는 향리(鄉吏)에서 기가(起家)하여 중앙귀족화한 가문이다. 이것은 고려 초기에 지방 토호세력이 통치체제의 정비 과정에 따라 중앙의 지배층으로 전환되어 갔다는 종래의 이해와 부합되는 것이다.

둘째, 중앙귀족화의 계기는 '실력'에 의한 것이었다. 유학에 대한 학문적 능력이 과거라는 시험을 통하여 발휘됨으로써 신분의 전환까지 결과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일단 하나의 명문으로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힌 후에는 그것이 자손들의 진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세째로, 귀족이 하나의 가문을 형성

해 가는 과정은 대개 3대 이상에 걸쳐 고위 관직을 차지하게 되면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예는 최사취(崔思諫)나 최약(崔濼)의 경우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네째로, 해동의 유종(儒宗)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음서 출신(蔭叙出身)이 많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것은 귀족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관직세습의 한 현상으로 생각된다. 물론 이 집안에서는 음서자보다는 더 많은 수의 과거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다. 과거와 음서는 모두 고려 사회에서 중요한 입사(入仕)의 수단이었으니, 이렇게 하여 이 집안에서는 수상 4명에 재상 6명을 비롯하여 많은 고위 관직자를 내었던 것이다.

다섯째로, 귀족제적인 양상은 혼인관계에 가장 잘 표현되어 왕실과의 외척 관계나 귀족 상호간의 연인(連姻)이 일반적 현상으로 나타나는 법인데, 해주 최씨의 경우에도 그것이 역력히 드러나고 있다.

해주 최씨는 무신란이 일어난 시기의 얼마간을 제외하면 고려 후기에 있어서도 그 이전과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정계에 활발한 진출을 하고 있다. 최민(崔敏)－최자(崔滋)－최유엄(崔有滄) 형제, 최관(崔灌)－최홍윤(崔洪胤)－최순

(崔淳)－최서(崔瑞)로 이어지는 이 두 계열을 포함하여 많은 인물들이 수상 내지는 재상급의 지위에 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진출에는 각자의 능력이 큰 역할을 했겠지만, 전통적인 가문의 영향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토대로 하여 고려귀족사회의 일정한 경향성을 간추려보면, 첫째로, 고려전기의 문벌귀족사회는 무신란으로 완전히 붕괴된 것 같지는 않다. 해주 최씨는 확실히 전기적 귀족가문이지만 무신란 이후에도 그 지위를 유지 성장시켜 갔다. 둘째로, 입사방법에 있어서 고려전기에는 과거와 음서가 제각기 일정한 위치를 점하고 여러기능을 다하여 왔으나, 후기에 접어들어서는 전자가 그 중요성을 점차 증대시켜간 반면에 후자는 그것이 훨씬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로, 이처럼 과거가 더욱 중시되고 있다는 것은 유학에 대한 인식이 깊어졌다는 말과도 통한다. 그렇다면 종래 고려 전기의 권문세족들이라 하여 일률적으로 비문비유적(非文非儒的) 성향을 띠었다고 단정짓는 것은 좀더 고려해 볼 여지가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네째로, 혼인관계를 보면 해주 최씨 가문은 왕실내지는 귀족가문과 연인(連姻)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귀족문벌간의 폐쇄적인 통

혼권(通婚圈)의 설정은 고려전·후기가
다름이 없었다고 보인다. 다섯째로, 해
주최씨 가문에서는 고려후기에 와서도
원(元)과의 깊은 유대 관계를 찾아볼
수 없다. 이는 이 가문이 근본적으로
정치적인 면에서나 혈연적으로 원과 깊

이 얽히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여러 특징들이 해주최씨 가문
을 분석하면서 나타나는데, 이런 점은
고려후기의 정치적 지배세력을 이해함
에 있어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韓國儒學史上 崔冲의 位置

李 乙 浩

(국립광주박물관장)

고려시대의 인물이었던 최충이 왜 당
시에 해동공자라는 존칭을 받게 되었는
가를 살펴보기 위하여는 먼저 나말여초
에 걸친 유학의 맥락과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고, 그 속에서의 최충의 업적,
특히 구재(九齋)를 중심으로 한 사학,
곧 유교의 부흥이라는 의의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한다.

공자의 유(儒)는 당시에는 노자(老
子)나 묵자(墨子)가 서로 정립적(鼎立
的)인 관계에서 성숙되었고, 이것이 맹
자시대에 이르러서 더욱 강력하게 성장
한 양주(楊朱), 묵자(墨翟)과의 상대적
입장속에서 유(儒)를 시대적 사명으로
자임(自任)하였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최충이 해동공자라고 불리워진 배경에
는, 신라에서 고려로 넘어온 왕조의 정
치적 변혁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존숭불
교(尊崇佛敎)의 태도를 버리지 않았으
며, 그 사이에 중국에서 유교가 유입되
었다고는 하나 한당풍(漢唐風)의 사장
학(詞章學)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순정유학(醇正儒學)의 입장에서 본다면
새로운 유풍(儒風)의 진작이 요망되었
던 시기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한당학풍은 실천윤리적
선진(先秦)유학과는 구별되어 궁리(窮
理) 사색과 도덕실천은 그다지 존중하
지 않고, 한대(漢代)의 훈고학적 경학
과 당대(唐代)의 시문학적 문장학을 결

하여 사장학을 중시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한당풍의 유학과 숭불적 경향속에서 순정유학은 끼어들 틈도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시인(時人)들이 최충을 해동공자라고 불렀던 것은 최충이 유교와 한당유학과의 삼자정립적 입장에서 선진유(先秦儒)로서의 새로운 순정유학의 진작을 꾀했던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악성(樂聖)이하의 구재를 설립하여 구경삼사(九經三史)를 강조하였던 것은 당시의 이러한 시류(時流)와 맞서서 노도와 같은 전통 불교와 한당유학과 대결하는 입장에서 였으며 이러한 역경을 극복하며 얻은 존칭이 바로 해동공자라 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최충이 치사(致仕) 이후 획기적 교육가로 전신하여 사숙학교를 창설한 것은 유학사상의 핵심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한국유학사상에서 최충 앞에는 설충, 최치원, 최승로 등이 있었지만 설충은 《화왕계(花王戒)》 1편으로서 한국 유학사상 최고의 유종의 위치를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 같으며 최치원(崔致遠, 867~?)은 산사(山寺)로 들어가 은거함으로써 반유반도(半儒半道)의 포부를 펴지 못했고, 여초의 최승로는 시무책(時務策)에 급급한 나머지 유불의 미분화상태에서 반불반유로서 성급

하게 시국을 담당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최충은 이에 시대적 사명을 자각하고 70고개에 치사한 후 구재를 창설하여 유학진흥을 획책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며, 이점에 있어서의 최충의 자각은 유학사상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다. 현재까지의 유교도통에 대한 대표적인 포설을 적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기자설(箕子說) : 설충(薛聰)-최충(崔冲)-안향(安珣)(張志淵)
2. 한사군설(漢四郡說) : 강수(强首)-설충(薛聰)-최치원(崔致遠)-최승로(崔承老)-최충(崔冲)(李丙燾)
3. 삼국시대설 : 국학(國學)-설충(薛聰)-최치원(崔致遠)-최충(崔冲)(玄相允)

여기에서는 보는 바와 같이 최충은 이상의 3설에서 모두 다 고려유학의 한결구적 요체로 간주되고 있으며, 최충을 거치지 않고서는 그 이후의 유학을 논할 수 없는 부동의 위치가 정해지고 있음이 확실하다고 하겠다.

결국 최충의 사학은 이제 수기치인(修己治人)의 전인적(全人的) 시중군자학(時中君子學)으로서 유학의 진흥이라는 막중한 使命을 지고 일어섰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결과적으로 선진(先秦)유학의 대의에 접근하여 고려유학사

에 새로운 입장을 그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구재의 18자 중에서 진수(眞髓)를 추려 낸다면, 성(聖)·중(中)·성(誠)·경(敬)·도(道)·성(性)·덕(德)·화(和)·예(禮)를 추출해 낼 수가 있는데, 이들은 모두 《중용(中庸)》의 섭렵을 통하여 쓴 것으로 《중용》의 근본 뜻과 조금도 벗어나지 않는다. 꺼꾸로 말한다면 이것은 《중용》의 근본의미를 여기의 9자로 모두 천명해 놓았다고 이르지 않을 수 없다. 구재연의(九齋衍義)에서도 선유(先儒)의 말을 인용하여 구재의 의미는 수사(洙泗)의 근본의에 근거하였고, 동시에 증사용학(曾思庸學)의 본지를 터득하였으며, 구재의 명명이야말로 수사학적(洙泗學的) 공자교(孔子教)의 정통을 이어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최충의 학은 악성(樂聖)에서 대빙(代聘)에 이르기까지 철두철미하게 《중용》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최충이 정자(程子)에 앞서 《중용》을 표장(表彰)했다는 소이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최충의 구재학이 《중용》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수사(洙泗)의 고의(古義)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수사(洙泗)의 고의란 다름아닌 수

기치인(修己治人)의 원리를 의미하는데, 간단히 표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수사학(洙泗學)

- 수기(修己)-악성(樂聖)·대중(大中)·성명(誠明)
- 치인(治人)-경업(敬業)·조도(造道)·솔성(率性)·진덕(進德)·태화(太和)·대빙(待聘)

여기에서 악성·대중·성명은 성·중·성으로서 내구적(內求的)인 수성(修省)의 목표(目標)가 되므로 그것은 수기(修己)의 범주안에 드는 것이지만, 경업이하 대빙은 윤리적 세계 안에서의 실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치인의 범주 안에 드는 것이다. 최충은 분명히 이러한 수사의 고의(修己治人)를 터득한 후 《중용》을 숙독완미(熟讀玩味)하여 구재의 18자를 명명하였던 것이다.

적어도 수사학적 선진유학은 공자에게서 시작되어 《논어(論語)》로 남게 되었고, 그것의 논리적 체계는 《대학(大學)》과 《중용(中庸)》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그것도 애초에는 《예기(禮記)》중에 한 편으로 수록되어 있던 것이 정자(程子)에 의하여 《대학》과 《중용》이 일권서(一卷書)로 표장(表彰)되어 사서(四書)가 등장하게 됨으로

써, 한대이후의 구경 중심의 유학은 《중용》을 중심으로 하는 사서중심의 유학으로 전환 발흥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문헌공 최충에 의하여 일세기 가량 앞당겨 《중용》을 중시하였다는 점에서 구재의 창설과 구경삼사로서의 구재학은 신라 고려시대에 걸친 전통적인 유학과는 그 어느 것보다 사승(師承)을 덜 길이 없다. 있다면 오로지 《중용》의 학으로서 멀리 선진유학에다 그의 서통(緒統)을 덜 수 있으며, 굳이 도통을 따진다면 공자(孔子)－증자(曾子)－자사(子思)－맹자(孟子), 그리고 최충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한국유학사는 송대성리학이 도래한 후

이를 성리학사로 대체하여 버림으로써 수사학적 순정유학의 명맥은 단절인멸되어 버린양 잘못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최충이 일찌기 사서 중의 하나인 《중용》의 교리를 터득하고, 이를 완전히 소화한 후 구재(九齋)의 재명(齋名)으로 채택한 사실은 실로 동방유학(東方儒學) 발흥의 일대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은 최충이 《중용》의 대의를 천명했다는 소승적(小承的)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노도(怒濤)와 같은 한당학풍의 급류에 휩싸여 있었던 상황에서도 수사학적 공자교의 진면목을 고고하게 천명해 놓았다는 사실에서 그의 유학사적 위치를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崔冲의 思想과 儒教政治倫理

李 熙 德

(연세대학교 교수)

최충(崔冲)은 고려유학사상 획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인물이다. 그러나 최충에 대한 연구의 접근은 대부분 사학의 설립을 중심으로 검토되

어 왔을 뿐, 정치사상의 측면이나 학문적 방면에 있어서는 역시 사료적 한계 때문에 단순하고 평면적인 접근을 넘어 설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그가 남긴 약간의 사론(史論)과 정치적 경륜(經綸)을 그가 살던 시대적 상황 속에서 투시함으로써 그가 지녔던 사상의 편모나마 엿보고자 한다.

먼저 최종이 성장하였던 성종기를 전후한 시기의 사상적 분위기, 특히 유교 정치사상의 정립과 전개라는 측면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성종대는 고려의 중앙집권정치가 전면적으로 정비되던 시기로서 내면적으로는 유교 정치사상이 정립, 전면적으로 추진된 시기였다. 유학의 교육이 중앙에서는 물론 지방까지 확산되었으며, 유능한 지적(知的) 인재를 중앙으로 집중시키고 있었다. 황해도(黃海道)의 한 주리(州吏)의 아들로 태어난 최종이 중앙관계(中央官界)에 진출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분위기에서였다.

또한 성종대에는 유교이념의 구현과정에 있어서 최승로(崔承老)의 시무이십팔조(時務二十八條), 이양(李陽)의 봉사(封事), 김심언(金審言)의 육정육사(六正六邪)와 한서(漢書)의 자사육조(刺史六條)의 실천을 위한 봉사(封事) 등이 잇달았다.

이 봉사들은 신라이래 보편적 지배기반을 견지하여 오던 불교에 대하여 그 세속적 지배를 배제하고, 대신 유교로, 하여금 대치케 하는 일이었다. 특히 月수에 의한 정사(政事)의 시행을 통해

유가적 정치사상을 구현코자 하였으며 더불어 천명사상(天命思想)도 제고되어 갔다.

이후 유교정치사상이 계속 확산되면서 최종이 관계(官界)에 등장하던 목종조와 현종조에는 이미 유교적 교양과 학문에 도야된 유교적 관리들이 두꺼운 관료층을 형성하고 있었다. 현종에 의한 왕위계승이 안정되자 대거란 문제도 평화관계로 매듭 짓고, 내정에 있어서도 선정이 베풀어져서 그야말로 유교적 이상정치가 이루어진 듯하였다.

최종이 현종일대에 관한 사찬(史贊)에서 현종대를 주(周)의 성·강(成·康)의 시대와 한(漢)의 문·경(文·景)의 시대의 치적에 비견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최종이 우습유(右拾遺)로부터 우간의대부(右諫議大夫)에 이르면서 보필하여 오던 그 현종대를 평하여 일찌기 공자가 이상으로 그리던 주공(周公)의 시대가 최종 당대에 이룩되었다는 사찬은 그와 더불어 당대 유신들에 의해 유교적 정치이념이 잘 구현되었음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다.

성종대에 이미 유교정치사상이 많이 구현되었지만 그와 더불어 천명사상에 입각한 고려왕조의 권위는 계속 이들 유신들에 의해 지탱되었다. 특히 최종은 덕종 만년에 설원(說苑)의 육정육사

와 한자사(漢刺史)의 육조령(六條令)을 다시 제고함으로써 신도(臣道)의 정사(正邪)를 천명하여 천명에 의한 고려왕조의 수성(守成)을 기하려고 하였다. 이것은 이미 김심언의 봉사(封事)에서 제시된 바 있지만, 최종이 다시 이것을 제고한 것은 아마도 덕종 말년의 왕위 계승에 관해 주도한 배려를 기우리던 데서 온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육정육사는 신료(臣僚)가 지켜야 할 분수를 명확히 함으로써 신도의 규범을 정한 것으로서, 최종이 이를 덕종이 사거(死去)하기 5개월전에 상주한 것은 군위(君位)를 섬길 신하의 도리를 재천명함으로써, 야기될지도 모를 고려왕통 계승의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점은 후대의 이제현이 덕종에 관한 사찬에서 서눌(徐訥), 왕가도(王可道), 황주량(黃周亮)과 더불어 최종과 같은 충성된 유신이 조정에 임용됨으로써 기만과 은폐함이 없어 서상(瑞祥)이 나타날 만큼 덕치(德治)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으로 입증되는 바이다.

끝으로 최종이 문종대에 시중(侍中)의 직위에 있으면서 이룩한 법률고정(法律考定) 작업의 핵심은 유교정치이념의 구현을 위한 지배장치로서의 법률에 대한 마무리를 지음으로써 유교의

정치이념이 항구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고려왕조의 기틀을 다지는데 있었다고 추정되는 것이다. 고려 초기에는 신라의 율령 격식과 관습법 및 제규범이 고려법률로서 계속 작용하고 있었는데, 성종대에는 당의 십악률(十惡律) 등 유교사상이 바탕을 이루는 당률(唐律)을 수용하여 당시 유교정치이념을 확립하여 갔다. 특히 십악률은 유교적 가족주의에 바탕을 두어 효제사상(孝悌思想)을 중심으로 불충(不忠)과 불효(不孝)를 치죄하는 법으로써 왕조를 지탱하는 중요한 장치인 것이다. 이후 현종대에는 오복제(五服制)가 실시되는 등 이 작업은 계속 확충 정비되고 있는데, 문종 원년(1000)에 왕명에 의해 추진된 법률고정 작업이 완성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고려왕조가 유교를 정치이념으로 정립하고 그 이념의 핵심인 효사상을 깊이 침투 확대하려는 의도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문종초 최종에 의한 법률고정은 그가 봉직하는 고려 왕조가 천명설(天命說)에 근거한 왕조이며 이러한 왕조를 지지하여야 할 신민의 윤리적 기초를 완비하는데 중요한 측면이 있다고 추정된다.

종 합 토 론

- | | |
|--------------------|------------------|
| 사회자 이장희(아주대학교 교수) | 한기언(서울대학교 교수) |
| 토론자 민병하(성균관대학교 교수) | 박창희(한국의국어대학교 교수) |
| 신천식(명지대학교 교수) | 안병주(성균관대학교 교수) |
| 유인희(연세대학교 교수) | 정재호(고려대학교 교수) |

이장희 : 먼저 사회자가 여러 선생님들이 발표한 요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주 최씨는 고려 성종 연간에 고려 귀족이 형성되는 그런 과정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즉, 학문적 실력에 의해서 중앙귀족화되고 있습니다. 또, 성리학적 학문 경향이 찾아지기 시작한 것은 최 충과 더불어 보이며, 그것은 정주(程朱) 이전의 북송(北宋) 성리학에서부터 출발한 것이지 결코 한국 유교가 주자학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여러 선생님께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구재(九齋)의 명칭이 《주역》이나 《중용》, 《대학》에서 나오는 인간의 내재 심성을 도야하고, 인간의 도덕적 실천을 주장한 소위 북송

성리학자들이 제창한 이른바 유학의 기초와 같다는 점에서 우리가 그런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또 그 당시 사람들이나 후대 사람들이 문헌공 최 충 선생을 ‘해동공자’라고 부른 것은 불교와 한당유학(漢唐儒學)간의 삼자정립적(三者鼎立的) 어려운 입장에서 그러한 역경을 극복하고 선진유(先秦儒)로서의 새로운 순정유학(醇正儒學)의 시작을 피했다는 점에서 그러한 것이 고조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의 정치사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기 약정 토론자가 일곱분이 계신데, 발표 순서대로 질문을 받겠습니다.

한기언 : 손인수 박사께서는 한국사학의 전통과 최충의 위치에 대하여

폭넓게 연구한 결과를 발표해 주셨습니다. 평자(評者)는 본 논문의 전체적인 구성과 논술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다음의 세가지 점을 들어 한국 사학의 전통과 최 충의 위치를 재천명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한국사학의 전통에 대해서입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자 한국사학의 전통이란 국가 위란시에 관학(官學)을 대신하여 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즉 그 기능을 발휘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최 충에 의한 구재(九齋) 설립의 역사적 의의가 바로 여기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17세기 중엽의 사립 서당의 영향과 19세기에서 20세기에 걸쳐 전개된 한국 근대 사학의 설립에 의해서, 국가 위기에의 교육적 대책이란 점에서 한국 사학의 전통을 이어오는 것으로 봅니다. 이점 동서양의 사학을 비교해 보면 분명해질 것 같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서양의 교육은 스파르타가 교육의 국가적 통제를 한 것을 제외하고는 아테네 교육 이후로 근대에 이르기까지 사학이 주조를 이루어 왔습니다. 이에 비하여 동

양, 즉 중국이나 한국에서는 관공학(官公學)이 주조를 이루어 왔습니다. 이점에 있어서는 서양은 교육에 있어서 사학적 전통이 강하고, 동양에 있어서는 교육에 대한 국가적 전통이 강했다고 하겠습니다.

둘째는 사학의 원조(元祖)에 대해서입니다. 최 충을 가리켜서 사학의 원조라고 하는 것은 옳다고 봅니다. 이말의 뜻은 최 충 이전에 사학의 설립자가 없어서 하는 말이라고 하기보다는 보다 역사적, 교육사적 평가에서 오는 지칭인 줄 압니다. 한국의 사학이라며는 고구려의 경당(扃堂)을 비롯하여 신라 때에도 사학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충의 구재설립을 가리켜 그를 사학의 원조라고 한 것은 마치 서양 고대에 있어서의 플라톤의 아카데미아 창설을 높이 평가하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플라톤의 아카데미아 창설 이전에도 이른바 사학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플라톤의 위대함이 아카데미아 설립의 의의를 결정적인 것이 되게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최 충의 구재 설립의

교육사적 의의는 결정적이었고, 당대에 다른 11도(十一徒)의 설립을 가능케 하였고, 이것이 오늘날 최 충을 사학의 원조로 지칭되게 된 소이라고 하겠습니다.

세째는 해동공자에 대해서입니다. 이것은 최 충의 학덕이 공자에 버금간다는 뜻에서 온 칭송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또 하나의 의의를 부여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周) 말인 춘추시대에 공자가 사학을 마련했던 교육사적 의의를 상고하여 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미 동양의 교육제도가 국가적 통제가 강한 관공학 위주의 것이었음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공자 때에 이르러 이것이 즉, 관공학이 제 구실을 못하게 되었을 때에 제자백가(諸子百家)의 출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공자가 사학을 운영하게 된 것은 이러한 역사적 상황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같은 맥락을 통해서 최 충이 구재 창건자로서 지니는 교육사적 의의는 그를 가리켜 그를 해동공자라고 해서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최 충의 학덕을 기려서 해

동공자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지만, 여기에 또 하나 오늘날 교육사적 의의를 이야기하는 입장에서 해동공자라는 칭송은 이중으로 음미해 볼 만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끝으로 최 충 사상의 재평가, 여기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충사상을 유학사적인 면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진정 한국사상이라는 넓은 의미에서 재평가가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최충 사상에는 유학사상만이 아니라 최공도(崔公徒)니 하였던 지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낭불사상(郎佛思想)을 아울러 지니고 있었던 점을 주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즉, 그가 지녔던 유학사상만을 강조하고 낭불사상을 도외시한다면 그것은 최충 사상의 전체적 이해를 크게 저해한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현대적 의의를 크게 감축시키는 처사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충의 낭불사상 포섭이 지니는 사상사적 의의를 재평가해야 좋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관공학과 사학이 다같이 발전함으로써 우리나라 번영의 새역사를 이룩

하게 될 적에 한국사학의 역사적 전통은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이고, 최종의 위치는 더욱 빛나게 되리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장희 : 시간을 절약하는 뜻에서 질문은 각 선생님당 3분씩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충렬 선생님께서 매우 시간이 다급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전체적으로 다 받고, 답은 선생님씩 하겠습니까마는, 우선 김충렬 선생님에 대한 질문을 연세대학교 유인희 교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인희 : 선생님께서는 최종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습니까마는, 최근에 《고려유학사》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책을 저술하셨습니다. 이 둘을 아울러 생각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궁금한 것은, 저는 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성리학이 전래되기 이전에 이를테면 북송의, 그 당시로는 유학으로서의 성리학이 우리 선조들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수용되었느냐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 의문은 최종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데, 최종의 유학을 주희(朱熹)의 성리

학은 아니지만, 그 이전 북송대의 성리학을 받아들인 호시적인 인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고려의 독자적인 유학을 정립한 인물로 볼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주(程朱), 즉 주자성리학이 들어오기 이전에 북송의 성리학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결국 주자학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와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국에서 일어난 신유학을 누가 빨리 받아들였느냐 하는 이야기이지 고려에서 유학을 독자적으로 일으켰느냐 하는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점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는, 최종의 유학 속에서 《주역》이나 《중용》, 그리고 그 속에는 몇 가지 중시해야 할 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최종이 《주역》이나 《중용》을 중시한 것이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이냐, 아니면 송 이전부터 일어났던 《중용》과 《대학》, 《주역》을 중시해야겠다는 중국적 경향을 최종이

답습한 것이냐? 이 점에 대하여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희 :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질문에 대한 응답은 나중에 종합해서 듣기로 했습시다마는, 문제가 아주 중요한 만큼, 또 급히 가셔야 되고, 이때가 받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잠시 시간을 내서 먼저 듣기로 하겠습니다.

김충렬 :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간단하게 답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최충의 유학적인 사상을 고찰할 수 있는 것은 구재의 명칭이고, 그때 가르쳤던 것이 구경삼사(九經三史)라고 하는 그런 것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구재 명칭을 볼 때에, 대중(大中)은 《서경》에서 나온 것이고, 진덕(進德)은 《주역》에서 온 것이고, 그 나머지가 《중용》에서 나온 것이고, 《대학》에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여기서 초점이 되는 것은 최충이 독자적으로 성리학적인 경향을 발표한 것이냐, 아니면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본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요. 저는 중국과 대비해서 볼 때에 최충 자신이 내막적으로 그런 의

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거기에 중국적인 변화에 상당한 자극을 받았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면을 다 보고 싶습니다. 최충이 유학적 측면에서 구재학당의 명칭을 붙인 것을 보면 독자적으로 붙인 것이므로 최충 자신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중국측에 그러한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자극을 받아서 용기를 얻어서 사학을 실천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이 이유는, 제가 중국의 문헌을 살펴보니 대개 국학에서 설치한 철재의 명칭은 주희의 철해의 명칭과 일치됩니다. 그런데, 최충 구재의 명칭만은 중국에 없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남송 때에 재실의 명칭이 12개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최충의 구재의 명칭과 유사한 것이 나옵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때는 성리학이 발전한 남송 때의 일이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 최충 때 성리학적인 의도가 표출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중국과 거의 동시대이거나, 약간 앞섰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간상

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장희 : 제가 여기서 발표한 분에 대한 질문을 하실 분을 지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선생님의 발표에 대해서는 어느 선생님이 질문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혹 질문을 못하신 것은 나중에 다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최충의 인간상과 사학 십이도」에 대하여 발표하신 박성봉 선생님에 대한 질문을 성균관대학의 민병하 선생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병하 : 제가 몇 가지 생각했던 것이 있으나 한기연 박사께서 말씀하신 것과 중복되는 것이 있어 그것은 생략하고,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 교육기관으로 최충의 문헌공도를 이야기 하면서 경당(肩堂)이나 화랑도에 대해서 이야기한 분도 계셨는데, 최충의 문헌공도가 사학의 원조라면, 경당이나 화랑도의 성격이 재천명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경당이나 화랑도를 사립학교로 규정지어서 옳을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하여 여쭙어 보고 싶습니다.

경당이란 각 지방에 설립되어 있었는데, 과연 개인에 의해서 이런 사학이 설립될 수 있었던 것인가? 이것은 사학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국립이라든지, 공립이라든지 이렇게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기회에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또 화랑도도 사학이라기보다는 반관반민이라는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교육사적으로나 역사적으로도 문헌공도가 사학의 원조라고 규정지어서 하등의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박성봉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닌데, 경당이 태학보다 앞서서 설립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근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장희 :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성균관대학교 안병주 선생님이 윤사순 선생님이 발표하신 「주자학 이전의 성리학 도입문제」와 이 을호 선생님이 발표하신 「한국유학사상 최충의 위치」에 대하여

여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병주 : 시간이 촉박한 사정이기 때문에 간단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약정 토론자라고는 하지만, 어느 선생님의 발표에 대하여 질문을 한다는 것이 미리 약속되어 있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막연하지만, 지금 발표를 들은 것을 가지고 제가 생각하는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헌공 최충 선생의 유학 사상에서의 위치 문제입니다. 윤사순 선생님께서는 구재의 명칭이 성리학의 학문 경향을 짚어 풍기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이을호 선생님께서는 최충의 유학을 순정유학(醇正儒學) 원초유학(原初儒學)과의 결부를 많이 생각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윤사순 교수님과 이을호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을호 선생님께서는 본 논문 273-283페이지에서 구재의 교육이념 및 구재명과 중용사상에서 아주 깊은 연구를 해주셨습니다마는, 한가지 설총의 화왕계(花王戒)를 너무 폄하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설총의 화왕계에는 유교사상의 진수가 들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미꽃과 할미꽃의 비유를 들면서 임금의 마음에 잘못된 것을 깨우쳐 바로잡는다고 하는 것은, 임금의 지나친 권력행사에 대하여 제동 역할을 하는 유교의 역할을 잘 표출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구재의 명칭을 지나치게 중용과 관련지어 생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최충이 ‘수기치인(修己治人)’을 강조한 것 역시 성리학 적 배경하에서 강조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윤사순 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장희 :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고경식 선생님의 「최충의 시문과 성격」에 대하여 고려대학교 정재호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정재호 : 저는 한문학 전공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 박사가 최충 선생에 대하여 연구하신 것을 보고 참여러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국 문학 작가를 연구한다고 할 때, 더구나 1000년 전의 작가를 연구한다고 할 때 여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간접적인 자료에 의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충 선생의 경우는 고려사를 비롯한 여러 자료가 있어 문필가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간접적인 자료는 직접적인 자료인 작품에 의하여 뒷받침이 되지 않을 때, 그것이 허구적이라든가 증거가 희박하다는 평을 듣게 됩니다. 따라서 천 년 전의 인물인 최충 선생에 대한 문학적 연구는 작품 연구를 통해서 하는 것만이 가장 값어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충 선생의 작품이 지금까지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계이자시(戒二子詩)》라든가 《절구(絕句)》, 《시좌객(示座客)》 등에 대해서는 고박사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작품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것이 후대의 어떤 작품에 영향을 주었는가? 그리고,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의 영향을 받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든다면, 《계이자시》는 송나라 유광경의 작품과 연관을 지어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이 작품은 다만 최충 선생의 두 아들뿐만이 아니고 아들을 기르는 모든 사람들의 귀감이 되었다는 그런 사실과도 관련을 지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칠언 절구 가운데 월색(月色)을 촉(燭)으로, 산광(山光)을 객으로, 송풍(松風)을 금(琴)으로 비유한 것도 훌륭하지만, 끝 구절의 “다만 진중히 하여 사람에게 전하지 마소(只堪珍重未傳人).” 한 것은 퇴계의 시조로 인정되고 있는, “청량산 육육봉을 아나니 나와 백구/백구야 헌사마라 못 믿을손 도화로다/도화야 떠나지 마라 어주자 알가 하노라” 하는 시조의 종장과 이 시의 끝 구절과는 영향관계를 우리가 취급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고박사께서 지금 남아있는 자료가 적은데도 여러 가지로 잘 고찰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면서도, 최충 선생의 문학이 당대 한문학상 어떤 위치에 있으며, 이 문학은 어떠한 데서 영향을 받아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그리고, 현재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고찰이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인용된 자료의 진위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희 : 예, 감사합니다. 그 답변은 이따가 일괄적으로 듣기로 하겠습니다. 아직 질문을 하시지 않은 분이 두 분 계십니다. 박창희 선생님 하고, 신천식 선생님이신데 신천식 선생님이 먼저 박용운 선생님께 질문을 해 주시든가, 기왕에 발표하신 다른 선생님께 질문할 것이 있으면 해 주시지요.

신천식 : 박용운 교수님은 가문 연구에 대하여는 한국의 권위자이시니까 제가 이 연구 자체에 대하여 왈가왈부할 입장에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한가지, 고려사회가 귀족사회라는 전제하에서 과거에 급제를 하면 바로 귀족으로 편입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판료라는 개념으로 파악해야 되는지요? 만일에 귀족으로 편입하게 된다면, 고려 사회는 관직에만 진출하면 귀족으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이 되는데요, 한 가문이 귀족이 되려면 3대 이상 고위직을 점해야만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

데,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원래 정법사(政法史) 전공이기 때문에 박성봉 선생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최종 선생은 교육사적으로 볼 때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분이 실제로 교육에 종사한 것은 71세에 관직에서 물러나서 85세까지 약 15년이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5년은 기운이 쇠해서 활동을 제대로 못했다고 한다면, 약 10년 동안 교육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분이 약관 20세에 관직에 입신해서 70세까지 관직에 있으면서 국가를 위해서 노력한 50년간의 이분의 행적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50년의 행적이 나머지 10년에 비해서 너무 작광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분의 행적을 살펴보면, 법률가로서 고려법을 완성하여 고려의 전통을 마련하기도 하였으며, 위대한 전력가로서의 역할도 하였습니다. 또 역사가로서의 역할도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50년의 행적을

소홀히 할 수 없다면, 최종 선생에 대하여 교육가로서만이 아니라, 정치가로서, 학자로서의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장희 : 감사합니다. 끝으로 외국어대학의 박창희 선생님이 박용운 선생님께 질문을 해 주시지요.

박창희 :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박교수님께서서는 최종의 가문의 성격, 고려사회 전기 후기의 성격을 나누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최종의 가문의 성격에 대하여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최종은 향리를 아버지로 해서 과거를 보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려 초에 왕권이 확립되고 강화되어서 왕이 유능한, 그리고 충직한 신료(臣僚)를 선출하려고 과거제를 시행한 과정에서 최종도 등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은 처음부터 국왕과의 연계에서, 또 국왕에 대한 유능하고 충직한 신료로 자처하고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 자손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 계속해서 급제자를 낳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룩된 최종의 가계는 국왕을 받들어 모시면서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격하게 시행된 과거 시험을 거쳐서 형성된 것인데, 최종의 가계를 ‘귀족가문’이라고 규정해 버린다면 과거제의 본래의 의미가, 국왕으로서 엄정한 시험을 통하여 신료를 뽑으려고 설치한 과거제의 의미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하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질문입니다. 음서(蔭叙)의 문제만 하더라도 결국은 과거제를 기간으로 해서 유능하고 충직한 신료를 뽑되 좀 부족한 사람을 뽑는 것이 음서제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왕에 의해 유능하고 충직하다고 인정되어 뽑힘으로써 최씨 가문이 형성되었다는 점하고 귀족가문이라고 하는 것하고는 어떤 상충적인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제 질문의 요점입니다.

이장희 :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약정 토론자 외에도 발표하신 선생님 간에도 질문을 받아야 하겠습니까마는 그 질문을 받을 시간이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선생님이 간단히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외 또 반대 질문에 대한 것은 이 발표회가 끝나고 기념 연회가 있는 것 같으니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학에 있어서는 뭐니 뭐니 해도 경제적인 기반이 없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렇다며는 최충 선생께서 개인 재산만 가지고 했겠는가? 국가에서 보조를 받지 않았겠는가? 그런 기반 위에서 사학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고, 그 후에 사학이 점점 약화되어 갔던 것은 이러한 국가적인 지원이 감소된 데서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갔으니 간단히만 답변을 해 주시지요. 김충렬 선생님께서서는 먼저 답변을 하고 가셨으니 손 인수 선생께서 한기연 선생의 질문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 한기연 박사님은 학계의 선배이시니까 질문이라기보다는 격려

의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압니다. 서구의 교육사를 가지고 볼 때는 사학사(私學史)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동양의 유교적 교육이념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자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발표한 논문 요지 가운데서 한국교육사의 주류는 사학사에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느분이 경당이 사립이냐 공립이냐? 그리고 경당의 연대를 밝히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경당 자체로서는 원래 연대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유학이 들어온 후에, 우리가 《구당서》나 《신당서》를 본다면, “있는 집이거나 없는 집안이건 간에 모두 거리마다 큰 집을 지어 학교를 여니 이를 경당이라고 하더라.”한 것을 본다면, 이것은 공립이 아니고 사립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화랑도를 가지고 이것이 반관반민(半官半民) 단체이지 어찌 사립이냐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반관반민이면 이것은 사립이지 공립은 아닙니다. 오늘날 반관반민 단체에 소속해 있으면서 공무원 신분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다. 제가 좀 지나치게 말씀드리
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립이
아니라면 이것은 사학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 300년 계속되어 왔고,
최충의 구재학당이 약 330년 계
속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최종
의 구재와 나머지 11도가 모두
사학입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말씀하신 분입니다마는, '최충 선
생이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구재
를 세운 것이 아니냐? 자금 출처를 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의 근대 학교를 가지고
보더라도, 양정고등학교, 진명여
자고등학교는 원래 엄비가 돈을
냈습니다. 엄비의 돈으로 시작했
다고 해서 지금 어디 진명여자
고등학교하고 양정고등학교를 공
립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
까? 이것은 시비를 걸기 위한
시비 같습니다. (이장희 : 잘 아십
니다.) 미안합니다. (웃음) 조선
시대에 와서도 성균관이 오늘날의
고등교육기관입니다. 그리고, 중
등교육기관으로는 서울의 사학과
지방의 향교가 있었습니다. 향교
는 국가가 지원을 하는 공립입니
다. 그리고, 곳곳에는 서원, 서

당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사
립이지요. 성균관의 경우 입학생
수가 제한되어 있었으니 명문 잡
안이 아니고는 입학할 수가 없었
을 것입니다. 이자리에 모이신 분
들 중에서도 연세가 높으신 분들
가운데에는 향교나 성균관에서 공
부하신 분들보다는 서당에서 공부
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구
한말에 있어서의 근대학교 문제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관점
에서 볼 때 적어도 한국 교육사
의 기본 주류는 국학에 두는 것
보다는 사학에 두는 것이 온당치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최종 선생을
사학의 원조라고 한 것은, 이미
조선 초기에 쓰여진 《고려사절요
(高麗史節要)》에 “동방에 학교가
생겨난 것은 대개 최종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당시에 그를 해동
공자라고 한다.”고 했으니, 이것
은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라 《고
려사절요》에 써 놓은 것이니까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한기언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최종 선생을 유학 사
상으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낭불사상 면에서도 이야기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사상사를 공부하는 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제가 충분히 답변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이 낭불사상과 화랑도와의 관계를 가지고 논의한 글로는 제가 발표한 논문 87페이지에, “도(徒)는 물론 유학의 교육에 치중한 단체 혹은 무리라고 할 수 있으나, 도란 원래 결사단체의 뜻으로서 예컨대, 특히 신라에서는 화랑도란 이름으로 이것이 사용되어지고 있었다. 더우기 고려에 들어와서도 고려 초엽에는 화랑이 그 사상으로만 사회에 전할 뿐 아니라 실제 그 회가 존속하여 왔으므로 화랑을 반대하는 유가에서도 그 명칭과 의식을 많이 도취(盜取)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재 신채호(丹齊 申采浩) 선생님도 이미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최충의 사상을 다각적으로 보자고 말씀하신 것은 많은 시사점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희 : 예, 감사합니다. 박성봉 선생님의 발표에 대해서 민병하 선생님과 신천식 선생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봉 : 발표에 대해서 질문이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많았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에서 경당이 300년이라고 말한 것은 평양 천도 후의 고구려의 성격이 달라졌기 때문에, 농경문화적 조건에 의하여 평양 천도 후에 경당이 생겨 고구려가 망할 때까지 계속되었으므로, 이 기간이 300년이 되므로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 사학의 ‘사(私)’자의 규정이 문제가 되겠는데, 여기서 사학의 대(對)는 국학입니다. 여기서 사학의 규정은 민간적이었다는 데에 핵심이 있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이러한 전통은 뒤에도 계속되었다고 봅니다.

신 교수께서 “10년 정도의 교육사업이 50년 이상의 그의 공적과 대비할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50년 행적의 의미도 나머지 10년의 성과에 의해서 더욱 살아난다

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고려사》 열전(列傳)에도 사학조(私學條)가 있어 이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이것은 사학에 대한 그의 업적을 잘 나타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장희 : 다음에는 이을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을호 : 예, 옛날이나 시방이나 사회적 현상은 비슷하다고 봅니다. 올라갈 분이 올라가고, 내려갈 분이 꼭 내려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전에 어느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각도에서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저는 이 글을 쓰면서 사실 감명 깊었던 점은 ‘문헌공은 어찌해서 공자와 이렇게 닮았느냐?’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 점에서 제가 두어 가지만 말씀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는 무엇이나 하면은, 논어를 읽다 보면은 공자가 자기의 평생에 대하여 쓴 글이 있습니다. “30에 스스로 서고, 40에 혹하지 않으며, 50에 하늘의 뜻을 알고, 60에 귀가 순하여지고, 70에 마음에 하고 싶은 바를 따라도 법도에 어그러짐이

없었다. (三十而立 四十而不惑 五十而知天命 六十而耳順 七十而從心所欲不踰矩)” 이것을 저는 평소에 사다리꼴 인생이라고 합니다. 올라가기만 했지 내려올 줄을 모르고 일생을 보내신 분이십니다. 또 논어 가운데 자신의 마음씨를 이야기한 대목도 있습니다. 이것이 공자가 살아가신 일생입니다. 아마 문헌공도 그렇게 일생을 살아가신 분 같아요. 70이 넘어서, 그렇게 오래 국가에 봉사하고도 마지막에 사학을 세워 86세까지 후진을 가르친 것은 공자와 10살의 나이 차이만 있지 꼭 공자의 일생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그냥 ‘해동공자’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분의 일생을 공자와 비교해 보면 공자와 같아 이 분은 행동공자임이 틀림없다는 심증을 제가 굳히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나라에 선진유학(先秦儒學)을 우리 나라에 가져온 분이 누구냐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 앞이니까 하는 말이 아니라 문헌공을 빼놓고는 다른 사람을 지목하기가 어렵지 않나 하는 심증에서 이 글을 썼습니다. 또 이분이 성리학과 어

면 관계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공부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도움 말씀이 있으면 듣고 가려고 합니다.

이장희 :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희덕 선생님 간단히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이희덕 : 말씀이 나왔으니까 간단히 답변하겠습니다. 천명사상(天命思想)은 군주에 대한 제동입니다. 천명사상의 발단이 되는 중국 전국시대에는 군주들이 아주 난폭해서, 그 군주들에게 도덕심을 길러 주어서 군주에 대한 제동 역할을 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동장치는 끝내는 군주를 지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천명사상은 특히 유교주의 국가에서 군주를 지지하여 그 왕조가 오래 계속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장희 : 예, 간단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윤사순 선생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윤사순 : 안병주 선생님께서 제 논지가 이을호 선생님의 논지와 대조적이다 하는 견지에서 비교해서 자

꾸 말씀하셨는데, 비교해서 생각을 하고 보니까 성리학적 경향을 가졌다 하면 불순 부정 유학을 했다는 것 같고, 그렇지 않고 도입을 했다고 하면 비주체적 유학을 했다는 것 같고, 도입을 안했다고 해야 주체적 유학을 했다는 인상을 받게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을호 선생님께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성리학의 흐름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본다면 성리학적인 경향이 최종의 경우까지, 구재학당의 명칭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는 것 같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 선생님께서는 주체적이고, 순정 유학이라는 각도로 살피시는 나머지 수사학(洙泗學)을 표방하셨다고 강조하셨는데, 역사적으로 볼 때 성리학이 일어나는 것과 같이 학문적으로 변화가 일어날 때에도 표방은 수사학을 표방하면서도 내용면에 변화가 온다는 점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용과 그 사실이 중요하고, 또, 역사적 환경이라든가 추세와도 관련을 지어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

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수기치인(修己治人)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안병주 교수께서 지적하셨듯이, 수기치인을 공자가 말씀하셨더라도 이용한 것은 역시 성리학자들이 많이 이용했다는 점, 또 수기치인에 관한 수사학적 분류는 이선생님의 분류와 의견을 같이 하지 않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하자면 수사학의 수기치인에다가 구재학당의 명칭을 적용했을 때에 경업(敬業), 조도(造道), 솔성(率性), 진덕(進德), 대화(大和), 대빙(待聘)을 치인(治人)으로 분류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들은 치인이 아니라 수기(修己)편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기지학(爲己之學)으로서의 수기를 강조하는 것이 성리학이라고 한다면, 구재의 명칭은 성리학의 방향이다 하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최충은 구경삼사(九經三史)를 가르쳤다고 했는데, 구재의 이름이 구경 중에서도 《중용》에서 많이 나왔다고 하는 점도 역시 주목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고려와 송과의 교류가 빈번했다고 하는 점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고려에서는 서적 수입이 많아서, 송에서는 다른 나라에 책을 파는 것은 꽤 많으나 고려에는 책을 팔지 말아야 하겠다는 상소를 올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당시 고려에서는 중국의 학술 정보가 대단히 빠르고 정확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할 때에 당시 중국의 성리학적 경향을 최종께서도 감지하고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충이 죽은지 5년이 되는 해에 중국에서 사신이 왔을 때, 왕인 인종이 사신에게 성리학적인 것을 물었는데, 사신은 몰랐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국의 사신이 모르는 것을 고려왕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정도이니 중국의 학술 정보가 그만큼 빠르고 정확하게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충은 중국 송나라의 성리학적인 경향을 이미 감지하고 있었다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가능성이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두는 것입니다.

이장희 : 그러면, 이어서 정재호 선생님의 질문에 대해서 고경식 선생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식 :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호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옳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헌공의 시문이란 것은 현전하는 것은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간접적인 자료라는 것도 《고려사》에 있는 것이 《동사강목(東史綱目)》에도 나오지만, 비슷 비슷한 자료가 나오고, 그밖에 있는 것도 다 비슷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이상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충의 시문이 누구의 영향을 받았고,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하여 고찰해야 된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문헌이 소실되어 전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시문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 그것이 최충의 시문이라고 전해온다면 그것은 최충의 시문이라고 믿어도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충에 관한 자료는 국내에서는 물론, 중국 쪽에도 많이 알려져 있던 인물이니까 중국 쪽에도 혹시 있

나 찾아서 이를 재구하는 작업이 후손들의 사업으로 많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장희 :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박창희 선생과 신천식 선생의 질문에 대한 박용운 선생의 답변이 남아 있는데, 박창희 선생의 질문에 대하여 제대로 답변하자면 상당히 길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기서는 간략히 말씀해 주시고 남은 문제는 연회석에서 서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박용운 : 귀족의 문제, 관료의 문제, 과거와 음서(蔭叙)의 문제는 매우 어려운 문제라서 제가 답변을 잘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합격만 하면 곧 귀족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여러모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 합격만 한다고 해서 곧 관료가 되는 것도 아닌 것은 과거제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역시 관료는 현직을 가진 사람이고, 귀족이라든가 가문이라는 문제는 제 생각으로는 역사적 신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역사적 체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저는 3대, 약 90여년 지나야 가문으로서, 귀족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회적 신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고, 지금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제가 유능하고 충성스런 판료를 뽑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점엔 저는 전적으로 동감이고, 해주 최씨 집안을 크게 일으킨 최충의 경우도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계셨는데, 이것도 옳은 말씀입니다.

음서의 경우, 과거에 합격하기 어려운 사람만이 치렀느냐 하는 점엔 저는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음서에 의해서 벼슬에 나아가는 것은 최소 아홉 살에 벼슬에 나간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열 살, 십오 세 정도에 벼슬에 나아가는 것은 물론 집안을 배경으로 해서 나아가는 것인데, 그 후에 다시 과거를 보기도 했던 것입니다. 요컨대, 가문, 귀족을 이야기할 때에 그것은 역사적 산물이고, 신분의 문

제이고, 역사적 체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볼 때, 해주 최씨는 그러한 요소가 충분히 보이므로 해주 최씨를 귀족 가문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렇게 볼 때 그 집안은 고려 귀족제 사회의 성격을 잘 나타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으로 제 답변을 대신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장희 : 한가지 죄송스런 말씀을 드릴 것은 문중에서, 최 창권 선생께서, 서면으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 연회장에서 박용운 교수와 같이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장 6시간에 걸친 최충 탄생 일천년 기념학술 발표와 질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질의 응답을 해도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만큼 성의껏 여러 선생님들이 좋은 질의를 해주시고 응답해 주신데 대해서 사회자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발표회를 모두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宗 誌 創 刊

會 宗 大 氏 崔 州 海

會 長

首席副會長

副 會 長

〃

〃

〃

〃

〃

〃

〃

〃

在 吉 翼 天 洙 用 萬 元 龍 奉 秉

衡 竣 列 溥 東 根 基 植 九 燮 倫

祝

宗 誌 發 刊

三榮製藥合資會社

代表理事 崔 天 溥

本社：忠南 天安市 社稷洞 287-2

電話 2-2325, 62-4300~2

● 지방 출장소 연락처 ●

- 서울출장소 : 서울 ☎ 583-7241
- 대구출장소 : 대구 ☎ 72-6336
- 광주출장소 : 광주 ☎ 54-7760
- 대전출장소 : 대전 ☎ 22-9012
- 부산출장소 : 부산 ☎ 803-2981

◆ 主要製品 ◆

노화방지 촉진제

팔 미 환 엑기스 세립

효능·효과 : 피로하기 쉽고 사지가 냉하며, 노량감소 또는 다뇨로서 때로는 구갈이 있는 다음 제증 : 하지통, 요통, 저림, 노인의 시력부족, 가려움, 배뇨곤란, 빈뇨, 부종.

용법·용량 : 1일 3회, 1회 1포(3그램)씩 식전 또는 식간에 복용.

고혈압·중풍·심장질환

우황청심원

효능·효과 : 중풍성질환(고혈압증세, 졸중풍, 전신불수), 심장성질환(협심증, 심계항진, 심장마비, 호흡곤란), 뇌질환(뇌일혈, 뇌출혈, 경풍, 현음, 가스중독), 신경성질환(신경과민, 신경성질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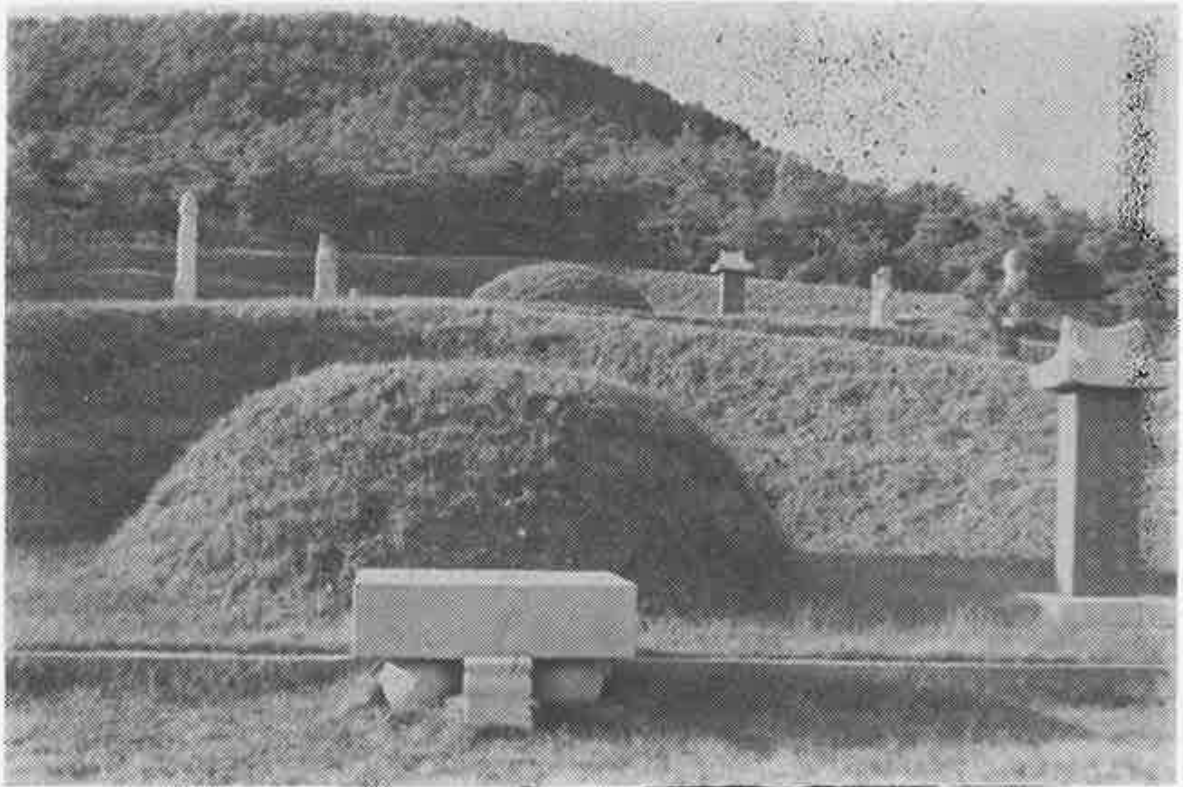
용법·용량 : <1회 복용량> 필요에 따라 다음량을 복용. 성인 1회 1환, 15~7세 $\frac{2}{3}$ 환, 7~4세 $\frac{1}{2}$ 환, 4~2세 $\frac{1}{3}$ 환, 2세미만 $\frac{1}{4}$ 환 씹어서 복용하거나 온수 또는 생강물에 개어서 복용.

갱년 노화 허약 보혈 강장제

슈 타 론 丸

효능·효과 : 양기부족, 전신권태, 신경통, 수족냉증, 식욕부진, 신경쇠약

용법·용량 : 성인 1일 3회, 1회 1환씩 식간에 복용하십시오.



(寫真說明：仁川論峴洞五峰山麓佐郎公派監察公(諱文孫)墓全景)

佐郎公派監察公後孫宗中會

仁川直轄市南區論峴洞山 5番地

顧問	興植	京畿九里市仁倉 2里 495-7
會長	元植	서울永登浦區汝矣島洞 수정아파트 B동 309호 전화 783-1138
副會長	承健	忠南公州郡灘川面加尺里 722
副會長	光敏	京畿九里市仁倉 2里 495-7 전화九里 2-2741
總務	允植	서울城北區長位洞 69-48 전화 914-4502
監事	衝燮	忠南唐津郡新坪面富壽里
同	光茂	京畿九里市水澤里 448 전화九里 2-2318

祝

宗 誌 創 刊

大進運輸株式會社

(巴士旅客運送事業)

代表理事 崔 焯 正

仁川直轄市 中區 港洞 58-3

電話 882-5430, 882-8363番

祝

宗 誌 創 刊

國會議長秘書室長 崔 明 憲
國 會 議 員

祝

宗 誌 創 刊

現代建業株式會社

代表理事 崔 文 憲

電話 332-2301番

海東孔子 崔冲의 文學를 살핌



康 賢

(文學博士 弘益大學教授)

I. 머리말

오늘날 우리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고려시대 문학 작가를 헤아려 보면, 500년의 역사를 가진 한 왕조에서 30여명에 불과하다.

김동욱(金東旭)님의 역저인 <國文學史(국문학사)>에 따르면, 최언위(崔彦撫 : 868—944)를 필두로 하여 균여(均如 : 917—973), 최승로(崔承老 : 927—989), 박인량(朴寅亮 : ?—1096), 김부식(金富軾 : 1075—1151), 김부일(金富偁), 정지상(鄭知常 : ?—1135), 김황원(金黃元 : 1045—1117), 예종(睿宗 : 재위 1106—1115), 정서(鄭叙 : 1123—1146), 이인로(李仁老 : 1152—1221) 등 해좌 칠현(海左七賢), 금의(琴篋 : 1153—1230), 이규보(李奎報 : 1168—1240), 유원순(兪元淳 : 1168—1234), 이공로

(李公老 : ?—1224), 유충기(劉冲基), 진화(陳渾), 김양경(金良鏡 : ?—1235), 최자(崔滋 : 1186—1260), 채홍철(蔡洪哲 : 1262—1340), 우탁(禹倬 : 1269—1342), 이제현(李齊賢 : 1287—1367), 최해(崔澐 : 1287—1340), 안축(安軸 : 1287—1348), 이곡(李穀 : 1298—1351), 이색(李穡 : 1328—1396), 정몽주(鄭夢周 : 1337—1392), 이숭인(李崇仁 : 1347—1392), 정도전(鄭道傳 : ?—1398), 길재(吉再 : 1358—1419), 권근(權近 : 1352—1409) 등이 소개되고 있을 뿐이다. 물론 이상의 여러 사람 이외에도 더 있겠지만, 일반적인 학계의 인식의 단면을 파악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리라 여겨져서 인용 정리해 본 것이다.¹⁾

이처럼 몇 안되는 고려시대 문학작가 중에서 오히려 큰 별이라고 해야 할 세칭 해동공자(海東孔子)라는 문헌공(文憲公) 최충(崔冲 : 984—1068) 할아버지의 문학에 관한 연구는 거의 진행된 바

1) 金東旭 : <國文學史>, 서울 : 日新社, 1983, 1. 쪽 65~103.

가 없다. 이에 필자는 고려시대 작가의 재조명을 꾀하여 국문학사상 암흑기라는 기존의 선입관을 불식하고, 우리선조님의 위대한 업적의 일단을 선양하려는데에 본고의 목적을 삼는다.

Ⅱ. 문헌공 연구의 기존 업적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학당인 구재(九齋)를 열어 많은 후학을 길러낸 최충은 고려 건국후 70년도 못되어 출생하여 당시로서는 지극히 드문 85세의 천수를 누리면서 시칫말로 표현하여 행정가, 정치가, 법률가, 군략가, 교육가, 유학자로서의 각 영역에 걸쳐 빛나는 업적을 남긴 바 있다. 그러나 내우외환의 수많은 전란을 겪는 동안에 허다한 문헌들이 다 없어진 오늘날 그의 문학에 관한 연구는 그야말로 영성하기 그지없다. 이제까지 우리 학계에 보고된 문헌공 최충에 관한 연구 업적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능화(李能和), 高麗崔冲(고려 최충) <靑丘學叢(청구학총)> 22호, 청구학회, 1935.

이병도(李丙燾), 崔冲傳(최충전) <朝鮮名人傳(조선명인전)> 2권, 조선일보사, 1939.

박성봉(朴性鳳), 海東孔子崔冲小考(해동

공자 최충 소고) <史叢(사총)> 1호, 고려대학교 사학과, 1955.

——, 榮華(영화) 속의 海東孔子(해동공자) <韓國(한국)의 人間像(인간상)> 4권, 신구문화사, 1965.

——, 崔冲(최충)—私學(사학)에 바친 東海孔子(해동공자) <人物韓國史(인물한국사)> 2권, 박우사, 1965.

——, 高麗史(고려사)에 나타난 崔冲(최충)의 業績(업적) <宗誌(종지)> 2호, 해주 최씨 교리공파총회, 1981.

——, 崔冲(최충)의 人間像(인간상)과 私學十二徒(사학십이도) <崔冲研究論叢(최충연구논총)>, 경희대학교 전통문화연구소, 1984.

최길준(崔吉浚), 文憲公(문헌공)과 구재(九齋) <宗誌(종지)> 2호, 해주 최씨 교리공파총회, 1981.

김충렬(金忠烈), 崔冲私學(최충사학)과 高麗儒學(고려유학) <崔冲研究論叢(최충연구논총)>, 경희대학교 전통문화연구소, 1984.

손인수(孫仁銖), 韓國私學(한국사학)의 傳統(전통)과 崔冲(최충)의 位置(위치) <위의 책>.

윤사순(尹絲淳), 朱子學以前(주자학 이전)의 性理學導入問題(성리학 도입문제) <위의 책>.

이희덕(李熙德), 崔冲(최충)의 思想(사상)과 儒教政治倫理(유교정치윤리) <위의 책>.

고경식(高敬植), 崔冲(최충)의 詩文(시문)과 性格(성격) <위의 책>.

이을호(李乙浩), 韓國儒學史上 崔冲(한국 유학사상 최충)의 位置(위치)〈위의 책〉. 박용운(朴龍雲), 高麗時代(고려시대)의 海州崔氏家門分析(해주최씨가문분석)〈위의 책〉.

이상의 연구에서 그간의 최충에 관한 연구는 유학자로서의 교육자적인 면에 중점이 주어졌음을 알 수가 있고, 문학 적 측면에서의 작가로서는 겨우 1편의 고찰이 있었음을 알겠다.

Ⅲ. 문헌공의 시조(時調)

(1) 작품 개관(概觀)

현재 전하고 있는 각종 고시조집에 실려서 유전되고 있는 문헌공의 시조 작품은 모두 3편이다.

㉠ 白日(백일)은 西山(서산)의 지고 黃河(황하)는 東海(동해)로 든다. 古來(고래) 英雄(영웅)은 北邙(북망)으로 가단 말가? 두어라. 物有 盛衰(물유성쇠)니 恨(한)할 줄이 이시랴? (〈악학습령〉 44)

이 작품은 이 작품이 실려서 현전하고 있는 전체 고가집(古歌集) 23종의 책 중에서 가장 오래 된 병와(瓶窩) 이

형상(李衡祥 : 1653—1733)의 〈악학습령(樂學拾零)〉²⁾을 비롯한 육당본(六堂本) 〈청구영언(靑丘永言)〉과 일석본(一石本) 〈해동가요(海東歌謠)〉 등 믿을 만한 가집 14종의 책에서는 지은이를 “崔冲(최충)”이라고 하였는데 비하여 훨씬 후대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가람본(嘉藍本) 〈청구영언(靑丘詠言)〉과 일본인 하합본(河合本) 〈가곡원류(歌曲源流)〉 등 2종에서는 그 지은이를 “權隄(권제 : 1387—1445)”로 기록하고 있다.³⁾

㉡ 百川(백천)이 東到海(동도해) 하니 何時(하시)에 復西歸(부서귀)오? 古往今來(고왕금래)에 逆流水(역류수) 엇건마는 엇디트 肝腸(간장) 석은 물은 눈으로써 솟는고? (〈가곡원류〉, 육당본 740)

이 작품은 이 작품이 실려 전하는 전체 고가집 32종의 책 중에서 〈악학습령〉 한 책에서만 속종 때의 가객 “朱義植(주의식)”으로 지은이를 기록하였을 뿐 육당본 〈가곡원류〉와 불란서본(佛蘭西本) 〈가곡원류〉의 2종에서는 “崔冲(최충)”의 작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나머지 다른 책들은 실명씨(失名氏)의 작으로 되어 있다.⁴⁾

㉢ 一生(일생)의 願(원)하기를 義皇時節(희황시절) 못난 줄이 草衣(초

2) 이제까지 학계에서 〈瓶窩歌曲集〉으로 알려진 책이다.

3) 심재완 : 〈校本歷代時調全書〉 세종문화사 1972.

4) 위의 책 참조

의)를 무릅고 木實(목실)을 먹을 만정 人心(인심)이 淳厚(순후)하던 줄 못너 부러흐노라. (<악학습령> 43)

이 작품은 이 작품이 실려 전하는 고가집 31종의 책중에서 <악학습령>을 비롯한 12종의 가집에서는 그 지은이를 “崔冲(최충)”으로만 명기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는 모두 작자 미상으로 되어 있다.⁵⁾

(2) 변증(辨證)

오늘날 우리 학계에서는 옛문헌의 기록을 그대로 믿고 따르려는 긍정적 입장의 학자들과 비록 옛문헌의 기록이라고 하더라도 믿을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 수 없지 않느냐는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학자들로 나뉘어져서 위의 작품들을 문헌공의 작품이라거나, 후인의 안작(贗作)이라느니 하여 논란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현재 위의 작품들을 문헌공의 작이라고 긍정적인 견해를 보인 학자들은 약간의 회의를 내포한 채 긍정하려 한 이병기(李秉岐 : 1891—1968)

님⁶⁾을 비롯한 고등학교 검인정 “고전” 교과서의 집필자인 임헌도(林憲道)님⁷⁾, 박성의(朴晟義 : 1917—1978)님, 송민호(宋敏鎬)님⁸⁾들이고, 부정적인 입장의 학자들은 김준영(金俊榮)님⁹⁾, 진동혁(秦東赫)님¹⁰⁾, 박을수(朴乙洙)님¹¹⁾들이다.

위에 든 시조 작품들이 문헌공의 작품이나 아니냐의 문제는 국문학 전공자가 아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다. 그것은 곧 우리 문학사에 있어서 시조의 발생시기를 결정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위에 든 부정적 입장을 취하는 학자들은 고시조 발생 시기를 고려 중엽으로 보면, “고려 때 작가들로도 姜邯贊(강감찬), 崔冲(최충), 郭輿(곽여), 鄭知常(정지상), 李奎報(이규보)까지는 그作家(작가)를 일단은 信憑性(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¹²⁾이라는 점에서 거의 공통된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반대되는 입장 곧 위의 작품들을 문헌공의 작으로 긍정하는 학자들은 시조의 발생시기를 고려 중엽으로 본다면, 그 전후에 지어진 작품도 있을

5) 위의 책 참조. 그리고 여기서 시조라고 하는 것은 3章 6句 58點으로 노래되는 音樂上의 曲調가 아니고, 文學形態로서의 短歌를 借稱함이다.

6) 李秉岐 : <國文學概論> 쪽 120, 一志社, 1961.

7) 林憲道 : <모범고전> 쪽 206, 영지문화사, 1968.

8) 朴晟義 · 宋敏鎬 : <고전> 쪽 38, 고려서적주식회사, 1979.

9) 金俊榮 : <韓國古典文學史> 쪽 221, 금성출판사, 1971.

10) 秦東赫 : <古時調文學論> 쪽 123, 螢雪出版社, 1976.

11) 朴乙洙 : <韓國時調文學全史> 쪽 42, 成文閣, 1978.

12) 앞주의 책.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소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 현 학계의 실정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김수업님이 시조의 발생시기를 “16세기 중엽 어름”이라면서 이제까지의 학설에 관하여 “모든 학자들이 고려 말(14세기) 이전에 이미 시조가 생겨나 있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전적으로 다시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¹³⁾

이에 필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관점에서 위에 든 시조 작품을 문헌공과 관련하여 논증해 보겠다.

가) 시조 발생 시기와 그 시대적 배경

신라 경명왕(景明王) 2년(918)에 지금의 개성(開城)에 도읍을 정하고,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王建 : 877—943)은 무인 출신이면서도 왕권의 확립과 왕실의 영보(永保)를 위하여 직접 “정제(政誡)” 1권, “계백소서(誠百寮書)” 8편, “훈요(訓要)” 10조를 지었으며, 그의 세째 아들로 4대 왕위에 오른 광종(光宗 : 925—975)은 9년(958), 곧 건국 후 40년만에 전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인재 등용의 방법으로 당(唐)나라의 과거 제도를 모방 시행하여 시, 부, 송, 시무책(時務策)으로 시험하여 진사(進士)를 뽑고, 명경(明經), 의

(醫), 복(卜) 등 술업(術業)도 취하여 문치주의(文治主義)의 기틀을 마련하였다.¹⁴⁾ 또 이 이들 과거에 급제한 벼슬아치들은 관인(官人)으로서의 자격이 한신제(限身制)로 제한되었으므로 그들의 자제나 새로이 출신(出身)하려는 사람들은 이 시험지옥의 좁은 문을 거쳐야 하였다. 그 결과 고려 사회에는 시험 과목에 드는 각종 중국의 고문에(古文藝)를 익히려는 새 문풍(文風)이 급격히 전국적으로 흥륭(興隆) 확산(擴散)되기에 이르렀다. 또 태조의 손자로 제 6대 왕위에 오른 성종(成宗 : 960—997)은 11년(992)에 종전의 경학(京學)을 개편하여 국자학(國子學), 대학(大學), 사문학(四文學), 율학(律學), 서학(書學), 산학(算學) 등 전문학과를 내포한 국자감(國子監)을 신설하였으니, 국자학, 태학, 사문학의 정원만도 3과가 각 300명이나 되었는데, 많을 때에는 600명에 이르렀다고 한다.¹⁵⁾

이 때에 문헌공은 겨우 10대의 소년이었다. 문헌공이 20대에 입조(立朝)하여 문종 9년(1055)에 72세로 치사한 뒤 사숙(私塾)으로 구재학당(九齋學堂)을 개설하고 후학을 지도한 당시의 환경은 고려 왕조의 황금기로서 아마도 과거 응시 후보자가 너무도 많아서 나라에서

13) 김수업 : <배달문학의 길잡이> 쪽 144~158, 선일문화사, 1983.

14) <高麗史> 卷 73, 選舉志 1.

15) 金貞玉 : 高麗時代教育制度에 對한 一考察 <梨花女子大學校 70周年紀念論文集> 쪽 63~88, 1956.

운영하는 국자감만으로는 출신하려는 수많은 학생들을 모두 수용할 수 없으므로, 그 배움에 목말라 하는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사숙을 열어 교육하면서 시설면으로나, 교육내용면으로나 국자감보다 오히려 우수하였기 때문에 과거 급제자도 많이 내어 명성이 떨치게 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그 결과 후대에 와서는 국자감은 유명무실해지고, 상대적으로 사학은 더욱 번성하여 이른바 12공도(公徒)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구제는 가장 권위가 있어서 충숙왕(忠肅王 : 1294—1339) 4년에는 국자감시(國子監試)를 구제 사시(九齋朔試)로 대치하기에까지 이르렀다.¹⁶⁾ 이와같은 사회적 배경을 생각하여 본다면, 문헌공이 생존하였을 당시에는 이미 수많은 학생들까지도 한시와 사부(辭賦), 송, 책문 등을 많이 암송하기도 하고 자유자재로 짓기도 하였을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시대적 환경을 염두에 두고 시조가 생겨난 시기를 더듬어 보기로 하자. 시조 발생 시기를 추정하는 데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시조가 지니고 있는 형식적 전통성의 면에서이고, 또 하나는 그러한 시조의 형태가 나타나게 된 사회적 여건의 면이다.

① 시조의 형식면에서

현전 신라 노래 25수와 고려시대의

경기체가의 형식은 그 음수율의 운률 형태에 있어서 1줄이 대부분 3울각(律刻)으로 되어 있는데 반하여 고려 속요의 일부는 4울각의 형태로 바뀌어져 있다. 몇 가지 예를 보이면,

먼저 신라 노래에서 :

善化公主主隱/他窓只嫁良置古(善化公主님은/남 그옥 얼어두고) 24/124
 薯童房乙夜矣/卯乙抱遣去如(마동방을 밤의/물 안고 가다) 222/122 (서동요)

東京明期月良/夜入伊遊行如可(東京발기 달에/밤 들이 노니다가) 222/124
 入良沙寢矣見昆/脚烏伊四是良羅(들어사 자리 보곤/가로이 네시어라) 322/34

二盼隱吾下於叱古/二盼隱誰支下焉古(두홀은 내하였고/두홀은 닛 해언고) 34/34

本矣吾下是如馬於隱/奪叱良乙何如爲理古(본대 내하이다마언/앗아올 잇다하리고) 224/323 (처용가)

月下伊底亦/西方念丁去賜里遣(달하이제/서방념저 가샤리고) 22/224

無量壽佛前乃/惱叱古音多可支白遣賜立(무량수불 앞에/느곰다갓 삶고샤셔) 42/44

誓音深史隱尊衣希仰 𠄎 / 兩手集刀花乎白良(다짐 깊산 '尊에게 올윗/두손 모도고삶아) 2232/232

16) <高麗史> 卷 74, 選舉志 2.

願往生 願往生 / 慕人有如白遣賜立(원왕생 원왕생/그릴 사람 있다 삶고 샐셔) 33/424

阿邪此身遺也置遣 / 四十八大願成遣賜去(아야 이몸 기쳐 두고/사십팔대원 일고샤가) 224/324 (원왕생가)

다음 고려노래에서 :

元淳文仁老詩公老四六 (원순문인노시공노스룩) 334

李正言陳翰林雙韻走筆(니정언 딤한림황운주필) 334

冲基對策光鈞經義良鏡詩賦 (통기딤척광군경의 량경시부) 444

위 試場人景 괴엇더흐니잇고 1334

琴學士의 玉笋門生 琴學士의 玉笋門生(금혹스의 옥순문싱 금혹스의 옥순문싱) 4444

위 날 조차 몇부니잇고 1125 (이하약) (한림별곡)

딩아 들하 당금에 계샨이다. 2234

딩아 들하 당금에 계샨이다. 2234

선왕성덕에 노니오와지이다. 2343

삭삭기 세물애 별헤나는 3322

삭삭기 세물애 별헤 나는 3322

구은 밤 닷디를 심고이다. 2134 (이하약) (정석가)

듣기등 방해나 디히히애 334

게우즌 바비나 지서히애 334

아버님 어마님의 받좁고 히야해 3433

남거시든 내머고리 히야해 히야해

4433 (상저가)

이는 곧 우리 시가 문학의 전통적 운률 형식의 하나인 1줄 3울각이 4울각(3울각+1울각)의 형태로 변화하여 시조와 가사로 발전하였다는 뜻이다.¹⁷⁾ 그러면 전통적인 3울각형이 어떻게 하여 갑자기 4울각형으로 변형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한문학의 영향이라고 하겠다. 한문으로 된 시와 가 및 송 등은 원문에 우리말 토를 달아 풀이하여 영송하면 그대로 우리들의 시조나 가사 형태로 바뀌어진다. 예를 들어 보이면 다음과 같다.

關關雎鳩 在河之洲 窈窕淑女 君子好逑 (詩經 關雎章)

(관관저구는 재하지주요, 요조숙녀는 군자호구로다.) 2332/2324

春水滿四澤 夏雲多奇峰 秋月揚光輝 冬嶺秀孤松 (晉顧愷之 神情詩)

(춘수는 만사택이요, 하운은 다기봉이로다. 추월은 양광휘요, 동령은 수고송이로다.) 3536/3436

洛陽城裏見秋風 欲作家書 意萬重 復恐忽忽說不盡 行人臨發又開封 (唐張籍秋思)

(낙양성리에 견추풍하고, 육작가서

17) 이에 관한 연구는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상당히 활발하였으나, 아직 통일된 견해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구체적 예시는 줄인다.

하니 의만중이로다. 부공은 총총 설
부진이라, 행인입발에 우개봉하나
다.) 2314/2433·3214/2333

등과 같은 점에서 시조와 가사는 고려
초에 이미 한문학의 영향을 받은 종래
의 신라 노래와 민요 등의 전통적 운물
이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임
을 확신할 수가 있다. 이에 관하여는
보다 전문적인 글에서 다시 다루어야
하겠기에 여기서는 이만 줄이기로 한
다.¹⁸⁾

② 사회 여건의 면에서

〈고려사(高麗史)〉 악지(樂志)에서는
“한송정(寒松亭)”이라는 고려시대 노래
에 관하여

세상에 전하기를 이 노래는 슬(瑟)
의 밑바닥에 씌어져 강남에까지 흘러
갔는데, 강남인들이 그 노래말을 이
해하지 못하였다. 고려 광종 때에 우
리 나라의 장진공이 사신으로 강남에
갔을 때에 강남인이 그 노래의 뜻을
물어 장공은 한시로 번역하여 그 뜻
을 알려 주었다. 한시는 내용이 이러
하다. 달밝은 한송 밤에/물결 잔잔
경포의 가을/슬피 울며 왔다 가는/갈
매기가 미덥구나.

라고 기록하고 있다.¹⁹⁾ 이것은 곧 〈악
학습령〉을 비롯한 많은 고가집에 강릉
명기(江陵名妓) 홍장(紅粧)의 작으로
전하고 있는

寒松亭(한송정) 뜰 붉은 밤의 景瀑
臺(경포대)에 물결 潺潺(잔잔) 有信
(유신)호 白鷗(백구)는 오락가락하
것마는 엇더라 우리의 님은 가고 아니
오논고? (〈악학습령〉 544)

와 같은 작품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종
장의 내용이 〈해동가요〉계 가집에는 “우
리의 王孫(왕손)은 가고 안이 오는이”
로 되어 있다. 따라서 후인의 작이라고
속단하고 무시해 버릴 수도 있으나, 〈고
려사〉의 기록에 따르면 광종(재위 948
—975) 때에 우리나라 말로 된 노래를
중국의 한문과 다른 표기체계로 슬이라
는 악기의 밑바닥에 써 두었던 그 악기
가 어떤 천재지변(天災地變)에 의하여
표류하여 중국 남단에까지 밀려가 마침
내 중국인들의 손에 들어갔고, 중국인
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여 안타까와
하던 중 우리 나라의 사신 장진공(張晉
公²⁰⁾에 의하여 한시로 번역된 것이라
추정된다.²¹⁾ 이와같은 시조의 한역은
현재 많이 전하고 있거니와 한시가 시

18) 姜吉云: “平時調·辭說時調·次辭의 發生”(〈冠岳語文研究〉 3호 서울대) 쪽 1~26, 1978. 여기서 필자는 “平時調는 高麗初葉以前으로, 辭說時調는 高麗中葉 以前으로 그 發生年代를 치켜 올려야 할 것이 아닐까 한다.”고 제의하였다.

19) 〈高麗史〉 卷 71, 樂志 2.

20) 鄭炳昱: 〈한국고전시가론〉 쪽 199~200, 신구문화사, 1983에서 張儒의 아들 張延祐(?~1015)로 다루었으나 잘못이다.

21) 金根洙: 〈時調研究〉 쪽 225~230, 청록출판사, 1979에서 張儒로 다루었으나, 역시 잘

조로 변개된 것도 또한 많이 전하고 있다. 한시에서 시조로 변개된 예만을 몇 가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당 나라 시인 두목(杜牧 : 803—852)의 7언절구 “야박진회(夜泊秦淮)”에 우리말 토를 달아 읽은 뒤에 종장에 해당 하는 부분은 지은이나 감상자의 그때그 때 취향에 따라 많이 달라지기도 한 예가 있다.

烟籠寒水月籠沙(연 롱한수월 롱사)하니
夜泊秦淮近酒家(야박진회근주가)
라. 商女(상녀)는 不知亡國恨(부지망국한)
하고 隔江猶唱後庭花(격강유창후정화)를
아무리 商女(상녀)들 亡國恨(망국한)을
모르랴? (<고금가곡(古今歌曲)> 94)

烟籠寒水月籠沙하니 夜泊秦淮近酒家
| 라. 商女는 不知亡國恨이요, 隔江
惟唱後庭花 | 라. 아히야 換美酒(환미주)
하여라. 與君同醉(여군동취)하라. (<시가(詩歌)> 548)

의 원시(原詩)는

烟籠寒水月籠沙 夜泊秦淮近酒家 商
女不知亡國恨 隔江猶唱後庭花
이다. 또 당 나라 유종원(柳宗元 : 773—819)의 5언절구 “강설(江雪)”은 다음과
과 같은 시조로 변개되었다. 원시,

千山鳥飛絕 萬逕人蹤滅 孤舟蓑笠翁
獨釣寒江雪이

千山(천산)에 鳥飛絕(조비절)이오.
못이다.

萬逕(만경)에 人蹤滅(인종멸)를 孤舟
蓑笠翁(고주사립옹)이 獨釣寒江雪(독
조한강설)이로다. 낙시의 절노 무는
고기 기분인가 흥노라. (<악학습령>
656)

라고 된 것이 있는가 하면,

千山에 鳥飛絶이오. 萬逕에 人蹤滅
을 孤舟蓑笠翁이 獨釣寒江雪이로다.
엇더타 物外閒情(물외한정)은 漁翁
(어옹)인가 흥노라. (<악부(樂府)>
서울대본 344)

라고 종장이 바뀌어진 것도 있다.

이 백(李白 : 701—762)의 악부 억
진아(憶秦娥)

簫聲咽 秦娥夢斷秦樓月 秦樓月 年
年柳色 灞陵傷別 樂遊原上 清秋節 咸
陽古道 音塵絕 音塵絕 西風殘照 漢家
宮闕

에 우리 말 토를 달아 읽은

簫聲咽(소성열) 秦娥夢斷(진아몽단)
秦樓月(진루월) 秦樓月(진루월) 年年
柳色(연년유색) 灞陵相別(패릉상별)
樂遊原上(낙유원상) 清秋節(청추절)
이오. 咸陽古道(함양고도) 音塵絕(음
진절)이라. (音塵絕) 西風殘照(서풍
잔조) 漢家陵闕(한가능궐)이로다.
(<악학습령> 802)

시조가 18종의 고가집에 실려 전하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이들 한시에 토를 달

아 노래한 시조 작품들은 근래에 와서 이루어졌다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고려 초기부터 구전되어 오다가 조선시대에 이르러서야 문헌에 정착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추정이 가능한 것은 현전 문헌 중 가장 믿을 수 있는 기록인 <고려사>의 문헌공의 열전에는 구재(九齋)의 교육 양상에 관하여

여름이면 귀법사(歸法寺)의 승방을 빌어서 여름 공부를 하고, 무리 중에서 급제하여 학문이 우수하면서도 아직 벼슬하지 못한 자를 택하여 교도(敎導)로 삼아 9경(經)과 3사(史)를 가르쳤다. 간혹 선진(先進)이 찾아오면 초에 눈금을 그어 시를 짓고 차례로 이름을 불러 들려다가 작은 술자리를 마련하여 동자(童子)와 관자(冠者)가 좌우로 늘어서서 준조(樽俎)를 받드는데 물러가고 나가는 데에 예의가 있고 어른과 아이들의 차례가 있었다. 서로 어울려 창수(唱酬)하다가 저녁때가 되면 낙생영(洛生詠)을 짓고 파하는데 이를 보는 사람들은 감탄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는 기록이 있다.²²⁾ 이것은 얼마전까지만 해도 시골 한문 서당에서는 얼마든지 볼 수 있었던 조선시대의 문교 풍속(文教風俗)과도 그대로 통하는 일이다. 그 위에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낙생

영(洛生詠)”을 지었다는 사실이다. 이 낙생영이란 시나 노래를 길게 소리내어 읊는 영가(詠歌)의 일종이다. 중국의 <제서(齊書)>의 “장융전(張融傳)”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오랑캐 도둑들이 장융을 잡아 죽인 뒤 그 고기를 먹으려 하는데 장융이 조금도 변색하지 않고 낙생영을 지어 읊었다. 도둑들은 이상히 생각하고, 장융을 그대로 살려 보냈다.

는 것이다.²³⁾ 이것은 곧 <삼국유사(三國遺事)>에 실려 전하는 영재(永才) 스님의 “우적가(遇賊歌)”의 배경담(背景譚)과 너무도 흡사함을 알 수가 있다. 이로써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미 고려 초기부터 오늘날의 시조와 흡사한 문학 활동을 즐겼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수많은 내우외환의 전란으로 인하여 신라왕조의 궁궐이나, 백제 왕조의 궁궐 및 고려의 왕궁 하나 제대로 남아 전하여지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들이 늘 사용하는 인삿말조차 “안녕하십니까?”로 굳어질 만큼 편안한 날이 적었던 관계로 모든 귀중한 문화 자료가 회신(灰燼)되거나, 도실(盜失)되어 오늘날까지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자료들이 없다는 점이 애석하기 그지 없을 뿐이다.²⁴⁾

22) <高麗史> 卷 95, 列傳 8.

23) <南齊書> 卷 41, 列傳 22.

나). 문헌공의 시조작가 여부

위에 인용한 문헌공의 이름이 기록된 시조 작품을 하나씩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의 작품부터 보면, 이 작품은 당 나라의 시인 왕지환(王之渙 : 688—742)이 지은 “등관작루(登鶴鵲樓)”의

白日依山盡 黃河入海流 欲窮千里目
更上一層樓

에서 그 일부를 따 온 것임을 생각한다면, 조선 초기인으로 인생 60을 살지 못하고 기세한 권세보다는 미수(米壽)를 채우지 못한 문헌공의 작으로 봄이 고려 초기의 문풍으로 보더라도 잘 어울린다고 생각한다.

둘째, ㉡의 작품은 현전 가집 중 32종에 실려 있지만, 지은이에 대하여는 주의식과 2:1의 관계에 있고, 실려 있는 문헌의 신빙도로 보면, 주의식이 더 유리하다. 그러나 주의식이 칠곡현감을 지내기는 하였지만, 가객으로 더욱 유명하였으므로 <악학습령>의 지은이인 이형상과 동시대인으로서 아마도 주의식이 부른 노래를 모두 그의 자작시조로 생각하였던 듯싶다. 그래서 현전 가집 중 그의 작품으로 기록되어 있는 모든 시조의 수는 19수인데 그 중에서 5수는 주의식보다 선대인인 설총(薛聰),

문헌공, 변계량(卞季良), 성수침(成守琛), 박은(朴闇), 김상용(金尙容)의 작이라는 기록과 경합이 되고 있다. 심재완(沈載完)님의 <역대시조전서(歷代時調全書)>의 가번(歌番) 608은 변계량·성수침과 경합이 되어 있고, 998은 김상용과, 1212은 문헌공과, 2411은 설총과, 2774은 박은과 각각 지은이를 닮게 되어 있다. 이것은 후세인들의 장난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신라시대부터 이미 낙생영처럼 우리 선인들에 의하여 불러져 오던 것이 오랜 세월이 걸쳐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면서 약간의 변질도 되고 또 문자로 정착될 때에 지은이에 대한 와오(訛誤)도 생겨지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따라서 작품 내용 자체도 문헌공이 5왕을 섬기며 평화로이 조정의 안에 있을 때에는 명정치가 이고, 국토 변방이 시끄러워 외직을 맡으면 지혜로운 전략가로서의 생애를 보낸 위인으로서의 문헌공 작품답지는 않지만, 80세를 넘게 생존하면서 인생 무상을 느끼고 그의 노경에 노래하였을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믿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이 작품은 자하(紫霞) 신위(申緯 : 1769—1847)가 당시의 시조 40수를 한시로 번역한 소악부(小樂府) 속에 “쌍옥저(雙玉筋)”라는 제목 아래

24) 三國時代에 있었다는 各種 史書와 三代目 등이 전하지 않음은 물론하고, 高麗王朝의 太祖~穆宗까지의 7朝實錄과 그 이후 諸王들의 <國史>, 毅宗時人 金寬毅編 <編年通錄>, 崔允儀의 <古今詳定禮文>, 僧一然이 <三國遺事>를 지으며 참고하였던 수많은 책들이 날권으로도 傳해 오지 않고 있음에서 證明이 된다.

逝者滔滔挽不得 百川東到幾時回 如
何點滴肝腸水 却向秋波滾上來
라고 실려 있는데 지은이에 관하여는
아무 언급도 없다.²⁵⁾

세째, ㉔ 작품은 그 지은이에 있어서
여러 이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헌
공 또는 실명씨 작 이외의 다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가집은 하나도 없다. 또
그 내용으로 보더라도 일찌기 중국의
선진유학(先秦儒學)을 깊이 연구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도의와 인의(仁
義)가 실현되는 이상낙국(理想樂國) 건
설을 염원한 문헌공의 소박한 국가관과
도 부합하여 문헌공의 작이라고 해서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IV. 문헌공의 한시문

(1) 작품 개관

최종이 70세 때에 치사하려 하자, 문
종은 “경은 유학의 저울눈이며 법이요,
문신(文神)이 그린 채색이라 훌륭한 붓
으로 여러 임금의 섬기며 문장으로 나
라를 빛내었다.”고 칭찬하는 조서(詔書)
를 내리기까지 하였다.²⁶⁾ 이 글귀로 보
면 문헌공은 생존시에 많은 저술이 있
었던 듯하나, 불행히도 오늘날에는 전

하는 것이 몇 편 되지 않는다.

가). 율 문

현전하는 것은 <동문선(東文選)>에
실려 있는 “절구(絕句)”라는 제목으로
된 7언 절구 1수, “시좌객(示座客)”이
라는 제목의 7언 율시 1수가 믿을 수
있는 작품이고, 그 외에 최종의 후손인
동산수(東山叟) 최자의 <보한집(補閑
集)>에 보이는 “훈자손문(訓子孫文)”
안에 들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계
이자시(戒二子詩)”라는 제목의 5언 율
시 2수가 고작이다.

나). 산 문

현전하는 산문은 금석문(金石文) 2편
과 <고려사>에 실려 있는 현종(顯宗:
재위 1009—1031)을 기린 “사찬(史贊)”
과 <고려사>의 최종전에 인용되어 있는
“사고신예물계사(賜告身禮物啓辭)”가 있
을 뿐이다. 2편의 금석문이란, 하나는
현 강원도 원성군 부론면 정산리(原城
郡富論面鼎山里)에 세워져 아직도 웅장
한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고려
국 원주 현계산 거둔사 고왕사 혜월 광
천 편조 지각지만 원묵 적연 보화대선
사 증시 원공국사 승묘탐비명병서(高麗
國原州賢溪山居頓寺故王師慧月光天遍照
至覺智滿圓默寂然普化大禪師贈諡圓空國

25) 申緯：〈警修堂全藁〉卷 49，孫八洲編〈申緯全集〉太學社 景印，쪽 1202.

26) 앞주 22)의 책

師勝妙塔碑銘并序)”이고,²⁷⁾ 하나는 현충청남도 천원군 성환읍 대홍리(成歡邑大弘里)에 세워져 있는 “봉선홍경사기(奉先弘慶寺記)”라는 비문이다.²⁸⁾

(2) 문학적 가치

가). 절 구

뜰안 가득한 달빛은 연기 없는 촛불이요,
 (滿庭月色無煙燭)
 자리에 드는 산빛은 뜻밖의 손님일세.
 (入座山光不速賓)
 그 위에 술 거문고가 악보 없는 노래 연주하니,
 (更有松絃彈外譜)
 다만 너무 귀하여 남에게 전하지 못하네.
 (只堪珍重未傳人)
 이 작품은 마치 한 폭의 동양화를 연상시키는 자연미를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여기에서 감상자들은 문헌공의 망중한(忙中閑)의 자연애(自然愛)의 정신을 엿볼 수가 있다. 가려 뽑아 다듬어진 시어에 있어서도 빛으로서의 달과 초, 지은이와 동격으로서의 산과 손님, 인생의 즐거움으로서의 총풍과 음악을 잘 조화시킨 외에 결구(結句)에서 만인이 함께 즐겨야 할 것이지만, 너무도 귀중하기에 아직 다른 사람에게까지는 알리지 못하고 혼자 향락하고 있다는 인간 본래의 욕망까지도 속임 없이 솔

직히 표출한 데에서 그의 참 인간미를 느낄 수 있다. 시각과 청각의 공감각적(共感覺的) 묘사를 취한 수작(秀作)이다.

나). 시좌객

이 작품은 내용으로 보아 노쇠하여 치사한 뒤의 만년 작인 듯하다.

물가 정자의 시원한 바람 내게는
 인연 없어 (水閣風櫺苦見招)
 문서더미 속에서 세월만 보냈네.
 (簿書叢裏度流年)
 붉은 앵두 자주빛 죽순철 거의 지나니,
 (朱櫻紫荀時將過)
 빨간 무궁화 붉은 석류가 또한 곱구나.
 (紅槿丹榴態亦妍)
 오래 병들어 손님 맞아 술도 못마시고,
 (病久却嫌邀客飲)
 게으른 성품은 피팔새 노래 들으며 잠만 잤네.
 (性慵偏喜聽鶯眠)
 좋은 때 건강 되찾기가 조련찮으니,
 (良辰健日終難在)
 꽃 핀 좋은 때 맞추어 취선이 되어 보세.
 (急趁花開作醉仙)
 주연을 배풀고 모인 손님들에게 술을 권한 내용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이 작품에서도 자연의 아름다움을 연회석상에 잘 조화시키고 있다. 여기서는 인생 무상감과 “노세 노세 젊어 노세”를 연

27) 이 글은 朝鮮總督府編〈朝鮮金石總覽〉上卷에 실려 있다.

28) 이 글은 〈東文選〉卷 64에도 실려 있다.

상하게 하는 우리 민족의 풍류 의식의 전통성을 엿볼 수 있다.

다). 계이자시

문헌공은 이 시에서 우리 집의 보배를 청렴 검약(儉約)과 문장 및 덕행(德行)으로 규정하여 유학자로서의 면모를 더욱 뚜렷이 하고 있다. 그 위에다가 다시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것을 자손들에게 당부하여 현실 참여로 경세제민(經世濟民)할 것을 고취시킨 점도 주목할 만한 유학 정신이라고 하겠다. 또 이 작품은 우리 문학사상에 있어서 교회(教誨) 또는 경계(警戒) 또는 교계(教戒)문학으로서 을지문덕(乙支文德)의 “여수장우중문(與隋將于仲文)”을 계승하였다고 하겠다.

라). 고려국 원주 현계산 거둔사 고왕사 혜월광천 편조 지각지만 원묵적연 보화대선사 증시원공국사 승묘탑비명병서

이 글은 원공국사 지종(智宗 : 930—1018)의 탑비문으로 현종 16년(1025)에 왕명을 받들어 지은 것이다. 이 글은 스님 한 사람의 탑비문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불교적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충은 유학 정신을 이 글의 명에서 반영하기를 잊지 않아 유학자로서의 체모를 지키고 있다.

마). 봉선홍경사기

이 글은 현종 18년(1027)에 왕명을 받들어 봉선홍경사를 창건하게 된 그 시말을 비롯하여 공효성까지를 밝힌 일종의 기문(記文)이다. 왕명을 받아 사원 창건을 예찬해야 하는 글임에도 문헌공은 스스로의 철학인 유학사상을 잘 반영하면서 불교의 국가 비보(裨補)의 책무를 강조하였다. 그는 절을 포교의 근거지로 보지 않고, “인의(仁義)를 베푸는 여관(旅館)”에 견주어 그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불교와 유학의 빙탄 불상용적(氷炭不相容的) 관계를 문헌공은 탁월한 문장력에 의하여 변증법적 통합을 이루고 있다.

바). 사 찬

이 글은 현종이 승하한 뒤 지어진 현종행장(顯宗行狀) 끝에 붙여진 사관의 자격으로 현종의 공덕과 치적을 기린 찬문(贊文)이다. 문장의 짜임으로나, 수사상으로나, 몇 백년 뒤에 지어진 조선시대 한문 대가들의 찬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고 오히려 그들의 작문에 본이 된 점에서 볼 때에 문헌공의 문학 활동은 대단하였을 것이 틀림 없으나, 전해 오는 유문이 적음이 한이라 하겠다.

사). 사고신예물 계사

이 글은 <고려사>의 문헌공 열전에

인용되어 있는 짧은 글이다. 문헌공이 치사할 때에 왕이 고신장(告身狀)과 예물을 내리려 한다는 말을 듣고, 왕께 글월을 올려 사양한 제사이다. <고려사>를 편찬한 이들이 인용한 부분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간결한 가운데에서도 문헌공의 왕께 향한 충성심과 자신의 솔직한 심상을 잘 표출하고 있음을 볼 때에 문헌공의 한문학은 한국 한문학의 초기작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난숙기의 작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V. 맺음말

이상에서 간단히 문헌공의 문학 작품들에 관하여 주마간산격으로 일별하였

다. 현전하고 있는 작품이 비록 몇 안 되기는 하지만, 어느것 하나 버릴 수 없는 귀중한 보배들이다.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이 무시해 온 옛 단가 작품이나 고려시대 초기의 한문 문학 작품들에 관하여서도 시각을 돌려 새로운 면에서 재고되어야 하겠다. 다시 말하면, 믿을 만한 문헌이 없다고 하여 우리의 옛 문화 유산을 부정해 버린다면, 이는 과거 왜제시(倭帝時)에 저들이 “내선동조론(內鮮同祖論)”을 부르짖으면서 내세운 <고사기(古事記)>와 <삼국사기(三國史記)>의 문헌적 자료에서의 선일본 후한국건국설과 무엇이 다르겠는가?²⁹⁾ 비록 자료는 적더라도 고려시대 문화와 문학연구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경주 되어야겠다.

29) 우리의 <三國史記>에는 新羅建國年代가 B.C. 57年으로 되어 있는데 비하여 日本의 <古事記>에는 日本建國이 B.C. 660年으로 되어 있어서 저들의 역사가 600여년이나 앞섰다고 주장하였고, 우리의 檀君史는 神話로만 取扱하였다.

萬理公의 「언문반대상소」의 실상



起 鎬

(祥明女大教授 文學博士)

〈차 례〉

- 1.0 머리말
- 2.0 최만리의 생애
- 3.0 언문 반대 상소
- 3.1 언문반대 상소의 내용과 의미
- 3.2 언문반대 상소의 처리
- 4.0 맺음말

1. 머리말

이 글을 쓰면서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은 이 글의 논술 대상이 나의 선조이신 ‘최만리(崔萬理)’이기 때문이다. 나의 선조이기 때문에 사적인 감정에 치우칠 가능성이 많고, 그리하여 기술된 내용이 객관성을 잃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객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고찰한다는 것이 비재(非才)하여 정확하게 공과를 파악치 못하여 선조에 누를 끼칠까하는 것도 두려움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잘못 평가를 받고 있는 역사적 사실에 대하여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 있었던 소위 ‘언문반대상소’를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이 글은 최만리의 간단한 생애와 언문반대상소의 내용과 배경 등을 기술함으로써 언문반대상소를 중심으로 하여 빚어진 오해를 설명하는데 역점을 두게 한다.

2. 최 만리의 생애

최만리(崔萬理)의 자는 자명(字明)이

고 호는 강호(江湖)이다. 출생 연대는 알 수가 없다.¹⁾ 세보(世譜)에나 이조 실록에도 아무런 기록이 없다. 다만 세종 원년(을해. 1419) 3월 29일, 초시에 응시하고, 세종 2년(경자. 1420)에 집현전이 개편되면서 박사(博士 정 7 품)가 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그에 앞서 태종 14년(갑오. 1414) 1월 20일에 “生員漢城試鄉試之法”이 실시되어 이에 응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사마시(司馬試)에서 생원이 되는 것을 20세 전후로 볼 때 조선 태조 2년(1394) 전후에 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시조 최온(崔溫)으로부터 14세가 되며 해동공자 문헌공(沖)으로부터는 13세손이 되는 것이다. 그 가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溫(始祖) — 沖(2世) — 惟善(3世) — 思齊(4世) — 淪(5世) — 允仁(6世) — 敏(7世) — 滋(8世) — 有滄(9世) — 持(10世) — 瑛(11世) — 安海(12世) — 何(13世) — 萬理(14世)

고려 3대 귀족 명문가였던 해주 최씨의 후손인 그는 문헌공 최충과 문화공 최유선, 유명한 시인 최사제, 보한집(補閑集)의 최자 등 훌륭한 선조를 자랑스럽게 여겼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자부심은 조선 역사에서 보기 드문 청백리(清白吏)로 세종조에 남게 되

었으며 세종대왕과는 평생을 같이 보내면서 정치적으로나 종교적, 외교적 등 다방면에 걸쳐서 자문에 응하게 되고 또한 상소와 계(啓)를 20여 차례나 올리게 된다. 이런 연구는 이미 이송녕(1964, 1976)님과 최승희(1966, 1967, 1973) 등에서 자세히 고찰되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하고 다만 다음 장에서 언문반대상소에 대한 의미와 배경에 관하여 상술하고자 한다.

세종 20년 7월 30일(壬子)에 부제학으로 제수되는데 이는 대제학이 없는 최고의 집현전 책임자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훈민정음 창제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집현전 최고 관리 책임자라는 점에서 유의해 볼 필요가 있다. 그는 강원도 관찰사(세종 21년)로 1년간 외지근무를 한 것 외에는 한결같이 집현전에서 약 24년간 봉직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그의 성품이 청렴결백하고 강직했던 것과도 일맥 상통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세종 27년(1445) 10월 13일에 작고하여 11월 5일에 고향 안성에 산소가 마련된다. 지금도 경기도 안성군 원곡면 지문리 백련봉 아래에는 소윤공(何)의 산소아래에 아담한 산소가 소나무 숲에 싸여서 옛날을 말해주고 있다.

1) 이송녕. 1964 ‘崔萬理 究究’ 「李相佰博士 回甲紀念論叢」.
1976 「革新國語學史」 박영사.

지금까지 최만리의 생애 중에서 특징적인 부분만 간략히 살펴 보았다. 이제 ‘언문반대상소’가 내포하는 역사적 배경은 무엇이며 그 내용은 무엇인지 상술하고자 한다.

3. 언문반대 상소

(1) 언문반대상소의 내용과 의미

세종 26년 2월 20일의 세종실록에는 6개항의 장문 상소가 나온다.

“집현전 부제학 최만리 등이 상소하기를 「신등이 엇디어 보건대 언문을 제작하신 것이 지극히 신묘하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혜를 운전하심이 천고에 뛰어났아오나 신등의 구구한 좁은 소견으로는 오히려 의심되는 것이 있어와 감히 간곡한 정성을 펴서 삼가 뒤에 열거하오니 엇디어 성재(聖裁)하옵시길 바랍니다.」”²⁾

이 글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우선 언문은 신묘하게 제작되었다고 말하면서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어서 6개항의 상소를 올리오니 임금님의 성재가 있기를 바란다는 내용이다. 여기에서 상소를 올

린 사람으로 소두에는 최만리(집현전 부제학)이며, 직제학 신석조(辛碩祖), 직전 김문(金汶), 응교 정창손(鄭昌孫) 부교리 하위지(河緯之), 수찬 송처검(宋處儉), 저작랑 조근(趙瑾) 등 7명이 상소문을 올린 것이다.

이제 반대상소문의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1. 우리 조선은 조종 때부터 내려오면서 지성스럽게 대국을 섬기어 한결같이 중화의 제도를 준행하였는데, 이제 글을 같이 하고 법도를 같이하는 때를 당하여 언문을 창작하신 것을 보고 듣기에 놀라움이 있습니다. 설혹 말하기를 ‘언문은 모두 옛 글자를 본뜬 것이고 새로 된 글자가 아니라’ 하지만 글자의 형상은 비록 옛 글자의 전문(篆文)을 모방하였을지라도 음을 쓰고 글자를 합하는 것은 모두 옛 것에 반대되거나 실로 의거할 데가 없사옵습니다. 만일 중국에라도 흘러 들어가서 혹시라도 비난하여 말하는 자가 있어오면 어찌 대국을 섬기고 중화를 사모하는 데에 부끄러움이 없사오리까?³⁾

2) 세종실록 권 103. 19쪽. 세종 26년 2월 20일(庚子條)集賢殿副提學崔萬理等 上疏曰 臣等 伏觀諺文制作 至爲神妙 創物運智 夏出古然以臣等 區區管見 尙有可疑者 敢布危懇謹疏于後伏惟聖裁

3) 세종실록 권 103. 20쪽 밖. 세종 26년 12월 20일(경자)

我朝自 祖宗以來 至誠事大 一遵華制 今當同文同軌之時 創作諺文 有駭觀聽 儻曰諺文 皆本古字 非新字也 則字形雖倣古之篆文 用育台字 盡反於古 實無所據 若流中國 或有非議之者 豈不有愧於事大慕華

첫째 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조선은 옛부터(祖宗) 지성사대(至誠事大)를 해왔으며 글과 법도를 같이 해왔다.

2) 언문은 글자의 형상을 본땀지만 음과 결합이 전혀 다르다.

3) 만일 이런 사실이 중국에 흘러들어가서 비난하는 자가 생기면 어려움이 생긴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세종실록 25년 12월조에 「是月上親制諺文 二十八字 其字倣古篆」이라고 한 「其字古篆」은 고전자를 의방해서 훈민정음을 창제했다는 소위 ‘古篆字起源說’을 낳게 했는데 사실은 훈민정음 창제를 달갑게 생각지 않던 이들에 대한 방편으로 중국 고전자를 의방했다고 말한 인상이 짙다. ‘언문은 옛 글자를 본뜬 것이고 새로 된 글자가 아니라’고 말한 부분에서 그러한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또 세종이 언문 반대상소한 이들을 불러 놓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上曰 前此 金汝啓曰 制作諺文未爲不可 今反以爲不可」 이 말로 미루어 보아 이미 전번(前此)에 훈민정음 창제에 관한 논란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며 여기서 김문

은 찬성하는 쪽에 있었고 이번에는 반대상소를 올리게 된 것이다. 이렇게 집현전 안에서 조차 찬반논란이 일게 되자 「字倣古篆」이라는 말로 중국 고전자에서 의방했다고 표현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이 항에서 의미하는 것은 중국과의 외교에 관한 우려라고 생각된다. 이미 학자들이 밝힌 바 있지만 조선 초기에 명나라에서 조선에 대한 태도는 오만불손했고 사신 하나 영접하는 것도 여간 골치아픈 일이 아니었다. 명나라에 대한 외교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였으므로 최만리를 비롯한 집현전 관들은 이 사실을 우려하여 상소를 올린 것이라고 보여진다. ‘만일 중국에라도 흘러 들어가서 훈민정음 창제를 비난하는 자가 생기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외교적인 차원에서 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이 물론 사대주의에 몰두하기는 했지만 그 시대상황으로는 전혀 상식밖의 일이 아니며 오히려 현실을 인정하는 외교노선으로 간주된다. 세종대왕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至誠事大」나 「經學爲本」이니 하고 말했기 때문이다.⁴⁾

다음으로 둘째 항목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4) 세종 10년 11월 정묘(丁卯)조 「…上至誠事大…」
 세종 18년 7월 임술(壬戌)조 「凡學之道 經學爲本」

2. 옛부터 구주(九州)의 안에 풍토는 비록 다르으나 지방의 말에 따라 따로 문자를 만든 것이 없사옵고 오직 몽고 서하(西夏), 여진(女眞), 일본(日本)과 서번(西蕃)의 종류가 각기 그 글자가 있으되 이는 모두 이적의 일이므로 족히 말할 것이 없사옵습니다. 옛글에 말하기를 ‘화하(華夏)를 써서 이적을 변화시킨다’ 하였고 화하가 이적으로 변한다는 것은 듣지 못하였읍니다. 역대로 중국에서 모두 우리나라는 기사(箕子)의 남긴 풍속이 있다 하고 문물과 예악을 중화에 견주어 말하기도 하는데 이제 따로 언문을 만드는 것은 중국을 버리고 스스로 이적과 같아지려는 것으로서 이른바 소합향(蘇合香)을 버리고 당랑환(塘螂丸)을 취함이니 어찌 문명의 큰 흠결이 아니오리까? 5)

여기서 우리는 중국을 제외한 여러 변방국가들이 이미 문자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흐름에서 세종대왕으로서는 새로운 고유문자의 필요성을 더욱 실감하고 문자창조에 박차를 가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 항목을 요약하면 중국과 우리나라는 한문을 쓰

고 이적만이 다른 문자를 쓰고 있다. 그러므로 언문을 만드는 것은 중국문화를 벗어나서 이적으로 되는 것이므로 불가하다는 것이다. 논리에 맞지 않는 단견으로 보여진다.

3. 신라 설총의 이두는 비록 야비한 이언(俚言)이오나 모두 중국에서 통행하는 글자를 빌어서 어조(語助)에 사용하였기에 문자가 원래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므로 비록 서리(胥吏)나 복예(僕隸)의 무리에 이르기까지라도 반드시 익히려 하면 먼저 몇가지 글을 읽어서 대강 문자를 알게 된 연후라야 이두를 쓰게 되었는데 이두를 쓰는 자는 모름지기 문자에 의거하여야 능히 의사를 통하게 되는 때문에 이두로 인하여 문자를 알게 되는 자가 자못 많사오니 또한 학문을 흥기시키려는 데에 한 도움이 되었읍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원래부터 문자를 알지못하여 결승하는 세대라면 우선 언문을 빌어서 한 때의 사용에 이바지하는 것은 오히려 가할 것입니다. 그래도 바른 의논을 고집하는 자는 반드시 말하기를 ‘언문을 시행하여 임시 방편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더

5) 세종실록 권 103. 20쪽 안. 세종 26년 2월 20일.

自古九州之內 風土雖異 未有因方言而別爲文字者 唯蒙古西夏女眞日本西蕃之類 各有其字 是皆夷狄事耳 無足道者 傳曰 用夏變夷 未聞變於夷者也 歷代中國 皆之我國 有箕子遺風 文物禮樂比擬中華 今別作諺文 捨中國而自同於夷狄 是所謂棄蘇合之香 而取塘螂之丸也 豈非文明之大累哉

다고 느낄지라도 중국에서 통용하는 문자를 습득하여 길고 오랜 제책을 삼는 것만 같지 못하다'고 할 것입니다. 하물며 이두는 시행한 지 수천 년이나 되어 부서(簿書)나 기회(期會)등의 일에 방해(防碍)됨이 없사운데, 어찌 예로부터 시행하던 폐단 없는 글을 고쳐서 따로 야비하고 상스러운 무익한 글자를 창조하시나이까? 만약에 언문을 시행하오면 관리된 자가 오로지 언문만을 습득하고 학문하는 문자를 돌보지 않아서 이원(吏員)이 둘로 나누어질 것이옵니다. 진실로 관리된 자가 언문을 배워 통달한다면 후진이 모두 이러한 것을 보고 생각하기를 27자의 언문으로도⁶⁾ 족히 세상에 입신할 수 있다고 할 것이오니 무엇때문에 고심노사(苦心勞思)하여 성리(性理)의 학문을 궁리하려 하겠습니까? 이렇게 되오면 수십년 후에는 문자를 아는 자가 반드시 적어져서 비록 언문으로써 능히 이사(吏事)를 집행한다 할지라도, 성현의 문자를 아지 못하고 배우지 않아서 답을 대하는 것처럼 사리의 옳고 그름에 어두울 것이오

니 언문에만 능숙한들 장차 무엇에 쓸 것이옵니까? 우리 나라에서 오래 쌓아 내려온 우문(右文)의 교화가 점차로 땅을 쓸어버린 듯이 없어질까 두렵습니다. 전에는 이두가 비록 문자밖의 것이 아닐지라도 유식한 사람은 오히려 야비하게 여기어 이문(吏文)으로써 바꾸려고 생각하였는데 하물며 언문은 문자와 조금도 관련됨이 없고 오로지 시골의 상말을 쓴 것이겠옵니까. 가령 언문이 전조(前朝)때부터 있었다하여도 오늘의 문명한 정치에 변로지도(變魯至道)하려는 뜻으로서 오히려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겠옵니까. 반드시 고쳐 새롭게 하고자 의논하는 자가 있을 것으로서 이는 환하게 알 수 있는 이치이옵니다. 옛것을 싫어하고 새것을 좋아하는 것은 고금에 통한 우환이운데 이번의 언문은 새롭고 기이한 한 가지 기예에 지나지 못한 것으로서 학문에 방해됨이 있고 정치에 유익함이 없으므로 아무리 되풀이하여 생각하여도 그 옳은 것을 볼 수 없사옵니다.⁷⁾

6) 이동립. 1974. 訓民正音 創制經緯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64호. 反切 27字와 관련하여 훈민정음 창제당시는 27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뒤에 韻學理論上 ㄱ음을 첨가해서 28자로 수정

7) 세종실록 권 103. 20쪽 안.

新羅薛聰吏讀 雖爲鄙俚 然皆借中國通行之字 施於語助 與文字元不相離 故雖至胥吏僕隸之徒 必欲習之 先讀數書 粗知文字 然後乃用吏讀者 須憑文字 乃能達意 故因吏讀而知文字者頗多 亦興學之一助也 若我國元不知文字 如結繩之世 則姑借諺文 代資一時之用猶可 而執正議者 必曰與其行諺以姑息 不若寧遲緩而習中國通行之文字 以爲久長之計也 況

이상 세째 항목은 대단히 길지만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1) 설총의 이두는 홍학에 도움이 된다
- 2) 언문만 사용한다면 이사(吏事)를 능히 할지라도 성현의 학문을 하지 않아서 학문이 후퇴한다.
- 3) 이원(吏員)이 둘로 갈라진다.
- 4) 언문은 하나의 기예이므로 학문과 정치에 방해가 된다.

즉 쉬운 언문만을 공부하여 출세할 수 있다면 성리학같은 학문이 퇴보된다고 생각하고, 학풍진작이나 인재양성을 위하여 집현전을 설치한 것처럼 홍학에 도움이 되지 않는 언문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여기에서의 의미는 언어정책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네째 항목을 살펴보자.

4. 만일에 말하기를, ‘형살(刑殺)에 대한 옥사(獄辭)같은 것을 이두 문자로

쓴다면 문리(文理)를 아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이 한 글자의 착오로 혹 원통함을 당할 수도 있겠으나, 이제 언문으로 그 말을 직접 써서 읽어 듣게 하면 비록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일지라도 모두 다 쉽게 알아들어서 억울함을 품을 자가 없을 것이라’ 하오나 예로부터 중국은 말과 글이 같아도 옥송(獄訟) 사이에 원왕(冤枉)한 것이 심히 많습시다. 가령 우리나라로 말하더라도 옥에 갇혀 있는 죄수로서 이두를 해득하는 자가 친히 초사(招辭)를 읽고서 허위인 줄 알면서도 매를 견디지 못하여 그릇 항복하는자가 많사오니 이는 초사의 글 뜻을 알지 못하여 원통함을 당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합니다. 만일 그러하면 비록 언문을 쓴다 할지라도 무엇이 이보다 다르오리까? 이것은 형옥의 공평하고 공평하지 못함이 옥리(獄吏)의 어떠하냐에 있고 말과 글자의 같고 같지 않음에 있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으니, 언문으로써 옥사를 공평하게 한다는 것은 신등은 그 옳은 줄을 알 수 없

吏讀 行之數千年 簿書期會等事 無有防礙者 何用改舊行物弊之交別創鄙諺無益之字乎 若行諺文 則爲吏者 卑習諺文 不願學問文字 吏員岐而爲二 苟爲吏者 以諺文而宦達 則後進皆見其如此也 以爲二十七字諺文 足以立身於世 何須苦心勞思 窮性理之學哉 如此則數十年之後 知文字者必少 雖能以諺文而施於吏事 不知聖賢之文字 則不學牆面 昧於事理之是非 徒工於諺文 將何用裁 我國家績累右文之化 恐漸至掃地矣 前此吏讀 雖不外於文字 有識者尙且鄙之 思欲以吏文易之 兩況諺文與文字 皆不干沙 專用委巷俚語者乎 借使諺文自前朝有之以今日文明之治 變魯至道之意尙肯因循而襲之乎 必有更張之議者 此灼然可知之理也 厭舊實新 古今通患 今此諺文 不過新奇一藝耳 於學有損 於給無益 反覆纂之 未見其可也

사옵니다.⁸⁾

이 항목의 내용을 요약하면

1) 언문으로 형옥을 다스리면 억울한 일이 없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2) 언문일치가 되는 중국도 억울한 송사가 많다.

3) 형옥이 잘 다스려지는 것은 형리에 달린 것이지 언어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논리상으로 형옥의 공평하고 공평치 못함은 형리에 달린 문제지 언어에 달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세종이 말하고 있는 문제는 말과 글이 일치되지 않는 상태에서 의사소통이 정확하게 이뤄지지 않아서 억울한 옥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 문제를 바라본 입장과 관점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된다.

5. 무릇 사공(事功)을 세움에는 가깝고 빠른 것을 위하게 여기지 않사온데 국가가 근래에 조치하는 것이 모두 빨리 이루는 것을 힘쓰니, 두렵컨대, 정

치하는 체제가 아닌가 하옵니다. 만일에 언문은 할 수 없어서 만드는 것이라 한다면 이것은 풍속을 변하여 바꾸는 큰 일이므로, 마땅히 재상으로부터 아래로는 백료(百僚)에 이르기까지 함께 의논하되 나라 사람이 모두 옳다하여도 오히려 선갑후경(先甲後庚)하여 다시 세 번을 더 생각하고 제왕에 질정하여 어그러지지 않고 중국에 상고하여 부끄러움이 없으며, 백세라도 성인을 기다려 의혹됨이 없는 후라야 이에 시행할 수 있는 것이옵니다. 이제 넓게 여러 사람의 의논을 채택하지도 않고 갑자기 이배(吏輩) 10여 인으로 하여금 가르쳐 익히게 하며, 또 가볍게 옛 사람이 이미 이룩한 문서를 고치고 근거없는 언문을 부회(附會)하여 공장(工匠) 수십 인을 모아 각본(刻本)하여서 급하게 널리 반포하려 하시니 천하 후세의 공의(公議)에 어떠하겠습니까? 또한 이번 청주 초수리(椒水里)에 거동하시는 데도 특히 연사가 흉년인 것을 염려하시어 호송하는 모든 일을 힘써 간략하게 하셨으므로 전 일에 비교하오면 10에 8, 9는 줄어들었고, 제달하는 공무(公務)

8) 세종실록 권 103. 20쪽 밖.

若曰如刑殺獄辭 以吏讀文字書之 則不知文理之愚民 一字之差 容或致冤 今以諺文 直書其言 讀使聽之 則雖至愚之人 悉皆易曉 而無抱屈者然 自古中國 言與文同獄訟之間 冤枉甚多 借以我國言之 獄囚之解吏讀者 親讀招辭 知其誣而不勝捶楚 多有枉服者 是非不知招辭之文意而被冤也明矣 若然則雖諺文 何異於此 是知刑獄之平不平 在於獄吏之如何 而不在於言與文之同不問也 欲以諺文而平獄辭 臣等未見其可也

에 이르러도 또한 의정부에 맡기시어, 언문같은 것은 국가의 급하고 부득이하게 기한에 마쳐야할 일도 아니온데 어찌 이것만은 행재(行在)에서 급급하게 하시어 성궁(聖躬)을 조섭하시는 때에 번거롭게 하시나이까? 신등은 더욱 옳음을 알지 못하겠나이다.⁹⁾

위의 다섯째 항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국가가 근래에 조치하는 일이 모두 졸속히 처리하는데 위험한 처사다.
- 2) 언문을 꼭 필요해서 만든다면 상하로 여론을 들어서 시행해야 한다.
- 3) 이배(吏輩) 10여 인에게 가르치고 운서를 고치고, 언해 각본하여 반포하려 하니 공의(公議)에 어긋난다.
- 4) 성궁(聖躬)을 조섭하는 때에 급하지도 않은 언문을 행재(行在)에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것으로 보아 세종은 꽤 혁명적으로 일을 처리해가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여론을 아래 위로 듣고 여러번 상고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한 점으로 보아 반대상소를 낸 집현전관들은

보수적인 생각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즉 세종의 개혁적 사고와 최만리의 보수적 사고의 마찰이라고 보여진다.

이배(吏輩) 10여인은 세종 26년 2월 16일 의사청(議事廳)에 운회언해를 위하여 다음 사람들을 모으는데 이들을 이르는 것이다.

교리 최항(崔恒), 부교리 박팽년(朴彭年), 부수찬 신숙주(申叔舟), 이선로(李善老), 이개(李塏), 돈녕부주부姜희안(姜希顔), 동궁(東宮), 진양대군(晉陽大君; 수양대군), 안평대군(安平大君)등 이상 9명이 세종의 명으로 의사청에 모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언문 반대상소를 내게 되는 직접적인 근인(近因)이라고 생각한다. 국사를 논의하는 의사청에 동궁과 두 대군을 비롯하여 젊은 학자들이 모여서 운회언해를 한다는데서 문제가 발생하여 나흘만에 반대상소를 올리게 된 것이다.

국사에는 완급이 있는 법인데, 급하지도 않은 언문연구를 초정약수에까지 가지고 감은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항에서는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하나는 정치적인 의미가 있

9) 세종실록 권 103. 21쪽 안.

諺文不得已而爲之 此變易風俗之大者 當謀及宰相 下至百僚 國人皆曰可 猶先甲後庚 更加三思 質諸帝王而不悖 考諸中國而無愧 百世以俟聖人而不惑 然後乃可行也 今不博採 群議 驟令吏輩十餘人訓習 又輕改古人已成之韻書 附會無稽之諺文 聚工匠數十人刻之 劇欲廣布其於天下 後世公讓何如 且今清州椒水之幸 特慮年歉 扈從諸事 務從簡約 比之前日 十減八九 至於啓達公務 亦委政府 若夫諺文 非國家緩急不得已及期之事 何獨於行在 而汲汲爲之 以煩聖躬 調燮之時乎 臣等 尤未見共可也

다고 본다. 세종 24년 7월 28일에 서정(庶政)을 세자에게 섭정시키려고 한다. 이에 여러 신하가 맹렬히 반대하고 나서며 최만리는 세종 24년 8월 26일에 이정분권(二政分權) 반대상소를 올린다. ‘하늘에는 두 해가 없고 백성에게는 두 임금이 없다’(天無二日 民無二王)는 논리로써 반대한 것이다.

즉 세종과 세자가 동시에 정사(政事)를 보면 신하들이 두 갈래로 갈라지고 따라서 국론이 양파로 갈라진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세자를 중심한 집현전관들은 교리(정 5품) 이하의 젊은 학자들이고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집현전관들은 학문이나 관직이 훨씬 높은 녹관(綠官)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정치적으로 소외감을 당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집현전관들은 한번 녹관으로 임명되면 딴 곳으로 전임(轉任)되는 일이 없이 이곳에만 있는 것이 보통이고 또 진급도 늦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불만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하나는 윤희언해가 어학적으로 부당하다는 것이다. 세종 당시 조선의 한 자들은 매우 혼란했었는데 그 이유는 북경음과 남경음의 차이나 여러 시대에 걸쳐서 들어온 음의 차이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것을 인위적으로 가공적인 정리를 시도한 것이 세종대왕이었고 이의

부당성을 주장한 것이 최만리였다고 본다. 세종은 동국정운(東國正韻) 같은 운서를 만들지만 결국 몇년 못 가서 폐기되고 실용화에서 실패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 항목의 반대상소는 타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마지막 항목을 살펴보자

선유(先儒)가 이르기를 ‘여러 가지 완호(玩好)는 대개 지기(志氣)를 빼앗는다’ 하였고 ‘서찰(書札)에 이르러서는 선비의 하는 일에 가장 가까운 것이나 외곶으로 그것만 좋아하면 또한 자연히 지기가 상실된다’ 하였습니다. 이제 동궁이 비록 덕성이 성취되었다 할지라도 아직은 성학(聖學)에 잠심(潛心)하시어 더욱 그 이루지 못한 것을 궁구해야 할 것입니다. 언문이 비록 유익하다 이를지라도 특히 문사(文士)의 육예(六藝)의 한 가지일 뿐이옵니다. 하물며 만에 하나도 정치하는 도리에 유익됨이 없사온데 정신을 연마하고 사려를 허비하며 날을 마치고 때를 옮기시오니, 실로 시민(時敏)의 학업에 손실되옵니다. 신등이 모두 문묵(文墨)의 보잘것 없는 재주로 시종(侍從)에 대죄(大罪)하고 있으므로 마음에 품은 바가 있으면 감히 함묵(含默)할 수 없어서 삼가 폐부를 다하와 우러러 성충을 번득하나이다.¹⁰⁾

이 여섯째 항목의 내용은 동궁(東宮)이 성학(聖學)에 전심노력해야 할 때에 정치도리에 유익이 없는 언문으로 시간을 허비하면 큰 손실이라는 것이다.

사실 맞는 말이다. 도덕이나 정치사상이 들어있는 사서삼경같은 것을 읽어야지 지기(志氣)가 서는 법인데 그 당시로 보아서 하나의 기예(技藝)에 지나지 않는 언문만 가지고 열심이었으므로 정직한 충언을 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역시 동궁을 중심으로 젊은 소장학자들이 의사당에 모여서 언해운회를 하는 등 정치적인 세력이 형성되어 가는 것에 대한 반작용의 의미가 들어있다고 보여진다.

(2) 언문반대상소의 처리

문자가 없던 조선조에 훈민정음과 같은 새로운 문자를 창제한다는 것은 대단히 큰 문화혁명이며, 세종대왕으로서 는 중대한 문화정책의 하나로 신중히 수행해 온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하여 천신만고 끝에 이제 새로운 훈민정음을 창제했고, 그 실용을 위하여 언해(諺解)나 용비어천가와 같은 시

가를 지을 수 있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던 것이다.

안질을 치료하기 위하여 초정약수로 행차할 때에 마침 심한 가뭄으로 민폐를 우려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수행원도 대폭 줄이었다. 간단한 일은 동궁에게 맡기기까지 했다. 그러면서도 훈민정음 창제에 관한 일만은 계속 수행하여 훈민정음을 창제한 것이다.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 만든 결과에 대하여 그것도 세종이 가장 아끼던 집현전관의 대부분에게 불신과 반대를 받는다는 것은 참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된다.

운회언해를 계획한지 나흘만에 최만리 등의 반대에 부딪친 세종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하며 반대상소문을 처리하게 된다.

「임금이 상소를 보고 만리 등에게 이르기를 “너희들이 이르기를 음을 사용하고 글자를 합한 것이 모두 옛글에 위반된다 하였는데 설총의 이두도 역시 음이 다르지 않느냐 또 이두를 제작한 본뜻이 백성을 편리하게 하려 함이 아니겠느냐, 만일 그것이 백성을 편리하게 한 것이라면 이제의 언문은 백성을 편리하게 하려 한 것이다. 너희들이 설총

10) 세종실록 권 103. 21쪽 안.

先儒云 九百玩好 皆奪志至於書札於儒者事最近 然一向好著 亦自喪志 今東宮 雖德性成就猶當潛心聖學 益求其未至也 諺文縱曰有益 特文士六藝之一耳 況萬萬無一利於治道而乃研精費思 竟日移時 實有損於時敏之學也 臣等 俱以文墨末技 待罪侍從 心有所懷 不敢含默 謹整肺腑仰瀆聖聰

은 옳다 하면서 군상(君上)의 하는 일은 그르다 하는 것은 무엇이나 또 네가 운서(韻書)를 아느냐 사성칠음(四聲七音)에 자모가 몇이나 있느냐, 만일 내가 운서를 바로잡지 아니하면 누가 이를 바로잡을 것이냐, 또 상소에 이르기 를 ‘새롭고 기이한 하나의 기예(技藝)라’ 하였으니 내 늙으막에 날을 보내기 어려워서 서적으로 벗을 삼을 뿐인데 어찌 옛 것을 싫어하고 새 것을 좋아하여 하는 것이겠느냐, 또 전렵(田獵)으로 매사냥을 하는 예도 아닌데 너희들의 말은 너무 지나침이 있다. 그리고 내가 나이가 늙어서 국가의 서무(庶務)를 세자에게 오로지 맡겼으니 비록 세미한 일일지라도 참여하여 결정함 이 마땅하거든 하물며 언문이겠느냐, 만약 세자로 하여금 항상 동궁에만 있게 한다면 환관(宦官)에게 일을 맡길 것이야, 너희들이 시종(侍從)하는 신하로서 내 뜻을 밝게 알면서도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¹¹⁾

이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훈민정음은 설총의 이두처럼 음을

사용하고 글자를 합하는 것이 옛글과 다르면서 또한 백성을 편하게 하고자 만든 것이다.

2) 운서(韻書)를 바로 잡는 일은 나(세종) 밖에 없지 않느냐?

3) 훈민정음을 ‘새롭고 기이한 하나의 기예(技藝)라고 한’ 것은 말이 너무 지나치다.

4) 세자에게 세미한 서무(庶務)를 맡기는 일은 있음직한 일인데 하물며 언문에 참여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5) 시종(侍從)하는 신하로서 임금의 뜻을 밝히 알면서도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세종의 이러한 물음에 대하여 최만리 등이 대답하기를

“설총의 이두는 비록 음이 다르다 하나 음에 따르고, 해석에 따라 어조(語助)와 문자가 원래 서로 떨어지지 않사 온데 이제 언문은 여러 글자를 합하여 함께 써서 그 음과 해석을 변한 것이고 글자의 형상이 아닙니다. 또 새롭고 기이한 한 가지의 기예라 하온 것은 특히 문세(文勢)에 인하여 이 말을 한 것이

11) 세종실록 권 103. 21쪽 안. 밖.

上覽疏 謂萬理等曰 汝等云 用音合字 盡反於古 薛聰吏讀 亦非異音乎 且吏讀制作之本意 無乃爲其便民乎 如其便民也 則今之諺文 亦不爲便民乎 汝等 以薛聰爲是 而非其君上之事 何哉且汝知韻書乎 四聲七音 字母有幾乎 若非予正其韻書 則伊誰正之乎 且疏云 新奇一藝 予老來難以消日 以書籍爲友耳 豈厭舊好新而爲之 且非田獵放鷹之例也 汝等之言 頗有過越且予年老 國家庶務 世子專掌 雖細事 固當參決 況諺文乎 若使世子 常在東宮 則宦官任事乎 汝等以侍從之臣 灼知予意 而有是言可乎

음고 의미가 있어서 그러한 것은 아니
 습니다. 동궁은 공사(公事)라면 비록 세
 미한 일일지라도 참결(參決)하지 않
 을 수 없사오나 급하지 않은 일을 무엇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며 심려하시옵니
 까?” 하였다.¹²⁾

이에 대하여 세종은 다른 문답을 주고
 받지 않는다. 이것은 아마 어느 정도
 설명과 납득이 되어진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훈민정음은 옛글을 본받았지만 음과
 글자를 합하는 일이 전혀 다르며 백성
 을 위하여 만들었고 운서를 바로잡는
 것이 시급한 일이기때 세자·동궁을 참
 예시킨 것이며, 세자에게 서무를 맡기
 는 일이 필요한 일이고 훈민정음을 하
 나의 기예라고 한 것은 문세(文勢)가 그
 러하다는 것이지 세종이 기예를 즐긴다
 는 오해는 아니라는 해명이었다.

그러나 언문반대상소에 대하여 중요
 한 문제가 나타난다. 그것은 지금까지
 의 문답은 공동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이제 개인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다. 즉
 김문(金汶)과 정창손(鄭昌孫)에게 질문

한다. “전번에 김문이 아뢰기를 ‘언문
 을 제작함에 불가할 것은 없습니다’ 하
 였는데 지금은 도리어 불가하다.”¹³⁾ 하
 는 대목이다.

이것은 김문이 전번에는 훈민정음을
 창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하였고 지
 금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훈민정음을 창
 제할 수 없다고 한 것에 대하여 그 이
 유를 추궁하는 문답이다. 이에 대한 답
 변의 기록이 없기 때문에 추정하는 길
 밖에 없음이 안타까운 일이다.

김문은 처음에는 찬성하는 쪽에서 일
 하다가 어쩌면 그것을 반대하는 쪽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요인이 있었다고 생각
 된다. 그 요인이 무엇인가가 문제이다.

필자는 이것을 정치적인 진급에 대한
 불만이 아닌가 추정해본다. 김문은 진급
 에 대하여 불만인 것이 실록에 나와있다.

세종 24년 10월 23일 이계전(李季甸)
 이 상서하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높은 관질(官秩)에 뛰어 승진되는
 것은 고금의 사람이 영광스럽게 여기오
 나 분수에 지나친 자리를 외람히 있는
 것은 선비들이 부끄럽게 여기는 바입니

12) 세종실록 권 103. 21쪽 밖.

萬理等對曰 薛聰吏讀 雖曰異音 然依齊依釋 語助文字元不相離 今此諺文 合諸字而並
 書變其音釋 而非字形也 且新奇一藝云者 特因文勢而爲此辭耳 非有意而然也 東宮於公事
 則雖細事 不可不參決 若於不急之事 何竟日致慮乎

13) 세종실록 권 103. 21쪽 밖.

上曰前此金汶啓曰 制作諺文 末爲不可今反以爲不可

다. 집현전은 작위의 차례로서 순서에 따라 승진하는 것이 예전부터 내려온 관례입니다. 이보다 먼저 신이 조산대부(朝散大夫)인 서운관부정(書雲館副正)이 되었는데 응교(應敎) 김문은 관계(官階)가 봉렬대부(奉列大夫)가 되어 직위가 신의 위에 있었으며 더구나 신은 나이가 39세인데 김문은 신보다 5세가 위이며 김문은 과거에 오른 것은 신보다 7년이 앞섰으며 경학(經學)을 밝고 행실을 닦는 것도 신과는 비교가 아닙니다. 하물며 행직·수직(行守)의 법을 새로 만들어 하나가 정(正)이면 하나는 종(從)으로 하여 2등급을 엄하게 하였는데 김문은 봉렬대부로서 행집현전(行集賢殿) 응교(應敎)가 되고 신은 조산대부(朝散大夫)로서 수직전(守直殿)이 되어 신의 지위가 도리어 그 위에 있게 되니 부끄럽게 여기는 바입니다. 관직을 받고 거짓으로 사양하는 것은 비록 왕술의 그르게 여긴 바입니다마는 그러나 신의 이 말은 폐부에서 나왔으니 어찌 물의를 헤아리겠습니까. 바라옵건데 전하께서 신의 정성을 굽어 살피시어 신의 관직을 김문에게 이수(移授)하시면 관직이 상칭되고 선후의 차례가 있게 되어 소신의 부끄러움도 또한 풀어질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임금이 명하여 모두 훗날 전주(銓注)할 때에 다시 아뢰케 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김문의 진급이 늦은 것은 잘 나타나 있으며 이것이 김문으로 하여금 훈민정음 창제에 대하여 반대쪽으로 가게 한 요인이 아닌가 생각한다.

유림의 선비는 선배, 후배의 관계를 중시하여 겸손하고 사양하는 것으로써 예절을 삼았다. 그래서 행집현전(行集賢殿) 직제학 유의손(柳義孫)도 이선제(李先齊)보다 승진이 먼저 된 것을 상서한 적이 있다.¹⁴⁾

반드시 승진이 늦은 것만으로 훈민정음 창제를 찬성했다가 이제는 반대하는 쪽으로 갔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생각할 만하다는 것이다.

정창손에게 한 질문도 마찬가지로 차원이다.

“먼저번에 임금이 정창손에게 하교하기를 ‘내가 만일 언문으로 삼강행실(三綱行實)을 번역하여 민간에 반포하면 어리석은 남녀가 모두 쉽게 깨달아서 충신 호자 열녀가 반드시 무리로 나올 것이다’ 하였는데 정창손이 이 말로 계달했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정창손은 딴소리를 하는 것이다. ‘임금이 말하기를

14) 세종 24年 10月 23日.

삼강행실을 반포한 후에 충신, 효자, 열녀의 무리가 나음을 볼 수 없는 것은 사람이 행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람의 자질 여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 꼭 언문으로 번역한 후에야 사람이 모두 본받을 것입니까?’ 하였으니 이 따위 말이 어찌 선비의 이치를 아는 말이겠느냐. 아무짝에도 쓸데 없는 용속한 선비이다” 하였다.¹⁵⁾

그러면서 세종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내가 너희들을 부른 것은 처음부터 죄주려 한 것이 아니고 다만 소(疏) 안에 한두 가지 말을 물으려 하였던 것인데 너희들이 사리를 돌아보지 않고 말을 변하여 대답하니 너희들의 죄는 벗기 어렵다.” 하고 드디어 부제학 최만리, 직제학 신석조, 직전 김문, 응교 정창손, 부교리 하위지, 부수찬 송처검, 저

작랑 조근을 의금부에 내렸다가 이튿날 석방하라 명하였는데 오직 정창손만은 파직시키고, 인하여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김문이 앞뒤의 말을 변하여 계달한 사유를 국문하여 아뢰라” 한다.¹⁶⁾

이리하여 세종은 집현전관들을 의금부에 가두었다가 다음날인 세종 26년 2월 21일 모두 석방하여 복직시키고 정창손만은 파직시켰다. “김문은 율(律)이 대제 상서사불이실(對制上書詐不以實)에 해당하오니 장(杖) 1백대에 도(徒) 3년을 처하소서”하는 의금부의 조사에 따라 다만 장 1백대를 속(贖)받게 하고 모든 결말을 맺은 셈이 된다.¹⁷⁾

결국은 언문반대상소에 대한 처벌은 정창손의 파직과 김문의 장 1백대를 속받치게 했고 모두 원대복귀시켜서 집현전을 정상화시키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언문반대상소의 소두(疏頭)였던 최만리는 도의적 책임을 지고 스스

15) 세종실록 권 103. 21쪽 안.

又鄭昌孫曰 頒布三綱行實之後 未見有忠臣孝子烈女輩出 人之行不行 只在人文資賣如何耳 何必以諺文譯之而後 人皆效之 此等之言 豈儒者識理之言乎 甚無用之俗儒也 前此上教昌孫曰 予若以諺文 譯三綱行實 頒諸民間 則愚夫愚婦 皆得易曉 忠臣孝子烈女 必輩出矣 昌孫乃以此啓達 故今有是教

16) 세종실록 권 103. 21쪽. ~22밖.

上又教曰 予召汝等 初非罪之也 但問跡內一二語耳 汝等不願事理 變辭以對 汝等之罪難以脫矣 遂下副提學崔萬理 直提學辛碩祖 直殿金汝 應教鄭昌孫 副教理河緯之 副修撰宋處儉 著作郎趙瑾于義禁府 翌日命釋之 唯罷昌孫職 仍傳旨義禁府 金汝前後變辭啓達事由 其鞠以聞

17) 세종실록 권 103. 22쪽 밖.

辛丑 義禁府勅啓 金汝律該對制上書 詐不以實 杖一百徒三年 只贖杖一百

로 사직하고 낙향하여 이듬해인 세종 27년 10월 23일에 작고하게 된다. 산소는 그의 아버지(少尹) 최하(崔何)의 산소 아래에 마련된다.¹⁸⁾

최만리가 사직을 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세종의 측근에서 여러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집현전관들이 최고 책임자였던 최만리의 사직으로 인하여 그 기능이 분산되고 정지됨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당시에 집현전관들이 운회언해에 참여한 최항, 박팽년, 신숙주, 이선로, 이개 등 5명이 있었으며 언문반대상소를 낸 사람들은 최만리, 신석조, 김문, 정창손, 하위지, 송처검, 조근 등 7명이 있었으며 중도파로 성삼문 등 약 8명으로 추정되는데 이것을 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운회언해에 참여한 교리 최항을 비롯한 박팽년, 신숙주, 이선로, 이개 등의 벼슬은 아주 보잘것 없는 낮은 품계이며, 반면 부제학 최만리를 비롯한 신석조, 김문, 정창손 등의 품계는 비교가 안되는 정도로 높은 것이었다. 세종이 젊은 소장학자들을 소문도 없이 살짝 불러서 운회언해를 하려는 의도를 알았을 때 그들은 매우 분개했을 것이며 최항보다 바로 위의 품계인 정창손이 가장 흥분을 하고 과격한 표현을 했고 김문 역시 불만을 토로하여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던 최만리, 신석조, 하위지, 송처검, 조근의, 동의를 얻어 제일 높은 품계인 부제학 최만리를 앞세워 언문반대상소문을 제출한 것으로 보여진다.

직명 및 품계	구 분	운회언해 참여	언문반대상소	중 립
부제학(副提學) 정 3품			최 만 리	
직제학(直提學) 종 3품			신 석 조	
직 전(直 殿) 정 4품			김 문	
응 교(應 敎) 종 4품			정 창 손	
교 리(校 理) 정 5품		최 항		
부교리(副校理) 종 5품		박 팽 년	하 위 지	성 삼 문
수 찬(修 撰) 정 6품			송 처 검	
부수찬(副修撰) 종 6품		신숙주·이선로·이개		
박 사(博 士) 정 7품				
저작랑(著作郎) 정 8품			조 근	
정 자(正 字) 정 9품				
		5명	7명	?

18) 경기도 安城郡 元谷面 芝文里 白蓮峰 下.

4. 맺 음 말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최만리는 성품이 강직하고 청렴 결백한 충신이며 훈민정음을 창제하던 중요한 시기에 집현전의 최고 책임자인 부제학으로서 최항, 박팽년, 신숙주, 이선로, 이개 등과 함께 훈민정음 창제에 직접 간접으로 관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최만리는 20여년간 세종대왕의 측근으로 있으면서 정치, 경제, 문화, 국방, 외교 등 여러 분야에서 자문하고 언관

으로서 역할을 하며 14번에 걸쳐서 상소를 올리게 되는 것이다.

그 중에 언문반대상소 때문에 일부 오해가 되었지만, 그 상소의 내용을 상술 정리함으로써 최만리의 강직함과 청렴 결백한 충신이었음을 밝혀 보인다.

결국 훈민정음 창제를 반대한 것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세자와의 관계와, 외교적으로 명나라와의 관계 및 언어정책적인 관점에서 운서(韻書)를 정리 하겠다는 세종대왕과의 견해 차이에서 반대상소를 올렸던 것으로 해석된다.



宗 誌 發 刊

海陵君派世譜編修會

會 長	昇 煥	715-5741	서울 마포구 염리동 8-116
副 會 長	倫 圭	2-2650	충남 서천군 서면 신탐리
同 長	寬 燮		충남 홍성군 장곡면 월계리
同 長	相 燮	6-2430	전북 익산군 낭산면 호암리
同 長	玉 煥		충남 당진군 신평면 신당리
同 長	炳 運		충남 청양군 화성면 매산리
監 事	魯 鉉	62-3090	경기 고양군 일산읍 마두리
同 事	英 植	2-1296	충남 아산군 신창면 신탐리
同 事	瑄 燮	6-2278	전북 익산군 남산면 호암리
財 務 委 員	昌 宇	2-4124	충남 예산군 예산읍 창소리
編 輯 委 員 長	熙 燮	6-2388	전북 익산군 남산면 호암리
編 輯 委 員	明 洙	2-2766	충남 서천군 서면 신탐리
同 員	賢 燮	4-2549	충남 예산군 삼교읍 성리
同 員	鍾 得		충남 당진군 신평면 신당리
同 員	幸 圭		충남 청양군 화성면 매산리

民族의 스승 文憲公

—「崔冲研究論叢」을 보고—



承 君
(幹 事 長)

우리가 歷史를 존중하고, 배움에 있어 溫故而知新을 강조하는 것은, 安易하게 故事를 살피 博識을 자랑하자는 것이 아니라, 永遠히 生成發展하는 힘과 슬기를 先人の 자취에서 찾아내서, 오늘의 문제와 未來의 方向을 解決 摸索하는 自覺을 얻기 위해서이다.

近來 우리나라 教育이 이른바 先進文化의 攝取에 급급하여, 人性 本來의 啓發에 힘쓰지 않고 科學 文明의 知識이나 技術의 習得 模倣에만 치우친다는 指摘의 소리가 높다. 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는 教育의 過程을 無視하고 個人의 欲求充足에만 置重한 나머지 物質萬能의 拜金思想과 我慾我執의 暴力만이 걸러지고 있다고도 非難한다. 近代化란 命題아래 모처럼 뛰고 있는 經濟와 政治가 오히려 治國과 平天下에 어긋나는 現象을 民族固有의 傳統思想의 缺如에서 오는 것이라는 反省도 있다.

보다 잘 살고 보다 平和롭고 보다 親

和的인 새로운 里程碑가 民主主義로 믿으면서도 그 힘과 슬기를 發展시키는 뿌리를 찾고 時弊를 匡正하자는 論議에서 나온 것이 傳統思想의 올바른 繼承이요 庶政刷新 社會淨化 秩序運動 教育改革等 政府의 臨床的 施策으로 안다.

우리들 周圍에는 이른바 主體意識과 固有傳統의 再發見을 強調하는 소리가 높으면서도, 아직 이렇다 할 韓國思想의 定立을 못보고 있는 것이 또한 精神史의 現場이다.

이러한 때 文憲公 誕生 一千年을 記念하여 傳統文化研究의 碩學들이 高麗의 儒宗이요, 私學의 始祖요, 또 儒教政治의 示範으로서 崔冲 先生을 多角度로 分析 研究한 論叢이 發刊되었다. 멀리 뿌리를 찾아 오늘의 枝葉的 現實과 對照하고 未來를 向한 歷史的 照明을 밝힌다는 뜻에서 이만한 收穫을 거둔 研究는 일찌기 드문 일이었다.

생각해 보면 崔冲 先生은 出將入相

文武兼備의 才質로 벼슬이 人臣의 極이라 할 門下侍中에 이르고, 열 하나의 功臣稱號를 받은 高麗의 社稷之臣으로 史家가 記錄하기에 앞서, 王侯도 가질 수 없는 最大의 榮光인 <人格의 完成>으로 人生 最高의 보람을 누렸던 完人의 삶을 이 論叢은 말하고 있다. 한 國家, 한 民族에 對한 最大의 奉仕와 愛民 敎化라는 至上의 課業을 遂行한 民族의 스승이란 點을 밝힌 高麗大學校 金忠烈 敎授의 所論에 筆者는 무엇보다도 共感한 것이다.

흔히들 孟子의 三樂을 말하지만, 三樂中 父母俱存의 天倫之樂은 子孫福祿의 樂으로 代值할 뿐, 俯仰天地하여 無愧라는 大丈夫의 浩然之氣를 갖추기도 어렵거늘, 育英之道를 樂으로 삼아 이 民族敎育史에 길이 빛날 私學의 烽火를 가장 먼저 밝힌 그 經綸에 누가 民族의 스승이라고 追仰함에 인색할 수 있을까.

나는 이러한 感激에 接하여, 人生에 眞正 意義있고 價値있는 삶이 어떤 것이냐를 밝혀 주신 偉大한 스승을 先祖로 모신 海崔의 後人임을 새삼 자랑스럽고 또 송구스럽게 느끼는 것이다. 일찌기 家傳의 戒二子詩를 읽고 天倫之樂으로 後孫의 永世發展을 위한 가르침으로만 알았었다.

吾今戒二子
付與吾家珍

清儉銘諸己

文章繡一身

清閑하고 儉素함을 몸에 새기고 文章으로 몸을 繡놓아라는 文章이 곧 學德이요 清儉의 修身임을 子孫에게 뿐 아니라 民族文化의 바탕임을 또한 이 論叢은 밝히고 있다.

莫學紛華子

花開一餉春

화려하고 떠들썩한 것을 배우지 말라. 꽃피는 것은 暫間뿐이니—이 警句 또한 오늘의 우리들 現實의 苦悶인 浮薄과 享樂을 指摘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人生의 한 平生은 一場春夢이지만 그 生의 現在를 충실히 살아서 過去가 未來를 이어 주는 役割을 다 할 때, 살아 있는 過去가 또한 살아있는 現在가 되고 未來로 永存한다는 眞理가 살아 움직이는 것이다.

이 警句는 멀지 않아 高麗史에 나타나서 現實에만 執着한 鄭仲夫의 亂이 되어, 武力執權에 依한 亡國을 招來했었다. 이 속에서 公의 文集을 비롯한 貴重한 典籍이 焚蕩 당했으며 學者仇視의 風潮 속에서 모처럼의 公의 遺志인 學問이 退步를 한 듯 했었다. 그러나, 官吏善成의 官學一邊倒에서 벗어난 私學의 뿌리는 내려 이제 史料에 남은 文憲公徒는 論叢에서만 150餘를 헤아리고 도 남는다. 잠깐 꽃피고 시드는 花開一

餉春이 아니라 韓國文化史에 길이 남는 後裔를 기르신 셈이다.

이렇게 볼 때 文憲公의 私學 創業은 九齋學堂을 비롯해 十二公徒를 낳았고, 이로 인해 儒學이 振興되고 政治倫理는 發展되어 오늘날 韓國人像을 생각할 때 바람직한 것으로 <선비>를 곧 머리에 떠오르게 할만큼 民族意識은 자리잡게 된 것이다.

오늘날 學者들의 見解로서, 羅末의 孤雲 崔致遠은 山寺로 들어가 그의 學問的 抱負를 펴지 못했고, 麗初의 崔承老는 時務에 급급한 나머지 儒佛의 未分化에서 國子監을 設立해 官吏養成에 그쳤지만, 文憲公은 政教 兩面에서 이를 經綸하여 中庸의 大義를 命題로 하고 儒學의 時中之義를 다한 私學을 일으켜 教化에 힘썼다 評하는 것은 時代的 使命을 다했다는 말도 될 것 같다.

研究論叢을 통하여 文憲公의 貴重한 一面을 밝힌 것의 하나는, 公이 儒學의 時中之義를 터득하고 實踐했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儒學의 根本理念의 根本義를 闡明하고자 主體的인 創意로 學究에 臨했다는 것이다. 李朝에 들어 朱子學이 官學으로까지 굳어져 性理學의 大成을 보았다 하지만, 公은 漢唐 學風이 當時 우리 나라에 가득 찼음에도 不拘하고 獨創的으로 朱子 以前에 中庸을 究明하는 性理學의 基礎를 닦았

다는 것이다. 尹絲淳 教授와 李乙浩 教授의 이 所論은 매우 示唆的이고도 값진 것으로서, 흔히 傳統文化에 對해 事大的으로 解釋하는 安易性을 벗어나서 民族固有의 創意性에 自信感을 갖게 된다. 흔히들 後世에 文憲公을 가리켜 海東孔子로 追仰하여 왔는데, 이는 中國思想의 亞流로서가 아니라, 所謂 九經三史에 앞서 中庸의 大義를 闡明함으로써 儒家의 倫理的 人間學을 새롭게 定立한 海東의 孔子라는 最大의 敬稱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굳이 道統을 따진다면 孔子—曾子—子思—孟子, 그리고 崔冲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李乙浩 教授의 指摘은, 韓國의 儒學을 朱子學 線에서 固定시키는 儒學史에서 高麗時代에 거슬러 올라가는 根源을 찾자는 意圖로도 안다. 事實 文憲公 崔冲에서 文成公 安珣에 이르는 240年 동안 모처럼의 私學이 衰退하고 儒教가 萎微하였다 하여 이를 뿌리 잘린 空間으로 알고 安珣을 儒宗으로 삼으려던 李朝의 편벽한 士林의 短見은 是正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後世의 禮遇에 있어서 文廟 配享에서 除外되는 아쉬움을 남겼었다. 이렇다고 해서 文憲公을 일컬어 海東孔子라 함에 조금도 異論이 있을 수 없고, 또 這間에 公을 追慕하는 後學들이 文廟 配享에 힘쓴 精誠과 上疏文 및 史料를 論叢에 밝힌

것은 마음 든든한 일이다.

文憲公을 海崔 後裔로서 자랑스러운 始祖로만 敬慕하여 오며, 祖上에 辱되지 않음을 家訓으로 삼아오던 中, 淺學하여 偉大한 業績과 高邁한 思想에 接하기 어렵던 次에, 이번에 碩學들의 貴重한 研究를 接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自祝할만한 일이었다. 我門의 始祖요 스승이기 以前에 韓國의 빛나는 民族의 스승이라는 信念을 갖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값진 자랑이 아닐 수 없다.

삼가 執筆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 機會에 이 論叢 發刊이 海州崔氏大 宗會의 懇切한 所望이었고, 또 이를 위

한 文憲公崔冲先生記念事業會의 推進으로 發刊과 아울러 發表세미나를 開催한 것도 마음 흐뭇한 일이었다.

多幸히 宗親 여러분들의 絶大한 共感과 懇望으로 이루어진 것은 大宗會의 目的인 親睦 團結과 家門 繼承의 좋은 契期가 되었음도 함께 致賀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러한 顯彰事業이 文憲公에 그치지 않고 더 많은 資料의 調査와 蒐集으로서 學界에도 功獻하고 스스로 自矜하는 大宗會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또한 간절하다.

(祝)

宗 誌 發 刊

三養食品工業株式會社

販賣管理部

崔 文 壽

서울 鍾路區 壽松洞 51-1

電話 735-8951~8 自宅 493-5557

전기공사, 전기 자재 도매

제 일 전 기

대표 崔 潤 壽

서울 동대문구 상봉동 128-71

電話 493-4704, 435-2283

略

傳

爲國忠節의 빛나는生涯

忠毅公 崔慶會將軍의



洙 東
(全南支會長)

차례

1. 南道 和順에 뿌리를 내리다.

- ① 出生地와 入鄉緣由
- ② 어려서부터 漢詩짓고 將帥기상
- ③ 아버지(天符)의 가르침
- ④ 當代一門 六科合格과 壯元及第

2. 20餘年 동안의 벼슬길

- ① 成均館典籍을 첫官職으로
- ② 가는 곳마다 善政碑

3. 壬亂을 당하여 一族이 憤起

- ① 鄉里 三川里에 義兵廳을 設置
- ② 환갑나이에 義兵將이 되어
- ③ 長水땅 道莊坪에 將臺를
- ④ 赤裳山城에 陣을 치고
- ⑤ 錦山城싸움
- ⑥ 茂朱大捷을 거두다.
- ⑦ 嶺南도 우리 땅이다.
- ⑧ 第一次 晋州城싸움
- ⑨ 星州城의 勝捷
- ⑩ 第二次 晋州城 血戰
- ⑪ 조카 弘宇에게 寶劍을 주며
- ⑫ 礪石樓中 最後의 그날
- ⑬ 仲兄 慶長이 憤起해서 義兵大將으로
- ⑭ 만형 慶雲까지도 烏城山城에서 殉節
- ⑮ 一門 10人이 忠節을 바치다.

1. 남도화순(南道和順)에 뿌리를 내리다.

① 출생지와 입향연유(入鄉緣由)

공(公：慶會)의 자(字)는 선우(善遇) 호(號)는 삼계(三溪), 또는 일휴당(日休堂). 문헌공(文憲公)의 16대손이며 의정공 천부(議政公 天符)의 세째아들로 조선조 11대 중종 27년(1532) 11월 22일 화순 삼천리(三川里) 상삼(上三) 마을에서 태어났다.

공(公)의 아버지(天符)는 연산조(燕山朝) 8년(1502)에 태어나고 중종(中宗) 중엽(中葉) 15세경에 영광(靈光) 삼계(森溪)(현재는 장성군)에서 화순으로 와 살기 시작하였다. 그 연유는 아버지 천부(天符)가 화순 한골(현재는 대리)에서 사는 임철공(林鐵恭) 진사댁에 할아버지(尹範)의 심부름을 다니곤 했는데 하루는 임진사(林進士)가 천부의 얼굴을 뚫어지게 들여다보기만 하더니 그의 눈에 들어서 임진사 댁 사랑방에서 묵게 하며 글공부를 하도록 하였다.

임철공 진사는 관상(觀相)에 능했는 지라, 최천부의 상을 보니 정승 재목이라 탐을 내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아버지 천부는 다음해 16세때 두살 아래인 임진사의 말딸 순창(淳昌) 임씨와 혼례

를 치르게까지 되고 말았다.

결혼식 날이었다. 장인인 진사는 장차 정승이 될 사윗감을 고른 흐뭇함에 혼자 속으로 웃음을 짓다가 사모관대를 쓰고 입장하는 신랑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아이코!」 몇번이고 두 눈을 씻고 다시 보았다. 사람은 최천부가 틀림없는데 사모관대를 씌워 놓고 보니 정승감이 아니었다. 낙담실망한 임진사는 잠시 후 또 한번 놀랐다. 이번엔 뒤로 돌아서서 뒷 모습을 보니 과연 정승감이 아닌가!

「음... 사후(死後) 정승이로구나!」 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임진사는 마음을 가라앉혔다.

공(慶會)의 아버지 천부는 뒷날 3남 3녀를 두었는데 아들 3형제(慶雲, 慶長, 慶會)와 손자(弘載, 弘宇, 弘器, 弘受, 弘積)들이 진충보국한 공로로 나라에서 증직(贈職) 벼슬을 대광보국승록대부의정부영의정직(大匡補國崇錄大夫議政府領議政職)을 내렸다.

임진사의 관상예언은 틀림이 없었다.

이와 같이 해주 최씨(海州崔氏)가 화순땅에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② 어려서부터 한시(漢詩) 짓고, 장수(將帥)기상

공(公：慶會)은 어렸을 때부터 아이

들과 활쏘기나 전쟁놀이 같은 것을 하고 놀때에도 꼭 대장노릇을 했으며, 장대한 기골에 늙은 기상과 위용이 있어 한 두살 많은 아이들마저 그의 말을 따랐다. 오성산에 올라 전쟁놀이를 할때도 대장노릇을 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 아이는 예사 아이가 아니라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이라고들 점치기도 하였다.

공(公)이 아홉 살 되던 해에 겨울철 어느 날이었다. 그는 두 형들과 함께 화롯가에 앉아 밤을 구워 먹으며 글공부를 하고 있었다. 밖에서는 바람소리가 세차다. 문풍지를 울리며 방 안으로 새어 들어온 바람에 가물거리던 등잔불이 꺼져버렸다. 숯불을 입으로 불어서 다시 등잔 심지에 불을 붙이고 난 만형(慶雲)이 글짓기를 제안했다. 시제는 등잔불로 정하자 이에 모두 동의했다. 그러자 셋은 각자 등지고 앉아 머리를 짜내기에 여념이 없었다.

한참 후, 다 된 시(詩)를 큰형(慶雲)이 먼저 읽었다.

「등잔불이 방 안으로 들어오니 어둠이 밖으로 밀려 났구나. (燈入房中 暗出外)」 이어서 작은형 경장(慶長)의 차례다.

「백룡이 꽃을 입에 물고 강을 건너는 듯 하구나. (白龍含花 渡江來)」 이는 등

잔기름 가운데 잠겨있는 한얀 심지를 두고 한말이었다. 마지막으로 막내인 경회(慶會)의 차례가 되었다.

「백제성(白帝城) 가에 붉은 깃발이 서 있는 듯하다. (白帝城邊 建赤幟)」 형들은 놀란 표정으로 경회를 쳐다보았다. 셋중 가장 나이 어린 그가 이처럼 고사(故事)를 인용해 이토록 대담한 생각을 해낼 줄 미처 몰랐기 때문이었다. 경회의 글이 가장 장수다운 기상이 있다고 만형은 심사평을 내렸다.

③ 아버지(崔天符)의 가르침

아버지의 자(字)는 응운(應運), 호는 서양거사(瑞陽居士), 경학(經學)에 통달하고 장사랑훈도(將仕郎訓導)에 추천되었으나 사양하고 옛 선현들을 연구하며 덕을 쌓았다. 그는 효제충신예의염치(孝悌忠信禮儀廉恥) 여덟 자를 평생의 좌우명으로 하여 가훈(家訓)으로 전했다.

집안에 서당을 차려 아들, 손자들을 가르치심은 물론이고, 월근 마을에서 모여든 많은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치니, 문하(門下)에서 과거에 합격자가 10여 명이나 되어 이름을 떨쳤다.

공(公)은 이러한 아버지 밑에서 글을 배웠으니 글도 잘할 수 밖에 없었다.

공(公：慶會)이 16살 되던 해 가을에

교수 김원(金遠)의 딸인 나주김씨(羅州金氏)와 결혼했다. 그러나 결혼한지 채 1년도 못된 이듬해 봄에 부인의 곁을 떠나게 되었다.

「나는 이제 너를 더 가르치기가 벅차다. 네가 배우던 책을 모두 싸가지고 오너라. 내가 소개장을 써 줄 터이니 그 선생을 찾아가 글을 더 익히도록 하여라.」 아버지의 명령이었다. 공(公)은 그날로 아버지의 소개장과 책보따리를 짊어지고 3형제는 나주(羅州) 박매골에 사는 송천(松川) 양응정(梁應鼎) 선생을 찾아갔다.

양선생은 대사성(大司成)까지 지낸 학자로서 선조(宣祖)때 8문장의 한 분으로 이름을 떨친 백광훈(白光勳)같은 인재를 배출한 분이였다. 또, 알고 보면 양응정은 남도 아닌 학포(學圃)의 아드님으로 공(公)의 내재종(內再從) 뻘이 되기도 한다.

양송천에게서 공(公)은 3년간 학문을 닦았다. 집을 떠난 지 1년뒤 공(公)은 중형(慶長)이 진사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더욱 열중했다.

송천(松川) 양선생은 공(公)의 총명과 사람됨을 살펴보고 나서

「그릇이 크고 성품이 강직해서 장래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굽히지 않을 위인이로다.」 이렇게 혼자 생각

했다.

④ 당대일문(當代一門) 육과합격(六科合格)과 장원급제(壯元及第)

아버지 천부는 많지도 않은 51세의 나이에 신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공(公)의 나이 21세 때였다. 공은 효성도 지극하여 3년동안이나 묘소옆에 움막을 쳐놓고 에통해 하니, 고을 사람들이 그의 효행을 높이 칭찬했다. 3년상을 마친 공은 3형제가 같이 광산(光山) 고봉(高峰)기대승(奇大升)선생 문하에 들어가 사사(師事)했다. 고봉선생 역시 대사성, 대사간등을 지낸 분으로 이율곡과 이기론(理氣論) 논쟁을 벌인 대(大)학자였다. 고봉선생 역시 「의지가 강하니 오래지 않아 큰 유학자가 되겠구나」 하였다. 여기에서 공은 학자로서 한번 크게 성공해보리라는 뜻을 확고히 다졌다. 그러한 보람으로 나이 서른에 생원(生員)시험에 2위, 진사(進士)시험에 3위로 잇달아 합격하고 6년 뒤인 36세에는 드디어 문과(文科)과거에 1위로 합격의 영광을 차지했다. 이해에 명종 임금이 승하하니 공은 3형제 등과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여 3년을 눈물로 지새웠다. 훗날 공(公)의 큰 아들(弘器)은 진사, 작은 아들(弘積)은 무과(武科), 조카(弘載)도 문과에 각각 합격해 한 집

에서 당대에 6명이 등과하니 조야(朝野)가 떠들썩했다.

중형(慶長)은 3년전에 문과에 합격했으며, 만형(慶雲)은 좀 늦었으나 진사 시험에 합격했다. 장원 급제한 다음날 그는 등과한 여러 동료들과 더불어 사정(射亭)에 나가 활쏘기 시합을 했다. 그때의 활솜씨가 월등하게 뛰어나 구경하던 사람들의 탄성을 자아내게 했다. 고향 화순골에서는 공의 장원급제 소식에 온통 축제 분위기였었다.

2. 20餘年동안의 벼슬길

① 성균관 전적(典籍)을 첫 관직(官職)으로

문과 장원 급제한 공(慶會)은 바로 성균관 전적(典籍: 정 6 품)직에 첫번째의 관직으로 임명되었고,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 형조좌랑(刑曹左郎)의 내직을 거쳐 외직인 전라옥구현감(全羅沃溝縣監)으로 나갔다가 장수(長水)와 무장(茂長)현감으로 갔다. 여기에서 근무할 때 우리나라 해안에는 간간히 왜적이 들락거려 노략질하니, 공(公)은 항상 이를 심상치 않게 여기고 관내의 주위 경계(警戒)에 관심을 가졌다. 정사(政事)에 틈틈이 병서(兵書)를 읽고, 병(兵)을 훈련시키고 공(公)자신도 치

마습사(馳馬習射) 등 무술을 익히는데 노력했다. 또 주민에게 선정(善政)을 베풀었고, 장수(長水)하면 그 일대기(一代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의암(義岩: 論介)과 첫 인연을 가진 고을이다.

② 가는 곳마다 선정비(善政碑)

그 동안의 치적(治績)이 우수하여 조정에서는 공(公)을 특진시켜 영암(靈岩)군수(郡守: 종 4 품)로 배명되었다. 그때 나이 51세가 되던 해다. 공은 영암에서 1582년부터 1584년까지 재직했다. 그 후 호조정랑(戶曹正郎), 형조정랑(刑曹正郎)을 거쳐 영해부사(寧海府使: 종 3 품)를 3년동안 지냈다. 영해에서도 선정(善政)을 베풀었다. 이 지방은 그칠 사이 없이 왜구가 침입하여 백성들을 심히 괴롭혔던 곳인데 공(公)이 부사로 부임하여서는 왜구(倭寇)가 열선도 못하게 하였으니 백성들이 감동하고 그 공적을 잊지 않기 위하여 생사당(生祠堂)을 짓고 부사인 공(公: 慶會)의 영정(影禎)을 그려 모셨다 (현재는 6·25를 전후해서 없어지고 알 길이 없다).

내직(內職)인 사도사(司導寺) 정(正)(정 3 품)을 거쳐 1587년 담양(潭陽) 부사에 전임되었다. 공(公)은 이상 여섯 군데의 지방수령(地方守令)을 지냈는데

가는 곳마다 선정비(善政碑)가 세워져 지금까지도 그 지방마다 보존되어 오고 있다.

당시 우의정(右議政) 사암(思庵), 박순(朴淳)이 최부사는 문무(文武)가 겸전하여 나라의 재목으로 쓰일 훌륭한 인물이라고 상감에게 천거하여, 시사용루(試射龍樓)에 벼슬을 더 내렸으나, 때마침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벼슬을 그만두고 1590년 고향에 돌아와서 상중(喪中)의 몸으로 있었다.

3. 임란(壬亂)을 당하여 일족(一族)이 분기(憤起)

① 향리(鄉里) 삼천리(三川里)에 의병청(義兵廳)을 설치(設置)

1592년(壬辰) 왜적이 대륙침략의 야욕을 품고 기회만 노리고 있던 때에 우리나라 안에서는 당쟁만 일삼고 국정은 부패하고 국력은 쇠퇴 일로에 있었다. 왜(倭)는 이틈을 놓칠세라 수십만 대군을 동원하여 마침내 4월 13일 부산 동래에 침입하고 파죽지세(破竹之勢)로 북상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선조대왕(宣祖大王)은 우리나라 최북변인 의주(義州)까지 피난가게 되고, 국내의 백성들과 관(官)에서는 공포의 도가니 속에서 피난을 가는

등 어쩔 줄 몰라하였다. 신무기(新武器)도 무기려니와 국민은 분열되고 관(官)은 부패 무력해서 있으나마나하기 때문이었다.

때에 공(公)께서는 다년간의 관직을 사임하고 향리인 화순(和順)에서 어머니 순창임씨(林氏)의 상을 당하여 상중의 몸으로 있었다. 당시 상인(喪人)이 군사행동에 나서면 유림(儒林)의 비난을 받게 되고 상을 당하면 공직을 사임해야 하리만큼 부모 공경이 극에 달했던 시대였다.

그러나, 나라의 위기를 그대로 보고 앉아 있을 수 만은 없었다. 경운(慶雲)·경장(慶長)·경회(慶會) 3형제는 모여 앉아

「우리 형제가 한 가지로 국은(國恩)을 입었으니, 나라가 위태로움에 처하여 마땅히 죽음을 각오하고 일어나야 한다.」

하면서 고경명(高敬命)과 박광옥(朴光玉) 동지에게 글을 보내고, 원근(遠近) 여러 고을에 격문을 보냈다. 그리고 향리인 삼천리에 의병청을 설치하고, 집안에 있는 곡식을 군량(軍糧)으로 마련하였다.

그 휘하에 수천의 의병(義兵)과 수백 필의 전마(戰馬)가 모여들었는데, 큰형님 경운(慶雲)의 장자 홍재(弘載)로 하

여금 우선 정병(精兵) 5백을 주어 고경명장군 막하 금산(錦山)지구에 출전시켰다.

② 환갑 나이에 의병장(義兵將)이 되어

광산(光山)에서 의병을 일으켰던 고경명(高敬命)장군이 금산(錦山)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은 그해 1592년 7월이었다. 공(公)은 고공(高公)의 전사 소식에 불승강개(不勝慷慨)하던 중, 금산에서 패한 능주(綾州)출신 문홍헌(文弘獻)등 의병들이 달려와 의병대장으로 추대하니, 쾌히 승낙하고 당장 출전 준비를 위한 치밀한 작전 계획을 세우고 출전 부대를 편성했다. 전부장(前副將)판관(判官)송대창(宋大昌) 좌부장(左副將)군수(郡守)고득뇌(高得賚), 후부장(後副將)현감(縣監)허일(許諡), 우부장(右副將)권극평(權克平), 막좌(幕左)는 공의 아들 홍기(弘器)·홍적(弘績), 큰 형(慶雲)의 맏아들 홍재(弘載), 중형(慶長)의 맏아들 홍우(弘宇), 참모(參謀)에는 진사 문홍헌(공의 사돈)이었다. 상(喪) 중에도 불구하고 최씨(崔氏) 일문(一門)이 일어난 것이다. 부대를 상징하는 표지기(標識旗)는 골(鶻)자였다. 공은 상복을 입은 채 등단 북향재배하고 말에 올라 앉

아 칼을 뽑으니 5천 의병은 물론 그 가족과 운집한 군중이 모두 벅찬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전의(戰意)를 가다듬고 그 무운(武運)을 빌었으며 가는 이나 고향땅에 남는 이나 한결같이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선 나라를 위해 한사(限死)고 죽기를 맹세(盟誓)했다.

「가자! 백성(百姓)과 나라를 위해서!」

큰 함성이 화순 고을에 진동했다. 드디어 화순 지방 5천여 백성의 의병이 전부사(前府使) 최경회(崔慶會) 장군을 진두(陣頭)로 구국(救國) 대열의 거보(巨步)를 내딛인 것이다. 공(崔慶會)은 곧 바로 경기도(京畿道) 방면으로 나아가 대가(大駕)를 따라 적을 무찌르려 했으나, 때마침 금산(錦山), 무주(茂朱)의 왜적이 전주(全州)와 남원(南原)등에 남하하는 부대를 물리치며, 10여 년전 목민(牧民)하였던 정든 땅 장수(長水)를 향해 진격해 갔다.

③ 장수(長水)땅 도장평(道莊坪)에 장대(將臺)를(1592년 8월)

공(公)이 장수 현감때 거사비(去思碑)를 세워 그의 선정(善政)을 기리던 장수의 군민들은 최경회 의병장을 맞아 구세주를 맞은 듯이 소를 잡고 술을 내어 크게 환영하였다.

최경회 의병군은 장수현(長水縣) 계내면(溪內面) 월강리(月岡里) 도장평(道莊坪)에 주둔 장대를 설치하고 의병을 훈련시켰다. 장수(長水)를 비롯한 무주(茂州)·진안(鎭安)·용담(龍潭)·남원(南原)·임실(任實)·무장(茂長)등에 격문을 보내니 수 많은 병사들이 모여들었다. 공(慶會義兵將)은 인근에 출현하는 적을 소탕하는 한편 직접 8백여 의병을 인솔하여 남원에 나아가고 또 전주 등지에 나아가서 적을 물리쳤다.

④ 적상산성(赤裳山城)에 진(陣)을 치고

공(公)은 훈련 도중에도 의병들을 이끌고 무주로 진격, 적상산성(赤裳山城)에 진(陣)을 치고 금산(錦山)에서 싸웠다. 이때에 진안(鎭安)에서 거병(擧兵)한 함양(咸陽)사람 오비(吳玘)가 천여명의 의병을 이끌고 합류하여 부장(副將)이 되었다. 한층 힘을 얻은 공(崔慶會軍)은 금산(錦山)·무주(茂朱) 일대에 출몰하는 왜적을 괴롭히면서 1개월 전 7월 10일에 고경명(高敬命)장군이 전사한 금산성(錦山城)에 자주 나아가 싸웠다. 금산성은 적상산성(赤裳山城)에서 멀지 않은 거리에 있었다. 문무(文武)를 겸전(兼全)한 공(公)은 용병에 탁월한 수완을 보였다. 충청의병장

(忠淸義兵將) 조헌(趙憲)이 고경명에 이어 두번째로 금산성 공격을 시도하다가 7백의사와 함께 순절(殉節)한 며칠 뒤인 임진년(壬辰年) 8월 20일 밤, 공(公)은 적을 무찌르기 위한 야간작전회의(夜間作戰會議)를 열었다.

⑤ 금산성(錦山城) 싸움

그날 밤은 달빛이 밝았다. 그러나 안개가 짙게 끼어 앞을 분간하기가 어려웠다. 공(公)은 전군(全軍)에게 야간기습(夜襲)의 준비를 시키고, 기마병(騎馬兵)으로 하여금 쪼다발을 안고 말에 타게 하되, 진군하지 말고 장고를 쳐서 대군(大軍)으로 진격하고 있는 것 같이 적이 느끼게만 하고 절대로 화살이나 조총(鳥銃)을 쏘지 말라고 엄명했다.

그날 밤 피아(彼我)가 대치(對峙)했으나 서로 분간할 수가 없었다. 최경회군(崔慶會軍)은 계속 장고를 쳐서 진격하는 시늉만 냈다. 그러자 놀랜 적은 계속 조총(鳥銃)을 쏘아댔다. 왜적의 총소리가 뜰해지면 이쪽은 다시 팽가리와 장고를 쳐서 진격하는 척 했다. 그러면 왜적은 또 다시 미친 듯 안개 속에다 화살과 조총을 쏘아댔다. 이것은 새벽까지 되풀이되었으며 적은 지칠대로 지치고 탄환이 떨어졌다.

날이 밝아오고 안개가 차츰 걷히니 기마병(騎馬兵)의 짙다발에는 화살이 헤아릴 수 없이 꽂혀 있었다. 그러나, 사람은 한 사람도 상한 이가 없었다.

드디어 진격 명령이 내려졌다. 최경회군은 터진 노도(怒濤)와 같이 달려나갔다. 탄환이 다 떨어진 왜적은 성안으로 달아났다. 적의 시체가 성문 앞까지 즐비하게 나뒹굴었다. 죽고 죽으며 성안으로 쫓겨든 왜적은 성문을 닫고 꼼짝을 안했다. 이 때부터 왜적은 골「鶻」자 기(旗)만 보면 겁이 나서 달아났으며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8월의 어느 날 왜적은 밤을 타서 달아나고 금산성(錦山城) 안에서는 까마귀 소리만 들렸다.

⑥ 무주대첩(茂州大捷)을 거두다

적장 고바야가와(小早川隆景)는 다찌바나(立花宗茂) 등과 더불어 그들의 군사를 성주(星州)·선산(善山)·금산(金山) 등에 주둔시키고 도요도미(農臣秀吉)의 분지지계(分地之計)에 따라 전라도에 들어오려고 넘보는 때였다.

성을 비우고 달아나던 적의 뒤를 쫓아 공(公)은 날랜 기마(騎馬)를 골라 추격했다. 그러나 적의 선봉은 이미 우지치(牛旨峙)를 넘어 전주(全州)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공(公)은 추격을 멈

추고 막장(幕將)들에게 작전을 지시했다.

「우리가 적의 주력(主力)을 저지할 곳은 우지치(牛旨峙) 뿐이다. 이 고개는 길이 좁고 양편의 산 언덕이 깎아지른 듯하니 적은 반드시 장사진(長蛇陣)으로 올 것이다」

이러한 공(慶會)의 지시에 따라 전군(全軍)이 양쪽 산기슭에 매복했다. 예상대로 적은 개미떼처럼 장사진을 이루고 좁은 고개 길에 들어섰다. 산정(山頂)에서 망을 보던 병사의 신호가 있자 양편의 복병(伏兵)은 적의 군열(軍列)이 고개 마루에 이르렀을 즈음 일제히 화살을 퍼붓고 바위돌을 굴러 내렸다. 그러자 허리를 잘린 적의 장사진이 흔들려 놀란 적이 후퇴를 외치며 달아나려 했다. 이때 또 한 무리의 우리 군사가 적의 앞 뒤에서 내달아 적의 퇴로(退路)를 차단하고 육박전을 전개했다. 진퇴양난(進退兩難)의 적군의 시체가 협곡(狹谷)을 매웠다. 그것은 흡사 아비규환의 지옥도(地獄圖)였는데 이 한 복판에 10여기의 호위를 받으며 혈로(血路)를 뚫고자 애쓰는 왜장이 있었다. 산 위 높은 곳에서 이 전투의 상황을 굽어보며 작전을 지휘하고 있던 공(公)은 활을 1개 빼들고 살을 걸었다. 백마를 탄 왜장은 긴 칼을 휘두르며 분전(奮

戰)하고 있었다.

「이놈!」

공(公)의 입에서 열화(熱火)같은 분통이 터지자 깎지손에서 떠난 화살은 첫바람을 내며 허공을 날라 적장의 목에 꽂혔다. 그 거리는 2백보, 백마가 한번 뛰고 왜장은 곤두박지르듯 땅에 떨어졌다.

「가서 잡아라!」

공(公)의 일성(一聲)에 산 위의 장졸이 달려 내려갔다. 장수를 잃은 적병은 혼비백산하여 달아나니 왜적은 산더미 같은 시체를 고개마루에 남겨놓고 지례현(知禮縣)쪽으로 달아나고 만 것이다.

이것이 그 유명한 무주대첩(茂朱大捷)이다. 그 적장의 품에서는 고려 공민왕이 그린 청산백운도(靑山白雲圖)가 나왔다. 적장이 지닌 칼은 당시 일본에 있었던 유명한 자웅검의 하나인 언월도(偃月刀)로 모리미찌(盛道)의 작(作)이었다. 이 그림과 칼은 공(公)이 진주성에서 순절한 다음에 [그의 중형(仲兄: 慶長)에게 전해져 기병(起兵)을 유도(誘導)하게 된다.] 공(慶會軍)은 지례현(知禮縣)에 물러나 패군(敗軍)을 수습 정비하던 고바야가와(小早川)군을 덮쳤다. 고바야가와(小早川)는 여기서 또 한차례 참패 당하고 금천 방면으로 물러났다.

이 두차례의 싸움은 우리 의병에게도 물론 손실(損失)을 주었다. 그러나 “명장 최경희”의 이름은 이때부터 피아간(彼我間)에 널리 알려졌고 왜병을 공포에 떨게 하였다.

⑦ 영남(嶺南)도 우리 땅이다.

공(公)은 적상산(赤裳山)으로 돌아와 군사를 점검하고 재출정(再出征)의 준비를 서둘렀다. 명장 최경희의 용명(勇名)을 듣고 사방에서 의병이 구름같이 모여들어 공(公)의 진(陣)에는 일만여 명의 의병으로 의기가 충천했다.

그해 임진년(壬辰年) 9월 중순, 김해성 안에 있던 왜장 가토 미쓰야스(加藤光泰), 나가오카 다다오끼(長岡忠興), 하세가와 히데가즈(長谷川秀一), 기무라시게찌(木村重效) 등은 작전회의를 열고 사천성(泗川城)·고성(固城)·창원성(昌原城)을 잇달아 빼앗긴 대책으로서 경상우도병마(慶尙右道兵馬)의 주력이 주둔한 진주성을 먼저 쳐서 뿌리를 뽑아버리면 자연 다른 지방으로 조선군(朝鮮軍)이 흩어지게 되리라는 작전을 세우게 되었다.

당시 진주목사는 김시민(金時敏)이었으며 성안의 병력은 모두 3천 8백명에 지나지 않았다. 김시민은 제 1차 진주성 싸움이 있기 두달 전인 8월 7일에

진주목사를 배수(拜受)하고 진주고수책(晉州固守策)을 마련하고 있었다.

왜적은 10명의 장수가 거느리는 2만의 병력으로 김해성(金海城)을 출발 10월 3일에 진주성을 완전히 포위하였다. 경상우순찰사(慶尙右巡察使)의 원병(援兵) 요청을 받은 공(公)은 정병(精兵) 5천을 뽑아 남원(南原), 운봉(雲峰), 함양(咸陽), 거창(居昌), 산청(山淸) 등을 거쳐 위급을 고(告)하는 진주성으로 달려갔다. 공(公)이 진주성 지원을 결정하자 일부에서는 호남(湖南)을 버리고 떠나면 영남(嶺南) 땅을 구하러 가는 일이 옳지 못함을 지적하는 이가 있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호남도 우리 땅이요, 영남도 우리 땅인데, 의(義)로서 일어난 사람들이 어찌 원근(遠近)을 가린단 말인가.」

이렇게 일축한 공(公)은 들관에서는 조운학익진(鳥雲鶴翼陣)을 골짜기에서는 장사어관진(長蛇魚貫陣)을 그리고, 밥을 해먹은 다음에는 거짓으로 밥지은 자리를 많이 만들게 하는 용의(用意)를 보이며 진군해 나갔다.

⑧ 제 1 차 진주성(晉州城)싸움

진주성 제 1 차 싸움은 10월 10일부터 개시(開始) 되었다. 김시민(金時敏) 장

군은 성문을 굳게 닫고 성중(城中)의 노인과 부녀자까지 남장(男裝)을 시켜 장정처럼 위장시켰다. 성 밖의 원병(援兵)들은 밤이 되면 인근 산에 올라 횃불을 울리며 호각을 불어 적과 신경전을 벌렸다. 임계영(任啓英)도 2천여명을 인솔하고 와서 공(公)의 군과 합세했으며 곽재우(郭再祐)장군은 진주성 북쪽 비봉산(飛鳳山)에 진을 쳤다. 또한 의병장 최강과 이달, 고성현령 조의도 등은 남강 건너편 두골평(頭骨坪)에 진을 치고 적을 뒤에서 위협했으며, 정유경(鄭惟敬), 정기룡(鄭起龍), 조경형(曹敬亨) 등도 밖에서 적을 유인하거나 견제했다. 합천 의병장 김준민(金俊民軍)도 사천(泗川) 쪽에서 응원했다. 공(公)은 어숙영(魚束嶺)에서 맹공을 가했다. 몇십 차례 썩이나 기습전을 감행해 왜적을 수 없이 살상시켜 진주성 대첩(大捷)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적은 성을 공격하라 밖의 원군을 상대하라 정신이 없었다. 이 싸움은 5일 동안 계속되었다. 적은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수 많은 시체를 남긴 채 패주(敗走)했다.

이것이 임란 3대첩(壬亂三大捷)의 하나이다. 그러나 적의 유탄(流彈)에 이마를 맞은 김시민은 적이 물러간 며칠 뒤에 전복(戰服)을 입은 채 북쪽을 향

해 눈물을 흘리며 숨을 거두었다. 김시민의 나이 39세였다. 성민(城民)들은 1년동안 흰옷을 입고 초식(草食)하며 슬퍼했다고 전한다.

승첩(勝捷)을 듣고 경상감사 김성일(金誠一)이 달려왔다. 남인(南人)에 속한 김성민이었지만 서인(西人)에 가까운 공(최경회)의 전공을 선조(宣祖)에게 장계(狀啓)하여 <이번 진주대첩은 모두 최경회가 밖에서 지원한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⑨ 성주성(星州城)의 승첩(勝捷)

제 1차 진주성 싸움이 일대승첩(一大勝捷)을 거둔 뒤 공(公)은 단성(丹城)과 안음(安陰) 등지에 유진(留陣)하며 적을 소탕하던 중 경상도 의병장 김면에게서 성주성(星州城)을 치자는 편지를 받았다. 성주성은 왜장 가쓰라 모도쓰나(桂元綱)가 지키고 있었는데, 김면은 8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공격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공(公)은 5천여명을 이끌고 개령(開寧) 방면에서 참전했으며 임계영(任啓英)도 고령(高靈) 방면에서 또 합세했다.

제 3차 성주성 싸움은 임진년도 다저물어 가는 12월 7일에 시작되어 14일에 끝났다. 각처에서 모여든 의병이 연합전선을 펴고 공격하니, 적은 전의(戰

意)를 잃고 원군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성문을 굳게 닫고 있었다. 그러나, “최경회군”의 견제를 받아 왜군은 성주성에 원군을 넣을 수가 없었다. 드디어 계사(癸巳)년 1월 15일 왜군은 성을 내어놓고 물러났다. 교전(交戰) 7일간, 수성(守城) 1개월만에 패주(敗走)한 것이다. 그해(1593년) 4월 조정으로부터 최경회에게 경상우도병마절도사(慶尙右道兵馬節度使)의 직함과 인(印)이 내려졌다.

⑩ 제 2차 진주성(晉州城) 혈전(血戰)

일본의 도요도미(豊臣秀吉)는 임진년 10월에 벌인 1차 진주성 싸움에서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회만 있으면 대병력을 투입하여 땅에 떨어진 위신을 되찾고 원한을 풀겠다고 버르고 있었다.

계사년 3월 도요도미는 전 왜군에게 철퇴명령을 내렸다. 그리하여 4월 18일에는 한성(漢城)의 왜군이 철수를 개시했다. 그러나 그들은 죽은 동료들의 보복전으로 제 2차 진주성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 전초전(前哨戰)으로서 6월 15일부터 행동을 개시하여 함안(咸安)을 점령하고 6일에는 단성(丹城)을 점령한 뒤에 18일에는 정진(鼎津) 부근에서 낙동강을 건너 의령(宜寧)을 점령하기에 이르렀다.

이 당시 우리 관군과 의병은 대부분 함안(咸安)과 그 서쪽에 머물러 있었는데 공(公)은 의병장 김천일(金千鎰)과 같이 진양(晋陽)은 호남의 인후(咽喉)이니 진주성을 사수(死守)하자고 했으나 그 의견이 하나로 뭉치지 못했다. 의병장 곽재우(郭再祐)는

「차라리 성 밖에서 싸우다 죽는 편이 낫지 성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무모하다」고 하고 순변사(巡邊使) 이빈과 함께 단성현을 거쳐 서쪽 산음(山陰)으로 들어가 버렸으며, 의병장 임계영(任啓英)도 사천현(泗川縣)에서 호남으로 들어갔으며, 홍계남(洪季男) 선거이(宣居怡)등 그밖의 여러 장수도 많이 흩어져 버렸다.

다만 전라우의병장(全羅右義兵將)이던 경상우병사(慶尙右兵使) 최경회(崔慶會), 충청병사(忠淸兵使) 황진(黃進), 거제현령(巨濟縣令) 김준민(金俊民), 해미현감(海美縣監) 장윤(張潤), 복수의병장(復讐義兵將)·고종후(高從厚)와 그의 부장(副將) 오유(吳宥), 기타 모든 장수들이 병력을 이끌고 김천일장군과 함께 진주성에 들어갔다.

왜적은 일본에 있는 도요도미의 명에 따라 9만 3천의 대병력을 투입 6월 18일 조그만 진주성(晋州城)을 겹겹이 포위해 버렸다. 이에 비교해서 아군의 병

력은 3천 4백명, 성중(城中)의 인구는 노유(老幼)와 부녀자를 합해서 7만이였다. 도요도미 히데요시는 계속 악랄하고 미친기 서린 작전명령을 내리고 있었다. 그가 4월 17일에 가토기요마사(加藤清正)에게 내린 지시를 보면 <① 진주성을 공격하여 모조리 토멸(討滅)하고 그 후에 전라도와 경상도를 정복해서 성을 쌓아라. ② 한성에 집결한 병력은 인수하여 진주성을 공격 포위하고 축산(築山)으로 압축하여 한 사람이라도 남기지 말고 도살할 것이며 서로 상의하여 실수 없도록 하라>고 되어 있다.

도요도미의 명령은 <계속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도륙(屠戮)하라>는 것이었다. 이런 속에서 공(公)은 진주성을 사수(死守)함으로써 그들이 전라도 땅을 유린할 기회를 막고 어디나 내 나라 내 땅인 조국(祖國)을 지켜낼 결전(決戰)을 각오한 것이다. 공(公)은 이 싸움의 도절제(都節制)를 하였다.

왜군이 본격적인 공격을 시작한 것은 6월 21일 오전 10시께부터였다. 이날부터 9일 동안 피아간(彼我間) 밤낮이 없는 공방전이 시작되었다. 이 9일간은 피아(彼我)가 다 있는대로의 지략과 용맹을 남김없이 발휘한 대혈전이였다. 그러나, 함양(咸陽)에서도 상주(尙州)

의 명군(明軍)도 와서 이 싸움을 돕지 않는 가운데 장마비마저 내렸다. 고군분투(孤軍奮鬪) 9일, 이제 진주성 최후의 날은 다가오고 있었다. 생우피(生牛皮)를 씌운 적의 구갑차(龜甲車) 세대가 동문쪽 성벽 밑에 접근하는데 성공하고 만 것이다. 적의 구갑차가 진주성 동문쪽 성벽 밑에 접근하는데 성공한 것은 6월 29일이었다. 공(公)은 이날 아침 진주목사 서예원(徐禮元)을 순성장(巡城將)에 임명했다. 황진이 전날 시체 더미 속에 숨어 있던 적이 쏜 조총탄에 맞아 전사했기 때문이었다. 서예원은 겁을 먹고 전립(戰笠)을 벗은 채 말을 타고 물러갔다. 이 비겁한 위인을 베이려던 공(公)은 막장(幕將)들의 만류로 서예원 대신 사천현감(泗川縣監)인 장운(張潤)으로 진주목사를 맡게 했다. 장운은 이날 순성(巡城) 도중에 적탄에 맞아 전사했다.

29일 정오, 구갑차 속에서 기어나온 적들이 성벽밑의 큰 돌을 빼어내기 시작했다. 서북문쪽도 같았다. 성 안에서는 돌을 굴러내리고 불화살을 쏘아댔다. 그러나 생우피를 덮었기 때문에 구갑차는 불에 타지 않았다. 왜군은 사력(死力)을 다해서 성벽의 기초를 뽑아냈다. 성 안에서는 이것을 막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써보았다. 그러나 이날

밤 10시경 줄기차게 내리는 빗 속에서 기어히 동문쪽 성벽이 먼저 무너져 내렸다. 적의 주력부대(主力部隊)가 이 무너진 성벽을 타고 성안으로 진입했다. 서문쪽에서도 적이 들이닥쳤다. 중과부적(衆寡不敵)인 의병과 관군은 차츰 물리기 시작했다. 싸움에서 후퇴하면서 전복(戰服)을 벌겍게 피로 물들인 의병과 관군은 축석루로 물렸다. 화살도 다하고 칼과 창은 날이 떨어졌다. 적은 장수들이 모두 축석루에 몰린 것을 알고 포위망을 압축했다. 누군가가 공(公)에게 말했다.

「성을 탈출해서 후일을 도모하자」고 그러나 「나라의 두터운 은혜를 입어 이성을 맡았으니 성이 없으면 나 또한 있을 수 없다」(城存我存 城亡我亡) 이렇게 말한 공(公)은 조카 홍우(弘宇)를 불러 말했다.

① 조카 홍우(弘宇)에게 보검(寶劍)을 주며

「홍우야! 너는 반드시 살아 남아서 이 언월도(偃月刀)와 청산백운도(靑山白雲圖, 그리고 이 조복(朝服)을 네 아버지(慶長)에게 전하여라. 내가 죽은 줄 알면 아버지께서 틀림없이 기병(起兵)할 것이니 이것으로 증표를 삼아라」 하니 홍우는 흐느끼며 숙부 경회(慶會)

가 내리는 유품을 받아 말 안장에 매달았다. 조카 홍우(弘宇)는 구사일생으로 성을 탈출하여 고향으로 달려갔다.

⑫ 축석루중(矗石樓中) 최후의 그날

적이 가까이 왔다. 강희열(姜希悅)·오유(吳有)·이잠(李潛) 등 10여명의 장수가 군병을 격려하여 닥치는 대로 적을 베다가 장렬하게 죽어갔다. 이종인(李宗仁)은 싸우고 싸우며 강변으로 물렸다. 그는 적병을 닥치는 대로 베었으며 그중 2명을 겨드랑이에 끼고 크게 외쳤다.

「김해부사(金海府使) 이종인(李宗仁) 여기서 죽는다.」 그는 적병을 켜 안은 채 강물에 뛰어 들었다.

최후의 시각이 다가오는 것을 안 공(公)은 김천일(金千鎰)·고종후(高從厚)와 함께 축석루에 올라갔다. 세 사람은 후일 삼장사(三壯士)라 불리웠고 전라도 동향인(同鄉人)이기도 했다.

장마비가 내리는 철쭉 같은 밤이었다. 공(公) 최경회 장군은 피맺힌 목소리로 서사시(誓死詩)를 읊기 시작했다.

<축석루 가운데 세 장사는 한잔 술잔을 들어 웃으며 저 강물을 가리키노라. 저 긴 강물은 도도히 흘러 가노니 저 물이 흐르고 있는 한 내 혼 역시 죽지

않으리.>(矗石樓中 三壯士 一杯笑指長江水 長江之水 流滔滔 波不渴兮魂不死).

다 읊고 나자 그는 북향사배(北向四拜)하고 경상우도병마절도사인(慶尙右道兵馬節度使印)을 가슴에 안고 강물에 뛰어 들었다. 이어 김천일(金千鎰)·고종후(高從厚)·문홍헌(文弘獻)을 비롯한 수 많은 장수들이 차례로 물에 몸을 던졌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스스로 택한 구원(久遠)의 길, 구국순절(救國殉節)의 대의(大義)를 안고 남강(南江)의 충혼(忠魂)이 되었다. 공(公)은 용병(用兵)의 신장(神將)으로 2년간 곳곳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우고 62세의 고령에 진주성을 사수(死守)하여 호남의 화를 막으려다 이렇게 순절한 것이다.

조정에 진주성 함락의 소식이 전해진 것은 1593년 7월 16일이었다. 선조(宣祖)는 21일 전사자에 대한 애통한 교서(敎書)를 내리고 공(최경회)에 대해서 <명장(明將)이 칭찬하고 왜구가 두려워하니 가히 이름이 3국에 떨쳤다>하였다. 공(公)에게 동년(同年) 8월 17일에 이조판서겸대제학(吏曹判書兼大提學)이 증직(贈職)되었으며, 선조(宣祖) 28년(1595) 진주 창열사(彰烈祠)에 최초(金千鎰, 崔慶會, 黃進)부터 제향(祭享)하였다. 인조(仁祖) 5년에(1627) 좌찬성

(左贊成：縱1品)이 가증(加贈) 되었고 능주(綾州)에 포충사(褒忠祠)가 세워져 주향사(主享祀)했다. 그리고 영조(英祖) 23년(1747) 겨울에 공(公)이 안고 투강(投江)했던 인(印)이 남강에서 스스로 빛을 발하여 한 어부에게 발견되니 임금은 진주에 인각(印閣)을 세워

보관하고 그 길로 공(崔慶會將軍)에게 충의(忠毅)의 시호(諡號)를 내렸다.

정조(正祖) 13년己酉(1789)에 화순에 삼충사, 순조(純祖) 28년(1828)에 장수(長水) 월강사(月岡祠)에 제향하였다.

문집(文集)은 일휴당집(日休堂集)과 육의록(六義錄)이 있다.

仲兄 慶長도 義兵大將으로

중형(慶長)이 분기(憤起)해서 의병 대장(義兵大將)으로

진주성(晉州城) 함락 당시 공(慶會)으로부터 칼과 그림, 조복(朝服)등을 물려 받은 조카 홍우(弘宇：慶會의 작은 형인 慶長의 맏아들)는 아수라장이 된 성(城)을 천신만고 끝에 탈출, 닷새만에 그리운 고향 화순(和順)으로 돌아왔다.

중형(慶長)은 진주성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한 공(慶會)등 여러장수의 이야기와 그 동안의 피나는 전황(戰況) 이야기를 아들(弘宇)로부터 들으면서 최씨(崔氏)집안 사람들은 눈물로 밤을 지냈다. 이 같은 이야기가 널리 퍼지자, 최씨 집안 뿐만 아니라 화순현민(和順縣民) 전라도민(全羅道民)이 모두 애통해

하며 왜적의 만행에 이를 갈았다.

홍우는 소중히 간직해 가지고 온 짐꾸러기를 조심스럽게 풀어 보이면서

「아버님, 숙부님께서 성(城)이 떨어지기 전에 이 물건들을 주시며 어서 갖다 드리라 하였습니다.」 홍우(弘宇)가 아버지(慶長)에게 보검(寶劍)과 고려 공민왕이 그린 청산백운도(靑山白雲圖), 조복(朝服)등을 내놓으니 모두들 더욱 통곡하며 어루만지면서 손을 떼지 못했다.

중형(慶長)은 「내 이 원수를 꼭 갚아 주리다!」라고 결심했다. 65세의 백발이 성성한 중형(慶長)은 아들(弘宇)이 가져온 아우(慶會)의 유품(遺品)들을 다시 두겹 세겹으로 싸서 깊숙이 보관토록 하고, 왜장에게서 빼앗은 칠척장검(七尺長劍)인 언월도(偃月刀)만은 자신

이 직접 간직하고 있다가 그해(1593년 癸巳) 8월에 기어이 의병을 일으켰다. 그가 의주(義州)에 가있는 선조(宣祖)에게 이 같은 취지를 써올리고 도원수(都元帥) 권율(權慄)도 「전직(前職) 내 섬사정신 최경장(內贍寺正臣 崔慶長)이 죽은 아우(慶會)의 남은 병졸(兵卒)들을 수습하여 경상(境上)에 유둔(留屯)하니 인심(人心)이 안정 되나이다」하고 장계(狀啓)를 올렸다. 임금 선조가 이를 보고 나서

「아우가 국난(國難)에 순절하매 형이 이어 거의(舉義)하니 고인(古人)에도 그 유례(類例)가 드문 일이로다.」하고 계의병대장(繼義兵大將)이라 배명하고 대장 인(印)을 각(刻)하여 하사(下賜)하였다.

조정의 명령이 떨어지자 중형(崔慶長)은 훈련부장 선의문(宣義問)을 부장(副將)으로, 전군수(前郡守) 김윤명(金允明)을 종사관(從事官)으로 각각 삼고 이광중(李廣中), 강항(姜沆) 등이 모아 들인 고기와 소금, 군량(軍糧) 백석으로 곡성(谷城), 옥과(玉果)에 군막을 친 다음 병(兵)을 훈련시켰다. 그리고 남원(南原)에 있는 왜적을 소탕하니 군세(軍勢)가 크게 떨치었다.

晉州城싸움에 참가했다가 진주성이 포위 되었을 때 아버지(慶會)의 명령에

따라 호남(湖南)으로 나가 군량을 모았던 홍기(弘器)도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중부(仲父) 경장(慶長)을 따라다니며 군무(軍務)를 도왔다.

또한 큰조카 홍재(弘載)도 홍기(弘器)와 함께 계의병장(繼義兵將)인 숙부를 따라 참가했는데 홍재(弘載) 역시 진주성(晉州城) 싸움에 임했다가 구원병을 청하려 호서(湖西)지방으로 떠난 뒤 성(城)이 함락되어 버려 같이 죽지 못했던 것이다.

다시 금산 무주에 진격, 왜적을 몰아내고 팔양재(八良峙)까지 올라가 함양(咸陽)에 이르러 곤양(昆陽)과 사천(泗川)에 있는 왜적을 잇달아 쳐부수었다. 이때 숨었던 왜적들이 최경회장군의 형이라는 말을 듣고 더욱 놀라 진(陣)을 포기하고 도망가니 이를 보고 명(明)나라 장수 오종도(吳宗道)가

「아우가 죽으며 형이 다시 일어나 충의(忠義)를 빛내고 적을 공포에 떨게 하니 참으로 고금(古今)에 제일가는 사람이다」라고 했다.

계속 고성(固城) 견내량(見乃梁)으로 진격하여 전후 10여 차례에 걸쳐 천여급(千餘級)의 적을 참살했다.

이와 같이 혁혁한 전과를 올린 중형(慶長)은 구례(求禮) 석주관(石柱關)으로 병(兵)을 옮긴 뒤로는 방어 전략을

세우는 데 힘썼다.

이듬 해 3월, 김덕령(金德齡)이 담양(潭陽)에서 기병(起兵)했다는 소식을 듣고, 중형(慶長)은 자신이 노쇠한 몸인데다 조정의 명(命)도 있고 하여 병기(兵器)와 군량(軍糧)을 그에게 인계한 후 단기(單騎)로 의주(義州)로 달려가 임금의 뒤를 따라 호위했다.

그는 뒤에 담양부사를 지냈으며 그

전공(戰功)으로 도승지(都承旨) 이조판서(吏曹判書) 등에 증직(贈職)되었고 정조(正祖) 13년 己酉(1789)에 향민이 삼충사(三忠祠)에 향사했다.

아우(慶會)에게서 물려 받은 청산백운도(靑山白雲圖)는 간데없고 언월도(偃月刀)는 4백년이 되어가는 오늘날까지 화순 고사정(高士亭)에서 많은 수난을 겪으며 보존되고 있다.

伯兄 慶雲도 殉節

말형(慶雲)까지도 오성산성(烏城山城)에서 순절(殉節)

1597(丁酉)년 10월, 화순(和順)에도 왜군 3천여명이 광주(光州)쪽으로 부터 침입해 왔다.

왜군이 들이닥치자 놀랜 화순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 피난을 갔다. 그러나 유독 전호(錢昊)라는 부호만이 피난을 가지 않고 남아있다가 왜적이 들어오자 반겨 맞이했다. 그는 소를 잡아 주연을 베푸는 한편 자기집 곡식 창고 문을 열어 군량으로 쓰도록 했다. 이렇게 왜군들은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화순을 점령했던 것이다. 왜적은 닥치는 대로 무고한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코와 귀를

벤 다음 전투 중에 사살했다고 전공(戰功)을 자랑했다.

공(慶會)의 말형(慶雲)은 이때 73세의 노인이었다. 그는 왜적이 화순(和順)에 들어온다는 말을 듣자 가족과 노비들을 불러 모아 놓고 말하였다.

「너희들도 잘 알다시피 우리 집안은 예로부터 충의(忠義)를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겨왔다. 그래서 막내 아우(慶會)는 진주성(晉州城)에서 최후를 마쳤으며, 그 위의 아우(慶長)도 이어 계의 병장(繼義兵將)이 되었다가 지금은 상감의 뒤를 따르고 있다. 어디 그 뿐인가. 아들 홍재(弘載)는 초토사(招討使)로 특매되어 지금 개성(開城)에서 의병을 규합하고 있으며 조카들(弘宇·弘

器)도 역시 싸움터에 나가있거나 직산(稷山)에서 방량관(放糧官)이 되어 군량을 모으고 있다.» 여기까지 말한 그는 悲感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말을 더 잇지 못하다가 한참 뒤에야 입을 다시 열었다.

「어차피 우리는 죽을 운명이다. 왜 굳이 우리 집안의 내력을 아는 이상은 그대로 두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 죽더라도 싸우다 한 놈이라도 더 죽이고 죽는 것이 나라와 동생의 원수를 갚는 길이기도 하다. 자! 모두 짐을 꾸려 오성산(烏城山)으로 올라가자!」

그는 둘째 아들 홍수(弘受)와 함께 그들의 뜻에 따르는 주민들을 끌어 모았다. 가족과 집안 노비 그리고 원근 주민으로 조직된 향병(鄉兵) 5백여명을 이끌고 산으로 올라갔다.

오성산(烏城山)은 산성(山城)이라기 보다는 283m 고지(高地)를 깎아지른 벼랑으로서 넓이는 3천여평 가량 된다. 이때 읍민이 시(詩)로서 공(慶雲)을 찬양하길 「白首三川崔上舍 幾同招得半千人」이라 하였다.

성을 지키던 중 왜적이 조총을 쏘며 개미떼 처럼 산으로 기어 오르니 무기라곤 칼, 낫, 죽창, 곡괭이, 쇠시랑, 활, 돌과 같은 것 밖엔 없었고, 노약자와 부녀자들까지 혼합된 오합지졸(烏合之卒)

인 향병(鄉兵)이었지만 오직 충천하는 적개심과 향토를 수호하겠다는 일념(一念)만으로 3천 왜병과 맞서 싸운 것이다. 그러나, 3주야(晝夜)의 사투 끝에 중과부적으로 2백여 향병이 모두 무참히 희생되고 말았다.

공(慶雲)은 최후의 일각까지 독전하다가 오히려 왜적에게 포박을 당하여 「항복하면 삶이요. 반항하면 죽음이 있을 뿐이다」

이라는 적장의 협박에 대하여

「내 아우를 진주에서 죽게 하고 또 나를 결박하려 드느냐! 이 원수놈은 어찌하여 빨리 나를 죽이지 않는고!」

라고 소리 높여 꾸짖으며 끝까지 항거하며 굽히지 않았다. 그리하여 마침내 공을 부축하고 있던 둘째 아들 홍수(弘受)와 함께 흥기에 찢려 순절하고 말았다. 이때가 1597년(丁酉) 10월 17일이었다.

뒤에 현민들은 「오성산 최진사가 적을 꾸짖어 굽히지 않았다」하여 그 충성과 기상에 감동하였다. 1782년(정조6)에 조정으로부터 명장고적(名將古蹟)을 조사 보고하라는 명이 내려, 당시 화순 현감 박명순(朴明淳)이 오성산 싸움터의 도면을 그려 최진사전망유허(崔進士戰亡遺墟)라 이름하여 올리니, 뒷날 판서(判書) 이석규(李錫圭)가 와서 오성

산에 올라 시를 읊어 애통해 하였다. 이때 박명순(朴明淳)이 유허비를 세워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다.

이 오성산(烏城山)은 화순의 수호성(守護城)으로 화순사람들은 지금도 신성시(神聖視)하고 있다.

1789년(正祖 13년 己酉)에 향민이 삼충사(三忠祠)에 향사했다. 1800(庚申)에 도유림(道儒林)이 사액(賜額)을 소청하였으며, 1실 6의(一室六義)의 정문과 증직(贈職)의 은전을 청한 바 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문(一門) 10인이 충절(忠節)을 바친다.

이렇게 해서 해주최씨(海州崔氏) 일문(一門)은 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비참한 임진왜란을 당하여 목숨을 초개와 같이 여기고 나라를 위해, 향토

를 위해, 형제를 위해 충의(忠義)를 다하였다.

· 3형제(慶雲·慶長·慶會)

· 5자질(弘載·弘守·弘器·弘受·弘績)

· 1실(義岩夫人·論介)

· 공(公)의 당숙 천범(天範)도 문과에 합격하고 예조좌랑(禮曹佐郎)을 지냈다. 임난이 일어나자 향리에서 창의금성산(金城山)에서 수백의 왜적을 참살하고 끝까지 항전하다 장열하게 순절했다. 나라에서 좌승지(左承旨)의 증직과 문충(文忠)이란 시호(諡號)를 내렸다.

실로 한 집안에서 열 사람이 충절을 바쳐 그 이름 청사(靑史)에 기리 남겼다.

(祝)

宗 誌 發 刊

大 現 織 物 工 場

社 長 崔 用 根

大邱直轄市 中區 達城洞 284-34

電話 職 32-4935

宅 554-0261

慶會將軍後室인

義岩論介의 忠節

의암 논개(論介)는 신안주씨(新安朱氏) 통훈대부 주용일(朱溶一)의 손녀이며 진사 주달문(朱達文)의 외동딸로 선조(宣祖) 7년(1574) 9월 3일 밤 10시께 장수현 제내면 주촌리(현재는 大谷里)에서 태어났다.

논개란 이름이 붙여진 것은 공교롭게도 사주(四桂：生年月日時)가 갑술(甲戌)년 갑술월 갑술일 갑술시였다. 참으로 기이한 일이었고, 이같은 4갑술생(四甲戌生)은 이조 5백년 동안에 단 한 사람이 더 있었으니, 그는 논개보다 1백 20년 후에 출생한 21대 임금 영조(英祖)였다고 한다.

아들을 낳는다는 것이 개를 낳았다고 하여 그 아버지(達文)가 논개(論介)라 불렀다. 청사에 길이 빛나는 의기(義妓) 논개(論介)의 이름은, 이렇듯 글방 선생인 아버지의 작명(作名)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또 한가지 여기에서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은 논개를 의기(義妓)라 하여 기생(妓生) 출신인 것처럼 알고

있으나 사실은 양가(良家)의 규수였다는 사실이다.

그 아버지 달문은, 비록 딸이지만 애지중지 길러서 다섯 살 때부터 글공부를 시키니, 시문(詩文)에 재질을 보이고 얼마 안가서 충효경(忠孝經)도 통독하게 되었고 부모에게 효행도 뛰어났다. 덕유산(德裕山) 영각사(靈覺寺)에 2년 동안이나 쫓아다니며 불공들여 낳은 딸이라 보통 아이가 아님을 달문은 내심 생각하고 더욱 열심히 가르쳤다.

그러나, 의암(論介)이 일곱살나던 해 아버지 달문이 병으로 죽으니, 의암(논개) 모녀는 달문의 아우 달무(達武) 숙부댁에 붙어살게 되었다. 방탕한 생활을 해온 달무는 제 재산은 물론 형인 달문이 남겨놓은 유산마저 탕진해버리고, 이웃마을 풍천리(楓川里) 부자 김풍헌(지금의 面長格)이 달무의 어린 조카딸 논개를 민머느리로 삼고 싶어하는 것을 알고 팔아넘기려 하였다. 김풍헌에게는 절름발이에 곰배팔이인 막내아

들이 장성하도록 장가가지 못하고 있었다. 이를 눈치챈 의암의 어머니 박씨부인은 딸을 데리고 그의 친정인 경상도 함양군 서하면 봉정마을로 몸을 피하였다. 허나, 재물에 눈이 뒤집혀 이미 증서까지 해 준 달무에 대해 김풍헌이 사라져버린 의암모녀를 사이에 두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당시 친정에 숨어 있던 의암 모녀가 잡혀오고, 무주(茂朱)와 장수(長水) 고을을 다스리고 있던 장수현감 공(최경회)의 주도아래 재판이 진행되었다. 김풍헌이나 재물에 대해서도 아는 바 없었던 의암 모녀의 진술에 따라, 이 모든 일을 조작했던 숙부 달무를 찾았지만, 이미 자취를 감춰버렸던 지라, 그를 찾을 때까지 재판이 연기되었다.

1개월 남짓 걸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갈곳없는 의암모녀는 최현감의 내아(內衙)에서 부엌일을 거들며 지낸다. 최현감의 부인 민씨는 이들 모녀가 정성껏 달여주는 약을 먹고 허약했던 몸이 다소나마 회복되자 고맙게 여겨 계속 묵게 했다. 달무가 잡혀오고, 최현감은 3자대질심문을 하여, 의암 모녀에게는 무죄를 선고하자, 의암모녀는 눈물을 흘리며 현감의 너그러우신 은혜에 대해 감사드렸다. 박씨부인은 일곱살난 어린 딸에게, 그들 모녀를 살려주신 현감내

외분의 은혜를 평생토록 잊지말 것을 기회있을 때마다 일러주었다.

그해 9월, 공(최경회)이 전남 영암군 수로 읍기게 되자 의암모녀와 이별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허나, 삼촌이 또다시 김풍헌네로 팔려고 할 것을 두려워한 의암과 갈 곳 없는 박씨부인의 청으로, 공(최경회)은 부인과 상의하여 박씨부인을 정식으로 침방관비(針房官婢)로 등록하고 부인곁에서 시중들게 하였다.

10여년을 따라다니며 공(최경회) 내외를 섬기는 동안, 논개는 용모가 뛰어나고 재주가 비상한 아름다운 처녀로 성장했다. 특히 마음씨가 곧으면서도 고와 민씨부인 아래서 부덕(婦德)을 고루 쌓았다.

1590년 공이 담양부사(潭陽府使)로 있던 어느날, 논개 나이 17세때, 민씨부인은 남편 최부사에게 논개를 부실로 맞을 것을 권유한다. 논개모녀의 정성에도 불구하고 고질병이 더욱더 심해지자 오래살지 못할 것을 느낀 민씨부인은, 그동안 따라다니며 충직하게 시중을 든 참한 논개를 천거한 것이다. 다른 사람도 아닌 부인에게서 그런 말을 듣자, 공은 당황하여 이 생각 저 생각이 들었으나, 민씨부인은 나름대로 생각을 굳히며, 집안살림이며, 또 빈말이

나마 김풍헌네 민며느리가 되었던 몸으로 달리 정혼할 수도 없는 논개의 입장을 설명하고 고려하여 논개를 불러들였다. 민씨부인이 사또후실로서의 논개의 의향을 묻자, 상기된 논개는 길러주신 은혜 뿐만아니라 앞일까지 걱정해주시는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제어미와 상의하여 대답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해서 그해 봄, 논개는 공의 부실이 되었다.

논개를 맞은 뒤 9개월이 지난 그해 겨울(12월), 공은 어머니 임씨부인의 상(喪)을 당하여 벼슬을 버리고 화순으로 돌아가면서, 논개에게 일단 장수(長水)로 박씨부인과 함께 돌아가 있을 것을 말하고 후일을 기약한다. 분부대로 논개는 어머니와 함께 장수로 돌아와 계내면(溪內面) 풍천마을에서 임시거주하며 오로지 공을 그리는 일념으로 나날을 보냈다.

1592년 임진년(壬辰年) 4월 13일, 왜적이 부산에 상륙함으로써 임진왜란이 시작되고, 상중임에도 불구하고 의병장으로 추대된 공은 의병청을 설치하고 의병을 모아 진군한다.

8월 한가위를 사흘 앞둔 12일, 장수에 머무르고 있던 공이 바쁜 군무(軍務)중에 틈을 내어 의암을 찾는다. 몽매에도 잊지 못하던 공과의 1년 9개월만의 상봉에 의암은 버선발로 뛰어나와 반기

지만, 막중한 군무때문에 얼굴만 보고 돌아서는 공에게, “사사로운 일에 신경 쓰이지 않고 큰 일에 더 마음 쓰소서”라고 말하니, “나이는 어리지만 과연 장수(將帥)의 아내로 부족함이 없구나”라고 공은 감탄한다. 이때 의암의 나이 열아홉 꽃다운 나이였다.

공이 금산성 싸움, 무주대첩, 성주성 싸움 등등에서 승승장구, 호남의 적을 완전 물리치고, 호남의 인후(咽喉)로서 중요한 영남지역의 1차 진주성싸움을 원군하여 크게 이긴다.

1593년 4월, 경상우도병마절도사로 진주로 부임해가는 도중, 장수에 들러 의암을 만났다. 의암도 의병으로 따라가길 간절히 바라니 공이 떠난 뒤 차분히 따라오길 명했다. 공이 떠난 뒤 닷새째 되는 날, 이미 한해전 어머니 박씨부인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공이 남겨놓았던 호위군사 몇명과 시녀를 데리고 진주로 떠난다. 험한 산길에 도처에 왜군이 우글거리는 판국으로, 경남 산청군(慶南山淸郡) 오부면(梧釜面) 어느 산 골짜기를 지날때, 갑자기 나타난 50여 명의 왜군 무리들에 의해 의암일행은 포로가 되고, 의암은 만일 무슨 일이 있을때엔 자결하고 말 것을 결심하며 은장도를 쥔다.

왜군들에 의해서 진주와는 엉뚱한 방

향인 의령군(宜寧郡) 양동(陽東) 산골짜기를 지날때, 갑자기 나타난 충청병사 황진(忠淸兵使黃進)의 일행에 의해서 구출된다. 의암이 공(최경회)의 소실(小室)이라는 말에 마상(馬上)의 장수(黃進)는 훌쩍 뛰어내려, 자신도 진주성까지 가는 길이므로 함께 모셔다 드리겠다 한다.

황병사가 진주성에 도착하여 공(慶會)을 만나, 진주로 오는 도중 경상우병사(慶尙右兵使)의 관할구역인 의령(宜寧)에서, 귀중한 전리품을 얻었으니 인제하겠다고 말했다. 공이 전리품은 국가에 귀속하든지, 황병사가 갖든지 하라고 극구 사양한다. 황병사는 빙그레 웃으며 전리품을 가져오라고 명하자, 다름아닌 아리따운 여인 의암이 등장하여, 공(최경회)은 깜짝 놀라며 좌중은 축석루가 떠나가도록 웃었다.

한편, 왜적들은 일본에 있는 도요도미의 명령에 따라 20만명이나 되는 대병력(大兵力)으로 제 2차 진주성을 공격했다. 1차 진주성 싸움의 패배에 더욱 광기서린 공격을 했으며, 6월 18일부터 진주성이 함락된 29일까지 밤낮없는 공방전(攻防戰)은 대혈투였다. 성을 지키기 위해서 최후의 일각까지 최선을 다하다 공은 경상우도 병마절도사인(慶尙右道 兵馬節度使印)을 안고 강물로

뛰어들었다. 그의 뒤로 그를 따르던 수많은 장수가 축석루에서 남강(南江)으로 몸을 던져 순직했다.

의암은 2차 진주전에서 성이 함락되기 하루 전에 공의 강권에 못이겨 성밖민가에 나와 있었으나,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성안의 사정과 공의 최후의 모습을 전해 듣고 자신도 자결로서 공을 따르리라 결심했다.

성안이 잠잠해지자 공의 최후를 확인해 보기 위해 성문 쪽에 다가갔을때, 성벽에 붙은 왜군의 방문(榜文)을 볼 수 있었다. 7월 7일 축석루, 공이 돌아가신 바로 그 자리에서, 왜군들이 전승잔치(戰勝宴)를 위해 진주기생(晉州妓生)을 모두 현신(現身)시킨다는 내용을 보고, 원수값을 기회임을 느낀 의암은 바로 그날(7월 6일), 기적(妓籍)에 논개(論介)라는 두글자를 올리는데 성공했다,

다음날 7일 아침, 곱게 단장한 의암은 축석루에 올라 게야무라 로꾸스께(毛谷村六助)라는 장수의 옆자리에 앉았다.

잔치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무렵, 왜장 게야무라 로꾸스께를 유인해 낸 의암은 배를 타고 위암(危岩; 강변에서 십여간 떨어진 곳에 4~5명이 앉을 수 있는 바위가 있었다. 이 바위가 후세 사람이 義岩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바위

이다)에 다가간다.

「바람은 표표히 불어 눈을 잘 뜰 수 없는데, 교활한 이 아이놈이여! 좋아하는 사이도 아니건만, 아! 슬프도다. 날은 저물고 갈길은 먼데 세상만사가 슬프게만 끝나는구나」 하고 의암은 시한수를 읊으며 왜장(倭將 : 毛谷村)을 끌어안고 강심(江心)에 몸을 던지니, 공(崔慶會)과 나라의 원수를 갚아 진주성 최후의 충절을 장식하였다.

이 때가 1593년(계사년) 7월 7석날 밤, 의암의 나이 20세이었다. 그들의 시체는 10여일 후에야 하류에서 발견되었는데, 그 때까지도 의암의 손은 왜장게야무라를 부둥켜안고 있었다한다. 의암은 만일의 실수라도 있을까봐 열손가락에 반지를 끼고서 손각지를 했기 때문에 일부러 풀려해도 잘 풀리지 않을 것은 당연했다.

이 후부터 바위이름 위암(危岩)을 의암(義岩)이라 하고 바위에 새겼으며, 논개를 의암(義岩)이라 부른다 (훗날 예

문관(藝文館)에서 의암(義岩)이라는 사호(賜號)를 내렸다.)

의암은 삼덕을 갖추고, 삼강을 실천하였으며, 「살신성인」하였으며, 「사생이취의(死生而取義)」하고, 천금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홍모(鴻毛)와 같이 버리고서 국난(國難)을 구하여 국치(國恥)를 설욕하였으며, 왜구(倭寇)의 칼날아래 죽은 무수한 백성들과 그의 부군(夫君)인 경상우병사(慶尙右兵使) 최경회(崔慶會)장군의 무고한 죽음에 대한 원한마저 풀었으니, 그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겠는가!

충(忠), 효(孝), 열(烈), 어려서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자라서 국가에 충성을 다하였으며, 부군과 같이 순절한 여인, 그의 죽음은 실로 임진왜란 종결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그는 애국애족하는 민족의 갈길을 가르치고 영구불멸의 영혼이 되어 나라를 지키는 수호신이 되었던 것이니, 참다운 한국여성의 상징이라 할 것이다.]

祝

宗 誌 創 刊

東 部 青 果 株 式 會 社

專務理事 崔 承 君

서울 東大門區 龍頭洞 39-1

電話 962-2530

962-2537~9

966-5227

祝

宗 誌 創 刊

麻 浦 漢 醫 院

院長 崔 大 善

서울特別市 麻浦區 桃花洞 183-6

TEL 712-1191, 717-1191番

祝

宗 誌 創 刊

株式會社 漢 陽 製 本

代表理事 崔 尙 竣

서울, 麻浦區 城山洞 51-2

電話 322-0955番

祝

宗 誌 創 刊

正光綜合建設株式會社

副社長 崔 赫 壽

서울 江南區 三成洞 8-2

(강남구청 옆 남경빌딩 2층)

電話 546-4440番

祝

宗 誌 發 刊

會親宗派公理校

會長 俊
副會長 永
" 炳
" 萬

基
哲
疇
基
基

會學獎憲文

會長 萬

會親宗智佛派公翰典

有司在
" 在

俊
雄

京畿道安城郡元谷面芝文里

會宗林鳩氏崔海州

門長在
公司員在
有司在

觀
勳
出

全南靈岩郡郡西面東鳩林里

한일합심 모포 호남총판

社商一韓

代表 崔 東 鎬

光州市東區須奇洞 21-7

電話 33-3205, 33-6939番

(祝)

宗 誌 發 刊

嶺南花樹會

顧問 榮錫，尙鶴，元默，鎮濤，在厚，碩，淳鍾，源浩

會長 用根

副會長 南奎，彥鎬，俊錫，海鎮，世雄，成男，永佑

幹事長 泰峯

幹事 榮一，銅洛，榮得

監事 鍾宅，榮華，東根

(祝)

宗 誌 發 刊

서울 江南區 方背 2洞 456-30

32世孫 典翰公派 寬 燮

電話 584-7359

安國火災海上保險株式會社理事

32世孫 典翰公派 宗 燮

서울 江南區 大峙洞 청실아파트 9동 703호

電話 職場：752-0591

自宅：566-4944

祝

宗

誌

發

刊

全羅南道宗會

會	長	洙	東
常任副會長	鍾	燮	
副會長	萬述,	元鍾,	東鎬, 宗鉉,
	達演,	德潁,	平雄
幹事長	泳鳳		
總務幹事	吉柱		
財務幹事	榮鉉		
組織幹事	湘鎬		
監事	泳洪,	南鉉	

副司果公派折衝將軍(諱國賓)

洪城花樹會

會	長	英	憲
總	務	金	鍾

카텐카페트, 실키부라인드
무대막암막, 홀딩도어

제일종합^{카텐카페트}장식

代表 崔 英 憲

서울성동구자양동 607-9

電話 452-4023番

校理公派

愚

(校理公派幹事長)

概要

校理公派는 溫始祖의 第15代孫인 文科承文院校理인 諱 璘의 후손들을 일컫는다.

지금으로부터 489年前 그러니까 서기 1498년 李氏朝鮮 연산군때에 있었던 소위 戊午사화로 인하여 당시 承文院校理였던 諱 璘이 관직을 사퇴하고 낙향 정착한 곳이 바로 黃海道 延白郡 湖南面 雌鳳里(속칭 자달)이며 校理公派는 이곳에서 一家門을 형성하고 연면 500년, 명문가로서의 자리를 굳혀왔다. 특히 友愛가 깊은 校理公派후손들은 湖南面 雌鳳里를 비롯하여 延白郡內 몇개 部落(松逢面 大龍里 속칭 맹구지, 龍道面 심계리 속칭 달기벌, 鳳西面 월파리 등지)에 子子一村 集姓村을 이루고 단란하게 삶을 영위해왔으며, 雌鳳里(속칭 자달)에는 6·25사변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한마을 130여호가 전부 崔氏고 他姓 몇

집은 崔氏집안의 下인들이었다. (註: 문중의 6.25이후 세대들은, 잘 이해가 안되었으나 校理公派의 본산인 雌鳳里등 崔氏 집성촌에는 班常의 계급이 뚜렷하여 6.25당시까지 墓지기 山지기등 下人(속칭 상놈)들이 있어서 양반인 崔氏들의 시중을 들었다)

이렇듯 崔氏들만으로 집성촌을 이루고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자연이 강한 단결력을 지닐 수 있었으며, 門中의 상부상조정신은, 他姓門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특기 할 것은 6·25동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인근 다른 門中은 거의가 한 族親끼리 죽이고 죽는 相殘의 참극을 빚었으나 校理公派門中에서는 단 한 건의 불상사도 없었다.

그리고, 확실한 통계는 아니지만, 6·25사변으로 인해 校理公派의 집성촌이 적치하(註: 校理公派의 본거지인 黃海道延白郡은 休戰線이북으로 전부 北韓으로 편입케 되었음)가 되기전까지의 家口數는 約 400여호에 인구수는 약 2,000여명으로 추산되며, 남한으로 피난온 校理公

派인구는 약 10분의 1정도가 아닌가 여겨진다. 현재 校理公派종친회에 등록된 가구수는 250여호이며 그 대부분이 서울에서 살고 있다.

校理公

공의 이름은 璘, 字는 應寶, 號는 望海堂이다. 永樂22年 즉 朝鮮朝 世宗6年 (西紀 1404年) 甲辰 3月에 出生하였다. 正統15年에 生員試에 합격하였으며, 공의 나이 37세때에 平壤에서 실시한 文科別試에서 1等第2人에 합격하였다. 처음에는 承文院博士로 있다가 司憲部監察이 되고 睿宗1年에 河陽縣監으로 나가 있다가 들어와서 成均典籍이 되고 成宗6年에 다시 文化縣監을 거쳐 昭格令, 軍器別官을 두루 지내고, 德川郡守, 天安郡守를 歷任하였다. 다시 漢城判官 宗廟令, 社稷令을 거쳐 校書, 校理에 任命되어 承文校理와 成均司藝등을 지내고 연산군3年에는 奉常 副正, 承文院參校로 옮겼다가 掌樂院正에 昇進되었었다.

공은 4개의 郡縣을 歷任하면서 선정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 치적이 높이 평가 되었으며 4代의 임금을 섬기는 동안 한결같이 충성을 다했으며 그 덕망이 높아 미구에 宰相의 자리에 오를 것으로 촉망이 되었는데 예의 連山군 4年(무

오)에 일어난 士禍를 겪으면서 官職에서 물러날 것을 결심하고 곧 山紫水明한 黃海道 延安땅으로 落鄉을 하였다. 그리고 거처하는 집을 『望海』라고 이름 붙였는데 이는 공의 號인 望海堂과 같은 이름이다. 공이 거처하던 『望海』 건물은 450여년이 지난 6·25사변 때 (1950년)까지 온전하게 보존이 되어 그 별채에는 공의 墓지기인 門中下人(상인) 李仁山이 거처하며 건물을 관리하고 있었다.

한편 이 『望海』에서는 탁트인 평야와 黃海바다가 한눈에 바라다 보이는데 望海라는 뜻은 그보다 암흑정치시대에 名節을 보존하며 文과 學으로 스스로를 즐기겠다는 뜻을 지닌 것으로 後學들은 해석을 하고 있다.

아뭏든 공은 후학들을 가르치며 유유자적 만족스럽게 말년을 보냈으며 1502년 음 9월 19일(壬戌) 79세를 1기로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집(『望海』) 뒷산 기슭 艮坐에 장사 지내졌고 부인인 南原梁氏의 墓와 함께 두 봉분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으며 훌륭한 表石이 세워져 있다. 특히 공의 墓자리는 누가 보아도 感嘆을 하리만치 훌륭한 입지조건을 지니고 있으며 黃海道 八名堂의 하나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그리고 공은 슬하에 아들 세분이 있었는데 맏은 良佐로 郭山郡守를 지냈

고, 次男은 良輔로 熙川郡守, 三男은 良弼로 白川郡守를 지냈다. 그래서 後孫들은, 큰派(郭山派), 가운데派(熙川派), 끝派(白川派)로 서로를 부르고 있다.

끝으로 公의 순수한 학문의 영향은 길이 빛나고 있는데 특히 公의 가르침으로 하여 많은 학자가 배출되었으며 公을 비롯하여 閔一齋, 玄南村은 當代의 秀出賢 3人으로 크게 존경을 받았다.

現 況

이미 언급을 하였듯이 校理公派의 본거지인 黃海道 延白郡은 8·15해방으로 3·8線이 그어지자 以南땅이 되어 6·25사변전까지는 行政區域上 大韓民國 京畿道로 편입되었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6·25공산군의 남침으로 현재는 북한땅이 되어 校理公派의 거의 대부분은 처자, 형제자매와 생이별을 하고 있는 비극의 주인공들이 되고 있다.

특히 고향이 어엿하게 대한민국땅이라는 생각과, 宗土齋室등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고향땅과 재산을 버릴 수 없다는 지극히 인간적인 소박한 생각, 그리고 난리가 일시적일 것이라는 오판 등으로 젊은 남자들만이 주로 피난길을 떠났던 것이다. 그러므로 피난길을 흔히 남부여대했다고 형용하지만, 실상 校理公派門中の 대부분은 훌훌단신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고작 젊은 형제간만의 피난이었다. 그만큼 대부분의 종친들은 생활의 정착까지 더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일시적인 피난길이란 생각에서 몇푼의 돈과 쌀 한두말이 생활기반의 전부였으며, 농촌 출신이라 교육수준도 일반적으로 그리 높지 못했고 거기에다 거의가 남한에는 사방을 돌아보아도 알만한 사람은 단 한명도 없는 처지였었다.

그러나 용하게도 나름대로 생활의 터전들을 닦았으며 현재 종친회에는 250여세대가 등록을 하고 있다. 피난중에 일가성가를 한 종친이 많이 늘어났다는 결과이다. 또 현재 校理公派의 항렬분포를 보면 28대손부터 35대손까지 8대가 공존하고 있으며 서울을 중심으로 많은 종친들이 상업을 생업으로 하고 있고 그밖에 교육자, 공무원, 회사원 등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한편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또 고향에 돌아갈 길이 아득해지자 일부 校理公派종친들은, 종친들이 서로 의지하고 서로 위로하기 위한 모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1973년, 그러니까 피난 24年만에 校理公派의 宗親會를 발족시켰으며, 해마다 봄철에 정기총회 겸 친목모임을 개최하고 있다. 또 1976년 5월에는 門中の 英才양성을 목적으로 한 文憲 獎學會를 발기하고 기금을 조성,

■ 各系派 및 地方宗親會

해마다 장학회규약에 의거하여 선발된 문중학생들에게 일정금액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 장학사업은 문중단합의 큰 구심력이 되고 있다.

그밖에 특기할 일은, 피난중에도 派譜를 간행했다는 사실이다. 선대들이 1代 30년을 기준으로 譜書을 간행하여 왔기 때문에 피난 校理公派門中에서는 비록 반신불수가 되는 族譜라도 丙戌譜 이후 30년이 되는 1975년에는 꼭 譜書를 편찬하자는 한결 같은 의지로 체재면에서 훌륭한 派譜를 간행하였으며, 大宗會발족과 함께 중단은 하였지만, 宗誌를 二輯까지 發行하는 등 나름대로 派宗親會 활동을 활발히 해오고 있다.

끝으로, 校理公派는 전통적인 儒敎가 문이라는 歷史的 배경과 지리적 조건등으로 하여 新學問쪽으로는 비교적 뒤져 있었기 때문에 근대적 의미에서의 人物

배출이 저조한 편이나 신진들의 높은 향학열로 앞으로가 크게 기대된다(註: 6.25사변 직전까지 집성촌에는 漢文서당이 있었으며 상투를 틀어 올린 젊은이가 있을 정도로 保守的인 가문이었다.) 한편 피난전 고향에서는 郡內를 통틀어도 몇명이 안되는 進士가 崔氏(校理公派)중에만 두 사람이 있다 하여 이웃 他姓門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으며 현재도 대학교수등 博士, 碩士가 몇명있고 서기관급 이상의 전직, 현직 공무원, 그리고 성공한 실업가 등이 있어서 피난은 인근 타성문중에 비해서는 그래도 무척 돋보이는 편이다.

宗親會任員

會 長 : 俊 基
副會長 : 永哲 炳疇 萬基
幹事長 : 愚

承 旨 公 派

鍾 燮

(全南支會副會長)

승지공은 우리 해주 최씨 15세이신 휘 윤범(尹範)이다. 조선 초에 낙남(落

南)하신 12세 영랑장공(領郎將公), 휘 안택(安澤)의 증손이고, 임진왜란 때에

불멸의 공훈을 남기신 충의공 최경회장군(忠毅公崔慶會將軍)의 조고(祖考)인데, 충의공의 전공과 충절에 의하여 좌승지(左承旨)에 증직(贈職)되었다.

승지공은 지금 전남 광산군 본양면 양산리, 구 나주 돈목동(敦睦洞)에 모시어 있는 도선산(都先山) 묘소로 미루어 보나, 문헌 기록 및 전해 오는 이야기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처음에 장성, 영광 등지에 정착하신 것이 확실하다.

500여년의 유구한 세월이 흐르는 동안 국가의 흥룡과 더불어 우리 후손들은 영고성쇠(榮枯盛衰)를 거듭하면서 오늘의 번영과 성장을 이룩하였다. 그리하여 이제는 전남북 전역에 뿌리 깊은 생활의 터전을 구축하고 있으며, 그 지위나 수호에 있어 팔목할 만하다 하겠다. 우리 후손은 이제 3,180 여세대에 15,000여명을 상회하는 실정에 있으며, 시조로부터 35세까지 배출되어 있다.

집단 거주주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화순(和順)에서는 우리 문중을 타성들이 명문(名門)이라 칭하고 있으며, 토반(土班)으로 불리고 있다. 이곳에서는 조

최유림(曹崔柳林)이라 하여 숫자적으로 순위를 꼽고 있기도 하다. 특히 우리 후손들은 국가가 위난에 처하였을 때에는 총궐기하여 충성을 다하였다. 임진왜란, 정유재란 때 저 유명한 최경회장군의 일문십의(一門十義)의 충절은 우리나라 전사(戰史)에 길이 빛날 것이다. 더우기 6·25동란을 당하여서도 수많은 후손들이 공산적군과 싸워 국토방위에 헌신하였으며, 후방에 남은 후손 또한 부역이나 이적행위를 하는 사례가 거의 없었던 것은 선조의 국가충절에 대한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라 하겠다.

우리 후손은 1983년 해주 최씨 전라남도총회의 결성을 계기로 친목과 단결을 더욱 강화하였고, 승지공 후손이 주축이 되는 영랑장공 후손 전체가 합심하여 영랑장공을 위시한 승지공 형제분까지 5위의 묘역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일휴당집(日休堂集)》, 《육의록(六義錄)》의 출간사업을 겸행하여 연내에 완성할 예정으로 있다.

승지공과의 대체적인 현황을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승지공파(承旨公派)현황일람표(1985. 6. 1 현재)

世數, 諡, 雅號 및 諱	世帶數	人口	分布地域	主 要 人 物				(現 存)					
				法 曹	公 務 員 (教 育 會)	醫 生	係 人	金 融	實 業	其 他			
15	17												
天 秀	90	450	潭陽古西 他										
天 斗			新安, 咸平, 釜山 他										
承旨公	250	1,250	和順, 谷城, 南 他	龍桓, 鍾燮 (道敎委課 長), 宗煥 (專門醫士)	容基, 容基 (은행 차장)	承基, 容基 (은행 차장)	炳洙 (天) 炯洙 (대광기업 사장)	炳燮 (진설업회 장)	炳燮 (浴湯業) 淳玉 (印刷業社 長)				
議政公 慶 雲	500	2,500	和順, 羅州, 忠 其	龍桓, 鍾燮 (道敎委課 長), 宗煥 (專門醫士)	承基, 容基 (은행 차장)	承基, 容基 (은행 차장)	炳洙 (天) 炯洙 (대광기업 사장)	炳燮 (진설업회 장)					
尹 範													
天 符			潭陽, 寶城, 忠 全 北	承奎, 東洙 (道敎委課 長), 弘鎮 (全大師大 附屬高枝長)	承九 (醫博) 在春 (醫博 全大病院)	南鉉 (농협군상무)	龍珠 (제사회장) 佑鉉 (진설회장)						
慶 長	1,550	7,750	和順, 羅州, 昇州, 他	承奎, 東洙 (道敎委課 長), 弘鎮 (全大師大 附屬高枝長)	承九 (醫博) 在春 (醫博 全大病院)	南鉉 (농협군상무)	龍珠 (제사회장) 佑鉉 (진설회장)						
忠毅公			珍島, 長城, 他	公仁 (고교교감)									
慶 會	340	1,700	和 順										
天 弼			和 順										
天 紀	130	650	他 州										
天 紀	40	200	羅 其 安 他										
天 慶	200	1,000	務 其 安 他										
天 柱	80	400	羅州, 光山, 他										
計		3,180											15,900

進 士 公 派

道 植

(治安本部外事課)

아득한 옛날 나의 12대조 업(業)공은 나이 어려서 연로하신 어머니를 모시고 경북 영주군 직동이란 곳으로부터 지금의 경북 문경군 영순면 포내리에 이주해 오셨다. 유년시절의 그 할아버지가 무슨 연유로 영주땅을 버리고 이주해 오셨는지는 아는 이도 없고, 또 알 수도 없다.

그때 할아버지는 어린 나이에 유산으로 중요한 책들(족보, 문집등으로 추측됨)을 등에 걸머지고 어머니의 손을 잡고 강을 건너 오시다가 넘어져서 그 귀중한 책들을 그만 떠내려 보냈다고 한다. 그 책들이 무엇을 기록한 책이었는데는 모르나 안타깝기 한이 없다.

지금 우리네 자손들은 그때의 안타까움을 간직한 채 연년이 선조들의 고향인 영주 땅에 있는 선조 묘소를 찾아 시제를 올린다. 대대로 뜻있는 자손들은 영주땅을 답사하고 조상들의 옛고향을 알아보려 하였으나 확실한 거주지(居住址)나 당시 자손들의 분포상황을 확인할 길이 없다.

다만 선조들이 아름다운 명산을 소유하셨고, 그 산록에 조상들의 묘를 대대로 정성들여 모셔 놓고 묘소관리인이 대를 이어 가며 현재까지 관리해오는 것으로 보아 당시 선조들이 행세를 하였고, 비교적 부유하게 생활하신 것이 아닌가 추측될 뿐이다.

문헌상으로는 이조 세종시 집현전 부제학공(萬理)의 4남 진사공(垠)이 무후하여 형생원공(塘)의 4남중 3남인 숙손(淑孫)공을 입양시킨 것으로 되어 있다. 숙손공은 성종(成宗)때 부제학을 지내시다가 연산군 4년(1498년) 무오사화(戊午士禍)로 졸하셨다. 그후 갑자(甲子)년에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숙손공은 학문과 덕행이 뛰어나셨던 것 같다.

이렇듯 아버지를 사화(士禍)로 잃은 아드님 중석(重錫)공은 경북 영주군 직동이란 두메 산골에 은거, 정착하셨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 분의 묘소 바로 밑에는 아랫대 충손(忠遜)공 묘소 등이 정연하게 자리잡고 있다.

그곳 묘소관리인(산지기)의 말에 의하면, 자기네들은 대를 이어 해주 최씨 묘소를 관리해 왔는데, “부받은 해주 최씨 산과 묘소를 성심으로 관리해 줌으로써 부받는다”는 선조의 유언에 따라 현재도 자기 선조의 유업을 계승하여 극진히 묘소를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그곳 영주땅 직동에서 우리 조상들은 복받고, 행세하며 지낸 것으로 믿어진다.

그러면 왜 어린 업(業)할아버지는 어머니를 모시고 복받고 살던 고장을 버리고, 더구나 그 아름다운 산과 대대로 모셔놓은 조상의 묘소마저 버리고 낯선 문경땅으로 오셨는지 그 사연을 알 길이 없다. 남편 충손(忠遜)공을 잃은 할머니 전주이씨(全州李氏)는 무슨 연유로인지 어린 아들 업공에게 책보따리를 등에 지워 손을 이끌고 남하하여 지금 우리 고장으로 이주해 오셨다. 외로운 객지에서도 업(業)공은 어머니의 정성으로 훌륭하게 자라 가문을 일으키셨다. 업(業)공은 외아들 구흠(龜欽)공을 키워 진사를 시켰고, 며느님은 당시 행세하던 상산김씨(商山金氏) 집안의 규수를 얻었다. 손자 셋을 보았는데, 둘째 손자인 재영(再永)공은 증우승지(贈右承旨)를 하였고, 증손자 종벽(宗璧)공은 증좌승지(贈左承旨)에 오르는 등 자자손손이 번영하였다. 그러나 우리들

후손들은 영주 직동(榮州稷洞) 거주 당시의 조상들의 거주상황과 그 복받고 살던 고장을 버리고 떠나오신 업(業)공모자의 심정을 알 길이 없어 답답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이주해 온 우리 조상들은 아늑한 골짜기에 생활터전을 마련하셨는데, 그곳은 앞으로는 기름진 큰 들판을 안고 마을을 감싸 구비쳐 흐르는 맑은 영강(潁江)을, 뒤로는 기축산이 북풍을 막아주는 양지바른 곳이다. 이 터가 자손만대에 길이 순성하라고 이름지은 영순포내동이다.

자손들은 학문을 닦고 원근 문장(文章)들과 교유(交遊)하며 시서를 읊으니 이곳을 기산영수(箕山潁水)라 칭송하고 은사(隱士)들이 묻혀 사는 곳이라 일컬어 왔다. (文集：瓚，春海公遺稿。基鎬，晚庵公遺稿。址鎬，翠庵公遺稿。參照)

뒤에는 箕山, 앞에는 潁水,
箕山潁水가 우리 고장일세!

이렇게 우리 조상들이 정성들여 가꾼 고장에서 자손들은 창성하고 번영하여 훌륭한 인물이 속출하였다.

이 고장의 자손들은 부지런히 학문을 닦고 正義에 사는 君子精神으로 살아왔다. 국가가 불운했던 한일합방(韓日合邦)시에는 의병(義兵)으로 충성을 다하였고 (義兵大將 李雲岡의 麾下, 崔瓚,

春海公：聞慶郡誌參照) 왜정때에는 선조들의 유지를 받들어 투철한 반일사상으로 관직에 나아가지 않음은 말할나위도 없고, 왜놈굴은 배우지도 말자고 단결하였다. 그러한 역경속에서도 학문을 게을리 하지 않아 대대로 문장이 끊어지지 않아서 조상의 문집을 만들고 마을 뒷산에는 정자(亭子)[春海公을 爲한 仰巢亭：嶺南樓臺誌 參照]를 짓고 조상묘소에 비석을 세우는 등 위선사업(爲先事業)에도 정성을 다하여 왔다.

10여년전에는 손길이 미쳐 닿지 못했던 경기도 평택 불지 선영에 모셔진 진사공(進士公) 할아버지 묘소를 단장하고

비석을 세웠으며, 위토도 마련하여 진사공 자손이 건재함을 과시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위선사업에 정성을 쏟은 자손들은 현재 대번영을 이루고 있는데, 조상들이 가꾸어온 고장 영순면 포내리에는 후손 약 70호가 화목하게 살고 있다. 그리고, 인근 점촌읍내에 10여 호, 서울에 20여 호, 기타 도시에 산재해 살고 있다. 그리고 충남 당진에도 80여 호가 집성촌을 이루어 살고 있다.

이들은 관계, 학계, 실업계 등 각계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어 복받은 자손답게 잘 살고 있다.

副 司 果 公 派

最 寓

(大宗會諮問委員)

부사과공파(副司果公派)는 15세손 예조판서 문정공(文貞公), 휘 숙(淑)을 파조로 한다. 부사과(副司果)는 문정공이 문과에 등과한 후 처음으로 받은 관직 이름이다. 부사과공파는 문정공이 처음으로 받았던 관직명을 파의 이름으로 붙인데서 유래한 것이다.

문정공은 13세손인 예문관 직제학 월파정(月波亭), 휘 관(關)의 손자이다.

월파정은 8세손인 문정공(文淸公) 휘 자(滋)의 세째 아들인 휘 유엄(有滄)의 고손자로서 일찌기 문과에 등과하여 예문관직제학에 등용되었다. 그러나 역사상 유명한 사실로 기록된 정도전(鄭道傳)의 매국불충론(賣國不忠論)을 써서 상소를 했다가 유배를 당했다. 그후 유배에서 풀려나 다시 직제학에 임명되었다가 나이가 들자 벼슬을 그만두고 홍주

(현 충남 홍성)로 낙향하여 후진 교육에 힘쓰며 여생을 보냈다. 이분의 묘소는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남장리에 있다.

부사과공파의 시조인 문정공은 일찌기 문과에 등과하여 종 6 품인 부사과직에 임용된 후에 예조판서를 지냈으며 나이든 후에 벼슬을 그만두고 역시 출생지인 홍주(洪州)로 낙향하셨다가 세상을 떠났다. 공이 서거한 후 조정에서는 ‘문정공(文貞公)’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문정공의 묘소는 홍주 향교 동쪽 뒷산에 쌍봉으로 되어 있으니, 이는 바로 홍성읍 대교리 후록, 속칭 ‘가재울’ 뒷산이다.

부사과공파 중 본거지인 홍주(현 홍성) 거주종파를 별칭 ‘홍안송파(洪安松派)’로도 호칭하는데, 이것은 기미보(己未譜)에도 부기되었다. 홍안송은 홍성군 홍동면 금마면 일대의 옛 지명이다. 홍안송파 중 종파인 ‘구정파(求精派)’와 지파인 ‘수란파(秀蘭派)’의 선조인 16세손 휘 준(濬)은 문과에 등과하여 이천부사를 지냈으며, 수란파의 선조인 21세손 휘 대립(大立)은 문과에 등과하여 종성 판관을 지냈다. 조선 말기에 문과에 등과하여 병조참의를 지낸 휘 침(琛)은 28세손이다.

부사과공파는 파조인 문정공의 아드님인 휘 준(濬)의 두 아들 위(瑋)와 근(瑾)에 이르러 다시 두 소파로 분파되

어 큰 아들 위는 ‘홍동 구정파(洪東求精派)’로 종파를 이어가고 있고, 둘째 아들 근은 ‘송지곡 수란파(松枝谷秀蘭派)’로 지파를 이루었다.

이처럼 부사과공파는 13세손인 예문관 직제학 월파정 휘 관(關)의 홍주 낙향과 15세손인 예조판서 문정공, 휘 숙(淑)의 홍안송 낙향으로 홍성 지방에서 자리를 잡고 번성해 온 것이다.

현재 부사과공파의 거주지별 분포를 보면(필자는 왕년 해주 최씨 종친회 당시 동회의 부회장과 족보 편찬위원회 부책에 있었으므로 족보 수단 사무 중 부사과공파분을 취급한 일이 있었는데, 이 분포 통계는 그때의 기억에 따른 것으로 대략적인 것이다.), 충남 홍성군 홍동면 일대에 약 50세대, 금마면 일대에 약 30세대, 갈산면 구항면 일대에 약 20세대, 충남 당진군 송산면 무수리 일대에 약 20세대가 살고 있다. 그 외 지역을 포함하여 경향 각지에 산재한 세대수를 합하면 약 200여 세대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런데, 최근에는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이므로 다시 조사하기 전에는 정확을 기할 수 없는 실정이다.

부사과공파의 생업별 현황을 보면, 농업에 종사하는 종친이 가장 많고, 젊은이들은 도시로 나가 여러 가지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를 필자가 아는

범위내에서 기술해 보면, 교육공무원 약 10명, 법조계 약 6명, 의사 2명, 은행원 3명, 언론계 2명, 경찰공무원 4명, 회사원 및 기업인 약 30명, 기타 자유업 등으로 나눌 수 있으나 정확하지 못한 것은 세대별 현황 파악의 경우와 사정이 같다.

최근 미국의 한 흑인 작가가 쓴 뿌리를 읽으며 많은 것을 느꼈다. 근자에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종친회다 화수회다 하여 종친들끼리 모임을 가지면서 족보를 펴낸다. 조상의 묘역을 미화한다 하여 위선사업(爲先事業)을 활발히 전개하는 것은 이 민족이 고대로부터 고유한 문화를 가진 민족이며, 조상을 알고 계통을 존중하는 민족이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우리 해주 최씨 대종회에서 일제 초엽에 기미보(己未譜)로 해주에서 대동족보를 편찬한 후에 족보 편찬이 없었다가 1957년 해방 후 처음으로

로 모인 종친회에서 족보편찬위원회를 조직하여 2년여에 걸쳐 족보를 편찬하고, 서울 서대문구 갈현동에 문헌공과 문화공의 영정을 모시고 향사(享祀)를 올리기도 했었다. 그후 여러가지 사정으로 위 종친회가 무산되어 안타깝고도 부끄러웠다. 다행히 수년 전에 몇 분 종친들이 뜻을 모아 본 대종회를 창설하고, 여러가지 사업에 착수하여 획기적인 몇 가지 일을 해냈으니 참으로 자랑스럽고, 다행한 일이다. 이제 종지(宗誌)까지 낸다 하여 창간호에 게재할 원고를 위촉해 왔으니 참으로 기쁜 일이다. 이 줄고(拙稿)가 부사과공파를 이해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부사과공파의 종친의 거주 분포 상황과 인명표는 다음 호에 실릴 기회가 있다면 그 때 실리기로 하고 여기서는 생략한다.)

全 南 支 會

鍾 燮

(全南支會副會長)

1. 창립경위

본 도내에서는 1965년 5월 15일 광주

를 시초로 해주최씨 광주종친회(海州崔氏光州宗親會)가 창립이 되어 200여명의 회원을 옹하는 종친모임을 갖게 되어

초대 회장에는 해옹(海鷹) 씨가 취임하였으나 1967년 용환(龍桓)씨로 개선(改選), 원활하게 회무가 집행되어 오던 중 뜻하지 않은 회장 병고와 광주사태 발발 등으로 연차총회의 중단 등 정돈 상태가 계속되어 회무가 정상화되기를 갈망하던차 1982년 10월 대종회(大宗會) 창립을 계기로 뜻있는 종친의 궐기에 힘입어 임원진(任員陣)의 재개편을 단행, 1983년 정기총회를 부활 소집하고 대종회 회칙 제 2조의 규정에 부응, 도종회(지회) 조직에 광주종친회가 모체가 되어 창립준비위원회를 결성, 동년 7월 27일에 나주(羅州)를 기점으로 함평(咸平), 무안(務安), 목포(木浦), 신안(新安), 영암(靈岩), 강진(康津), 진도(珍島), 보성 동서부(寶城東西部), 고흥(高興), 여수 여천(麗水 麗川), 순천 승주(順川 昇州), 곡성(谷城), 담양 동북부(潭陽 東北部), 장성(長城), 화순(和順), 광주(光州)와 영광(靈光), 완도(莞島), 해남(海南), 광양(光陽) 등 18개 시군 종친회를 조직 또는 재편성하는데 준비위원들의 직접 순회 지도 방법으로 동년 10월 말까지 완료를 보았으며 동년 11월 5일에는 도종회의 창립총회를 대종회 회장(대리) 임석하에 성대하게 그리고 의의깊게 엄수된 것은 우리 도종회사에 길이 남을 것으로 믿는다.

2. 임원명단 및 지역별 종친회 구성 및 거주분포는 별지와 같음.

3. 사업 추진 상황 기타

(가) 운영위원친목회설치(運營委員親睦會設置)

1984년 9월부터 광주시에 거주하는 도내 각 시군 계파(系派) 중에서 30명 정도 희망 종친들로 구성, 격월 6일 시내에서 회합, 친목단결을 도모하고 도내 종중사를 논의 추진결행하며 성원하는 모임으로 하고 있음.

(나) 삼장사논쟁(三壯士論爭)참여

1981년 문공부에 최씨 김씨 고씨가 공동 제소 사안 심의중에 있으나 고증 제출만 요구하고 있어 종결을 보지 못하고 있으나 1985년 3월까지 수차 보완하고 있는 상태임.

(다) 사적지(史蹟地) 유물(遺物) 순례 답사 기록 보존

최경희 장군 사적지를 위시, 선대 조상의 사적지를 답사, 사진으로 수록하고 교지, 서한, 노획품 등 유물을 소재 확인하고 있음.

(라) 묘비건립사업(墓碑建立事業)

임진왜란(壬辰倭亂), 정유재난(丁酉再亂)을 당하여 순국하신 17세(世) 경운(慶雲)선조와 그 아드님이신 18세(世) 홍재(弘載) 선조의 묘비를 건립하지 못

하고 있던 차 그 후손들의 헌성과 도중회 성원하에 1984년 5월 12일 건립 준공을 봄.

(마) 묘역사업과 문집출간(墓域事業 文集出刊)

14세(世) 영랑장공(領郎將公) 안택(安澤) 15세(世) 승지공(承旨公) 윤범(尹範) 선조의 묘비 건립 묘역 정비와 일휴당집(日休堂集) 육의록(六義錄) 번역 출간 사업이 추진되어 1985년 11월 18일 완료, 준공예정으로 소몽(所蒙) 후손의 헌성(獻誠)에 도중회에서 적극 성원하고 있음.

(바) 포충사(褒忠祠) 건립 추진

17세(世) 충의공(忠毅公) 최경희장군(崔慶會將軍)을 모시는 포충사가 화순군 한천면 모산리(和順郡 寒泉面 牟山里)에 소재하고 있으나 1632년 건립한 노후퇴락한 건물일 뿐만 아니라 환경 등 극히 부적하여 당국에 새로이 건립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제반 규제로 후손은 물론 화순군민의 숙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도중회의 큰 관심사로 되어 있음.

이상과 같이 해주 최씨 전라남도중회는 총회찰요(總會撮要)를 1984년 3월 1일에 발간하여 종친 여러분께 배부하였으며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표어를 내세워서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서 예의 바른 인물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顧問 및 任員名單(無順)

顧	問	基永	俸鎭	正鉉	宗鉉
		興鎭	佑鉉	判五	龍珠
		炳洙	泳鶴	東洙	起雲
		明奎	喜淳	龍文	承九
		潤模	有相	龍桓	永桓
		致萬	熙鎭		
會	長	洙東			
	常任副會長	鍾燮			
	副會長	萬述	德澹	達演	宗鉉
		元鍾	平雄	東鎬	
	監事	泳洪	南鉉		
	幹事長	泳鳳			
	總務幹事	吉柱			
	財務幹事	榮鉉			
	組織幹事	湘鎬			

地域別宗親會構成 吳 居住分布表

十二世	系派	市郡														計									
		光州	木浦	順天(昇州)	羅州	靈岩	康津	珍島	寶城(東)	寶城(西)	高興	麗水(麗川)	谷城	潭陽(東)	潭陽(北)		長城	和順	務安	咸平	其他				
	(十五世) 縣監公	20					80																	世帶 100	
	佐郎公																								
	生員公																								
	進士公																								
	典翰公	20				70																		90	
	承旨公	200	50	80	70		70	160	150			120	170	90	530	140	30	1,320						3,180	
	進士公 (尹望)	40								65				90										90	285
	將仕郎			100																				45	145
	進士公 (尹卓)														30									20	50
	左尹公																								
	御史公	10															90							90	100
	計	290	50	180	70	70	80	70	160	150	65	120	170	90	560	140	120	1,475						3,950	

嶺 南 支 會

用 根

(嶺南支會長)

우리 해주 최씨는 천년이라는 유구한 역사를 지켜오면서 많은 선조들이 높은 벼슬을 얻었고 후세에 빛나는 업적을 남겼으며 아름다운 교훈을 후손에게 이어주고 선행과 덕행을 행하고 학문을 숭상하였으니 실로 영광스러운 가문이 아닐 수 없다. 이런 것은 모두 문헌공 할아버지의 가르치심과 학덕이 후손에게 자신감을 주고 올바르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은덕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정신을 받들어 대종회가 발족하고 영남지회가 활발하게 활동하게 되니 실로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영남은 예로부터 훌륭한 인재가 많이 나왔으며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 꿋꿋한 기개가 있으며 국가와 민족이 수난을 당하면 용감하게 싸웠다고 지봉유설(芝峰類說)에 기록하고 있다.

인걸(人傑)은 지령(地靈)이란 말이 있듯이 북에는 태백산이 있고 남에는 지리산이 있으며 황지(黃池)에서 솟는 낙동강 7백리는 영남인의 젖줄인 것이다.

이런 고장에서 우리 종회가 이루어지고 활발하게 종친들이 모이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리하여 1982년 11월 대구직할시 중구 대신동에서 여러 종친들이 모인 가운데 해주 최씨 영남화수회(嶺南花樹會)가 창립되었다. 이 자리에서 초대 회장에는 영석(榮錫) 종친이 추대되었으며 부회장에는 남규(南奎) 종친이 추대되고 간사장으로 태봉(泰峰) 종친이 뽑혔다.

그동안 선조의 유업 계승과 종친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등 활발한 사업을 전개하였다. 문헌영당(불지)과 대동영당(영천) 등지에 젊은 종친들이 참배하도록 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여러 운영위원님들이 의무부담금을 연간 1만원씩 자진 납부하여 지회 활동에 큰 활력소가 되고 있다.

1984년 운영위원회에서 임원 개선이 있었는데 제 2대 회장으로 불초(用根)가 뽑히게 되는 영광을 받았다. 비재천학하여 아직 큰 사업을 이루지는 못

■ 各系派 및 地方宗親會

하고 있는 형편이다.

앞으로 지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회세(會勢) 확장에 수반될 시·군 단위 지부 조직에 최선을 다할 각오이며 기타 여러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

영남 지방의 종친 분포 상황(별항, 종친 명부 참조)은 좌랑공파, 생원공파, 진사공파, 승지공파, 전서공파가 집성촌을 이루고 있고 감찰공파, 현감공파 등 세파와 실향 종친이 수십 가구 산재해 있는 실정이다.

중요한 유적지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慶北 永川郡 琴湖邑 大美洞

(大東影堂. 晚湖亭)

慶北 漆谷郡 梁山面 多富洞(永慕齋)

慶北 義城郡 安平面 廣岩洞

(雙孝子碑閣)

慶北 延日郡 延日面 自明洞(遠慕齋)

慶北 軍威郡 山城面 白鶴洞(景江齋)

慶北 聞慶郡 永順面 浦內洞

(追遠齋. 仰巢亭)

慶北 醴泉郡 知保面 首月洞(閭吾亭)

慶北 蔚珍郡 蔚珍邑 新林洞

(處涯公褒彰祠)

慶北 盈德郡 寧海邑 事務所庭

(慶會府使善政碑)

慶南 晋州市 晋州城 彰烈祠

(慶會將軍位牌)

이제 영남 지회에서 할 일이 많이 있다. 대동영당을 비롯하여 많은 유적지를 보수하고 미화작업을 하는 것이라든지 좌랑공파보 등을 만드는 일 등이 있으며 또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다.

끝으로 본 대종지(大宗誌)를 편집 제작하기에 수고하시는 종지편찬 위원장 태호(台鎬) 종친을 비롯하여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영남지회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會 長 用根

副會長 海鎮 南奎 彥鎬 俊錫 世雄

成男 永佑

顧 問 尙鶴 榮錫 元默 鎮濤 碩

源浩 淳鍾 在厚

幹事長 泰峰

幹 事 榮一 銅洛 榮得

監 事 鍾宅 榮華 東根

禮 山 支 會

翼 列

(禮山支會長)

1. 창립 경위

본 지회의 창립 취지는 우리 해주 최씨 대종회 발족에 맞춰서 그 맥을 같이 한다. 대종회 회칙 3조에 “본 회 설립 목적은 선조의 위업을 기리고 종친간의 친목을 돈독히 하는 한편 후손들의 무궁한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했는데 본 지회에서도 그 뜻을 같이 하여 지회를 결성하게 된 것이다.

1984년 4월 29일 예산읍 반공회관에서 약 120여명의 종친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지회의 창립총회를 가졌다. 이를 위하여 창우, 현섭, 명록, 진성, 형식 등 여러 종친께서 군내 각 읍면 사무소 및 연고지를 수개월간 순회하며 명단을 입수하고 뜻을 모은 결과 이러한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이날 총회에서는 제16장 21조 부칙으로 된 회칙을 통과시키고 임원 선출을 하였고 친목도모로 흐뭇한 광경이

벌어졌다. 특히 창우 종친이 수건 200점을 종친에게 나눠주었고 많은 분들이 즉석에서 헌금을 하여 본 지회 발족에 적극 협조하였는데 같은 후손으로 태어난 영광과 기쁨을 나누고 해주 최씨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을 갖고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2. 임원 명단

회 장 : 익렬(翼列)

부 회 장 : 영화(永和), 도현(都鉉),
복성(福成), 진각(鎭珪)
창갑(昌甲)

간 사 장 : 창우(昌宇)

총무간사 : 금중(金鍾)

간 사 : 석환(錫煥), 종화(鍾華),
현섭(賢燮), 종옥(鍾玉),
광복(光福), 도식(道植),
화선(和先), 만수(萬洙),
학수(鶴壽), 광학(光學),
창구(昌求), 명록(明綠),
병권(炳權), 광조(光祖),

창우(昌雨)

감 사 : 진성(鎭成), 형식(潛植)

3. 지역별 거주 분포

예산군은 2개읍 10개 면으로 행정 구역이 나뉘져 있는데 현재 조사된 세대수는 총 217세대로 나타나 있으며 지역별 거주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예산읍 66세대
2. 삽교읍 21세대
3. 고덕면 29세대
4. 봉산면 2세대
5. 광시면 6세대
6. 대술면 5세대
7. 대흥면 6세대
8. 덕산면 2세대
9. 신암면 24세대
10. 신양면 1세대
11. 오가면 25세대
12. 응봉면 30세대

4. 사업 추진 상황

본 회칙 제 4조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제 4조 본회는 전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실시한다.

1. 선조의 위업을 봉양하고 추모하는 사업.

2. 회원의 대동단결을 위한 경조사에 상부상조.

3. 대종회 운영위원회 참가, 문헌영당 참사(參祀)

4.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부합되는 사업.

금년도 문헌영당 참사에는 농촌 지역의 특성 때문에 전부 참여하지 못하고 임원진이 대표로 참례했으나 내년에는 많은 종친이 참사할 예정이다.

대종회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예산 지회 종친으로는 도현, 창우, 현성씨가 있다. 앞으로 많은 분들이 대종회 활동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대종회 발족 취지를 홍보하고 위대하신 문헌공 할아버지의 초상 및 사적을 한글로 번역하여 전 회원에게 배포하였다. 그리고 자라는 어린 후손들을 1984년 7월 29일 응봉면 후사리에 모이게 하여 문헌공 할아버지의 업적을 설명하고 선조에 대한 여러모를 알리는 교육을 실시하였다. 응봉면은 30여 세대가 모여 사는 집성촌이다. 이날 150근짜리 돼지 한 마리를 잡아서 군내 종친들이 모여서 잔치를 했고 임시총회도 가졌으며 친목을 도모했다.

회원 명부는 회칙 뒤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先祖의 爲學精神宣揚

—校理公派의 文憲獎學會—

萬 基
(文憲獎學會長)

우리 海州崔氏의 先祖이신 海東孔子 文憲公의 빛나는 教育理念을 받들어 門中子弟들을 爲한 教育의 機會擴大와 아울러 英才養成을 目的으로 하여 1976年 5月 16日 發足を 보게 된 校理公派 文憲獎學會는 그間 10회에 걸쳐 (註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年度) 門中 該當 學生들에게 獎學金을 支給한 바 있습니다.

基金事情등으로 하여 비록 넉넉한 金額은 支給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 門中은 우리가 뜻하는 바 그 重要性을 認識하고 또, 그 成就를 爲하여 한걸음 한걸음 前進하고 있다는 事實에 對하여 自信과 기쁨을 함께 해야 할줄로 믿는 바입니다.

굳이 敷衍하여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教育과 人間은 絶對不可分の 關係에 있기 때문에 教育은 우리 人間의 權利요 또 義務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門中の 많은 子女들은, 不幸하게도 避難生活이라고 하는 經濟的인 不遇한 環境때문에 權利요 義務인 教育의 機會를 享有하지 못한 것이 事實입니다.

勿論 先進國과 같이 福祉를 누리는 社會에서는 才能만 뛰어나면 自身의 生活環境과는 關係없이 教育의 機會를 누릴 수가 있겠지만, 우리의 現實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보면, 아무리 英才라 하더라도 自己의 才能을 꽃피우지 못하는 境遇가 許多히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矛盾과 弊端을 是正하려는 努力은, 國家的인 次元에서도 活潑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個人의 立場에서 볼 때에는 아직도 遙遠한 問題가 아닐 수 없습니다.

勿論 뜻있는 篤志家들과 企業體나 團體들은 獎學事業의 意義와 重要性을 스스로 認識하고 積極的으로 힘을 기울이고 있어서 많은 學生들이 그 惠澤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우리는 흔히 緣을 말할때 血緣, 地緣, 社緣을 꼽습니다만 血緣以上 깊은 因緣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本人은 그만큼 門中獎學事業은 값지고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우기 우리 海州崔氏는 歷史的으로 한나라 한 時代(高麗朝)의 文運을 振作시킨 先祖(文憲公) 以來 代代로 훌륭한 文班으로서의 자리를 굳혀온 家門이었다는 事實에 想倒할 때 더한層 後進教育의 重要性이 要求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이 장학사업이 海州崔氏 전문중으로 확산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先祖의 偉業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참고가 될까하여 文憲獎學會의 規約을 全文게재 하는 바입니다.

文憲獎學會 規約

第1條(名稱) 本獎學會는 文憲獎學會(以下本會라 稱함)라 稱한다.

第2條(目的) 本會는 海州崔氏先祖인 海東孔子文憲公의 빛나는 爲學精神과 教育理念을 받들어 校理公派子弟들의 教育振興과 英才培養을 그 目的으로 한다.

第3條(事業) 本會는 前條의 目的達成을 爲하여 다음과 같은 事業을 行한다.

1. 獎學生의 選拔 및 獎學金의 支給
2. 門中의 英才育成을 爲한 支援事業
3. 其他 本會目的에 附合되는 事業

第4條(事務所) 本會의 事務所는 서울特別市에 둔다.

第5條(構成) 本會는 海州崔氏 校理公派宗親으로 構成하여 特別會員과 一般會員으로 區分하고 會員有故時는 그 家督相續者가 承續토록 한다.

特別會員은 金壹拾萬원 以上을 寄附한 宗親으로 하고 一般會員은 金壹萬원 以上 寄附한 宗親으로 한다.

第6條(會員의 權利義務) 本會會員은 누구나 本會運營에 參與할 수 있으며 任員의 選舉權과 被選舉權을 갖는다.

第7條(任員) 本會는 下의 任員을 둔다.

顧問 若干人

會長 一人

副會長 三人

運營委員 五人以上

監事 二人

幹事長 一人

第8條(選任) 會長은 宗親會總會에서 選出하되 被選舉 權은 特別會員으로 하며 運營委員은 會員總會에서 選出한다.

監事는 本會會員中에서 宗親會總會가 選出한다.

幹事長은 會長이 任命하고 運營委員會의 追認을 받는다.

第9條(任期) 任員의 任期는 滿2個年으로 하며 必要에 따라 連任할 수 있다.

第10條(任務) ①會長은 本會를 代表하여 會務을 統理하고 各種會議에 議長이 된다.

但 會長은 年1回 獎學會運營狀況을 宗親會總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②運營委員은 本會運營에 關한 各種 重要事項을 協議決定한다.

③監事는 本會財産의 管理와 業務執行을 監査하고 이를 會員總會에 報告하며 各種 會議에 參席하여 意見을 말할 수 있다. 但 議決에는 參加하지 못한다.

④幹事長은 會長의 命을 받아 本會의 一切 業務를 處理한다.

第11條(會議) 本會는 會員總會와 運營會議로 區分하며 會員總會는 年1回 宗親會總會日에, 運營會議는 必要에 따라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

第12條(議決) ①會員總會에서는 다음 事項을 議決한다.

1. 運營委員의 選出

2. 豫算, 決算의 承認

3. 事務計劃의 承認

②運營會議는 다음 事項을 議決한다.

1. 運營細則制定에 關한 事項

2. 獎學金支給에 關한 事項

3. 資産의 管理運營에 關한 事項

4. 其他本會運營에 關한 事項

③各種議決은 多數決을 原則으로 하나 可否同數일 때에는 議長이 이를 決

定한다.

第13條(資産) 本會의 資産은 本會名義로하며 現金의 銀行預入과 引出도 會長이 委囑하는 三人以上의 運營委員共同名義로 한다.

第14條(基金의 運用) 本會의 基金은 銀行에 長期信託預金을 原則으로 하고 每年 獎學金의 支給은 預入된 元金의 利息으로 充當토록 한다.

第15條(規約의 制定) 本規約은 宗親會總會에서 이를 制定通過시킨다.

附 則

本規約은 通過된 날로부터 그 效力을 發한다.

1976年 5月 16日

海州崔氏 宗親會定期總會
校理公派

獎學金 支給에 따르는 運營細則

第1條(目的) 本 細則은 獎學金의 給與方法和 對象者의 資格 및 選拔方法 그리고 義務를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獎學金) 獎學金이라 함은 優秀한 成績으로 大學校에 入學한 者와 學業成績이 大學校에서 B學點 以上 되는 學生에게 無償으로 給與하는 學費補助金を 말한다.

第3條(給與對象者) 海州崔氏校理公派의 子弟로서 才能은 豊富하나 家勢가 貧寒하여 學業을 계속할 能力이 없는 學生을 對象으로 한다. 但, 이미 學校나 타 機關으로부터 獎學金을 받고 있는 學生은 除外한다.

第4條(給與對象) 給與할 對象 및 人員數 等은 豫算을 勘案하여 그때 그때 運營委員會議에서 이를 定한다.

第5條(給與金額) 1人當 獎學金의 給與額은 運營委員會議가 이를 定한다.

第6條(給與期間) 獎學金의 給與期間은 每學年末까지로하고 每學年 初에 給與한다. 但, 本細則이 定하는 바에 따라 缺格이 된 者는 그 時點까지로 한다.

第7條(申請) 本會로부터 獎學金을 받고자하는 者는 다음 書類를 具備하여 申請하여야 한다.

- | | |
|--------------------|----|
| 1. 申請書(本會所定) | 壹通 |
| 2. 譜書(乙卯譜) 該當欄 寫本 | 壹通 |
| 3. 學校長 推薦書 | 壹通 |
| 4. 學業成績表 | 壹通 |
| 5. 住民登錄謄本 | 壹通 |
| 6. 財產證明書(재산세 납세필증) | 壹通 |
| 7. 寫眞(學生) | 貳枚 |

第8條(獎學金の 給與中止) 다음 各號에 該當하는 者는 獎學金の 支給을 中斷한다.

1. 學期末 成績이 第2條 規定에 未達되는 者
2. 休學, 停學 또는 退學처분을 받은 者
3. 軍에 入隊한 者

第9條(獎學生의 義務) 本會에서 獎學金을 받는 者는 더욱 學業에 熱中하여 本會 設立趣旨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여야하며 本人의 修學狀況은 勿論 身上의 變化가 있을 때는 이를 獎學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特히 獎學期間이 만료되어 社會에 進出한 뒤에도 身分上의 關係를 通報해야함은 勿論 本會發展에 積極 協力을 하여야 한다.

附 則

本 細則은 1977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祝)

宗 誌 創 刊

(株) 瑞 進 企 業

代表理事 崔 良 燮

會社 : 서울 城北區 普門洞 7街 120-1

電話 95-8166, 95-4244

自宅 : 서울 道峰區 水陰洞 2街 538-17

電話 993-6726

선조의 안식처 집성촌 ‘불지’

在 夏 記

(서울시교육위원회시설과)

경부고속도로를 따라 서울로부터 1시간쯤 달리면 안성 평택 인터체인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약 4km 앞 지점에서 보면 동쪽으로 연꽃처럼 피어오르는 봉우리가 나타나는데 이름하여 백련봉(白蓮峰)이라 한다. 이 백련봉 아래에는 해주 최씨가 500여년간 살아왔던 집성촌 불지(佛智)라는 마을이 옛 아래 마을로 나뉘어져 있다. 현재 행정 구역상으로는 경기도 안성군 원곡면 지문리(元谷面 芝文里)가 된다. 옛날에는 70여호의 큰 집성촌이었지만 지금은 젊은이들이 도시로 진출하여 35호정도가 남아 있는 정도이다.

백련봉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봉우리들이 모두 종산으로 144정보의 임야가 있으며 주위의 전답이 약 30% 정도가 위답, 종답으로 되어 있어 이것으로 가을 시제를 지내고 있다. 백련봉 가운데 줄기에 소위 ‘대감산소골’이라는 선조의 산소와 비석이 고색을 머금고 있는데 이곳은 옛부터 우리나라 사인(私人)이 묻힐 수 있는 십길지지(十吉之地)

중의 하나라고 한다. 이 때문에 왜정시대에는 일인들이 백련봉의 아람드리 나무를 벌목하고 산허리를 끊어 놓았다고 하는데 지금도 그 자취가 남아 있다.

우선 부제학공의 아버님이신 13세 소운공(荷)의 산소가 있고 그 아래 부제학공(萬理)의 산소가 있다. 영조조에 영의정이었던 충정공(奎瑞)의 산소도 여기에 모셔져 있다. 부제학공의 아드님이 다섯분인데 현감공(塙)의 산소는 진위(振威)에 있고 다섯째 전한공(堧)의 산소는 고양군 벽제면 선유리(仙遊里)에 있고 둘째 좌랑공(塙), 세째 생원공(塘), 네째 진사공(垠)의 산소는 모두 불지에 모셔져 있다. 그외 21세 늑촌공(櫟村公)의 묘소를 비롯하여 많은 선조들이 모셔져 있는 곳이 불지이다.

세종 26년(1444), 2월 20일 부제학공은 세종대왕에게 ‘언문반대상소’를 올리지만 세종께서 함께 상소를 올렸던 김문(金汶)과 정창손(鄭昌孫)에게만 벌을 내리고 모두 복직시키지만 강직한 성품으로 도의적 책임을 지고 낙향하여

세종 27년(1444 乙丑) 10월 23일 작고하여 불지 백련봉 아래에 영면하게 된 것이다. 세종조의 청백리이었으므로 산소에는 부장물이 없다고 하며 지금의 종산은 영조조의 영의정이신 충정공(奎瑞)께서 영조대왕으로부터 하사를 받아 묘역을 갖추었다고 한다.

일설에는 부제학공이 사셨던 곳이 진위(振威)로 지금의 송탄시 도일동이라고 하는데 집터에는 아직도 커다란 향나무가 자라고 있다. 큰 아드님이신 현

감공(塙)을 일찍 여의시고 바로 앞산에 묘를 쓰고 바라보았다고 한다.

불지에는 문헌공(文憲公)과 문화공(文和公)을 모신 문헌영당(文憲影堂)이 있어서 매년 4월에는 대종회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전국 각지에서 300여명의 종친들이 모이곤 한다. 또한 충정공(奎瑞)이 영조대왕으로부터 받으신 일사부정(一絲扶鼎)이라는 어필과 영정을 모신 어서각(御書閣)이 있어 옛날을 말해주고 있다.

佐郎公 일부 후손들의 집성촌

—칠곡군가산면학산계와 군위군산성면백학동계—

泰 峯 記

(嶺南支會幹事長)

1. 칠곡군 가산면 학산(架山面 鶴山)
대구 직할시에서 북쪽으로 약 20킬로 올라오면 구안국도변(邱安國道邊)에는 6·25전란 때의 최격전지(最擊戰地)였던 다부동 전승기념관(多富洞戰勝記念館)이 우뚝 솟아 있어 관광명소로 이름 높은 곳이 있다. 그 언덕을 이름하여 다부현(多富峴)이라고 하는데, 이곳에는 우리 해주최씨 좌랑공파 후손들의 입향시조(入鄉始祖)인 시조로부터 21세손 해관(海觀) 시남(是南)의 묘소가 있다.

해관은 세종조(世宗朝)의 청백리(清白吏)로 명망 높던 학자 강호산인(江湖散人) 만리(萬理)의 8세 손이기도 하고, 선조(宣祖) 때의 문신으로 유명한 월담(月潭) 황(滉)의 6촌형인 사(泗)의 손자이기도 하다. 해관은 원래 지금의 경기도 안성군 불지(安城郡 佛芝)에서 살고 있었는데,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義兵)에 들어가 왜군을 물리치기에 전력을 다하다가 역부족으로 전국이 왜병들에게 유린되기에 이르러 미혼(未

婚)의 혈혈 단신으로 지금의 경북 선산군 산동면 백현동 상응현(곰재)으로 피란을 하며 세월을 보내다가 일선김씨(一善金氏)의 규수를 배위로 맞아 살았다. 성가하여 살만하게 되었을 때에 불행히도 배위를 사별하게 되니, 더 이상 그곳에 머물러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선산의 금오산(金烏山)을 향하여 이거를 계획하고 가던 중 산자수명(山紫水明)한 자연 경관에 마음이 끌려 잠시 머물기로 한 곳이 지금의 칠곡군 가산면 학산동 둔현(듬치)으로 오늘의 집성촌을 이루게 되었으며, 그 뒤 후손들은 입향시조를 모시면서 선조님들의 유훈에 따라 청검(淸儉)과 근신(謹愼)으로 처세하여 크게 번창하였다. 지금은 대구와 경산(慶山), 반야월(半夜月), 울릉도(鬱陵島) 등지로 흩어지기는 하였지만 수 백세대에 이른다.

이 들판 마을은 유학산(遊鶴山)과 황학산(黃鶴山), 소학산(小鶴山)의 3학산이 병풍처럼 감싸고 있는 언덕배기에 자리하고 있다. 기암괴석과 울창한 삼림은 예로부터 상서로운 새로 유명한 학들이 머물기에 알맞은 곳이다. 이 마을은 자연 경관의 아름다움 외에 풍수도참(風水圖讖)으로도 명당중의 명당(明堂)으로 소문난 곳이다. 이 3학산의 지명연기설화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 오고 있다.

옛날에 어떤 문중에서 유학산에 산소를 썼다가 천장(遷葬)을 해야만 하게 되어 날을 잡아 일을 피하는데 이장 전날 밤에 상주의 꿈에 백발노인이 현몽하여 “그대는 천장을 하지 말고 그냥 저 아랫마을로 자리를 옮겨 살기만 하면 후손들이 모두 부자가 될 것이다.”라면서 사라져 버렸는데, 상주는 이상히 생각하면서도 이미 계획했던 일을 어쩔 수 없어서 그대로 이튿날 파묘를 하였다. 그랬더니, 묘소 안에서 황학, 백학, 소학의 세 마리 학이 안개와 함께 날아나와서 세 방향으로 날아가 앉았으므로 황학이 앉은 산봉을 황학산, 백학이 날아가 머문 산을 유학산, 소학이 내린 산봉을 소학산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하며, 부자가 많이 나기 때문에 마을 이름은 다부동이라고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 학산동 안에는 국가에 큰 변란이 있을 때마다 울었다는 천년 묵은 은행나무가 있으니, 어른들의 양팔을 벌여 5명이 감싸도 다 감싸지 못한다. 신라시대 사찰 경내에 심어졌던 것으로 추정되는 이 은행나무는 구한말 청일전쟁, 세계 제2차대전 등이 일어날 때에도 울었다고 한다. 6·25동란이 일어나기 직전에는 며칠 전서부터 은행나무가 울었는데 그 울음 소리가 마치 구식 탈곡기가 벼를 터는 소리와 같았다고 아직

도 생존해 있는 촌로들은 당시를 회상하며, 이 나무를 신수(神樹)라고 한다.

특히 우리 해주최씨들의 이 고장 입향 시조인 해관공은 6·25동란시 다부동 전투에서 우리 국군들이 대승할 수 있도록 음조(陰助)를 하여 준 호국신령(護國神靈)으로 인정되어 지난 1956년 10월에 낙동강 사수(死守)의 최후 보루로서의 지리적 요해지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해야 했던 전화(戰禍)로 퇴락해 버린 묘소를 정비하고, 묘비를 세워 제막할 때에 당시의 육군참모총장이던 백선엽(白善燁) 대장(大將)은 다음과 같이 그 사실을 밝혀 축사를 하였다.

해주 최공(海州崔公) 해관(海觀) 선생의 묘소에 수갈(豎碣)하심을 당하여 소생은 삼가 선생의 명복을 빕니다. 학덕이 겸전하신 선생께옵서 학이불사(學而不仕)하시고, 향리교육의 열의로 후생을 양성하여 주신 유세(遺世)의 높으신 윤덕(潤德)과 유적을 소생은 충심으로 경모하는 바입니다.

특히 경인홍(庚寅訃)인 6·25동란 당시 소생은 대한민국 육군 야전군 사령관으로서 선생의 묘지이신 다부원 전투에서 선생 성신(聖神)의 엄호(掩護)를 입어 적군을 격파하고 청사에 남길 전첩(戰捷)을 이룩한 것이 선생의 만년 유택(幽宅)을 정하고 계시는 다부현(多富峴), 소야현(所也峴)임을 소생은 명

심하고 있는 바입니다. 선생의 영전(靈前)에 삼가 고하노니 경인홍의 전투에서 선생의 묘전 석물에 적탄의 불의 파흔(破痕)을 끼치게 되온 것을 마음 깊이 송구하게 생각하옵고 선생의 14세손 병권(秉權) 국회의원에게 좌청(佐請)하여 수갈 판력(豎碣辦力)의 미성(微誠)을 올리어 선생의 높으신 학덕을 후세에 영원히 빛내옵는 성전(盛典)과 아울러 선생의 명복을 빌어 수갈 제막식의 축사를 삼가 올리나이다.

병신년 10월 15일 육군대장

백선엽(白善燁)

해관공이 이 고장에 정착한 이후 그의 아들 금복(今福)은 군자감정(軍資監正)을 지냈고, 차손 손립(遜立)은 공조참의(工曹參議)를 지냈으며, 손립의 아들 명득(命得)은 한성부윤(漢城府尹)을 지냈으며, 5세손인 여휘(汝輝)는 호를 송헌(松軒)이라고 하며 부호군(副護軍)사과를 지냈으며, 여적(汝迪)은 수직(壽職)으로 가선대부(嘉善大夫)의 산직을 제수받기도 하여 가문(家門)의 성예(聲譽)를 드높이는 한편 후손이 번창하였으니, 아마도 후손들이 잘 되어 사회와 국가에 공헌하도록 해관공의 음조(蔭助)가 있었던 듯하다. 앞으로도 더욱 자손이 흥륭(興隆)할 수 있도록 후손들의 단결과 번창을 감호해 주실 것을 기원하면서 많은 후손들은 끊임없이

이 입학 시조의 묘역을 봉심하고 있다.

2. 군위군 산성면 백학동(山城面 白鶴洞)

대구의 팔공산(八公山) 줄기를 낀 북편 깊숙한 산간 마을인 군위군 산성면 백학동은 우리 해주 최씨들의 좌랑공파(佐郎公派) 자손들이 용기종기 모여 살고 있는 집성촌이다. 마을 입구에는 풍우상설(風雨霜雪)에도 고풍 구태를 잃지 않고 “경강재(景江齋)”라는 현액(懸額)에 가문을 상징하는 재실(齋室)이 있다.

이 마을에 우리 해주 최씨들이 처음 정착하게 된 것은 선조 때 문신으로 이름 높았던 월담(月潭) 황(滉)의 증손(曾孫) 춘강(春江) 금휘(今輝: 초휘 今秀)가 인조 16년(1638)에 발붙이게 됨으로부터 비롯된다. 춘강공은 광해군 13년(1621)에 월담의 손자로 평안도 관찰사 겸 병마절도사를 지낸 현백(賢栢)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강원도 강릉 서면 진부동(西面珍富洞)에서 다복하게 자라다가 인조 4년(1626) 6세 때에 아버지를 여의고, 14세 때인 인조 12년(1634)에 다시 어머니를 여의어 실의에 빠져있을 때에 같은 마을의 군리(郡吏) 이언보(李彦甫)가 무남독녀로 데릴사위 겸 친자처럼 사랑을 주어 마음의 안식을 찾아 잘 살아가기 시작할 즈음하여 병자호란(丙子胡亂)이 일어나 민심

이 흉흉할 때에 어떤 무리들이 찾아와 전일 나라에 공이 크신 월담공의 후손들을 잡아가려 한다는 소문이 돌아 이언보는 미모의 여식과 함께 금휘를 데리고 함께 은신할 것을 결심하고 고향을 등지고 각처를 전전하다가 마침내 지금의 춘강공 묘소가 있는 창평동 신원 가지등(昌坪洞 薪院 可芝燈) 자리에서 잠시 쉬는 중에 남쪽 팔공산 중턱에 백학의 무리들이 한가로이 날고 있는 것을 보고 학이 사는 곳은 사람도 살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하고 그 학의 무리가 서식하고 있는 곳을 찾아가 새 삶의 터를 잡은 곳이 바로 지금의 집성촌을 이루게 된 백학동이다. 춘강은 이언보의 딸 경주이씨와 결혼하여 빈한한 가운데 학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 남편의 깊은 뜻을 안 이씨부인은 콩가루 손칼국수를 잘 하는 뛰어난 솜씨로 온 동리의 음식을 마련해 주면서 남편의 뒷바라지에 온갖 정성을 다하여 춘강공 20세 때인 인조 18년(1640)에는 향시에 합격하여 몰락할 뻔하였던 가문의 성예(聲譽)를 회복하여 향반(鄉班)으로 뿌리내려 오래도록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게 되었다. 춘강은 숙종 32년(1706) 4월 17일에 86세를 일기로 파란 많은 생애를 마치면서 만년 유택을 이 고장에 처음 입학하게 된 쉼터였던 현묘소지에 정할 것을 유언으로 남겨 지금

까지 그 지하에서 자손의 후일을 감호(監護)하며 명계에서 편히 계신다. 지금은 춘강의 장자 애운(愛運), 차자 기운(起運), 계자 상운(祥運)의 후손들이 각처에서 흩어져 살면서도 음력 10월

15일의 시제 때면 입향시조를 비롯한 4부자분들의 묘소를 돌며 묘사(墓祀)를 올려 경조(敬祖)의 미풍(美風)을 철저히 지켜 전통화하고 있다.

佐郎公派 후손의 龜溪洞

晚 秀 記

경상북도 의성군 단촌면 구계동(丹村面 龜溪洞)은 대구 직할시에서 북상하여 군위를 지나 안동에 이르기 전의 의성군 북부 지역인 단촌면 소속의 조그만 부락이다. 이 마을은 안동에서 직접 구계동까지 가는 완행버스가 있어서 태백산맥 끝부분의 오지(輿地) 치고는 교통편이 꽤 좋은 편이다. 이 마을 북쪽에는 신라 신문왕(神文王) 때에 창건되어 고운(孤雲) 최치원(崔致遠)이 수도하였다는 고운사(孤雲寺)가 있는 기암 괴석으로 경치가 아름다운 등운산(滕雲山)이 진산(鎭山)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서남쪽으로는 비봉산(飛鳳山)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는 산자수명한 곳이다.

1960년대 이후 급격한 사회 변화를 가져온 산업사회화로 인하여 지금은 중소도시로 많은 사람들이 이주(移住)하여 40여호에 불과하지만, 이 부락은 우

리 해주최씨들의 집성촌(集姓村)이다. 이 고장에 처음 우리 해주최씨들이 발을 붙이게 된 것은 시조로부터 14세손인 강호산인(江湖散人) 만리(萬理)의 5자 중 제 2자인 예조좌랑(禮曹佐郎)을 지낸 정(靖)을 파조로 하는 좌랑공파의 후손인 21세 현감공(縣監公) 혼명(欣命)이 경상도 문경현감을 지내다가 임진왜란을 치룬 뒤에 의성군 안평면(安平面)에서 은거하기 시작하여 10여대를 계속 살다가 32세 통정대부(通政大夫) 태을(太乙)이 현재의 구계동으로 이거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청빈과 효제(孝悌)를 가훈으로 삼아 상부상조하여 조상을 받들면서 순후한 인심으로 평화로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변의 다른 부락민들로부터 많은 칭송을 듣는다.

태을이 이 마을에 정착한 이후 그의 장자 춘운(春雲)은 홍릉참봉(洪陵參奉)

을 지냈고, 차자 춘구(春九)는 동릉참봉(東陵參奉), 계자 춘악(春嶽)은 영릉참봉(英陵參奉)을 각각 지냈고, 또 춘구의 아들인 그의 손자 주현(周賢)은 이조참판(吏曹參判)에 증직되기도 하고 주한(周漢)은 장릉참봉(章陵參奉)을 지내기도 하여 가문 창달에 이바지한 바 컸으며, 또 주한의 아들인 입향시조의 증손 진구(鎭龜)는 호를 한엄(閑嚴)이라 하며 학당을 열어 후학을 길러내기에 정력을 아끼지 않았다. 지난 1982년에는 후손들이 뜻을 모아 입향시조 태을의 묘소에 비갈을 새로 세우니, 비문

은 연안(延安) 이병탁(李炳卓)이 지었다. 또 한엄의 묘비도 새로 세우니, 비문은 진성(眞城) 이수락(李壽洛)이 지었고, 문도들의 협찬이 매우 컸었다.

이 마을의 동종들은 스스로들이 좌랑공파(佐郎公派) 구계파(龜溪派)라고 하며, 앞으로 더욱 가문 성세를 융창시키기 위하여 비록 몸은 각처로 흩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한가지로 뭉쳐져 있음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다.

끝으로 이 글을 집필하는데 현재 홍익대학교 중앙도서관 사서로 있는 종친 종화(種和)의 조언이 컸음을 밝혀둔다.

縣監公派 承旨公의 後孫들

—全南 康津郡 등종 집성촌—

德 潛 記

(大宗會運營委員)

전라남도 강진군 군동면(康津郡 郡東面)의 신기(新基), 내동(內洞), 삼화(三化)의 세 부락은 모두 현감공파의 승지공 우(遇 : 1543—1613)의 후손들이 오손도손 단란히 모여서 400여년간 살아 오고 있는 집성촌이다.

이곳 호남으로 처음 낙남하신 분은 부제학공(副提學公) 만리(萬理 : ? ~ 14

45)의 장남인 각(瓘 : 1426—1446)의 현손이다. 현감공 각은 보령현감(保寧縣監)을 지냈으나, 불행히도 무자한 채 20세의 청춘으로 기세하여 그의 아우인 좌랑공(佐郎公) 정(塏 : 1429—1466)의 둘째 아들 창손(昌孫)을 양자로 입후하여 1496년에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여 생원이 되고, 동년 병진 문과(丙辰

文科)에 급제하여 문호를 빛나게 하였다.

승지공 우의 자는 응세(應世)이고, 호는 호은(湖隱)이다. 우의 아버지는 교리공(校理公) 창손의 손인 희경(希慶)이고, 어머니는 유해(柳滄)의 딸인 고흥유씨(高興柳氏)이다. 둘째 아들로 태어난 그는 기골이 장대하고 풍채도 늙름한데, 학문에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장성하여는 무과에 급제하여 무장으로 여러 곳을 체임(遞任)하다가 그의 나이 49세시인 1592년 임진왜란 때에는 명나라 원병장(援兵將) 황중영(黃仲纓)의 향도장(嚮導將)으로 나라를 위하여 많은 공을 세웠다. 정유재란(丁酉再亂) 때에는 담양부사(潭陽府使)로 재임하면서 왜적(倭賊) 토멸에 크게 공을 세워 나라에서는 승정원 좌승지(承政院左承旨)를 재수하였다. 승지공의 배위(配位)는 1519년의 기묘사화(己卯士禍)를 피하여 강진군 군동면 안풍에 은거한 성균관 진사(成均館進士) 오팽수(吳彭壽)의 손녀인 숙부인해주오씨(淑夫人海州吳氏)이다. 승지공은 부인과의 사이에서 3남 1녀를 두었으니, 장남은 유건(有建: 1565—1644)으로 무과에 급제하여 고원군수(高原郡守)에 이르렀다. 차남은 유립(有立)인데 조졸하였고, 3남은 유성(有成: 1571—?)이다.

군수공은 선조 말년에 벼슬을 그만두

고 아우 유성과 함께 외척과 처족이 살고 있는 강진군 군동면 내동에 머물며 영주(永住)할 곳을 물색하였다. 당시에 내동에는 마침 풍수(風水)로 이름난 이승희라는 이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언제나 조그만 나귀를 타고 근처 산천을 돌며 지세(地勢)를 살폈었다. 하루는 이지관(李地官)이 그의 나귀를 매어둔 채 어디론가 출타하고 없었다. 군수공은 장난삼아 그 나귀에 올라탔더니, 그 나귀는 한시넷재를 넘어 지금의 신기(新基)에 이르러 발을 멈추고 풀밭에서 풀을 뜯으며 한참 쉬다가 나귀는 다시 내동으로 돌아오는 것이었다. 군수공 유건은 다음날 다시 나귀가 머물어 쉬던 곳을 찾아가 주변의 마을 생김새를 살펴보고, 그곳의 형세가 마치 배모양을 이루었기에 지명을 주산(舟山)이라 하고, 정주하기를 결심하였다.

이렇게 하여 지금의 신기에 자리잡고 삶의 터전을 이룩한 뒤에 군수공은 그의 나이 49세 때인 광해군 5년(1613) 11월 20일에 71세를 일기로 서울에서 별세하여 그곳에 안장하였던 아버지 승지공의 묘소를 이장하여 지금의 신기의 수리봉에 옮겨 모셨다. 지금 그의 후손들은 이 승지공 우를 낙남시조(落南始祖)라 하여 받들어 모시면서 이 수리봉 일대를 도선산(都先山)이라고 일컬어 온다.

군수공 유건의 초취부인은 충의위(忠義尉) 경우(慶雨)의 딸인 전주이씨(全州李氏)였으나, 자녀를 기르지 못하고 일찍 작고하고, 재취부인은 참봉(參奉) 성(晟)의 딸인 해주오씨(海州吳氏)로 환(煥), 정(滢), 선(漣)의 3형제를 두었고, 3취부인은 남원윤씨(南原尹氏)로 완(浣), 순(洵), 옥(沃)의 3형제를 두었다.

초취부인 이씨는 남편인 군수공 유건이 아직 출세하기 전에 병이 있었다. 부군이 마침 과거를 보러 상경한 사이에 운명하게 되자, 부군이 과거에 급제하여 말타고 내려올 때 말방울소리라도 들을 수 있도록 큰길가 용호(龍湖)의 언덕에 묻어달라고 유언하여 그대로 실천하였다고 한다.

환, 정, 선의 후손은 신기와 장흥군 장평(長興郡 場坪)에 주로 세거하고, 완, 순, 옥 3형제는 신기에서 이웃 삼화로 분가하여 오래도록 같이 살아왔으나, 지금은 옥의 손만이 세거하고 있다.

군수공의 동생 유성은 파관(判官) 덕후(德厚)의 딸인 장흥위씨(長興魏氏)와 결혼하여 내동에 정착하고, 아들 영(泳)과 손자 시계(時啓)를 두었다. 시계는 5형제를 두었는데, 그 중 장남인 인(隣)의 손자인 창흥(昌興)과 진흥(震興)이 장흥의 송산(松山)으로 이거하여 한때 세거하였으므로 이들의 후손을 송산파

라고 하고, 2남 은(隱)과 4남 언(彦)의 무덤이 내동 서쪽 중산(中山)에 있으므로 그들의 후손을 중산파라고 하며, 3남 종(嶺)의 후손은 강진군 성전면 월남리(成田面 月南里)에서 세거하였으므로 이들을 월남파라고 한다. 5남 표(標)는 그의 묘소가 장흥군 금안리의 들음박동(菴音朴洞)에 있으므로 그의 후손을 들음파라고 한다.

강진읍에서 국도를 따라 장흥읍쪽으로 4키로쯤 가면 군동면사무소가 나오고, 그곳을 지나면서 왼편을 건너다 보면, 야산 밑에 집들이 웅기종기 자리잡고 있으니, 그 마을이 곧 내동이다. 다시 여기서 장흥쪽으로 2키로를 더 가면 국도 좌측변에 우람한 비석이 길손들의 눈길을 멈추게 한다. 비면에는 “海州崔氏世葬阡(해주최씨세장천)”이라는 해서가 또렷하다. 여기서 북쪽 갈림길로 2키로쯤 깊숙히 들어가면, 피불주머니 속처럼 아늑한 신기 마을이 나타난다. 북쪽 수리봉에는 우의 묘가 있고, 그 아래에 산뜻한 재각이 있으니, 현액(懸額)에는 “永慕齋(영모재)” 3자가 분명하다. 또 그 영모재 옆에는 깨끗이 단장된 명곡서원(明谷書院)이 있다. 이 서원은 원래 장흥읍에 있던 것을 관리소홀로 인하여 퇴락이 심하여 1894년에 이축하여 2세조인 해동공자(海東孔子) 문헌공(文憲公) 충(沖: 984—1068), 3

세조 문화공(文和公) 유선(惟善 : ? - 1076), 8세조 문청공(文淸公) 자(滋 : 1186-1260), 14세조 부제학공 만리, 19세조 승지공우의 5위를 봉안(奉安)하고 매년 3월 첫 정일(丁日)에 제향을 모시고 있다.

내동 뒷산은 대부분 해주최씨 선산이고, 이 산의 서쪽 목골에는 영모당(永慕堂)이라는 해주최씨들의 재각이 있다. 이 영모당 뒷등에는 유성과 그의 아들 영(泳)의 묘가 있고, 영모당 서북쪽 독곡의재로 올라가는 길 건너편에는 16기의 봉분(封墳)이 둥실둥실 모여 있어 사람의 눈길을 끈다. 이는 유성의 후손인 30세 덕영(德潁)이 1983년에 그의 고조부 26세손 수학(粹學) 이하 선형(先兄)까지의 선대묘를 한곳에 이장하여 합봉해 놓은 곳이다.

선산의 동쪽에는 청룡동(靑龍嶺)이 있는데, 위아래로 유성의 손자인 시계와 그의 아들 인의 묘가 있다. 인의 묘에는 다음과 같은 일화가 전해진다.

인이 졸하매 장지를 지금의 청룡동 아랫목으로 정하고 장례를 모시려 하자 그 산줄기 밑에 사는 안성리(安姓里)의 안씨들이 자기네 마을의 뒷등이라면서 극력 반대하여 매장이 어렵게 되었다. 이에 그 자리를 명당(明堂) 대지(大地)로 생각한 해주최씨들은 궁리 끝에 “초라니패”를 불러다가 밤새도록 흥

겹게 놀리면서 안성리 부락민들이 모두 구경하도록 하여 주연을 베풀고 그 사이에 감쪽같이 매장을 마쳤다. 그 뒤 안성리의 안씨들은 점차 몰락해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다.

군동면에서 독곡의 재를 넘어 삼화로 들어가면서 마을 입구 우측에는 울창한 소나무에 둘러 싸여 있는 유건의 막내 아들 옥의 묘가 있다.

현재 강진군 출신 현감공파 자손들은 대부분 서울과 광주 등 각처에 진출하여 살고 있다. 이들은 1978년에 현감공파 광주 종친들끼리 모여 해강계(海康契)를 조직하여 매월 부부동반으로 모임을 가져 왔었으나, 1983년 해주최씨 광주종친회에 입회하는 것으로 동시에 해체되고 말았다.

강진향교(康津鄉校)의 전교(典校)를 지낸 31세 병원(秉元), 대종손이며 대중회 운영위원인 33세 재신(在薪), 행정고시를 합격하고 한국학원 총연합사무처장인 32세 순현(順炫), 한국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인 32세 수일(秀逸), 미국의 브리컴영대학 교수인 32세 철학박사 수영(秀英) 등은 모두 신기의 군수공 유건의 후손들이다. 명곡서원을 설립한 30세 상순(常淳), 광주지구 원예조합장을 지낸 30세 만택(滿澤), 광주 최덕영소아과원장인 30세 덕영, 평화통일자문위원인 32세 성이(聖二) 등

은 모두 내동의 유성 후손이다. 또 현 옥 후손이다.
군동면장인 29세 홍석(弘錫)은 삼화의

承旨公의 후손과 영덕군 이천동

泰 峯 記
(嶺南支會幹事長)

경북 영덕면(盈德面)에서 북으로 약 5키로쯤 되는 거리에 이레실이라는 조그만 마을이 있다. 이곳은 행정구역상으로는 영덕군 병곡면 이천동(柄谷面 伊川洞)이라고 한다. 뒤로는 칠보산(七寶山)이 울처럼 에워 있고, 앞으로는 상대산(上台山)이 안산(案山)을 이루고 있으며, 그 앞으로는 푸른 바다가 우물처럼 보이는데 문전옥답은 어떤 평원 광야도 부럽지 않다.

이 마을은 우리 해주최씨 승지공의 후손들이 다정하게 모여 사는 집성촌이다.

이 마을에 우리 해주최씨가 처음 발을 들여놓게 된 것은 임진왜란 때에 경상우도 병마절도사(慶尙右道 兵馬節度使)로 진주성(晉州城)과 함께 장렬한 생애를 마친 삼계(三溪) 경회(慶會: 1532—1593)의 손자 규헌(奎憲)에 의하여 서이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약 10년 전인 선조 16년(1583)에 일휴당(日休堂 또는 삼계) 경회가 영해부사(寧海府使)

로 3년간 재임하면서 선정을 베풀어 지금까지도 영해면 면사무소 뜰 남쪽에 2미터의 비석이 유허비(遺墟碑)로 남아 있을 만큼 유애(遺愛)하심이 컸었는데, 왜란이 끝난 뒤 겨우 목숨을 건진 일휴당의 손자 규헌이 병곡면 사천동에 입향하여 은거하기 시작하여 지금의 이천동으로 곧 이거하니, 이제까지 400여년을 계속 살아오고 있는 것이다.

일제 때에는 왜경들에게 특별히 주목의 대상이 되어 고생을 많이 겪어야 했다. 그것은 일휴당의 선정비 때문이었다. 임진왜란 때 항왜(抗倭)하다가 전사한 일휴당의 생전의 선정비가 눈에 가시처럼 보이므로 말없이 서있는 비석마저 허물어 버려 지금은 유허비만이 남아 있는 실정이다. 왜제가 훼손해 버리기 전에는 비각을 세우고 향사(享祀)를 해 왔었기 때문이다. 그 후손들은 서울, 부산, 대구, 영양, 영해, 영주 등지로 흩어졌으나 100여호가 번성하고 있다.

文憲影堂의 제고



在 夏
(大宗會宗務幹事)

문헌공을 모시는 서원이나 영당은 전국 각지 여러 곳에 있으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본고장인 해주의 문헌서원이 될 것이다.

이 서원은 1550년(이조 명종 5년)에 황해도 관찰사 주세붕이 九齋를 모방하여 설치하였으며 액호를 내려줄 것을 상청하여 선조조에 구경과 성리학에 관한 서적과 증자, 주자의 저서를 역편으로 보내시며 봉안하는 토지를 내려주신 것이다.

그 후 1571년(선조 5년)에 황해도 관찰사 박 승임과 해주목사 한 성원이 석동 백운봉 아래로 이전하였으며 후손 종형과 재규가 묘 정비를 세워 모셔오다가 조국의 분단으로 유럽이나 후손들이 참배가 어려워지자 1959년 후손들이 종친회를 조직, 불광동에 영당을 신축하고 해주의 영당을 전승하는 뜻으로 문헌영당이라 하고 영정은 화순 영당의 영정을 기본으로 제작, 봉안하고 당시

종친회 주관으로 매년 1회 봉향하여 오다가 도시의 발전으로 유지 관리가 어렵게 됨에 따라 종친회에서 1966년에 경기도 안성군 원곡면 지문리(불지)의 13세손 소윤공(荷), 14세손 부제학공(萬理)의 묘소 산하에 이전하게 되었고 종친회가 유야무야하게 되자 산하 전한공 후손들이 종답을 위토로하여 매년 음력 10월 6일 봉향하여 왔으며 1982년에 대종회의 결성과 더불어 1983년 다소 수리를 하고 제기와 제구를 새로하장만하여 경향각지의 후손들이 다수 참석을 하겠금 4월 세째 일요일 12시에 대종회 주관으로 제례 행사를 거행하고 있으며 제례 흥기는 다음과 같다.

享祀儀節(笏記)

文憲影堂

祭官差定記(諸執事)

初獻官 제례의 제일 주된 분

亞獻官 제례의 두번째 주된 분
 終獻官 제례의 세번째 주된 분
 大祝 축을 읽는 직분
 執禮 제례의 순서를 지휘하는 사
 회자
 典祀 제례를 집행하는 안내역
 奉香 향합을 관리하는 직분
 奉爐 향로를 관리하는 직분
 奉爵 잔을 받들어서 헌관에게 전
 하는 직분
 奠爵 헌관에게서 잔을 받아 제상
 에 올리는 직분
 司罍 제주를 관리하는 직분

萁仁 銀杏 三升
 은 행

菱仁 胡桃 三升
 호 두

鹿醢 牛肉 三斤
 쇠고기

魚鹽 石首魚 五尾
 절인 해물

筍俎 竹筍 無함으로 桔梗으로 代替一斤
 도라지(대채품)

蕙俎 부추 一束
 부 추

芹俎 미나리 一束
 미나리

菁俎 무 三個
 무 우

豚腥 黑色 豕頭
 돼지 머리

形鹽 高운 소금 一合
 고운 소금

幣 白布 三尺
 흰 비단

祭需品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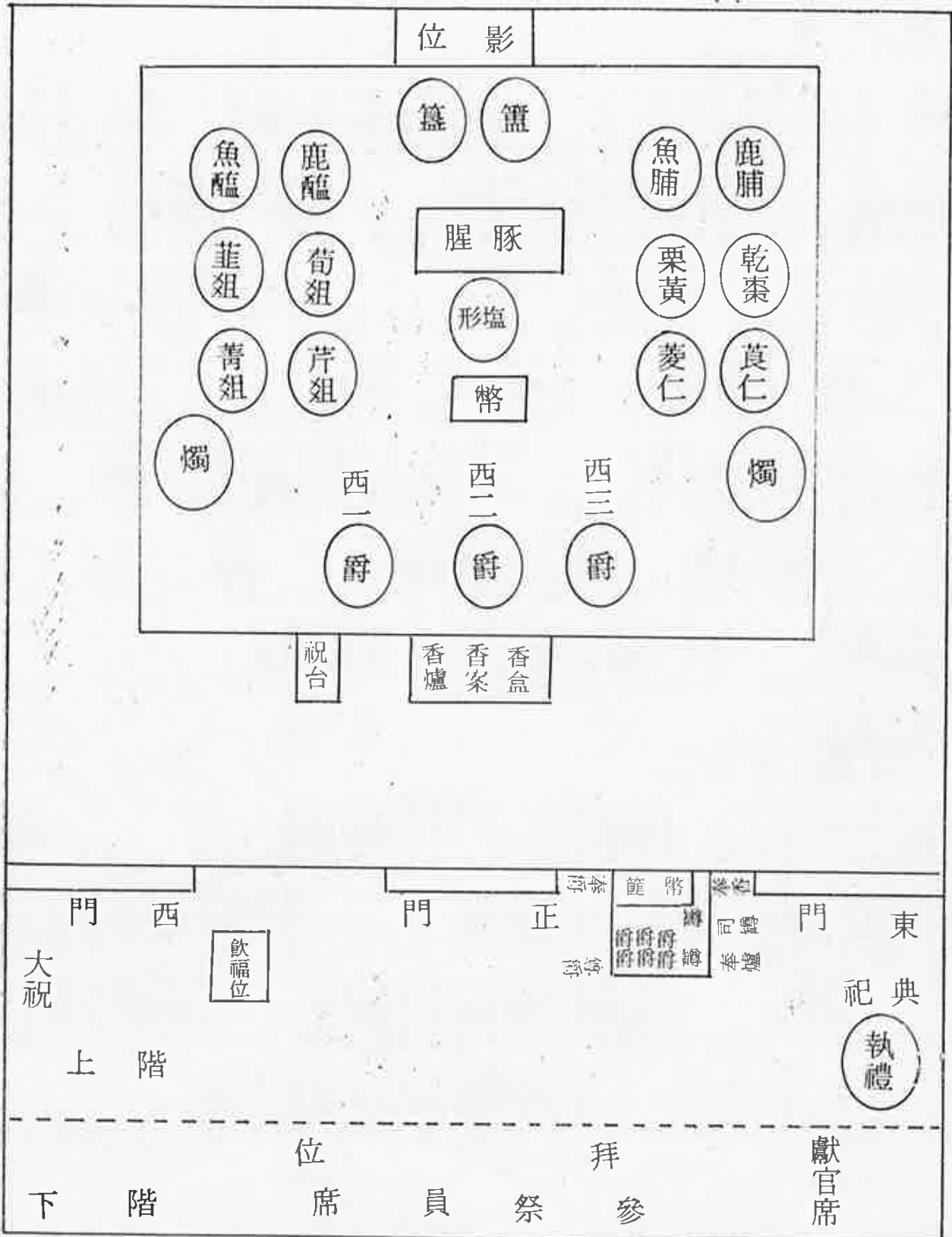
鹿脯 牛肉乾脯 丈一尺幅一寸五分十五片
 소고기 포

魚脯 無鱗魚脯 鱸魚·鰻魚乾脯
 비늘이 없는 해물포

乾棗 大추 三升
 마른 대추

栗黃 生栗 三升
 껍질 까지 얇은 밤

陳 設 圖



문헌공영당의절
文憲公影堂儀節

청외의
請外儀

제사를 올릴 준비를 함

집에 헌관급제집사호창서립 초헌관제물진설점시홀 환출 대축봉
執禮 獻官及諸執事號唱序立 初獻官祭物陳設點視訖 還出 大祝奉
헌관과 제집사를 제자리에 세우다 초헌관 제물을 점집을 맞추다 나가다 대축 폐백

폐비축문 정문입에준소치우 환출 집례전사선취배위 재
幣篚祝文 正門入詣樽所置于還出 執禮典祀先就拜位 再
과 축문을 받들고 정문을 들어가 준소에 놓고 나가라 집례전 사절하는 곳에 가서 절

배 에 관세위 관수세수홀 각취립 전사인대축급제집사취배
拜 詣盥洗位 盥嗽悅手訖 各就位 典祀引大祝及諸執事就拜
하타 손씻는 곳에 가서 손을 씻고 닦고 각자 제자리에 가라 전사대축 제집사 제자리로 가

위 재배 에 관세위 관수세수홀 각취립 전사인초헌관
位 再拜 詣盥洗位 盥嗽悅手訖 各就位 典祀引初獻官
서 서다 절하라 손씻는 곳에 가서 손을 씻고 닦고 각자 제자리로 가라 전사 초헌관 아

아헌관종헌관참제원취배위 대축전사에문헌공영위전 개비 점
亞獻官終獻官參祭員就拜位 大祝典祀詣文憲公影位前 開扉 點
헌관 종헌관 참석자 절하는 곳에 세우다 대축 전사 문헌관 영전 앞에 가서 문을 열고 불

화 잉계보케번두 차에문화공영위전 개비 점화 잉
火 仍啓篋簋籩筥 次詣文和公影位前 開扉 點火 仍
을 키고 보와케 뚜껑을 벗인다 다음에는 문화공 영위 앞에 가서 문을 열고 불을 키고 보

계보케번두 환출 전사진초헌관지전 근구청행사
啓篋簋籩筥 還出 典祀進初獻官之前 謹具請行事
와케 뚜껑을 벗기고 나가다 전사 초헌관 앞에 나가 제사 예를 하시도록 청한다

행존폐례
行奠幣禮

폐백을 드리는 예

초헌관에관세위 관수세수홀 에문헌공영위전개 봉향
初獻官詣盥洗位 盥嗽悅手訖 詣文憲公影位前跪 奉香
초헌관 손씻는 곳에 가서 손을 씻고 닦고 예를 갖추고 문헌공 영위 앞에 무릎 꿇고 봉향

봉로승유 봉향 봉향함에헌관지우께 봉로봉향로에헌관지좌께
奉爐升由 奉香 奉香盒詣獻官之右跪 奉爐奉香爐詣獻官之左跪
봉로 들어가 봉향 향함을 들고 헌관 우측에 꿇어 앉아 봉로 향로 들고 헌관 좌측에

삼상향 향함향로고처 환치강소퇴입우 초헌관부복흥평신
三上香 香盒香爐故處還置降小退立于 初獻官俯伏興平身
꿇어 앉아 향세번 사르고 향함향로 제자리에 놓고 조금 물러나 서다 초헌관 꿇어 엎드렸다

소퇴계 대축봉폐비정문입에헌관지우께
小退跪 大祝奉幣篚正門入詣獻官之右跪
가 일어나 조금 물러나 꿇어앉아 대축 폐백을 들고 정문을 들어가 헌관 우측에 꿇어 앉아

수헌관 헌관수지 헌폐 수대축 대축수지영위전 존우位위
授獻官 獻官受之 獻幣 授大祝 大祝受之影位前奠于復복
헌관에게 주고 헌관 받아서 폐백을 올리고 대축을 주다 대축이 받아서 영위 앞에 올리고 강

헌관부부흥평신 次詣文和公影位前跪 봉향봉향
 獻官俯伏興平身 次詣文和公影位前跪 奉香奉香
 제자리로 가다 헌관 꿇어 엎드렸다가 일어나 다음 문화공 영위 앞에 꿇어앉아 봉향 향합

합헌관지우께 奉로봉향로헌관지좌께 삼상향
 盒獻官之右跪 奉爐奉香爐獻官之左跪 三上香
 을 들고 헌관 우측에 꿇어 앉고 봉로 향로를 들고 헌관 좌측에 꿇어앉아 향 세번 사르고

향합향로고처환치 강복위 헌관부부흥평신소퇴께
 香盒香爐故處還置 降復位 獻官俯伏興平身小退跪
 향합 향로를 제자리에 놓고 제자리로 가다 헌관 꿇어 엎드렸다가 일어나 조금 물러나 꿇

대축봉폐비헌관지우께 수헌관 헌관수지 헌폐 수
 大祝奉幣篚獻官之右跪 授獻官 獻官受之 獻幣 授
 어앉고 대축 폐백을 들고 헌관 우측에 꿇어앉아 헌관에게 주다 헌관 받아서 올린 후 대

대축 대축수지준우 강복위 헌관부부흥평신 강
 大祝 大祝受之奠于 降復位 獻官俯伏興平身 降
 축에게 주다 대축 받아서 제상에 올리고 제자리로 가다 헌관 꿇어 엎드렸다가 일어나 제

복위 헌관이 하개 재배
 復位 獻官以下皆再拜
 자리로 가다 헌관과 모두 절하다

행초헌례
 行初獻禮
 초헌예를 행하다

전사인초헌관에문헌공영위전께 봉작전작승유 봉작취작
 典祀引初獻官詣文憲公影位前跪 奉爵奠爵升由 奉爵取爵
 전사 초헌관을 문헌공 영위 앞에 인도하여 꿇어 앉히다 봉작 전작 들어오다 봉작 잔을 잡

사준거며침주 전작예헌관지좌께 봉작정문입헌관지우께
 司樽舉冪酌酒 奠爵詣獻官之左跪 奉爵正門入獻官之右跪
 다 사준 잔에 술을 붓다 전작 헌관 좌측에 꿇어앉다 봉작 정문으로 들어가 헌관 우측에 꿇

수헌관 헌관수지 헌작 수전작 전작수지전우서단
 授獻官 獻官受之 獻爵 授奠爵 奠爵受之奠于西端
 어앉다 헌관에 잔을 주다 헌관 받아서 잔을 받들어 전작에게 주고 전작 잔을 받아서 서

제일점 봉작강복위 전작소퇴입우 대축예헌관지
 第一占 奉爵降復位 奠爵小退立于 大祝詣獻官之
 쪽 제일단에 올리고 봉작 제자리로 가다 전작 일어서서 조금 물러나다 대축 좌측에 동

좌동향께 집축 독축 흘 축문고처환치강복위 헌
 左東向跪 執祝 讀祝 訖 祝文故處還置降復位 獻
 쪽을 향해 꿇어앉아 축을 들고 축을 읽다 끝나고 축문을 제위치에 놓고 제자리로 가다 헌

관부부흥평신 次詣文和公影位前跪 봉작취작 사준거며
 官俯伏興平身 次詣文和公影位前跪 奉爵取爵 司樽舉冪
 관 엎드렸다가 일어나다 다음에 문화공 영위 앞에 꿇어 앉아 봉작 잔을 들고 사준 잔에

침주 봉작정문입헌관지우께 전작헌관지좌께 봉작
 酌酒 奉爵正門入獻官之右跪 奠爵獻官之左跪 奉爵
 술을 붓다 봉작 정문으로 들어가 헌관 우측에 꿇어앉아 전작 헌관 좌측에 꿇어앉아 봉작

수헌관 헌관수지 헌작 수전작 전작수지전우서단제
 授獻官 獻官受之 獻爵 授奠爵 奠爵受之奠于西端第
 헌관에게 잔을 주다 헌관잔을 받아 잔을 받들어 전작에게 주다 전작 잔을 받아서 서쪽

일점 봉작전작강복위 헌관부부흥평신 전사인초헌관강복
 一占 奉爵奠爵降復位 獻官俯伏興平身 典祀引初獻官降復
 제일단에 올리고 봉작 전작 제자리로 가다 헌관 엎드렸다가 일어나 전사 초헌관을 제자리

위
位

에 인도하다

행 아헌례
行亞獻禮

아헌례를 행하다

전사인 아헌관에 관세위
典祀引亞獻官詣盥洗位

전사 아헌관을 손씻는 곳에 인도하다

관수세수홀
盥嗽悅手訖

손을 씻고 닦고 끝내어

에문헌공영위전케
詣文憲公影位前跪

문헌공 영위 앞에 꿇어앉아

봉작전작승유
奉爵奠爵升由

봉작 전작 들어오다

봉작취작
奉爵取爵

봉작 잔을 들고

사준거며침주
司罇舉罇酌酒

사준 잔에 술을 붓다

전작헌관지좌케
奠爵獻官之左跪

전작 헌관 좌측에 꿇어앉아

봉
奉

봉
奉

작정문입헌관지우케
爵正門入獻官之右跪

작 정문으로 들어가 헌관 우측에 꿇어앉아

수헌관
授獻官

헌관에게 잔을 주다

헌관수지
獻官受之

헌관 잔을 받아

헌작
獻爵

받들어서

수
授

전
授

전작
奠爵

작에게 주다

전작수지전우서단제이점
奠爵受之奠于西端第二占

전작 잔을 서쪽 제이단에 올린다

봉작강복위
奉爵降復位

봉작 제자리로

전작소퇴입우
奠爵小退立于

전작 일어나서 조금

헌관부부흥평신
獻官俯伏興平身

물러서다 헌관 엎드렸다가 일어나다

차에문화공영위전케
次詣文和公影位前跪

다음에 문화공 영위 앞에

봉작취작
奉爵取爵

봉작 잔을 들고

사준거며침주
司罇舉罇酌酒

사준 잔에 술을 붓다

전작헌관지좌케
奠爵獻官之左跪

전작 헌관 좌측에 꿇어 앉고

봉작정문입헌관지우케
奉爵正門入獻官之右跪

봉작 정문으로 들어가 헌관 우측에 꿇어

수헌관
授獻官

앉아 헌관에게 잔을 주고

헌관수지
獻官受之

헌관 잔을 받아

헌작
獻爵

잔을 받들어서

수전작
授奠爵

전작에게 주다

전작수지전우
奠爵受之奠于

전작 잔을 받아

서단제이점
西端第二占

서쪽 제이단에 올리고

봉작전작강복위
奉爵奠爵降復位

봉작 전작 제자리로 가다

헌관부부흥평신
獻官俯伏興平身

헌관 엎드렸다가 일어나다

전사인헌관
典祀引獻官

전사 헌관을

잉강복위
仍降復位

제자리로 인도하다

행 종헌례
行終獻禮

종헌례를 행하다

전사인종헌관에 관세위
典祀引終獻官詣盥洗位

전사 종헌관을 손씻는 곳에 인도하다

관수세수홀
盥嗽悅手訖

손을 씻고 닦고 끝내어

에문헌공영위전케
詣文憲公影位前跪

문헌공 영위앞에 꿇어앉아

봉
奉

봉
奉

작전작승유
爵奠爵升由

작 전작 들어오다

봉작취작
奉爵取爵

봉작 잔을 들고

사준거며침주
司罇舉罇酌酒

사준잔에 술을 붓다

전작헌관지좌케
奠爵獻官之左跪

전작 헌관 좌측에 꿇어앉고

봉
奉

봉
奉

정문입헌관지우케
正門入獻官之右跪

정문으로 들어가 헌관 우측에 꿇어앉다

수헌관
授獻官

헌관에게 잔을 주다

헌관수지
獻官受之

헌관 잔을 받아

헌작
獻爵

받들어서

수
授

전
授

전작
奠爵

작에게 주다

전작수지전우서단제삼점
奠爵受之奠于西端第三占

전작 잔을 받아서 서쪽 제 삼단에 올리고

봉작강복위
奉爵降復位

봉작 제자리에 가다

전작소퇴입
奠爵小退立

전작 일어나서

우 헌관부복흥평신 차에문화공영위전계 봉작취작
 于 獻官俯伏興平身 次詣文和公影位前跪 奉爵取爵
 조금 불러나다 헌관 엎드렸다가 일어나다 다음에 문화공 영위 앞에 꿇어앉어 봉작 잔을

사준거며침주 전작헌관지좌계 봉작정문입헌관지우계
 司樽舉冪酌酒 奠爵獻官之左跪 奉爵正門入獻官之右跪
 들고 사준 잔에 술을 붓다 전작 헌관 좌측에 꿇어앉고 봉작 정문으로 들어가 헌관 우측에 꿇

수헌관 헌관수지 헌작 수전작 전작수지전
 授獻官 獻官受之 獻爵 授奠爵 奠爵受之奠
 어앉아 헌관에게 잔을 주다 헌관 잔을 받아 받들어서 전작에게 잔을 주다 전작 잔을 받

우 서단제삼점 봉작전작강복위 헌관부복흥평신 전사인
 于 西端第三占 奉爵奠爵降復位 獻官俯伏興平身 典祀引
 아 서쪽 제삼단에 올리고 봉작 전작 제자리에 가다 헌관 엎드렸다가 일어나다 전사 헌

헌관잉강복위 헌관재배
 獻官仍降復位 獻官再拜
 관을 제자리에 인도하다 헌관 절을 하다

행음부례
行飲福禮
 음부례를 행하다

전사인초헌관 예음부위 대축승유 작일기 포일기진초헌관
 典祀引初獻官 詣飲福位 大祝升由 爵一器, 脯一器進初獻官
 전사 초헌관을 음부하는 곳에 인도하다 대축 들어오다 술한잔, 포한접시를 들고 초

입전 초헌관수지음부주 허작수축 대축수지전내치
 立傳 初獻官受之飲福酒 虛爵授祝 大祝受之殿內置
 헌관 앞에 나아가다 초헌관 술을 받아 마시고 빈잔을 대축에게 주다 대축 잔을 전내 제

우 철번두 소이 강복위 헌관부복흥평신 전사인초헌관강
 于 撤籩筥(小移)降復位 獻官俯伏興平身 典祀引初獻官降
 자리에 놓다 두경을 덮고 제자리에 가다 헌관 엎드렸다가 일어나다 전사 헌관을 제자리

복위 헌관이하참제원개재배
 復位 獻官以下參祭員皆再拜
 에 인도하다 헌관 이하 전 참석자 절을 하다

행망료례
行望燎禮
 망료례를 행하다

전사인초헌관에망료위 대축전내입봉축폐에감분축
 典祀引初獻官詣望燎位 大祝殿內入奉祝幣詣坎焚祝
 전사 초헌관을 망료례 장소에 인도하다 대축 전내에 들어가 축문과 폐백을 받들어 불사르다

강복위 전사초헌관지전 백례필 헌관참제원이차출
 降復位 典祀初獻官之前 白禮畢 獻官參祭員以次出
 제자리로 가다 전사 초헌관 앞에 나아가 예가 끝났음을 고하고 헌관과 참석자 전원 나가다

대축전사전내복입 폐비 소화 강복위 대축이하제집사계
 大祝典祀殿內復入 閉扉 消火 降復位 大祝以下諸執事階
 대축 전사 전내에 들어가 영존문을 닫고 불을 끄고 제자리로 가다 대축과 집사자 계간에

간재배 이차출 집례전사계간재배 차출
 間再拜 以次出 執禮典祀階間再拜 次出
 가서 절하다 전원 나가다 집례 전사 계간에서 절하고 나가다

예 필
禮畢
 제절이 끝나다



艮齋公과 御書閣

在
焜
(艮齋公 10代孫)

1. 序 言

海州崔氏大宗會에서 우리 門中の 宿願인 宗誌를 發刊하기로 하고, 이제 創刊號 刊行에 즈음하여, 수많은 名賢聖祖를 모신 我門中 近世 李朝의 名宰相이신 艮齋公의 史實과 御書閣의 來歷을 略記하고자 한다.

이는 大宗會에서 每年 奉祀하는 文憲公 影堂祭에 參禮하는 宗親 여러분들께서 影堂 近處의 御書閣에 대해 자세히 묻는 분이 많고, 公의

行蹟에 關해서는 年譜와 遺稿가 首陽世稿에 完載되었으나 오늘날 같은 한글 世代에는 譯讀하기 힘들어 상세히 설명하기 어렵기에, 宗家直孫인 責務에서도 대강 간추려 免責하는 바이다.

元來 菲才淺識한 나로서는 公의 忠誠과 敬祖 思想을 헤아려 記述하기 어려웠으나, 多幸히 先考 竹齋 仁變公의 <竹齋漫錄>이 手中에 있어 補充하기로 하고, 이 글이 뜻있는 宗親과 後孫들에게 傳하여 奮發함으로써 艮齋公을 欽慕하고 더 훌륭한 海州 後人으로 發展하여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2. 年 譜

崔奎瑞(孝宗元年—英宗 11年, 1650~1735) 字는 文淑. 號는 艮齋, 少陵, 己陵. 諡號는 忠貞. 典翰公派 櫟村 振海公의 第二子 碩英公의 둘째 아드님으로 태어나 仲父 砥平縣監 贈領議政 碩儒公의 養子로 家系를 이으심.

○ 1650年 庚寅 閏11月 5日 甲申亥時 皇華坊 小貞洞之第에서 誕生.

- 1669年 顯宗 10年(20歲) 5月 進士試 及第.
- 1680年 肅宗 6年(31歲) 9月 別試文科 及第.
- 1681年 肅宗 7年(32歲) 2月 權至承文院 副正. 同年 5月 改修實錄郎廳 兼 春秋記事官.
- 1682年 肅宗 8年(33歲) 9月 承政院 注書.
- 1685年 肅宗 11年(36歲) 成均館 典籍. 同年 5月 司憲府 持平. 同年 6月 司諫院 正音. 同年 9月 兵曹佐郎 正郎. 同年 10月 楊口 縣監.
- 1686年 肅宗 12年(37歲) 閏 4月 弘文館 修撰. 同年 6月 吏曹佐郎 兼 校書館 校理 中學教授. 同年 7月 司諫院 獻納. 同年 9月 吏曹佐郎.
- 1687年 肅宗 13年(38歲) 3月 弘文館 校理. 同年 9月 兵曹正郎. 同年 10月 成均館 直講 副修撰 議政府 檢詳 舍人. 同年 11月 宗簿寺正 弘文館 副應教. 同年 12月 司諫院 司諫 通政階 戶曹參議 兼 知製教.
- 1688年 肅宗 14年(39歲) 4月 兵曹參議 參知. 同年 5月 承政院 同列 承旨 司諫院 大司諫. 同年 6月 楊州牧使. 同年 12日 成均館 大司成.
- 1689年 肅宗 15年(40歲) 1月 大司諫 右副承旨.
- 1692年 肅宗 18年(43歲) 10月 清州牧使.
- 1694年 肅宗 20年(45歲) 4月 刑曹參議 全羅監司. 同年 12月 弘文館 副提學.
- 1695年 肅宗 21年(46歲) 2月 吏曹參議. 同年 4月 兼 承文院 副提調 兼 備邊司 副提調. 同年 8月 大司成. 同年 12月 副提學.
- 1696年 肅宗 22年(47歲) 1月 右列承知. 同年 2月 禮曹參議大司成. 同年 4月 吏曹參議. 同年 5月 江華留守(修築堤堰 設置墩台) 同年 8月 司憲府 大司憲. 同年 11月 吏曹參判 兼 同知 成均館事尋 兼 義禁府事.
- 1697年 肅宗 23年(48歲) 2月 兼 同知 春秋館事. 同年 3月 承 王世子 册封 奏請列使. 同年 閏 3月 兼 備邊司提調 宣惠廳堂上 禮曹參判. 同年 4月 奏講副使로 淸國 다녀오심. 同年 7月 同知中樞府事. 同年 9月 副提學. 同年 10月 嘉義階 都承旨, 同知中樞 兼 世子右列賓客, 大司成 兼 同義禁以賑廳事. 同年 12月 兵曹參判 兼 副摠管.
- 1698年 肅宗 24年 (49歲) 1月 刑曹參判 兼 長興庫提調, 同年 7月 禮

- 曹判書 兼 知經筵事 議政府左參贊。同年 8月 兼 司譯院提調。同年 9月 兼 藝文館提學。知義禁府事。同年 10月 瑞宗王妃 愼氏를 復位시킴。同年 11月 兼 弘文館提學。
- 1699年 肅宗 25年(50歲) 1月 正豐階 漢城判尹 大司憲。同年 6月 兼 弘文館 大提學, 藝文館 大提學, 知春秋館 成均館事。
 - 1700年 肅完 26年(51歲) 1月 左參贊。同年 2月 吏曹判書。同年 6月 禮曹判書。同年 11月 兼 知經筵 尙衣院提調。
 - 1701年 肅宗 27年(52歲) 6月 刑曹判書。同年 7月 大司憲。
 - 1702年 肅宗 28年(53歲) 1月 漢城判尹。
 - 1704年 肅宗 30年(55歲) 8月 知中樞府事。
 - 1706年 肅宗 30年(57歲) 4月 知義禁 兼 典設司提調。同年 7月 刑曹判書 兼 守禦使 弘文館 提學 歸厚署提調。
 - 1709年 肅宗 35年(60歲) 4月 兼 備局尙衣院提調, 同年 6月 開城留守。同年 11月 刑曹判書 兼 尙衣院提調。
 - 1710年 肅宗 36年(61歲) 6月 知中樞, 同年 9月 左參贊。
 - 1711年 肅宗 37年(62歲) 2月 判義禁府事。同年 4月 判敦寧府事。同年 5月 禮曹判書 兼 知春秋。同年 7月 工曹判書。同年 10月 知中樞。
 - 1712年 肅宗 38年(63歲) 1月 判敦寧呈狀。
 - 1719年 肅宗 45年(70歲) 1月 入耆社 崇錄階。同年 2月 輔國階。同年 5月 判敦寧 兼 弘文館提學。
 - 1721年 景宗 元年(72歲) 12月 議政府 左議政。少論의 領首로서 老論 4大臣들이 世弟 英祖의 代理攝政 建議 實施하게 되자 이를 反對하여 撤回시킴。
 - 1723年 景宗 3年(74歲) 領議政。同年 10月 兼 社稷訓局 禁衛軍 資都提調。
 - 1724年 景宗 4年(75歲) 2月 兼 藥院都提調 摠裁。致仕奉朝賀。後 耆老所에 드심。
 - 1728年 英宗 4年(79歲) 3月 13日 逆臣 李麟佐等이 密豐君을 推戴 逆亂을 일으킨 情報를 入手, 老軀를 不拘하고 百餘里를 徹夜 上京하여 告

變함. 同年 3月 18日 判曹判書 吳命恒이 四路都巡撫使로 反亂을 平定하고자 出征, 3月 29日 賊魁 李麟佐를 捷捕하여 4月 19日 凱旋. 同年上이 公의 功을 叙勳코자 부르시었으나 辭讓하여 入闕치 않으심. 同年 다시 遣禮官을 보내 特等功臣에 封勳할 것을 下敎하셨으나 亦是 固辭하심. 同年 一絲扶鼎이란 御書를 下賜하심.

○ 1735年 英宗 11年(86歲) 1月 1日 逝去.

3. 御書閣

英宗王이 一絲扶鼎의 御書를 내리실 公은 臣의 집이 一間瓦屋이고, 村家도 龍仁郡 魚肥里의 草家三間인지라 莫重한 御書를 奉安할 길이 없다 하여 辭讓하시니, 果然 清白한 忠臣이라 탄복하시며, 公이 老軀를 이끌고 龍仁에서 漢城까지 國家의 安危를 걱정하여 上京하는 勞苦가 많다 하시며, 앞으로는 漢城에 起居하여 자주 만나 國事를 議論케 하라 하시며, 該曹에서 家屋을 修築하고 그 옆에 御書閣을 따로 지어 御書를 奉安토록 命하셨다. 英宗 4年 6月 29日 御書閣이 竣工되니, 이리하여 貞洞에 御書閣골이라는 이름이 생겼다.

當時 公이 魚肥里 村家에서 悠悠自適 낚시로 消日하시면서도 항상 國家大事를 근심하여 反亂을 平靜토록 하셨으니, 그 뜻과 信條가 一絲임을 아신 王께서 一絲에 扶鼎이라는 二字를 加하여 御書를 내리신 것이었다. 그리고 자주 國事に 諮問을 請하시며 飲食과 太醫를 보내시는 것이었다.

1735年 英宗 11年(86歲) 公은 새해 茶禮를 마치고 子孫들에게 訓戒도 하시며 終日 즐기다가 저녁이 되매 北向四拜로 王께 下直을 告한 後, 나는 天壽를 다하고 이승을 下直할 것인즉, 死後에 上께서 國葬과 陵을 封할 것을 命하실 때에는 이를 固辭하여 받지 말 것이며, 儉素하게 葬禮를 치워서 國費를 축내어 나에게 辱됨이 없도록 하라 遺言하시고 그 날 밤 亥時에 86歲를 一期로 逝去하셨다.

死後에 과연 國葬으로 하고 陵으로 封하라는 王命이 있었으나, 故人之 遺言을 말씀드리고 固辭하니, 艮齋公은 生時나 死後에나 變함없는 清白吏

요 百世의 師長이라고 王께서 歎服하시며 忠貞의 諡號를 내리시고 宗廟庭에 配享하시니, 이제도 英祖의 廟庭에 配享 奉祀되어 있다.

墓所는 安城 佛智 白蓮峯 山麓 丑座에 계시며 不遷之位로서 四季節奉祀를 모시는데, 王께서는 1,2,3日은 史官을 보내 葬禮를 돌보게 하였고, 4日째 成服日에는 承旨를 보내 祭禮를 돌보게 하셨다.

2월에 京畿 七邑 儒生 金相泰 등이 書院을 建立할 것을 奏請하였으나, 當時는 國庫의 節約으로 書院建立이 一切 禁止된 바 있고, 王께서는 生時에도 崔奉朝賀는 愛民하는 清白吏였으며 國葬도 固辭한 忠臣이어늘, 어찌 그 뜻을 辱되게 하라 하시며 允許하시지 않았다. 3월에 葬禮를 모시니, 陽城 儒生 李萬彙 등이 다시 書院 建立을 奏請하였다. 王께서는 閏 4月 特命으로 三年 後 貞洞에 少陵祠宇를 짓게 하시고 該曹에게 題給祭需토록 하셨다.

公의 忠誠은 君臣의 義가 두터우신 英宗께서 溫泉行幸時 大駕가 公의 墓所 近處(大路에서 約 9km)를 지나신다 하여, 故人을 못 잊으시고 禮官을 보내 祭祀를 올리게 하신 일로도 짐작이 갈 수 있다.

御書閣과 少陵祠宇는 高宗 乙未年에 外人이 强占하여 할 수 없이 佛智로 移築 奉安하였으며, 貞洞 遺趾에는 現在 美國大使館이 들어 있다.

公의 畫像은 79歲時에 使畫師秦再奚가 그린 것과 81歲時에 沈若涉이 그린 두 벌이 保存되어 있다.

4. 艮齋公 逸話(竹齋遺稿에서)

(1) 孝宗元年 母夫人 金氏께서 꿈에 앉아계신 樓板이 忽然이 열리면서 黃龍이 꿈틀거리며 飛騰天하는 것을 보시고 孕胎하사 10個月後에 解産, 公을 낳으시니 容貌가 端雅하고 神氣가 秀朗하여 보는 이마다 歎服하였다 함.

(2) 孝宗 3年 3歲時 하루는 女婢가 鐵環을 한 個 드려서 갖고 노시게 하였는데, 한 老人이 試驗하고자 其 鐵環은 내 것이다 한즉 땅 위에 던지시며 從婢가 나를 속였다고 꾸지람하셨다 함.

(3) 孝宗 4年 4歲時 하루는 女婢가 公을 업고 外出을 하였는데 外人이 問曰, 公의 머리칼이 어찌 누르고 한즉 婢가 答曰, 우리宅 아씨마님 머리가

누른 까닭이라하며, 歸家後 母夫人께 告하시기를 女婢에게 불기를 치십시오 하거늘, 어찌 그러느냐 하시니 밖에 나가서 집안일을 남에게 감히 이야기하였읍니다 하셨다 함.

(4) 孝宗 5年 5歲時 글을 배우기 始作하자 日就月長이요 一字를 가르치면 二字를 아셨다하며 하루는 옆집 밤나무가지가 담안으로 뻗어 公의 마당에 아람이 떠러지니 使僕을 시켜 옆집으로 주서던지니 옆집 主人이 大驚하여 將次 큰 人物이 될 분이라 하였다 함.

(5) 5歲時에 堂叔에게 養子를 가셨는데 公曰, 人皆有一天인데 我獨有二天인가 하셨다 함.

(6) 孝宗 6年 6歲時 하루아침에는 낮잠을 자고 깨니 祖考이신 櫟村公께서 말씀하시기를 汝罪當笞 汝其賦詩 贖罪한다 하시니 公께서 應聲曰 春眠不覺曉 童子何知禮하시며 床前에 拜謝하시니 祖考께서 깜짝 놀라셨다 함.

(7) 孝宗 8年 8歲時 明谷 崔錫鼻公과 同門受學하는데 明谷은 4歲가 위인 12歲라 先生이 試驗삼아 글을 외우게 하니 明谷은 잘 외우는데 公은 두어 군데 틀리매 너는 亦是 어리니 할 수 없다 한즉 數日後에 다시 試驗함에 明谷은 더러 틀리나 公은 한 字도 틀리는 곳이 없어 先生이 놀랐다 함.

公의 스승은 藥泉 南九萬公이요 明谷 崔錫鼻 持平 朴泰維 定齋 朴泰輔 등과 同門受學하였으나 公의 나이가 最年少였음.

(8) 顯宗 5年 15歲時 全州李氏와 結婚하심, 顯宗 7年 17歲時 하루는 明谷께서 어느 글귀를 到底히 풀 수가 없어 公께 下問하시매 公이 解答한즉 明谷께서 公의 聰明함에 歎服하시었다 함.

顯宗 9年 19歲時 尤庵 宋時烈公을 京邸로 찾아 뵈웠음. 尤庵先生은 公의 季氏 都正公의 妻祖父가 되심.

(9) 艮齋公의 少年時節 貞洞에 凶家가 비어 있으며 每日 同志 몇 분과 모여 노셨는데, 하루는 벼란간 폭풍우가 쏟아져 다른 분들은 下人이 雨備를 가져와서 돌아가고 혼자 留宿하시게 되었었다. 한밤중에 떠들석하더니 一員大將이 甲冑를 갖추고 들어오는지라 公이 급히 일어나 맞으며 將軍께서는 누구신데 여기 枉臨하시느냐고 한즉 揖하며 가로대, 나는 前朝의 某大將인데 나의 墓가 이 집 안방 고래 밑에 있어 더워서 못견디겠기로 나를

移葬하여 달라고 請하러온즉 다 氣絶하여 죽어 所願을 못 풀었더니 오늘에야 그대를 만나 懇請하니 부디 다른 곳으로 移葬하여 달라 하고 없어지거늘, 궤히 여겨 翌日에 고래를 파 보니 果然 白骨이 있거늘, 向陽地로 移葬하였더니 그날 밤 其大將이 顯夢하여 無數히 致謝하고 後日 그대는 極貴하리라 하더니 其後에 果若其言하여 大成하시고 因하여 凶家가 公의 집이 되어 傳來하다가 高宗 乙未年에 外人이 强占함에 御書閣과 少陵祠宇와 더불어 撤去되고 只今은 美國大使館이 자리잡고 있음.

(10) 良齋公께서 隱退하시어 魚肥里에 계실 때인데 元來 淸高하시고 平凡하시어 一般村老와 같이 하시기로 남이 倉猝間에 大臣인줄 分揀하기 어려웠었다. 하루는 近處 松田酒幕에 들르셨던 중 마침 新延守丞이 點心次 들어온지라 店主人이 房이 없어 걱정이어늘, 當身이 下廳으로 避하시고 引導하라하여 한 房에 계신데 床이 들어와서 守丞이 갈비를 먹다가 公의 床으로 보내며 하는 말이 질겨서 못 먹겠으니 守監이나 자시라 하는지라, 公이 참으시고 回還하셨었다. 後에 店主人에게서 崔奉朝賀大監인 줄 알고 罔知所措하여 急히 와서 席藁待罪하였다. 公께서 叱責하시기를 守丞은 其地方의 爲民父母라 愛民善政할 줄 알아야하거늘 自己가 먹지 못하는 飲食을 늙은이에게 주는 그런 無禮한 者가 어찌 百姓을 다스려 善導할 수 있겠는가 하시며 단단히 後日을 警戒하여 보내시매 守丞은 百拜謝罪하고 因하여 改過遷善하고 善政하는 守丞이 되었다 함.

(13) 하루는 냇가에서 낚시를 하고 계시는데 마침 한 守丞이 車馬는 後方に 두고 公께 問候하러 들어오다가 그 때에 다리가 물에 떠서 없는지라 公을 村老로 알고 越川을 請하거늘, 公이 內心에 不快하시나 참으시고 應하시었더니, 中間에서 公의 金冠子를(當時 시골 계실 때는 參判때 冠子를 그대로 使用하심) 만지며 자네 同知하였나하거늘, 駭然히 여기시고 急히 들어와 앉으셨는데, 守丞이 들어와 뵈고 大驚失色하여 公 請罪하거늘, 靑年이 老人더러 越川하여 달라는 無禮함을 訓戒하여 보내시어, 어진 守丞을 만드셨다하니 公의 넓으신 度量과 人品은 可히 짐작할 수 있으며 人間이 조그만 權力과 地位를 믿고 驕慢放恣함은 禁物이요 恒常 謙遜하고 淸廉 正直하랍시는 後孫들에 對한 산 教訓이 아닐 수 없음.

列聖朝受教

在 夏
(宗務幹事)

列聖朝受教란 조선시대의 여러 先王들이 우리 海州崔氏들의 선조이신 海東孔子 文憲公 冲(984-1068)의 학덕과 敎學의 공이 큼을 기려 문헌공의 후손들에게 여러 모로 특전을 주어 보호할 것을 분부하는 下敎를 뜻한다.

이 수교는 수교가 아니고, 정조 21년(1797) 2월에 禮曹에서 우리 해주최씨문중에 내린 역대 수교를 근거로 하여 문헌공 후손이면 누구에게나 講列과 賤役을 면제 받도록 별도 문서를 만들도록 해줄 것을 예조에 탄원한 글이다. 그 原文과 번역문은 다음과 같다.

列聖朝受教

禮曹爲謄給事，本曹回啓，是白在天啓六年十一月日，忠清道居士人，崔湘等 駕前上言內臣矣徒等 始祖文憲公崔冲，當麗朝文教荒廢人面獸心之日，闡明道學，丕變倫紀，三綱大明，士風淳正，時稱海東孔子，故在我太祖大王，特爲傳教，曰先賢文憲公崔冲子孫，世世承承，東西正職，不次擢用，雖或支庶，沙汰考講，號牌軍籍，歲抄閑丁，凡百賤役，並勿侵責，使之安護，亦判下，該曹，爲白乎旃，太宗大王朝，亦以此意，再三傳教，曰崔冲子孫，勿計玄遠，錄用正職，無論支庶，賤役勿侵，亦判下該曹，自該曹，知委諸道，爲白有等 以前嘉靖壬子，萬歷癸丑，兩年號牌軍籍時，先賢崔冲子孫，別件成冊，全不舉論，爲白有置此實遵先賢重斯文之至意也，臣矣徒等，俱以崔冲孱孫，當此號牌之時，將未免賤役，驗考東史所錄，及祖宗廟列聖受教，冒萬死，呼籲於聖明之下，爲白去乎伏願天地父母，特垂仁政，俾臣矣徒等文憲公崔冲後裔諸

子諸孫，不入講列，免其軍役，永爲恒式，其餘庶孫，則依例考講，或有落講者，勿定軍役，每人量宜收布，俾不至專就閑遊，以爲恒式得中，上裁何如，傳，曰此類，並議于大臣，定奪施行，使無紛紜呼冤之弊，可也，事明傳教，大臣收議，左議政尹昉，判中樞府事申欽，右議政吳允謙，以爲文憲公諸子諸孫，其中嫡孫，免役，其餘落講者，收布事，號牌廳啓辭，實爲酌宜，而每度軍籍時，凡諸先賢子孫，別付成冊，不入講列事，係是先朝受教，皎然明白，故自下擅便撓改，亦難，上裁何如，傳，曰先賢安裕，一體勿論直孫支庶，考講軍役，並只勿侵可也，領議政李元翼，領中樞府事鄭有衍，並不收議，今此傳教內，辭意奉審，文憲公崔冲子孫，詳考世係，沙汰考講，歲抄年年閑丁，凡百賤役，切勿侵責事，號牌廳及各道觀察使，更申以知委施行事，判下爲有司所判下內，辭意奉審，先賢崔冲後裔，雖支庶，依列聖朝受教，切勿侵責，宜當合下，仰照驗施行，須至帖者，

右

先賢崔冲後裔

嘉慶二年二月 日

열성조수교(역문)

예조에서 베껴 나누어 준 일을 본조에서 회답하고 임금님께 아뢴 바 있는 인조 4년(1626 : 천계 6) 11월 일에 충청도에 사는 선비崔湘 등이 임금님의 행차길 앞에서 올린 말씀 속에,

신들의 시조 문헌공 최충은 고려조의 문교가 황폐하여 사람들이 열 줄은 사람이지만, 마음은 짐승과 같은 시대를 당하여 사람의 도리와 학문을 크게 밝혀 인륜과 기강을 크게 변화시켜 三綱이 아주 밝아지

禮曾為賸給事本曾回 啓是白在天啓六
年十月日忠清道居士人崔湘等 駕前
其言內臣英沆等始祖文憲公崔冲當麗祖
文教荒廢人面獸心之日闡明道學丕復傷祀
三綱大明士風淳正時補海東孔子以在我
太祖大王特為傳教曰先賢文憲公崔冲子孫世

쥬는 原文의 一部임

고, 선비의 풍모가 淳正해지도록 하였기에 당시의 사람들이 해동공자라고 일컬어 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태조대왕께오서는 특별히 전교하시어 “선현 문헌공 최충의 자손은 대대로 계속해서 문무관의 正職을 주되 차례에 구애받지 말고 뽑아 쓸 것이며, 비록 어찌다가 지손이나 서손이 되었더라도 考講의 제도에 따라 분별하여 號牌 軍籍에서 해마다 제외되는 閑丁으로 추려서 모든 賤役과 侵責에 들이지 말고, 그들로 하여금 편안히 살 수 있게 보호하라.” 하시고 관계 부처에서 처리하도록 맡기셨사오며, 태종대왕조께서도 또한 이 뜻을 가지고 재삼 전교하시면서 “최충의 자손은 대가 먼 것을 헤아리지 말고 정직에 채용하고, 지손과 서손을 따지지 말고 천역에서 면제시키라.” 하시고 역시 해당부서에서 처리하여 각도에 널리 알리도록 하교하셨사온 바, 지난 명종 7년(1552 : 가정 임자)과 광해군 5년(1613 : 만력 개축) 양년의 호패 균적을 조사할 때에 선현 최충의 자손들은 따로 이 문서를 만들어서 거론하지 아니하였사옵니다. 이는 실로 선현을 따라 斯文을 중시하는 지극한 뜻입니다. 신등은 최충의 가냘픈 후손으로써 이번 호패의 때를 당하여 앞으로는 천역을 면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우리나라 역사의 기록과 선대 여러 임금님들로부터 받자온 전교를 살펴서 죽기를 부릅쓰고 임금님의 앞에서 흐느껴 아뢰옵고서, 엿드려 바라옵건대 천지와 부모 같으신 임금님께오서는 특별히 어진 정사를 하셔서 신들 최충의 여러 후손들로 하여금 고강의 대열에 들게 하지 마시고, 균열을 면하게 하오셔서 길이 법이 되게 하옵시고, 그 나머지 서손들은 전례에 따라 고강으로 가리시고 혹 고강에 빠진 자라 하드라도 균역에는 差定하지 마시고, 매인마다 적절히 배를 건우시어 그들로 하여금 오로지 놀고 먹는 자들이 되지 못하게 하시어 영원한 법이 되게 하오심이 옳은 줄로 아오니, 임금님께오서는 재가 하여 주시옵소서.

하였던 바 임금님께서 전교하시기를 “이런 일들은 모두 대신들이 의론하여 시행 여부를 결정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시끄럽게 원통함을 호소하는 폐단이 없게 함이 옳겠다.”고 하셨습니다. 일이 분명하게 대신들이 의론하라는 전교가 있으므로, 左議政 尹昉(1563~1640)과 判中樞府事 申欽(1566~1628), 右議政 吳允謙(1559~1636)은 문헌공의 여러 자손들 중 嫡孫은 천역을 면제시키고, 그 나머지 落講者들은 배를 건우기로 하였습니다. 號牌廳에서는 계사를 올려 “실로 마땅하다고 짐작됩니다만, 매번 균적을 조사할 때마다 모든 선현들의 자손은 따로 이 문서를 만들어 講列에 들이지 않은 일은 바로 선왕조의 수교가 너무도 분명히 밝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래로부터 마음대로 편리하게 고치기도 또한 어렵사오니 위

에서 결재하여 주심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에서 이르시기를 “선현 安裕(1243~1306)는 일체로 직손이나 지손과 서손을 막론하고 고강과 군역에서 면제시킴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때에 영의정 李元翼(1547~1634)과 영중추부사 鄭有衍은 모두 심사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이 전교 안에 있는 속뜻을 받들어 살피면, 문헌공 최충의 자손은 세계를 자세히 고찰하여 고강을 분별하고, 해마다 한정을 뽑아 천역을 시키는 데에는 면제시키라는 뜻이오며, 호패청과 各道觀察使는 갱신하고 알리어 시행할 수 있는 길을 아래 소관 부서에 내려 준 것입니다. 교지의 뜻을 받들어 살피셔서 선현 최충의 후예는 비록 지손이건 서손이건 열성조의 수교에 따라서 일체를 侵責하지 않으심이 마땅하다고 여기웁니다. 밝게 살피셔서 시행하시되 모름지기 회답의 첩지를 내려 주실 것을 우러러 바랍니다.

이상

선현 최충의 후예

정조 21년(1797 : 가경 2) 2월 일

당상

華川樂園農場

代表 崔 萬 秀

農場：江原道 華川郡 下南面 原川里

電話 春川 52-8089

自宅：江原道 春川市 樂園洞 60-1

電話 春川 2-3363

冷, 暖房, 닥트, 衛生設備工事

三原設備工業社

代表 崔 一 燮

事務室：서울 龍山區 厚岩洞 105-3

電話 754-7585, 754-3277

自宅：서울 西大門區 弘濟 3洞 278-35

電話 722-7116

財大觀을 제작하게 되었을 때, 당시 文化財專門委員인 李德河氏를 통해서 동 碑碣의 사진과 함께 碣記의 내용에 접하고 그 碑文을 찬한 文憲公의 후손의 한사람으로서 감동을 받은 바가 있었다.

그리고는 직접 奉先弘慶寺碑碣을 찾아가 보아야 하겠다고 마음먹고 버르고 별렀으나 교통편 등으로 이러구러 미루어오다, 지난 1980년 12월 14일에야 그 뜻을 이루게 되었다. 校理公派宗誌 제 2집을 위한 취재가 그 목적의 하나였다. 그러므로 筆者가 奉先弘慶寺碑碣을 찾아간 것은 이번이 세번째가 되는 것이다.

이 奉先弘慶寺는, 고려 顯宗 12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965년전인 서기 1021년에 세워졌으며, 事蹟碑는 이 절에 屬해 있는 것으로서 절이 창건된지 5년후인 顯宗 17년(서기 1026년)에 세워졌다. 즉 立碑년대가 비문말미에 새겨져 있는데 聖上御圍之十八載太平紀曆之第六年夏四月 日謹記라고 되어 있다.

대한민국 국보 제 7 호로 지정될만큼 훌륭한 이 碑碣은 龜趺의 大部分이 매몰되어 下部의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괴수의 형상을 한 머리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있는 점이 아주 특이하며 조각수법 또한 소박하여 고려때의 특징을 엿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일반적인

비석의 형태와 같이 龜趺위에 長方형의 비신을 세우고 그 위에다 螭首를 놓고 있다. 龜甲중양에 碑座를 마련하였는데 仰蓮과 伏蓮을 붙여서 만들었으며, 碑身은 앞면에 테두리를 돌리고 그 안에 碑文을 각자 하였는데 字徑 2.4cm의 楷書가 무척 인상적이었다. 또 外周에는 唐草紋帶를, 양측면에는 寶相華紋을 조각하였으며 각 부위의 조각이 뛰어나 사실적이다. 螭首는, 높은 山形으로 圖式化된 雲龍紋이 조식되었는데, 이것은 현존하는 사적비중에서 가장 완벽한 아름다움을 지닌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말이었다. 한편 앞면 상단에는 “奉先弘慶寺碣記”라고 橫書가 새겨져 있으며 이것은 고려시대 석비의 通式을 따른 것이라고 한다. 碑身의 크기는 現高 2.8m, 碑身高 1.94m, 幅 1m이며 전부가 花崗岩으로 되어 있다. 現在 所在地의 行政區域은, 忠南天安市大弘里인데 보통 성환으로 통하고 있다.

아무렇든지 儒佛이 공존하던 당시 儒佛兼通했던 文憲公께서 임금의 命에 의해 이 碑碣의 碑文을 작성하셨는데 그 文章의 기교는 後世학자들이 한결같이 경탄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마모가 되어 판독이 어려운데가 있으나 앞머리에 翰林學士宣議郎內史舍人知 制誥兼史館 修撰官賜紫金魚袋臣崔冲 奉 教撰이라고

刻字가 되어 있어 더욱 가슴을 뭉클하게 한다.

끝으로, 당시의 時代相을 이해하지 못하는 李朝의 유학자들이 文憲公의 佛寺碑文 作成을 트집잡아 文廟配享을 反對한 거초등은, 우리 후손들을 울분케 하고 있음을 부기해 둔다.

碑文全文

奉先弘慶寺碣記 原文

翰林學士宣議郎內史舍人知
制誥兼史館修撰官賜紫金魚袋臣
崔冲 奉 教撰

奉議郎國子丞臣白玄禮奉 書
并篆額

臣謹按內典云招提者謂招引提攜十方英俊弘闡 佛法居止之所焉又莊子說蘧廬而視仁義晉書論逆旅以濟『公私今之於稷山縣成觀驛北路一牛鳴地新置寺者即其類也初是地無長短之亭人煙隔絕有藿蒲之澤劫賊』頻多雖岐路之要衝實往來之艱梗不可終否屬於盛時惟我聖上守位以仁秉文之德干戈威揚皆偃『之矣 禮樂刑政畢修之矣若

乃喜捨之緣遙追之業求諸往代無得而踰嘗 詔左右兩街都僧統』通眞光教圓濟弘道大師臣迥兢而曰昔者 皇考安宗憲景考懿英文大王初九潛身大千歸命每賢法華之妙說深嘉中道之化城方欲 効行未能勸集朕即善繼其 志永觀厥成一則救濟征人莫憂於險地一則招攜緇侶載轄於法輪師宜力視贊襄躬親胥宇副我書貞之 命主其慮事之權兢纔受 綸言便圖經始縱九迴而無倦須百足以不僵所貴同心用將籲俊爰有廣利證玄大師賜紫沙門臣得聰靜慮修真悟『理大德賜紫沙門臣藏琳等競扶願轂枚卜要途蒸然來新斯實與我役 上續差推誠致理翊載功臣金紫興祿大夫兵部尚書知中樞院事兼 太子太博上柱國天水縣開男食邑三百戶臣姜民瞻中樞副使中大夫祕書監兼 太子賓客柱國宜春縣開國男食邑三百戶賜紫金魚袋臣金猛等爲別監使於是事諧共理謗絕宣驕疇徒勿奪於農』時程物免煩於公帑陶人施瓦木客供材雪鋸風斤蜂聚蕩心之匠雲鋤電錘駿奔游手之群起自丙辰秋迄于辛酉歲凡造得堂殿門廊等共二百餘間所置塑畫諸功德像及鐘磬幡盖具如見在其數寔繁乃 勅賜額爲奉先弘慶寺莫不功由鳩僦勢若飛



來像殿經樓麗異而宛疑兜率梟銅鴈塔
莊嚴而遙認爛陀既當三寶勃興實可千
燈相續又於寺西對立客館一區計八十
間號曰廣緣通化院斯亦溫廬冬密涼屋
夏寬積以糗糧貯之芻秣施調窮急設雍
伯之義漿防備盜紆列陳留之樓鼓夫如
是則不獨方袍之衆虛往實歸亦令裘足
之徒宵盤畫憇終見證眞之境蔑聞焚次
之虞向若非酌古訟今賽 先皇之弘願
隨機設教崇 彼佛之妙門則兼濟之 仁
幾乎而息於戲權輿有旨 祖述無虧 肯
構之功既存矣 奉行之道亦廣矣盡善
盡美念茲在茲今則申命儒生俾書盛事
臣思避燥吻學淺嚼筋雖長鄉形似之
『文無能爲也而小子斐然之作竊敢効
焉畧述端倪聊裨實錄時』 聖上御圍之
十八載太平紀曆之第六年夏四月 日
謹記

奉 宣權知寺主圓慧智廣普觀善辯
通濟得理三重大師賜 『紫沙門臣彥崇
都監解行無垢大師賜』 紫沙門臣朗崇
副都監副寺主沙門臣成普沙門臣慧延
僧殷妙暹遠義玄奉謙等奉

譯 文

봉선 흥경사 갈기(奉先弘慶寺碣記)

한림학사(翰林學士) 선의랑(宣
議郎) 내사사인(內史舍人) 지제
고(知制誥)겸 사관수찬관(史館修
撰官) 사자금어대(賜紫金魚袋)인
신 최충(崔冲)이 왕명을 받들어
지음.

봉의랑(奉議郎) 국자승(國子丞)
인 신 백현례(白玄禮)가 왕명으
로 <글씨를 씀>.

신이 삼가 살피건대 불경 내전에 이
르기를, 초제(招提)라는 것은 여러 곳
의 우수한 사람을 끌어들이 손잡고 불
법을 천명하기 위하여 거처하는 곳이다
라고 하였으며, 또 장자(莊子)에는 여
관을 설치하여 인의를 보인다라고 하
였으며 진서(晉書)에는 여관을 만들어
서 공무나 사사로 다니는 사람을 구제
한다고 하였다. 지금 직산현(稷山縣)의
성환역(成歡驛)에서 북쪽으로 1마장쯤
되는 곳에 새로 절을 세운 것은 곧 그
러한 종류이다. 처음 이 땅에는 전연
객주집이 없어서 사람의 집이라고는 불
수 없으며, 그런데다가 갈대가 우거진
높이 있어서 강도가 상당히 많으므로 비
록 갈림길로서 중요한 지점이지만 사실
은 왕래하기가 매우 어려웠으므로, 태
평성대에 이 곳을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것이였다. 생각하건대 우리 성상께서
인(仁)으로써 왕위를 지키며 문화의 덕

있는 사람들이 달려와서 일하였다. 병진년(고려 현종 7년, 1016) 가을에 시작하여 신유년(동 1021)까지 법당·불전·대문·행랑등 모두 2백여 간을 세웠고, 그 곳에 안치할 소상(塑像), 화상등 여러 공덕의 상과 종경(鍾磬), 번개(幡蓋)들은 모두 현재에 있는 대로이다. 그 수가 사실 많았다. 마침내 절 이름을 봉선홍경사(奉先弘慶寺)라고 내렸다. 공사는 여러 사람의 힘을 합쳐서 이룬 것인데 외모는 어디서 날아온 듯이 보였다. 불상을 모신 불전, 불경을 봉안한 경루(經樓)는 화려하고 기이하여 완연히 토솔궁(兜率宮)인 듯 의심스럽고 오리모양의 종과 기러기를 문은 탑은 장엄하여 멀리서도 난타(爛陀)임을 알 수 있다. 이미 불법승상보가 크게 일어나게 되니 실로 영원한 불법의 계통이 서로 계승되리로다. 또한 절의 서편에 여관을 마주 보고 세웠는데, 한 장소에 80간 쯤 되고, 이름하여 광연통화원(廣緣通化院)이라 하였다. 이곳도 사용될 따듯한 온돌방과 여름에 사용할 넓직하고 시원한 방이 마련되었고, 식량을 저축하여 말먹이도 저장하였다. 빈궁한 사람을 구제함은 응백(雍伯)이 설치한 의장(義漿)의 제도와 같으며 도둑을 방지함은 진류현(陳留縣)에서 누고(樓鼓)를 세운 것과 같다. 이렇게 되

고 보니, 범복을 입은 무리가 맨손으로 왔다가 실속을 얻어서 돌아갈 뿐 아니라, 겹을 먹고 길을 가지 못하던 나그네가 밤에 헤메다가 낮에는 휴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드디어는 진리를 증명하는 지역이 되었으며 불한당이 나올 우려가 없게 되었다. 지난번에 만일 옛것을 참작하여 현재를 감안하여 성황의 염원을 이루며 기회를 따라서 가르침을 실시하여 저 부처님의 오묘한 법문을 높이지 아니하였다면, 곧 모든 사람을 구제해야 할 인자한 정책이 하마트면 없어질 뻔하였다. 아아, 출발함에 깊은 의의가 있으나 영원토록 계승해야만 될 것이다. 창건한 공로는 이미 이루었으니, 받들어 시행하는 길도 또한 범위가 넓다. 최선을 다하며 언제나 정신을 가져야 할 것이다. 곧 유생에게 명하여 이 거룩한 사실을 기록하라 하셨는데, 신은 생각이 부족하며 학식이 얕아서 사마장경(司馬長卿)처럼 형상 그대로의 문장을 쓸 수는 없사오나 서생으로서 능력있는 대로의 작품을 감히 써보려 하나이다. 대략 전말을 기술하여 역사 자료로서의 도움이 되게 하였습니다. 때는 성상께서 왕위에 오르신지 18년, 태평(太平) 연호 제6년 여름 4월 일에 삼가 기(記)를 씀. —

봉선권지사주(奉宣權知寺主) 원혜지

광보관선변통제득리 삼중대사(圓慧智廣 普觀善辯通濟得理三重大師) 사자사문(賜紫沙門)인 신 언송(彦崇)과 도감(都監) 해행무구대사(解行無垢大師) 사자사문(賜紫沙門)인 신 랑송(郎崇)과 부도감

(副都監) 부사주사문(副寺主沙門)인 신 성보(成普)와 사문(沙門)인 신 혜연(慧延), 승(僧) 은묘(殷妙)·섬원(暹遠)·의현(義玄)·봉겸(奉謙) 등이 <왕명을> 받들어 <세움>

原州 居頓寺址 踏查記

康 賢

(弘益大教授 文學博士)

1985년 2월 14일 23시.

“따르릉! 따르릉!”

상머리의 전화기가 갑자기 저를 돌봐 달라는 듯이 고함을 치며 울었다.

“여보세요! 서교동입니다.”

전화의 주인공은 우리 대종회 사무실의 온 살림을 도맡아 동분서주하시는 사무국장 병필(炳弼)님이셨다.

“내일 아침 원주에 가기로 한 것 잊지 않으셨지요? 그런데 거돈사 절도 없어졌고, 그 자리에 있던 비석과 탑은 모두 경북궁내로 옮겨 와서 아무 것도 없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공연히 헛걸음만 하지 않을까요?”

“제가 오늘 저희 학교 동료 교수 중에 원주 출신을 만나 문의하였더니, 자기도 잘 알 수 없지만 일단 원주에

내려가서서 원주문화원장 황 주익(黃柱益)님을 만나 물으시면 잘 알려 드릴 것이라면서 자기가 원주로 전화를 하여 편의를 도모해 드리도록 해 놓겠으니 내려가 보라고 하던데요. 비록 허행이 되더라도 안 가 본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왕 예정했던 것이니까 그냥 가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내일 아침 7시 반까지 고속버스 터미널로 나오시지요.”

일단은 허행을 작오하고 내일 원주를 가서 일이 되어가는 양상에 따라 처리해 나가기로 하고 되를 짜듯 약속은 끝을 맺었다. 그리고는 이책 저책을 뒤적여 거돈사의 절터가 현행정 구역상으로 원성군 부론면 정산리(原城郡富論面鼎

山里)에 있다는 주소를 알게 되었다.

마치 국민학교 시절 소풍일 아침과 같이 설레는 마음을 안고 새벽 공기를 달리는 버스를 타고 겨우겨우 약속시간을 대어 고속버스 정류장에 도착하니, 교회(古稀)를 바라보는 사무국장님께서 벌써 전문 등산가의 옷차림으로 대합실에 나오셔서 기다리고 계시지 않는가!

일행은 사무국장님과 필자의 단 2명이다. 다시 더 기다릴 사람이 없으므로, 7시 35분차를 타고 매연(媒煙)으로 탁해진 서울의 도심(都心)을 빠져 나가니, 새장 안에 갇혔던 새가 풀려나기라도 한 것처럼 마냥 가슴이 시원하고, 코끝을 자극하는 아침 기운이 모두 향기롭기만 하였다. 차창을 통하여 만화경(萬華鏡)처럼 펼쳐지는 풍경은 얼어붙었던 대지 위에 따듯한 봄볕에 만물이 가벼이 기지개를 펴는 듯 생기가 넘쳐 보인다.

사무국장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로 담소하는 동안에 우리를 싣고 충실히도 달리던 버스는 어느덧 우리들의 목적지인 원주에 닿았다고 한다. 시계를 보니, 9시 20분이었다.

우리는 우선 원주문화원을 향하여 영업용 택시에 몸을 실었다. 기본 요금도 안되어 다 왔다고 내리라는 것이다. 알고 보니 원주문화원은 바로 원주전신전

화국 뒤에 바로 붙어 있었다.

사무실을 찾아 들어가니, 고희는 되었을 듯한 노인들이 반가이 맞아 주신다. 우리는 통성명을 한 뒤,

“거론사지를 답사하고자 서울서 내려 왔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고 도움을 청하였다.

“그렇잖아도 오늘 다른 볼 일이 있는데 어제 밤에 서울에서 손님이 내려 오실 것이니, 특별히 급한 일이 없으면, 기다렸다가 안내해 올리라는 전화를 받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라면서,

“자동차를 가져 오셨나요?”

하고 묻는다.

“그냥 왔는데요. 시내버스라든가 일반 버스라든가 교통편이 어떻게 되는지요? 저희들은 이곳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고 오직 원장님만 믿고 왔습니다.”

하니, 황원장은 난처한 듯이

“이곳 교통편이 아주 나쁩니다. 일반 버스는 하루 2회밖에 다니지 않고, 지금 시내버스를 타고 들어가신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가서 다른 일반 버스로 갈아타야 하고, 또 그렇게 들어가면, 현지에서 주무셔야지 바로 나오시기가 힘 드실 겁니다. 또 현지에는

주무실만한 숙박시설도 없습니다.”
라고 설명을 자세히 해 주는데 우리는
할 말을 잊었다.

“가만히 계십시다.”
라고 혼자 중얼거리 듯 나직히 말하시
더니, 황원장은 어딘가에 전화를 걸어
차편을 마련하여 당신도 동승하셔서 우
리들을 친절히 안내해 주신다.

우리가 원주문화원을 출발한 것은 11
시 10분. 文幕까지의 15킬로미터는 유
료 도로인 京原 고속도로이고, 문막서
부론면 소재지까지의 9킬로미터와 부론
서 정산리까지의 8킬로미터는 비포장도
로였다. 12시 20분
에 부론에 닿은 우리
는 시장끼를 느껴 간
단히 점심을 먹고,
13시 10분에 부론을
출발하여 다지고
개를 넘어 거돈사지
가 있는 정산리에 이
르니, 시간은 2시
가 조금 지났다. 겨
울 동안 열었던 길
바닥이 걸만 녹아서
어찌나 미끄러운지
여간 조심이 되지
않았다. 지금 생각
하니, 그 마음씨 고

운 40대의 노총각 운전기사에게 수고
료를 제대로 못 준 것이 마음에 몹시
걸린다. 황원장님이 좋은 규수를 곧 친
거하겠더니, 어떻게 잘 되었는지도
궁금하다.

아무튼 차는 담안 부락 입구에 세워
두고 황원장님과 사무국장님을 모시고
거돈사 터를 걸어 올라가 보니, 과연 거
찰이었던 것은 한눈으로 짐작할 수 있
었다. 황원장님이 지으신 “원주·원성
향토지”에 따르면, 현재 보존되어 있는
절터만도 그 면적이 7,498평이나 된다고
한다. 그런데 절이 있었을 당시에는 지



(居頓寺址)

금의 담안부락이라는 부락도 모두 절의 담 안에 있었다고 하여 부락 이름 자체가 그렇게 일컬어졌고, 또 현재는 1학년에서 6학년까지 각 1학급 씩의 6학급 규모의 정산국민학교가 들어선 부지 전부도 원래 이 절터였다고 하니 그 경내의 넓이를 헤아릴 만하였다. 지난 겨울 방학동안에 단국대학교의 鄭永鎬교수가 문화재 전문 위원으로서 중앙과 원주시청에 진정을 하여 발굴 조사도 하고, 진입로 정비 및 경계를 위한 철책 보수 등을 새로이하였다고 황원장님은 귀뜸해 준다.

사국무장님과 필자는 목적이 문헌공할 아버님께서 지으셨다는 원공국사비의 모습이 궁금하였다. 살아 움직이는 듯한 큰 돌거북의 등에 실려 우뚝 솟아 있는 碑身은 높이가 245센티미터이고, 폭이 126센티미터라고 한다. 螭首는 두마리의 용이 여의주를 희롱하고 있는 형상을 섬세히 조각하였으며, 거대한 비신을 등에 지고 다소곳이 엮드려 있는 돌거북은 높이가 120센티미터나 되는데 오른쪽 발톱 셋이 깨어져 없어졌다. 이 비가 세워진 것이 1025년이니, 그 동안 무슨 변란과 어떤 풍상을 겪지 않았을까마는 이 발톱이 잘려 나간 데에 대하여만은 이런 애국 충정의 녀이 서려 있다고 한다.

중앙선 철도가 놓이기 이전 조선이 망한 뒤 왜인들이 공출을 세금으로 걷어 문막의 蟾江 항구인 물막으로 배에 실어 運輸하였는데 이 비석이 있는 지역에만 이르면, 그 漕運船이 파선하여 손실이 막대하였으나, 그 원인을 알지 못하여 어쩔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날 일본에서 온 왜승이 이곳을 와서 이 원공국사 승묘탑비(勝妙塔碑)의 龜趺를 보고, 하는 말이

“이 앞 강물에 이상한 일이 없느냐?”

“세곡(稅穀)을 싣고 다니는 조운배가 자주 이 앞강물에만 이르면 파선된다.”

“그럴 것이다. 그것은 바로 이 돌거북의 오른쪽 발톱 때문이다. 이 귀부의 오른쪽 발톱이 힘차 배를 싣통력으로 끌어당기기 때문이다. 이 돌거북의 그 발톱을 떼내어 없애 보라.

그러면 앞으로는 무사할 것이다.”

라고 하여 이 지역 일인 관리들이 메로 두드려 그 발톱을 제거해 버렸기 때문에 지금처럼 병신발이 되었고, 그 앞강물에서는 배가 파선되는 일이 없어졌다고 한다.

그리고 이 비에 관하여 원성군수 이름으로 소개하고 있는 안내문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거둔사 원공국사 승묘탑비

居頓寺圓空國師勝妙塔碑

(보물 제78호)

소재지 : 강원도 원성군 부론면 정산리
 이 비는 고려의 고승 원공국사(圓空國師 : 930—1018)의 행적을 기록한 비로서 대학자인 崔冲이 비문을 짓고 金巨雄이 글씨를 써서 顯宗 16년(1025)에 세웠다. 이 비 옆에는 원공국사의 浮屠(보물 제190호)인 勝妙塔이 있었으나 현재는 경복궁 안에 옮겨져 있다.

龜趺의 거북머리가 용머리같이 변화하였는데 양쪽 귀 뒤가 물고기 지느러미 같이 되어 있다. 龜甲紋 안에는 卍字와 연꽃무늬가 교대로 장식되었다. 비머리인 螭首에는 구름 위에 요동치는 용이 불꽃에 싸인 寶珠를 닦아 물고자 하는 모습을 섬세하고 화려하게 조각하였다. 이 비는 높이가 245cm, 폭 126cm이며 고려초 조각예술의 높은 솜씨를 보여주고 있다.

1984. 12.

원 성 군 수

“거둔사”를 “거둔사”라고 잘못 표기해 놓은 것이 아무리 보아도 옥의 티처럼 여겨졌다.

이 안내문판과 비와의 사이에는 이 비의 주인공인 원공국사의 생애에 관한

부분만을 비문에서 뽑아 임창순이 역술하고 박문교가 써서 등판에 양각으로 부조하여 사면(斜面)의 백색 대석에 시설해 놓은 국문비가 있다. 그 비문의 전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居頓寺 圓空國師 勝妙塔碑

대사의 성은 李씨 이름은 智宗 자는 神則 全州 출신이다. 아버지는 行順 어머니는 金씨다. 신라 敬順王 4년(930)에 출생하였다. 8세 때에 舍那寺의 스님 弘梵三藏에게 가서 머리를 깎고 중이 되었으나, 흥범이 우리나라를 떠났기 때문에 다시 廣化寺 景哲스님에게서 배우고, 고려 定宗 1년(946) 17세 때에 靈通寺에서 戒를 받고, 光宗 4년(953)에 曠陽山 慧超의 문하에서 공부하고 뒤에 승려에게 실시하는 禪科에 합격하였다. 광종은 중국의 문화를 대량으로 도입하여 모든 제도를 개혁하였는데 그 당시 중국에 유학하는 승려들이 많이 있었다. 대사는 처음에는 유학을 그다지 필요로 하지 않았으나, 證眞大師가 꿈에 나타나 유학을 권하는 바람에 마음을 바꾸어 바다를 건너 吳越에 들어가서 永明寺에 들러 壽禪師를 만나고, 다시 國淸寺의 淨光大師를 찾아서 大定 慧論과 天台教儀를 배웠다. 광종 19년

(968)에 僧統 贊寧과 天台縣宰 任埴 등의 요청에 의하여 그곳 傳敎院에서 大定慧論과 法華經을 강의하고, 광종 21년에 본국에 돌아왔다. 광종은 대사를 맞이하여 金光禪院에 머물게 하고 重大師에 임명하였다. 그리고 대사는 景宗 때에 三重大師가 되었다. 成宗 때에 積石寺로 옮기고 임금 앞에서 강설을 개진하였다. 穆宗 때에 禪師에 임명되고 佛恩寺, 護國寺, 帝釋院의 住持를 동시에 맡았다. 顯宗은 대사를 大禪師에 임명하였고, 뒤에 다시 王師에 봉하였다. 현종 9년(1018) 4월에 原州賢溪山居頓寺에 은퇴하여 그 달 17일에 89세로 입적하였다. 현종은 國師로 추증하고 諡號는 圓空탑의 명칭은 勝妙라 하였다. 대사의 法號는 여러번 추가되어 慧月光天遍照至覺智滿圓默寂然普化라 하였다.

원미 고려 현종 16년(1025)
 글 尙書吏部郎中 崔冲
 글씨 禮賓丞 金巨雄

1981년 10월

임창순 역술 박문교 씀

이 글을 다 본 뒤 우리는 갔던 길을 되돌아 내려 오면서 삼층 석탑과 대웅전 자리였던 듯한 곳 중앙에 약 2m 높이의 돌로 된 佛座臺를 보았다. 이 삼

층 석탑은 최근에 문화재로 지정되었다고 한다. 알미늄 금속판을 사용하여 새로 설치한 안내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다.

居頓寺址 三層石塔

보물 제750호

소재지 : 강원도 원성군 부론면 정산리



(居頓寺址)

이 석탑은 9세기 신라 석탑이다. 이 중 基壇 위에 3층의 탑신을 올렸다. 탑신에는 隅柱가 새겨 있고 屋蓋石은 층급 받침이 5단으로 귀끝이 약간 치켜 들리었다. 탑 꼭대기의 相輪部에는 露盤이 남아 있다. 이 탑은 통일신라 3층 定型塔 樣式을 따르고 있으며 높이가 5.3m이다.

1984. 12.

원 성 군 수

그리고 金堂址에는 앞쪽으로 6, 옆쪽

으로 5줄의 주초석이 잘 유존되어 있다. 이 주초석의 배열로 보아 본래는 약 20여간의 큰 법당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황원장님의 설명이었다. 3,4년전까지만 해도 이 자리가 복숭아밭과수원이었으며, 사람들이 사는 살림집도 꽤 여러 채가 있었는데 문화재 보존을 강력히 주장하여 지난 겨울에 겨우 모두 철거시키고 지금 이만큼 절 경내가 정리된 것은 단국대학 박물관의 조사단의 공로라고까지 알려 주신다. 또 지금의 유적지 입구에는 약 350년으로 추정되는 수령의 느티나무가 한 그루서 있는데, 키는 약 17m, 밑둥의 둘레는 약 4m쯤 된다. 이 느티나무에서 30m 아래로 내려오면, 정산리의 문화 중심이 되는 국민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 운동장에는 길이 960cm, 폭 80cm, 두께 57cm의 큰 화강석재가 있다. 이는 아마도 당간지주(幢竿支柱)로 다듬기 위하여 운반하여다 두고 미처 완성을 보지 이전에 이 거둔사는 폐찰(廢刹)이 된 듯하다. 이 석재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설화가 전해 온다고 한다.

이 절에서 당간지주를 세우기 위하여 석재를 현계산(賢溪山) 너머 비두리(碑頭里)에서 이 석재를 떠 놓기는 하였으나, 운반해 올 방법이 없어 고민하였는데, 이 사실을 안 이 부락에

사는 힘센 남매가 힘겨루기를 하면서 옮겨오기로 하였다. 부모도 없이 오누이만 사는 집이라서 누이가 조석을 마련해 주는데, 아무래도 누이가 생각할 때, 남동생과 힘겨루기를 할 경우, 자기가 불리함을 느끼고 필승의 꾀를 내었다. 그래서 시합일을 미리 정해 놓고, 그날 저녁에 콩죽을 쑤어 먹고, 동생에게는 찬물을 먹여 설사를 하게 하였다. 남자 동생은 그것도 모르고 현장에 가서 그 석재를 지고 오다가 설사가 나므로 불 일을 본 뒤에 다시 지고 오려니까 힘이 모자라서 그 거대한 석재에 깔려 압사당하고 말았다. 그래서 그 한 개의 석재는 현계산 동남쪽 기슭에 있고, 이 정산국민학교 운동장에 있는 것은 누이가 지고 온 것이라고 한다.

한편 이 거둔사가 언제 왜 폐사가 되었는가에 대하여는 아직도 전혀 알 수가 없다는 황원장님의 설명이었다.

이 절터에서 약 30분을 지체하고 나니,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들어 금방 비라도 쏟아질 듯하여 원주로 되돌아오는 길을 재촉하니, 자동차 기사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려면, 고갯길이 올 때보다 더욱 가파라서 시간도 많이 걸리거니와 제일 위험도가 높으니, 거리로 보아서는 훨씬 멀더라도 평탄한 길로 가는 것

이 좋겠다는 주장을 한다. 이 고장 지리에 어두운 사무국장님과 필자는 좋은 대로 하라고 하여 원성군의 서남부 반바퀴를 도는 장거리 자동차 여행을 즐겼다. 부론면, 귀래면, 흥업면을 거쳐 원주시내에 다시 도착하니 17시가 거의 되었다.

청림 강직하면서도 자상하신 황원장님의 배려로 고속버스 정류장까지도 차편을 마련해 주신 덕분에 우리는 편안히 이번 답사를 마칠 수 있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끝으로 문헌공께서 지으신 비문은 “朝鮮金石總覽” 상권 쪽 253-259에서 재인하여 부록하여 훌륭한 후손의 번역을 기대하기로 한다.

贈諡國空圓師勝妙之塔

碑銘 (題額)

高麗國原州賢溪山居頓寺故 王師慧月光天遍照至覺智滿圓默寂然普化大禪師贈諡圓空國師勝妙之塔碑銘并序

中樞直學士宣議郎尙書吏部郎中
知 制誥兼史館修撰官賜紫 金魚
袋臣崔冲奉 宣撰

朝請郎禮賓丞賜緋臣金巨雄奉
宣書并篆額

恭聞佛道玄微了一心而即是禪源澹寂與諸法以超然得之者權實都忘觀之者色空俱泯而緣群生見執萬種差殊非階漸無以發其蒙非筌筮無以到彼岸縱靈羊挂角難可追尋猶師子嘖申必須方便故乃無謂有謂不聞而聞迦葉臆對於西乾達摩臚傳於東震付衣分座或示信於衆觀曲尺剪刀或強名於諸諭師師密授符契允諸祖祖相承綴旒弗絕泊夫去聖逾遠光靈漸衰前覺者瞻之在前後隨者瞠若乎後鑿丘求井都迷阿耨之宗摘埴索途盡昧純陶之理自非空門拂土季世畸人將何存意遺言能得其妙應機適變不恆厥居紐大音之解徽張脩網之頽紀其誰尸者唯我有之師諱智宗字神則俗姓李氏全州人也父行順抱義戴仁履謙居寡愷悌君子常求福以不回疴僂丈人自凝神而有道母金氏鴻妻竝譽萊婦齊名和鳴美著於鳳占蕃衍慶標於椒詠嘗夢金刹一竿上揆雲端有龐眉僧舉手指之曰此大威德你可護持因即有娠欲臨彌月手勤香火口絕葷腥修胎教以惟精契產經而載誕師呈姿歧嶷稟性英奇爰從襁褓之中便是風塵之外松生徑寸先知構厦之材江出濫觴預識涵空之量年

甫八歲強拋跨竹擬駕真乘忽罷弄璋思探法寶會弘梵三藏來寓舍那寺遂踵門而詫乞主善爲師便合投針容令落髮方依隅座未換簫灰及梵尋泛大洋却歸中印既弗同舟而濟固當送往事居轉奉廣化寺景哲和尚更展攝齋常勤受業則能師逸功倍人十已千青出於藍其色逾過石投于水厥深易臻衆謂耆成誰云幼學開寶三年稟具於靈通寺之官壇瑠璃戒行三業已清齒齒慧心六塵難染嘗過社省之有青衣誤取肉櫃中所貯米而炊俄自顛蹶疾悸而曰我是山神護此上人汝豈容易弗潔其味乎聽者驚恐爭加禮重其靈驗多此類也廣順三年造曦陽山超禪師時有侍者僧灑掃法堂少許地不受水超問曰有箇處水不著你作麼生僧無對師代曰更不要灑一任掃地超公乍聆善應深識道存謂若廢箴一言阮瞻三語因成偈頌用播褒稱美價繇是頓高賓筵以之咸服屬顯德初光宗大王立皇極崇法門徵雪嶺之禪俾伸角妙選丹霞之佛明示懸科師雄入議圍首探理窟疊雙之絕藝彰累百之高名于時用夏變夷正契車書之混陟遐自邇競追汗漫之蹤凡是同年盡遊西國而獨知足之足念茲在茲靡過虎溪却爲牛後未幾魂交故證真大師曰弗登山何以小魯弗觀海何以

狹河事既如斯汝宜往矣師覺曰昔者常啼東請出聽於神人善財南求蓋親於知識今則時非可失理與冥符雖云道阻且長爭敢人涉印否六年夏徑臻轂下仰告征期光宗聞入洛之言曰愈懇請詠于郿之什親置餞筵既叙睽離爰遵跋涉擊扶搖於九萬鵬翼橫天經浩渺於三千馬銜息浪得達吳越國先謁永明寺壽禪師壽問曰爲法來耶爲事來耶師云爲法來曰法無有二而遍沙界何勞過海來到這裏日既遍沙界何妨過來壽公豁開青眼優待黃頭便解髻珠即傳心印故得入親近地修對治門時時止飽於醍醐更無他味日日唯聞於蒼蔔不雜餘香默識玄同神情朝徹峻豐二年漸次抵國清寺膜拜淨光大師光亦開連榻靡閒升堂思欲伯喈書附於王生重耳經傳於尹令尋以大定慧論天台教授師師是彝是訓如切如磋那同八月之春似待九年之妙雖曾宿覺尙籍時勤開寶元年歲杪僧統知內道場功德事贊寧天台縣宰任埴等聞師精研慧亦足可屠龍敏發玄機宜堪中鵠高山仰止異口同音請於傳教院講大定慧論并法華經師率意而從當仁不讓以爲行商告倦闔示化城蕩子祛疑須開寶藏矢在絃而旋發刀引鏡以且成除陟猊臺乍麾麈柄對三根而賈勇論六慧以抗

稜足使如堵而觀折牀而聽荆渚九旬之講厥風戢然南徐百日之談其塗轂矣既而睡見本國有寶塔楮天自繫繩挽之塔隨力俯仰又申感故證真大師曰汝能得意胡莫詠歸耶乃謂動在隨緣濟無臭載若悟式微之戒遄迴不係之程三年攘袂而興泛盃而渡已叶易東之志人稱居右之才光宗視以羅什如秦摩騰入漢益厚優賢之意彌敦獎善之仁初署大師延請居於金光禪院末年加重大師施磨衲袈裟自後衆所貝瞻滋多兼濟雖玄玄之趣桃李無言而悱悱之流稻麻成列名高嶼譽邁崆峒歷代寶之他皆倣此故至景宗踐祚除三重大師賜水精念珠成宗朝遷住積石寺號爲慧月淳化中以特飛芝詔迎入紫宮請啓高談冀聞妙義寧効少林之觀壁且同宣室之話釐載寤宸襟優承寵貺仍受磨衲蔭脊穆宗繼承先志亦締勝緣顧鶴儀而暫不曠時垂鴻霈以略無虛歲累加光天遍炤至覺智滿圓默禪師贈繡方袍兼以佛恩寺護國外帝釋院等爲住持之所焉暨今上應一千年昌運奄撫神圖轉十二行法輪恢弘像教召義龍而雲躍呼律虎以風騰崇授大禪師請住廣明寺進法稱曰寂然開泰二年秋有詔曰朕聞上從軒皇下逮周發皆資師保用福邦家斯所以崇德象

賢亦不敢倚一慢二者也今覩大禪師識趨券內心出環中灑甘露於敬田融葆光於實際惚持至理開悟衆迷朕何不師之乎群臣罔有異辭僉云可矣乃遣亞相庾方密使張延祐執憲李昉等續奉九重之命往扣玄關累伸三返之儀斬開絳帳師以月讓雖固天心不移安能道隱無名止合趣時近遂因循而應之然後上親詣拜爲王師仍獻金銀線織成罽錦法衣器具茗荝等數繁不載故能禮優勝具情極尸尊方推請益之誠勉盡質疑之間目改月化聞斯行諸師警欬一音言提萬行簾洪鍾而待扣響應有緣臺藻鏡以忘罷炤通無礙剌定水而資帝澤廓真空而導皇風其利博哉爲弘濟也則彼靈裕顯升於國統誠瑣瑣焉慧宗稱首於頭陀是區區者擬于此際不可同波越三年又加號曰普化皆所謂有大德者心得其名矣後以欬邁風痾綿留氣序十全參請尙傳遺類之言萬乘疚懷頻致藥瘍之施有親串謂師云夫唯病病縱曰聖賢爲是栖栖何親都邑況垂暮齒宜軫歸心師聞之听然而笑曰庸詎知安道先生與命期而始去淨名居士因衆疾以且憂苟未當途那忙褻足汝謂予自利耶蓋欲利他之故也天禧二年首夏道之將廢時然後行振金錫以告辭拂衲衣而長蘆沙洲獨

鳥迢迢而飛入烟波碧落孤雲杳々而旋
尋洞壑止于原州賢溪山居頓寺方閑宴
座未及浹辰奈因生也有賊遽欲復於無
物是月十七日病而彌亮頤以真冷謂弟
曰昔如來以大法眼付諸弟子如是展轉
乃至于今今將此法付囑於汝汝當護持
無令斷絕吾滅後亦不得以喪訃奏聞
有亂規矩言訖示化壽八十九臘七十二
是晨也日慘熅焯雲愁黯黹髮髻之隊亂
叫乎山椒聲軋之群悲鳴乎蠟窠並顯颯
然之變咸興逝矣之傷門徒慶充等擗踊
三號分崩五內莫問涅槃之樂空誣聚嶠
之香觀白鶴之林彫安依芳蔭卜青鳥之
地勝即樹闕宮以其月二十二日旋葬于
寺之巽隅禮也上比及踰時方聞遺占
念泥洹之何早懷震悼以偏深特降蓋
臣代行禮吊兼舉易名之典用光傳法之
門贈國師諡曰圓空遂立勝妙之塔因
命豎儒俾揚徽烈臣也詞慙刻鶩學謝洩
鷄性類族庖本乏發矧之利工非大匠素
憂傷之手之譏既奉頒宣無由遜讓披
文相質爭符賦客之言變谷爲陵庶續高
僧之傳甘同西笑用効南刊謹爲銘曰
悟性爲佛忘情曰禪澹乎境界離
彼言詮測不可測玄之又玄執繩
易惑摸象多偏^其迦葉矢謨達摩肯

搆默而識之於是乎就祖祖奉揚
師師傳授去聖彌遙承基漸謬^其誰
興復者自有其人天鍾正氣岳降
惟神孤標拔俗偉度超倫纔從卯
歲即慕弘真^其朽宅罷遊緇流染學
戒律嚴持辯才卓犖道在日新心
由宿覺隸業精勤存誠貞確^其遐踰
淮海直詣越邦騰名講肆寓目經
窻攻堅不輟觀奧無雙三乘載牽
四衆皆降^其箭重迴舟珠靈返浦猶
奚入秦似孔居魯宏敞法門獨爲
慈父化洽彌天仁霑率土^其曇花再
艷慧鑑重輝五朝前席萬乘摠衣
功周救溺理極知微汎若而退侗
然以歸^其疊嶂臥雲幽溪漱石猿鶴
相隨塵埃轉隔志籍閑安時當變
易命也非常觀之自適^其無滅而滅
不終而終釋網如賈宗林復空龜
碑乃斷鴈塔斯崇累更浩劫長播
高風^九

太平紀曆歲在旃蒙赤奮若秋七月
二十七日樹臣僧貞元契想惠明
保得來等刻字

(碑身高八尺四寸幅四尺一寸五分字
徑六分楷書題額字徑二寸三分篆書)

東 溪 祠 記

台 鎬

(宗誌編纂委員長)

東溪祠는 전라남도 영암군 군서면 구림리에 사는 해주 최씨 문중이 敬天崇祖의 뜻을 모아 세운 祠宇이다.

東溪祠는 세종 때에 집현전 부제학을 역임하신 江湖山人 萬理 先祖를 主壁으로 모시어 孤竹公 慶昌, 陽坡公 碩徵, 晚醒齋公 致憲 先祖를 배향하고, 매년 음 10월 初丁을 택일하여 같은 고을 儒林들이 집전하는 鄉祠宇로서, 전국의 문중 자제들이 참례하여 선조의 유덕을 추모하면서 지역사회 발전과 가정의 화목 발전을 도모하는 핵심이 되고 있다.

江湖山人 萬理(14世) 先生은 1419年(세종 1년) 增廣文科에 급제하여 弘文館에 集賢殿博士를 겸임하셨고, 1427년(세종 9년)에 校理로서 文科重試에 급제하고 1437년 集賢殿直提學을 거쳐 이듬해 副提學으로 승진하시어, 세종조의 文治에 儒學을 바탕으로 하는 王道政治의 뼈대를 만드신 분이였다. 1439년 강원도 관찰사로 外職에 계시다가 이듬해 다시 副提學으로 재임하시니 임금의 신임과 총애가 두터우셨다.

節義가 明白하여 直諫으로 이름이 높았고, 당시 宮廷 안의 佛事를 탄핵하여 거듭 상소하신 斥佛疏가 이름 높으며, 세종 임금이 新進士類를 동원하여 창제하신 訓民正音의 바른 길을 6조목 들어 염려하신 諺文造語論攷는 오늘날 아직도 국문학자들의 새로운 찬반론의 근거가 되고있다. 清白吏 首席으로 녹선되어 선비의 귀감이 되셨고, 후손들에게 긍지와 수신의 절대적인 가르침을 남기셨다.

孤竹 慶會(19世 1532~1593) 선생은 萬理 선생의 玄孫으로서 아버님 守仁公이 縣監을 역임하시는 동안 全羅道와 인연을 맺어 幼少를 보내시어 善山林氏의 따님과 婚約하여 康津 李靑蓮의 門下에서 修學하시고, 후에 思庵 朴淳의 門下에 드셨다. 1568년 廣文科 大科에 급제하시고 司諫院 正言, 靈光郡守 鍾城府使를 역임하셨다. 六藝에 통달하여 栗谷과 함께 李朝八文章으로 꼽히시고, 唐詩의 詩境에 새로운 개척을 하여 白玉峯 李蓀谷 등과 더불어 三唐으로 일컬어졌다. 孤竹遺稿를 남기셨으며, 이

詩集을 近年 鳩林門中에서 影印本과 아울러 譯刊하여 현대문으로 보급되고 있다. 성품이 활달하셔서, 소년시절 倭寇의 노략질을 당했을 때 태연히 吹笛하여 물리쳤다는 일화를 남기셨다. 또 騎射에도 능하여 五十矢五十中の 神技도 갖추셨다고 한다. 清白 高潔하여 당시의 權臣 李山海의 거리낌을 받아 宣祖時 벼슬길이 막히어도 의연히 高節을 지키시니 후에 清白吏에 녹선되셨다.

이제 東溪祠에 懸額된 感興詩는 先生의 깊은 面貌를 헤아리고도 남는다.

採藥求長生 何如孤竹子
一食西山薇 清風猶不死

(藥을 캐서 부질없이 오래 살기를 바란다면 孤竹子 伯夷叔齊는 어이 할거나. 西山에서 한갓 고사리를 캐 먹고 살았지만 그 맑은 기풍은 오히려 千秋에 남아 죽지 않았네.)

후에 1723년 康津 博山祠에 配享되시고 또 瑞鳳書院에 合祀되셨다.

陽坡 碩徵(22世. 1604~1664)公은 孤竹公의 曾孫으로서 病弱하셨기 때문에 벼슬길을 외면하시고 오로지 修身齊家에 힘쓰시어 先祖 代代로 인연 깊은 靈岩郡 鳩林에 낙향하셨다. 康津의 原州 李氏를 娶妻하시니, 雲瑞 龜瑞 麟瑞 三兄弟를 양육하셨다. 일찌기 孤竹 先祖의 岳父되시는 林九齡 先生 등이 中心

이 된 大同契를 이어 1646年 鳩林大同契를 重創 運營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鄉約의 四大綱目인 德業相勸 過失相規 禮俗相交 患難相恤을 바탕으로 洞憲(契規)을 삼아 當代에 이미 全國의 모범이 되었다. 후일 憲宗이 이를 극찬하여 허락된다면 나도 契員이 되고 싶다고 전할 정도이니 公의 덕망을 가히 짐작할 것이다.

이제 大同契는 옛 모습 그대로 운영되고 있어, 현재 定足 80契員中 16명의 門中 子姪이 契員으로 活動하고 있고, 門閣인 三樂齋는 후손들의 교육은 물론 鄉風 敎學의 뿌리가 된다.

三樂이란 敘天倫之情이 一樂이요, 得英才而敎育이 二樂이요, 有朋而自遠方來가 三樂이다 하여 齋號를 붙였는데 1900年頃까지 學堂의 구실을 다하였고, 獎學의 발판이 되어 오늘의 鳩林 所在의 學校와 文化機關은 이를 産室로 발전된 것이다.

이제 典翰公派의 鳩林門中을 鳩林崔氏로 稱하는 것은 오로지 이러한 公의 遺德이라 하겠다.

公의 三子中 雲瑞公은 出仕하여 忠淸道 兵馬節度使에 이르러 京畿 安城에 머무르셨고, 龜瑞 麟瑞 두아드님은 公의 遺志대로 鳩林에 머무르시니 代代 後孫들이 公과 더불어 이곳에 安葬되어

世葬地를 이룩하고 있다. 요즈음 鄉里를 떠나 各其 離散되어 가는 時俗에서 유독 鳩林門中이 아직도 七十餘戶의 大姓村을 이룩하고 있음은, 門規인 敬先祖 講先業 謹祭儀를 준수하여, 先代 以來의 德業을 떨어뜨리지 않으려는 家道에 충실한 소치라 하겠다.

晩醒齋 致憲(27世. 1773~1845) 先生은 碩徵公의 玄孫으로 明終文科에 급제하고, 兵曹參判에 이르러 學德으로 名族의 이름을 떨치니, 憲宗의 御製 祭文에 이르기를 古家肖孫 湖南名族 飭躬門庭 勛經鄉塾이라 하였다. 벼슬길보다 더 귀한 德行으로 일생을 보내 鄉塾의 존경을 받은 분이시었다.

東溪祠를 參拜하고 江山을 둘러보니, 옛어른들이 擇地하여 卜居하신 깊은 뜻을 짐작하겠다. 이제 鳩林里는 靈岩에서 康津을 向한 포장된 큰길로 20여리 상거하여 있고, 道立公園 月出山에 드는 바로 갈림길이요, 또 面行政의 중심지가 되어 있다. 일찌기 朗州八景 가운데 이 마을이 一景이었듯이 아직도 대숲과 老松의 어울어진 마을에 東溪가 맑게 흐르고, 동쪽으로 靈山 月出山の 絶景이 둘러 있는데, 벗나무의 古木이 老成한 가로수가 되어 이전의 모습을 여전하게 보여 주고 있었다. 다만 새로 지은 市街의 洋風家屋이 늘어서 있어

아직 調和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나, 門中 宗親을 비롯한 鄉民들은 美俗대로 친절하고 꾸밈이 없다. 東國輿地勝覽에도 이르기를 풍속이 근엄 소박하며 화려함이 없고, 농업에 전적으로 힘쓰며 부지런하고 검소하며 꾸밈이 없다 하였다. 柳觀의 詩에 長城抱川(진 내가 출렁출렁 성을 안고 흐르네)라 하였고, 金萃尹의 詩에는 地境滄溟(땅이 창해 바다와 접해 장한 경치가 많다)고 하였다.

그 옛날 東溪祠에 享祀된 선조들께서 이 땅에서 노시며 또한 일생을 보내셨음을 생각할 때, 특히 이곳을 자리잡아 入鄉하신 碩徵公의 깊은 뜻을 짐작케 한다.

靈岩은 본래 百濟의 月奈郡이었고, 新羅의 靈岩郡이었는데, 高麗에서 朗州 朗山으로 개칭되었다가 李朝에 다시 靈岩으로 된 것으로 안다. 月出山 중 가장 높은 봉우리 九井峯 꼭대기에 구멍이 있어 물이 피어, 그 속에 九龍이 있다고 전하며, 그 아래 動石이 있어 그 무게는 비록 천백인의 힘으로도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으면서도, 한 사람이 흔들면 움직여지는데, 아무리 흔들고 움직여도 떨어뜨릴 수가 없어, 靈山이요 靈岩으로 이름지었다고 전한다.

이 靈山 靈岩 月出山에 圖讖術士로 유명한 道詵國師가 태어나서 창건하였다

는 道岬寺에는 이제도 관광객이 줄을 이어 찾고 있으며, 百濟 때 日本에 건너가 漢字文化를 가르쳤다는 王仁博士 또한 이 땅에 태어났다는 古說에 의해 紀念碑가 세워져서 百濟文化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湖南의 名山이요 小金冠이라 불리워온 月出山은 곧 靈岩의 상징이요, 湖南의 三基라고 불리우는 이 鳩林에서 우리 宗親들이 살아온 風致와 美俗을 접할 때, 門中 아닌 다른 나그네인들 어찌 발길을 멈춰 東溪祠에 머리 숙여 경건한 마음으로 禮를 갖추지 않겠는가.

이제 열두 동네 600여호가 古村의 모습을 지니며 평화롭게 모여 사는 鳩林里, 이 중에서 鳩林崔氏의 名族 이름을 듣는 門中들이 代表 致萬宗親을 비롯하여 老若合心 樂土를 가꾸고 있고, 고향

을 떠나 멀리 離散해 사는 젊은이들까지 陰十月初 丁吉日에 合同하여 東溪祠에서 祭儀를 다함을 생각하니, 마음 뿌듯함을 금할 수가 없었다.

문득 文憲公의 戒二子詩를 외워 본다. 「내가 두 아들에게 훈계하며 아울러 우리 집 보배를 준다. 청백하고 검소함을 몸에 새기고 문장으로 몸을 수놓아라, 집에 전하는 것이 나라에 보배가 되고, 대대로 이어 나라의 신하가 되리라. 화려하고 떠들썩한 자를 배우지 말라. 꽃피는 것은 잠깐뿐이리.»

이 정신이 맥맥히 흘러, 그것을 이어 받은 장한 조상들 네분을 모신 東溪祠는, 美俗良俗이 무너져 어지러운 이시대에도 不滅의 밝은 빛이 되리라고 믿어 마지 않으며 절 한번 더 하고 발길을 돌린 것이었다.

安城 佛智의 文憲影堂

在 焜

(大宗會監事)

고려 문종 때 海東孔子라는 칭호를 받던 문헌공 崔冲 선조를 모시는 문헌서원은 북한 땅 해주에 잘 보존되어 온 것으로 알려 졌다. 그러나 6·25 전쟁으

로 남북이 오갈 수 없게 되었으며 해주 문헌영당의 참배도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기던 중에 1958년에 서울 서대문구 갈현동 박석고개에 대지



500평의 규모로 문헌영당이 건립되어 남한에서도 참배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다.

이를 건립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수고하였지만, 우선 대종회 창립에 관한 것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1956년 가을에 지금은 고인이 되신 仁燮(호 竹齊) 원보씨 등 몇 분이 뜻을 모아 해주최씨 대종회 준비위원회를 열고 1957년 4월 28일 서울 홍릉에서 창립 총회를 개최하여 초대 회장에 元善 종친을 선출하였고 대종회를 발족시켰다. 족보를 간행하고 여러 사업을 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문헌영당을 건립하자는 것이었다. 1957년 8월 2일에 영당건립위원회가 조직되고 祥淵 종친께서 서울 갈현동의 땅 500평을 회사하여 문헌영당을 건립하고 참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불행히 상연 종친께서 회사한 땅이 등기되기 전에 별세(당시 80세)하시고 그 자제분의 사업도 실패를 하게 되어 대지의 소유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영당을 옮길 수 밖에 없었으며 1957년 11월 3일의 제 2차 정기 총회에서 鎭洙 종친이 회장으로 뽑혔으나 임원진의 불화와 공금관리에 문제점 등이 나타나서 본인이 대종회에서 사퇴하고 대종회도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그렇다고 조상을 모신 영당을 무

단철거해 버릴 수 없는 일이므로 당시 부회장이었던 元溥 종친과 가친 인섭을 비롯한 안성 불지 문중의 여러 어른들과 협의하여 1960년에 불지 종산에 이전 봉안하게 된 것이다(경기도 안성군 원곡면 지문리). 그리고 불지문중에서 매년 음력 10월 6일에 20여년간 奉祀하여 왔는데 이 날짜는 13세 소윤공(荷)과 14세 부제학공(萬理)의 시제 전달로 정한 것이다.

그러던 중 1981년 봄에 光植 종친이 수고하여 吉竣, 愚 종친 등과 만나서 뜻을 모아서 수차에 걸쳐서 대종회를 재창립할 수 있는 준비 모임을 갖고 1982년 10월 23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초대 회장에 在衡 종친을 추대하여 현재의 대종회가 결성된 것이다. 이리하여 대종회에서 문헌영당에 필요한 祭器 祭服 등을 새로이 갖추고 1983년 11월 10일(음 10월6일)에 대종회 이름



으로 奉祭祀를 드릴수 있었다. 1984년 부터는 매년 4월 세째 일요일 정오에 봉제사하기로 하여 실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관 종친들이 많이 참배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결과인 것이다.

지금의 불지 문헌영당에는 문헌공과 함께 아드님 文和公이 配位되어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1960년에 이전한 것이므로 조경도 잘 안되어 있고 초라한

형편이다.

바라건대 대종회가 장족의 발전을 하여 우리 해주 최씨의 자랑일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역사에 크게 빛나는 뛰어난 위인이신 문헌공을 기리는 사업이 크게 일어나서 후손과 겨레의 스승으로 추앙받기에 합당한 기념사업이 활발해지길 바라는 바이다.

大東影堂 탐방기

泰 峯

(嶺南支會幹事長)

대구 시민의 젖줄이라 할 수 있는 금호강 상류 永川을 향하여 국도 4번 도로로 가다 보면 대구 능금의 주산지인 금호읍에 닿는다. 이곳에서 동북쪽 원편 길로 약 2.5km 가면 大美洞이라는 마을이 開東山 아래 자리 잡고 있는데 이곳이 대동서원이 있는 곳이다. 행정구역으로는 경상북도 영천군 금호읍 대미동이 된다. 대미동 입구에 자리 잡은 대동영당과 晩湖亭이라는 현판이 붙은 정자에서 세월을 말해 주는 고색창연함을 볼 수 있다. 이 곳은 아직도 유교적인 기풍과 예의범절이 완고하게 지켜지

는 마을로 이름이 나있다.

대동영당에는 문헌공(沖)과 문화공(惟善), 월담공(滉)의 3위의 영정이 追配되어 있었다. 이에 대하여 首陽世稿와 世譜를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수양세고에 의하면 “장단영당에는 문헌공 최 충, 문화공 최 유선, 월담공 최 황, 추봉공 최 유원의 영정이 배향되었다. 월담공 최 황의 13대 종손(즉 보에는 14세 종손) 최 원식씨가 영천 대미동에 대동영당을 추진 건립하였으며 문헌공과 문화공의 영정은 옛부터 내려오던 것을 조선 숙종 35년(1709년)에

三賢影堂奉審記

炳 弼

(大宗會 事務局長)

1985년 10월 22일은 날씨가 가을답게 청량하였다. 지난해 12월 22일 전남 화순에 있는 茶山影堂 제사시에 알게 된 在股 종친이 살고 있는 전남 담양군 금성면 봉서리 臥龍村의 三賢影堂을 찾아 봉심하고자 광주행 고속 버스에 몸을 싣고 호남 고속 도로를 달려 보았다. 4시간 반만에 광주에 도착하여 남원행 직행 버스를 갈아타고 약 40분을 달려서 금성면 면소재지에서 내려 도보로 약 500미터쯤 개천길을 따라 남쪽으로 가니, 낮으막한 산 밑에 울창한 대나무 숲속에 자리한 이 마을이 바로 이름도 신비스런 와룡촌이다.

원래 이 마을은 산수가 아름다워서 예로부터 시인 묵객들이 많이 모여 강호와 죽림 속을 왕래하면서 俛仰亭 歌壇과 星山의 息影亭 가단 등을 형성하게 된 호남 승지 중의 한 곳으로 우리 해주 최씨들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承旨公派祖인 尹範공의 아우되는 尹望공의 둘째 아들인 16세 天凡공이 처음으로 입향하여 오늘날까지 입향시조로 모

시고 있다.

현재 동종 40여호가 웅기종기 모여 살고 있는 이 고장에 대하여 재은 종친의 말을 들어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이 마을의 동종들은 15세 윤망공을 派祖로 하여 進士公派라고 한다. 입향조인 천범공은 이조 선조 13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禮曹佐郎을 역임하였으며 임진왜란 때에는 문학가이면서도 활쏘기도 잘하고 말 달리기도 잘하여 金城山城에서 왜병과 싸우다가 전사하였는데 그 시신을 찾지 못하여 금성산 아래 栗原 뒷기슭에 招魂葬을 하여 봉분까지 모셔 오늘까지 이른다고 한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천범공은 전사한 뒤에 나라에서 문충공(文忠公)이라는 諡號(대동보상에는 시호의 기재가 없으나 파보에는 명기되어 있음)도 내리고 묘하에는 下馬碑도 세우고 또한 연못도 파 주었다고 하나, 오늘날에는 그 흔적을 찾아 볼 수가 없어 안타깝다면서 이 이야기는 재은 종친의 아버지인 箕燮공에게서 들었다고 한다. 기섭공은 오랫동안

이 동종부락에서 종종외 여러 가지 일들을 두루 혼자 맡아서 보살피면서도 한편으로는 인근 부락의 유림들과도 교류하면서 시회도 참여하고, 大韓時友會 전남지부 주관 時調競唱大會 같은 데에도 자주 출장하여 많은 상을 받은 명창이기도 했다는 선친에 대한 자랑을 재운 종친은 마치 어린이처럼 신나게 하면서 이제는 자기가 이 집성촌의 종종대소사를 관장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하기는 내가 대종회의 일을 맡아 보아 오면서도 그동안 이곳의 삼현영당이 있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하였는데 재운 종친을 만남으로써 비로소 알게 되었고, 또 몇 달 전에도 재운종친이 대종회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금년도 삼현영당 제사에 꼭 참사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마침 그 제사일이 추석날이기 때문에 그때에는 참사를 하지 못하였기에 이렇게 급히 시간을 내어 尋訪하게 되었으니 종종외 일을 위하여 동분서주하는 재운 종친의 노고가 대단함도 또한 충분히 알 수가 있었다.

각설하고 재운종친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면, 이 마을 입향조의 6대손인 致一공의 아들 春興, 春成, 春培, 春達 4형제는 아버지가 병으로 사경에 이르렀을 때에 모두 손가락을 잘라 피를 내어 부친께 수혈하여 십 수일을 더 연명

하게 하였다가 마침내 운명하매 정성을 다하여 장례를 모신 뒤 묘하에 여막을 짓고 다 같이 3년간 侍墓하였고, 또 춘배공의 아들 平龍, 平雲 형제도 아버지께 똑같은 효행을 도내의 유림들이 나라에 알려서 당시의 禮曹로부터 孝行褒賞을 받았다고 한다.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전에 자손들이 祠宇를 짓고 6위의 효자의 위패를 모시어 제향을 올려왔었으나, 근래에 와서는 사우가 퇴락하고 유지 관리가 어려워져서 1971년에 아주 철거해 버리고 마을 입구 오른쪽에다가 “海州崔氏六孝 紀績碑”를 새로 세워 성대한 제막식을 거행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삼현영당은 조선이 망하게 되었을 때에 민족혼과 가문의 혈통을 후손들에게 바로 알리기 위하여 종종외 27세 益煥공이 수고를 아끼지 않고 노력하여 1910년 여름에 이 마을 뒷편에 본당 3칸과 부속 건물 3칸을 창건하여 文憲公과 文和公, 입향시조 문충공의 세분 영정을 봉안하고 매년 음력 9월 9일에 담양지방 유림들의 주관으로 제사를 모셔 왔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세태가 바뀌면서 점차 제관이 줄고 지방 유림들의 세가 쇠해져서 부득이 1984년부터는 제사일을 유림 중심에서 자손 중심으로 바꾸어 추석날에 모시면 도회

享祀는 每年 3月 初丁日로 儒林과 子孫이 唱笏再拜로 行事하던 것을 西紀 1984년부터 儒林에서 敬慕會를 組織하여 維持管理하고 있다.

茶山影堂

和順郡宗會 提供

所在地 全南和順郡和順邑茶智里
 創建年代 仁祖甲子(1624)
 配 享 文憲公(冲) 文和公(惟善) 文淸公(滋)
 祭 日 每年 冬至日 11:00 奉祀
 敷 地 489坪
 規 模 本堂 韓式木造瓦葺 3間
 講堂 4間 門間 3間
 顧直舍 3間



(茶山影堂)

建立沿革 本堂(茶山影堂)
 仁祖甲子(西紀 1624年) 建立
 講堂(講義齋)
 甲戌(西紀 1934年) 建立
 門間(仰止門)
 丁亥(西紀 1947年) 建立
 顧直舍
 丁亥(西紀 1947年) 建立

祭祀參與地域 道內 1圓 및 1部 道外
 仁祖甲子年(1624)에 承旨公 後裔들에 依해 創建되었으며, 文憲公 文和公은 影禎을 모시고 文淸公은 位牌를 모시고 祭享을 行事하여 오던바 文憲公 文和公 影禎이 褪色되어 補修하는 過程에서 文淸公 影禎을 새로 마련하여 모시게 되었다.

財産 및 基金 田 191坪 畓 3,151坪
 享祭主管 宗親主管
 宗親戶數 所在里 25戶, 邑 85戶,
 郡 250戶

講堂은 초출한 幕舍에 管理人이 居住할 程度였으나 甲戌年(1934)에 現在의 講堂을 新築하여 오늘에 이른다.

魯東書院 탐방기

승 수

(大宗會運營委員)

1. 연 혁

본 서원은 원래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노일리에 있었는데 지금부터 53년전 1932년에 현 위치인 홍천군 서면 어유포리로 옮겼다.

문헌공 29대손 台鉉公의 투철하신 위선사업 정신과 많은 종중들이 합심하여 일심동체가 되어 현 위치로 옮겨 졌다. 그 뒤 6.25사변으로 동재와 서재가 일부 소실되어 개축하였으며 수차에 걸쳐 증수를 거듭하였다.

본 서원은 문헌공과 문화공 두 분의 영정과 위패가 봉안되어 있으며 년중 정례행사인 제향을 유림행사로 받들고 있다. 본 서원은 노동서원이라 이름하고 있으며 특기할 것은 문헌공 탄신 일천년을 맞아 문헌공과 문화공 두 분의 영정이 문화재로 지정, 등록되었으며 제향을 받들 때 쓰는 제기 일체가 문화재로 등록된 일이다(1984년 7월).

이 일을 위하여 헌신 노력한 鳳鉉 선

생과 본인의 미력의 결과이다.

현재 본 서원은 원하에 사는 본손들에 의해 수호되고 있으며 載喆씨가 원감으로 임명되어 있고 본인이 서원을 대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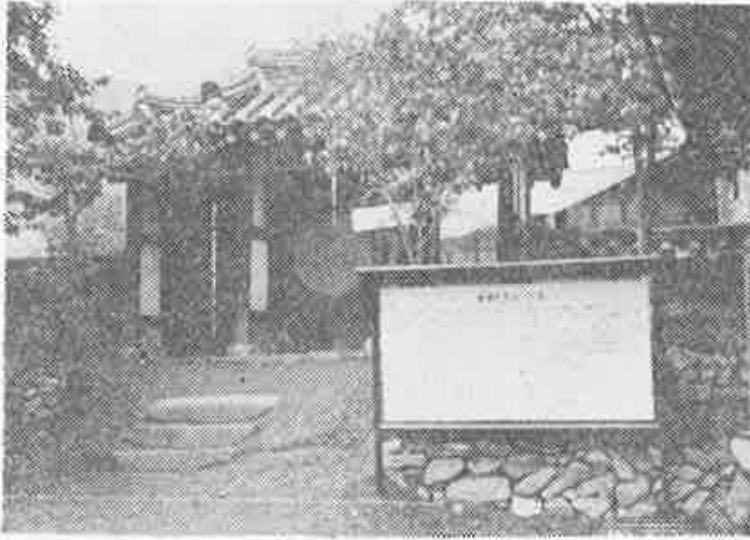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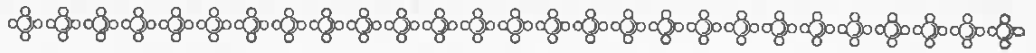
2. 서원의 규모

소재지	명칭	구조	용도	건평	비 고
강원도 홍천군	정 전	목조 한화 와룡	정전	30평	영정과 위패가* 봉안됨
서면	동 재	"	회의 실	20"	도유사이하 임원 들이 사용함
어유포 리	서 재	"	숙사	20"	제관들의 숙사로 사용
	내상문	"	문	5"	출입문
	외상문	"	문	5"	"
	관리인 주택	"	주택	30"	관리인의 주택

*문헌공과 문화공의 영정과 위패는 1984년 7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3. 祭 日

옛날에는 연중 2회 제향을 받들고 있었으나 경제적 또는 시대적 상황 등을



(魯東書院)

고려하여 연중 1회의 봉제사를 올리고 있다. 제일은 연중 2회를 치를 때는 음력 2월과 8월 중 정일을 택했었으나 현재는 음력 9월초 정일을 제일로 정하고 매년 문헌공과 문화공의 봉제사를 드리고 있다.

4. 제 물

제물은 8두와 8변에 모두 생물로 쓰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진설하고 있다.

위패

<u>계</u>		<u>보</u>	
<u>어혜</u>	<u>근저</u>	<u>침혜</u>	<u>어숙</u>
<u>순저</u>	<u>녹혜</u>		<u>진자</u>
<u>토혜</u>	<u>청저</u>	<u>비저</u>	<u>형염</u>
<u>돈성</u>			<u>건조</u>
			<u>농인</u>
			<u>양성</u>

폐박지

향로

향합

5. 祭 禮

제례는 유림행사로 거행하고 있으며 제관은 경향 각지의 유림에서 선정되어 오며 제관의 선정은 노동서원 도유사 이하 원감 장의 등의 임원회의에서 선정된 제관들은 제향 전일 오후 5시까지 전원 입재 완료하고 일반 유학생들은 제사 당일 참석한다.

입재한 제관들의 역할 결정은 도유사 및 임원회의에서 결정하여 제관록을 작성하고 제관록을 회람시켜 각자의 역할을 주지시키고 각자의 역할 준비를 하게 한다.

제례는 활기에 의하여 진행되며 제관은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의 3헌관과 집례 전의 대축 봉로 봉향 사준 등 8명의 제관이 있다. 제례 행사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약 1시간이 소요된다.

제일에는 각 지방에서 일반 유림인 또는 지역의 기관장 및 인근 학교에서 학생들이 참석하여, 전통적인 제례 행사를 견학 참배하고 있다.

6. 교통 및 연락처

교통은 비포장 도로이나 차편은 비교

적 불편이 없다. 춘천 종합 터미널에서 대우운수 소속 완행버스가 팔봉산행 또는 두미리 행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매 시간 1대씩 운행되고 있으며 홍천읍 터미널에서 현대운수 소속 완행버스가 하루 4회(8시, 12시, 2시, 5시) 운행되고 있으며 춘천과 홍천에서 약 1시간 내에 어유포리까지 도착된다. 노동서원이 있는 마을의 팔봉산과 홍천강 백사장은 누구나 한번 가 볼만한 국민유원지가 되어 있는데, 주말에는 수많은 관광객이 모여들고 있다.

7. 연락처

1. 춘천시 호자 1동 547-18

최 승수

자택 2-8605번

직장 홍천 5195번

2. 최 승순

강원도 홍천군 서면 어유포리

전화 : 홍천군 반곡 133번

明谷書院 探訪記

在 新

(大宗會運營委員)

강진군은 우리나라 반도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다. 기암절벽의 영봉인 월출산(月出山)을 주봉으로 본도의 鎭座山인 무등산을 이루고 다시 남쪽으로 달려 영암, 강진, 장흥 3군의 경계점이 되는 國師峯을 이루는데 이 줄기가 다시 남으로 흘러 花坊山이 되어 동으로는 장흥, 서로는 해남을 가르고 남으로는 완도에 이르게 된다. 강진 중부에 속하여 그 앞으로 耽津江이 고요히 흐

르고 있는데, 그 중심지가 바로 명곡서원이 위치한 新基部落이 자리 잡은 곳이다. 이 마을은 400여년 동안 해주 최씨들이 모여 살고 있는 집성촌으로서 마을 입구에는 집성촌을 알리는 해주 최씨 世葬碑가 서있다.

건물 규모는 한식 4동으로 神室이 3간 1동이고 내삼문 1동, 강당 4간 1동 외삼문 1동으로 되어 있다.

제일(祭日)은 매년 음력 2월 15일에

제관 出標하여 다음달인 3월 상정(上 祝席一立



(明谷書院)

丁)에 유림享祀로 행례하고 있다.

그리고 제물 單子와 祭禮는 다음과 같다.

豕牲一頭 羊牲一頭 鹿脯百片 魚脯五尾
 鹿醢一器 魚醢一器 稻米一斗 黍米一斗
 弊布五尺 黃粟二升 乾棗一升 芹菹五束
 菁菹五束 木香五封 黃燭五封 黃筆一柄
 眞玄一丁 祝文張紙 二張 祭酒一樽

祭 禮

初獻官 亞獻官 終獻官 執禮 陳設 祝 以下 各級祭官 等으로 執禮의 笏記主導로 行한다.

교통편은 강진읍에서 장흥 쪽으로 가다가 중간인 賜送亭에 이르러 거기서 하차하여 新基 부락으로 들어 오면 산 아래에 아늑하게 자리 잡은 명곡서원에 닿게 된다.

연락처 : ① 전남 강진군 군동면 신기리

전화 : 군동 5248(최 재신)

② 전남 광주시 동구 불로동 13번지 해주최씨 전라남도 중회

전화 : 33-4172

仰 巢 亭

道 植

(進士公派 31世)

경북 문경군 영순면 포내리 뒷산 箕山에 이 지역에 사는 해주 최씨의 상징이요, 자랑인 양소정이 우뚝 솟아 있다. 이 정자는 지금부터 50여 년 전에 晚菴

公 (諱 基鎬)이 아버지 春海公의 높고 깊은 뜻을 기리기 위하여 지은 것이다.

춘해공의 휘는 瓚이요, 字는 振玉, 호는 春海이다. 조선조 철종 丙辰(1856

숲 경치 더욱 밝도다.
 不染羣塵今世濁 이 혼탁한 세상에도
 티끌 물들지 않고
 回思往跡故人淸 지난 옛사람 맑은 자
 취 돌이켜 생각한다.
 鶯花紫栢何須說 앵화자백(富貴)을 어
 쩌 모름지기 말하라.
 猿鳥青山却是情 원조청산(隱士)에 문
 듯 정을 둔다.
 潁水亦能如有慕 영강물 또한 사모함
 이 있는 것 같이
 東流嗚咽送波聲 동으로 흐르며 목메
 인 파도 소리 보내오네.
 亭以仰巢有意成 정자 이름을 양소
 (요임금때 소부의 청렴함을 우러러
 보다)라고 뜻있게 지어 이루웠으니
 繼來先祖慕賢明 이것은 이어 내려온

조상들의 어질고 밝음을 사모함일세.
 重重遠岵箕山碧 멀리 겹겹으로 쌓인
 산봉우리에 기산(箕山)은 더욱 푸르
 르고
 滾滾流波潁水淸 출렁이며 흐르는 영
 강(潁江)물도 맑도다.
 好爵令名安足說 벼슬을 좋아하고 이
 름 날리는 것을 어찌 족하다고 말하
 리요
 鹿衣疎食亦稱情 허름한 옷 거친 밥
 먹고 사는데 또한 정들여 지낸다.
 後孫若有羹牆慕 후손이여 만약 조상
 을 위하는 뜻 있거든
 庶幾將來不替聲 먼 훗날에도 우리 조
 상의 이 명성 이어가고 바꾸지 말라.
 嗣曾孫 道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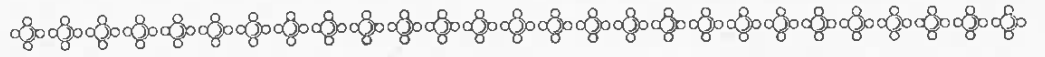
朝鮮烈婦海州崔氏表蹟碑

中山 南 亨

(38世)

지금은 중국의 땅이 되어 버린 遼河
 이동의 땅을 遼東이라고 한다. 고구려
 시대나 발해시대에는 우리의 영토였었
 고, 조선시대에는 수 백년을 두고 우리

의 중국행 사신행차들이 일년에도 몇
 번씩이나 왕래하며 미개한 만주인들에
 게 음으로 양으로 많은 문화를 전해 오
 기도 하였고, 倭帝 때에는 망국의 恨을



가슴 속 가득히 담은 망명객들이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셋이 모여서도 한국 광복군, 5명이 모여서도 한국 독립단을 이루어 항일 투쟁을 해 오던 겨레의 혼과 배달의 역사가 피빛으로 얼룩진 곳이다. 이 요동벌 한 모퉁이인 행정구역상의 奉天省桓仁縣沙尖子라고 하는 곳에는 “朝鮮烈婦海州崔氏表蹟碑”라는 조그만 무덤 앞에 한 개 빗돌이 서 있다.

이 무덤의 주인인 열부 해주최씨는 조선말 고종 2년(1898)에 출생하여 겨우 17세의 꽃다운 나이로 일생을 마친 수절부인이다. 그의 아버지는 평안북도 定州郡安興面林岩里에서 출생하여 독립투사로 만주벌을 누비며 파란 많은 생애를 살며 人面獸心의 오랑캐라고 할만한 만주인들 틈에서 공자(孔子)를 모신 성묘를 세우고 매년 봄 가을로 제사를 모시며 유학 정신을 길러 교화에도 힘쓰다가 조국이 망한 뒤 단군 기원 4247년(1914) 5월 11일에 한 많은 한 생애를 마친 應謙(字 贊益)이다. 어머니는 吳面長의 무남독녀인 海州吳氏(1844~1938)이었다.

열부 최씨는 만주에서 金敬燾에게 방년 17세 때에 출가하여 한 해를 못 보내고 그 당년에 부군을 사별하니 그야말로 청춘 과부가 되었다. 탈상시를 기다리며 수절하고 있는데, 과부 입어가

기의 폐풍을 실현하고자 불량배들이 수차에 걸쳐 야밤에 침실을 습격한 일이 있으나 그때마다 시부모님들의 보살핌으로 위기를 면하게 되었었다. 그러던 어느날 친정아버지께서 발병으로 객지에서 고생하고 있으니, 보내는 샅말을 타고 곧 오라는 글을 받고 길을 떠났다. 가 무뢰한들의 속임에 잘못 빠진 것을 알고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던 독약을 먹고 節死하였다.

인륜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토착민들과 어울려 살면서 도의의 해이를 늘 한탄해 오던 교민들 중 유지들이 성금을 모아 환인현 사침자 위쪽 3킬로쯤 되는 上流河 입구에 다음과 같은 비문의 비석을 세워 절부의 뜨거운 절개를 길이 기리고 있다.

슬프다. 열부여!
어디 또 있을까?
평양에서 태어나
요동땅에서 자랐네.
저 불량배를 어찌나?
나는 칼과 약이 있다네.
살면 짐승과 같고
죽으면 사람다와지네.

嗟哉烈婦
何處得來
生本箕鄉
長於遼隈
彼何強暴
我有刀藥
日生是獸
謂死則人

최응겸의 딸이요
김경도의 처도다.
남편을 여의고서

崔應謙女
金敬燾妻
崩城掩忽

나이를 헤니 17일세. 算齡十七 오로지 이제 한몸뿐일세. 獨今一身
 하후부인의 미풍 살리고 夏侯微風 단기 4247년(중화민국 3:갑인) 7월 일
 예종부인의 절개 따랐네. 禮宗判郎 건립 溫堂 白三圭
 만고의 삼강을 지키니 萬古三綱 全菴 宋尙奎

(祝)

宗誌發刊

慶尙北道教育委員會

初等教育課長 崔 彥 鎬

電話 직 92-9214 자 68-7373

株式會社 國際商事 } 大邱代理店
 " 進洋化學 }

大 一 高 무 商 社

代表 崔 南 奎

大邱直轄市 中區 大新洞 92

電話 22-8735, 22-9735

崔 永 俊

仁川直轄市 北區 十井洞 174

電話 522-1138

崔 承 烈

原籍: 黃海道 甕津郡 東江面 鳶峰里 忘憂洞 133

住所: 서울 江南區 大峙洞 452 美都APT 108-206

電話 554-1911

카렌다제작판매, 카다록, 팜프렛, 원색인쇄, 책자인쇄

동서카렌다 · 동서문화사

崔 瑩 在 (본적: 충남 당진) 進士公派

인천직활시 북구 가좌동 469-11

서울사무소: 電話 265-5351, 272-4873

(제 6 수출공단내)

자 택: (인천) 522-8230

電話 83-1543, 862-9461

● 隨筆·隨想

나는 누구인가



吉 竣
(大宗會副會長)

초원에 서서 무수한 별이 반짝이고 있는 天空을 쳐다보고 있으면 참으로 끝없는 상념에 사로 잡히게 된다. 우주는 무엇이며 생물과 인간은 또 무엇이며 물질과 정신은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인가.

오늘날 대부분의 우주론자들은 우주가 약 100억년 쯤 전에 100억도가 넘는 불덩어리로 그 全 質量이 폭발되었던 고도의 극적인 사건으로부터 생겨났다고 믿고 있으며 이와같은 대 폭발에 의하여 내던져진 성운들은 평평한 원반형 구형 와선형 등등의 무수한 은하계를 형성하였고 이들 은하계는 각기 이원운동을 계속하여 팽창하고 있으며 그 속도는 은하계의 거리에 비례하여 조화있게 진행되고 있으며 거리가 멀면 멀수록 더욱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고 하며 이러한 사실은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계로부터 오는 빛의 세밀한 분석으로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증명되고 있

다 한다.

이러한 우주에는 대략 1,000억개 정도의 은하계가 있으며 그 각각의 은하계에는 또한 1,000억개 이상의 항성이 있고 그 항성마다 행성과 위성이 있다 하니 이 우주의 전 공간에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천문학적인 수의 별들로 가득차 있으며 이러한 은하계들은 그 자체의 운동을 하면서 또한 각기 멀어져가는 이원팽창운동을 하고 있다하니 우리 육안으로는 이를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참으로 전우주는 잠시도 정지함이 없이 장대하고도 역동적인 춤을 추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무서운 속도로 팽창하고 있는 우주의 미래에 대하여 어떤 모델은 그 팽창이 영원히 계속할 것으로 예언하고 있고, 또 다른 모델에 의하면 마침내 팽창을 멈추고 대 우주는 다시 수축으로 변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 허블(Hubble)의 법칙이라고 알려져 있는 은하계의 거리와 退行速度사이의 관계로부터 대 폭발후 팽창을 계속하고 있는 우주의 연령을 계산하면 대략 100억년이 되고 다시 500억년 쯤 팽창을 계속하다가 거기에서부터 수축으로 전환하기 시작할 것이며 이러한 수축이란 바로 逆方向으로 진행하는 팽창으로써 그로부터 500억년 후에는 우주는 또다

시 현재의 크기가 될 것이고, 그 후 다시 100억년이 경과하면 밀도가 무한대인 특이상태로 접근하여 우주는 또다시 대 폭발을 일으키고 그로부터 기나긴 팽창을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한다. 만일 이것이 우리들의 미래라면 그것은 곧 우리들의 과거이기도 한 것이다. 현재의 팽창 우주는 이 이전의 수축의 되됨에서 계속되고 있는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참으로 과거를 되돌아 보면 무한한 과거를 향해서 펼쳐져 있고 시작 없는 팽창과 종말없는 수축의 반복만이 있음을 상상할 수 있다.

이러한 우주의 팽창과 수축에 대한 인식은 현대 우주론에서 뿐만 아니라 불교의 아득한 前生사상과 힌두교의 一神의 遊戲—라는 신화에서도 시사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창조의 시작과 끝 사이의 상상할 수조차 없는 시간을 劫(겁)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힌두신화에서 브라만은 스스로를 세계속으로 代身시켜 一者が 多者が 되고 多者が 一者로 되는 끝없는 순환속에서 계속적인 율동적인 유희를 하는 바 힌두교의 聖人들은 이 율동적인 신성한 유희를 전체로서의 우주의 진화와 되됨의 율동과 동일시 하고 있다고 한다.

시작도 없고 종말도 없는 팽창과 수축속에서 1,200억년을 주기로 하여 되

됨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 우주의 장대함과 그 오묘하고 신비함은 실로 우리의 상상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장대한 우주속에서 그 크기가 해변의 모래알만도 못한 우리 지구는 약 45억년 전에 현재의 형태를 완성했다고 하며 오랜 光합성작용 끝에 약 4억년 전에야 비로소 산소의 함량이 현재의 함량인 21%에까지 도달했다고 한다.

그후 우주진화과정에서 포유류는 약 7,000만년 전까지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며 인류의 직계 조상들은 약 2,500만년 전에 나타났으며 이른바 인류(Homo Sapiens)의 시초는 아마도 약 400만년 전에 처음으로 나타났으며 소위 인류 역사가 시작할 무렵인 8,000년 전에는 지구의 총 인구가 500만명 정도였을 것으로 추상하고 있다.

최초의 인류가 탄생한 이후 약 400만년동안에 지구의 인구는 성교에 의한 생식으로 약 60억에 도달하고 있으나 그 진화과정을 살펴보면 인간의 유전학적인 족보는 최초기의 生體와 연결되어 있고 모든 생물은 공통한 족보에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 근래에 발전한 分子生物學的 발견에 의하면 모든 생물은 그 유전자가 다같은 4개의 염기(A.G.T.C.)로 된 D.N.A.로 구성되어 있고 상



이한 각종 생물의 種을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의 종류도 놀라우리만큼 공통된 것이며 인간의 세포내 산화효소는 104개의 아미노산으로 연결된 種인데 그중 103개는 靈長類의 그것과 같고 92개는 말의 그것과 같고 82개는 물고기의 그것과 같고 58개는 누룩세포의 그것과 같다고 하며 이것은 모든 생물이 공통의 족보에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생물 진화과정에서 뇌와 신경계통의 출현은 생명의 출현 곧 DNA의 출현에 대등하는 사건으로써 1,000억개 정도의 신경세포와 그 10배 정도의 膠細胞로 구성되어 있는 뇌 가운데서 지성과 정신의 자리라고 할 수 있는 大腦의 발달이 감성과 지성을 동시에 가진 인류를 출현케 한 것이며 이와같은 인간정신의 진화에 대하여 생물학자들은 생물진화의 태초부터 그 안에 내재하고 있듯 心素(Nisus)가 유독 인간에 한하여 특이하게 발달한 것이라고 한다.

공통의 뿌리에서 오랜 기간을 두고 진화한 생물이지만 인간만이 대뇌가 크게 진화발달하여 타동물과는 판이하게 본능을 억압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인류로 진화케 된 것은 참으로 우연한 생물진화 과정에서 나타난 우발적인 현상이 아니고 우주에

내재하는 우주정신에 의하여 이루어진 統體的이며 有目的的인 존재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은 과연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인가. 모든 물질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세포란 분자들의 결합체이며 분자들이란 원자의 집합이고 원자는 小粒子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다하며 이러한 원자는 극도로 미세한 粒子인 電子들이 電氣力에 의해 核에 묶여져 그 주위를 돌고있는 공간에 불과하며 그 크기는 직경이 약 1억분의 1센티미터 밖에 안돼 육안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극소한 크기이며 이를 시각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굴을 지구크기만큼 확대 시켰을때 비로소 원자는 뼈지만한 크기를 가진 것으로 되며 원자를 지구만한 크기로 확대 시켰을때 核의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들은 비로소 뼈지만한 크기로 된다고 한다.

이와같이 원자는 거시적인 물체에 비하면 극도로 미세한 것이나 그 안에 있는 원자핵이나 전자에 비하면 대단히 큰 공간이다.

만일 우리가 원자를 축구공이나 방의 크기만큼 확대하더라도 원자핵은 너무 작아서 여전히 육안으로 볼 수 없을 것이며 원자핵을 보기위하여서는 원자를 세

계에서 제일 큰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의 둥근 천장의 크기만큼(대략 14층 높이의 건물) 확대시켜야 비로소 원자핵은 그 속에 있는 소금 한알의 크기만큼 된다고 하며 그 안에서 원자핵(核)의 質量은 電子의 2,000배)의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들은 천장의 공간에서 떠돌아 다니는 먼지에 비유된다고 한다.

이와같이 모든 물질은 딱딱하고 견고한 고유의 입자로 구성된 것이 아니고 陽性子和 中性子로 이루어져 있는 원자핵과 그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광대한 공간(육안으로 볼 수 없는 공간이지만 원자핵이나 전자에 비하면 광대한 공간임)에 불과한 원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물질의 기본요소인 元素들은 원자 속에 있는 전자의 수에 의하여 그 화학적인 성질이 변화할 뿐 다른 차이는 없다고 한다. 때문에 오늘날 가장 가벼운 원자인 水素(수소원자는 하나의 陽子和 하나의 電子로 구성되어 있음)의 핵에 양성자와 중성자를 차례로 보태가고 원자각에 상응하는 원자의 수를 증가 시킴으로써 전체 원소들의 週期率表가 작성되고 있다고 한다.

이들 원자 속에는 전자들이 電氣力에 의해 核에 매여 그 주위를 맴돌므로써 그 제한에 반작용을 하는 힘으로 원자

속에서의 전자의 속박은 매초 약 600마일의 엄청난 속도를 가지게 되어 마치 빨리 회전하는 프로펠러가 원판처럼 나타나듯이 원자를 고정된 球처럼 나타나게 하여 원자에게 견고한 성질과 충분한 안정성을 가지게 한다고 한다.

현재의 量子물리학에서 규명된 바에 의하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중국적인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陽子, 電子, 光子등은 亞原子 수준에서 생성 소멸 변환의 끝없는 과정을 행하고 있는 “에너지”이며 이러한 소집자들은 그 자체가 에너지로 질량이 에너지가 되고 에너지가 질량으로 변환하는 끝없는 파동을 계속하고 있음이 증명되었으며 이는 전 우주가 全一한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며 현대물리학의 특징은 이 우주의 실상은 에너지의 상태로 되어있는 場으로써 하나로 통합된다는 실험을 얻었으며 “이것”과 “저것”은 더 이상 분리된 실체가 아니고 이들은 모두 똑같은 것의 다른 형태일 뿐 통일된 전체의 여러가지 부분들로 서로 서로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관계의 網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렇게 볼때 물질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의 눈에 물질로 보이는 것은 場의 응결체 또는 場의 마디에 불과하며 우리의 시각

으로는 800분의 1cm밖에 볼 수 없지만 우리가 X선을 볼 수 있다면 물체는 전혀 다르게 보일 것이며 더우기 극미한 입자를 볼 수 있다면 전 우주는 근본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통일되어 있다는 것이 현대 물리학에 의하여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기본적인 에너지인 전자기력, 弱力, 強力, 重力으로 통합되어 있는 통일장이 자연의 모든 에너지와 창조의 모든 과정들을 존재케 하는 근원이며 또한 이 통일장이 모든 의식의 기저(基底)상태인 순수의식의 근원이기도 한 것이다. 통일장은 전 우주는 물론 우리 인간의 형체와 순수의식을 형성하는 근원으로서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체는 물론 우리의 정신계 역시 기본적인 에너지에 의하여 하나로 관통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모든 생물이 그 생을 다하면 세균이 그 원형질을 해체분해하고 질량보존의 법칙에 따라 흡속으로 물속으로 또는 대기속으로 흐트러진 원소들은 다시 회류하여 또 다른 생물로 재생하여 한없이 되먹이를 계속하고 있는 자연의 현상은 불교의 윤회사상이나 우리나라 고유의 풍수사상을 예로 들지 아니하더라도 자연과 인간 그리고 생물 상호간의 관계에 시사하는바 큰 것이 있으며 인

간과 우주는 동일한 직물의 양면에 불과하며 서로 연관지어져 분리할 수 없는 끝없는 宇宙網을 짜고 있는 것으로나 자신이 완전한 소우주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시작과 끝도 없이 팽창과 수축의 되됨 속에서 장대하고도 역동적인 운동을 계속하고 있는 이 우주!

통일장의 신비속에 이것과 저것은 더 이상 분리된 별개의 실체가 아니고 똑같은 것의 다른 형태에 불과한 전 우주의 모든 물질과 생물등!

오랜 진화속에서 공통의 뿌리에서 나와 한 없이 되먹이를 계속하고 있음에도 이성이 크게 진화한 우리 인류들 그리고 한개의 수정란에 70개兆의 각기 다른 유전자형을 지니고 있는 父계와 母계를 합친 많은 조상으로 부터 유전인자를 이어받아 각기 다른 모습으로 영원한 시간속에서는 일순에 불과한 100년 미만의 세월을 살다가는 인간들!

인간 너와 나는 과연 누구인가.

인간이란 우연한 기회에 우연히 만들어져 지구위에 내 던져진 생물에 불과한가! 그렇지 않으면 심오한 우주 정신에 의하여 만들어진 이 우주에 비견할만한 존재인가!

또는 조물주에 의하여 만들어진 하느님의 종인가!

옛 현철들은 「인간은 자기자신을 알아야 한다. 그것이 설사 진리를 발견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자기생활의 질서를 잡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여 자기자신이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물어봄으로써 냉엄한 자기성찰과 사물에 대한 예리한 관찰을 하여 타인에 대하여 자기자신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누구나 사용하는 「나」가 아닌 진실한 「나」를 발견하여 나름대로의 우주관과 인생관을 깨달으므로써 깊이 생각하고 반성하는 삶 즉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최초의 철학자는 바로 철성학자였다고 하지만 별빛 총총한 밤하늘을 응시하는 인간의 눈은 그 별빛 속에서 바로 자기의 본성과 근원을 바라보게 되며 이러한 자기자신에 대한 성찰은 존재의 완전성을 추구하는 인간본성에서 우러나온 것으로 다른 생물이나 동물과는 달리 철학적인 사고와 종교적인 생활을 하게 되어 인간은 항상 우주안으로 한없이 열려있는 영원한 “나”를 발견하고자 노력하여 온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고대로부터 많은 종교를 발생케 하였으며 그 중 인도의 힌두교나 불교는 명상 등 직관적인 방법으로 경험을 통한 인간자아의 신비적 깨달음을 얻어 나와 우주

가 하나가 되는 경지에 이르는 것을 가장 이상적인 인간구원의 경지라고 가르치고 있고 중국의 유교나 도교는 하늘의 道를 따르는 것만이 종국적인 인간구원으로 보고 현실생활 속에서 극기와 수양으로 德을 완성하여 윤리적인 생활을 할 것을 가르치고 있으며 중동의 유태교, 기독교, 이슬람교 등은 唯一神 앞에 참회와 회개로 죄악의 용서를 빌고 사랑과 감사의 생활을 실천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바 이와같이 모든 종교는 인간의 근원적인 진실한 존재를 투시함으로써 영원한 진리에 합일하는 참된 생활을 영위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인생이란 우주의 무한한 시간속에서 보면 그야말로 수유의 순간에 불과한 100년미만의 세월이지만 어찌다 우연히 나타났다가 가는 현상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영원히 계속되는 생성과 소멸에 숨어 있는 오묘한 우주 섭리에 의하여 생성된 것으로 모든 생물과 모든 인류가 그 뿌리를 같이하고 있음에도 부계와 모계를 합친 많은 조상으로부터 유전인자를 이어받아 각기 다른 모습으로 태어난 우리들의 현상세계는 다시없이 소중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하나의 씨앗속에 장차 큰 나무가 될 모든 가능성이 내재하고 있듯이 만유에 관통하고 있는 우주안으로 마음을 넓혀

항상 “나는 누구이며 나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계속하여 자기 동종에 대한 생각과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을 게을리 하지 아니함으로써 존재의 내면에 깔린 진상을 추구하고 인간 본성의 끝자리를 깨달아 항상 우주 정신에 합일하는 생활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隨筆 · 隨想

省 墓



滿 澤
(전 광주지구원
예협동조합장,
현감공파 30世)

우리의 풍습 중에는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도 성묘하는 풍습은 인간미가 넘치는 훌륭한 것이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복잡한 현실에 얽매어서 눈에 보이는 것에만 급급하여 고립된 자아(自我)에 집착되기 쉬운데, 명절때만이라도 조상의 유택(幽宅)을 찾아 그 동안 망각했던 뿌리를 생각하며 조상의 넋을 추모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때에 비로소 조상께서 배부신 교훈을 되새기며 자기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떤 삶을 살고 있으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지금 내 몸 속에 흐르고 있는 따스한 피와 삶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예지(叡知)가 여기 조용히 누워 계시는 조상님에게서 비롯되었음을 깨닫게 되고 더할 수 없는 감사함을 느끼게 된다.

내가 성묘를 갔을 때 유택(幽宅) 주위의 잡초가 우거졌다든지, 봉우리가 허물어졌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그저 죄송스러움을 느끼면서, 되도록 오랫동안 유택 곁에 정좌(靜座)하고 더 많은 사색을 하고, 앞으로 유택을 어떻게 보호 관리할 것인가를 구상도 해본다. 그러면서 선조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다. 그러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상의 자애로운 말씀이 조용히 들려온다. 선(善), 정의(正義) 또는 사랑에 대한 무언의 말씀을 듣고, 나는 마음 구석구석에 남아 있는 나쁜 잔재를 씻어 버릴려고 애를 쓰다 보면 어느새 맑고 밝은 평온이 나를 감싸줄 줄을 느낀다. 이걸 느끼고 성묘길에서 돌아오는 나의 발걸음은 선인(仙人)의 움직임처럼 가볍고 경쾌하다.

내 생활 속에 돌아오고 나서도 나는 그 마음을 지속시키려고 노력한다. 매일 매일의 생활 속에서 조상님들에게

부끄러움 없는 후손이 되기 위해서라도 선(善)과 이상, 정의와 진리, 사랑과 성실에 대해서 생각하고 실천해야 되며 반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게으름과 소홀함이 없는 생활이 누적될 때에 조상에게 누(累)를 끼치는 후손이 되지 않고, 성실해지는 나, 부지런해지는 나, 발전해 가는 내가 되어갈 것이다.

근래 어느 가문에서고 묘역정화사업(墓域淨化事業)이 한창이다. 또 국가에서도 공이 큰 선열(先烈)께서는 정부 차원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고 후손으로서의 당연한 도리라고 본다. 하지만 외형적인 허세에만 치우친다면 도리어 경제적 낭비만 초래할 것이다. 어느 철인(哲人)의 말을 빌 것도 없이 참된 발전은 양심의 발전이요, 진리의 발전이요, 사랑의 발전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화사업은 이들 발전을 위한 도화선(導火線)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역사를 빛낸 선조의 위업(偉業)을 계승하는 길이요, 사회를 밝게 하고 인류평화의 기초를 다지는 길이라고 본다. 명절이나 행사 때 정화된 유해를 경건(敬虔)한 마음으로 참배하면서, 선과 진리와 사랑에 대하여 생각하고, 이를 실천하려는 의지가 후손들의 마음 속에 가득 채워질 때에 정화사업

의 참뜻은 살아날 것이다.

● 隨筆·隨想

請佛往世



鶴 璇
(宗誌編纂
副委員長)

‘부처여 나는 오래 살고 싶어’하는 노래를 음미하고자 한다.

모든 부처여

비록 잘 때는 지났으나

손을 부벼 올리며

세상에 더 머물게 하소

사람이 죽으면 지옥으로 간다, 혹은 극락천국으로 간다, 하는 말을 들었다. 연전에 假死로 며칠 뒤에 깨어 보니, 아무런 것도 없었다. 그야말로 無다. 죽음이라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이야기다. 실망을 했다. 가사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무 것도 없었다. 드트리였다. 이 죽은 자의 후세에 대한 책무가 크다는 것을 생각했다.

종종 霹靂아 生陷墮無間 고대 죽어진
이 내몸이 내님 두고 탄 山을 걸으리

(履霜曲)

無間地獄 속에 떨어질 이 몸. 얼마

가지 않아 죽어질 이 몸이 내 님을 두고 그대로 스칠소냐, 여기에 그들은 현세에 시달리면서도 내세를 바라고, 인생을 생각했으리라. 後世를 염려하였으리라.

가령 한명회를 생각해 보자. 천안 목천 무덤을 세군데나 만들었다. 또 신숙주를 생각하자. 속설에 그 부인이 부끄럽다 해서 자결했다. 그 후손들이 경기 청북에 도마지에 은인생활로 선조를 자랑스럽게 생각 못하고 숨기고, 지금도 말하는 사람이 있어 이제도 감추고 있다고 들었다.

이완용의 무덤은 요몇년전에 시신을 파서 태워버렸다. 그 후손들이 이것도 죽은 자로서는 無로 대할 수 있으나, 후손들의 입장은 다르다.

최린(海州崔氏 大寧君派 29世)은 3·1 운동 당시까지는 그런 자리에서 죽어야 하는데, 아아! 그 뒤에 친일파란 오명을 얻었으니, 그 부끄러운 존재가 되었다고 할 때, 靑天白日 廓平照明하던 崔麟의 心界를 우리는 안다.

군수 최치원 생원, 의병 김덕녕 사형수를 수백년 뒤에 무슨 장관 무슨 장군이라 하여 사당에 피시키고 있으니, 잘했소. 그런데 이와 반대의 경우 어떻게 하오?

또 나의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1910년

일본의 식민지가 될 당시 장년이요, 청년이 무엇했소. 제가 15세 되니, 부조를 훔чал하던 생각이 나오.

죽은 사람은 無지만, 뒷 사람으로 이어받을 사이랄까 생사자의 입장이 다르다. 죽을 때 죽지 못하였다. 왜 죽지 못하였는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

선조가 당부하기를 「벼슬이라, 시중이라, 부호라, 하는 것은 못되나, 구슬같은 덕행, 비단같은 문장은 우리의 장끼요, 보배라」

떠날 때가 된 것 같다. 출발 시각이 온 것 같다. 정확한 시작은 모른다. 혼자? 여럿이? 걸어서? 타고 가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가 가기 싫다는 것이 분명하다. 이 세상에 더 살고파. 그래서 「손을 부벼 올리면서」 있다. 그 이유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비밀이다.

새는 아침 캄캄밤에

향할 벼를 알았노라

흰히 밝아지는 새 아침에 가는 벼는 좋소. 그러나 캄캄한 행방을 알 수 없는 밤에 가는 벼도 있다.

「밤에 가는 벼, 길 잃은 무리 되었으니, 제발 이런 밤은 싫소. 아 향할 벼이여! 따를 벼이여! 부처님이여 알았습니다。」

이를 알게 되니

길없는 무리 서러워

迷路에 失路에 헤매고 있는 무리는
가련하오. 불상하오. 서럽다네. 이제
이것을 알게 되었으니, 正路로 가라.
바른 길로 가라. 무문대로, 탄탄대로로
가거라. 무리의 長의(웃어른) 책무가
크오 선정을 잘하오. 합심하오.

아아 우리 마음이 물 같이 맑거던

부처 아니 응하랴

부처님 우리들의 청을 들어주시오.
더 오래 이 세상에 머물게 하여주시오.
부처님이 대답하신다. 너희들의 마음이
물과 같이 맑으면 항시 또 영원히 함께
살리라.

● 隨筆·隨想

나와 너



雲 楮
(문학박사, 교
원대학 교수)

우리 속담에 ‘잘 되면 제복, 못 되면
조상의 땀’이란 말이 있다. 인간의 속
성을 아주 잘 나타내 주는 말이라 하겠
다.

자기 운명은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요,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자기가 한

일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
한다. 그래서 철학자 키엘케골은, “나
는 그것을 위해서 살다가 그것을 위해
서 죽을 수 있는 ‘그것’을 발견하는 것
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물건에는 값이 있고, 우열(優劣)이
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우열이 있을
수 없고, 각자의 생명 자체가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천하는
얻었다 할지라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오.”라고 했다. 그런데,
이 말은 “천하를 얻었다 할지라도 나
자신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오.”
하는 말로 바꾸어 보면, 더 많은 것을
느끼게 해 준다.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 한다. 나 자
신은 내가 지켜야 한다. 남을 흉내 내
지도 말고, 내 인생을 남에게 맡겨서도
아니 된다. 나 스스로 결단하고, 그것
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면서 살아
야 한다. 미국인이냐 일본인은 한국인
보다 자의식(自意識)이 강하고,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같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자신의 인생을 출
발해야 하리라 생각한다.

나는 나 할 일만 하면 된다. 남과 비
교하여 이러쿵 저러쿵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피아노는 피아노 소리면 내면 되고, 북은 북 소리만 내면 된다. 피아노가 피아노 소리를 내지 못하고, 북이 북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그것이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나는 내 소리를 내고, 너는 네 소리를 내면 되는 것이다. 배우는 사람은 열심히 공부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열과 성의를 다해서 가르치면 된다. 공무원은 공무 수행에, 기업인은 자기 사업에 열중하면 된다. 우리 모두는 자기가 맡은 일에 충실하면서 필요 이상으로 남의 일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좋다. 필요 이상으로 남의 일에 관심을 갖다 보면 자기 일에 소홀해지기 쉽다. 그렇게 될 때에는 관현악의 연주나 합창에서 잘못 연주하거나 틀리게 부르는 사람이 있는 것과 같게 된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선택해서 결단을 하고, 내가 책임을 지면서 살아야 한다. 따라서 나는 나 할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러나 나는 나 혼자 존재할 수 없는 상대적 존재인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타인에 의해서 존재한다.”고 철학자들은 말한다. 학생은 선생이 있음으로 해서 그 존재 의의가 살아나는 것이고, 형은 동생이 있음으로 해서, 부모는 자녀가 있음으로 해서 존재 가치가 배가 되는 것이다. 또, 생산

자는 소비자가 있음으로 해서 그 물건을 생산할 의의가 있는 것이고, 공무원은 국민이 있음으로 해서 할 일이 있는 것이다.

사람은 내가 중요한 것처럼 ‘너’도 중요하다. 나는 나 홀로 존재할 수 없고,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관계는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다. 사랑이 없이는 이 관계는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사랑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소중한 것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어도 내가 사랑할 사람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사랑할 사람만 있으면, 남들의 사랑을 받지 못해도 나는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동물이 아니고 사랑을 먹고 사는 동물”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이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동물이기에 자기에게 사랑할 사람이 없고,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은 2개월 이내에 죽는다고 하는 말은 타당성이 있는 말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사람은 사랑할 상대, 즉 ‘너’가 있어야 한다. 산다는 것은 이 ‘너’와의 만남이다. 우리는 이 만남을 통해서 관심

의 영역을 확대하고, 인격을 닦아나가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가질 것이며, 누구와의 만남을 피해야 할 것인가? 관심에는 육체적인 관심이 있고, 정신발생적인 관심이 있다. 건강, 학식, 재물, 권세 등은 육신적인 것이고, 진리, 종교 등에 대한 관심은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정신적인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관심의 영역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우리의 인격은 성숙해진다. 특히 정신발생적인 관심의 영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우리의 인격은 더욱 빛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정신발생적인 면에 관심을 가지면서 내가 사랑해야 할 상대를 찾아서 만나야 한다. 만나서 서로 사랑을 나누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부모, 형제, 친척, 친구, 친지 등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왔으니 앞으로도 이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들을 깊이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살 수 있게 해 준 국가와 사회를 사랑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여기에서 그쳐서는 아니 된다. 우리는 진리를 사랑하고, 끊임없이 탐구해야 한다. 공자, 석가, 예수를 만나야 하고, 이들을 사랑하면서 이들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 이러한 사람만이 높은 인격의 소유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隨筆·隨想

墓碑除幕



德 滄
(현감공파,
의학박사)

1983년 9월 5일.

새벽부터 비가 줄기차게 퍼붓기 시작했다. 잠을 한숨 더 자고 나서 다시 창밖을 내다봐도 빗소리는 여전하다. 아침 9시가 좀 지났을까. 비가 좀 뜸하기에 이것저것 부리나케 챙겨가지고 선산길을 떠났다. 그러나 나주를 지나기 전에 다시금 하늘이 컴컴해지더니 빗방울이 굵어지면서 억수로 쏟아진다.

‘오늘은 특별히 의미 깊은 날인데, 이 일을 어찌나!’

착잡한 심정으로 차창 밖 하늘만 쳐다보며 월출산 중턱을 넘어 강진읍에 들어서니 비가 멎었다.

강진에서 국도를 따라 장흥 쪽으로 4킬로미터를 달리니 군동면사무소가 나왔다. 다시 북쪽 갈림길을 따라 군동중학교 모퉁이를 휘도니 길 건너 언덕에 집 한 채가 눈에 띄었다. 숲 속에 아늑히 자리잡고 있는 그 집이 해주최씨 제각(祭閣). 광주에서 출발한 지 꼭 1시

간 반이 지났다.

제각 뒷등을 쳐다보면, 산기슭 양지 바른 곳에 14봉의 묘들이 등실등실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니, 그곳이 바로 내 집안의 묘지다. 고조부부터 선형(先兄)까지 한 곳에 모신 곳이다. 이 고개를 오르내리는 사람들의 눈길이 모이도록 정성도 드러 보았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 더위가 기승을 부렸고, 그래서 날마다 비지땀을 쏟으며 나무를 베고, 뿌리를 도려냈으며, 이곳저곳에서 이장도 해오고, 뼈를 입히느라고 고생도 많았다. 두 달간 연인원 220명이 일한 셈이다. 그때 수고한 분들에게 술 한잔 대접할까 해서 묘비제막(墓碑除幕)이란 이름으로 날을 잡은 것이 바로 오늘이다. 새로 만든 묘지에서 초가을 햇살을 만끽하며 그동안의 수고를 치하하고 싶어서였다.

고향 선산 밑에는 당숙 한 분이 살고 계신다. 우리 집안에선 제일 가까운 분이다. 건강이 좋은 편이 아니어서 그때문에 광주에 가끔 들르는데, 당신 건강보다 선산 일에 더욱 관심을 쏟으시는 분이다. 광주에 오시면,

“나 죽기 전에 선산 일을 했으면 좋겠다.”

고 이야기를 꺼내시곤 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어찌보면 사치스럽고, 낭비

라고 여겨온 터여서 슬그머니 화제를 돌리곤 했다. 그런데, 차츰 나이가 들면서 젊었을 때의 생각이 많이 달라졌고, 언제 성큼 다가설지 모르는 죽음을 생각하면서 문득 떠오르는 당숙의 말씀에 공감을 하게 되었다.

무덤이란 돌아가신 이들이 사는 저승의 집이라 한다. 저승의 집터가 온전하고 좋으면 그 기운이 이승의 후손에 미쳐서 복을 받는다고 한다. 내가 이러한 케케묵은 풍수설(風水說)에 팔려 복이라도 듬뿍 받고자 선산 일에 나선 것은 아니다. 또한 아무개의 위선사업(爲先事業)이네 하고 내세우고 싶어서 하는 것은 더 더욱 아니다. 내 뿌리를 간직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고, 또, 내 인생이 끝날 때 가야할 곳을 가꾸고 싶어서이다. 나는 환자에 얽매인 몸인지라 고향을 자주 들르지는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과 함께 조상의 묘를 잃지나 않을까 해서 한 곳에 모시기로 한 것이다. 벌초나 성묘에도 편할 것 같고 해서.

내가 묻히고 싶은 곳은 남들도 그렇겠지만, 세상에서 태어나 잔뼈가 굵어진 고향, 이웃의 따뜻한 정이 있고, 내 부모와 형제가 고이 잠든 바로 그런 곳이다. 언젠가는 개발될 만한 곳, 부르도자로 밀면 금방 밭이 될 만한 곳은

피하고, 찾길이 닿는 곳, 사람의 눈길을 끌만한 쾌적한 곳이다. 고향 선산 '독곡의재'로 올라가는 길 건너편이 그런 점에서는 안성마춤이었다. 다소 가파르니 5단을 쌓아 아담하게 묘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평소 눈여겨 둔 석물(石物) 집에 일을 맡겼다.

오석(烏石)으로 와비 2벌, 금산석으로 표석(表石) 11벌, 황등석으로 상석 1벌, 도리석 2벌을 마련했다. 비석 앞면은 한문, 뒷면은 한글, 연대는 서기로 하고, 역대 조상들의 이름도 새겼다. 성묘길 어린이도, 지나가는 나뭇꾼도 금방 알 수 있겠끔.

또다시 빗방울이 돈다. 제막식은 커녕 제사도 제대로 모시지 못한 채 서둘러 내려와 국민학교 교실 몇 칸을 치웠다. 멀리 광주에서, 또는 이웃마을에서 많이들 모였다. 그 지점던 비도 멈추고, 교실마다에는 흥겨운 술자리가 벌어져 주거니 받거니 떠들썩하다.

얼마쯤 지났을까 한 분 한 분 자리를 뜨더니 어느새 교실이 텅 비었다. 음식을 마련하느라 잠까지 설치고 고향의 부인들만이 노래와 춤으로 떠날 줄 모른다.

● 隨筆·隨想

風水地理說과 과학



泰 峯
(영남지회 간사장)

문명이 발달하지 못하고, 오늘날과 같은 교육기관이 없었던 옛날에는 교육이 거의 가정에서 이루어졌다. 설날이나 추석같은 명절에는 차례를 지내며 성묘를 하고, 조상께 천신하여 추원보본(追遠報本)을 잊지 않는다. 또, 설달그믐날의 묵은 세배와 설날의 세배는 해가 바뀌는데 따른 인사로,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의 표시이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조상의 은혜를 생각하는 마음이 두터워 제사를 정성껏 지내고, 풍수사상(風水思想)에서 명당(明堂)을 찾아 지기(地氣)를 이용하려는 민속이 생겨났다. 여기서는 풍수지리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나 민간의식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이의 합리성 내지는 과학성에 대하여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한다.

풍수사상은 땅의 기운을 얻어 인생의 행복을 얻고자 하는 사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대지는 능동적으로 만물을 길

러내는 활력을 가진 것인데, 그 활력과 지기의 두텁고 얽음에 따라서 인간에게 길흉화복(吉凶禍福)을 주며, 대지에 존재하는 생기는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의 운수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풍수사상의 기초이다. 풍수란 말은 ‘장풍득수(藏風得水)’에서 유래한 말로 ‘바람을 감추고 물을 얻는다.’는 말이다. 바람을 감춘다는 것은 생기(生氣)가 바람을 만나면 부산(浮散)하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자는 것이고, 득수는 땅 속에 수기(水氣)가 있으면 생기가 있게 되어 지상에 복을 주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중국 고대에 성립되었는데, 그 목적은 바람을 막아 생기를 보존하며, 물이 있어 왕성한 생기를 축적하는 땅을 얻어 그 땅의 생기를 받아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자는 데에 있다.

고려 시대에는 풍수지리 관계를 담당하는 산천비보도감(山川裨補都監)이라는 국가기관이 있었고, 잡과 과거로 지리업(地理業)을 설치하여 풍수지리 관계를 맡아 처리할 관리를 뽑기도 하였다. 이것은 풍수사상이 고려 시대에 얼마나 널리 퍼져 있던 사상인가를 알게 해 주는 자료인 것이다. 이러한 풍수사상은 조선 시대에도 널리 퍼져 있었으니 이것은 풍수에 관한 여러 가지 서적

이나 풍수 설화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다.

풍수설은 양택(陽宅)과 음택(陰宅)의 위치 선정과 관련이 크다. 그런데, 음택 즉, 묘자리에 관한 것이 주를 이룬다 하겠다. 통설적으로 명당(明堂)은 묘자리의 방향과 좌우의 산세(山勢), 안산(鞍山)이라 부르는 앞쪽의 산모양, 주변의 물흐름의 방향, 초목의 상태, 산의 경사, 산봉우리의 형상 등에 의해서 결정된다. 방향의 경우, 임좌향(壬坐向, 남쪽)을 좋은 방향으로 치고 있음은 겨울에 서북풍을 차단하고 해가 잘 들기 때문에 좋고, 잔디의 생육에도 좋으니 과학적이라고 할 수도 있다. 맞닿은 앞쪽 산이 더 높으면 자손이 불리하다는 것은 역시 전망이 좋아야 한다는 관념의 표출로, 자연과의 조화와 통풍을 고려한 것이라 하겠다. 묘지에 통풍이 잘 안된다고 자손의 이해득실(利害得實) 문제까지 들먹인 것은 지나친 비약이겠지만, 후손들로 하여금 신경을 써서 묘를 쓰라는 뜻을 강조한 것이라 하겠다.

흔히 말하는 좌청룡(左靑龍), 우백호(右白虎)는 좌우의 산세를 말하는 것인데, 속설에 왼쪽산(청룡)의 산세가 험차게 잘 뻗어 있으면 만집과 남자 자식들이 잘 되고, 오른쪽 산(백호)의 산세

가 더 준수하고 강하게 뻗어 있으면 외손이 잘 되고 친손(親孫)은 운세가 약하다고 한다. 그러므로 양쪽 산세가 서로 보필하고 호응되는 세력이 좋다고 한다. 또, 산소 정면 가시거리(可視距離) 안에 못이나 강이 3개 이상 있으면 명당이란 속설도 있는데, 이것 역시 경관(景觀)과 통풍, 물에 대한 민간의식에서 나온 것이라 하겠다. 물의 흐름에 대한 설(說) 중에는 산소 앞을 흐르는 물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면 자손이 쇠하고, 동에서 서로 흐르면 성(盛)한다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방위에 대한 민간의식이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산의 경사가 너무 심하면 자손이 귀하다는 설도 있는데, 이것은 험준한 산길은 성묘가 불편하고, 경사에 의한 토압(土壓)으로 봉분이 밑으로 쏠려 폭우 등으로 무너질 위험이 있음을 고려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또, 동쪽 산이 높고, 서쪽 산이 낮으면 나쁘다는 설이 있는데, 이것은 동쪽이 막히면 일조 시간이 짧게 되고, 서북풍의 영향을 많이 받게 돼 잔디나 수목의 성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닐까 한다. 또, 산소가 있는 산 줄기의 봉우리가 구불구불 굴곡이 있으면 좋고, 번듯하게 뻗어 있으면 나쁘다는 설도 자연 경관의 조화를 고려한 설이 아닐까 생각된다.

흙의 경우, 황토색이 좋고, 모래나 진흙이 없어야 한다는 게 풍수설의 정설이다. 이것은 시체가 보다 빠른 시간에 흙으로 돌아가게 하는 데는 수분이 적고 사질(沙質)이나 점토 성분이 적은 것이 좋으므로 과학적으로 합당한 것이라 하겠다. 산소 주위에 바람을 막아 주는 나무는 많을수록 좋다. 그래서 대개 왕릉 들레에는 수목이 울창한 것이다.

이처럼 풍수설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것들이 많이 있지만, 구전되는 설화나 일화에는 이변이 일어나는 이야기가 많이 있으니, 풍수설 중에는 과학으로 풀 수 없는 그 어떤 것이 있는 모양이다. 이것은 수수께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漢 詩

文 憲 公 追 慕 詩

海東影堂 提供

I.

해동공자(海東孔子)님으로 일컬어져 오는 우리의 문헌공(文憲公) 충(沖 984—1068) 선조님의 탄신 1000년을 맞이하여 문헌공의 영정을 모신 해동 영당에서 춘계 제사를 지낸 뒤 충남지방의 유림과 본손들이 문헌공 추모 시회(詩會)를 성대히 개최한 바 있다.

행사가 있었던 곳 : 충청남도 당진군 송산면 무수리(唐津郡松山面無愁里)
해동영당(海東影堂)

행사가 있었던 때 : 1984년 4월 초 3일 한낮(12:00)

시제(詩題) : 문헌공 최충 탄신 천주년 기념(文憲公誕辰千周年紀念)

압운(押韻) : 동(東·同), 중(中), 풍(風), 궁(窮)

II.

1. 海陽道學紀元東 : 해주 수양은 동쪽 나라 도학의 기원을 이루어,
講論書經歲又同 : 같고 닮은 유종의 큰 맥은 년광을 같이하네.
 2. 柱國四朝更霸立 : 네 임금 섬긴 영상 치세를 바로 했고,
九齋多士寔寧中 : 구재에 모인 선비 학문을 힘써 나라를 편케 했네.
 3. 斯文崇德千秋奠 : 크고 높은 학덕은 천추에 모셔졌고,
箴戒訓詩萬世風 : 훈계한 교자시는 만세에 풍미하리.
 4. 我祖誕辰當十百 : 우리 조상 오신 지 천년을 맞아서,
根深花樹葉無窮 : 뿌리 깊은 우리 문중 길이 번영하리라.
- 서울 종로구 삼청동 1-3 후손 정암(政巖) 병권(秉權)

1. 朱門芳名擅海東 : 주문 방명은 널리 우리 나라에 드날렸고,
 宇宙寓形日月同 : 우주에 묻힌 형체는 일월과 같았네.
 先師七旬文武裡 : 선사께서는 고희가 넘도록 문무관을 지내셨고,
 皇恩萬里善行中 : 한없는 황은을 선행중에 입으셨네.
2. 古屋第殘愁夜雨 : 낡은 옛집에서 밤비를 근심하고,
 破窓衾薄憫晨風 : 뚫어진 창 얇은 이불에 찬바람을 걱정하셨네.
 海州我祖千秋跡 : 해주 우리 선조님들의 자취는 천년
 滿座儒賢世不窮 : 만좌한 유현들로 길이 다함 없었네.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후손 인곡(仁谷) 익렬(翼列)

1. 文憲韋名振海東 : 문헌공의 위대한 명망이 동방에 떨쳤으니,
 精糧籩簋古今同 : 서원의 향사 예절이 고금에 같도다.
 遺孫蔭德千秋後 : 자손들에 끼치신 음덕은 천년까지 빛나며,
 慕祖深誠萬代中 : 선조를 추모하는 깊은 정성은 길이 불변일세.
2. 靈地影堂龍下局 : 신령스런 땅에 모신 영당은 청룡이 내리는 도국이요,
 珠欄華閣鳳飛風 : 구슬 난간 빛난 집은 봉황이 나는 듯하도다.
 我崔花樹宗親睦 : 우리 해주 최씨 화수회는 일가끼리 화목하여
 繼繼承一永未窮 : 대대로 서로 이어 길이길이 다함이 없네.

충남 공주군 탄천면 가척리 후손 죽암(竹菴) 승건(承健)

1. 始設九齋振海東 : 처음으로 구재학당을 해동에 여시니,
 時稱孔子有誰同 : 그 시절 사람들이 해동의 공자라 일렀네.
 兵法能難諸將上 : 병법에도 뛰어나서 모든 장수 중 위셨고,
 學文特秀萬人中 : 학문은 더욱 뛰어나서 만인 중 으뜸이셨네.
2. 得英教導餘生樂 : 영재를 모아 가르침은 여생의 낙이요,
 遺蹟傳來百世風 : 유적이 전해 옴은 길이 흠모하는 풍도일세.
 血食千秋香火地 : 천만년 길이 혈식으로 모셔지는 땅에는
 後孫但願永無窮 : 후손들은 오직 다함이 없기만을 빌고 또 비네.

경기도 송탄시 성북동 대성한약방 후손 동욱(東郁)

Ⅲ.

世稱孔子復生東 東土士民追慕同 啓開曾致昇平業 淳厚猶存太古風
埠叙彝倫千載後 憲章文武一身中 洙泗眞源流不盡 如天偉德永無窮
詩南 李 炳 台

偉大先師踐魯東 文章懿訓有誰同 恩波萬代仁山月 史筆千秋智水風
儒家到處隨杖履 道義明來警世中 松陰竹影無愁里 瑞日祥雲永不窮
忠南 唐津邑 邑內里
松巖 南 相 珏

先師道學冠吾東 景仰眞心舉國同 明文布德當時蹟 宣武盡忠舊日風
教化遺傳千載後 名聲遠振萬邦中 仁孝子孫能繼述 應知享祀永無窮
忠南 唐津邑 內里
慕農 宋 榮 寬

曾聞影堂在海東 尊嚴無比古今同 追慕先師千載紀 養成後進九齋風
武文兼任麗朝上 孔聖稱呼我國中 如斯偉業難堪說 遺蹟綿綿永不窮
忠南 唐津郡 松山面 上巨里
蓮下 李 載 仁

當時孔子稱吾東 道德文章孰與同 四面城樓明滿月 九齋降帳繞春風
追慕誕辰千世下 永傳血食萬年中 先師種德如種樹 珍果奇花也不窮
忠南 唐津郡 松山面 梅谷里
李 文 煥

泗水遠通稱海東 千年禮樂夏華同 立處情窓飛白雪 坐時光座動春風
教施絃誦山河外 澤及民人雨露中 運籌帷幄兼文武 百歲過生德不窮
忠南 唐津邑 柿谷里
滄岩 金 振 仁

錦繡文苑

在昔高賢出海東 愍民尊主兩相同 道心蘊藉紫陽宅 禮義篤修闕里風
政明禹貢山川外 福自堯天雨露中 開設九齋開後進 當登文廟恨無窮
忠南 唐津郡 松山面 明山里

梅峰 洪 昶 裕

海東孔子稱吾東 八域官民追慕同 當今後學垂章日 憶昔先生振道風
文武猶傳千載下 靈儀自在一堂中 遐祝仁昆修築事 將期萬歲享無窮
忠南·唐津郡 松山面 上巨里

松菴 朴 萬 鍾

文武兼全牖我東 啓賢麗代有誰同 赫赫奇功爭日月 楊楊大義洗塵風
精忠史載千秋後 盛德源流萬歲中 仁昆述事今如續 名與江山永不窮
忠南 唐津郡 松山面 無愁里

醉琴 裴 善 益

有約影堂路轉東 不忘此樂與衆同 安過祥雲加瑞日 泰平甘雨又和風
道能天壤無形外 知化陰陽變態中 追憶德建成業廣 儒林來世享無窮
忠南 唐津郡 松山面 明山里

洪 思 興

德望大人降海東 述承孔子道心同 史冊幾傾松岳月 征旗累動淇江風
台星老相龍顏側 柱石能臣玉殿中 又念千週今年後 天與長傳使不窮
忠南 唐津郡 松岳面 光明里

慕南 俞 甲 濬

理學精忠闡我東 先生偉蹟泰山同 儼肅衣冠觀古禮 潔陳俎豆啓賢風
士林欽慕趨奔裡 依像依存陟降中 遺昆述事殫誠克 香火千秋永不窮
忠南 唐津郡 松山面 無愁里

李 亨 烈

錦繡文苑

瞻望影堂曰海東 望之小斗比難同 城堡築成皆烈義 將相兼職振威風
聲明暫滯紅塵裡 筆法無私實錄中 繼承後學今因續 警世功名永不窮

忠南 唐津郡 松岳面 佳橋里

具 權 會

清聖降於海右東 智明道德仲尼同 人人自樂賢仁俗 處處方吹禮義風
寶樹萬枝一血脉 棣花千葉滿春中 夫子廟前相問事 首陽秀色恒無窮

唐津郡 松山面 無愁里

後孫 演 重

道德文章冠海東 名賢仰慕古今同 門閥傳教爲國寶 子孫訓戒好家風
功勳充滿青雲裏 福祿興昌白屋中 立朝行蹟千年紀 後裔縉紳永不窮

서울特別市 城東區 聖水二街三洞 二九九의 二三五

後孫 海愚 光 鍾

吾祖挺生左海東 偉勳盛德孰能同 洙泗真源來活水 檀箕遺緒繼餘風
性理倡明昏昧裡 綱常扶起太平中 千年一週行茶禮 追慕深誠自不窮

忠南 唐津郡 松山面 柳谷里

後孫 鍾 振

廟堂屹立海之東 叅衆後孫感慕同 倡明性理開來學 扶植綱常尚古風
功存麟閣最高上 思入桑田累變中 千載而今詩以紀 清香芬苾永無窮

忠南 唐津郡 松山面 柳谷里

後孫 鍾 元

漢

詩

賀文憲公(崔冲)先祖誕辰千周年

서울 城東區 聖水 2街 3洞 299—235

後孫 光 鐘

(32世)

先祖誕降至千載(선조탄강지천재) : 선조님의 탄강이 1천년인데,
世稱孔子大名賢(세칭공자대명현) : 세상에선 해동공자님이라는 큰 명현이십
니다.

家門藉藉榮華溢(가문적적영화일) : 가문에는 시끌시끌 영화가 넘치고,
朝野彬彬爵位遷(조야빈빈작위천) : 조야로 빛나는 벼슬 고루 거치셨습니다.
紫綬金章存續顯(자수금장존속현) : 붉은 인끈 황금 도장은 끊임없이 드날
리고,

紅牌玉笏治世連(홍패옥홀치세연) : 홍패와 옥홀은 대대로 치세에 있었습니
다.

遺風餘韻尊遵守(유풍여운존준수) : 선조께서 남기신 업적과 가훈을 높이 지
켜

後裔興昌永世傳(후예흥창영세전) : 자손들은 흥창하여 대대로 길이 전합니
다.

又 또

大爵王臣承子孫(대작왕신승자손) : 큰 벼슬 왕신이 자손에 이어졌으니,
麗朝年代醉皇恩(여조연대취황은) : 고려조에서는 임금님 은혜에 도취되었었
죠.

千秋遺蹟尋何處(천추유적심하처) : 천추에 남기신 사적 어디서 찾나요?
侍有兩公影幀尊(시유양공영정존) : 문헌 문화 두분의 영정을 우러러 모십
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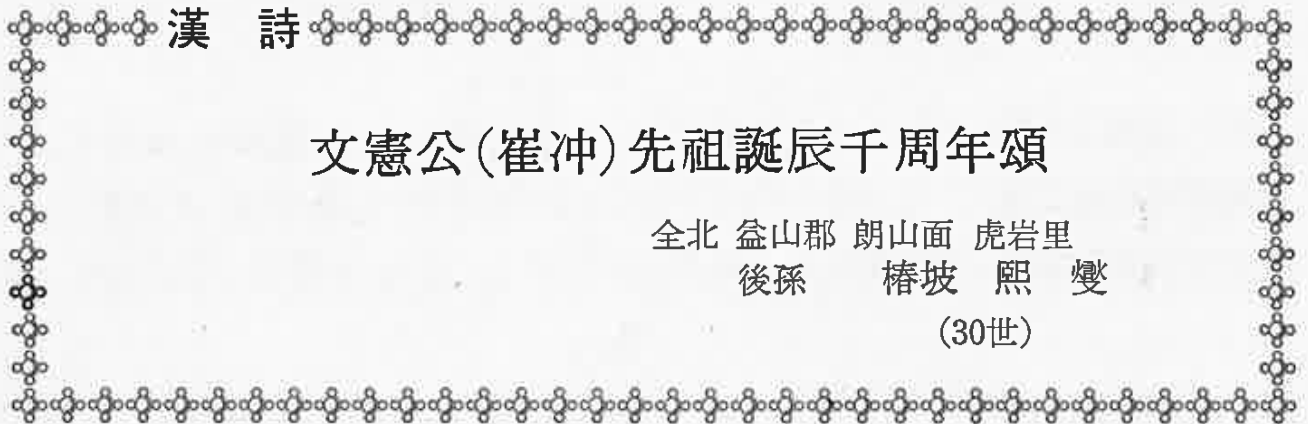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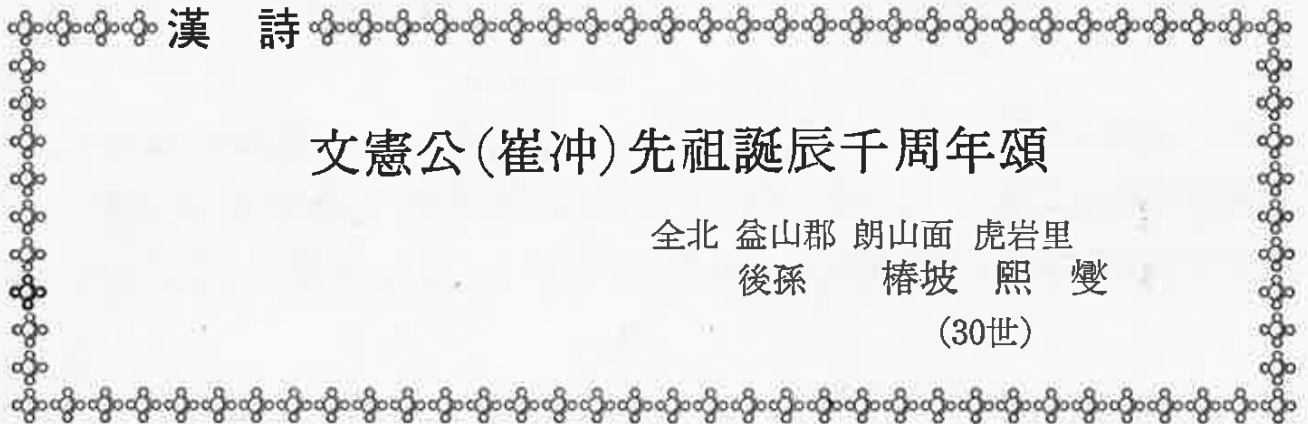
又 　 　 　 또

大賢誕降麗朝時(대현탄강여조시) : 큰 명현이 고려 때 태어나시니

道德文章百世師(도덕문장백세사) : 도덕과 문장으로 백세의 스승이십니다.

儒學莫言撰佛碑(유학막언찬불비) : 유학들은 불교의 비문 지으심을 말 마
시오.

至尊御命不須辭(지존어명불수사) : 지존하신 임금님의 명을 거역하지 못하
심이라오.

 漢 詩 

文憲公(崔冲)先祖誕辰千周年頌

全北 益山郡 朗山面 虎岩里
後孫 椿坡 熙 燮
(30世)

理學先師降海東(이학선사강해동) : 성리학을 창명하신 선생께서 우리 나라
에 탄강하셨음을

眞心仰慕與衆同(진심양모여중동) : 진심으로 온 겨레가 다 같이 앙모합니다.

遺傳教化八域裡(유전교화팔역리) : 끼치신 교화가 전국에 널리 전해짐은

開講後進九齋中(개강후진구재중) : 후진 모아 구재에서 강론하신 때문입니
다.

淸慎德行千載紀(청신덕행천재기) : 청렴 근신하신 덕행은 천년의 기강이윽
고,

文武盡忠萬古風(문무진충만고풍) : 문무를 겸전하여 충성 다하심은 만고에
길이 빛날 풍도십니다.

立朝勲業流青史(입조훈업유청사) : 조정에서 세우신 큰 공훈은 역사와 함께
전해지고요.

縉紳後裔永無窮(진신후예영무궁) : 사대부의 후손들은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漢 詩

追慕和順影堂

後孫 竹齋 仁 燮

(대종회감사재焜先親)

卅餘年後又南行(십여년후우남행) : 이십여년만에 또 남으로 와서
 奉審先祠百感生(봉심선사백감생) : 선조의 사당을 봉심하니 감회가 많구나.
 院宇村容雖變革(원우촌용수변혁) : 사우와 마을이 비록 달라졌으나,
 依然永保舊家聲(의연영보구가성) : 의연히 옛가문의 고성은 길이 보존하고
 있네.

추모고죽공어박산사(追慕孤竹公於博山祠)

文章當代擅英名(문장당대천영명) : 문장은 당대에 영명을 떨치시고,
 玉骨仙風氣宇清(옥골선풍기우청) : 옥골선풍은 기상이 청수하였네.
 明秀博山祠院下(명수박산사원하) : 풍광이 수려한 박산사에서
 慕先百感不勝情(모선백감불승정) : 선조를 사모하는 마음 표현할 길 없네.

증강진문중(贈康津門中)

北族南親一席同(북족남친일석동) : 남북의 일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니,
 無窮情話在其中(무궁정화재기중) : 끝없는 정화가 진진하더라.
 祖先懿德能傳世(조선의덕능전세) : 선조의 유덕을 오래 전해 올 수 있어서
 俗末猶存太古風(속말유존태고풍) : 말세에도 아직 옛스러움이 있더라.

유별구림제족(留別鳩林諸族)

壬亂之中始卜居(임란지중시복거) : 임진왜란 때에 처음 살아서
 鳩林古址永傳來(구림고지영전래) : 구림 옛터를 길이 전해 왔구나.
 蔓枝玉樹眞昌大(만지옥수진창대) : 번성한 자손은 참으로 창대하니,
 長久家聲運有餘(장구가성운유여) : 가운과 명성이 길이 남으리라.

(祝)

宗 誌 發 刊

높은 금리 혜택 받으며 믿고 맡길 수 있는

주식회사 남양상호신용금고

대표이사 최 광 민

(인창리 해주최씨 친목회장)

저축 및 융자상담은

주소 :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409-2

전화 : 구리 (7) 3842, 3843, 3844
 직통 (서울) 252-3410, 234-2594
 자택 0346-2-2741

시 멘 트 加 工 業 組 合

常務 崔 泰 植

京畿道 九里市 仁倉洞 314

電話 職九里 62-1251
 宅九里 2-3488

나일론 다후다. 나일론 투길지
 우산 나염지. 방수지(코팅처리 원단)

거 부 상 회

대표 崔 富 一

대구직활시 중구 대신동 115(서문상가 2지구 2층 300호)
 電話 253-1561 (야) 67-9859

大宗會 會 則

第一章 總 則

第1條(名稱) 本會는 海州崔氏大宗會(以下 本會라 稱함)라 稱한다.

第2條(事務所) 本會의 事務所는 서울特別市에 두며 必要에 따라 地方에 支會를 들 수 있다.

第3條(目的) 本會는 海州崔氏 先祖의 偉業을 기리고, 宗親間의 親睦을 敦篤히 하는 한편 後孫들의 無窮한 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4條(事業) 本會는 前條의 目的達成을 爲하여 다음의 事業을 實施한다.

1. 先祖를 奉享하고 偉業을 追慕하는 事業
2. 會員의 大同團結을 期하기 爲한 親睦事業
3. 會員의 慶吊事에 對한 相扶相助
4. 會員子女들에 對한 獎學事業
5. 宗中 文獻의 發掘刊行 및 宗誌의 發刊事業
6. 其他 本會의 目的에 符合되는 事業

第5條(運營의 原則) 本會는 어느 個人이나 特定の 政黨, 宗教 또는 社會團體를 爲해서는 活動을 하지 못한다.

第二章 會 員

第6條(會員) 本會는 海氏崔氏 宗親으로 構成되며 本會의 加入與否와 關係없이 海州崔氏는 自動的으로 會員이 된다.

第7條(權利) 會員은 누구나 本會會則이 定하는 바에 따라 本會 運營에 參與할 權利를 갖는다.

第8條(義務) 會員은 누구나 本會의 目的達成을 爲하여 最善의 協調를 하여야 한다.

第三章 總 會

第9條(構成) 總會는 本會의 全 會員으로 構成한다.

第10條(種類 및 召集) 總會는 定期總會와 臨時總會로 區分하며 會長이 이를 召集하고 議長이 된다. 定期總會는 每年春季에 召集하며, 臨時總會는 運營委員會에서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

第11條(成立과 權限) 總會는 參席會員數와 關係없이 成立됨을 原則으로 하며 豫算, 決算, 事業計劃 및 運營委員會의 運營狀況의 報告를 받는다.

第四章 運營委員會

第12條(構成) 運營委員會는 會長團 幹事長 및 大同譜上에 明示된 各派代表 二人과 會長團이 委囑하는 壹百人以內的 委員으로 構成되며 本會의 最高議決機關이다.

第13條(任期) 運營委員의 任期는 滿2年으로 하며 重任의 制限을 두지 아니한다.

第14條(召集) 運營委員會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이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第15條(成立과 議決) 運營委員會는 在籍 過半數以上 出席으로 成立되며 議案은 出席 委員 過半數以上 贊成으로 議決한다. 運營委員中 不得已한 事由로 出席이 不可能할 때에는 成員과 議決을 書面으로 委任할 수 있다.

第16條(議決事項) 運營委員會는 다음의 事項을 議決한다.

1. 會則의 改定
2. 會長團의 選出 및 選任된 執行部任員의 承認
3. 事業計劃 및 豫算·決算의 承認

4. 任員會에서 附議된 事項
5. 其他 本會運營에 必要한 事項

第五章 任 員

第17條(構成) 本會는 다음의 任員을 둔다.

1. 會長 1人
2. 副會長 10人以內
3. 幹事長 1人, 副幹事長 2人
4. 總務幹事 1人, 副幹事 1人
5. 財務幹事 1人, 副幹事 1人
6. 組織幹事 1人, 副幹事 1人
7. 事業幹事 1人, 副幹事 1人
8. 弘報幹事 1人, 副幹事 1人
9. 宗務幹事 1人, 副幹事 1人
10. 監事 2人

다만, 會長은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 若干人의 顧問과 諮問委員을 推戴할 수 있다. 또한 必要에 따라 有給事務長을 任用할 수가 있다.

第18條(選任) 會長團 및 監事は 運營委員會에서 選出한다. 幹事長 및 幹事와 副幹事は 會長團이 任命하고 運營委員會의 承認을 받는다.

第19條(任期) 任員의 任期는 滿 2年으로 하며 重任의 制限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補任된 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第20條(任務) 本會任員의 任務는 다음과 같다.

1.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며 會務를 統轄하고 各級會議의 議長이 된다.
2.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고 會長 有故時에는 首席副會長이 會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副會長의 序列은 會長團 會議에서 定한다.
3. 幹事長은 會長의 命을 받아 本會의 實務執行을 管掌한다.

4. 幹事는 幹事長을 補佐하고 各各 맡은 部署의 實務를 管掌한다.
5. 副幹事는 幹事를 補佐하고 實務의 責任을 진다.
6. 監事는 本會의 財政執行狀況 및 運營全般을 監査하고 定期總會에 이를 報告한다. 다만, 監事는 各級會議에 參席하여 意見은 開陣할 수 있으나 議決에는 參加하지 아니한다.
7. 顧問과 諮問委員은 會長의 諮問에 應하고 各級會議에 參席하여 本會 發展을 爲하여 助言을 한다.
다만, 議決에는 參加하지 아니한다.

第六章 任 員 會

第21條(構成) 任員會는 會長을 비롯한 全任員으로 構成한다.

第22條(召集) 任員會는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할 때 會長이 이를 召集하고 議長이 된다.

1.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2. 在籍任員過半數 以上の 要求가 있을 때

第23條(成立과 議決) 任員會는 在籍過半數 以上 出席으로 成立되고 出席任員 過半數 以上の 贊成으로 議決한다.

다만, 可否同數일 때에는 會長이 이를 決定한다.

第24條(議決事項) 任員會는 다음 事項을 議決한다.

1. 運營委員會에 上程할 議案
2. 運營委員會로부터 委任받은 事項
3. 事業計劃 및 豫算決算에 關한 事項
4. 本會業務執行에 關한 事項
5. 其他 本會 目的達成을 爲해 必要한 事項

第七章 財 政

第25條(財政) 本會의 財政은 다음의 收入으로 充當한다.

1. 會長團 및 運營委員義務負擔金
2. 會員의 特別贊助金
3. 其他 收入金

다만, 義務負擔金은 運營委員會에서 定한다.

第26條(會計年度) 本會의 會計年度는 每年 1月 1日부터 同年 12月 末日까지로 한다.

第27條(會計監査) 本會의 會計監査는 監事가 每會 期末에 監事를 하여 運營委員會에 이를 報告한다.

第28條(資金의 團體性) 本會의 모든 基金과 資產은 本會의 名義로 한다.

附 則

1. 本會創立當時의 會長團은 創立總會에서 選出한다.
2. 本會則은 通過된 날로부터 施行한다. (1982. 10. 23)
3. 本會則은 改正된 날로부터 施行한다. (1983. 10. 29)
4. 本會則은 改正된 날로부터 施行한다. (1985. 3. 30)

名 行 圖

司正公派 校理公派

○ 四十八世 榮	○ 三十七世 種	○ 二十六世 永	佐郎公派	○ 四十八世 庚	○ 三十七世 信	○ 二十六世 必慶致
○ 四十九世 基	○ 三十八世 容	○ 二十七世 東		○ 四十九世 揆	○ 三十八世 義	○ 二十七世 ○ 海鎮
○ 五十世 鎰	○ 三十九世 致	○ 二十八世 炯煥		○ 五十世 震	○ 三十九世 一	○ 二十八世 重 ○ 鴻 ○ 翰
○ 五十一世 源	○ 四十世 錫	○ 二十九世 在載		○ 五十一世 昨	○ 四十世 春	○ 二十九世 永 ○ 稷
○ 五十二世 柱	○ 四十一世 淳	○ 三十世 鉉		○ 五十二世 堯	○ 四十二世 夏	○ 三十世 丙 ○ 根
○ 五十三世 熙	○ 四十二世 根	○ 三十一世 承		○ 五十三世 兌	○ 四十二世 廷	○ 三十一世 炳 ○ 圭
	○ 四十三世 炳	○ 三十二世 植			○ 四十三世 商	○ 三十二世 ○ 鍾 ○ 基
	○ 四十四世 圭培	○ 三十三世 光			○ 四十四世 壬	○ 三十三世 錫 ○ 泰
	○ 四十五世 鍾	○ 三十四世 壽			○ 四十五世 元	○ 三十四世 智 ○
	○ 四十六世 漢	○ 三十五世 鎮			○ 四十六世 亨	○ 三十五世 仁
	○ 四十七世 相	○ 三十六世 求			○ 四十七世 起	○ 三十六世 勇 ○

典翰公派

- 二十六世 粹 ○
- 二十七世 憲 ○
- 二十八世 王
- 二十九世 錫 ○
- 三十世 溥 ○
- 三十一世 秉 ○
- 三十二世 燮 ○
- 三十三世 在 ○
- 三十四世 鎬 ○
- 三十五世 泰 ○
- 三十六世 秀 ○
- 三十七世 榮 ○
- 三十八世 重 ○
- 三十九世 鍾 ○
- 四十世 泳 ○
- 四十一世 東 ○
- 四十二世 炫 ○
- 四十三世 圭 ○
- 四十四世 鈺 ○
- 四十五世 演 ○
- 四十六世 模 ○
- 四十七世 熙 ○
- 四十八世 均 ○
- 四十九世 鉉 ○
- 五十世 澈 ○
- 五十一世 柱 ○
- 五十二世 夏 ○
- 五十三世 竣 ○

承旨公派

- 二十六世 秀 ○
- 二十七世 煥 ○
- 二十八世 在 ○
- 二十九世 鎮 ○
- 三十世 泳 ○
- 三十一世 柱 ○
- 三十二世 然 ○
- 三十三世 基 ○
- 三十四世 鍾 ○
- 三十五世 泰 ○
- 三十六世 秉 ○
- 三十七世 熙 ○
- 三十八世 重 ○
- 三十九世 鎬 ○
- 四十世 源 ○
- 四十一世 植 ○

副司果公派(洪安松)

- 三十世 溥 ○
- 三十一世 秉 ○
- 三十二世 燮 ○
- 三十三世 在 ○
- 三十四世 鎬 ○
- 三十五世 濟 ○
- 三十六世 秀 ○
- 三十七世 榮 ○
- 三十八世 重 ○
- 三十九世 鍾 ○
- 四十世 東 ○
- 四十一世 泳 ○
- 四十二世 炫 ○
- 四十三世 圭 ○

進士公派

○王 二十八世
○鎬 二十九世
○永 三十世
○溥 三十一世
○植 三十二世
○炯 三十三世
○煥 三十四世
○圭 三十五世
○泰 三十六世
○烈 三十七世
○致 三十八世
○欽 三十九世

清源 四十世
○○ 四十一世
根柱 四十二世
烽炳 四十三世
○○ 四十四世
在培 四十五世
鋪鎮 四十六世
○○ 四十七世
泳澈 四十八世
柄相 四十九世
○○ 五十世
熙杰 五十一世
珍均 五十二世
○○ 五十三世
鍊鈺 五十四世
溶承 五十五世

海陵君派

準 三十一世
○○ 三十二世
楚 三十三世
○○ 三十四世
銘 三十五世
○○ 三十六世
惇 三十七世
○○ 三十八世
竣 三十九世
○○ 四十世
湘 四十一世
○○ 四十二世

熒然 三十三世
○○ 三十四世
鈔 三十五世
○○ 三十六世
榮 三十七世
○○ 三十八世
報 三十九世
○○ 四十世
浩 四十一世
○○ 四十二世

焯 四十三世
○○ 四十四世
城 四十五世
○○ 四十六世
楊 四十七世
○○ 四十八世
塤 四十九世
○○ 五十世
湧 五十一世
○○ 五十二世
煥 五十三世
○○ 五十四世

銳 四十五世
○○ 四十六世
楊 四十七世
○○ 四十八世
塤 四十九世
○○ 五十世
湧 五十一世
○○ 五十二世
煥 五十三世
○○ 五十四世

墻 五十四世

鎔 五十五世
○○ 五十六世
源 五十七世
○○ 五十八世
堯 五十九世
○○ 六十世
銓 五十一世
○○ 五十二世
業 五十三世
○○ 五十四世

樛 五十七世
○○ 五十八世
堯 五十九世
○○ 六十世
銓 五十一世
○○ 五十二世
業 五十三世
○○ 五十四世

墻 五十四世

大宗會任員名單

◇顧問 및 諮問委員 (年齡順)



顧問 崔秉權 (13.12.6生)

政巖書藝學院長 (前國會議員)

서울 鍾路區 三清洞 1-3

☎ 자) 732-3634 직) 724-0441



顧問 崔潤模 (17.2.11生)

辯護士 (前大法院判事)

서울 江東區 可樂洞 삼환가락아파트 6동 1005호

☎ 자) 473-2124 직) 272-0372

顧問 崔龍珠 (17.8.22生)

三陽物產(株)會長

서울 西大門區 延禧洞 38

☎ 자) 393-9383 직) 323-0021~5



顧問 崔相業 (22.4.1生)

理學博士 西江大學教授 (前國會議員)

서울 江南區 盤浦洞 宇城아파트 105동 603호

☎ 자) 590-0019 직) 717-6041~3



顧問 崔明憲 (29.6.16生)

國會議長秘書室長

國會議員 (前韓國輸出產業工團理事長)

서울 江南區 方背本洞 三湖아파트 10동 302호

☎ 자) 532-8117 599-7117 직) 784-1530



諮問委員 崔 泳 鶴 (11.9.15生)

全南 和順郡 和順邑 碧羅里

☎ 자) 和順 9925



諮問委員 崔 致 萬 (12.10.12生)

前面長

全南 靈岩郡 郡西面 東鳩林里 396

☎ 자) 郡西 75



諮問委員 崔 尙 鶴 (13.1.23生)

前郷校掌議

慶北 漆谷郡 架山面 鶴山洞 552

☎ 자) 4-1134



諮問委員 崔 永 桓 (14.11.10生)

前公務員

서울 城北區 鍾岩洞 1-10 형제주택 206호

☎ 자), 913-0792



諮問委員 崔 晟 寓 (15.7.30生)

司法書士 (前大法院司法研修院局長)

서울 銅雀區 上道 2洞 356-132

☎ 자) 829-5766 직) 753-5509



諮問委員 崔 煥 周 (33.12.12生)

韓國엠펜어스(株)代表理事

서울 江南區 新沙洞 630-1

☎ 자) 542-0960 직) 541-2217~8

會 長 團 (年齡順)



會 長 崔 在 衡 (19.8.12生)

辯護士 (前濟州地方法院長)

서울 江南區 狎鷗亭洞 230-5 現代아파트 86동 1005호

☎ 자) 545-5875 직) 266-2562



首席副會長 崔 吉 竣 (24.11.26生)

協進產業(株)代表理事 (前國稅廳 間稅局長)

서울 江南區 狎鷗亭洞 한양아파트 26동 202호

☎ 자) 542-0433 직) 583-0249 584-0928



副會長 崔 翼 列 (14.5.17生)

醫學博士 大東外科醫院長

忠南 禮山郡 禮山邑 禮山里 137

☎ 자) 2-2223 직) 2-2233



副會長 崔 天 溥 (16.12.9生)

三榮製藥合資會社 代表理事

忠南 天安市 社稷洞 146

☎ 자) 2-2325 직) 62-4300~2



副會長 崔 洙 東 (19.5.24生)

養苗酪農業 全羅南道宗會長 (前韓國養苗協會 全羅南道 支部長)

全南 光州市 北區 雲岩洞住公 雲岩 아파트 319동 305호

☎ 자) 522-7630



副會長 崔用根 (21.5.30生)
 大現織物社長 嶺南花樹會長
 大邱 直轄市 北區 達城洞 284-34
 ☎ 자) 22-0261 직) 32-4935



副會長 崔萬基 (23.5.25生)
 友美商工(株)代表理事
 서울 中區 獎忠洞 1街 33-13
 ☎ 자) 269-9445 직) 434-3415 434-7887



副會長 崔元植 (23.11.27生)
 仁川港運(株) 代表理事會長
 서울 永登浦區 汝矣島洞 수정아파트 B동 309호
 ☎ 자) 783-1138 직) 884-3691 (仁川)



副會長 崔龍九 (34.10.2生)
 株式會社 大一 代表理事
 서울 銅雀區 上道 3洞 335-95
 ☎ 자) 814-2628 직) 782-1946 783-7342



副會長 崔奉燮 (35.2.9生)
 醫學博士 崔齒科醫院長
 서울 江南區 狎鷗亭洞 193-3 現代아파트 85동 503호
 ☎ 자) 543-5510 직) 712-7019 718-1001



副會長 崔秉倫 (38.1.9生)
 辯護士 (前서울地法判事)
 서울 恩平區 新寺洞 29-26
 ☎ 자) 302-7155 직) 753-2405

執 行 部 任 員



幹事長 崔 承 君 (30.8.20生)

東部青果(株) 專務理事 (前國會事務處 書記官)

서울 東大門區 中和洞 304-32

☎ 자) 435-3068 직) 962-2538 966-5227



副幹事長 崔 愚 (30.12.1生)

誠伸化學工業社長 (前新聞社 編輯部長 大學講師)

서울 鍾路區 舊基洞 82-7

☎ 자) 353-8123 직) 385-7943



副幹事長 崔 光 植 (39.12.7生)

서울 가든호텔 專務理事

서울 江南區 大峙 1洞 우성아파트 12동 1401호

☎ 자) 567-5439 직) 712-4997 713-9441



總務幹事 崔 順 炫 (40.9.9生)

行政高等考試合格 韓國學院總聯合會事務總長
(前文教部 事務官)

서울 西大門區 北加佐洞 300-18

☎ 자) 372-3701 직) 798-8881~4



總務副幹事 崔 賞 均 (35.6.18生)

事業

서울 東大門區 忘憂洞 479-48

☎ 자) 434-6603



財務幹事 崔大善 (41.9.28生)

麻浦漢醫院長

서울 麻浦區 桃花洞 183-6

☎ 자) 324-7171 직) 712-1191 717-1191



組織幹事 崔光宇 (34.10.21生)

事業

서울 東大門區 面牧 3洞 138-3

☎ 자) 434-8048



組織副幹事 崔光勳 (36.8.10生)

事業

서울 東大門區 面牧 2洞 133-24

☎ 자) 434-7152



事業幹事 崔焯正 (40.12.3生)

大進運輸(株) 代表理事

서울 江南區 清潭洞 113-3

☎ 자) 542-3806 직) 882-5430 882-8363 (仁川)



事業副幹事 崔鮮植 (39.3.13生)

맘모스칼라現象所 代表

서울 東大門區 清涼里洞 604

☎ 자) 964-4405 직) 965-7062~3



弘報幹事 崔漢秀 (47.6.25生)

政治學博士 建國大學教授

서울 東大門區 祭基洞 67-21

☎ 자) 94-2765 95-0393 직) 446-9121 (交) 2130
444-2124~29



宗務幹事 崔 在 夏 (37.6.3生)

서울市 教育委員會 施設企劃係長

서울 麻浦區 大興洞 18-63

☎ 자) 717-0320 직) 724-6146



宗務副幹事 崔 泰 植 (34.5.28生)

시멘트加工業組合 常務

京畿道 南楊州郡 九里邑 仁倉 7里 314

☎ 자) 2-3488 직) 62-1251



事務局長 崔 炳 弼 (19.2.16生)

前仁川法院 勤務

서울 龍山區 元曉路 4街 산호아파트 E동 212호

☎ 자) 717-3658 직) 432-2014

監 事



崔 在 焜 (24.7.7生)

前中學校 教師

서울 江東區 新川洞 20-4 진주아파트 5동 701호

☎ 자) 422-0956



崔 玉 燮 (29.11.25生)

視聽覺教育社 常務

서울 麻浦區 鹽里洞 30-47

☎ 자) 717-9442 직) 363-2052 363-2098

宗誌編纂委員 (運營委員 兼任 年齡順)

(執行部幹事長團은 當然職宗誌編纂委員)



委員長 崔 台 鎬 (15. 4. 15生)

兒童文學家 教育改革審議委員 (前春川教育大學長)

서울 江東區 잠실 5단지 아파트 525동 1306호

☎ 자) 423-7496



副委員長 崔 俊 基 (25. 4. 4生)

文學博士 漢陽女子專門大學長

서울 城東區 紫陽洞 220-4

☎ 자) 444-9006 직) 293-4102 292-8181



副委員長 崔 鶴 璇 (26. 5. 27生)

行政高等考試合格 (前東國大學教授, 遞信部理事官)

서울 永登浦區 汝矣島洞 한양아파트 D동 1104호

☎ 자) 783-2277



委 員 崔 永 哲 (23. 12. 31生)

仁川東岩國民學校長

仁川 北區 富平 4洞 373-18 5/4

☎ 자) 93-2698 직) 422-7560



委 員 崔 承 萬 (26. 9. 9生)

仁川北部教育區廳 學務課長

京畿 富川市 松內洞 595 三益아파트 3동 910호

☎ 자) 64-2509 직) 524-9632



委員 崔理燮 (29.1.1生)

進明女子高等學校 庶務課長

서울 麻浦區 桃花洞 536 正友아파트 602호

☎ 자) 718-0517 직) 723-0322



委員 崔康賢 (36.9.28生)

文學博士 弘益大學校 師大教授

서울 麻浦區 西橋洞 331-13

☎ 자) 393-3302 직) 322-0151 324-2781

委員 崔植 (41.1.24生)

大田調達廳 業務課長

서동 銅雀區 鷺梁津 1洞 214-143 무궁화연립나동 201호

☎ 자) 812-1012 직) 大田 522-0274



委員 崔起鎬 (42.4.25生)

文學博士 祥明女子大學 國語科教授

서울 江南區 瑞草洞 신동아아파트 3동 113호

☎ 자) 566-1655 직) 723-0291~5



委員 崔雲植 (42.10.27生)

文學博士 韓國教員大學 國文學教授

서울 城北區 下月谷洞 90-1854

☎ 자) 912-4909 직) 청원 0431-60-3114

文憲公崔冲紀念事業會

理事名單 (無順)

會 長	李 崇 寧	百濟文化開發研究院長
副 會 長	朴 性 鳳	慶熙大學教授，傳統文化研究所長
副 會 長	崔 俊 基	漢陽女子專門大學長
理 事	曹 佐 鎬	成均館大學 總長
〃	柳 炯 鎮	前 大韓教聯會長
〃	崔 昌 圭	國會議員
〃	韓 基 彥	서울大學 教授
〃	李 乙 浩	國立光州博物館長
〃	姜 周 鎮	放送審議委員長
〃	奇 世 勳	辯 護 士
〃	崔 在 衡	辯 護 士
〃	崔 台 鎬	前 春川教育大學長
〃	崔 相 業	西江大學教授 (前 國會議員)
〃	崔 明 憲	國會議員
〃	崔 龍 珠	三陽物產(株)會長
〃	崔 昌 杰	高麗亞鉛(株)代表理事
常任理事	崔 愚	誠伸化學工業社 社長。前大學講師

運 營 委 員 (가, 나, 다順)

姓 名	生年月日	現 住 所	職 場 及 職 位	電 話
璟 植	22. 4. 7	京畿道驪州郡驪州邑倉里63	崔漢藥房 院長	(自) 2235
慶 善	43. 11. 15	서울東大門區里門洞 264-213	(株)永昌陶器 代表理事	(職) 265-1436 267-6811 (自) 962-3229
桂 根	09. 6. 26	서울城東區下往十里洞 513-1		(自) 292-7875
寬 燮	23. 4. 24	忠南洪城郡長谷面月溪里 541		
光 勲	23. 12. 3	서울東大門區新內洞468	園藝業	(自) 433-1898
光 敏	24. 3. 15	京畿道南楊州郡九里邑仁倉 2里495-7	(株)南楊相互信用 金庫代表理事 (前 第一銀行支店長)	(自) 九里2-2741 (職) 7-3842~4
光 高	25. 3. 29	서울東大門區中和洞20	事業	(自) 433-5391
洸 善	29. 2. 1	京畿道城南市丹垈2洞 491-16-5	聖山教會長老	(職) 2-3512 (自) 3-1420
光 茂	37. 6. 17	京畿道南楊州郡九里邑水澤 里448	商業	(自) 九里2-2318
圭 鉉	39. 3. 20	京畿道水原市華西洞82-7	水原電信電話局 南水原分局長	(職) 32-0007 (自) 43-4242
基 春	19. 1. 2	全北沃溝郡瑞穗面瑞穗里 304	서울石材工業社 會長	(職) 黃登 170 (自) 瑞穗 78
基 南	29. 12. 18	全南珍島郡古郡面柳橋里 885	釀造業 反共聯 盟珍島郡支部長	(職) 古郡 77 珍島2320 (自) 古郡 279
基 哲	31. 5. 16	서울東大門區里門3洞 237-32	和盛建營(株)理事 三正企業公社社長	(職) 212-1221 (自) 963-7167
基 喆	34. 3. 21	서울永登浦區新吉洞1578	極東機械工業 社長	(職) 676-2223 676-5448 (自) 833-2948
基 奉	40. 11. 22	서울江西區禾谷本洞 102-349	商業	(職) 966-2321 (自) 693-2965
南 奎	27. 11. 14	大邱直轄市中區市場北路 110	대일고平商社 社長	(職) 22-8735 22-9735 (自) 23-4191
大 允	17. 1. 4	서울東大門區中和洞88	事業	(自) 432-0871
大 植	24. 4. 8	서울城東區中谷1洞254-35	事業 (前農協郡 支部長)	(自) 444-0704
大 善	41. 6. 27	서울永登浦區汝矣島洞43-4 미주아파트 B동1107호	大林商社代表	(職) 755-7854~5 (自) 783-7525
德 潛	34. 11. 28	全南光州市北區柳洞60-3	醫學博士崔德潛 小兒科院長	(職) 56-9720 (自) 56-6480

姓 名	生年月日	現 住 所	職 場 及 職 位	電 話
道 植	33. 3. 1	서울冠岳區新林8洞1657-16	治安本部外事課 3係主任	(職) 720-2226 (自) 855-7171
都 鉉		忠南禮山郡吾可面新長里10		(自)禮山2-6823
東 鎬	28. 5. 16	全南光州市東區須奇洞21-7	韓一商社代表	(職) 33-6939 (自) 33-3205
萬 福	19. 7. 25	忠南牙山郡溫陽邑溫泉里 1區	南泉開發代表	(自)溫陽2-2378
萬 述	19. 11. 15	全南光州市北區北洞203	迎賓閣호텔代表	(職) 56-2234~8 (自) 33-1089
萬 秀	47. 10. 18	江原春川市樂園洞60-1	華川樂園農場 代表	(職) 52-8089 (自) 2-3363
明 鎬	33. 4. 6	忠南牙山郡溫陽邑防禦里 2區338	農業(前公務員)	(自)溫陽2-7875
明 善	38. 3. 5	서울鍾路區玉仁洞46-2	世一重機械代表	(職) 245-6445 (自) 720-6708
明 圭	46. 9. 25	서울江南區驛三洞755 삼호쇼핑센터107호	三英堂金銀房 代表	(職) 552-6633 (自) 566-0294
文 憲	40. 4. 24	서울西大門區延禧洞 444-108	現代建業(株) 代表理事	(職)332-2301~5 (自) 322-8429
珉 煥	42. 4. 1	大邱直轄市壽城區壽城洞 2街39-164	윤형약국代表	(自) 755-2619
秉 熙	16. 11. 13	京畿安養市安養5洞622-366	酪農業	(自) 2-1141
炳 集	27. 6. 22	서울銅雀區新大方洞 366-193	美宙相互信用金 庫監事(前서울 信託銀行支店長)	(職) 783-6530 (自) 832-8521
鳳 燮	38. 9. 15	서울江南區方背洞460-27	東亞日報 方背支局長	(職) 591-5112 599-4935 (自) 582-8773
富 植	36. 2. 8	서울冠岳區新林3洞635-9	웨어차일드(株) 人事部長	(職) 864-2411 (自) 856-3507
尙 哲	34. 12. 25	서울銅雀區上道洞335-55	亞洲通運(株) 代表理事	(職)844-5111~4 (自) 813-8326
先 昌	23. 10. 15	京畿富川市深谷洞524-18	事業	(自)仁川62-6329
聖 溥	21. 10. 18	仁川直轄市南區論峴洞132	園藝業	(自) 424-6590
世 桓	28. 6. 25	서울銅雀區舍堂1洞429-24	서울鉢山國民學 校長	(職) 662-1152 (自) 583-2359
壽 敬	25. 10. 26	서울西大門區南加佐洞 124-552	事業(前鐵道廳 係長)	(自) 373-3129
秀 逸	36. 10. 25	서울江南區新沙洞607-10 현대맨손22동302호	韓國都市開發(株) 代表理事	(職) 542-5196 542-3041 (自) 543-3044
承 哲	29. 1. 17	京畿高陽郡松浦面大化里 1008	松浦郵遞局長	(職) 松浦 3606 (自) 松浦 3

姓名	生年月日	現住所	職場 및 職位	電話
承 綬	30. 4. 12	江原春川市孝子1洞547-18	城東國民學校 校監	(職)洪川 5195 (自)春川 2-8605
承 泰	33. 12. 7	서울麻浦區大興洞12-131	商業	(自) 716-2849
始 俊	34. 11. 2	서울東大門區面牧1洞 374-42	동국건설 기획실장	(自) 434-3491
良 鎭	27. 11. 12	서울銅雀區大方洞11-81	동서정밀代表	(職) 613-0094 (自) 814-7354
淵 鍾	38. 10. 10	서울 " " 412-7	治安本部通信課 主任	(職) 720-2640 (自) 834-3459
永 稷	19. 5. 7	서울 " 鷺梁津2洞 225-74	(前交通部公務員)	(自) 814-0143
榮 祚	20. 3. 10	서울龍山區元曉路1街51-2	(前交通部公務員)	(自) 713-2763
永 和	38. 7. 14	忠南禮山郡大述面花川里 182	大成煉炭工場 代表	(自) 大述 20
英 憲	40. 7. 17	서울城東區紫陽洞607-9	第一카툰代表	(自) 452-4023
完 在	29. 4. 4	서울東大門區祭基1洞 122-37	事業	(自) 963-2622
龍 騎	23. 11. 11	釜山直轄市東區凡2洞 330-102	黃海商會代表	(職) 67-6183 (自) 67-0285
元 基	12. 10. 9	서울西大門區峴底2洞107-8	(前同和藥品工 業(株)副會長)	(自) 363-7443 363-6177
元 植	29. 2. 11	京畿楊州郡南面閑山里577	(前南面副面長)	(自) 華山 343
益 善	29. 4. 15	서울江南區清潭洞117-36	아이젠버그(株) 理事	(職) 266-6403 (自) 544-1786
益 鉉	35. 7. 12	서울麻浦區鹽里洞24-17	阿峴工業社代表	(職) 362-8349 (自) 716-6452
仁 植	37. 3. 26	서울銅雀區大方洞393-25	新又建設産業(株) 代表理事	(職) 783-5271~5 (自) 814-2598
一 燮	36. 12. 19	서울西大門區弘濟3洞 278-35	三原設備工業社 代表	(職) 754-7585 754-3277 (自) 722-7116
在 厚	03. 10. 27	慶北醴泉郡知保面首月2洞 496	地理兼相宅明士	(自) 知保 358
在 說	17. 9. 15	忠南洪城郡結城面星南里 954	(前結城面長)	
在 于	22. 1. 6	全南靈岩郡郡西面東鳩林里	(前公務員)	(自) 郡西 149
在 輓	27. 12. 15	忠南洪城郡洪城邑五官里 196	商業	(自) 2-5549
在 完	30. 2. 18	서울冠岳區奉天洞927-19	德運開發(株) 代表理事	(職) 234-1050 (自) 877-8980
載 赫	34. 6. 18	京畿安城郡安城邑鳳南洞 335-2	司法書士 (前서 울高等法院勤務)	(職) 安城 2400 (自) 2450

姓名	生年月日	現住所	職場 및 職位	電話
在化	34.11.1	서울江南區驛三2洞 개나리아파트3동104호	大湖實業代表	(自) 566-0849
在新	35.2.8	全南康津郡郡東面龍沼里700	農業	(自) 康津 5248
載根	39.9.22	仁川直轄市北區富平洞153-4	大都百貨店社長 眞善美禮式場社長	(職) 93-5831~2
載豐	45.9.1	忠南公州郡公州邑新官洞1區177	裕進建設(株) 專務理事	(職) 2-3371~3 (自) 2-4342
貞夏	36.7.16	忠南瑞山郡泰安邑東門里3區286	商業	(職) 泰安 2157 (自) 5-2077
鍾元	17.8.28	// 唐津郡松山面柳谷里372	(前公務員)	
鍾常	32.8.24	서울麻浦區大興洞20-24	事業	(自) 716-1242
宗燮	39.2.13	서울江南區大峙洞청실아파트9동703호	安國火災海上保險(株)理事	(職) 752-0591 777-9541 (自) 566-4944
鍾健	41.9.9	京畿始興郡果川面주공아파트1012동303호	保健社會部事務官	(職) 503-7515~6 (自) 503-2209
種仁	43.1.3	서울城北區石串洞182-27	建築業	(職) 963-7946 (自) 967-0533
俊錫	23.7.9	大邱直轄市東區新川4洞365-16	(前迎日郡 副郡守)	(自) 755-1115
俊善	27.3.12	서울江西區鹽倉洞268 관음아파트F504호	(株)東大門商社 代表理事	(職) 94-6633 (自) 694-8067
鎮弼	33.1.21	서울江南區신반포한신3차아파트34동1003호	水原警察署長	(職) 7-3001 (自) 599-4790
昌壽	15.5.15	서울鍾路區慶雲洞96-21	醫學博士 崔昌壽 眼科醫院長	(職) 725-5053 (自) 725-5052
昌浩	33.10.14	仁川直轄市北區富平1洞70-99	事業	(自) 92-7578 524-5588
昌赫	39.11.27	서울東大門區回基洞60-45	德一鑛業理事	(職) 舍北 4-3714 (自) 967-8556
昌燮	42.2.19	서울江南區清潭洞65진흥아파트6동501호	利川金屬商社 代表	(職) 612-9666 685-4445~6 (自) 542-1935
昌燮	42.3.13	서울龍山區元曉路4街118-16 산호아파트E동509호	新聞學博士 西江大教授	(職) 715-0141~9 (自) 712-8297
昌宇	47.10.10	忠南禮山郡禮山邑倉所里59-5	新禮院木材商 代表	(職) 2-4124 (自) 2-6035
喆熙	23.6.13	서울西大門區北阿峴洞1-554	合名會社韓一稅務法人社長 (前國稅廳直稅局長)	(職) 782-7323~4 783-7402 (自) 362-5001
泰鎮	26.1.31	忠南保寧郡大川邑大川里冠	事業	(自) 大川 5313

姓名	生年月日	現住所	職場 및 職位	電話
泰辰	28. 8. 28	村2區528-9 京畿安城郡孔道面蠅頭里62	安城農業專門大學教授 農業開發研究所長	(職)安城2701~3 (自) 孔道 8
平田	39. 2. 27	서울鍾路區蓮建洞284	三星企業代表	(職) 762-9716
赫壽	42. 3. 17	서울城東區中谷2洞124-55	正光給合建設(株)副社長	(職) 546-4440 (自) 447-4123
賢燮	35. 9. 20	忠南禮山郡插橋邑城里84		(自) 4-2549
炯植	34. 12. 23	서울江西區禾谷洞1043-16	三美特殊鋼(株)常務理事	(職) 583-6911 584-4662 (自) 602-4058
皓盛	40. 7. 25	서울銅雀區上道洞356-132	(株)峯榮產業開發常務理事	(職)312-5555~6 (自) 829-5766
和燮	34. 7. 30	京畿安城郡三竹面內長里173	農業	
興善	33. 1. 15	서울麻浦區城山洞137-3	일신블트商社代表	(職) 266-8541 272-8436 (自) 373-4602
熙燮	27. 11. 20	全北益山郡朗山面虎岩里336	農業	(自)이리 6-2388

地域別 宗親家口分布 狀況

(1985. 11. 30 現在)
(大宗會登錄分)

서울特別市	家口數	釜山直轄市	家口數	大邱直轄市	家口數	仁川直轄市	家口數
江南區	83	南區	11	南區	30	南區	82
江東區	36	東區	4	東區	32	東區	15
江西區	52	東萊區	11	北區	41	北區	29
冠岳區	39	釜山鎮區	4	西區	41	中區	4
九老區	44	北區	3	壽城區	31		
道峰區	63	沙下區	3	中區	26		
東大門區	104	西區	5				
銅雀區	47	影島區	1				
麻浦區	62	中區	5				
西大門區	58	海雲臺區	2				
城東區	49						
城北區	34						
永登浦區	43						
龍山區	25						
恩平區	40						
鍾路區	29						
中區	22						
計	830	計	49	計	201	計	130

京畿道	家口數	江原道	家口數	忠清北道	家口數	忠清南道	家口數	全羅北道	家口數
光明市	15	東海市	1	堤川市	3	大田市	23	裡里市	6
東豆川市	3	束草市	2	忠州市	3	天安市	7	井州市	1
富川市	25	原州市	4	槐山郡	4	公州郡	10	高敞郡	2
城南市	14	春川市	21	丹陽郡	1	錦山郡	2	金堤郡	1
松炭市	5	太白市	6	陰城郡	5	論山郡	19	沃溝郡	2
水原市	19	高城郡	1	堤原郡	1	唐津郡	39	完州郡	1
安養市	27	三陟郡	4	中原郡	2	大德郡	1	益山郡	99
議政府市	5	楊口郡	2	鎭川郡	4	保寧郡	48		
江華郡	22	原城郡	1	清原郡	3	扶餘郡	29		
高陽郡	16	旌善郡	4			瑞山郡	14		
金浦郡	45	鐵原郡	4			舒川郡	8		
廣州郡	3	春城郡	2			牙山郡	61		
南楊州郡	14	平昌郡	2			禮山郡	228		
始興郡	16	洪川郡	93			天原郡	4		
安城郡	89	橫城郡	1			青陽郡	8		
楊州郡	19					洪城郡	84		
楊平郡	1								
驪州郡	2								
漣川郡	2								
甕津郡	1								
龍仁郡	20								
利川郡	2								
坡州郡	13								
平澤郡	15								
抱川郡	11								
華城郡	11								
計	415	計	148	計	26	計	585	計	112

全羅南道	家口數	慶尙北道	家口數	慶尙南道	家口數	濟州道	家口數	外國	家口數
光州市	218	慶州市	8	馬山市	6	西歸浦市	1	美國	2
錦城市	1	龜尾市	2	三千浦市	9	濟州市	2		
木浦市	1	安東市	2	晉州市	2				
順天市	1	榮州市	2	鎭海市	2				
麗水市	1	浦項市	6	昌原市	3				
康津郡	28	慶山郡	22	固城郡	9				
高興郡	1	軍威郡	8	密陽郡	1				
谷城郡	20	金陵郡	1	泗川郡	4				
光山郡	27	達城郡	1	蔚州郡	1				
羅州郡	22	聞慶郡	73	晉陽郡	11				
潭陽郡	45	奉化郡	14	昌寧郡	1				
務安郡	55	尙州郡	3	河東郡	1				
寶城郡	5	善山郡	2	咸陽郡	1				
昇州郡	45	安東郡	2						
新安郡	2	盈德郡	11						
靈光郡	3	英陽郡	2						
靈岩郡	77	迎日郡	15						
長城郡	8	永川郡	32						
長興郡	1	醴泉郡	44						
珍島郡	43	鬱陵郡	53						
咸平郡	13	蔚珍郡	66						
海南郡	1	月城郡	9						
和順郡	155	義城郡	61						
		清道郡	5						
		青松郡	4						
		靑漆谷郡	16						
計	773	計	464	計	51	計	3	計	2

合計 3,789

宗親住所錄

〈서울特別市〉

(1985.11.30 現在)
(大宗會 登錄順)

姓名	生年	系派	現住所	職場 및 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東益	1935		江南區方背洞494 三益아파트 1동 1102호	韓國 產業 銀行 外 資 部 長		宅 582-8778 752-4119	135
昌喜	1936		" 瑞草洞山90-1 우성아파트2동 1201호	한국은수(주)理事	대 한 통 운 (주) 해 운 부 장	宅 562-4956 725-0859	135
在鉉	1922	司正公	" 淸潭洞 20-14 4/1			宅 544-2745	135
在鳳			" 대치2동 은마아파트 1동 1408호			宅 566-6899	135
成一	1916		" 개포동주공아파트 97동 304호	남 상		宅 568-5048	135
錫根		校理公	" 도곡동山1-14개 나리아파트41동602호	신 방 이 사		宅 555-2466 753-1680	135
炳烈		"	"三成洞山 45-230 21/2			宅 532-2136	135
永仁		"	" 永東AID차관아파트 21동 210호	(株)同道住宅 專 務 理 事		宅 532-1110 546-7279	135
英均		"	" 瑞草洞705-1 서일주택 A4호	치과의원(醫博)		宅 542-7964 254-6526	135
福均		"	" 양재동 45-2			宅 567-5061 322-7381	135
禧炫		縣監公	" 瑞草洞극동아파트 15동 103호	弘大財團理事長		宅 562-3546 722-5221	135
瑄	1936	佐郎公	" 淸潭洞 21-16	경 범 제 기 획 실 관 실 과 장			
愛壽			" 역삼동 620-10				
卿			" 瑞草무지개아파트 9동 1108호				
鍾燦	1950						

姓名	生年	系派	現住所	職場 및 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秉哲	1946		江南區三成洞차관아파트 25동 207호	京姬 피손 代表			135
성호			" 方背洞三益아파트 1동 1305호				135
濟龍	1937		"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51동 1103호			宅 544-3917 宅 254-8410	135
佑鉉	1926	承旨公	" 대치2동 미도맨션 111동 202號	삼우빌딩경영主		宅 567-6540 宅 567-4289	135
熙岡	1909	大寧君	" 瑞草1洞193-3 極東아파트13동 303호	極東아파트老人 會 長		宅 590-9382	135
貞植	1943	佐郎公	" 대치동633 청실아파트 7동 901호	會 運經 輸 理		宅 557-7431 宅 567-2504 566-6501~4	135
憲	1925		" 驛三洞 개나리아파트 41동 806호	圖書 出版		宅 568-0615 宅 362-1971	135
광석			" 논현동 127-1 아세아아메리카자유노 동기주	學音代表		宅 555-1755	135
承烈	1935	佐郎公	" 대치동452 미도아파트 108동 206호	東一交易(株)理事	調達廳外資 審査課長	宅 554-1911 宅 546-5501~10	135
珍植			" 方背洞988-1 신동아아파트 1동203호				135
斤澤			" 盤浦洞 한신아파트 212동 704호				135
大柱			" 논현동 179-11			宅 562-8326	135
春光			" 대치동 쌍용아파트 8동 1409호				135
永彥	1920		" 청담동 79-10	변호사(仁川) 會 員			135
澤	1955		" 瑞草洞 76-1 8/4	會 社		宅 566-0912	135
孟燮			" 잠원동 대림아파트 7동 706호	會 社		宅 591-4596 宅 313-4411	135
相澤		佐郎公	" 大峙2洞452 美都아파트 101동1405호	會 社			135

姓名	生年	系派	現住所	職場 및 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龍起	1949	左尹公	江南區 논현동 213-1 30/7				135
怡善	1936	承旨公	" 잠원동 한신 18次 337동 904호			宅 591-4914	135
泳洙	1943	校理公	" 方背洞 944-13			宅 582-0905	135
相舜			"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95동 707호	비너스네크레이스(株) 代表理事		宅 544-0128 직 452-0027~9	135
森在		典書公	" 驛三洞 827-24			宅 567-0871	135
福致		典書公	" 大峙洞 청실아파트 12동 406호			宅 566-7975	135
福圭		"	" 方背洞 828-30			宅 599-1707	135
壽斗			"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64동 908호				135
周植			" 瑞草洞 250 1/1				135
永壽			" 논현동 101-1-2				135
광선			" 논현동 11-12				135
炳淳			" 신사동 295-1				135
昌燮		監察公	" 瑞草1洞山 99-1 노알타운 2동 303호			宅 555-4367	135
昇鎬		司評公	" 도곡동 527 도곡아파트 41동 406호			宅 584-7876	135
炳鎬	1946		" 도곡동 주공고층아파트 310동708호				135
鍾喆	1948		" 개포동 주공아파트 108동 101호	고려용접봉次長		宅 568-8049 직 754-7881	135
光源	1950	佐郎公	" 대치동 316 은마아파트 31동 705호	會社員		宅 552-2004 직 792-1187	135
善基	1924		" 瑞草洞 신동아아파트 3동 605호	漢城 高校 敎師		宅 567-6073	135
在五		副司果公	" 개포2동 주공아파트 415동 407호				135
章鎬		"	" 청담동 16-18			宅 544-7456	135
光鎬		"	" 역삼동 山3 개나리아파트 22동502호			宅 562-8095	135

姓名	生年	系派	現住所	職場 및 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仁鎬		副司果公	江南區반포동 한신공영아파트 26동 505호			宅 593-3136	135
在裕		"	" 한신5차아파트 114동 708호			宅 556-5465	135
南燮		"	" 여삼동102-8 동신아파트 다동 902호			宅 562-4087	135
良燮		海陵君	" 開浦洞 개포아파트 1단지 55동 309호			宅 556-8208	135
圭煥		"	" " 32동 402호			宅 992-3191	135
政雄		"	" 신원동 197-8 원지세탁소			宅 567-5407	135
基載		"	" 方背本洞 823-3			宅 591-2946	135
基仲		"	" 三成洞 125-1			宅 556-7129	135
鍾碩		"	" 開浦洞 주공 4단지 21동 506호			宅 562-6870	135
東老		副司果公	" 開浦洞 주공아파트 125동 102호			宅 553-6734	135
庚老		"	" 반포동139-1 우성아파트101동1108호			宅 566-9988	135
俊榮	1938	大寧君	" 瑞草洞 79-1	醫博保健醫院長		宅 567-8866	135
寬燮		典翰公	" 方背 2洞 456-30			宅 590-6375	135
根春	1948	"	" 方背 2洞 970-22 40/5	進明物業主(株)		宅 584-0208	135
重宰	1954	佐郎公	" 잠원동 한신아파트 318동1212호	三星物業課長		宅 584-7359	135
世健	1937		江東區둔촌동 주공아파트 211동305호			宅 483-4669	134
載珍	1943	監察公	" 석촌동 235-12	大檢中央수사부장 장실 檢察主事		宅 422-1002	134
炫		縣監公	" 잠실 19번아파트 12동 402호	청와대경호실		宅 752-9382	134
						宅 413-1865	134
						宅 720-0245	

姓名	生年	系派	現住所	職場 및 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三 洙	1941	承旨公	江東區千戶洞 421-6(병원주소)	최이비인후과 院 長		직 478-0872	134
興 燮	1943	海陵君	" 방이동 371 성원아파트 10동 402호	韓國放送公社 社 會 教 育 局		宅 476-3057 직 783-4491~5	134
元 溥	1916	佐郎公	" 岩寺 3洞 江東아파트 38동 312호	(株)라이커 事 業 本 部 長		交 221 宅 478-9171 직 778-3211~5	134
光 日	1931		" 거여동 219-30			779-3211~5	
仁 燮	1939		" 성내동 380-7				134
聖 九	1936		" 성내동 405-45 37/2	성내동第一敎會 牧 師		宅 478-3794 직 482-3536	134
龍 植	1946		" 高德洞주공아파트 707동 507호	輔仁商高敎師		宅 487-7130 직 475-0575	134
大 洋			" 잠실 주공 2단지 264동 104호				134
源 佑			" 千戶洞 404-1				134
重 鎬			" " 121-77				134
亨 鎬			" 岩寺 1洞 464-22				134
永 植			" 千戶洞 195-13				134
元 植			" 잠실 5단지 住公아파트 510동 804호	中 學 敎 師		宅 413-2959	134
載 善	1937	海陵君 左尹公	" 高德洞 住公아파트 229동 101호	會 社 員		宅 476-5173 734-0837	134
洪 性		典書公	" 鸞室 1洞 住公아파트 53동 109호				134
溥 承			" 성내동 128-9 18/5				134
源 烈			" 잠실 5동 주공아파트 503동 1004호				134
滿 源			" 千戶 404-1				134

姓名	生年	系派	現住所	職場 및 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南錫			江東區홍남동 279-7				134
應潤		進士公	" "	事		宅 487-1243	134
精植		"	" 문춘동 문춘주공아파트 304동 604호	會		宅 764-3929	134
大羽	1955		" 거여동 187	社		宅 422-2683	134
元善	1928	縣監公	" 가락동 가락시영아파트 69동 106호	商			134
碩根	1912	副司果公	" 風納洞 147 유천파크 1동 302호				134
大煥	1939	"	" 잠실 장미아파트 7동 901호	商		宅 423-6841	134
皓善		"	" " "				134
基弘		"	" 신천동 20-5 시영아파트 150동 14호				134
基龍		海陵君	" 마천동 173-30			宅 486-4548	134
昌瑞	1926	"	" 長安 1洞 425-11			宅 212-7889	134
潤天	1919	佐郎公	" 성내동 436 32/1			宅 471-2205	134
炳承	1934	佐郎公	江西區염창동 282-10			宅 633-8761	150-02
淳玉	1927	承旨公	" 신정 2동 202-19			宅 604-3267	150-02
新道		校理公	" 禾谷洞 392-62	東洋印刷社代表		宅 604-4755	150-02
永祚		"	" 登村洞 601-13			宅 776-7266	150-02
炳模		"	" 鹽倉洞 102-10 12/1			宅 605-2488	150-02
秉億		佐郎公	" 신월동 16-17				150-02
희선	1943	監察公	" 新亭洞 527-3			宅 603-9294	150-02
在日		"	" 禾谷2洞 340-35 24/5			宅 603-1030	150-02
		"	" 禾谷洞 우신아파트 19동 407호			宅 602-4472	150-02

姓名	生年	系派	現住所	職場 및 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鍾益	1930	校理公	江西區신월 2동 422-7 청화주택 203호	協信 科學 代表		宅 605-5497 직 265-0395	150-02
明鎮	1936	海陵君	" 傍花洞 247-150 15/7				150-01
東哲	1932	"	" 249-183 15/6			宅 66-2434	150-01
雄哲	1934	"	" 249-123 11/1			宅 66-7765	150-01
仁植	1935	佐郎公	" 신월 2동 517 옥산주택 2동 202호			宅 604-2292	150-02
萬鎬	1919	典翰公	" 방화동 615-10				150-01
文植		佐郎公	" 禾谷 3洞 1037-1 16동	銀行員 중소기업 은행 대리		宅 604-3575 직 771-50	150-02
光燮		監察公	" 내발산동716-16 경남아파트라동107호				150-01
康植		承旨公	" 禾谷洞 395-13				150-02
龍權	1927	"	" 登村洞 425-45 8/2				150-02
炳炳	1936	校理公	" 新亭 4洞 924-35	明 信 製 菓		宅 602-6310	150-02
東雄	1942	"	" 禾谷洞 343-31			宅 695-6247	150-02
昌善		"	" 禾谷洞 504-2				150-02
濟國		"	" 新亭 2洞 208-11 33/7				150-02
應鉉		"	" " 203-9				150-02
三善		"	" 禾 3동 324-166 2/4				150-02
永泰		校理公	" 禾谷本洞 61-71			宅 696-1820	150-02
重顯		海陵君	" 木 3洞 703-3 목련연립가동 103호			宅 602-0020 직 633-1778	150-02
鍾貴	1947	"	" 禾谷5洞 주공第2아파트 20동 204호	三友金屬(株)課長		宅 693-2780	150-02
義逸	1953	"	" 오세동 39-4	구한상사(株) 경리 과장		宅 662-5769 직 752-3410	150-01
在庚		"	" 禾谷洞 29-230 우성연립 306호				150-02

姓名	生年	系派	現住所	職場 및 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一學	1937	生員公	江西區禾谷 4洞 478-11 청원연립라동	운수업		150-02	
東善		佐郎公	" 禾谷本洞 102-147			602-8280 612-6000	150-02
德皇		典書公	" 신월동 225-7			604-1018	150-02
寅寬		"	" 登村洞 482-1			604-2526	150-02
吉燦		典書公	" 禾谷本洞 24-537			605-5477	150-02
海植			" 신정동 85-135				150-02
光夏			" 禾谷洞 376-41				150-02
登煜		司評公	" 木 3洞 361-120			692-5009	150-02
敬休	1947		" 木 3洞 710-7 무궁화주택 2동 103호	고려화재 해상보험(株)課長		696-7126 722-4254 722-8149	150-02
鍾夏	1933	松理公	" 신월 4동 416-1 송월맨숀 302호			603-3494 266-4770 266-0712	150-02
南山	1946		" 傍花 2洞 747	會社員		662-1057	150-01
用善	1944	縣監公	" 禾谷 2洞 567-5	商		605-2991	150-02
重鈞	1931	"	" 空港洞 21-17 4/5	"		662-2539	150-01
浩俊	1921	"	" 禾谷 1洞 326-2	"			150-02
琿鎬		副司果公	" 신월 2동 475서울가든아파트 2동 206호				150-02
在鎬		"	" 신월 1동 97-28				150-02
炳昌		海陵君	" 木洞 541 19/9	會社員		694-9596	150-02
宗基		海陵君	" 禾谷 1洞 843-69	商		602-8339	150-02
一虎			" 傍花洞 574-14	商		663-1202	150-01

姓名	生年	系派	現住所	職場 및 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重權	1928		冠岳區奉天洞 1590-4 同友아파트 B-202		大韓石炭公社	宅 879-6138	151
香燮	1942	典翰公	" " 3洞 1-208	서울 농아 학교 사		宅 877-8555 직 724-8870	151
在滿	1942		" " 8洞 1542-5	한진 강동 지점 과 배 전		宅 882-7571 직 477-3116	151
萬起	1915		" 奉天洞 1673-26			宅 878-5087	151
鍾泰	1938	校理公	" 新林10洞 320 해바라기 2동 1호			宅 879-2752	151
明石	1942	海陵君	" 始興 1洞	기아산업(株)창고과			151
起燮		副司果公	" 奉天 6洞 26-13 14/2				151
載根	1958	監察公	" 新林 8洞 1661-6 4/8				151
載英	1941	"	" " 1661-6 4/8				151
在榮		典翰公	" 4洞 477-4 1/1	鐵道局 근무		宅 855-9486	151
貞植		佐郎公	" 奉天8洞1536-6 양지아파트나동301호	會社			151
萬燮	1924	副司果公	" 新林 9洞 251-99 7/5			宅 885-0356	151
崙吉	1949		" 奉天 4洞 915-2	漢南保隣教會牧師		宅 878-9419	151
自雲			" 新林11洞 1686 산호연립 1102호				151
石立	1944		" 奉天洞 728-100			宅 879-5567	151
在甲	1915	佐郎公	" " 932-6			宅 877-0406	151
英燮			" 奉天 8洞 1554-37		前忠南大學長		151
承福			" 新林 5洞 1437-19		서울農大교수		151
光洙	1924		" 奉天 1洞 647-3				151
承南		生員公	" " 7洞 1643-6 39/4			宅 878-3717	151

姓名	生年	系派	現住	所	職場 및 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世光	1941	生員公	冠岳區奉天洞 1639-28		개 인 택 시		宅 878-2630	151
寅德		典書公	" 新林 6洞 388-2				宅 877-5647	151
光夏			" 新林 5洞 474-3 5/4					151
殷大			" 新林 4洞 457-20 1/1					151
善源		司評公	" 奉天 2洞 457-280 3/2		새서울의원원장		宅 879-9041	151
善俊	1931	佐郎公	" 新林 9洞 1525		建 築 業 員		宅 882-6519	151
康弘	1938	縣監公	" 奉天10洞 872-56 15/5		社 會 員			151
乙善	1960	"	" 新林11洞 38/9		社 教 員			151
鐘斗	1937	"	" 奉天 4洞 1561-64					151
善호	1945	"	" 奉天 6洞 100-71				宅 879-0902	151
善植	1954	典翰公	" 奉天洞 915-19		商 "		宅 877-9994	151
完基		"	" "7洞 1629-4				宅 884-3401	151
		佐郎公	" 新林 7洞 675-241				宅 864-5352	151
		海陵君	" 奉天 1洞 647-121 20/7		公 務 員		宅 884-3296	151
聖承	1920		" 奉天 4洞 1557-24				宅 884-9231	151
完燮	1956	佐郎公	九老區九老 4洞 769-137				宅 877-2149	151
庚	1951		" " 3洞 797-8				宅 862-7475	150-06
		校理公	" 新道林洞 236-99		대업 일지과 (株)장		宅 853-3703	150-06
炳東	1914		" 독산동 193-8 23/6				宅 832-3732	150
			" 독산 1동 299-38 대흥아파트 가103				宅 635-4201	150-06
							宅 677-6318	150-06
							宅 853-4281	150-06

姓名	生年	系派	現住	所	職場 및 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大 變 充 炫		縣監公	九老區高尺 2洞 261-38 " " 241-112		영접 동포구치소 末日聖徒예수會 리스도 敎		宅 614-0950 宅 613-3147 宅 613-2661	150-04 150-04
東 憲	1924	校理公	" 始興洞 961 仁正빌라맨손 103호				宅 803-6741 宅 725-3513	150-03
載 默 哲 植	1953	監察公	" 九老 4洞 769-196 15/3					150-06
載 萬	1947	"	" 6洞 139-17 7/2					150-06
萬		佐郎公	" 개봉동 346-39		두영업 2 科 長		宅 613-0538 宅 635-0151	150-04
東 明		校理公	" 高尺 2洞 164-48		報勲處援護課長			150-04
承 善 燮 源 正		佐郎公	" 始興洞 214-11 21/1		公 務 員		宅 803-1072	150-03
在 武		佐郎公	" 오류동 33					150-04
光 葉 은 鎮 燮 福 賓 秀 植 天 豐		佐郎公	" 2동 108-46 목화연립자동 205호		不 動 產 業 務		宅 612-5923	150-04
光 炳 文 南 在 寅 承 允 光 源		生員公	" 九老洞 222-14 韓國수출산업공단 第 1 단 지 內		株 星 都 理 表		宅 855-0211 宅 864-0111	150-06
		"	" 九老 2洞 704-12					150-06
		生員公	" 新道林洞 360-16					150
		"	" " 292-24 신원연립가동101호					150
		生員公	" " 291-117 15/3					150
		典書公	" " 291-117 15/3					150
			" 九老 3洞 173-6					150-06
			" 始興洞 464 35/7				宅 855-0398	150-03
			" 始興本洞 892-51					150-03
			" 九老 3洞 구로아파트 19동 103호					150-06
			" " 5洞 530-13 11/4					150-06

姓 名	生 年	系 派	現 住 所	職 場 及 職 位	經 歷	電 話 番 號	우 편 번 호
永 成 明 普 洪 乙 良 英 相 基 祥 英 在 商 錫 煥 光		進士公 " " 佐郎公 縣監公 典翰公 佐郎公 副司果公 " " " 海陵君 " " 佐郎公	九老區개봉 1동 457-1 " 始興 4洞 171-1 양지연립 A동 105호 " 秀山 2洞 378-377 " " 4洞 916 " " " " " 天旺洞 9-40 " 秀山洞 992-37 덕원연립 B동 106호 " 개봉동 405-4 " 梧柳 2洞 150 " 高尺洞 62-90 " " " " " " " " " 득산동 1076-4 " 始興洞山90 31/4 " 九老 6洞 139-7 " 加里峰洞 239-21 " 開峰洞 80-18	會 社 員 " 會 社 員 會社員(중근당) 商 " 會 社 員 韓國 放送 公 社 員		宅 724-5016 宅 855-0311 宅 592-1311 宅 865-8184 宅 854-3020 宅 613-7286 宅 677-3986 宅 614-5524 宅 614-5524 宅 803-8387 宅 862-9022 宅 862-2705 宅 685-8294 宅 783-4491~5 交 318.319.320	150-04 150-03 150-06 150-06 150-06 150-04 150-06 150-04 150-04 150-04 150-06 150-03 150-06 150-06 150-04
璠 龍 仁 聖	1934 1938 1924 1934	典翰公 進士公	道峰區미아 4동 49-87 12/4 " " 8동 734-78 2/3 " 미아동 225-4 16/3 " 水隴洞 491-81	세 일 에 야 콘 푸 렛 사 重 機 主		宅 988-4175 宅 989-6095 宅 245-5594	132 132 132 132

姓名	生年	系派	現住所	職場 및 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春在	1937	典翰公	道峰區水險 2洞 236-17	서라벌 高校교사		宅 993-8081 宅 94-0152	132
鉉福	1942	佐郎公	" 상계 3동 107-362			宅 973-7988	130-02
億光	1918	"	" 번동 462-154			宅 994-3389	132
永在		校理公	" 倉一洞 242			宅 902-5244	132
欽永		"	" 雙門洞 325-2				132
根鉉		"	" 水險 1洞 55-27	수유시 장延白商會			132
順炳		"	" 道峰洞 90-119				132
國炳		"	" 미아 2동 1271-44				132
烈秉	1939	"	" 미아 4동 135-20				132
燮麟		佐郎公	" 道峰 2洞 89-94	韓國放送公司라디오 局은행부次長		宅 989-5557 宅 7803-682	132
燮漢		"	" 孔陵洞 393-7			宅 993-0437	132
成桂		縣監公	" 상계 1동 1113-147			宅 972-2242	130-02
燮良		"	" 수유 2동 538-17 21/5			宅 994-4619	130-02
鍾哲	1947	校理公	" 미아 6동 653-99	瑞進企業 代表理事		宅 993-6726 宅 95-8166 宅 95-4244	132
植仁	1932	佐郎公	" 수유 2동 550-18			宅 981-7544	132
龍泰	1934	海陵君	" 수유 1동 486-69			宅 992-7909	132
植大 (威貞)	1912	大寧君	" 쌍문 2동 24-8 6/3			宅 904-4214	132
鍾穆	1925	佐郎公	" 放鶴洞 671-3 14/3			宅 902-3885	132
鍾哲		"	" 수유동 223-18				132
光洙	1952	"	" 孔陵洞 화랑대 육사골프장				130-02

姓 名	生 年	系 派	現 住 所	職 場 及 職 位	經 歷	電 話 番 號	우 편 번 호
秋 光 羽	1934	佐郎公	道峰區孔陵1洞573-1우성아파트A동101호 " 본동 455-2 " 上溪 3洞 80-1	盆栽壽石社代表 商 業		973-2878 765-4590 974-9790	130-02 132 130-02
允 國			" 手유 2동 538-9	竹 眞 產 業 表 事 代	忠 警 察 局 道 長	993-8566 762-6686	132
善 五 鉉			" 水險 1洞 57-105 " 월계동 429-47 동화 A동 303호 " 공능동 230 현대빌라 5동 2호				132 132 130-02
完 浚 현 永 泓	1929	副司果公	" 水險洞 461-81 " 우이동 56-51 " 미아 5동 681-25 " 上溪洞 1205-463 " 미아 3동 258-314	眞 美 術 建 業 社 表 代		974-7324	132 132 132 130-02
成 春 春	1927	"	" 미아 5동 1261-214	眞 美 術 建 業 社 表 專 賣 廳		989-9727 989-0434 989-9727	132
明 允 鍾 允	1928		" 手유 2동 252-212	가 틀 리 흥 보 회		988-8235 764-3642	132
允 鍾 允	1922	副司果公	" 번 1동 457-29 6/5 " 미아 4동 137-20 " 길음 3동 1040	성 지 교 회 목 사 大 田 產 業 社 長		902-6792 293-9991 904-5101	132 132 132
斗 平	1930	"	" 번 1동 457-86 " 中溪洞 17-17			988-1052 444-3131 994-0695	132 130-02

姓名	生年	系派	現住所	職場 및 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俊致	1934	左尹公 典書公	道峰區牛耳洞 180-47 친우주택 8호	商		宅 992-1845	132
承光			미아 1동 79-3092			宅 981-6685	132
春弼			수유 2동 238-1			宅 980-7781	132
植賢			수유 3동 23-45				132
雲賢			쌍문동 368-103 13/2				132
雲賢			미아 2동 791-1138 22/6				132
壽植			수유동 472-543				132
植甲			수유 5동 395-6 2/7				132
植甲			공릉 2동 408-55 11/8				130-02
範休			" " "				130-02
在相		司評公	道峰洞 90-52				132
百浩	1945		빈동 70-55				132
浩世	1944	佐郎公	수유 5동 391-922	商		宅 981-5390	132
호			미아동 137-1			직 967-8271	132
明福	1947	典翰公	미아 8동 322-25	"		宅 981-5087	132
變		副司果公	중계동산 104-4 4/5				130-02
鉉秀		海陵君	상계동 156-22 22/10	"		宅 973-4970	130-02
基	1955		쌍문 2동 137-206 22/2	"		宅 904-4214	132
元公		海陵君	孔陵 1洞 492-12 삼익맨손 4동105호	"		宅 973-2073	130-02
燮		副司果公	수유 3동 192-89			宅 903-0061	132
文東	1933	校理公	東大門區踏十里 2洞山12 14/8			宅 246-4950	131
均		"	" 踏十里洞 294-106			宅 967-3364	131

姓名	生年	系派	現住所	職場 및 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元植		校理公	東大門區踏十里洞 489-74	林田建化 代表理事		宅 244-3913 宅 273-8589 宅 8590	131
京根		"	" 面牧 4洞 1471 6/1				130-01
烈根		"	" 面牧洞 1339			宅 434-3344	130-01
聖勇		"	" 新設洞 91-68 김세정方				131
炳武		"	" 面牧 6洞 70-137			宅 435-2457	130-01
昌均		"	" 面牧洞 410-3	東大門도서관장		宅 95-0867	130-01
洪植		佐郎公	" 墨 2洞 233-60				131
玄植		佐郎公	" 墨 2洞 248-36			宅 432-2215	131
承斗		"	" 踏十里 2洞 92-68			宅 966-8645	131
五炫		縣監公	" 장안동 174-35 라동 302	財務部主事		宅 244-1865 宅 720-2245	131
鍾浩	1933	校理公	" 마장동 587			宅 253-3077	131
鍾遠	1936	"	" 面牧洞 1049-850			宅 244-8326	130-01
光允		佐郎公	" 面牧 2洞 136-18	한양탕代表		宅 343-7925 宅 434-7063	130-01
炳圭	1923	海陵公	" 踏十里 5洞 481-43 5/1			宅 244-0985	131
雲奉	1934		" 휘경동 343-18	大進 운동구점		宅 966-0738 宅 252-0654	131
載健	1941	監察公	" 龍頭洞 39-164				131
載文	1954	"	" " "				131
錫鉉	1954	"	" " "				131
海植	1905	大寧君	" 踏十里 2洞 2910				131
鎮洙		佐郎公	" 中和 1洞 281-17 3/4				131
春溥	1934	少尹公	" " 2洞 327-46 8/6	商業		宅 435-1743	131

姓名	生年	系派	現住所	職場 및 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承淑	1929	佐郎公	東大門區面牧 7洞 665-26 許萬氏方	商		宅 434-9942	130-01
光殷	1942	縣監公	" 面牧 2洞 143-4	業		宅 95-1521	130-01
星煥	1935	校理公	" 面牧 1洞 555-30	중랑교소평상사		宅 246-9714	131
膺根			" 용두동 236-11	아방스수예점		직 435-2940	131
基準			" 휘경동 244-1 부용연립나동 201호		陸軍少領	宅 434-9430	130-01
乘煥	1917	副司果公	" 上鳳洞 122-18			宅 434-7529	130-01
城城	1931	大寧君	" 面牧 2洞 136-81				
九壽			" 墨洞 180-7				131
福福			" 中和洞 29-1				131
福福			" " 91-4				131
鎮鎮	1941	監察公	" 제기 2동 857-50 36/4			宅 967-4342	131
雄雄	1942		" 面牧 2洞 140-76			직 753-8330	
三三	1938		" " 4洞 1350-1			宅 432-3688	130-01
植植		佐郎公派	" 上鳳洞 137-1	大韓飼料北部楊州 地區代理店代表	長 淵 郡 長 대 구 면 長	宅 433-2897	130-01
燦燦	1915	典書公派	" 面牧 1洞 128-27			宅 478-0657	130-01
國國			" 中和 2洞 327-9 8/1			직 434-7121	
신신		監察公	" 面牧 1洞 558-7 14/6			宅 433-0222	131
得得	1944	"	" " 7洞 353-52	文聖工業社代表		직 464-8377	130-01
鉉鉉			" 답십리동 470-28				131
植植	1919	佐郎公	" 용두동 53-6 4/1			宅 967-5328	131
泰泰			" 里門 1洞 134-82				131

姓 名	生 年	系 派	現 住 所	職 場 及 職 位	經 歷	電 話 番 號	우 편 번 호
起 植	1941	佐郎公	東大門區面牧 2洞 185-64 15/5				130-01
창 興		佐郎公	" 上鳳 1洞74 금강주택다동 102호			宅 432-1047	130-01
光 敬		"	" 휘경동 183-218			宅 961-5895	131
光 敬		"	" 典農洞 28-40				131
光 敬		"	" 中和洞 90-13				131
光 東	1923	"	" 新內洞 468			宅 433-1898	131
奎 玉		典書公	" 面牧洞 193-53			宅 492-6617	130-01
植 斗			" 망우동 436-11			宅 434-4429	130-01
國 澤			" 신실동 250-7 12/3				131
炯 炯			" " 250-7 12/3				131
義 有		司評公	" 踏十里 3洞 5/4				131
有 炫		"	" 面牧 6洞 106-33				130-01
日 洞		佐郎公	" 面牧洞 46-3				130-01
萬 植	1968	"	" 面牧 6洞 114-3 5/9			宅 492-0932	131
植 然	1940		" 清凉里 2洞 205-634 11/3			宅 493-2072	130-01
允 承	1944	佐郎公	" 面牧 2洞 177-60 30/8	商 會 商		宅 967-7244 宅 695-0946	131
源 植	1931	"	" 里門洞 349-60	業 員 業		宅 962-9243	131
德 亢	1932	"	" 318-57	社 事		宅 215-2525 宅 967-9672	131
承 浩		進士公	" 清凉里 1洞 61-135			宅 966-6290	131
德 亢		"	" 普門洞 6街 209			宅 732-5688	131
			" 清凉里 1洞 미주아파트 1동 103호				131

姓名	生年	系派	現住	所	職場 및 職位	經歷	電話號番	우편번호
慶源	1918	校理公	東大門區面牧 3洞 453-12		商		宅 434-1797	130-01
昌炳	1936	副司果公	" " " 466-27		건설자재사업소		宅 494-7675	130-01
赫天		海陵君	回基洞 60-45		商		宅 976-8556	131
煥昌		"	담십리 5동 481-43	5/1			宅 244-0985	131
雲基		"	里門 1洞 163-151				宅 962-3323	131
基德		"	中和 1洞 308-13				宅 432-4341	131
老壽		"	망우 3동 419-26				宅 493-2059	130-01
慶光		副司果公	망우 1동90 장미아파트 6동 202호				宅 493-1250	130-01
哲植		佐郎公	面牧 2동 133-47					130-01
植植		"	" " 6동 69-14	302호				130-01
植珠		"	" " " 56-11					130-01
壽天		"	" " " 493-9071					130-01
喆春		"	" " 2동 131-40					130-01
春壽		"	" " 136-18					130-01
壽培		"	" " 132-59					130-01
培壽		"	" " 142-9					130-01
壽應		佐郎公	上鳳 2동 87-3					130-01
均光		"	面牧 2동 136-17					130-01
		"	" " 134-39	1/4				130-01
		"	" " 137-13	3/8				130-01
		"	" " 139-68					130-01
		"	上鳳 2동 125-17					130-01

姓 名	生 年	系 派	現 住 所	職 場 及 職 位	經 歷	電 話 番 號	우 편 번 호
得 文	1929		東大門區新設洞 92-40	東大門區廳土木課		宅 744-2666	131
壽	1955	佐郎公	" 中和洞 284-13	三養食品工業(株) 販賣管理部		宅 493-5557 宅 735-8951 ^{~8}	131
春 潤	1920		銅雀區銅雀洞 102-56 3/1	서울기계공사		宅 599-9760	151
善	1930	左尹公	" 上道洞 大林아파트 10동 307호	교 사		宅 828-3718 宅 829-5101	151
燦 玉	1928	校理公	" 新大方 1洞 592-11			宅 832-6180 62-1444 62-2600	151
明 燮	1928		" 舍堂 1洞 147-115 1/2			宅 532-3395	151
鍾 豐	1926		" " 1040-21			宅 533-6115	151
吉 萬	1942		" " 3洞 324-16	삼 일 건 제		宅 591-3293 590-4045	151
光 鎬		典翰公	" 大方洞 412-4 20/2	건 축 업		宅 833-1531 833-1710	151
寅 植		校理公	" 본동 127			宅 814-9822	151
炳 任		"	" 本洞 26-5			宅 828-1102	151
永 基		"	" 노량진동 205-2	信託銀行 理事		宅 829-6610 776-0254	151
允 允		"	" 上道洞 大林아파트 2동 103호			宅 591-2833	151
龍 漢	1927	校理公	" 舍堂洞 44-12 12/7	鐵道廳운수主事		宅 593-4480	151
鍾 烈	1946	"	" " 3洞 22 우성아파트 12동 508호			宅 590-2819	151
鍾 燮		監察公	" 舍堂洞 419-182	商		宅 842-1043	151
成 鎬	1943		" 上道 3洞 317-2			宅 582-4639	151
奭 鎬	1946		" " "				151
炳 烈	1944	典翰公	" 舍堂 4洞 254-12 15/8				151

姓名	生年	系派	現住所	職場及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亨均	1924		銅雀區舍堂 3洞 141-152	성남 교회 목사		宅 591-6402	151
泰燮			" " 2洞 139-66				151
秀澤			" 舍堂洞 278-111				151
錫根			" 舍堂 3洞 593-919 11/6				151
魯燮			" 上道洞 266-3			宅 843-3636	151
榮斗	1924		" 上道 4洞山 65-155 삼진아파트 3동 502호	韓國公團研究所 研究長		宅 843-2759 宅 274-3657	151
昌壽			" 舍堂洞 180-20	事業			151
植重		進士公	" 新大方 1洞 697-24 25/1	公務		宅 834-1164	151
明在		進士公	" 黑石 1洞 204-9	"		宅 813-0154	151
尚煥		"	" 舍堂洞 71-37	公務		宅 591-5311	151
基鎬	1920	"	" 新大方 1洞 686-7 10/1	商務		宅 845-3946	151
재		典翰公	" 노량진동 65-20	商		宅 823-6238	151
재		"	" " 1동 84-5	公務		宅 812-0985 宅 814-4470	151
亨燮		"	" 上道 3洞 303-26	公務		宅 833-2143	151
燮鎬		副司果公	" " 4洞 216-3				151
鎬鎬		"	" 黑石 3洞 64-9			宅 814-3617	151
燮鎬		"	" " 97-2 명수대아파트303호			宅 829-3130	151
元		"	" 사당동 104-4 7/5				151
豐基		海陵君	" 新大方 1洞 605-23				151
源君	1930	典翰公	麻浦區阿峴洞 85-352	京畿工專門大學		宅 844-6625 宅 856-0330	121
乘高	1932	典翰公	" 大興洞 332-11	한국운수창고社 中央荷扱所長		宅 392-1008 宅 717-3250 宅 713-8211~2	121

姓名	生年	系派	現住所	職場 및 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炳善	1922	佐郎公	麻浦區合井洞 370-26	三星 철강		宅 322-3063 宅 322-4988	121
昇煥	1911	海陵君	鹽里洞 8-116		公務員	宅 715-5741	121
允鎬	1921	佐郎公	성산동 41-5			宅 324-1682	121
壽鳳	1952		200-358 18/3	이화진 흥(株)		宅 303-6964 宅 753-6910	121
尙竣			51-2	(株)한양제분사 代表理事		宅 322-0955	121
漢珉	1950		望遠洞 461-20	정문물산 代表		宅 325-9354 宅 555-4291	121
慶溥			大興洞 332-11				121
永錫		校理公	17-18				121
永燦		"	18-1				121
弼根	1924	"	望遠洞 459-1				121
炯權 (炳哲)	1921	"	456-37			宅 322-0287	121
炳百		"	桃花洞 363-327 24/4				121
炳復		"	연남동 561-22 22/3			宅 393-2149	121
炳吉		"	西橋洞 366-20				121
炳誼		"	신수동 9-252 이용현方 11/2				121
炳益		"	노고산동 31-79				121
聖基		"	合井洞 359-19				121
順基		"	望遠洞 457-32 29/1				121
학기		"	동교동 201-52				121
秉權		佐郎公	滄川洞 297-1			宅 34-1622	121

姓名	生年	系派	現住所	職場 및 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秉吉		縣監公	麻浦區鹽里洞 8-10				121
承善		"	" 阿峴 2洞 572-145			宅 364-1877	121
承孝		佐郎公	" 孔德 1洞 111-293			宅 712-3950	121
明植		"	" 滄川洞 28-40			宅 33-2860	121
明永	1941	"	" 孔德洞 342-11 14/1			宅 715-2056	121
亨植	1921		" 창전동 402-5	弘益大學校		宅 323-3065	121
七善	1917		" 합井洞 198-15	미		직 323-0151~9	121
淳植	1928	佐郎公	" 鹽里洞 9-113				121
五	1935		" 鹽里洞 24-55			宅 717-1853	121
琮植			" 西橋洞 377-5	경제기획원		직 720-2094	121
昌淳			" 桃花洞 290-12	문교예산담당관		2211	121
占澤			" 龍江洞 494-312			宅 714-0450	121
在善			" 新수동 309				121
寅德		典書公	" 桃花洞 高려아파트 1004호				121
承學			" 新수동 289-1				121
一炯		司評公	" 大興洞 569				121
泰元		"	" 望遠洞 384-28 이원북방				121
甲漸		"	" 西橋洞 444-15				121
坦光		"	" 新孔德洞 148-14				121
炳鎮	1938	司評公	" 大興 2洞	九老區廳민원실		宅 716-0244	121
			" 鹽里洞 487-10 37/5			宅 716-0725	121
			" 西橋洞 481				121

姓 名	生 年	系 派	現 住 所	職 場 及 職 位	經 歷	電 話 番 號	우 편 번 호
億 溥		進士公	麻浦區城山 2洞 40-12	事 業		宅 305-5672 직 295-1761	121
完 壽		佐郎公	" 孔德洞 175-121	여의도中華料理 王 道 代 表		宅 716-9511 직 782-2992~3	121
康 載	1942	縣監公	" 唐人洞 25-9 18/4	會 社 員		宅 332-4124	121
海 光	1950	副司果公	" 西橋洞 446-21	電 工 業		宅 392-1911	121
鉉 圭		海陵君	" 阿峴洞			宅 312-9730 직 362-7423	121
基 烈		"	" "3洞 642-3			직 362-7423	121
基 華		"	" 孔德洞 130-6			宅 715-5741	121
載 鍵		"	" 鹽里洞 8-116			宅 393-5003 직 영암2-3769	121
在 相	1937	典翰公	" 城山洞 17-15	全紡(株)영암공장		宅 354-0156	120
載 政	1911	海陵君	西大門區弘恩洞 8-428			宅 322-3887 직 764-7711~9	120
仁 岩	1931	進士公	" 延禧 1洞 山 87-617	연출 합동영신업무 사부		직 325-0854	120
永 澤	1955	縣監公	" 延禧洞 延禧아파트 15동 306호			宅 373-3932	120
將 燮	1944	"	" 南加佐 1洞 293-21 14/2			宅 372-8123 직 752-2636	120
重 泰	1941	"	" 南加佐洞 200-2	서울우유대리점 代 表		宅 302-7968	120
鎮 成		"	" 北阿峴 3洞 1-1237 12/5	西部警察署警衛			120
龜 鉉		海陵君	" 弘恩洞 8-428	삼양물산(株)社長			120
龍 植		"	" 延禧洞 290-1				120
永 和		校理公	" 北阿峴洞 843				120
鎮 根	1909	"	" 延禧 1洞 523-4 19/2				120

姓名	生年	系派	現住所	職場 및 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根植春		校理公	西大門區滄川洞 237 6/4				120
命昌炳		校理公	" 滄川洞 52-157				120
炳炳		"	" 北加佐洞 122-14				120
炳炳		"	" " 80-133			宅 372-1002	120
炳炳		"	" " 144-389			宅 372-4624	120
炳炳		"	" 영친동 69-21	대 천 상 회			120
炳炳		"	" 北阿峴 2洞 상가아파트 609호				120
炳炳		"	" 南加佐洞 361-1	麗 光 物 産			120
廣炳		"	" 北加佐洞 4-218 가동 1층 1호				122
炳炳		"	" 南加佐洞 124-266				120
英溥	1918	典翰公	" 北阿峴洞 158-29	養正中學校長		宅 362-1283 직 392-6217~9	120
三燮		縣監公	" 延禧 1洞 187-118 3/7	고 시 려 병 과 원 장		宅 322-0210 직 725-8021	120
京燮		"	" 弘恩 2洞 17-37 4/1				120
성		"	" 北加佐 2洞 10-38			宅 372-6829	120
世	1926	佐郎公	" 奉元洞 42-11			宅 392-2391	120
英燮	1936	"	" 北加佐 2洞 328-41	信用保證基金管 理 役	中 小 企 業 代 理	宅 305-2340 직 771-59	120
明鎮	1953	大寧君	" 滄川洞 33-19				120
虎鎮	1938	"	" 南加佐洞 349-1			宅 372-8664	120
光先	1935	佐郎公	" 弘恩 2洞 8-181 21/5			宅 352-5438 직 777-1914	120
永寬	1928	"	" 흥계동 292	大韓風力社代表		宅 725-2274 직 269-5925	120

姓名	生年	系派	現住所	職場及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龍奎弼	1928	副司果公	西大門區北加佐2洞 282-39 3/7	商業		宅 373-8057	120
在鍾	1929	佐郎公	南加佐洞 370-41	貴公子洋服店代表		宅 372-1563	120
煥	1952	海陵君	175-182			宅 374-2653 宅 261-4797	120
永佑		縣監公	홍제동 28-41			宅 725-3809	120
龍珠			大峴洞 61-91 6/1			宅 364-1313	120
九鉉		佐郎公	南加佐洞 224-135 5/6			宅 373-8435	120
弘一		生員公	237-169				120
在泰		典書公	홍제동 268-18			宅 724-6833	120
鎮一			加佐洞 237-216				120
弘植		司評公	연회동				120
基立			南加佐洞 115-65				120
禮炯	1939	縣監公	延禧洞 446-219	商業		宅 324-9580	120
信煥	1914	佐郎公	금화아파트 34동 4층 2호	商業			120
德滿		進士公	弘恩洞 123	會社		宅 353-9537	120
重介		典翰公	北阿峴1洞136-16 삼익아파트209호	員		宅 362-1518 宅 763-5314	120
泰石	1930		蛤洞 21-23 星逸빌딩內	綠山共營代表事務員		宅 392-0262	120
子		佐郎公	北阿峴洞 195-11	運輸業(택시기사)		宅 364-0965	120
寬	1928	海陵君	1洞 149-13			宅 363-6273	120
龍		佐郎公	延禧洞 흥연아파트 3동 504호			宅 324-1877	120
鎮	1954	佐郎公	北阿峴洞 210-23 商街아파트618호			宅 362-0866	120
源	1925		弘恩洞 397-7	國際大學教授		宅 303-5996 宅 305-1587	120

姓名	生年	系派	現住	住所	職場 및 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炳安	1932	校理公	城東區聖水洞 1街 93	12/1	맨션 지물포		445-7568 794-0080	133
基洙			" "	" 656-56	한국마방적(株) 개발과장		464-1665	133
光鎬	1943		" 中谷洞 149-51		백남관광(株) 기획심사과장		445-2454 753-2171~9	133
盛國	1928		" "	" 246-57			446-0393	133
光華	1936		" 龍踏洞 134-8				244-3460	133
俊模	1953	佐郎公	" 九宜洞 67-27				454-7548	133
壽達	1936		" 능동 255-15		日進産業代表		452-5251 265-0261	133
光鍾	1917	佐郎公	" 聖水洞 2街 3洞 299-235	11/4				133
東煥		校理公	" 中谷洞 138-26				446-9448	133
吉根		"	" 杏堂 2洞 317-1026	10/6				133
炳植		"	" 응봉동 198-139	16/2				133
鎔植		"	" 聖水洞 180-4					133
載薰	1953	監察公	" 中谷 3洞 170-10	5/2	建設部 수정과 행정사		445-7606 593-2301	133
鎭鎮	1936	大寧君	" 玉水洞 421-98		發行會 出版社 業務員			133
鉞鈞	1941	"	" 능동 320-26				253-7081	133
鈞鏡	1949	"	" 中谷洞 191-92				254-1200	133
秉烈			" 금호동 1가 128-10	나동 202호			295-5292	133
昌俊			" 中谷洞 100-10				445-0322	133
殷煥	1933	監察公	" 九宜洞 223-70				444-0309	133
載斗	1929	"	" 聖水洞 2街 532-79				464-4862	133

姓名	生年	系派	現住	住所	職場 및 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榮植	1941		城東區金湖洞 4街 290 8/6		牧師		宅 295-0798	133
琪淳	1941		" 玉水洞 327-11 순부음교회內				직 253-1775	133
蘭英	1918		" 中谷洞 141-28				宅 453-9385	133
載弘			" 紫陽洞 611-9					133
炳坤			" " 623-22					133
炳淳			" 杏堂 2洞 317-570					133
始鉉			" 화양동 7-42					133
東煜	1955		" 聖水洞2가289-3 聖水아파트7동201호				宅 463-9228	133
成來		典翰公	" 金湖洞 3街 1265-40					133
偉根		校理公	" 응봉동 198-60					133
炯燮	1928	"	" 杏堂洞 324-20		黃海商事 代表		宅 293-0310 직 764-0589	133
完植			" 구의동 66-115 3/4					133
光朝			" 용담동 107-7 6/1					133
예식			" 하왕십리동山 14 32/2					133
광국			" 金湖洞 4가 5구획 4					133
松桓	1914	承旨公	" 陵洞 136-3				宅 447-2229	133
承煥	1946	縣監公	" 紫陽 2洞 588-75		商會 社員		宅 477-2419	133
瀚植	1959	佐郎公	" 陵洞 97-2		社 務 員		宅 962-5229	133
輝雄	1930	"	" 廣壯洞 288-17 5/6				宅 445-6370	133
(光模)								
춘섭		典翰公	" 金湖洞 1가 127 2/1		公 務 員		宅 232-7232	133
燮		海陵君	" " 1-137				직 767-3448	133
根吉		"	" 玉水洞 424-588				宅 752-1710	133

姓名	生年	系派	現住	住所	職場 및 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基炫	1930	縣監公	城東區紫陽洞 220-1		권세서림 代表		宅 446-6436	133
重文	1957	佐郎公	" 行당 1동 317		東部赤十字病院 長 係		宅 294-7465 宅 245-9603	133
成根	1934		城北區城北洞 111-13		豐林商社 社長		宅 762-2321 宅 265-9521	132
炳鎬	1946	生員公	" 安岩洞 136-1	大光아파트 661호	백마고무공업사 代表		宅 923-1143 양평 1338-2813	132
林根		校理公	" 貞陵洞 5-53					132
炳順		"	" 敦岩洞 512-175	10/2				132
龍基		"	" 鍾岩 1洞 33-39					132
載曠	1936	監察公	" 東선洞 1가 92-25		서울刑事地法		宅 93-2117 宅 752-0533	132
基文		縣監公	" 鍾岩 1洞 79-358				宅 93-8252	132
廷官	1943	大寧君	" 貞陵洞 16-217					132
在敦	1953	承旨公	" 鍾岩洞 44 8/2		서라벌고등학교		宅 93-6221 宅 94-0152	132
光植	1952		" 東선동 4가 98					132
光寅	1936	佐郎公	" 下月谷洞 88-71					132
柱煥			" 貞陵 1洞 6-15					132
允植			" 長位洞 69-48					132
庠鎬			" 鍾岩 2洞 105-82					132
鍾煥			" 貞陵 4洞山 1 34/2				宅 917-7408	132
秉哲	1935	縣監公	" 길음 2동 1270-388	31/1			宅 918-6406	132
洙淵			" 城北 2洞 60-43					132
允恒		典書公	" 吉音洞 610-8				宅 913-1040	132

姓名	生年	系派	現住所	職場 및 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贛 燾		典書公	城北區貞陵 3洞 889 연립住宅			宅 914-0369	132
寅 錫		"	" 鍾岩洞 81-175			宅 94-0167	132
錫 胤		"	" 동선동 5가 102-1				132
胤 光		"	" 上月谷洞 23-74				132
信 炯		"	" 동선동 2가 52 1/4				132
喆 善	1939	司評公	" 석관동 332-634			宅 967-6753	132
喆 學	1928	佐郎公	" 東小門洞 6가 28-15	개 인 택 시		宅 923-7756	132
承 溥		進士公	" 석관동 307-5	事 業		宅 961-7843	132
周 溥			" 三仙洞 2街 232			宅 742-3180	132
浩 善	1937	縣監公	" 安岩洞 4街 23-3 안암아파트 508호	治安本部警監		宅 94-6563	132
根 山		海陵君	" 敦岩 1洞 4-21			宅 744-0354	132
俊 燮		"	" 下月谷 1洞 75-32			宅 982-5459	132
遠 燮		"	" 石串 1洞 120-18			宅 412-6266	132
高 哲	1927	佐郎公	永登浦區新吉洞 4700			宅 961-5687	150
承 哲	1927	"	" " 4698	삼 성 철 재 상		宅 833-3143	150
潤 植	1930	"	" " 4洞 4910-2 25/1			宅 833-3812	150
哲 鎬	1937	"	" 道林 1洞 130-45			宅 62-8349	150
庚 祿	1910	副司果公	" 大林 1洞 893-58 4/7	조선맥주(株)課長		宅 833-6742	150
圭 泰	1934	大寧君	" " 3洞 752-60			宅 833-5111~20	150
鶴 溥	1927		" 여의도동 한양아파트D동 1104호			宅 833-1372	150
						宅 832-3164	150
						宅 783-2277	150

姓名	生年	系派	現住所	職場 및 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珍在		典翰公	永登浦區文來洞 1街 65			宅 63-4381	150
寬炳		校理公	" 新吉 6洞 3450 22/1			宅 833-2353	150
熙炳		"	" 禿山洞 303				150
來基		"	" 開峰洞 개봉아파트 17동 202				150
基潤		"	" 禾谷洞 398-22				150
雲九		"	" 文來洞 3가 58				150
萬乘	1935	佐郎公	" 堂山洞374 강마을아파트 A동301호	豐文女中 校監		宅 732-2988	150
澄起	1926	大寧君	" 堂山洞 1街 140	정비공장 상무		宅 635-4093	150
永海		校理公	" 문내동 3가 77-42			宅 635-2979	150
高京	1940	監察公	" 永登浦洞 5街 166 18/5				150
載英	1928	"	" 堂山洞 3街 475 29/9				150
漢鎮	1939	"	" 양평동 4가 40 6/3	文化放送 演技者室代表		宅 676-8284	150
完光	1935	生員公	" 汝矣島洞 미성아파트 E-505	韓國放送公社 効果		宅 782-5516	150
日聖			" 汝矣島洞 1	韓國放送公社 室		宅 782-8911	150
燮鶴			" 大林洞 993-36 2/5	文 史 博 學 延 世 大 學 敎 授		宅 843-6688	150
善			" 汝矣島洞 1			宅 845-0044	150
英			" 大林洞 2洞 1027-33			宅 783-4491	150
完			" 光장아파트 1-501호				150
日燮			" 양평동 6가 74 벽산슈퍼			宅 392-0131	150
燮鶴			" 大林洞 898-10			宅 635-3935	150
英			" 新吉2洞186-83승운사부덕방 310/6				150
雲承			" " 2洞 7/2				150
昌承							150

姓名	生年	系派	現住所	職場 및 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錫承正重석태	1942	縣監公 典翰公 "	永登浦區開峰洞 280-36 " 大林 3洞 1064 18/1 " 道林洞 851-2 " 汝矣島洞 서울아파트 2동 507호 " 大林 3洞 670-2 대호카인테리어 " 道林 1洞 32-31 삼호빌라 103호	大海實業專務 商社 會社 公務員 會社 會社 會社 仁川港運(株) 代表理事		宅 844-4980 宅 783-3239 宅 844-4402 宅 845-7080 宅 676-7461	150 150 150 150 150
재容聲珠光		典翰公 海陵君 " " 佐郎公	" 新吉洞2365 영진아파트 A동216호 " 大林 3洞 14-33 " 개봉동 " 永登浦 2洞 5가 34-33 칠보정육점 " 汝矣島洞 광장아파트 1동 1203호	公務員 會社 會社 仁川港運(株) 代表理事		宅 833-0929 宅 846-1692 宅 612-5984	150 150 150
承恒洪益龍奎	1947	佐郎公 左尹公 海陵君 司評公	龍山區善光洞 265-915 " 龍門洞 2-34 " 漢江路 2街 2 9/8 " 元曉路 2街 7-7 " 龍門洞 25 " 도원동 12-1	現代建業商事(株) 會長		宅 784-7056 宅 884-3691 宅 792-2948	150 150 140 140 140 140
南熙石範	1925 1955 1930	海陵君 大寧君	" 青坡洞 1街 95-34 12/9 " 新契洞 12-1 5/1 " 漢南洞 647-25	現代建業商事(株) 會長	平和統一자문 위원 會 副會長	宅 712-6448 宅 694-3611 宅 714-0788 宅 712-5150 宅 793-2794 宅 792-9461	140 140 140

姓名	生年	系派	現住所	職場 및 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鍾基弼	1927		龍山區孝昌洞 223 12/1	헤밀톤호텔		宅 797-9576	140
影	1938		" 梨泰院洞 119 19/1	東邦生命保險(株)		宅 756-1617	140
			" 厚岩洞 195-1 19/2			직 776-7458	140
變雄		監察公	" 東部二村洞 신동아아파트 5동 305호			宅 794-0066	140
智正			" 西界洞 251-39 27/3			宅 714-3049	140
舊名文基			" 普光洞 3-136				
光翼		司評公	" 東水庫洞 38-14				140
秀炯		"	" 漢江路 1街 146				140
變贊		"	" 孝昌洞 5-19				140
溥是	1940	進士公	" 青坡洞 2街 90-18	商務員		宅 713-9493	140
		典翰公	" 二村洞 209-25			宅 715-7031	140
			" 青坡洞 1街 95-34 12/9	商務員		宅 501-3719	140
圭		海陵君	" " " "				140
圭		"	恩平區역촌동 25-26	韓晨産業社理事		宅 387-5065	140
煥	1923	校理公	" 新寺洞 237-377 30/1			宅 463-7558	122
星		海陵君	" 증산동 188-14 29/6	國立中央박물관		宅 720-2724	122
禹	1948		" 葛峴洞 522-23	유물과		宅 387-1783	122
福	1920		" 水色洞 205-107 13/3			宅 720-8610	122
興	1915	佐郎公	" 葛峴洞 275-99 16/1	한양리비과		宅 384-1133	122
連	1941	"		관		宅 972-9662	122
英							

姓名	生年	系派	現住	所	職場 및 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熹傳	1923		恩平區葛峴洞 392-7		產業銀行庶務部		385-6743 宅	122
英雄	1949		葛峴洞 276-104				777-8754 宅	122
永培	1930		新寺洞 19-20					122
永鎮	1931		" 19-101 惠元연립	106호	中央강의사代表		388-4883 386-3630 宅	122
義昭	1941		능번동 29-34		高대工大 教授		388-3187 92-2601 宅	122
論		大寧君	" 증산동 92-42				373-5221 宅	122
식			" 응암동 86-1					122
煥			" 祿磻洞 100-18					122
善			" 진관외동 175-508					122
山	1944	典書公	" 葛峴洞 489-3		教育公務員			122
麗	1917		" 佛光洞 484-116				386-6428 宅	122
埃		校理公	" 응암동 397-97				387-4302 宅	122
一			" 葛峴洞 355					122
植		佐郎公	" 응암 1동 97-7	15/1				122
植		"	" " "	"				122
俊			" 佛光 2洞 293-32					122
霄		典書公	" 응암동 289-19				304-4796 宅	122
日		司評公	" 갈현동 갈현아파트	5동 505호			387-2653 宅	122
善		"	" 응암동 397-32				302-4789 宅	122
變		監察公	" 佛光 2洞 439-3	17/6			387-7939 宅	122
秀		校理公	" 증산동 217-35	11/10				122
(永大)								

姓名	生年	系派	現住	住所	職場 및 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昌植	1954	佐郎公	恩平區葛峴洞 382	갈현아파트 3동 403호	서울地方檢察廳 係會		宅 388-4009 직 771-23②360	122
亮善	1934	縣監公	" 水色洞 205-913		社 員		宅 302-3155	122
厚善	1939	"	" " 205-1341		"		宅 372-9218	122
龍善	1941	"	" 繪山洞 181-12		연세유치원장		宅 373-0616	122
重重	1919	"	" 水色洞 205-37		大海實業會長		宅 372-8631	122
重重	1921	"	" " 115		大海實業社長		宅 372-6431	122
重重	1936	"	" " 205-124		大海實業副社長		宅 373-0913	122
承達		佐郎公	" 水色洞 122-5	11/5	公 員		宅 373-0462	122
龜鉉		海陵君	" 新寺洞 33		"		宅 302-7968	122
成培	1935	司正公	" 佛光洞 345-7		서울大醫大教授 醫學博士		宅 388-7243 직 762-5301 ②271	122
貴德	1930	校理公	" 증산동 3-1		會 社 員		宅 304-1762 직 274-5917	122
承根	1955	"	" 응암 2동 339-10		業 林		宅 305-4979	122
永植	1931	佐郎公	鍾路區鍾路 6街 239-11		永進書場 (平和市場)		宅 762-9653 직 265-3548	110
允根	1923	"	" 八判洞 92		世紀洋服店		宅 725-2028 직 724-5061	110
興溥	1928	"	" 東崇洞 129-19				宅 764-0477 직 633-1098	110
泰善	1935	佐郎公	" " 238		忠南商會		직 253-1803	110
重根	1937	"	" 평동 75-3		培材고등학교教師		宅 723-4390	110
光祿	1927	"	" 홍지동 69-1				宅 722-4413	110

姓名	生年	系派	現住	住所	職場 및 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昌杰			鍾路區청운동		강남구논현동142 영내 고려아연(株)社長		직 567-0281 577-8310 9310	110
炳哲		校理公	진영동 221-1					110
炳逸		"	體府洞 64					110
泳任			杏村洞 1-105				宅 724-9978	110
哲玹	1931		明倫洞 1街 16-15		사도끼 事務 親和藥品會 長		宅 762-3080 宅 272-2931	110
洪龍			孝悌洞 171-10		親和藥品會 長		직 762-7585~6	110
榮燁	1932	典書公	東崇洞 2-12		漢陽大 工教授 (博 士)		宅 762-3984 宅 292-3111 宅 292-2111	110
寅善	1912	典書公	昌信洞 627-2			教	宅 764-2658	110
起燮	1920	典翰公	청운동 24-5 청운아파트 6동 A1호				宅 723-9026	110
弼壽	1910		舊基洞 86-1				宅 386-7282	110
二成			樓上洞 166-200					110
善泳	1919		新榮洞 139-12				宅 386-3691	110
南植			東崇洞 129-148 7/8					110
正憲		司評公	明倫洞 1街 16-62				宅 722-9830	110
鍾守	1922		" " 4街 188-40					110
潤出			" " " 59				宅 743-4771	110
재관	1936	典翰公	평동 13-5		會社 員		宅 720-7077 宅 422-8525	110
基健		海陵君 大寧君	鍾路 5街 413 中區藝場洞 1-17		元曉路青果市場 培健食品代表		宅 269-2189 宅 267-2969 宅 717-2842	110 100

姓 名	生 年	系 派	現 住 所	職 場 及 職 位	經 歷	電 話 番 號	우 편 번 호
秉 天	1913	縣 監 公	中區新堂洞 330-301 11/6			宅 253-2812	100
炳 夏		校 理 公	" 會賢洞 1街 99-26 6/4				100
炳 東		"	" 忠武路 5街 墨井洞 29-16			宅 269-2211	100
烈 基		"	" 雙林洞 151				100
秉 榮		縣 監 公	" 봉래동 1가 27-26				100
榮 堊			" 황학동 183			宅 295-0177	100
榮 堊			" 新堂洞 294-21				100
榮 堊	1941	大 寧 君	" 明洞 유네스코회관內 오아시스약국	약 사		宅 776-2332	100
安 基		校 理 公	" 乙支路 平和市場 나 3층 209호	성 원 사		宅 255-2622 직 266-2483	100
萬 植			" 武橋洞 62	濟南빌딩代表		宅 917-0308 직 777-1993	100
益 淳	1964		" 乙支路 2街 9-10				100
承 雲			" 會賢洞 1街 10-45				100
靖 松		司 評 公	" 신당동 366-12				100
煥 文	1938	縣 監 公	" "3동 349-369	商		宅 253-1330	100
元 承	1920	佐 郎 公	" 남대문로 5가 760			宅 756-0486	100
範 烈	1932	"	" " " "			"	100
光 烈			" 新堂 7洞 22 1/1				100
光 烈			" " 2洞 432-1082				100
光 烈		典 翰 公	" " 4동 347-251 21/4	商		宅 233-9232 직 232-0626	100
光 烈			" 雙林洞 182-22			직 275-9378	100
基 興		海 陵 君					

〈釜山直轄市〉

姓名	生年	系派	現住	所	職場 및 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南亨	1910	大寧君	北區周禮 2洞 23-2			在釜平南道民會	宅 93-0690	601
德元	1931	"	" " 54-87					601
得龍	1916		西區土城洞 1街 25-1				宅 27-3521	600
承喆	1932		東區凡一 2洞 830-90 한양아파트 1동313호					601
景善	1929		釜山鎮區楊亭洞 507-24					601
載仁	1918		영도구大橋洞아파트 1동 711호					606
寅燮		典書公	中區新昌洞 2街 20		草梁電信電話局長		22-1701	600
乘和		副司果公	東萊區동상동서 2洞 297-476 30/3 崔舜煥方		東洋倉庫社長		宅 523-3895	607
元植			南區 감만 2동 44-70 19/2					608
文植	1921		" 용호 1동 421-11 동산연립주택 302호				宅 623-6748	608
塗燮			中區中央洞 3街 1 釜山우체국 우편 2課				직 44-8326 624-6912	600
명子			東萊區남산동 4-1 청과아파트 102호					607
洛榮			東萊區연산 4동 1114-192 8/1					607
東植			中區寶水洞 1街 77				宅 26-7566	600
在福			東區佐川 1洞 451 8/1					600
益華			釜山鎮區凡川 2洞 1279				宅 68-3366 642-8878	601
信化			西區西大新洞 3街 61-34				직 642-3405	600
潤化			" " " "				직 25-1456	600

姓 名	生 年	系 派	現 住 所	職 場 및 職 位	經 歷	電 話 番 號	우 편 번 호
琿 璉		典書公	中區영주동 아파트 2부록나동 210호 2/4			宅 44-5291	600
明 돈			西區新平洞 82-3 19/2				600
相 興		司評公	" 감천 2동 25/1			宅 29-6936	600
七 鍾	1925		北區수정동 수성아파트 1동 101호			宅 42-3774	601
武 占	1915		南區광안 1동 1055-205			宅 752-8042	608
承 重	1936		" 문현 1동 아파트 1동 401호			宅 68-1012	608
濠 善	1942		" 명미동 823-2			宅 83-1905	608
求 求	1916		" " 793-4			宅 84-8870	608
求 求	1938		東萊區혼천 1동 317-6			宅 54-0218	607
善 求			" 거제 3동			宅 82-5319	607
求 求			東區凡一洞 1352				600
宗 鎮	1929		東萊區연산 7동 1940 19/5				607
泰 平	1933		" " " "				607
浩 榮	1935		" " " "				607
鍾 興			南區광안 1동 1055-205			宅 862-8042	608
圭 榮			" " 693-13			宅 84-8870	608
	1944		" 대연 2동 1604-5			宅 68-7649	608
	1930		" " 1동 374-5			宅 69-6919	608
			中區 대청동 75			宅 463-4287	600
			釜山鎮區 전포1동 122-24				601
	1951		沙下區괴정동 협진아파트 8동 107호			宅 202-0388	600-02
			東萊區은천 1동 7-9				607
			해운대구 제일약국				607-04

姓名	生年	系派	現住所	職場 및 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在承	1934		해운대구 부산상고			宅 56-6498	607-04
承	1926		南區우암 1동 142-2 12/1				608
承	1914		東萊區 거제 3동 818 12/5				607
承	1925		" 蓮山 8洞 714-17				607
完	1934		沙下區槐亭 2洞 374-12				600-02
孝	1939		釜山鎮區田浦 3洞 504-107 16/2				601
柄	1941	海陵君	沙下區감천 2동 13-19 10/5				600-02

〈大邱直轄市〉

晚秀	1934		南區大明 4洞 3044-8 三晶아파트 A동 502호			宅 65-0865	634
彥	1926		" 大明 9洞 915-15			宅 68-7373	634
昌	1914		" 송현동 178-4			宅 624-559	630-14
昊	1925		" " 47B 10L			宅 67-8189	630-14
英	1934		" 大明 1洞 1670-4			宅 23-8974	634
命	1939		" 봉덕 2동 1033-1			宅 22-4356	634
旭	1941		" 大明洞 1635			宅 69-7369	634
淳	1947		" " 1221-80			宅 68-7034	634
長	1948		" 봉덕 1동 851-3			宅 65-2829	634
영			" 이천 1동 455-17			宅 68-2244	634
중			" " 2동 757-15			宅 69-2738	634
영			" 진천동 482-2			宅 632-1067	630-14
熙	1928		" 상인 3동 1332-125			宅 632-6287	630-14
默			" 송현동 926 월성아파트 5동 207호			宅 65-0346	630-14
守							

姓名	生年	系派	現住所	職場 및 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根泰	1948		南區 송현동 64-7			宅 65-6774	630-14
文龍			" 봉덕동			宅 65-8979	634
休덕	1948		" " 531			宅 68-9832	634
淳基	1945		" " 1112-25			宅 66-6560	634
靛淳	1938		" 大明 9洞 472-29				634
靛祿	1939		" " 6洞 코스모스아파트라동 409호			宅 65-4992	634
哲榮	1933		" 代명동 3040-43			宅 67-4774	634
達達	1933		" " 1동 629-1 정우아파트 1동 602호			宅 66-0128	634
환환			" 代명동 1208-1			宅 68-6945	634
洙得	1926		" " 7동 1895-5			宅 67-5629	634
圭秀	1932		" 봉덕동 2구 732-8			宅 32-5296	634
興秀	1947		" " 1구 515-3				634
九奉	1935		" 송현동 달서아파트 401호				630-14
胤榮	1943	副司果公	" 松峴洞			宅 66-5104	630-14
世憲	1943		" 大明洞 596-7	商		宅 66-6624	634
世雄	1932		" 大明 5洞 1701-3 세란맨션 9동 05호4				634
東根	1929		東區 호북 2동 617-6			宅 72-1454	635
榮華	1938		" 신암동			宅 954-8145	635
溥溥	1932		" 호북동 우창아파트 나동 405호			宅 72-3431	635
淳六	1922		" 임석동 862-12			宅 93-2298	630-71
雨雨	1928		" 신천 1동 682-10			宅 44-7905	635
洪壽	1928		" 신서 2동 78			宅 962-5479	630-72
			" 신천 4동 동아아파트 가동 106호			宅 72-0346	635

姓名	生年	系派	現住所	職場 및 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汝淳	1929		東區올하동 251			宅 962-5480	630-72
龍洙	1934		" 방촌동 1084-438			宅 962-3398	630-71
榮潤	1941		" 신기 1동 274-10			宅 962-5538	630-72
鍾碩	1952		" 신암 1동 733-6			宅 93-7905	635
光榮	1953		" 호목 1동 89-1			宅 93-1094	635
榮培	1951		" 신천 4동 449-1			宅 72-7334	635
현기			" 신천 4동 347			宅 72-3418	635
기俊	1950		" 만촌 2동 976-43				630-72
榮八	1922		" " 1050-118			宅 73-6068	630-72
萬洙	1942		" 방촌동 1084-258			宅 962-1071	630-71
弘珍	1952		" 신암 1동 694-35			宅 952-6441	635
斗淳	1954		" " 609-11			宅 952-7025	635
東基	1956		" " 4동 361-83				635
錫相	1938		" " 3동 시영아파트 5동 19호				635
淳錫	1941		" 신서 2동 78			宅 962-2303	630-72
相琦	1941		" " 288			宅 962-1753	630-72
台吉	1933		" " 1동 453			宅 962-2282	630-72
淳達			" 동호동 64			宅 962-1191	630-72
光郁			" " 64			宅 962-1191	630-72
淳德			" 괴진동 34			宅 962-4064	630-72
宗德	1925		" 울암동 524				630-72
			" 동내동 301			宅 962-3988	630-72
			" 호목동 581 2차력키아파트 208호			宅 72-3024	635

姓 名	生 年	系 派	現 住 所	職 場 及 職 位	經 歷	電 話 番 號	우 편 번 호
鍾 洛			東區동호동				
淳 鍾	1928		北區대현 1동 160-2			宅 92-1012	635
榮 得	1935		" 침산 1동 1724			宅 33-1086	635
熙 景	1919		" 대현 2동 463-16				635
柱 英	1920		" 침산 3동 557			宅 33-5336	635
在 明	1934		" " 1동 1381-107			宅 32-2110	635
三 榮	1934		" 침산동 1225			宅 33-2334	635
仁 鎬	1936		" " 2동 326			宅 33-3271	635
在 出	1936		" 검단동 503-6			宅 954-2371	635
斗 鉉	1937		" 산격 1동 796-8			宅 92-6900	635
都 春	1946		" 부현동 129			宅 92-9732	635
鍾 和	1939		" 노원 3가동 184			宅 32-8029	635
淳 吉			" 부현동			宅 954-8238	635
永 浩			" " 360-15			宅 94-9312	635
光 錫	1943		" 부현동 협진아파트 2동 202호			宅 93-2776	635
榮 國	1951		" 산격동			宅 33-3004	635
喜 一			" " 1동 1161-10				635
七 淳			" " " 782-1			宅 94-3561	635
琪 熙	1925		" " " 1162-6			宅 92-4396	635
相 煥	1931		" " " 1392-5			宅 92-6282	635
城 煥	1962		" " 2동 450			宅 94-6860	635
榮 福	1923		" 노원 2가동 988				635
且 劍	1934		" " 3가 2동 1117			宅 32-9755	635

姓名	生年	系派	現住所	職場 및 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根俊			北區노원 3가 2동 184-1			宅 32-7935	635
仁泰	1937		" " "				635
正龍	1931		" 침산 1동 1200-5			宅 33-2268	635
海淳	1946		" " 2동 321				635
永浩	1948		" 칠성 2가동 409			宅 46-2732	635
鍾弘	1938		" " " 407-22			宅 45-9908	635
在基			" " 2가1동 249			宅 33-9324	635
錫植			" 침산 3동 557				635
東植	1940		" 칠성 2가 2동 379-46			宅 422-4446	635
信年	1931		" 읍내동 780			宅 30-2012	630-51
환鳳	1933		" " "				630-51
亨吉	1944		" 경북농민교육원			宅 30-0012	635
錫鵬	1951		" 관음동 718-9			宅 30-3358	630-51
仁鍾	1944		" 태전동				
貞龍	1920		" 산격동			宅 94-6722	635
根得			" " "			宅 33-9832	635
泰成	1934		" 칠성동 2가 144				635
男洛	1941		" 칠성동 1가 176-24				635
銅淳	1937		" 노원동 3가 1038				635
相	1922		" 감산동 우일아파트 A동108호				636
峯	1934		西區 비산 2동 44-15			宅 553-0711	636
成	1941		" 중리동 1119-1			宅 53-1425	636
銅	1937		" 평리동 1174-56			宅 52-0160	636
相	1922		" 감산동 우일아파트 A동108호			宅 54-4648	636

姓 名	生 年	系 派	現 住 所	職 場 及 職 位	經 歷	電 話 番 號	우 편 번 호
在 道	1928		西區평리 4동 1357-5			宅 553-6747	636
成 鉉	1931		" 비산 4동 338			宅 52-6871	636
永 淳	1944		" " 328-4			宅 52-3404	636
榮 杓	1954		" " 2동 32			宅 32-9391	636
富 一	1940		" 내당동 106-3			宅 67-9859	636
榮 兆	1941		" " 12-49			宅 52-9734	636
光 泰	1949		" 중리아파트 36동 201호			宅 53-1061	636
榮 祚	1948		" 내당 2동 1015			宅 252-1339	636
榮 澤			" 내당 6동 489				636
榮 東	1949		" " 4동 77-39			宅 68-0902	636
淳 俊	1948		" 내당동 삼익맨션 2동 1105호			宅 53-0211	636
榮 春	1936		" 평리 4동 1216-22			宅 52-8916	636
雄	1943		" " 3동 1087-8			宅 552-1178	636
容 九	1945		" 중리 주공아파트 23동 305호			宅 52-7170	636
大 士	1952		" 신평리 아파트 33동 105호			宅 54-6066	636
壬 淳	1933		" 비산 6동 378			宅 553-7738	636
春 峯	1941		" " 437-6			宅 553-8628	636
聖 淳			" " 7동			宅 32-0019	636
錫 淳	1923		" " 2동 15-25			宅 553-9850	636
達 淳	1933		" " 15-4			宅 22-3472	636
童 七	1913		" " 18			宅 32-9391	636
炳 淳	1920		" 비산 6동 527-4			宅 553-1741	636
連 俊	1911		西區비산 3동 394-10			宅 252-1761	636

姓名	生年	系派	現住所	職場 및 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在 洙	1938		西區비산 4동 278			宅 23-3469	636
광 淳	1937		" " 288-12			宅 22-3378	636
淳 瑢	1947		" " 6동 366-8			宅 22-9675	636
承 元	1917		" " " "				636
先 植	1957		" " 4동 252-2				636
鍾 和			" " " "				636
成 漢	1958		" " 288			宅 32-6935	636
榮 泰	1931		" " 2동 44			宅 553-0711	636
正 湖	1944		" 비산동 909-7			宅 33-7097	636
格 淳	1920		" 원대 3가 1276			宅 33-1120	636
상 仁			" " " 1402			宅 32-3708	636
基 燮	1930		" " 1가 84			宅 92-0749	636
榮 鍾			" " 3가 1216			宅 32-3008	636
一 宅			" 비산 2동 42				636
榮 龍	1942		수성구 범어동 경남타운 6동 405호			宅 73-1800	634
在 業	1936		" " 40-9			宅 73-1588	634
淳 福	1922		" 범어 4동 267-69			宅 752-2507	634
南 錫	1934		" 수성 4가 985-77			宅 73-8444	634
榮 鎮	1934		" 범어 1동 805-298			宅 762-0471	634
榮 永	1937		" 범어 3동 475-30			宅 752-3802	634
	1940		" " 4동 대공원아파트 15동 203 호			宅 752-1729	634
	1953		" " 2동 395-26			宅 754-2066	634
	1942		" " 3동 2157			宅 752-5642	634

姓名	生年	系派	現住所	職場 및 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淳平	1923		수성구 범어 2동 253-34			宅 72-6855	634
榮鍾	1946		" " 3동 29-1			宅 752-8444	634
淳榮	1949		" " 2동 253-34			宅 72-6855	634
翰淳	1958		" 범어동				634
淳烈	1946		" 신매동			宅 82-6950	630-18
淳福	1956		" " 538-18			宅 82-3093	630-18
源	1936		" " 210			宅 93-2934	630-18
肅	1958		" " "			宅 83-2934	630-18
培	1923		" " 210			宅 93-2934	630-18
목圭	1949		" 황금동 주공아파트 144동 207호			宅 53-1211	634
萬	1927		" 상동 116-11			宅 73-7681	634
鳳	1926		" 수성 4가동 1027-40			宅 73-7681	634
奉	1941		" 고산 1동 209				630-18
澤	1935		" 수성 4가동 1058 한치교방				634
榮	1918		" 수성 2가동				634
敏		海陵君	" 중동 35-9 18/4			宅 763-0983	634
燮		"	" 수성 2가동 141-4			宅 73-4162	634
南	1922		" 신매동 538-18			宅 82-3093	630-18
榮	1907		" 수성 4가동 1027-40			宅 73-7681	634
弘			" 범어동 62				634
			" 지산동 1144-2				634
			中區대봉동 590-140			宅 45-7737	630
			" 남산 2동 154			宅 23-5726	630

姓 名	生 年	系 派	現 住 所	職 場 及 職 位	經 歷	電 話 番 號	우 편 번 호
修 鎮	1924		中區대신 2동 1801			宅 252-5834	630
淳 達	1930		" " 1동 48			宅 252-1990	630
休 賢	1948		" 삼덕 1가 43			宅 45-4353	630
湖 在	1951		" 서문로 1가 67			宅 252-4243	630
淳 亨	1926		" 달성동 110-8			宅 30-0324	630
燮 鎮			" " 284-34			宅 22-0261	630
峯 在	1937		" 남산 4동			宅 253-6449	630
俊 慶	1950		" " 2동 154			宅 23-5726	630
成 植			" 삼덕 2가동 132			宅 44-0977	630
榮 丁	1952		" 동산동 619			宅 252-9270	630
祚 台	1916		" 수창동 79			宅 22-4974	630
鉉 泰	1919		中區수창동 89			宅 252-8915	630
弘 相	1957		" " 79			宅 22-4974	630
鉉 武	1941		" 덕산동 127-4			宅 46-9179	630
岩 善	1943		" 동인 4가동 330-2			宅 46-0365	630
이 甫			" " 1가동 115			宅 22-4974	630
浩 鍾			" 태평로 1가 1			宅 45-8361	630
憲 正	1912		" 대안동 78-1			宅 44-9319	630
福 基		海陵君	" 三德洞 2街 228-12			宅 45-8361	630
鍾 善		"	" 東仁洞 3街 228 동인아파트 1동 15호			宅 46-0346	630
燮 光		"	" " 4街 5014			宅 46-0346	630
燮 連		"	" " 4街 3 1/1			宅 44-6126	630

〈仁川直轄市〉

姓名	生年	系派	現住	所	職場 및 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植重光	1919	佐郎公	南區朱安 4洞 416-14 30/3				宅 425-1659	160-01
植重光	1914	佐郎公	" " 1537-44 신덕주氏方	17/1		國民校長	宅 425-1479	160-01
植重光	1932		" 間石 2洞 142-12			陸軍少領	宅 423-1783	160-01
禹鉉	1946	"	" 九月아파트 103동 406호				宅 423-0058	160-01
乘愛	1926	判司僕公 寺	" 論峴洞 513				宅 422-6696 직 서을 713-9441	160-01
成根		校理公	" 青鶴洞 211-2				宅 89-2718	160-01
澤根		"	" 論峴洞 100					160
俊根		"	" " 1洞 69					160-01
秀根		"	" 論峴洞 70					160-01
炳哲		"	" 道禾洞 407 1/1					160
錫周		"	" 朱安 1洞 280-2 천우아파트	205호				160-01
承德		"	" 龍峴 1洞 132-142 9/3					160
敏壽		"	" 九月洞 3-17					160-01
明植	1930	海陵君	" 우련동山 73		仁川教育委員會 장 사		宅 83-3678	160
鍾喆	1917	司正公	" 朱安洞山 12-38		大仁病院副院長		宅 83-3805 직 94-0081~6	160-01
豎	1923	佐郎公	" 延壽洞 207 2/2					160
承敏	1914	"	" 道禾 3洞 5				宅 3-3829	160
平溥	1917	判司僕公 寺	" 論峴洞 98				宅 89-2069 2590	160-01

姓名	生年	系派	現住所	職場 및 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珍哲	1957		南區朱安 5洞19-81 테화아파트 D동 503호			직 724-9737	160-01
光漢	1916	佐郎公	" 道禾 1洞 421-9 21/1			宅 862-8889	160
光台	1914	"	" 龍峴 2洞 627-323 25/4				160
鎮永	1919	"	" 萬壽 1洞 152-10 5/3				160-01
煥재		司正公	" 朱安 1洞 200-21 21/5			宅 82-1612	160-01
煥鎭		"	" 남촌동 339			宅 422-6605	160-01
鎭鎭		"	" 간석동 550			宅 422-2783	160-01
鎭鎭		"	" 구월동 558				160-01
鎭鎭		"	" 구월동 224			宅 422-0572	160-01
鎭鎭		"	" 남촌동 262				160-01
鎭鎭		"	" 도림동 513				160-01
鎭鎭		"	" 남촌동 261				160-01
鎭鎭		"	" 도화 1동 624-380 30/1			宅 83-9411	160
鎭鎭		"	" 동춘동 465				160
鎭鎭		"	" 도림동 253				160-01
鎭鎭		"	" 論峴洞				160-01
鎭鎭		"	" 論峴 2洞 38				160-01
鎭鎭		典翰公	" 도화동 634-117 8/3				160
鎭鎭		司正公	" 朱安 5동 13-2 광명아파트 4동 201호			宅 82-6413	160-01
鎭鎭	1935	"	" 東春洞 555			宅 82-7829	160
鎭鎭	1931	"	" 九月洞 556			宅 422-6539	160-01
鎭鎭	1915	"	" 南村洞 339			宅 423-6652	160-01
鎭鎭	1936	"	" 朱安洞 268-5 20/1		廣川農校長	宅 82-4039	160-01

姓名	生年	系派	現住所	職場 및 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吳成燮		海陵君	南區朱安洞 200-21	工博 仁荷大教授			160-01
在亨		典翰公	" 朱安 6洞938-1 朱安아파트 14동 201호			宅 422-5045	160-01
在鎭			" 鶴익동 413-1 장미아파트 15동 303호			宅 83-6765	160
在宗			" 文鶴洞 164 8/3				160
在宗			" 論峴洞				160-01
在宗			" "				160-01
在宗			" "				160-01
在光			" 朱安洞 1250				160-01
在斗	1919		" 間石洞 511 송림아파트 6동 503호			宅 422-0922	160-01
在承			" 龍峴 3洞 456				160
在光			" 朱安 1洞 920-2				160-01
在光			" 옥련동 405-36			宅 83-9119	160
在光			" 승의동 437-15				160
在承			" 승의 2동 3-65				160
在河			" 도화동 597 15/2				160
在承			" " 66 10/5				160
在承			" 용현 2동 510 4/3			宅 2-6160	160
在承			" 승의동 242-6				160
在光			" 朱安 2洞 3/5				160-01
在東			" " 4洞 250 16/5				160-01
在光			" 동춘동산 53				160
在應			" 朱安 2洞 642 29/1				160-01
在達			" 동춘동산 52 4/2			宅 84-3858	160

姓名	生年	系派	現住	住所	職場 및 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承俊			南區間石洞 268-17	19/7				160-01
年植			" 翁현 4동 213	19/6				160
存畵			" 朱安 1洞 265-21					160-01
光禹			" 도화동 73-4					160
泰周			" 만수동山 8-2	36/4				160-01
周泰			" 논현동 111	8/3				160-01
周泰			" 용현 3동 459-7	6/3				160
錫源			" 崇義 2洞 182-16	9/6				160
光益			" 간석동 50	주공아파트 23동 403호				160-01
萬炯		司評公	" 청학동 3	9/7				160
坦相		"	" 九月洞 九月아파트	231동 208호				160-01
承壽	1936	"	" 朱安 1洞 385-10					160-01
文植	1956	佐郎公	" 間石洞 159-14		會社		宅 423-7015	160-01
永和		"	" "1洞 731-1		"		宅 425-1264	160-01
奎泰	1934	進士公	" 朱安 7洞 1493-29	32/1	"		宅 423-6995	160-01
連燮		副司果公	" 崇義 4洞 동일아파트	B동 305호	商		宅 678-0676	160
昌植	1911	海陵君	" 朱安 4洞 1563-32				宅 82-0364	160-01
根經		佐郎公	" 崇義洞				宅 72-2798	160
陸泰		校理公	東區松林 1洞 181	1/3			宅 882-0455	160
均泰		"	" " 6洞 25	5/2	방 아 간			160
珍泰		"	中區鐵洞 18					160
		司正公	東區松林洞 61-7	1/3			宅 72-2553	160
							宅 74-7128	160

姓名	生年	系派	現住所	職場 및 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申忠順		司正公	東區松林 3洞 59 15/4			宅 74-0042	160
植南			中區崇義 3洞 18통 4반				160
植誠			東區花水洞 5 7/2				160
植南			" 松林 6洞 32 11/3				160
鉉春			中區북성동 2가 12 6/6				160
植光			東區松林 6洞 25 4/1				160
忠奎			" " " 16/2				160
植仁			" " 5洞 57 7/8				160
植奎			" 松峴 4洞 66 3/3				160
昌光			東區松林洞 10 4/6				160
植奎			" " 6洞 13 16/1				160
權復	1945	副司果公	" 花水洞 198 1/2	商			160
圭光	1935		" 松林 6洞 51	事		宅 421-1393	160
一泰	1943		" 松峴洞 56				160
天光	1934		中區港洞 7街 60				160
			北區富平 1洞 65 최수만方			宅 92-9307	160-70
			" " 2洞 751 10/4	새한 자동차 (株)		宅 5-4194 직 92-0091~8 交 476	160-70
鎬重	1937	典翰公	" 효성동 320-4 (단위미술학원)	단위 미술 학원 사		宅 92-2455 (0339) 8-3405	160-70
필동		校理公	" 富平 2洞 760				160-70
燮春		縣監公	" " 251				160-70
道正		海陵君	" " 1洞 54 13/4			宅 5-0847	160-70

姓名	生年	系派	現住	住所	職場 및 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鍾 燮	1942	海陵君	北區호성동 556-1 동오아파트 B동 504호					160-70
萬 載	1920	佐郎公	" 山谷洞 87 6/6				宅 92-3044	160-70
載 旭	1927	監察公	" 富平洞 65		화순중기 代表理事(영등포)		宅仁川 92-7460 직서울 779-2267	160-70
榮 在	1951	進士公	" 鵲田洞149-2 大成住宅나동 203호 6/5		東瑞文化社 次長		宅仁川 522-8230 직 83-1543 862-9461	160-70
의 紳		司正公	" 부개동 53-47				宅 93-0628	160-70
魯 植		進士公	" 石南洞山 5 35/3					160
承 龍	1913	佐郎公	" 黔岩洞 453 6/1					160
根 植	1914	"	" " 326					160
相 起	1948		" 富平 1洞 451-5 18/6					160-70
炳 植	1918	校理公	" 富開洞 441		韓國日業 營 報 社 部		宅 92-9307 직 722-2447 722-4364	160-70
老 中		典翰公	" 가좌동 143-118 13/5				宅 93-7523	160-70
永 俊			" 十井洞 174 이석기方 8/7				宅 82-4734	160
源 鎮		典書公	" " 439-12				宅 522-1138	160-70
光 日			" 富平洞 753-42 14/2				宅 422-8863	160-70
成 春			" 작전동 283					160-70
龍 龍			" 黔岩洞 453					160
鎮 龍			" 富平 4洞 23/2					160-70
相 勳		司評公	" 가좌동-410 5/3					160
儀 重	1943	縣監公	" 山谷 2洞					160-70
炳 翼			北區富平 5洞 부평아파트 7동 104호					160-70

〈京畿道〉

姓名	生年	系派	現住	所	職場 및 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在玟	1925	典翰公	光明市光明 2洞 54-2				宅 612-1458	150-07
丙琳	1909	校理公	" 光明洞 288-78				宅 612-1237	150-07
炳柱		"	" " 85-10					150-07
成植		"	" " 6-23					150-07
喆壽	1937	"	" " 7洞 41-272		祐榮商社		宅 612-9142 직 272-1529	150-07
載完	1950	監察公	" " 4洞 158-716 9/10				宅 612-2926	150-07
秉浩	1931	縣監公	" 철산 4洞 71-21 8/2					150-07
明洙	1947	"	" 光明 1洞 6-12				宅 612-8167	150-07
德鎬		典翰公	" 光明 4洞 158-789 光明 4거리		몽불랑제과점		宅 612-0592	150-07
昌永	1930	承旨公	" 下安洞 철산주공아파트 120동 106호				宅 612-8671 직 2-4761	150-07
昌休	1941	"	" " 주공아파트 117동 402호					150-07
晚基	1954	進士公	" 鐵山 1洞 光復아파트 20동 502호		금강블트기업代表		직 677-1445	150-07
建鎬		典翰公	" 철산 1동 56-46 동양타운 206호		건축업		宅 612-3261	150-07
석호		"	" 光明 4洞 158-789		商		宅 612-0592	150-07
昌燮		海陵君	" 光明洞 158-1134				宅 685-9900 직 614-2153	150-07
永來		松理公	東豆川市生淵洞 수도여관					130-36
善植		"	" " 5里					130-36
奉植		"	" " "					130-36
承律	1910	佐郎公	富川市深谷 3洞 95					150-71

姓名	生年	系派	現住所	職場 및 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用基	1923	佐郎公	富川市素砂洞 284-39 16/4	富川南國民校長 (深谷 1 洞)		宅 62-1341 校舎宅 62-3864	150-71
壽燮		監察公	深谷 2洞 302-44				150-71
錫禹	1923	大寧君	원중동 삼부아파트 A2동 502호			宅仁川 63-8673	150-71
世銀		司正公	深谷 1洞 728-3 청마펜손 202호			宅 652-8967	150-71
熙珪	1921	大寧君	深谷 3洞 92-1				150-71
元燮		典翰公	遠宗洞 157 1/3	韓國통가王國 友好協會委員長		宅 032-62-1056	150-71
元燮			驛谷洞 20-1			宅 652-5787 직 032 64-7045	150-71
義培			深谷 2洞 489-39	漢藥房 서예가			150-71
鍾錫			2-20 태양연립주택 2次 1동 2층 201호				150-71
光煥			深谷 2洞 589 해동약국				150-71
光燦			深谷洞 540 해동여인숙				150-71
承佑			삼정동 85 3/3				150-71
倣鉉			상동 9 2/2				150-71
政益			深谷洞 163-5	公務員		宅 63-9991	150-71
承萬			松內洞 삼익아파트 3동 130호	漢城高等學校 敎師		宅 64-2509	150-71
載一	1955	佐郎公	驛谷洞 105-7 2/13			서울직 362-0783	150-71
基善			深谷 1洞 745-15 5/16				150-71
德洙			深谷 1洞 745-15 5/16			宅 64-9854 직 62-6165	150-71

姓名	生年	系派	現住	所	職場 및 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萬鍾燮	1935	副司果公	富川市素砂洞 51 5/5		商			150-71
宇庸		"	深谷洞 530-54					150-71
泳		海陵君	素砂 2洞 78-22				宅 652-2395 직 64-0348	150-71
大植		"	素砂洞 302-15					150-71
英正	1932	海陵君	城南市銀杏洞 2266 3/2					130-14
同均		校理公	太平洞 6818				宅 3-5985	130-14
鎮		"	泰平 3洞 4720					130-14
祐植		"	泰平 1洞 6868					130-14
信俊		"	丹垓 2洞 770-23-4					130-14
赫		"	신흥 1동 195-39					130-14
赫		"	상대원 3동 460-11		會社			130-14
鎬	1958	副司果公	신흥 1동 185-8		會社		宅 44-0600~2	130-14
鎬		"	" 2동 대성연탄관매소					130-14
鎬		"	" 2동 대성연탄관매소					130-14
鎬		海陵公	銀杏 2洞 150-3					130-14
鎬		海陵君	銀杏洞 603-74 13/5					130-14
鎬		"	太平 2洞 169		會社		宅 43-0136	130-14
鎬	1942	佐郎公	신흥 2동 1730		會社			130-14
敏		典翰公	松炭市新長 2洞山 45					180-85
東		大寧君	聲北洞 大成漢藥房				직 平澤 4-6012	180-85
祐		"	신흥 2동 317-61 4/7		王子商會		宅 4-4228	180-85
壽		"	芝山洞 189					180-85

姓名	生年	系派	現住所	職場 및 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植 鎮	1953	佐郎公	松炭市 신강동 山 50	會 社 員		180-85	
泰 映 (炳股)	1926	校理公	水原市亭子洞 白鳥아파트 107-202	本 國 民 校		宅 5-2261 직 半 月 443	170
寬 植	1926	佐郎公	" " 547-9			宅 5-1372	170
完 載	1946	海陵君	" 校洞 39-3			宅 2-5767	170
在 赫	1923	典翰公	" 매 탄동 주공아파트 38-407호	金 成 通 心 僱			170
亨 燮	1923	承旨公	" 細柳 1洞 252-5				170
福 承	1938	佐郎公	" 華西洞 서문아파트 2동 210호			宅 7-1932	170
道 植		"	" 迎華洞 143-3			宅 6-0804	170
東 植	1938	佐郎公	" 細柳 1洞 75-13	養 豚		宅 7-0315	170
海 植		校理公	" 勸善洞 226-40 4/1				170
승 孝	1924	典翰公	" 지 동 309-4 8/5				170
在 玠		典翰公	" 梅香洞 25				170
源 玠		佐郎公	" 매 교 동 179-6				170
光 三	1955	佐郎公	" 신매 탄아파트 113동 206호	商 業			170
基 豐	1944	副司果公	" 華西洞 184-328 황제 맨 손 다 동 302호			宅 42-8928 직 33-9550	170
基 培	1950	"	" 細柳洞 150-17 5/2	"		宅 34-6221	170
有 煥	1925	"	" 細柳洞 150-15	"			170
皓 哲		"	" 鍊武洞 61-68			宅 5-7096	170
장 曄	1942	典翰公	" 華西洞 華西 맨 손 아파트 나 동 304호				171
鋪 承	1924		安養市 安養 2洞 689-180				171
承 烈	1899		" 石水 1洞 韓都아파트 1-202			宅 0343-3-3484 宅 0343	171
			" 安養 6洞 523-11 9/2			43-5332	171

姓名	生年	系派	現住所	職場 및 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炳疇		校理公	安養市石水洞 307			직安養 2-4400	171
鴻基	1949	"	" 安養洞 785-3			宅 2-8511	171
榮均	1912	"	" 호계동 811 경향아파트 1동 503호			宅 52-3964	171
植植	1932	佐郎公	" 호계동 704				171
鈺		"	" "1동 960 16/5	동양나이론(株) 과		宅 53-5973	171
聖	1926	"	" 安養 6洞 588	계		직안양 52-4177	171
承吉		"	" 博達洞 57				171
表燮		佐郎公	" 관양동 587 海州食堂 13/4				171
植燮		副司果公	" 평촌동 59-9 성우맨손 1동 101호				171
壽植	1920	佐郎公	" 安養 3洞 1012-1				171
喆植		監察公	" 飛山 2洞571-10 동산아파트 A동403	太陽堂代表		宅 43-2768	171
植守		"	" 安養 1洞 622-216			宅 3-1221	171
龍守		"	" 飛山洞 住公아파트 119동 402호				171
憲龍		"	" 安養 4洞 676-138 막다구리스포츠				171
壽植		"	" 安養 5洞 622-366 忠南이발관				171
貞植		司評公	" 飛山洞 433 주공아파트 139동 203호				171
潤植		"	" 冠陽洞 173 6/3				171
燮植		佐郎公	" 비산동 부흥아파트 B동 302호	부흥사생산과장		직 857-3111	171
燮植		進士公	" " 491	會社員		宅 42-2071	171
政燮		監察公	" " 삼호아파트 3동 413호			宅 43-1172	171
甲	1939	副司果公	" 安養 6洞 535-22	商		직안산 82-8146	171
伊燮		"	" 安養洞 627-72			宅 52-3111	171

姓 名	生 年	系 派	現 住 所	職 場 及 職 位	經 歷	電 話 番 號	우 편 번 호
京 燮		副司果公	安養市安養 7洞151-3 장미연립 가동 206호				171
明 根		校理公	議政府市佳陵 1洞 208 10班				130-30
光 俊			" " " 368-46				130-30
光 雲			" " " 351-22				130-30
植 敬			佳陵洞 242				130-30
桓 坦		司評公	" 의정부동 121-7			宅 2-6590	130-30
식 賢	1940		江華郡兩寺面덕하리 306	양사면 사무소근무		宅 양사 5622	150-26
東 敏	1928	校理公	" 喬桐面三仙里			宅 교동 424	150-32
永 敏		"	" 江華邑新門里 2-4				150-20
根 根		"	" 喬桐面난정리				150-32
根 根		"	" 江華邑 觀청리 176				150-20
헌 根		"	" 喬桐面 동산리 150-32				150-32
竣 根		"	" 江華邑 新門里 538				150-20
種 俊	1951	佐郎公	" 喬桐面 上龍里 7			宅 교동 354	150-32
炳 七		校理公	" 河站面 望月里 다운부락				150-28
炳 允		"	" 內可面 오상 2里 교상골				150-29
龍 煥	1918	佐郎公	" 喬桐面 三仙里				150-32
根 根		校理公	" 吉祥面 溫水 3里 141				150-23
變 變	1914	典翰公	" 江華邑 新門里 310			宅 2-7392	150-20
萬 變	1935		" " " 550				150-20
永 變	1931		" " 觀청리 450				150-20
賢 男	1958		" " 新門里 231				150-20
八 成	1926		" 河站面 신삼리 966				150-20

姓名	生年	系派	現住所	職場 및 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虎聲			江華郡喬桐面 上龍里 2				150-32
鍾種			" " 古龜 1里 石峴洞				150-32
鍾基			" " " " "				150-32
鍾文			" " " " "				150-32
永遠			" 西島面注文島里 鎮村				150-33
永龍		校理公	高陽郡지도면 행주 2里 101				100-61
炳萬		"	" 神道邑 龍頭 2里 山 68			宅 384-4336	122
炳惠		"	" " 화전 2리 454-23				122
萬鉉		海陵君	" 一山邑 馬頭 4里 213				100-62
鉉		"	" " " " 221		前中面面長	宅 62-3090	100-62
鉉		"	" " " " "				100-62
鉉		"	" " 馬頭里				100-62
茂承		"	" " " 221-1				100-62
卍承		"	" " " "				100-62
聖淳		佐郎公	" " 一山市內 대흥상회				100-62
嚴承		"	" " 장항리				100-62
鉉應		"	" 松浦面 大化 3里				100-64
鉉濟		"	" " " "				100-64
祚承		佐郎公	" 松浦面 大化 3里				100-64
植重		"	" " " "				100-64
植榮	1906	佐郎公	金浦郡霞城面 後坪里 180				150-15
善永		校理公	" 金浦邑 豐舞里 신수동				150-10
根連		"	" 陽村面 도사리 341				150-12

姓名	生年	系派	現	住	所	職場 및 職位	經	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炳益		校理公	金浦郡陽村面	道沙里						150-12
炳玄		"	"	桂陽面	진도관앞					160-17
炳早		"	"	陽村面	마산리 2					150-12
炳夏	1929	佐郎公	"	霞城面	後坪里					150-15
炳模	1928	"	"	"	"			宅	6-1040	150-15
炳順		"	"	月串面	응정리					150-14
炳植		"	"	黔丹面	마진리 山 88					150-10
炳星		"	"	陽村面	양곡리 475					150-12
炳完	1928	縣監公	"	月串面	玉溪里					150-14
炳善	1923	"	"	"	葛山 2里 139					150-14
炳學	1947	縣監公	"	通津面	西岩里 759					150-14
炳祐	1945	"	"	陽村面	道沙里					150-12
炳星	1934	"	"	"	"					150-12
炳載	1910	"	"	金浦邑	場基里 222	雲谷			宅 2-3267	150-10
炳赫	1922	佐郎公	"	大串面	大碧里 554				宅 6-1297	150-13
炳璇	1917	"	"	霞城面	後坪里				宅 6-4073	150-15
炳基	1943	"	"	"	"					150-15
炳基	1953	"	"	"	"					150-15
炳基	1955	"	"	"	"					150-15
炳基	1944	"	"	"	"					150-15
炳根	1947	"	"	"	"					150-15
炳起	1935	"	"	"	"					150-15
炳男	1944	"	"	"	"					150-15

姓名	生年	系派	現住	所	職場 및 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重福	1948	佐郎公	金浦郡霞城面 後坪里					150-15
重錫	1950	"	"					150-15
炳春	1944	"	"					150-15
重明	1954	"	"					150-15
炳燮	1944	"	"					150-15
重烈	1957	"	"					150-15
炳國	1921	"	"					150-15
基基	1942	"	"					150-15
基春	1961	"	"					150-15
炳億	1935	"	"					150-15
重敦	1960	"	"					150-15
炳甲	1942	"	"					150-15
炳聖	1939	"	"					150-15
重善	1945	佐郎公	"					150-15
炳勳	1924	"	"					150-15
炳大	1934	"	"					150-15
植泰	1934	"	"					150-15
植華	1936	"	"					150-15
炳學	1925	"	"	金浦邑 사우리 255-10 칠성아파트 다동 306호	業 事		宅 741-4908	150-10
甲烈	1937	海陵君	廣州郡초월면 산 2里					130-12
允炯		司評公	" 西部面 甘北里 266-61					130-11
泳夏	1920		" 東部邑 덕풍리 326-95					130-11

姓名	生年	系派	現住所	職場 및 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光元	1918	佐郎公	南楊州郡九里邑 水澤里 436			宅 2-2918	130-38
英植		縣監公	" " 교문 8리 233-41			宅 7-3019	130-38
賢根	1915	校理公	" " 漢金邑 芝錦 2里 392			宅 7-2766	130-73
光赫	1915	佐郎公	" " 九里邑 仁倉里				130-38
炳烈	1912	副司果公	" " 眞乾面 龍井里 719-14		高等學校長		130-72
光義			" " 九里邑 水澤 9里 390-49				130-38
忠植			" " " 仁倉里 326				130-38
乙壽	1956	佐郎公	" " " 6里 583-2	정원공작소		宅 2-5850 직 2-4711	130-38
光大			" " 仁倉里 458-3				130-38
光律			" " " 520-10				130-38
義植		進士公	" " 진접면 장현 1리				130-39
根星	1911	佐郎公	始興郡蘇萊邑銀杏里 364				150-72
永星		校理公	" " 秀岩面 草下里 252				171-12
圭植	1919	"	" " 果川面 別陽洞 32-3			宅 502-9547	171-11
植植			" " 의왕읍 학의 2리				171
植植			" " " "				171
雨植			" " 蘇萊邑 浦里 1리				150-72
植植			" " " 新川 3里			宅 62-9341	150-72
會謙			" " " "			宅 62-9356	150-72
長植			" " " "				150-72
雲植			" " 근포읍 근포리 120				171
廣植		佐郎公	" " 儀旺邑 학의리 山 68-1	農			171

姓名	生年	系派	現住所	職場 및 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永承	1927	進士公	始興郡果川面 住公8단지아파트 811동202호	首都軍團陸軍中領		宅 502-5782	171-11
明成		副司果公	" 軍포읍 당 7里 259-5			宅 33-1772	171
仁(仁鉉)	1915	典書公	" 果川面 住공아파트 275동 104호	外科醫師		宅 502-4712	171-11
淵植		佐郎公	" 果川面 8단지 住공아파트 802동702호	中央機械			171-11
載炳	1936	監察公	安城郡安城邑 城南洞 308				180-20
昇載	1943	"	" " 桂洞 85	安城女子商高校		宅 6687	180-20
珪康	1933	典翰公	" " 元谷面 龍耳里			宅 3704	180-20
在在	1930	"	" " 上芝文里 191			宅 4559	180-20
正英	1952	"	" " " 458			宅 2400	180-21
壯學	1956	"	" " " 222			宅 6687	180-21
在在	1917	"	" " " 219	公務員		宅 3288	180-21
在在	1918	"	" " " 227			宅 3295	180-21
在在	1940	典翰公	" " " 219				180-21
在在	1937	"	" " " 225			宅 3292	180-21
在在	1923	"	" " " 224	公務員		宅 3371	180-21
在在	1936	"	" " " 219			宅 3226	180-21
		"	" " " 231				180-21
		"	" " " 222				180-21

姓名	生年	系派	現住	所	職場及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在元奎	1930	典翰公	安城郡 元谷面 上芝文里 223					180-21
在奎	1937	"	" " " " 236					180-21
在九烈	1938	"	" " " " 237		教育公務員		宅평택 53-3291	180-21
在烈	1935	"	" " " " 458					180-21
變重	1923	"	" " " " 241				宅평택 53-3290	180-21
變熙	1926	"	" " " " 222					180-21
在璇	1925	"	" " 下芝文里 449					180-21
在俊	1934	典翰公	" " " " 458					180-21
在鎬	1952	"	" " " " 458				宅평택 53-3463	180-21
在慎	1934	"	" " " " 455				宅평택 53-3467	180-21
在衡	1920	"	" " " " "					180-21
變熙			" 三竹面 內長里 178					180-25
變忠			" " " " "					180-25
變載	1952	監察公	" " 가현리 142					180-25
變五	1939	"	" " " " "					180-25
變潤	1933	"	" " " " "					180-25
變植	1910	"	" " 眞村里					180-25
變俊	1914	監察公	" 古三面 雙芝里 873					180-24
變允	1920	"	" " " " 856					180-24
變載	1924	監察公	" " " " 552					180-24
變宗	1925	"	" " " " 881					180-24

姓名	生年	系派	現住	所	職場 및 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煥	1925	監察公	安城郡 古三面 雙芝里 539					180-24
晉龍	1930	"	" " " 856					180-24
龍	1930	"	" " " 549					180-24
載	1934	"	" " " 554		서남국교교사			180-24
炳	1941	"	" " " 780					180-24
載	1943	"	" " " 554					180-24
承	1944	"	" " " 539					180-24
琦	1944	"	" " " 927					180-24
春	1946	"	" " " 881					180-24
善	1946	"	" " " 588					180-24
鉉	1952	"	" " " 552					180-24
西	1951	"	" " " 558					180-24
雄	1956	"	" " " 592					180-24
善	1961	"	" " " 539					180-24
甲		"	陽城面 防築里 468				宅 7683	180-23
燮		校理公	安城邑 新興洞 207-24					180-20
德	1935	監察公	古三面 雙芝里 539					180-24
武	1929	"	" " " "					180-24
燮	1915	"	孔道面 진사리					180-24
俊	1905	佐郎公	安城邑 桂洞 88					180-22
植	1922	"	이죽면 용실리					180-20
溥		典翰公	三竹面 內長里 178					180-26
燮		"	三竹面 內長里 178					180-25
貞		"						180-25

姓名	生年	系派	現住	所	職場 및 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在鎬		典翰公	安城郡 三竹面 內長里 151					180-25
在明		"	" 二竹面 長溪里					180-26
在和		"	" 陽城面 防築里 492				宅 7344	180-23
在春			" 미양면 신기리 38				宅 미양 222	180-33
在豐	1935		" 一竹面 화봉리					180-27
在文			" 孔道面 蠅頭里 62					180-22
在洙	1953		" 미양면 新古地里					180-33
在五	1922	典翰公	" 陽城面 防築里 446				宅 7126	180-23
在安	1912	監察公	" 古三面 雙芝里 592					180-24
在善	1917	"	" " " 490					180-24
在善	1938	"	" 대덕면 토현리 124					180-29
在奭	1929		" 陽城面 名木里 176 송말					180-23
在煥	1933		" 미양면 고지리 409					180-33
在賢			" 孔道面 하마정리					180-22
在賢			" 陽城面 名木里 165					180-23
在寬			" 陽城面 防築里 222					180-23
在호			" 安城邑 新興洞 413					180-20
在鎬		典翰公	" 大德面 內里 125-1		商		宅 7613	180-29
在환	1916	"	" 元谷面 芝文里 225					180-21
在은	1954	"	" " " 219					180-21
在호	1953	"	" " " 458					180-21
在형	1935	"	" " " 460					180-21
在섭	1955	"	" " " 240-3				宅 영택 53-3287	180-21

姓名	生年	系派	現住	所	職場 및 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秉玉植	1923	佐郎公	楊州郡 隱縣面 鳳岩里 417				宅은현 77	130-37
明益植		"	" "					130-37
秉蘭植		"	南面 閑山里 574					130-33
賢根植		"	隱縣面 하패리					130-37
承辰植		校理公	미금면 지금 2리 392					130-73
萬承植		佐郎公	檜泉面 檜亭里 47					130-35
承萬植		"	" 德亭里 250					130-35
恒德植		"	州內面 晚松里 고지내					130-30
秉恒植		"	隱縣面 上牌里					130-37
龍圭植		"	" 鳳岩里					130-37
泰植		"	" "					130-37
承植		"	" "					130-37
萬一植		"	" "					130-37
富燮植		佐郎公	" 鳳岩里					130-37
熙燮植		"	南面 華山里 285					130-33
寬熙植	1919	佐郎公	隱縣面 鳳岩里					130-37
興寬植	1924	"	南面 상수 1리 444					130-33
和植		"	" 신암리					130-33
斗成植		"	楊平郡 楊東面 金旺 2里					130-87
文燮植		佐郎公	驪州郡 驪州邑 陵峴里					172-20
鴻植		"	漣川郡 全谷面 全谷 4里 16반					130-40
炳國植		校理公	" 청산면 궁평 1리 1반					130-40
炳旭植		"	甕津郡 龍遊面 덕교리					160-13

姓名	生年	系派	現住	所	職場 및 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傅信		典翰公	龍仁郡 二東面 魚肥里	放木洞				170-42
尙乘		"	" " " "	"				170-42
燮有		"	外四面 勇泉里					170-45
夏乘		"	南四面 元岩里					170-43
哲載	1933	監察公	원삼면 목신리	634				170-44
權載		"	外四面 근삼리	강촌				170-45
植秀	1918		駒城面 寶亭里	394				170-73
식운	1939	佐郎公	南四面 안장리	689				170-43
승복			" " 봉주리					170-43
植園			水枝面 豐德川里	83				170-33
燮洪			" " 竹田面	505				170-33
燮亨			" " " "	575				170-33
元鍾		海陵君	遠三面 學日里	517				170-44
相乘			水枝面 竹田里	507				170-33
學老			" " " "	502				170-33
榮承			" " " "	575				170-33
允映			南四面 防牙里					170-43
煥源			" " 衙谷里	248				170-43
泰大			駒城面 彥南里	367-3 오진문방				170-73
燦鍾		海陵君	遠三面 竹陵里					170-44
乘天	1938	監察公	利川郡 利川邑 倉前里	金星不動產				172
載斗	1913		" 大月面 夫中里	105				172-11
			坡州郡 조리면 너조	2리 450				100-71

姓名	生年	系派	現住所	職場 및 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동개	1908	典翰公	坡州郡 조리면 너조 2리 505				100-71
永在		"	交河面 西牌里 213				100-73
龍寬		"	" 月籠面 德隱里 666				100-73
萬植	1913	佐郎公	州內邑 향양 1里				100-75
萬榮		校理公	조리면 봉일천리 80				100-81
植夏		佐郎公	泉峴面 熊潭里 동두라지				100-71
宇宇	1928		州內邑 연풍리 296				100-82
명己	1925		交河面 西牌里	화생당 한약방		宅주내 4-4363	100-81
老植			" 主내읍 향양리				100-73
植旦			" 光탄면 방후 1리				100-73
植根	1926	佐郎公	平澤郡 彭城邑 老瓦里				100-81
根根		校理公	浦升面 洪原里				100-74
業普		"	梧城面 安仲里 265				180-11
周炳		"	" 山 69				180-14
哲天		"	浦升面 洪原里 山 20				180-12
德載		"	平澤邑 蛤井里 通味洞				180-12
珉錫	1916	監察公	" 平澤里 73-1				180-14
在光		典翰公	平澤邑 通伏 2里 77	商		宅 2-2627	180
명재		典翰公	彭城邑 老瓦里			宅 2-2316	180
		典翰公	平澤邑 蛤井里 486-17	公務員			180-11
		典翰公	平澤邑 通伏 2里 60-2	公務員			180

姓	名	生年	系派	現	住	所	職場 및 職位	經	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구재	섭		典翰公	平澤郡 平澤邑 비전 8리 473			公務員				180
구동	섭		"	" 신흥리			公務員				180
구태	환	1935	副司果公	" 彭城邑 安亭里山 18			公務員			宅 53-4169	180-11
구태	환			抱川郡 永化面 雲川 6里 한일락주							130-40
구태	환		左尹公	" 二東面 道通里 한일양조							130-53
구태	환	1917	大寧君	" 一東面 水入里 626							130-52
구태	환			" 內村面 花峴里							130-51
구태	환			" " "							130-51
구태	환			" " "							130-51
구태	환	1922	大寧君	" 一東面 水入里 622							130-52
구태	환			" " "							130-52
구태	환	1915		" 근내면 웅정 一里							130-50
구태	환	1959		" 內村面 花峴里							130-51
구태	환			" 一東面 사직 1里 382							130-52
구태	환		左尹公	華城郡 長安面 漁陰里 705			長安우체국				170-25
구태	환		校理公	" 팔탄면 덕우리 방농장入口							170-22
구태	환	1940	海陵君	" 正南面 普通 3里							170-32
구태	환		司正公	" 남양면 남양 6리						宅 남양 64 직仁川422-1568	170-12
구태	환			" 동탄면 반송리							170-83
구태	환			" 남양면 문호리							170-12
구태	환		海陵君	" 正南面 普通里						宅 2-3596	170-32

姓名	生年	系派	現	住	所	職場	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哲		海陵君	華城郡	正南面	普通里				宅바란 2-3596	170-32
文		"	"	"	"				宅 2-4110	170-32
錫		"	"	"	"				宅 2-3596	170-32
載		"	"	"	"				宅 2-4110	170-32

〈江原道〉

姓名	生年	系派	現住	所	職場 및 職位	經 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鳳相	1951	大寧君	東海市사문동 15번				宅 2-2235	211
淳寅	1909	"	東草市中央洞 496-2 11/4				宅 2-2235	210-20
龍炳		"	" " 477				宅 3-1218	210-20
益瑞		校理公	原州市단구동 136-4 4/7					220
俊德	1923		" 鶴城洞 12/1					220
壽海		佐郎公	" 평원동 252					220
汶植	1942	大寧君	" 牛山洞					220
			春川市퇴계동 395-14		강원도테권도협회		宅 2-5182 宅 2-4571	200
雲炳		校理公	" 雲橋洞 38					200
均宗		"	" 藥司洞 43-2					200
均世	1936	"	" 竹林洞 7-6		王子食品		宅 4-1976 宅 3-5640	200
善載			" 孝子洞 114-124			농협江原道支部長, 江原은행진무	宅 2-3351	200
植保		大寧君	" 校洞 73-14 4/3		江原도경장 기획감사실장		宅 2-9654 宅 52-4858	200
昌溥			" 竹林洞 28-23		中央市長장춘상회		宅 2-3187 宅 2-3280	200
均明		校理公	" 后坪洞 292-2					200
華承		大寧君	" 碩士洞 496-6				宅 3-3092	200
鉉大			" 孝子 1洞				宅 4-0543	200
鉉小			" 孝子 1洞 3통 3번				宅 4-0195	200

姓名	生年	系派	現住	所	職場 및 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鉉圭			春川市孝子 3洞				宅 2-1533	200
澤承			" " 2洞				宅 2-8507	200
鉉元			" 雲橋洞 云교여관				宅 2-7428	200
溥相			" 孝子 2洞 영춘상회				宅 2-5928	200
鉉春			" 藥司洞 1區 9동 1반				宅	200
振承			" 司農洞 217				宅 4-0453	200
熙光			" 근화동 313 9/3				宅	200
炯利		司評公	" " 62-2				宅 2-3050	200
影錫			太白市황지 3동 8동 1반					241-11
錫周			" " 2동 5동 4반					241-11
鎬哲			" " 1동 4동 3반					241-11
聖源			" 통리					241-11
炳濟			" 化전 1동					241-11
濟在	1913	典書公	" " 2동 1반					241-11
文錫			高城郡土城面아야진리 1區 2반					210-31
錫恒			三陟郡遠德邑기곡리					240-15
烈洪	1941		" 道溪邑興田 2리					240-73
錫萬	1930		증산아파트 1동 2층 3호					240-15
健智	1928	大寧君	遠德邑柵川里					200-32
錫鎬			" " "					200-30
植善			楊口郡남면 죽 2리					220-82
昌燮	1935	大寧君	" 楊口邑 上 6里 1반					230-79
			原城郡神林面城南里 1구 2반	旌善郡舍北邑古汗15里 三陟炭座淨菴礦業所	教務課 長		宅古汗2671~5	

姓名	生年	系派	現住所	職場 및 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將煥			旌善郡旌善邑德松 1里				230-20
在守			" 舍北邑古汗 1里				230-79
玩燮		副司果公	" " 古汗里				230-79
炳敦		校理公	鐵原郡근남면옥단리 6반 금남 17-49	초원다방		52-5087	250-52
東植			" 갈말읍지포리 3반				250-50
根植			" " 군탄리				250-50
光淳			" 철원읍대마리				250-51
창배		司正公	춘성군서면금산리 705-26				200
鳳鉉			春城郡西面塘林 2里 298		前春川소양 中校長	宅 52-0833	200-14
昌壽			平昌郡芳林面芳林 2里				220-31
完錫			" 平昌邑多水里 1반				230-30
載喆			洪川郡西面魚遊浦里				201-51
載旺			" " "				201-51
燮變			" 東面束草里 1區 750				201-14
成成			" 洪川邑회망 5리 1반			동면 72	201
順順			" " 希望 4里 1반			宅 2241	201
植植			" " 洪川우체국	金剛運輸所長		宅 2546	201
殷殷			" 西面魚遊浦里				201-51
明明			" " "				201-51
鉉鉉			" " "				201-51
鉉鉉			" " "				201-51
鉉鉉			" " "				201-51
鉉鉉			" " "				201-51
禮禮			" " "				201-51

姓名	生年	系派	現住所	職場及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鉉			洪川郡西面魚遊浦里				201-51
充鍾			" "				201-51
鉉			" "				201-51
純承			" "			宅 133	201-51
仁承			" "				201-51
元承			" "			宅 109	201-51
鳳承			" "			宅 125	201-51
哲承			" "			宅 123	201-51
龍承			" "			宅 110	201-51
庭承			" "			宅 124	201-51
律承			" "			宅 111	201-51
七承			" "				201-51
奉承			" "				201-51
奉承			" "				201-51
玉承			" "				201-51
億載			北方面九巖里				201-52
允載			" "				201-52
鉉龍			" "				201-52
鉉鳳			" "				201-52
鉉時			" "				201-52
鉉榮			" "				201-52
雲承			" "				201-52
寬承			" "				201-52

姓名	生年	系派	現住所	職場 및 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基承			洪川郡北方面九蠻里				201-52
宣在			洪川邑 신장대 1리 삼광사			宅 3150	201
浩在			化村面內三浦里			宅 4764	201-17
鉉德			洪川邑太學里 1번				201
日載			洪川邑希望 5里 삼포여관			宅 2379	201
源載			" " 3里			宅 3657	201
勳明			" " 2里			宅 3330	201
燮興			" " 4里			宅 3642	201
중덕			" " 2里			宅 4448	201
東利			" " 6里			宅 4404	201
洙光			" " 2里 8번				201
益載			" " 7里 6번			宅 4422	201
鳳載			" " 2里 248-3 6번				201
彦載			蓮峰 2里 4번				201
煥章			" " 1里			宅 4136	201
집준			" " 3里 3번				201
文한			" " 2里 2번			宅 5232	201
玉承			" " 1里 4번				201
포영			" " 신장대 2里 5번 고려예식장			宅 2283	201
基煥			" " 1里 이화여관			宅 2405	201
鉉基			" " 1里 5번				201
勳載			" " 3里 5번				201
			" " 太學里 1번			宅 2503	201

姓名	生年	系派	現住	所	職場 및 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容희민			洪川郡北方面城洞 2里					201-13
승승			" "					201-13
승상			" "					201-13
인평			" "					201-13
광승			" "					201-13
광승			" "					201-13
윤화			" "					201-13
복수			" "					201-13
千載			" "					201-13
			橫城郡公根面상강봉리					220-22

〈忠清北道〉

姓名	生年	系派	現住所	職場 및 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明源	1911	縣監公	제천시 중앙로 1가 225	住持		宅 5016	390
英昌	1934		" 화산 1동 4통 4반 최기옥방				390
光康			" 泉南洞大覺寺				390
東三	1953	縣監公	忠州市安林洞 16 4/6	公務員		宅 2-9425	380
장산			" 봉방동 78				380
基熙	1922		" 龍山洞芝谷				380
達在			괴산군장연면오거리 269				311-24
福光			槐山郡清安面白峰里 3區				311-11
明根			" 長延面五佳里				311-24
福光			" 七星面雙谷里				311-21
康興	1926	典翰公	丹陽郡어상천면연곡 2리				390-21
泰	1930	縣監公	陰城郡甘谷面사곡리토곡				312-13
健			" 陰城邑오성동 400				312
震			" 大所面城本里 1구				312-15
			" " 梧山里				312-15
			" 陰城邑閑筏里 324	南新國校校監		宅대소 236	312
			堤原郡鳳陽面鳳陽里 안골				390-81
			中原郡上毛面溫泉里 37				380
			" 임정면행정				380-15
			鎭川郡草坪面中石里石灘				330-35
			" 德山面회상리 山 29			宅忠州 42-8891	330-34

姓 名	生 年	系 派	現 住 所	職 場 及 職 位	經 歷	電 話 番 號	우편번호
基 善			鎮川郡문백면대광리				330-36
光 佑			" 진침읍芝岩里				330-30
秉 壽		典翰公	清原郡米院面鍾岩里				310-17
東 燮	1924	"	" "				310-17
秉 安		"	" 龍谷里				310-17

〈忠清南道〉

姓名	生年	系派	現住	所	職場 및 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世鎮	1935	大寧君	大田市中區新화 1동 7-1		忠南大교수		宅 22-5288	300
洋鎮	1943	"	" " 7-1		忠南전문대교수		宅 45-3132	300
錫鎮	1942	"	" 도마동 165		會社 重役		宅 44-5846	300-01
左鎮	1947	"	" 대사동 95-1		의약 會社		宅 22-2546	300
慶鎮	1951	"	" " 95-1		會社			300
載浩	1950	海陵君	" 東區삼성 1동 282-53				宅 72-7582	300
德宗	1928	"	" 中區銀杏洞		建設設計事務所 社長			300
善愿		左尹公	" 기계창아파트하동 304					
善漢	1950	監察公	" 中區서대전우체국사서함 310				宅 26-2504	300-01
溥敏	1909	佐郎公	" " 목동 15 4/4				宅 252-2410	300
植仁	1914	"	" 溫泉 1洞 465					300
炳緒	1942	副司果公	" 東區城南 1洞 507-49 10/4		한밭洋服店代表		宅 72-6085	300
濟龍	1931	典書公	" 中區구암동 53-179 3/3		商 業			300-01
洙仁	1943	"	" " 장대동 山 9-23 8/1		農 業		宅 822-3583	300-01
燮明		典翰公	" " 유천동 313-23 19/3		문화국민교교사		宅 46-3578	300-01
在周		典書公	" " 신안동 281				宅 73-0610	300-01
兢孝	1940	司評公	" " 신화3동 143-1 세림아파트503호				宅 23-0320	300
八重		副司果公	" " 옥천동 380-5		商 業			300-01
必重		"	" " 太平洞 331-9 11/3					300-01
瑋燮		海陵君	" 東區三省洞 299-2				宅 622-7845	300

姓名	生年	系派	現住	所	職場 및 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完		海陵君	大田市中區柳川 2洞 107-8				宅 45-5035	300-01
明		"	" " 도마동 152-2					300-01
仁		副司果公	" " 牧洞 55-2		大田 地方法院			300
義		佐郎公	天安市多可洞 380-3					330
元	1924	典翰公	" 城惶洞 100-22				宅 2-5056	330
鴻	1907	"	" 五龍洞 117		德興製粉社長		宅 2-2532	330
東	1924	承旨公	" 雙龍洞 89					330
瞭		"	" 瓦村洞 151					330
大		佐郎公	" 삼용동 226		안보 교육 영화 홍		宅 3-0640	330
承	1912	佐郎公	公州郡灘川面加尺里					301-15
承		"	" " "					301-15
亨		"	" " "					301-15
秉		典翰公	" 公州邑삼성동 162					301
今		生員公	" 維鳩面秋鷄里					301-19
光		"	" " 石南里 340					301-19
景		"	" " " 3구 219					301-19
仁		"	" " " 1구					301-19
光		"	" " 秋鷄里					301-19
日	1923	海陵君	錦山郡珍山面邑內里				宅珍山 4	300-29
根		"	" 錦山邑中島 7里 19 문화주력					300-20
張	1938	"	論山郡伐谷面덕곡리 124					360-23
念		"	" 연산면신양리 272					360-70
炳		副司果公	" 광석면왕전리 3구 마두					360

姓名	生年	系派	現住	所	職場 및 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炳輝		副司果公	論山郡 광석면 양전리 1구					360
秉天		"	" " " 4구					360
秉烈		"	" " " 4구					360
秉萬		"	" " " 1구					360
秉眞		"	" 恒月里 4구					360
安燮		海陵君	" 陽村面道坪里 3구					360-22
玉東		"	" 鍊武邑麻田 2洞					360-18
石萬		"	" 可也谷面野村里					360-19
燮京		"	" 論山邑芝山 2洞 615					360
陽基		"	" " " "					360
喆甲		"	" " " 2洞					360
秀晚		"	" 城東面蓋尺里					360-15
男今		"	" " " "					360-15
澤今		"	" " " "					360-15
杓連		"	" " " "					360-15
基杓		"	" 江景邑黃山洞 182				宅 4-1951	360-80
吉勇	1939	大寧君	唐津郡 우강면 소반리				宅합덕 4-3671	340-45
一俊	1939	"	" " " "				宅합덕 4-3681	340-45
鎭榮	1942	"	" 합덕읍 신흥리 후경				宅 4-2255	340-22
鎭連	1943	"	" " 雲山里 298					340-22
得鍾	1941	海陵君	" 新寧면 신당리					340-23
植龍	1930	"	" 우강면 송산리 3구					340-45
鎭順	1939	"	" 송산면 금암리					340-26

姓 名	生 年	系 派	現 住 所	職 場 及 職 位	經 歷	電 話 番 號	우 편 번 호
載 鎮	1945	海陵君	唐津郡송산면금암리				340-26
虎 鎮	1926	"	" "				340-26
元 福	1920	"	신평면신당리 279				340-23
先 山	1908	"	唐津邑수청리				340-40
玉 煥	1916	"	신평면신당리 153	郡정책자문위원			340-23
濟 日	1947	副司果公	합덕읍옥금리 153				340-22
炳 爽	1914	進士公	高大面玉峴里 638				340-42
光 俊			大湖芝面長井里				340-44
衝 燮		佐郎公	新坪面富壽里				340-23
善 植		"	" " 上午里 70			宅 324	340-23
德 泳		大寧君	松山面柳谷里				340-26
東 燮	1931	佐郎公	新坪面富壽里				340-23
寬 竣		校理公	唐津邑원당 1구 766			宅 2-4667	340-40
義 重	1909		松山面錦岩里				340-26
鍾 勳	1931		" " 柳谷里				340-26
斗 泳	1932		" " "				340-26
郁 炳			高大面玉峴里				340-42
完 在			" " "				340-42
鳳 重		副司果公	牛江面富長里				340-45
華 重			沔川面松鶴里 744				340-35
鍾 演			松山面柳谷里 251				340-26
熙 泳		海陵君	" " 無愁里				340-26
			新坪面新堂里				340-23

姓名	生年	系派	現住	所	職場 및 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홍允植			唐津郡沔川面松鶴里					340-35
光炳			大湖芝面長井里					340-44
順眞		進士公	合德邑창정리					340-22
大元		佐郎公	高大面長項里 1016					340-42
植云		海陵君	新坪面富壽里					340-23
			松山面柳谷里					340-26
			牛江面松山里 3區					340-45
			新坪面金川里					340-23
영在			大德郡儒城邑溫泉場內로타리		溫泉食堂		직 大田 042 822-4889	300-31
大秀		生員公	保寧郡大川邑大川里 197					353
洙龜			藍谷里					353
鎮英			藍浦面巢松里					353-13
鎮成			帝釋里					353-13
鎮大			周浦面新垆里 2區					353-13
鎮孝			青所面井田里					330-70
德斗			新坪					330-70
成相			聖淵里陰地					330-67
								330-67
								330-67
								330-67
								330-67
								330-67
								330-67
								330-67

姓名	生年	系派	現住	所	職場 및 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鎮益		生員公	保寧郡青所面聖淵里陰地					330-67
鎮英		"	"					330-67
鎮在		"	"					330-67
鎮宇		"	"					330-67
鎮洙		"	"					330-67
鎮國		"	"					330-67
鎮寅		"	"					330-67
鎮在		"	"					330-67
鎮基		"	"					330-67
鎮虎		"	"					330-67
鎮重		"	"					330-67
鎮熙		"	"					330-67
鎮在		"	"					330-67
鎮潤		"	"					330-67
鎮吉		"	"					330-67
鎮浩		"	"					330-67
鎮秀		"	"					330-67
鎮和		"	大川邑大川里冠村 1區					353
鎮永		"	" 新市 1區					353
鎮洪		"	" 舊市 2區					353
鎮南		"	青蘿面長山里담안					353-12
鎮錫		"	"					353-12
鎮論		"	"					353-12
鎮東		"	"					353-12
鎮光		"	周浦面松鶴里山 49					330-70
鎮鵬	1923	副司果公	" 保寧里 44					330-70

姓名	生年	系派	現住	所	職場及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基恒	1907	副司果公	保寧郡周浦面保寧里 44				宅 263	330-70
基祖	1922	"	" 鳳堂里 11					330-70
基高	1929	"	" " 71					330-70
孟鍾	1944	"	" " 71					330-70
愛鍾	1924	"	" 保寧里 527					330-70
鴻鍾	1919	"	" " 544				宅주포 27	330-70
鵬鍾	1941	"	" " 537					330-70
鵬鍾	1933	"	" " 175-3					330-70
榮根	1950	"	" " 398					330-70
周炳		海陵君	" 青蘿面蘿院里 948					353-12
鍾喆	1920	"	부여군우산면안서리				宅 148	360-55
溥天			扶餘郡石城面鄭山里 842				宅중산 271	360-42
善元		典書公	" 恩山面佳谷里				宅 32-6664	360-44
燮源			外山面만수리 71-22					360-46
日炳		海陵君	" 花城里 325					360-46
圭文		"	" " "					360-46
哲炳		"	" " "					360-46
瑾贊	1918	"	玉山面安西里					360-55
順瑾	1921	"	" " "					360-55
瑾東	1931	"	" " "					360-55
台瑾	1925	"	" " "				宅부여 32-0048	360-55
鍾熹	1930	"	" 新安里					360-55
文燮	1962	"	" 上基里					360-55

姓名	生年	系派	現住所	職場及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乘順	1923	海陵君	扶餘郡鴻山面南村里				360-52
乘贊	1918	"	" 鳥峴里				360-52
尙理	1935	"	" 南村里	商			360-52
鶴瑾	1940	"	" "	"		宅 32-1330	360-52
仁煥	1925	"	" 鳥峴里				360-52
重瑾	1923	"	" 玉山面安西里			宅 32-0050	360-55
都永	1959	"	" "				360-55
鍾甲	1930	"	" "				360-55
東煥	1935	"	" "			宅 32-0268	360-55
允煥	1919	"	" "			宅 32-0151	360-55
在煥	1927	"	" "			宅 32-0132	360-55
泰煥	1917	"	" 新安里				360-55
乘鶴	1928	"	" "				360-55
榮燮	1946	"	" 內垆里				360-55
榮燮	1916	"	" 南面大船里				360-53
炳碩		"	" 外山面花城里				360-46
溥日		佐郎公	瑞山郡仁社面豐田里				352
鍾喆		"	" 地谷面花川里				352-23
炳斗	1938	進士公	" 雲山面龍長里 2區				340-36
珍燮		佐郎公	" 泰安面邑內里	泰安郵遞局長		宅 3456 宅 2007	352-30
暎玉	1936		" 대산면대죽리				352-24
鍾旋	1935		" "				352-24
相烈			" 雲山面上城里				340-36

姓名	生年	系派	現住所	職場 및 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植憲			瑞山郡所遠面의항리 1구				352-33
行光			" 高北面南井里 1구				350-15
義康			" 梨北面官里 2구				352-32
植善			" 近興面정둔리 4구				352-34
三林	1946	副司果公	" 高北面新上里 2구				350-15
林圭	1936	海陵君	" 瑞山邑東門里 1區 873-20				352
天洙	1934	"	서천군서면신합리	建 築 業		宅 6-2650	354-13
圭載		"	" 中천면장구리 1구				354-11
資源	1915	"	" 서면신합리				354-13
源烈	1918	"	" 서면신합리				354-13
學顯	1932	大寧君	" 문산면은곡리				354-15
植植	1930	海陵君	" " "				354-15
植熙	1931	"	" 長項邑장항제련소 연계련과			직 1011-1019	330-77
植熙	1937	"	" 鍾川面長久里				354-11
植植	1921	"	牙山郡배방면공수리 68	鐵 鋼 商		宅모산 356	330-61
植植	1933	佐郎公	" " " 68-41			宅 243	330-61
植植		"	" 신창면신달리 2구				330-62
植植		"	" " " "				330-62
植植		"	" " 남성리 371	덕신고교교사		宅 116	330-62
植植		"	" " " 2區			宅오록 257	330-62
植植		"	" 溫陽邑實玉里 5區				330-62
植植		"	" " " 2區			宅 6763	331
植植		"	" " " "				331
植壽		"	" " " "				331

姓名	生年	系派	現住	所	職場 및 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光雄	1943	佐郎公	牙山郡溫陽邑實玉里 2區				宅 5049	331
昌承	1930	"	" " 3區				宅 6647	331
漢順	1939	"	" 溫泉里 36-125				宅 9028	331
順聖	1943	"	" " 75-5				宅 2743	331
尙昌	1940	佐郎公	" " 2區 51				宅 7477	331
昌顯	1918	副司果公	" " 4區				宅 8676	331
昌燮	1906	大寧君	" " 龍禾里 6區				宅 161	330-62
昌燮	1932	"	" 新昌面南城里				宅 547	330-62
昌燮	1955	"	" " 新達里				宅 3100	331-11
昌燮	1931	"	" 鹽時面석정리 2區				宅 4297-3297	330-63
昌燮	1931	佐郎公	" 道高面신언리 207				宅 2631-6	331-15
老壽	1919	副司果公	" 屯浦面鳳在里 184-9		溫陽旅館管理人		宅 온양직 4048	331
福龍	1909	司正公	" 溫陽邑溫泉里 3區 442		삼온양양 타이어 타		宅 온양 7374	331
漢秀	1936	副司果公	" " 3區				宅 온양 6377	331
漢鏞	1936	"	" 實玉里 52				宅 온양 5266	331
文允	1951	"	" " 52-6				宅 온양 6018	331
允昌	1929	佐郎公	" " 183-4				宅 도고 400	330-63
昌烈	1919	"	" " 5區					330-63
昌溥	1921	副司果公	" 道高面新堰里 148					330-63
漢允	1932	"	" " 基谷里 221					331-21
		"	" 鹽時面서원리 2區					

姓名	生年	系派	現住所	職場 및 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鳳仙	1916	副司果公	牙山郡鹽峙面石斗里 142-5				331-21
鳳雲	1927	"	" " " 144				331-21
昌圭	1946	"	排芳面公須里 41-2				330-61
祥奎	1932	"	陰峰面東川里 182			宅 음봉 32	331-14
光福	1939	佐郎公	" " 大同里 2區				331-14
寬載	1904	副司果公	" 新昌面黃山里 342				330-62
重範	1916	大寧君	" " 南城里 364-2		南道政 문위원 長		330-62
實鍾	1923	"	" " " 456		忠자面	宅 2-153	330-62
煥益	1928	副司果公	" 鹽峙面石斗里 142				331-21
重益	1928	佐郎公	" 道高面新堰里 2區 94-20	天陽營 安營業 觀光所 溫長		宅도고 36 직은양 2-2384	330-63
鎮裕	1944	副司果公	" 新昌面黃山里				330-62
호圭	1924	"	" " " "				330-62
寬植	1924	副司果公	" 溫陽邑溫泉里 7區				331
植寬		"	" 龍禾里 5區				331
植鳳		佐郎公	" 鹽峙面石斗里				331-11
식운		"	" " " "				331-11
주顯		"	" 道高面신언리				331-11
永培	1936	"	" " 德岩里				330-63
光載		"	" 溫陽邑草沙里 1區				330-63
光遠		"	" 溫陽邑實玉里 5區				331
英燮	1939	海陵君	" 排芳面公須里 68				331
							330-61

姓名	生年	系派	現住	所	職場 및 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一 變 濟	1934	海陵君	牙山郡排芳面公須里 71					330-61
興 遠	1937	副司果公	" " 回龍里					330-61
錫 錫	1933	大寧君	" " 休袋里					330-61
顯 顯	1934	海陵君	" " 休袋里 317					330-61
植 植		" "	" " 274					330-61
顯 顯		" "	" " 24					330-61
翼 翼	1917	大寧君	禮山郡禮山邑향친리		金庫支店 長		宅 2-3496	340
東 東	1937	" "	" " 주교리 1구		農村指導所 長		宅 2-3246	340
澄 澄	1935	" "	" " 205-3		商 業		宅 2-4193	340
光 光	1943	" "	" " 관각리		農		宅 2-3572	340
和 和	1926	" "	" " 고덕면지곡리		" "		宅 236	340-34
義 義	1913	" "	" " 구만리		" "			340-34
花 花	1934	" "	" " "		" "			340-34
洪 洪	1924	" "	" " "		" "			340-34
翼 翼	1914	" "	" " "		" "			340-34
澄 澄	1943	" "	" " "		" "			340-34
敦 敦	1931	" "	" " "		" "		宅 272	340-34
聲 聲	1941	" "	" " "		" "			340-34
童 童	1938	" "	" " "		" "			340-34
鍾 鍾	1908	" "	" " 고덕면구만리		教 師		宅 234	340-34
白 白	1935	" "	" " "					340-34
龍 龍	1946	" "	" " "					340-34
康 康	1908	" "	" " "					340-34
東 東	1908	" "	" " "					340-34

姓 名	生 年	系 派	現 住 所	職 場 及 職 位	經 歷	電 話 番 號	우 편 번 호
春 鎮	1922	大寧君	禮山郡고덕면상공리				340-34
和 壽	1937	"	"				340-34
先 鳳	1935	"	"				340-34
照 鎮	1934	"	"				340-34
和 義	1942	"	지곡리				340-34
義 八	1935	"	상장리				340-34
義 八	1916	"	"				340-34
壽 南	1903	"	석곡리				340-34
君 文	1930	"	"				340-34
龍 奉	1950	"	고덕면대천리				340-34
興 鎮	1938	海陵君	삼교읍여리				330-65
清 金	1934	"	용동리 3구			4-2482	330-65
圭 燮	1948	"	두리 1구 570			4-2354	330-65
龍 鎬	1948	"	하포리			4-3058	330-65
錫 煥	1942	"	禮山邑신례원리 3구	중		2-7588	340-01
龍 植	1924	"	"	상 이			340-01
烈 植	1932	"	산성리 2구 거무실	원			340
植 烈	1920	"	신례원리 2구				340-01
正 益	1944	"	邑事務所옆 축산물 정육점	양			340
南 煥	1946	海陵君	예산리 1구	글			340
文 植	1930	"	禮山邑신례원리 1구	복			340-01
龍 燮	1929	"	"	점			340-01
			수철리	대			

姓 名	生 年	系 派	現 住 所	職 場 及 職 位	經 歷	電 話 番 號	우 편 번 호
俊 明	1932	海陵君	禮山郡禮山邑창소리 2구				340-01
金 明	1935	"	" " 주교리 3구			宅 2-5361	340
明 正	1928	副司果公	" " 禮山里 2구 133-3			宅 2-3677	340-01
明 正	1932	海陵君	" " 광시면우산리 1구				340-15
孝 弘	1927	"	" " 월송리작은터골				340-12
龍 載	1942	"	" " 禮山邑산성리 2구거무실				340
龍 載	1928	"	" " 신암면용궁리 2구			宅 2-6614	340-21
龍 載	1920	"	" " 계촌리				340-21
龍 載	1944	"	" " 조곡리 50				340-21
龍 載	1928	"	" " 신종리원성골				340-21
龍 載	1924	"	" " " 1구				340-21
龍 載	1933	"	" " 신태리 2구				340-21
龍 載	1937	"	" " 신태리 2구				340-21
龍 載	1950	"	" " 종경리신암지서	신 암 지 서 次 席			340-21
道 炳	1933	"	" " 덕산면둔리 2구 298 노곡				340-32
雨 圭	1946	"	" " 대술면화천리 845	대 술 우 체 국 장			340-11
明 俊	1926	"	" " 화천리 845				340-11
明 俊	1937	"	" " 삼교읍용동리 3구				330-65
明 俊	1932	"	" " 광시면운산리 1구				340-15
明 俊	1928	"	" " 오가면분천리 3구				340-31
泰 鎬		"	" " 삼교읍방아리 山2-1	삼 교 우 체 국			330-65
鎬 鎬		"	" " 禮山邑발연리 50			宅에 산 33-2345	340
日 光	1934		禮山郡鷹峰面後寺里				340-13

姓名	生年	系派	現住所	職場 및 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成植			禮山郡鷹峰面後寺里 351				340-13
萬尙			" "				340-13
成植		佐郎公	" "				340-13
成壽	1942	"	新岩面桂村里 269				340-21
植鶴	1939	"	鷹峰面後寺里				340-13
植容			" "				340-13
植福		生員公	禮山邑山城里 1區			宅 2-4291	340
武男	1944	副司果公	禮山邑山城里 5區 384				340
基喆			대흥면대물리				340-14
永泰		海陵君	插橋邑삼교리 1區	삼교고교서무과장		宅禮山 4-2874	340-65
學光			鷹峰面蘆花里				340-13
成福			禮山邑禮山里	國校		宅 2-3727	340
植侯			" " 322-2	商校		宅 2-2640	340
壽智			" " 4구			宅 2-2969	340
洪機			" " 443-1	畜產		宅 2-7440	340
燮光			" " 713-9			宅 2-5566	340
燮興			" " 친일상회	商		宅 2-2028	340
烈弘			" "	木商		宅 2-6017	340
錫永			" " 312-5 태성수예점	業		宅 2-3823	340
山道			" " 374	業		宅 2-3619	340
人順			" " 624	業		宅 2-5087	340
섭인			" " 283-3	業		宅 2-2986	340
진태			" " 136-8	業		宅 2-3496	340

姓	名	生年	系派	現住	住所	職場及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영	섭			禮山郡禮山邑禮山里 422-16				宅 2-4281	340
무	운			" "		公務員		宅 2-2113	340
在	仙			" 향천리 132		建築業		宅 2-5447	340
호	길			" " 大回里				宅 2-5465	340
종	光			" 舟橋리 1구				宅 2-4229	340
漢	鎭			" " 222-17					340
鎭	光			" " 1구					340
漢	재			" " " "				宅 2-4716	340
鎭	光			" " " "					340
漢	재			" " 1구 290-60					340
明	明			" " 1구 271-7				宅 2-7522	340
明	炳			" " " "				宅 2-2141	340
炳	雄			" " 4구				宅 2-7942	340
雄	明			" 山城里 2구 거두실					340
明	載			" " " "					340
興	鍾			" " 2구					340
興	華			" " " "					340
載	子			" 舟橋里 2구 고려여인숙				宅 2-4229	340
興	昌			" " 관각리					340
鍾	月			" " 新禮院里					340-01

姓名	生年	系派	現住所	職場及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성윤			禮山郡禮山邑新禮院里				340-01
광희			" " 2千				340-01
光敬			" " 3千				340-01
學鍾			" 倉所里	會社	員	宅 2-8397	340-01
鍾재			" " 3千	"		宅 2-3151	340-01
성공			" " 間良里 2千			宅 2-5464	340-01
昌鎭			" " 宮坪里			宅 2-3114	340-01
哲鎭			" 新岩面桂村里			宅 2-8123	340-01
鎭鎭			" " "				340-01
鎭鎭			" " "				340-01
必文			" " "				340-21
載元			" " "				340-21
元昌			" " 宗敬里				340-21
昌鍾			" 吾可面良幕里	畜協組合	長	宅 2-5806	340-31
炳炳			" " 新院里 1千 2			宅 2-7242	340-31
炳炳			" " "				340-31
炳炳			" " "				340-31
炳炳			" " "				340-31
炳炳			" " "				340-31

姓 名	生 年	系 派	現 住 所	職 場 및 職 位	經 歷	電 話 番 號	우 편 번 호
喆 炳			禮山郡吾可面新院里				340-31
仁 亨			" "				340-31
鳳 儀			" "				340-31
昌 光			" 汾川里 4千 山 105	忠 交 總 務 課 長		宅 2-6906	340-31
廣 만			" " 2千				340-31
廣 光			" " 元坪里				340-31
箕 光			" " 驛塔里 1千				340-31
東 錫			" " 차돌백이				340-31
國 錫			" " 新長里				340-31
錫 一			" " 新石里				340-31
萬 魯			" 插橋邑城里 2千				340-65
植 舜			" " 新佳里				340-65
植 銀			" " 龍頭里				340-65
植 滿			" " 下浦里 1千				340-65
植 洪			" " 頭里 3千				340-65
起 勝			" " 頭里 3千				340-65
甲 植			" " 頭里 3千				340-65
植 敦			" " 頭里 3千				340-65

姓名	生年	系派	現住所	職場 및 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燦 卞 燮 熙 國			禮山郡插橋邑頭里 4千				340-65
基 堉 仁 龍 光			" " 沐里 1千				340-65
			" " 城里 1千				340-65
			" " 水村里				340-65
			" " 新佳里				340-65
鍾 泰 奉 植 珉 卞 鎮 元 雨 山 植 燮 泰 壽 龍 翁 景 奉	1928	副司果公	" 德山面邑內里 2千 50	畜 產 業		宅 33-4417	340-32
洪 澄 龍 完 澄 玟 鳳 鎮 昌 鳳 萬 圭 光 南 光 珍 泰 泰			" 古德面大川里教會앞				340-34
			" " "				340-34
			" " 1千				340-34
			" " 九萬里				340-34
			" " "				340-34
			" 古德面九萬里				340-34
			" " "				340-34
			" " 大川里代書所				340-34
			" 鳳山面九岩里				340-34
			" " "				340-34
			" 鷹峰面後寺里				340-13
			" " "				340-13
			" " "				340-13
			" " "				340-13
			" " "				340-13
			" " 蘆花里 1千				340-13
			" " "				340-13

姓	名	生年	系派	現住	所	職場 및 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태	양 男			禮山郡鷹峰面蘆花里 1구					340-13
대	수			" "					340-13
대	식			" "					340-13
대	성			" "					340-13
炳	壽			" 松石里					340-13
광	목			" "					340-13
光	熙			" 乾芝化里 2구					340-13
容	植			" "					340-13
중	산			" "					340-13
유	식			" "					340-13
영	식			" "					340-13
甲	童			" 鷄井里 2구					340-13
갑	철			" "					340-13
鳳	植			" 鷹峰面支石里					340-13
광	조			" 大興面遜支里 2구		삼 생 당 약 방		宅 2-4990	340-14
基	植			" "					340-14
대	규			" 大栗里				宅 2-7763	340-14
대	진			" "					340-14
光	三			" 光時面新興里					340-15
용	석			" 석파리					340-15
봉	선			" 長田里					340-15
甲	鎮			" 大述面花川里 850					340-11

姓名	生年	系派	現住所	職場及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鳳基			禮山郡大述面詩山里전불				340-11
吉成			禮山邑禮山里 4千 333			宅 2-6437	340
光德			揶橋邑新佳里 1千				340-65
東壽			新岩面新宅里창말				340-21
호태			宗敬里 212			宅 32-9135	340-21
식호			新宅里 1千				340-21
식호			龍宮里 2千				340-21
秀圭			新宅里 1千			宅 32-9359	340-21
熙淳			吾可面元泉里 4千				340-31
洙植			良幕里				340-31
光千			汾川里 3千				340-31
壽동			內良里 2千				340-31
萬섭			大興面大栗里				340-31
成근			新陽面新陽里				340-14
東植			禮山邑禮山里				340-12
			古德面石谷里 3千			宅 2-4314	340
			上宮里				340-34
			禮山邑舟橋里				340
東喆	1926	副司果公	揶橋邑水村里 282				340-65
鍾大	1944	"	禮山邑禮山里 5區 384	商		宅 2-5165	340
鳳植	1926	佐郎公	天原郡笠場面道林里				330-16

姓名	生年	系派	現住	所	職場 및 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石源		典翰公	天原郡수신면발산리 210					330-14
聖光			笠場面山井里					330-16
明洙	1933	海陵君	성환읍성월리 137					330-81
明完	1923	"	청양군비봉면장재리					301-43
明實	1942	"	청양읍송방리					301-40
幸圭		"	화성면매산리 303					301-42
陽浩		典翰公	청양읍碧玉川里		사양면장			301-40
炳文		海陵君	定山面邑內里三省堂藥局					301-32
賢賢		生員公	飛鳳面中墨里					301-43
運植		海陵君	化城面梅山里					301-42
在仲		"	定山面光生里				宅 203	301-32
永錫	1935	"	洪城郡洪城邑대교리 3구	공관사인세소代表			宅 2-4872	350
俞東	1947	"	" 오관리 85				宅 110	350
起燮	1927	"	洪東面호학리호동					350-11
燮燮	1935	"	갈산면상촌리 235-7					350-14
鎬寅	1928	副司果公	洪城邑月溪里 1區	洪城法院			宅 5366	350
秉寧	1921	佐郎公	廣川邑응암리 36 석포부락				宅 홍성 4-4176	351
溥賢	1922	典翰公	" 佳亭里 194				宅 4-4879	351
溥賢	1921	"	" "					351
承友	1912	"	洪城邑오관리 641-9				宅 2720	350
在洪	1937	佐郎公	結城面邑內里 305				宅결성 78	351-42
盛燮	1921	"	金馬面光城里 9					330-66
		"	" 長城里 96					330-66

姓名	生年	系派	現住	所	職場 및 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明在	1926	副司果公	洪城郡金馬面長城里 97		國民校 교 사			330-66
連起	1933		" " " 112					330-66
燮永	1924	副司果公	" " " 新谷里 110				宅金馬 188	330-66
燮萬	1915		" " " 155					330-66
錫熙	1916	典翰公	" 洪東面孝鶴里 313					350-11
元在	1932	副司果公	" " " 龜龍里 24					350-11
鳳在	1938	"	" " " 98					350-11
成一	1946		" " " 182					350-11
爽在	1931		" " " 秀蘭里 53					350-11
來光	1938		" 廣川邑大坪里 344		대 평 약 국		宅廣川 3485 2748	351
表光	1926	佐郎公	" 銀河面木峴里					351-41
培光	1920	"	" " " 305					351-41
壽經		"	" " " 大川里					351-41
植泰		"	" 龜項面長楊里					350-13
寬寬		"	" 洪城邑古岩里 415-9					350
燮漢	1903	"	" 龜項面五鳳里 266-1					350-13
雲光	1922	"	" 銀河面木峴里					351-41
淳乘		佐郎公	" 葛山面新安里 구성골		畜會			350-14
植才		"	" 廣川邑 옹암리 36 석포부락		業員		宅흥성 4-4176	351
植泰	1926		" 結城面城南里		產社			351-42
光吾	1936	佐郎公	" 銀河面木峴里					351-41
壽文	1951	"	" " " "					351-41
奎洛	1918	副司果公	" 洪城邑五官里 203	豐進商會			宅 2-2266	350

姓名	生年	系派	現住	所	職場及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模文	1926		洪城郡洪東面大英里 434					350-11
秉海	1919		" " " 376-2					350-11
壽東		佐郎公	" 銀河面木峴里		養畜業			351-41
孫植		"	" 結城面邑內里					351-42
植植		"	" 葛山面新安里					350-14
植壽		"	" " "					350-14
武命		"	" " "					350-14
奉壽		"	" " "					350-14
奉壽		"	" 葛山里斗司					350-14
燮大	1949	副司果公	" 洪城邑五官里 355		厚生藥局代表商			350
成演	1950	"	" 南長里 468					350
孝暈	1937	"	" " " 356					350
鍾燮	1933	"	" " " 47					350
燮星	1947	"	" " " 473					350
寬在		"	" 洪東面雲月里 184					350-11
萬喜		"	" 求精里 475					350-11
寬濟		"	" 秀蘭里					350
弘貞		"	" 洪城邑五官里 359-1					350
貞		"	" " " 358-1					350
貞		副司果公	" 玉岩里					350-11
貞		"	" 洪東面龜龍里立岩					350-11

姓名	生年	系派	現住所	職場 및 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鳳濟		副司果公	洪城郡洪城邑大校里 16 가재울				350
赫普		"	" " 154				350
赫聖		"	大校里				350
老景		"	五官里				350
燮鍾		"	大校里洪城市場內				350
洪在		"	金馬面長城里장파				330-66
昌在		"	新谷里				330-66
成在		"	"				330-66
燮弘		"	松岩里구암				330-66
賢乘		副司果公	洪城郡金馬面月岩里				330-66
燮寬		海陵君	장곡면월계리				340-15
乘寬		副司果公	洪城邑南長里			홍성 2-40	350
佑將		"	"				350
燮將		"	洪東面求精里 269				350-11
老香		"	"				350-11
燮香		"	"				350-11
燮文		"	202				350-11
老文		"	"				350-11
燮顯		"	"				350-11
燮顯		"	"				350-11
泰賢		"	"				350-11
賢乘		"	"				350-11
文乘		"	" 八卦里				350-11
吉乘		副司果公	洪東面八卦里				350-11

〈全羅北道〉

姓名	生年	系派	現住	所	職場 및 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萬昌		海陵君	裡市 仁和洞 1街 79					510
鶴基		"	" 南中洞 2街 323-35				宅 3-9561	510
午基		"	" " " 318					510
吉順		"	" 南山洞					510
變俊		"	" " "					510
變道		"	" " "					510
鉉昌	1941	"	" 井州市 市基 1洞 288-1 3/2		별표국수공장代表		宅 2-2295	560
變寅	1915	監察公	고창군 대산면 해룡리 500	만월부락				560-27
正康		海陵君	" 上下面 紫龍里 481					560-35
變元		"	金堤郡 孔德面 黃山里 620					550-26
植聖		"	沃溝郡 大野面 蝶山里 687				근산 5-3643	510-72
詒根	1926	佐郎公	完州郡 伊西面 盤橋里 179					520-21
變達		海陵君	益山郡 朗山面 虎岩里 內敦				宅이리 6-2114	510-21
煥鳳		"	" " " "				宅 6-2176	510-21
前基		"	" " " "				宅 6-2178	510-21
連基		"	" " " "				宅 6-2283	510-21
變鳳		"	" " " "				宅 6-2330	510-21
變培		"	" " " "				宅 6-2305	510-21
鉉昌		"	" " 朗山里 牛今	外敦			宅이리 6-2403	510-21
變日		"	" " " "					510-21
		"	" " " "					510-21

姓名	生年	系派	現	住	所	職場 및 職位	經	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雙春		海陵君	益山郡	朗山面	朗山里	牛今			宅 6-2407	510-21
鳳根		"	"	"	"	"			宅 6-3243	510-21
恒		"	"	"	龜坪里	長坪				510-21
基		"	"	"	"	"				510-21
永		"	"	"	石泉里	上石			宅 6-3230	510-21
東		"	"	"	龍安面	大鳥里				510-25
乘	1937	"	"	"	"	龍東			宅 6-0398	510-25
鎮		"	"	"	朗山面	虎岩里				510-21
甲		"	"	"	"	龜坪里	長坪			510-21
相		"	"	"	"	"				510-21
基		"	"	"	"	"				510-21
昌		"	"	"	下丹				宅이리 6-5275	510-21
貞		"	"	"	朗山里	牛今				510-21
根		"	"	"	"	"				510-21
浩		"	"	"	"	"				510-21
雙		"	"	"	"	"				510-21
山		"	"	"	"	"				510-21
俠		"	"	"	"	"				510-21
雙		"	"	"	"	"				510-21
煥		"	"	"	"	"				510-21
煥		"	"	"	"	"				510-21
鍾		"	"	"	"	"				510-21
相		"	"	"	虎岩里	外敦			宅이리 6-2430	510-21
昌		"	"	"	"	"			宅 6-4913	510-21

姓名	生年	系派	現居	住所	職場 및 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變封		海陵君	益山郡	朗山面			宅 6-2388	510-21
變河		"	"	"			宅 6-2153	510-21
變奉		"	"	"				510-21
變点		"	"	"			宅 6-3251	510-21
變文		"	"	"			宅이리 6-5207	510-21
變壽		"	"	"			宅 6-2714	510-21
變錫		"	"	"				510-21
變東		"	"	"			宅 6-4880	510-21
變喆		"	"	"			宅 6-2294	510-21
變喆		"	"	"			宅 6-2183	510-21
變福		"	"	"			宅 6-3275	510-21
變生		"	"	"			宅 6-3461	510-21
變道		"	"	"			宅 6-2184	510-21
變行		"	"	"			宅 6-2420	510-21
變變		"	"	"				510-21
變變		"	"	"			宅 6-3510	510-21
變變		"	"	"			宅 6-3274	510-21
變變		"	"	"			宅 6-2278	510-21
變變		"	"	"				510-21
變變		"	"	"				510-21
變容		"	"	"				510-21
變高		"	"	"			宅 6-2418	510-21
變張		"	"	"				510-21

姓名	生年	系派	所	職場	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基弘		海陵君	益山郡	朗山面	虎岩里	外敦		510-21
基容		"	"	"	"	內敦		510-21
基在		"	"	"	"	"		510-21
基成		"	"	"	"	"	宅 6-2282	510-21
基基		"	"	"	"	"		510-21
基京		"	"	"	"	"		510-21
基順		"	"	"	"	"	宅 6-4844	510-21
基永		"	"	"	"	"		510-21
基燮		"	"	"	"	"		510-21
基昶		"	"	"	"	"		510-21
基峰		"	"	"	"	"		510-21
基奉		"	"	"	"	"	宅 6-3231	510-21
基載		"	"	"	"	"	宅 6-4840	510-21
基鍾		"	"	"	"	"	宅 6-2281	510-21
基鉉		"	"	"	"	"		510-21
基煥		"	"	"	"	"		510-21
基燮		"	"	"	"	"	宅 6-3221	510-21
基鍾		"	"	"	"	"	宅 6-3141	510-21
基煥		"	"	"	"	"	宅 6-5018	510-21
基煥		"	"	"	"	"		510-21
基燮		"	"	"	"	"	宅 6-3176	510-21
基一		"	"	"	"	"		510-21

姓名	生年	系派	現住	所	職場	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大和		海陵君	益山郡 朗山面 虎岩里 鳴川						510-21
基先		"	" 三潭里 上北					宅 6-2396	510-21
基文		"	" " " 三池					宅 6-4903	510-21
炯燮		"	" 石泉里 新北						510-21
魯燮		"	" 龍安面 龍城里 堂下						510-25
基亮		"	" 中新里						510-25
松學		"	" " 校洞						510-25
燮福		"	" 大鳥里 龍東						510-25
燮福		"	" " 杏亭						510-25
燮德		"	" 花實里 古倉						510-25
浩燮		"	" 黃登面 新基里 200						510-81
燮德		"	" 威悅面 米力里						510-80
燮玉		"	" 礪山面 源水里 新幕						510-15
燮玉		"	" " " "						510-15
昌成		"	" 朗山面 三潭里 上北						510-21
學成		"	" 龍安面 龍城里 堂下						510-25
學成		"	" 中新里 校洞						510-25
田根		"	" 朗山面 石泉里 石工場					직 6-3115 직 6-2198	510-21

〈全羅南道〉

姓名	生年	系派	現住	住所	職場 및 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鍾燮	1915	承旨公	光州市 東區	光山洞 2-6		警察署長	宅 22-3338	500
洪榮	1928	進士公	" "	所台洞 536-17			宅 22-8457	500
鉉	1936	承旨公	" "	鷄林洞 505-1256	반도양식 代表		宅 523-7572 직 364-3637	500
鳳洙	1922	" "	" "	鶴洞 平和맨션 2동 106호		公務員	宅 22-6225	500
洙吉	1930	" "	" "	鶴二洞 31-28	二西國校 長		宅 22-0129	500
完平	1930	" "	" "	錦南路 5街 88-2	光州 堂		宅 33-8310 宅 33-6166	500
雄	1940	典翰公	" "	鶴洞 平和맨션 3동 1008호	基督病院 課長		宅 232-8558 직 68-0051	500
鉉淳	1922	縣監公	" "	所台洞 622-3			宅 27-3466	500
炳南	1925	" "	" "	鶴二洞 621-3			宅 22-4007	500
聖	1931	" "	" "	山水洞 104-19	백마당 구 장		宅 55-9716 직 27-1655	500
亨重	1950	" "	" "	東明洞 142-37	의상 실		宅 22-7249	500
憲鉉	1933	" "	" "	山水洞 524-20	中 等 教 師		宅 56-1872	500
相鉉	1940	" "	" "	忠壯路 1街 2	杏 南 高 教 師		宅 22-7477	500
燮斗	1940	" "	" "	東明 1洞 57-9	女 良 二 洞 中 隊 長		宅 22-1089	500
聖	1942	" "	" "	芝元洞 672-14			宅 27-4272	500
官	1947	" "	" "	所台洞 622-3	東 亞 石 油		宅 27-3466	500
錫大	1933	" "	" "	豐鄉洞 586-41	신양 라 코		宅 54-4816	500
宗	1948	" "	" "	" 1동 14-5	건축 社		宅 523-6009	500
福童	1929	典翰公	" "	山水洞 548-35	會 員		宅 55-1941	500

姓名	生年	系派	現住	所	職場 및 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在律	1928	典翰公	光州市東區 鷄林洞 505-1214		全南大 教授		宅 55-9691 직 55-8001~8	500
在浩	1935	"	" 大義洞 59-2		東江中庶務課長		宅 23-4555	500
洪碩	1944	"	" 山水洞 128-1		南陽建設專務		宅 55-6567	500
鍾碩	1954	"	" 東明洞 232-7		아세아 자동차 관리			500
正鉉	1908	承旨公	" 鶴3洞 489			前公務員		500
永桓	1914	"	" 壯洞 103-10				宅 232-4436	500
泳喆	1930	承旨公	" 鷄林洞 499-8		會社 員		宅 523-4440	500
勳長	1940	"	" 鶴雲洞 銀河아파트		光州高法判事		宅 22-9779	500
承錄	1940	"	" " 818-2		商會		宅 22-4312	500
永柱	1935	"	" 鶴洞 929-6		會社 員		宅 22-3283	500
炯春	1947	"	" 錦洞 11-1		會社 員		宅 363-0067	500
春植	1948	"	" 忠壯路 1街 22-6		유신한부 집		宅 22-3725 직 34-6572	500
洙相	1935	"	" 芝山洞 218-13		重機會社		宅 27-2639	500
河煥	1947	"	" 東明 2洞 236-8		商		宅 523-0440	500
泳煥	1935	"	" 所台洞 546-11					500
德洙	1915	"	" 鶴洞				宅 68-5830	500
翊洙	1931	"	" 鶴3洞 639-29				宅 27-3450	500
仁相	1946	"	" 忠壯路 4街		商			500
景喜	1942	"	" 東明 2洞 216		大學書店		宅 22-0796	500
仁煥	1908	承旨公	" 鷄林洞 262-2				宅 522-8252 직 522-5595	500
秉載	1950	"	" " 1洞 293-15				宅 54-7011	500

姓名	生年	系派	現住	所	職場及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明 洙	1951	承旨公	光州市 東區 鷄林 3洞 66		新羅建設 代表		宅 55-7442 직 232-1535	500
東 洙	1932	"	" 豐鄉洞 551-504		道教委 獎學官		宅 55-2948 직 55-5626 55-3387	500
承 奎	1933	"	" 鷄林 2洞 491-26					500
弘 鎮	1927	"	" 山水 2洞 547-6		全南大師大附高 校		宅 55-7448 직 56-4588	500
明 鍾	1936	"	" 不老洞 13				宅 33-4172	500
在 權	1926	"	" 東明洞 72		醫 學 博 士 授 全 南 大 教		宅 22-3528 직 27-0011	500
正 華	1919	"	" 鶴洞 55-7			前 公 務 員	宅 68-3306	500
孝 植	1934	"	" " 803-1		南 和 土 建 常 務 大 韓 石 炭 管 理 長		宅 22-4555 직 27-0432 56-5945	500
光 洙	1934	"	" 芝元洞 560-7		國 防 品 質 檢 查 所 長 課 會 員		宅 27-8357	500
善 洙	1950	"	" 龍山洞 201				宅 27-8357	500
錫 洙	1954	"	" " "					500
鐵 洙	1957	承旨公	" 龍山洞 201					500
甲 燮	1938	"	" " 198					500
奉 浩	1923	"	" 所台洞 421				宅 27-6014	500
奉 洙	1930	"	" " 314				宅 27-7351	500
琪 柱	1938	"	" 鶴 3洞 88		建 設 業		宅 27-7350	500
漢 基	1941	"	" 中央洞 657-3 11/3		建 設 業		宅 522-2691	500
鳳 鎮	1934	"	" 鶴 2洞 624		建 築 業		宅 27-3926	500
世 鉉	1938	"	" 鷄林洞 505-512		商 業		宅 523-8006	500

姓名	生年	系派	現住所	職場 및 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水鉉	1946	承旨公	光州市 東區 錦洞 98-14 10/5	石 公 業 社 機 員		宅 34-9281	500
正柱	1951	"	" 大仁洞 27	도 실 具 重 務 員		宅 672-1175	500
玉鎮	1948	"	" 山水 2洞 421-23	文 築 務 員		宅 524-7399	500
南景	1933	"	" 山水洞 487-9	建 築 務 員		宅 56-4907	500
相吉	1945	"	" 芝山洞 317-19 동남파크맨션 8동 304호	公 務 員		宅 22-0181	500
炳噉	1942	"	" 鷄林洞	매 일 식 당		宅 522-0989	500
元圭	1921	"	" 東明洞 116-1	商 景 業		宅 22-9856	500
甲燮	1939	"	" 中央 1洞 710-10	商 景 業		宅 362-3590	500
雨珍	1942	進士公	" 鶴洞 687	造 景 業		宅 27-9668	500
正吉	1933	"	" 大仁洞 190 13/3	商 景 業		宅 27-0458	500
炳鉉	1938	"	" 芝山洞 411-4	商 景 業		宅 27-2270	500
永鉉	1943	"	" " "	" " "		宅 27-2270	500
鳳永	1935	監察公	" 山水 1洞 486-18	" " "		宅 522-1260	500
金基	1930	"	" 瑞石 2洞 28-12	中央教會 長老		宅 27-7527	500
宗鉉	1932	進士公	" 大仁洞 313-27	中央教會 長老		宅 22-9836	500
元鍾	1924	承旨公	光州市 北區 中興洞 740-16	公務員		宅 56-8627	500
達演	1934	"	" 新安洞 三益맨션 2동 308호	公務員		宅 55-7602	505
吉澤	1929	縣監公	" " 259-30	公務員		宅 56-7079	505
德洙	1931	"	" 柳洞 60-3	태 양 당 구 장		宅 56-1550	505
						宅 56-6034	505
						宅 524-0538	505

姓名	生年	系派	現住	所	職場 및 職位	經歴	電話番號	우편번호
德南	1937	縣監公	光州市 北區 柳洞 60-3		길 다 방		宅 54-3242 직 56-6366	505
升澤	1934	"	" 中興 1洞 745-24		光州 高教師		宅 56-1528	500
三澤	1941	"	" 東雲洞 三益아파트 1동 310호		商		宅 522-1285	500
梁	1945	"	" 新安洞 121-2		農 檢		宅 34-4131	505
相夏	1947	"	" 北洞 242-3		光州 綜合廣告		宅 365-4149	500
亨變	1950	"	" 樓門洞 144-9		가람 미 배 어		宅 364-4011	505
永淑	1939	"	" 中興 1洞 640-3		商		宅 56-1528	500
鍾允	1949	佐郎公	" 東雲1洞 67-1 운암아파트 32동 105호		無等貨物課長		직 55-2424	500
龍在	1936	典翰公	" 陽山洞 330		연초제 조창係長		宅 522-8283	500
彬主	1937	"	" 林洞 47-7		公 務 員		宅 56-8525	505
昌貴	1940	"	" 牛山洞 무등아파트 B동 201호		求禮農高教師		宅 54-3227	500
富滿	1940	"	" 東雲洞 416-24		業		宅 34-0374	500
一邦	1945	"	" 牛山洞 193		大宇자동차次長		宅 56-0597	500
善基	1947	"	" 龍鳳洞 156-4		月山國教師		宅 523-0540	505
在炯	1948	"	" 中興洞 288-54		電信電話局		宅 55-8558	500
炯重	1946	"	" 雲岩洞 487-35		運 業		宅 522-1948	505
允平	1933	"	" 林洞 147-8		商		宅 523-7203	505
淳甲	1928	"	" 中興洞 해광자크맨션 201호		무학國教師		宅 55-8584	500
炳洙	1933	"	" " 293-6		全南기계공고教師		宅 56-2150	500
二燮	1941	"	" 林洞 436		會 社 員		宅 56-8715	505
	1926	"	" 中興洞 377-58		商		宅 55-7260	500
	1926	承旨公	" 林洞 23동 5번		會 社 員		宅 522-8538	505

姓名	生年	系派	現住	所	職場及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吳鎮	1909	承旨公	光州市北區雲岩洞 1433		農		宅 524-2138	505
東成	1917	"	長雲洞		農		宅 522-8450	500-04
成判	1933	"	"		農		宅 54-1114	500-04
五桓	1908	"	"		"		宅 522-7480	500-04
桓容	1937	"	"		現役		宅 523-6148	500-04
國範	1944	"	"		中教		宅 525-0329	505
榮文	1947	"	新安洞 479-19	25/2	領師		宅 56-6831	505
日萬	1936	"	林洞 78-252		中教			505
正植	1950	"	"		商			505
勝柱	1944	"	中興 2洞 340-1	18/1			宅 56-5243	500
泳模	1947	"	牛山洞 554-19				宅 54-2006	500
雲正	1936	"	瑞山洞 549-10		運輸		宅 522-6544	500-03
東洙	1927	承旨公	新安洞 479-25		光州驛		宅 55-5150	505
亨亨	1935	"	林洞 98-44		光州專賣		宅 54-9544	505
學旭	1948	"	中興洞 641-34		谷城郡廳土木係長		宅 55-5114	500
在泳	1932	"	"1洞707-2				宅 523-6093	500
在興	1929	"	柳洞 111-5				宅 54-2306	505
煥植	1932	"	梧峙洞 463-20		國校教師		宅 54-4749	500-53
模模	1947	"	牛山洞 554-19		商		宅 54-2006	500
洙洙	1930	"	長雲洞 40		農		宅 523-1607	500-04
洙洙	1935	"	" 7		"		宅 524-1542	500-04
述述	1948	"	" 9		"			500-04
長洙	1945	"	" 41		"			500-04

姓名	生年	系派	現住	住所	職場 및 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庸相	1955	承旨公	光州市 北區 長雲洞 46		專賣廳 근무			500-04
基柱	1955	"	" " " 39					500-04
炳先	1938	"	" 雲岩洞 雲岩아파트 342동 206호		光州市 廳		宅 523-9278	505
南鎮	1925	"	" 豐鄉洞 583-32		建設 重機		宅 55-1657	500
南龍	1941	"	" 中興洞 720-17		"		宅 55-6865	500
同彩	1921	"	" 梧岾洞 368 3/1				宅 54-6255	500-03
南洙	1931	"	" " " "					500-03
基奉	1942	"	" 柳洞 40		유동무력사		宅 56-9396	505
東烈	1932	"	" 牛岾洞 龍江					500-03
明洙	1944	"	" " " "					500-03
宗柱	1952	進士公	" 雲岩洞 住公아파트 61동 202호		會社 員		宅 523-1744	505
寧云	1945	"	" 林洞 101-27		商		宅 56-6581	505
在俊	1929	"	" 中興洞 329-23		光山郡山林課長		宅 55-6920	500
宗烈	1939	將仕郎公	" 新安洞 679-12		光州 高 庶務課		宅 522-3206	505
永永	1931	監察公	" 牛山洞 334-10				宅 55-1833	500
雨容		進士公	" 花岩洞 162					500
太仲		"	" " " "					500
真洙	1929	承旨公	光州市 西區 珠月洞 松林원전 401호				宅 66-1818	505
滿澤	1932	縣監公	" 白雲洞 609-2			前公務員	宅 68-5472	505
琮昊	1935	監察公	" 芳林洞 537-10		朝鮮大 物理大 授		宅 68-2035	505
湖鎬	1937	承旨公	" " " 21-18		教 世紀化學 代表		宅 22-8151	505
明奎	1914	縣監公	" 白雲洞 598-22				宅 66-7578	505

姓名	生年	系派	現住	所	職場 및 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秉翊	1942	縣監公	光州市 西區 白雲洞 35-9		신상회 院		宅 68-6609	505
榮洙	1945	"	" 月山 4洞 1050-5		恩聖 商		宅 33-8804 宅 22-5683	505
喆文	1932	"	" 月山 3洞 373-16		農 檢		宅 34-3906	505
秀國	1945	"	" 農城洞 640-28		光州 專賣支廳		宅 365-2087	505
相安	1937	"	" 花亭 2洞 765-79				宅 363-4065	505
燮正	1952	"	" 仁월동 414-8 7/2				宅 672-1657	505
石仁	1949	"	" 雙林洞 282-9		光州銀行 本店		宅 362-7014	505
南仁	1938	佐郎公	" 良一洞 307-17		商		宅 363-9295	505
南奇	1943	"	" 月山 3洞 353-15		天一 高速貨物		宅 524-1301~2 宅 33-5901	505
良鎮	1939	"	" 良一洞 5-122		商 會		宅 33-9053	505
良植	1946	"	" 花亭洞 三益맨션 3동 905호		거북 商		宅 55-9079	505
鳳吉	1918	典翰公	" " 809-27		商 務		宅 34-2688	505
忠元	1931	"	" 西洞 43-7		公 務		宅 68-4525	505
載元	1935	"	" " 72-9		韓 電 課		宅 66-5188	505
基玉	1941	"	" 花亭洞 住公아파트 11동 103호		公 務		宅 362-7849	505
永培	1943	"	" 珠月洞 " 57동 504호		公 事		宅 34-9720	505
玉彬	1944	"	" " 974-70		良洞 國 教 師		宅 66-5784	505
在基	1944	"	" 西洞 247-9		商		宅 68-9479	505
鍾鎬	1943	"	" 花亭洞 삼우아파트 5동 1003호		湖 南 商 社			505
相鎬	1947	"	" " 160-80		公 務		宅 33-4493	505
永鎬	1949	"	" " 781-92		韓 電 課		宅 34-4388	505
丁太	1927	承旨公	" 珠月洞 1280-4				宅 68-5383	505

姓名	生年	系派	現住所	職場及職位	經歷	電話番號	후원번호
泳源	1936	承旨公	光州市西區 芳林洞 삼일아파트 6동 505호	筱橋女商高教師		宅 36-2825	505
琦玉	1949	"	" 芳林洞 우진아파트 3동 301호	商		宅 362-3179	505
承駿	1930	"	" 月山洞 1020-38	會社	員	宅 34-0357	505
承完	1936	"	" 楊林洞 272-11			宅 68-2402	505
承東	1941	"	" 月山 4洞 1042-27			宅 34-6052	505
承夏	1949	"	" " 2洞 128-12			宅 362-0583	505
承錫	1942	"	" 芳林洞 936-7	會社	員	宅 66-1183	505
承柱	1946	"	" 白雲洞 26	會社	員	宅 68-8756	505
承柱	1934	"	" " "	警察	社	宅 68-0908	505
承南	1947	"	" 楊林洞 23-5	성무고	社	宅 68-8242	505
承南	1929	"	" 雙林洞 806-1	고물	商	宅 34-1285	505
承南	1943	承旨公	" 柳村洞 584	고물	商		505
承南	1947	"	" 柳村洞 2동 2번	畜精	業	宅 365-1500	505
承南	1949	"	" " "				505
承南	1941	"	" 月山洞 143-3				505
承南	1954	"	" 임암동 186			宅 363-9447	505
承南	1954	"	" 農城洞 369-7	會社	員	宅 66-7862	505
承南	1930	"	" 良 3洞 385-3 9/3			宅 364-2186	505
承南	1944	"	" 月山 3洞 254-77			宅 363-2706	505
承南	1950	"	" " 4洞 905-2				505
承南	1942	"	" 白雲洞 211-11	會社	員	宅 364-6074	505
承南	1948	"	" " 223-3	會運	業	宅 68-8408	505
承南		"		"	"	宅 672-2559	505

姓名	生年	系派	現住所	職場及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錫鎮	1941	承旨公	光州市西區 雙林洞 31-1			宅 34-7510	505
基倅	1917	"	" 尙武住宅 48號		前陸軍大領	宅 363-4548	505
相燦	1955	"	" 芳林洞 535-14	全南考試學院		宅 66-8216	505
泰甲	1940	"	" 白雲洞 77-8	光州市西區廳		宅 68-5515	505
炳鎮	1927	"	" 雙林洞 547-20	商		宅 363-8289	505
興文	1929	"	" 980-20	國校教師		宅 34-9773	505
文弘	1936	"	" 月山 4洞 文一맨션 1109호	"		宅 34-5494	505
鎮宇	1941	"	" 農城洞 158 17동 8번	商		宅 362-4009	505
光在	1939	"	" 松岩洞 260-1	自動車整備工業		宅 66-7821	505
在梧	1951	"	" 白雲洞 61-21	商		宅 68-2496	505
環二	1946	"	" 花亭洞 350-3			宅 363-4258	505
桂化	1939	"	" 月山洞			宅 68-0867	505
相楨	1930	"	" 雙林洞 1047	業		宅 363-2891	505
相禎	1918	"	" "	養鷄		宅 363-3145	505
馮壽	1940	"	" 白雲洞 66-3	運輸		宅 68-0853	505
相禎	1950	"	" 花亭洞 花亭아파트 8동 402호	삼양商		宅 363-1035	505
馮壽	1931	"	" 雙林洞 266-11	業		宅 34-8527	505
馮壽	1930	"	" 珠月洞 438-4	業		宅 66-4035	505
馮壽	1932	"	" 農城洞 645-21	建築		宅 365-2203	505
馮壽	1941	"	" 月山 4洞 948-8	高麗重機		宅 363-6983	505
馮壽	1944	"	" 月山洞 942-27	中學教師		宅 34-6983	505
馮壽	1918	進士公	" 西 1洞 164-2			宅 66-3583	505
馮壽	1941	"	" 白雲洞 646-2			宅 68-2994	505

姓名	生年	系派	現住	所	職場及職位	經歷	電話番號	學號
秀南	1943	進士公	光州市 西區 花亭 2洞 341-5		韓		宅 34-1208	505
金董	1913	承旨公	錦城市 二倉洞 166-1				宅 3166	570
炳燮	1923	"	木浦市 남교동 120				宅 2-1797	580
吉植	1932	"	順天市 稠谷洞					540
渭植	1939	"	麗水市 봉산동 270-39					542
秉彩		縣監公	康津郡 郡東面 新基里					570-56
右燮		"	"					570-56
秉來		"	"					570-56
秉謨		"	"					570-56
澤燮		"	"					570-56
燁燁		"	"					570-56
炯燁		"	"					570-56
淳龍		"	"					570-56
龍炫		"	"					570-56
燮烈		"	"					570-56
在烈		"	"					570-56
洋		"	"					570-56
乘湜		"	"	內洞里				570-56
千燮		"	"	"				570-56
秉烈		"	"	"				570-56
聖植		"	"	"				570-56

姓名	生年	系派	現住	所	職場 및 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喜淳	1921	縣監公	康津郡 郡東面	용소리				570-36
秉彩	1915	"	"	"				570-36
秉文	1925	"	"	"				570-36
聖二	1933	"	"	금강리				570-36
小炫	1937	"	"	龍沼里				570-36
正錫			"	內洞里				570-56
今錫			"	"				570-56
光雲			"	康津邑 송정리				570-50
育煥	1933	縣監公	"	郡東面 龍沼里			宅강진 3801	570-36
聖浩	1919	承旨公	高興郡 浦頭面	吉頭里 1187				543-21
一炳	1922	"	谷城郡 兼面	山亭里 316				500-21
完喆	1943	"	"	"				500-21
春燮	1932	"	"	"				500-21
斗炫	1935	"	"	"				500-21
元燮	1928	"	"	"				500-21
默喆	1960	"	"	"				500-21
明德	1952	"	"	"				500-21
德炫	1933	"	"	"				500-21
喜燮	1948	"	"	"				500-21
東然	1930	"	"	"				500-21
根燮	1934	"	"	"				500-21
復吉	1961	"	"	"				500-21
準杰	1921	"	"	"				500-21

姓名	生年	系派	現住	住所	職場及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善喆	1963	承旨公	谷城郡 兼面 山亭里					500-21
相杰	1923	"	"	"				500-21
贊然	1948	"	"	"	畜產業			500-21
進然	1946	"	"	"				500-21
忠然	1961	"	"	"				500-21
長然	1963	"	"	"				500-21
泳玉	1932	"	"	"				500-21
南鉉	1930	"	光山郡 松汀邑 元 2洞 680		日新相互 金庫 務 常務		宅 92-1803 宅 55-5093	501
同千			"	松汀里 西洞 1002				501
炳天		監察公	"	本良面 麥洞				501-82
泳柱		佐郎公	"	西倉面 西倉里 542				500-32
槿鎬	1948	典翰公	"	松汀邑 道山里 969-7	綾州驛 長		宅 92-8927	501
正龍	1937	承旨公	"	" 元 2洞 698-13	松汀 우 洞 子		宅 92-2688	501
玉根	1931	"	"	道湖里				501
賢相	1930	"	"	新洞 2區 950				501
洙源	1910	"	"	新野村里 532			宅 92-5323	501
洙鳳	1914	"	"	松汀里 560			宅 92-0908	501
洙東	1919	"	"	元洞	行政代書			501
漣用	1937	"	"	" 742				501
南善	1936	"	"	雲水里 387			宅 92-5854	501
東鉉	1942	承旨公	"	雲水里				501
同千	1935	"	"	西洞 1002	會社 員		宅 92-0583	501

姓名	生年	系派	現住	住所	職場及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炳準	1928	承旨公	光山郡 林谷面 鳥山里				宅 362-8086	502-81
炳來	1948	"	"					502-81
一柱	1961	"	"					502-81
用完	1921	"	沙湖里					502-81
北實	1933	"	"				宅 362-8358	502-81
福實	1938	"	"					502-81
泳喆	1961	"	"					502-81
東燮	1927	"	"					502-81
判圭	1954	"	飛鴉面 新昌里		國民校 教師		宅 523-5912	500-31
洙千	1920	"	平洞面 芝竹里				宅 92-3776	501-13
洙章	1926	"	西倉面 梅月里	東山村				500-32
龍鉉	1938	"	大村面 新壯里					500-33
以枉	1931	"	文平面 松山里 3千					570-82
善鎮	1930	"	南平面 平山里				宅 금성 32-7386	570-10
泳暫	1938	"	"					570-10
泳吉	1941	"	"					570-10
福根	1935	"	楓林里		養 鷄 業			570-10
炳植	1921	"	多侍面 新光里					570-81
同植	1930	"	"					570-81
福東	1928	"	山浦面 德禮里					570-19
鍾南	1922	"	南平面 南平里 16-1		光南注油所		宅 32-7036 宅 32-2331	570-10
洙東	1956	"	"					570-10

姓名	生年	系派	現住	所	職場及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雲植	1955	承旨公	羅州郡 南平面	南平里	商		宅 32-7428	570-10
漢燦	1928	"	"	楓林里			宅 32-7145	570-10
燦學	1939	"	"	" 3區			宅금성 32-3302	570-10
鳳南	1924	"	茶道面	松鶴里 2區				570-12
八圭	1925	"	鳳凰面	竹石里			570-12	
燦鍾	1933	"	"	"			570-12	
然宗	1923	"	"	"			570-12	
東燦	1957	"	南平面	蘆洞里			570-10	
鳳燦	1925	"	"	"			570-10	
泳龍	1922	"	"	藍石里			570-10	
正允	1946	"	"	平山里	570-10			
洙正	1932	"	老安面	永平里	570-18			
在殷	1932	進士公	潭陽郡 金城面	鳳棲里 939 臥龍村	宅金城 82-4150	500-10		
完完	1932	承旨公	" 昌平面	廣德里	500-13			
昌鈺	1939	進士公	" 金城面	鳳棲里 340	宅 82-4122	500-10		
守岩	1903	"	"	" 341	500-10			
九奎	1946	"	"	" 384	宅 82-4264	500-10		
權權	1918	"	"	" 384	500-10			
東權	1934	"	"	" 397	宅 82-4172	500-10		
昇權	1942	"	"	" 397	500-10			
在萬	1946	"	"	" 384	500-10			
洪燮	1924	"	"	" 362	宅 82-4129	500-10		
昌雄	1941	"	"	" 340	宅 82-4255	500-10		

姓名	生年	系派	現住	所	職場及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度昌	1935	進士公	潭陽郡 金城面 鳳樓里 344				宅 82-4393	500-10
浩昌	1938	"	" " " 381				宅 82-4550	500-10
參和	1954	"	" " " 357				宅 82-265	500-10
鍾湜	1946	"	" " " 397				宅 82-4270	500-10
權樺	1930	"	" " " 397					500-10
雄平	1939	"	" " " 931					500-10
粹在	1933	"	" " " 926					500-10
豐在	1937	"	" " " 930		公務員		宅 82-4315	500-10
鎬容	1939	"	" " " 927				宅 82-4116	500-10
訓在	1945	"	" " " 934				宅 82-4492	500-10
煥在	1938	"	" " " 929				宅 82-4174	500-10
基在	1951	"	" " " 932				宅 82-4308	500-10
鉉在	1943	"	" " " 734					500-10
燮在	1914	"	" " " 926					500-10
燮丙	1919	"	" " " 926					500-10
一在	1936	"	" " " 930				宅 82-4537	500-10
正吉	1942	"	" " " 927					500-10
鎬正	1947	"	" " " 927				宅 82-4152	500-10
玉在	1922	"	" " " 930				宅 82-4315	500-10
燁在	1941	"	" " " 940					500-10
善在	1922	"	" " " 992				宅 82-4218	500-10
福在	1915	"	" " " 1095				宅 82-4229	500-10
金在	1946	"	" " " 1006					500-10

姓名	生年	系派	現住所	職場及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成烈	1912	進土公	潭陽郡 金城面 鳳樓里 1094				500-10
鍾仁	1956	"	" " " 933	公務員		宅 82-4152	500-10
鍾大	1947	"	" " " 1123				500-10
龍在	1919	"	" " " 940			宅 82-4151	500-10
吉在	1951	"	" " " 935				500-10
元鍾	1925	"	" " " 938			宅 82-4124	500-10
鏞鏞	1948	"	" " " 938				500-10
鉉洛	1936	"	" 潭陽邑 川邊里 1-3	商		宅 2-2321	500-10
鎬炳	1939	"	" " 지침리	"			500-10
長鎬	1917	"	" 金城面 大成里				500-10
判用	1915	"	" " 德成里				500-10
春南	1922	承旨公	務安郡 海際面 石龍里			宅 154	580-44
奉碩	1922	"	" " " "				580-44
仁泳	1932	"	" " " "				580-44
龍桓	1935	"	" " " "				580-44
權炳	1935	"	" " " "				580-44
順桓	1935	"	" " " "				580-44
岩桓	1937	"	" " " "				580-44
洙定	1944	"	" " " "				580-44
洙炳	1919	"	" " " "				580-44
鳳五	1921	"	" " " "				580-44
先桓	1923	"	" " " "				580-44
述東	1923	"	" " " "				580-44

姓名	生年	系派	現住	所	職場 및 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南元	1915	承旨公	務安郡 海際面 石龍里					580-44
廣龍	1917	"	"					580-44
成奉	1919	"	"					580-44
永奉	1925	"	"					580-44
石順	1925	"	"					580-44
洪洙	1927	"	"					580-44
同春	1929	"	"					580-44
今龍	1929	"	"					580-44
南龍	1931	"	"					580-44
春變	1935	"	"					580-44
廣變	1932	"	"		高 校			580-44
慶權	1944	"	"		校			580-44
漢變	1944	"	"					580-44
哲雄	1944	"	"					580-44
學變	1948	"	"					580-44
奇變	1949	"	"					580-44
善日	1949	"	"					580-44
昌均	1949	"	"					580-44
容哲	1947	"	"					580-44
成變	1952	"	"					580-44
桓京	1958	"	"					580-44
桓必	1957	"	"					580-44
相哲	1959	"	"					580-44

姓名	生年	系派	現住	所	職場及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敏煥	1960	承旨公	務安郡 海際面 石龍里					580-44
今碩	1960	"	"					580-44
海路	1965	"	"					580-44
永吉	1966	"	"					580-44
廣洙	1932	"	"					580-44
桓元	1934	"	"					580-44
龍植	1924	"	"					580-44
元燮	1944	"	"					580-44
寬燮	1945	"	"		公 務 員			580-44
三萬	1950	"	"		"			580-44
明哲	1940	"	" 洋月里					580-44
正植	1934	"	" 一老邑 上新基里					580-81
千植	1927	"	"					580-81
六根	1949	"	"					580-81
判植	1948	縣監公	"					580-81
廷午	1927	"	"					580-81
英植	1933	承旨公	"					580-81
金柱	1930	"	" 務安邑 校村里					580-81
允燮	1951	"	" 望雲面 斗牟里				宅무안 2522	580-40
能萬	1948	"	" 牧東里		獸 醫 師		宅망운 50	580-43
五峯	1949	"	" 寶城郡 會泉洞 都農里					544-16
圭圭	1918	縣監公	" 寶城邑 쇄상리 4구					544
秉奎	1923	"	"					544

姓名	生年	系派	現住	所	職場及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宗 鉉	1901	承旨公	寶城郡 文德面 陽洞里					544-13
永 來	1920	"	" 後橋邑 七洞里					543
寅 洪	1921	將仕郎公	昇州郡 松光面 九龍里 856					543-43
田 松	1951	"	" "					543-43
季 淳	1921	"	" "					543-43
東 淳	1928	"	" "					543-43
貴 松	1935	"	" "					543-43
仕 淳	1918	"	" "					543-43
致 淳	1930	"	" "					543-43
泳 淳	1916	"	" "					543-43
判 淳	1939	"	" "					543-43
仁 濟	1938	"	" "					543-43
大 洪	1925	"	" "					543-43
洪 淳	1937	"	" "					543-43
相 鉉	1908	"	" "					543-43
永 鉉	1916	將仕郎公	" "					543-43
基 淑	1931	"	" "					543-43
良 鉉	1914	"	" "					543-43
相 玉	1930	"	" "					543-43
相 年	1941	"	" "					543-43
寬 浩	1916	"	" "					543-43
日 淳	1932	"	" "					543-43
進 浩	1929	"	" "					543-43

姓名	生年	系派	現住所	職場 및 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正運	1948	承旨公	昇州郡 雙岩面 竹鶴里	商		宅 54-5422	540-14
光根		縣監公	新安郡 안좌면 남정리 마동				580-13
秉丕		監察公	" 후산면 테리 목포상회				580-16
善植	1932	承旨公	靈光郡 弘農面 月岩里 월평 230				501-27
欽欽	1930	"	" 大馬面 月山里				501-28
元大	1926	典翰公	靈岩郡 郡西面 東鳩林里 51	農務員		宅 郡 서 300	570-26
澄在	1930	"	" " 297	公		宅 " 253	570-26
燮今	1937	"	" " 299-2	農務員		宅 " 234	570-26
薰在	1930	"	" " 358	前郡西面長		宅 " 64 직 郡 서 303	570-26
潤在	1941	"	" " 359			宅 " 219	570-26
湘在	1938	"	" " 377	郡西農協組合長		宅 郡 서 46 직 15.16.249	570-26
勳在	1921	"	" " 394			宅 " 159	570-26
鎬在	1928	"	" " "			宅 " 30	570-26
燮在	1912	"	" " "				570-26
鉉在	1918	"	" " "				570-26
暻在	1922	"	" " "				570-26
出在	1931	"	" " "				570-26
玉在	1936	"	" " "				570-26
浩在	1926	"	" " "				570-26
旭在	1932	"	" " "	商			570-26
珍在	1929	"	" " "				570-26

姓名	生年	系派	現住	所	職場及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燮君	1921	典翰公	靈岩郡 郡西面 東鳩林里		國民校長			570-26
良龍	1932	"	"					570-26
周在	1929	"	"					570-26
在在	1933	"	"	(東溪)				570-26
在在	1933	"	"					570-26
在在	1937	"	"					570-26
在在	1934	"	"					570-26
在在	1938	"	"					570-26
在在	1938	"	"					570-26
在在	1934	"	"					570-26
在在	1931	"	"		農			570-26
在在	1963	"	"					570-26
在在	1901	"	"					570-26
永云	1937	承旨公 典翰公	靈岩邑 校洞里 341		土組 職 員		宅영암 2256 3141	570-20
忠	1945	"	郡西面 東鳩林里		商社 員 員			570-26
再文	1936	"	靈岩邑 西南里 16		會公 務 員			570-26
權在	1945	"	郡西面 東鳩林里		公 務 員			570-26
在在	1958	"	"					570-26
在在	1941	"	"					570-26
在在	1944	"	"		公 務 員			570-26

姓名	生年	系派	現住	所	職場及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珍 燮	1940		靈岩郡	郡西面 東鳩林里	會社 員			570-26
一 夫	1939		"	"	" 員			570-26
坪 秀	1936		"	"	公 務 員			570-26
勳 燮	1925		"	"				570-26
乃 允	1959		"	"				570-26
勢 炫	1934		"	"				570-26
阪 炎	1932		"	"				570-26
在 三	1932		"	"	농			570-26
在 樹	1912		"	"				570-26
漢 鎬	1945		"	"				570-26
正 植	1937		"	"				570-26
正 童	1939		"	"				570-26
炯 九	1939		"	"				570-26
千 鎬	1937		"	"				570-26
哲 雄	1964		"	"				570-26
在 庚	1935		"	"	公 務 員			570-26
在 熙	1921		"	"				570-26
云 龍	1947		"	"				570-26
永 鎬	1937		"	"				570-26
在 徽	1926		"	"				570-26
基 鍾	1960		"	"				570-26
在 陸	1949		"	"				570-26
春 鎬	1944		"	"				570-26

姓名	生年	系派	現住所	職場及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侑東	1960		靈岩郡 郡西面 東鳩林里				570-26
在貴	1941		" "				570-26
在南	1923		" "				570-26
鎬成	1946		" "				570-26
在權	1929		" "				570-26
燮燮	1906		" "				570-26
金秉	1945		" "				570-26
才律	1915		" "				570-26
童權	1921		" "				570-26
在俊	1944		" "				570-26
幸鎬	1917		鶴山面 新德里				570-26
吉鎬	1952		" "				570-27
甫鎬	1917		" "				570-27
永鎮	1930	承旨公	長城郡 長城邑 丹光里				502
興鎮		"	" "				502
龍文	1911	"	" 鈴川里				502
在欽	1933	"	森西面 금산리				502-13
東欽	1924	"	" 石馬里				502-13
一奉	1922	"	南面 平山里				502-17
八龍	1930	"	" "				502-17
一萬	1939	"	" "				502-17
聖烈	1925	縣監公	長興郡 長興邑 연곡리				570-40

姓名	生年	系派	現住	所	職場及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元俊	1920	承旨公	珍島郡 珍島邑 東外里					580-30
元益	1932	"	" "					580-30
元植	1948	"	" 雙井里					580-30
元奎	1947	"	" 射亭里					580-30
雲玉	1920	"	" 古郡面 柳橋里					580-33
圭生	1934	"	" "					580-33
知玉	1940	"	" "					580-33
喜正	1933	"	" "					580-33
祥柄	1939	"	" "					580-33
圭碩	1930	"	" "					580-33
世昌	1951	"	" "					580-33
喜生	1935	"	" "					580-33
喜玉	1935	"	" "					580-33
傳正	1937	"	" 古郡面 柳橋里					580-33
永南	1960	"	" "					580-33
鳳起	1952	"	" "					580-33
炳基	1922	"	" 碧波里					580-33
文星	1950	"	" "					580-33
基準	1949	"	" 五柳里					580-33
圭基	1950	"	" "					580-33
準鎬	1952	"	" 모사리					580-33
明永	1955	"	" "					580-33
吉福	1949	"	" 郡內面 德柄里					580-34

姓名	生年	系派	現住	所	職場 및 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正桓	1928	承旨公	珍島郡 郡內面 德柄里					580-34
明煥	1932	"	"					580-34
周煥	1946	"	"					580-34
桓奎	1929	"	"					580-34
炳昊	1916	"	"					580-34
炳敏	1924	"	"					580-34
洙仁	1932	"	"					580-34
洙喆	1945	"	"					580-34
洙石	1950	"	"					580-34
今烈	1926	"	"					580-34
承林	1930	"	"					580-34
圭潤	1947	"	"					580-34
千洙	1980	"	"					580-34
甲洙	1953	"	"					580-34
東玉	1919	"	"					580-34
興玉	1924	"	"					580-35
捷千	1938	"	"					580-35
准千	1950	"	"					580-35
壽福		監察公	威平郡 威平邑 大德里 1006				宅합평 2122	572-10
長源	1910	"	"					572-10
基永		"	"					572-10
正洙	1939	承旨公	"				宅月也 111	501-15

姓名	生年	系派	現住	所	職場 및 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卓琮		監察公	威平郡 威平邑 大德里 교양					572-10
卓錫		"	"	"				572-10
工千		"	"	"				572-10
贊錫		"	"	"				572-10
永吉		"	"	"				572-10
永判		"	"	"				572-10
植南		"	"	"				572-10
東均		"	"	"				572-10
允基	1949	"	海南郡 海南邑 평동리				宅해남 2-4996	573
在襄	1929	承旨公	和順郡 和順邑 鄉廳里 46		和社 鑛		宅화순 2-2206 직 2201	500-80
慶鎮	1923	"	東面 梧桐里 150			前 面 長	宅장동 77	500-44
在善	1922	"	"	"				500-44
煥煥		"	"	栢龍里				500-44
洙雲	1910	"	和順邑 앵남리					500-80
相柱	1914	"	"	二十谷里				500-80
有文	1916	"	"	三川里			宅 2-2581	500-80
昌俊	1928	"	"	茶智里			宅 2-3244	500-80
泳文	1938	"	"	"	會 社		宅 2-3793	500-80
炯俊	1909	"	"	"		前中學校校長		500-80
大德	1936	"	"	"	公 務		宅 2-3059	500-80
泳德	1932	"	"	"	員			500-80

姓名	生年	系派	現	住	所	職場及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鍾五	1921	承旨公	和順郡	和順邑	茶智里				500-80
泳昌	1953	"	"	"	"				500-80
鴻柱	1945	"	"	"	"	員			500-80
錫鉉	1928	"	"	"	"	務社		宅 2-3131	500-80
泳昌	1957	"	"	"	"	員		宅 2-3682	500-80
炳道	1939	"	"	"	"	社		宅 2-3922	500-80
炳宇	1948	"	"	"	"	員			500-80
岩柱	1943	"	"	"	"	"		宅 2-3717	500-80
賢柱	1945	"	"	"	"	"		宅 2-2738	500-80
應洙	1937	"	"	"	"	"		宅 2-3055	500-80
泳一	1949	"	"	"	"	"			500-80
洙鉉	1931	"	"	"	"	務員		宅 2-3575	500-80
鎮東	1925	"	"	"	"	社		宅 2-2754	500-80
起泰	1946	"	"	"	"	員			500-80
炳泰	1958	"	"	"	"	"			500-80
泳玉	1939	"	"	鄉廳里		長		宅 2-2428	500-80
鐵鎮	1933	"	"	"		係		宅 2-3738	500-80
東梧	1938	"	"	碧蘿里					500-80
泳龜	1914	"	"	"				宅 2-2129	500-80
泳錫	1917	"	"	"					500-80
泳模	1923	"	"	"					500-80
泳三	1930	"	"	"				宅 2-3105	500-80
海鉉	1938	"	"	"					500-80

姓名	生年	系派	現居	住所	職場及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泳炳	1929	承旨公	和順郡	和順邑 碧蘿里	商		宅 2-2662	500-80
舜	1920	"	"	鄉廳里 158			宅 4065	500-80
莫在	1922	"	"	三川里			宅 2-2532	500-80
次	1918	"	"	"			宅 2-3558	500-80
權	1955	"	"	"			宅 2-3227	500-80
植	1915	"	"	"				500-80
陽	1950	"	"	"			宅 2-3729	500-80
相	1932	"	"	"				500-80
泳	1928	"	"	"			宅 2-2938	500-80
義	1918	"	"	"	商		宅 2-3475	500-80
在	1943	"	"	"				500-80
炯	1918	"	"	"				500-80
相	1967	"	"	"				500-80
植	1943	"	"	"	中學教員			500-80
基	1936	"	"	"	社			500-80
文	1939	"	"	"	"			500-80
辰	1931	"	"	廣德里				500-80
寶	1952	"	"	"				500-80
鍾	1950	"	"	"	會			500-80
柱	1933	"	"	"	社		宅 2-3591	500-80
瑄	1939	"	"	"	"			500-80
連	1916	"	"	連陽里	"		宅 2-2316	500-80
判	1903	"	"	"				500-80

姓名	生年	系派	現住	所	職場	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弼 鍾	1945	承旨公	和順郡	和順邑	新基里				500-80
亨 鍾	1948	"	"	"	"	會社			500-80
龍 根	1962	"	"	"	甘道里				500-80
鉉	1949	"	"	"	桂所里				500-80
龍 洙	1922	"	"	"	"				500-80
昌 柱	1954	"	"	"	"	公務員		宅 2-2230	500-80
榮 鉉	1921	"	和順郡	南面	沙坪里				500-45
千 洙	1937	"	"	"	院里				500-45
炯 烈	1960	"	"	"	檢山里				500-45
永 洙	1940	"	"	"	院里				500-45
又 鎮	1898	"	"	"	"			宅沙坪 354	500-45
鍾 燮	1942	"	"	"	碧松里				500-45
春 燮	1930	"	"	綾州面	白岩里				500-45
八 萬	1921	"	"	"	井南里				500-70
忠 餅	1932	"	"	"	"				500-70
德 煥	1967	"	"	"	南亭里			宅綾州 558	500-70
承 完	1936	"	"	"	"			宅 " 363	500-70
大 燮	1932	"	"	"	白岩里			宅 " 551	500-70
京 燮	1944	"	"	"	"				500-70
成 燮	1946	"	"	"	"				500-70
璿 鉉	1932	"	"	東面	雲農里			宅壯東 167	500-44
炯 彩	1938	"	"	"	"	會社			500-44
用 文	1915	"	"	"	"				500-44

姓名	生年	系派	現住所	職場及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吉洙	1930	承旨公	和順郡 東面 雲農里				500-44
洙	1933	"	"				500-44
洙	1925	"	"				500-44
七	1928	"	"				500-44
洙	1940	"	"				500-44
海	1905	"	"				500-44
永	1938	"	"				500-44
洙	1943	"	"				500-44
承	1933	"	"				500-44
洙	1930	"	"				500-44
章	1909	"	" 景峙里	漢 醫 師			500-44
正	1942	"	"				500-44
永	1920	"	"				500-44
然	1915	"	" 梧桐里			宅壯東 425	500-44
浩	1930	"	"			宅 " 76	500-44
翰	1935	"	"	商		宅 " 45	500-44
昌	1934	"	"			宅 " 427	500-44
洙	1924	"	"				500-44
吉	1913	"	"				500-44
鶴	1917	"	"			宅壯東 424	500-44
正	1933	"	"				500-44
九	1940	"	"				500-44
晶	1946	"	"			宅壯東 426	500-44

姓名	生年	系派	現住所	職場及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鐵泳	1934	承旨公	和順郡 東面 梧桐里				500-44
洙明	1921	"	"				500-44
柱萬	1928	"	"				500-44
相寅	1933	"	"				500-44
柱得	1927	"	"				500-44
東根	1936	"	"			宅壯東 279	500-44
鍾永	1923	"	"			宅 " 417	500-44
國萬	1942	"	"				500-44
柱樑	1932	"	"				500-44
柱永	1937	"	"				500-44
在豐	1932	"	"				500-44
鳳鎮	1941	"	"				500-44
在天	1916	"	"				500-44
炳植	1922	"	"				500-44
洙彩	1952	"	"				500-44
在南	1935	"	"				500-44
鎮台	1935	"	"				500-44
柱甲	1954	"	"				500-44
利涉	1931	"	" 彥道里				500-44
洙達	1960	"	"				500-44
洙宗	1967	"	"				500-44
洙泳	1928	"	"				500-44
相吉	1948	"	"				500-44

姓名	生年	系派	現住	所	職場及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炳玉	1922	承旨公	和順郡 東面 瑞城里					500-44
保相	1964	"	"					500-44
龍涉	1934	"	"					500-44
泳國	1928	"	"					500-44
東柱	1909	"	" 栢龍里					500-44
栢桓	1913	"	"					500-44
宗桓	1933	"	"					500-44
春在	1949	"	"					500-44
鈺世	1926	"	"					500-44
烈東	1936	"	" 泉德里					500-44
龍伏	1915	"	" 福岩里					500-44
洙判	1928	"	" 玉壺里					500-44
洙熙	1932	"	"					500-44
洙鶴	1942	"	"					500-44
乘正	1936	"	"		會社	員		500-44
正泳	1940	"	" 壯東里					500-44
培京	1946	"	" 清豐面 閑池里					500-76
鉉鎮	1941	"	"					500-76
孔貞	1912	"	" 北面 瓦川里					500-42
鉉胤	1908	"	" 寒泉面 丁友里					500-71
胤大	1924	"	"					500-71
鉉善	1932	"	"					500-71
泳善	1924	"	"					500-71

姓名	生年	系派	現住	所	職場	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泳揮	1948	承旨公	和順郡 寒泉面 丁友里						500-71
福鉉	1937	"	" 盤谷里						500-71
日出	1920	"	" 東架里						500-71
俊鎮	1930	"	" 牟山里						500-71

〈慶尙北道〉

姓名	生年	系派	現住	所	職場 및 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龍 仁	1909	進土公	慶州市路西洞 45-1				宅 2-3064	681
主 主			" " 45-1				宅 2-2438	681
主 主			" 皇吾洞 128					681
主 主			" " 118-9					681
春 鳳	1921		" 路東洞 128				宅 2-2710	681
鍾 鍾			" 皇南洞 278-1				宅 2-2509	681
榮 上			" 城乾洞 351-3				宅 2-5167	681
根 煥	1945		" " 서강약국				宅 52-7738	641
淑 鉉	1928		龜尾市월평동주택 102-2				宅 2-2971	641
幸 仁	1933		" 벨라펜션 D-105					660
昇 洛	1928		安東市法興洞 63-5		國民學校教師		宅 52-6492	660
柱 萬	1937		" 太華洞 224-15				宅 2-7085	650
萬 壽	1925		榮州市하망 3 동 548-1					650
경 虹	1932		" 하마 2 동 1통4반					680
喆 淳	1922	佐郎公	浦項市龍興 1洞 126-3 11/4				宅 3-2572	680
壽 萬	1925	海陵君	" 海道동 66-20					680
			" 동민1가 63				宅 2-1177	680
			" 상대동 18-129				宅 72-0636	680
			" 海道2동 84-16				宅 72-3678	680
			" 海道동 414-22				宅 72-7890	680
			慶山郡慶山邑사정동 211				宅 82-1107	632
			" 瓦村面동강 1동					632-18

姓 名	生 年	系 派	現 住 所	職 場 및 職 位	經 歷	電 話 番 號	우 편 번 호
熙 俊	1928		慶山郡瓦村面동강 1동				632-18
英 俊	1954		" " 동강동 250			宅 479	632-18
淳 基	1936		" 慈仁面日彦洞 120				632-11
唱 榮	1946		" " "				632-11
潤 達	1914		" " "				632-11
淳 教	1928		" 慶山邑사정 1동				632
榮 泰	1947		" " "				632
榮 旭	1950		" " "				632
榮 煥	1953		" " "				632
沃 鉉	1952		" " 삼복 1동 99				632
鍾 鉉	1961		" " "				632
運 述			" 瓦村面외출2동 1				632-18
長 根			" " 동강1동 143				632-18
榮 浦	1942		" 押梁面현흥동 522				632-14
壽 鉉	1949		" " 감제동 291				632-14
淳 淳	1929		" 河陽邑청천동 369				632-17
鼎 達	1967		" " "				632-17
榮 三	1954		" 押梁面평산동 437				632-14
용 峰			" 珍良面선화3동 84				632-16
재 守			" 慈仁面신도동 126				632-11
鍾 五	1937		軍威郡孝令面마시동				630-41
鍾 鉉	1953		" " "				630-41
錫 錄			" 山城面백학2동 288				630-74

姓名	生年	系派	現住	所	職場及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鍾根			軍威郡山城面백학 2동					630-74
광은			" " "					630-74
昌九			" " "					630-74
春錫	1911		友保面달산 1동					630-73
홍근	1924		" " "					630-73
潤根			金陵郡甘川面양친동 386					640-16
德淳			達城郡嘉昌面용계동 304					630-25
永祐	1908	進士公	聞慶郡店村邑店村 2里 166-6				宅 4323	643
永彬	1921	"	" " 店村里 188-5				宅 2059	643
熙景		"	" 永順面浦內里		農場	經營	宅 2-4747	643-15
鶴九		"	" " 132					643-15
植植		"	" " 161					643-15
植木	1940	"	" " 170					643-15
木湜	1950	"	" " 102		里		宅 2-6956	643-15
湜鎬	1944	"	" " 72		果		宅 2-4745	643-15
鎬輔		"	" " "					643-15
輔植	1924	進士公	" " "					643-15
鎬鎬	1941	"	店村邑永新里					640-77
溥三	1933	"	永順面浦內里 145					643-15
熙三	1921	"	" " 150					643-15
雙龍	1946	"	" " "					643-15
學明		"	" " "					643-15

姓名	生年	系派	現住	住所	職場及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東大萬載	1935	進士公	聞慶郡永順面浦內里 179				宅 2-3251	643-15
植溥		"	" " 93				宅 2-6356	643-15
萬載		"	" " 155					643-15
圭溥	1936		" 虎溪面別岩 2里 463					640-77
溥植			" 永順面浦內里 156				宅 2-6929	643-15
溥植		進士公	聞慶郡永順面浦內里 157					643-15
水大		"	聞慶郡永順面浦內里 171					643-15
大在		"	" " 152					643-15
溥植		"	" " 152-1					643-15
鍾雲宗		"	" " 176					643-15
洪鍾		"	" " 175					643-15
鍾夔		"	" " 161				宅 2-7721	643-15
白一		"	" " 135					643-15
九伊		"	" " 152					643-15
鍾鶴		"	" " 144					643-15
明東		"	" " 174					643-15
鍾明		"	" " 132					643-15
東鍾		"	" " 162					643-15
明一		"	" " 140		郡保健所職員			643-15
永		"	" " 129					643-15
溥		"	" " 33					643-15
允		"	" " 146					643-15
湜		"	" " 94					643-15

姓 名	生 年	系 派	現 住 所	職 場 及 職 位	經 歷	電 話 番 號	우 편 번 호
錫 學			奉化郡小川面석포 2리				650-84
錫 永			奉化郡小川面석포 2리				650-84
仁 永			尙州郡咸昌邑允直里				640-75
植 榮			" 尙州邑남성동 98				642
相 永			" 咸昌邑允直里				640-75
琪 晚			善山郡長川面五老 2洞				630-54
圭 泰	1942		" " 상장동 72-1				630-54
百 敬	1938		安東郡一直面雲山洞				660-85
復 文	1934		" " 광연동				660-85
柱 東			盈德郡寧海面영해리	영해고등학교			680-35
永 炳	1916		" 柄谷面이천동 29				680-38
永 厚	1909		" " " 70				680-38
述 學	1934		" " " "				680-38
述 聖	1916		" " " 29				680-38
永 甲	1934		" " " "				680-38
鎮 東			" " " "				680-38
休 貞	1936		" " 원황동				680-38
斗 英	1910		" " 이천동 28				680-38
岩 壽	1936		" " 원황동 135				680-38
休 連	1933		" " 이천동 46				680-38
煥 壽	1928		英陽郡英陽面화친 1동				660-40
休 翊	1943		" 石保面홍계동				660-41
鎭 皓	1918	佐郎公	迎日郡延日邑自明洞 351			宅 74-4583	680

姓名	生年	系派	現住所	職場 및 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說洛			迎日郡延日邑自明洞				680
鎮一			" "				680
鎮九			" "				680
鎮浩			" "				680
求在			" "				680
泰光			" "				680
坤相			" "				680
台相			" "				680
元鎮			" "				680
泰鎮			" "				680
福五			" "				680
守哲			" "				680
淑相			" "				680
明源			" "				680
錫寅	1938	佐郎公	" 東海面藥田 3洞山 324-4				680-14
錫景	1948	"	永川郡고경면상리 2동 179				671-14
碩	1926		" " " 166				671-14
碩			" 琴湖邑大美洞				671-17
成鎮	1937		" 新寧面치산 2동				671-75
花珍			" " "				671-75
海植			" " "				671-75
又秀			" " "				671-75
伊俊			" " "				671-75

姓名	生年	系派	現住所	職場 및 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壽秀	1935	生員公	醴泉郡知保面首月 2洞 494			宅지보 358	650-35
連永東			" " 首月 2洞 842				650-35
厚澤			" " " 開浦面蠅洞				650-35
榮承	1935		" 知保面首月洞				650-74
東相	1918		" " " " 오심				650-35
榮圭	1933		" 開浦面우감 2동			宅 158	650-35
圭秀	1944		" " " 갈마리				650-74
龍燁	1930		" 知保面소화리				650-74
發鶴			" " 상월리				650-35
敏秀			" " 마상리				650-35
榮允			" " 마상리				650-35
東榮			" 首月 2洞				650-35
允東			" " " "				650-35
榮吉			" " " "				650-35
朝承			" " " "				650-35
榮承			" " " "				650-35

姓名	生年	系派	現住	所	職場 및 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甲榮			醴泉郡知保面首月 2洞					650-35
周榮			" "					650-35
守榮			" "					650-35
禹榮			" "					650-35
五榮			" "					650-35
照榮			" "					650-35
奎榮			" "					650-35
卓榮			" "					650-35
錫榮			醴泉邑왕신동					650-30
錫榮			" 백전동					650-30
錫榮			" 왕신동					650-30
榮得			" 대심동					650-30
榮在			" "					650-30
昊榮	1932		開浦面신읍리 252					650-74
奎榮	1944		" 우감 2동 393					650-74
圭榮	1931		" 신읍리 250					650-74
榮榮	1935		" " 256					650-74
默榮	1906		" 우감 2동 393					650-74
福榮	1934		" " 825					650-74
燁榮			" "					650-74
俊榮			鬱陵郡鬱陵邑도동 1동				宅 2000	680-60
鉉榮			" " 2동				宅 2938	680-60
洪榮			" " "				宅 2815	680-60

姓名	生年	系派	現住	所	職場 및 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煥			鬱陵郡鬱陵邑도동 2동				宅 3505	680-60
文			" " 사동 1동				宅 3597	680-60
勳			" " " 3동				宅 2049	680-60
昌			" " " "					680-60
炫			" " 지동 1동				宅 2278	680-60
權			" " " "				宅 2951	680-60
文			" " " "				宅 2966	680-60
海			" " " "					680-60
館			" " " "					680-60
炫			" " " 3동				宅 3000	680-60
植			" " 도동 3동					680-60
燦			" " " "				宅 3287	680-60
和			" " " "					680-60
云			" " " "					680-60
勳			" " " "					680-60
龍			" " " "					680-60
出			" " " "					680-60
煥			" " " "				宅 3625	680-60
炫			" " " "					680-60
植			" " " "					680-60
德			" " 西面 남양 2동					680-62
煥			" " " "					680-62
泰			" " " "					680-62
聖			" " " 1동					680-62

姓名	生年	系派	現住	所	職場 및 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世煥			울릉군서면남양 1동				宅 56	680-62
榮權			" "					680-62
正煥			" "					680-62
日煥			" "				宅 52	680-62
琪泰			" "					680-62
壽權			" "					680-62
榮坤			" "					680-62
洙漢			" 태하 2동				宅 114	680-63
權述			" "					680-63
述坤			" "					680-63
學浩			" 1동					680-63
植煥			" "					680-63
海煥			" 태하동					680-63
海煥			" 태하동				宅 142	680-63
尙子			" 1동					680-63
仁淳			" "					680-63
三達			북면현모 1동					680-61
榮榮			" "					680-61
			" "				宅 72	680-61
			" "					680-61
			" "					680-61
			" 2동					680-61
			" "					680-61
			" "					680-61
			" "				宅 74	680-61

姓名	生年	系派	現住所	職場 및 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琪昊			울릉군북면현모 2동			宅 7	680-61
龍鍾			" " " "			宅 78	680-61
植			" " 친부 1동			宅 140	680-61
源			" " " "				680-61
浩仁			蔚珍郡蔚珍邑新林里			宅 4209	680-40
錫	1924		" " " "			宅 2681	680-40
錫	1933		" " 음내里 410-7			宅 2-2600	680-40
錫	1938		" " 신림리				680-40
鎬	1944		" " " "				680-40
錫	1935		" " 음내리			宅 2-2198	680-40
柱	1945		" " 정림리				680-40
福			" " 음내리			宅 2-2814	680-40
柱			" " 신림리				680-40
崑			" " " "				680-40
柱			" " " "				680-40
柱			" " " "				680-40
錫			" " 新林里				680-40
錫			" " " "				680-40
錫			" " " "				680-40
模			" " " "				680-40
崇			" " " "				680-40
源			" " " "				680-40

姓名	生年	系派	現住	所	職場 및 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源基			蔚珍郡蔚珍邑고성 1리					680-40
源根			" "					680-40
炳道			" 화성 3리					680-40
炳烈			" 화성리					680-40
佐元			" 井林里					680-40
元錫			" 신림리					680-40
龍琪			" "					680-40
龍丕			" "					680-40
重慶			" 화성 2리					680-40
上宇			" "					680-40
光錫	1930		"北面 사계리					680-40
華錫	1933		" "					680-49
準錫	1940		" 釧城里					680-49
賢在	1924		" "					680-49
炳福			" 羅谷里					680-49
炳權			" 고목리					680-49
永燮			" 부구 3리					680-49
永壽			" 덕구 2리					680-49
相鎮			" 부구 3리					680-49
鳳鳳			" 금성리					680-49
錫在			" 사계 1리					680-49
元煥			" 遠南面대화리					680-45
龍柱			" 平海邑삼울 2리					680-41
洪鎮			月城郡安康邑老堂 1里					681-71

姓 名	生 年	系 派	現 住 所	職 場 及 職 位	經 歷	電 話 番 號	우 편 번 호
碩 洛			月城郡安康邑양월 2里				681-71
鍾 洛			" " 산대 2동				681-71
渭 龍	1917		" " 山內面일부 1동				681-18
琪 浩	1936		" " "				681-18
台 奉	1936		" " "				681-18
鎮 浩	1938		" " 建淸읍방내동 122				681-17
永 煥	1945		" " "				681-17
一 俊	1945		" " 모량 1동			宅 5-0460	681-17
元 默	1915		義城郡安平面石담 2동				670-20
海 鎮	1915		" " 新平面김곡동				670-23
精 萬	1935		" " 丹村面구계 동				670-71
柱 福	1924		" " 義城邑중리 동 699				670
炯 琪	1925		" " 후죽동 613				670
鎬 澤			" " 安平面석담 2동				670-20
永 洙			" " "				670-20
淳 澤			" " "				670-20
在 閏			" " "				670-20
在 鳳			" " "				670-20
基 台			" " "				670-20
再 鎮			" " "				670-20
華 默			" " "				670-20
在 鎬			" " 1동				670-20
永 默			" " "				670-20

姓名	生年	系派	現住所	職場 및 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求仁			義城郡安平面신월동				670-20
植周			" "				670-20
洙相			" "				670-20
鶴在			" " 박곡동				670-20
燮柱	1923		" " 금곡동				670-20
溥太	1923		" "				670-20
鏡柱	1923		" "				670-20
甲柱	1926		" "				670-20
壽柱	1923		" "				670-20
壽漢	1942		" "				670-20
弼柱	1923		" "				670-20
萬柱	1933		" " 누곡동				670-20
昌秀	1940		" "				670-20
弼式			" 比安面장춘 1동				670-21
우창			" "				670-21
수명			" "				670-21
陸柱	1923		" 新平面김곡동				670-23
胎柱	1938		" " 중윤 1동				670-23
九聖	1928		" " 청운 1동				670-23
秀仁	1933		" " " 2동				670-23
봉호			" 鳳陽面사부동				670-14
섭영			" "				670-14
부진			" 丹村面장림동				670-71

姓名	生年	系派	現住	所	職場及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龍鎮	1908		義城郡丹村面구계동 1千					670-71
實求	1921		"					670-71
哲求	1927		"					670-71
吉求	1931		"					670-71
仁求	1926		"					670-71
相求	1929		"					670-71
浩求	1931		"					670-71
泰求	1953		"					670-71
成求	1953		"					670-71
泰求	1924		"					670-71
種允	1939		"					670-71
斗容	1942		"					670-71
種祚	1912		"					670-71
種玉	1924		"					670-71
種永	1928		"					670-71
種延	1937		"					670-71
種榮	1944		"					670-71
種大	1947		"					670-71
種進	1954		"					670-71
種宋	1957		"					670-71
種萬	1957		"					670-71
種益	1942		"					670-71
宗煥			" 新平面검곡동					670-23
德鉉			" 安溪面용기 4동					670-22

姓名	生年	系派	現住所	職場 및 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鍾元	1945		清道郡雲門面대천동				631-13
鍾千	1947		" " 신원동				631-13
光福	1957		" 錦川面동곡동				631-12
龍培	1922		" 雲門面대천동				631-13
在奉	1927		" " "				631-13
煥岩	1912		靑松郡巴川面덕천 3동			宅 2-3297	660-32
石億			" 靑松邑월막동			宅 2-2191	660-30
潤石	1920		" 眞寶面진안동 122-11			宅 4-3127	660-31
四龍	1920		" " 진안 3동				660-31
鍾淳	1947		漆谷郡架山面다부동				630-53
德德	1950		" 倭館邑삼청동 456			宅 2-1177	633
淳八	1929		" " 왜관동 780				633
庚榮	1930		" 架山面학산동				630-53
俊鉉	1929		" " "				630-53
淳甲	1934		" " "				630-53
泰淳	1924		" " "				630-53
德淳	1927		" " "다부동				630-53
伯淳			" " "				630-53
日淳			" " "				630-53
榮斗			" " "東明面송산동				630-53
得己	1909		" " "倭館邑왜관동				630-52
吉榮			" " "				633

慶尙南道

姓名	生年	系派	現住	場所	職場 및 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光洙	1940		馬山市 陽德洞 92-5		榮興鐵鋼(株)理事		宅 56-5636 직 82-2241 서울 253-9304	610
泰仁			" 구암동 666-1	朝鮮麥酒馬山工場			직 0551-5-0171	610
在九			" 합성 2동 268				宅 7-0827	610
榮民	1949		" 구암동 코리아타코마 1-405				宅 5-8267	610
政男	1944		" 石田洞 150				宅 56-0889	610
春好	1952		" " 19-29				610	610
鍾泰	1949		三千浦市 東錦洞 129				宅 2-4807	620-40
洪今	1920		" " 8동 4반				620-40	620-40
泰汶	1961		" " 5동 1반				620-40	620-40
石洪	1956		" 大圃洞 37				620-40	620-40
世權	1932		" 東洞				620-40	620-40
俠道	1951		" 東錦洞				620-40	620-40
在甲	1932		" 대포동 331-4				宅 2-6983	620-40
성용			" 송포동				宅 4-2472	620-40
貳翁			" 동동 376				宅 2-8375	620-40
洙守			晋州市 七岩洞 531-20				宅 53-1586	620
晉甲			" " 517-11				宅 52-5028	620
榮燮			鎭海市 鏡華동 2가 1461	연립주택 203호			宅 2-1598	602
定源		海陵君	" 餘佐洞 1街 181-25				宅 3-1189	602
			昌原市 창곡동 286	1/3 안정차방			615	615

姓名	生年	系派	現住所	職場 및 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鍾禮	1928		昌原市 중안동 110			宅 82-5141	615
五圭	1954		" " 47-3 안홍식방				615
甲辰	1916		固城郡 上里面 武仙里				620-44
翼守	1922		" " 가동리				620-44
興老	1941		" " 下一面 春岩里 127				620-43
海貞	1937		" " " 47				620-43
興榮	1947		" " " "				620-43
德奉	1931		" " " "				620-43
海平	1936		" " " 53				620-43
甲甲	1916		" " 上里面 新村里				620-44
守守	1909		" " " "				620-44
護根		海陵君	密陽郡 密陽邑 內一 5洞 477				605
他實	1933		泗川郡 용현면 금문리				620-35
成鶴	1936		" " " "				620-35
千千			" " 正東面 장산리				620-32
봉봉			" " " "				620-32
珍珍	1942		蔚州郡 溫山面 방도리 158-2				690-12
澤澤	1927		晉陽郡 金谷面 省山里				620-25
吉吉	1945		" " " 818				620-25
相相	1917		" " " "				620-25
立立	1927		" " " 787				620-25
生生	1933		" " " "				620-25
董董	1935		" " " "				620-25

姓名	生年	系派	現住	所	職場 및 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鍾碩	1932		晉陽郡 金谷面	省山里				620-25
鍾仁	1944		" "	" 727				620-25
鍾文	1949		" "	" "				620-25
命秀			" "	" "				620-25
碩洙			" "	덕계리				620-25
贊贊	1934		昌寧郡 昌寧邑	교리 1036-5				610-50
鳳鳳			河東郡 岳陽면	하신대리				621-11
守龍		海陵君	咸陽郡 安義面	堂本里				640-51

濟州道 및 海外

姓名	生年	系派	現住	所	職場 및 職位	經歷	電話番號	우편번호
坦福		可評公	濟州市 三徒 1洞	579-7			宅 3-2947	590
鍾植	1925	佐郎公	" 연동	251-16 재원아파트 C동 307호			宅 7-3347	590
斗玉	1926	校理公	西歸浦市 中央洞	268-11			宅 62-7311	590-40
康勳	1932	縣監公	1140 WEST71 COURT	ANCHORAGE ALASKA U.S.A				
永宗		典書公	3000 BROADWAYTERR	MOORE CITY, OKLA 73160 U.S.A				

祝

宗 誌 發 刊

社團 韓 國 學 院 總 聯 合 會
法 人

事 務 處 長 順 炫

(大 宗 會 總 務 幹 事)

서 울, 西 大 門 區 北 加 佐 洞 300-18

電 話 職 798-8881~4

宅 372-3701

大 宗 會 組 織 幹 事 光 宇

서 울, 東 大 門 區 面 牧 2 洞 138-3

電 話 434-8048

大 宗 會 組 織 副 幹 事 光 勳

서 울, 東 大 門 區 面 牧 2 洞 133-24

電 話 434-7152

大 宗 會 事 業 副 幹 事 鮮 植

서 울, 東 大 門 區 清 涼 里 洞 604

電 話 964-9405

(祝)

宗 誌 發 刊

아늑한 안방 최신 시설 완비
회전식 차고 에리베이트 시설

迎 賓 閣 호 텔

代表 崔 萬 述

光州市 中興洞 713-32 電話 56-2234~8

自宅 光州市 中興洞 203 電話 33-1089

최덕영 소아과의원

院長 醫學博士 崔 德 潛

(縣監公派 30世孫)

光州市 北區 柳洞 60-3(아세아극장 옆)

電話 醫院 : 56-9720

自宅 : 56-6480

안모니아 벗짚사료 시공

개미산(목장에 희소식)

냉동공장 공급용 3톤 탱크노리 준비

세 기 화 학

代表 崔 湘 鎬

光州市 東區 所台洞 692-9

電話 22-2838, 22-5961

自宅 光州市 西區 芳林洞 21-18 電話 68-0149

金銀, 時計, 골동품

千 金 社 金 房

代表 崔 完 吉

光州市 東區 錦南路 5街 88-21

(반도전자 상가 앞)

電話 33-6160 自宅 33-8310

專門建設業

알미늄, 스텐레스製品 都小賣

利川金屬商社

代表 崔 昌 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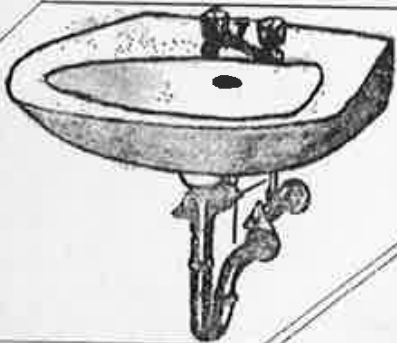
(縣監公派)

營業場所 : 서울 九老區開峰洞 353-1

電話 612-9666, 685-4445~6

自 宅 : 서울 江南區清潭洞 65 진홍아파트 6동 501호

電話 542-1935番



取扱品目

- 대림요업, 대림통상, 로얄-TOTO代理店
- 위생도기 및 각종타일 도산매
- American Standard, Kohler. (美國)
- TOTO, INA. (日本)
- GROHE. (西獨)



株式會社 永昌陶器

서울特別市 中區 乙支路三街 五一五

代表理事 崔 慶 善 (30代孫)

267-6811, 265-1436, 275-2270

266-1343, 266-0221

祝

海州崔氏宗誌創刊

技術과 精誠으로

역어내는

完璧한 品質!

高麗書籍株式會社
光明印刷公社

代表理事
社 長 許 喆 鍾

서울特別市 中區 萬里洞 1街 62-7

(392) 0671~9

編輯後記

◇ 이번의 宗紙 創刊號는 難産中の 難産이었다. 原稿의 蒐集 過程이 그러했고 蒐集된 原稿의 取舍 選擇, 그리고 整理 등 實로 힘겨운 作業이었다. 허기야 專門 分野의 일을 非專門人들이, 그것도 月刊 綜合誌 程度의 體裁의 冊을 編輯者 한 사람이 編輯制作을 맡는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큰 無理가 아닐 수 없었다.

◇ 特히 編輯을 하는 過程에서 編輯者는 문득 宋나라의 晁補之(1053~1110년)가 그의 文集에 이름 붙인 『鷄肋集』이 생각났다. 『鷄肋』이라는 成語의 出典은 後漢書나 三國誌의 주석에 曹操의 말로 나왔으며 그것은 “닭의 갈비는 버리기는 아까우나 그렇다고 탐스럽게 고기가 붙어 있는 것도 아니다” 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말하자면 버리기는 아깝고 收容(收錄)할 紙面도 마땅하지 않은 資料가 더러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台鎬 編纂委員長께서는 오래 臥病中에 계셔서 그러저러한 어려운 問題들을 相議 말씀 드릴 수 없음이 못내 안타까웠다.

◇ 또 一部 原稿를 1985年 10月中에 編輯 送稿하고 나머지 原稿가 12月 中旬에야 編輯者손에 넘어온 關係로 工場과의 送稿에 대한 一次約束이 지켜지지 않아 이것이 原因이 되어 年末 복새통에 그대로 밀려났고 定期刊行物 등에 밀리는 등 半年 가까이 印刷工場과 씨름을 해야만 했다.

◇ 아뭏든 역지가 四寸이라는 말대로 定期總會日을 데드라인으로 強行軍끝에 宗誌 創刊號는 그 모습을 드러 내놓게 되었다. 名單 및 宗親住所錄과 廣告 校正을 도와 주신 炳弼 事務局長, 本文 校正에 수고를 해준 祥明女大의 權惠淑先生, 마무리 校正을 맡아준 前 京鄉新聞 校正部出身의 劉榮日 兄에게 感謝를 드린다.

그리고 工場까지 親히 來枉 激勵해 주신 在衡大宗會長の 애뜻한 配慮에 새삼 敬意를 表하는 바입니다.

— 愚 —

大同譜 發刊 狀況

甲子譜	1744年	大宗會	備置
丁卯譜	1807年		
丙寅譜	1866年		
辛卯譜	1891年	大宗會	備置
己未譜	1919年	"	"
辛丑譜	1961年	"	"

海州崔氏宗誌 創刊號

1986年 4月 10日 印刷

1986年 4月 15日 發行

發 行 海州崔氏大宗會
會 長 在 衡

編 纂 宗誌編纂委員會
委 員 長 台 鎬

서울特別市 東大門區 上鳳洞 129-9(中浪橋소핑상가 201號)

電話 432-2014番

印 刷 高麗書籍株式會社

代表理事 許 喆 鍾

서울特別市 중구 만리동 1가 62-7 電話 392-0671-9

